국립국어원 2007-01-60

국어 연감

2007

국립국어원

차 례

Ⅰ. 2006년도 국어 분야의 주요 일지 · 5

Ⅱ. 국어 분야별 동향 · 33

【국어학 분야】

음성학 · 음운론 …… 신승용 · 35
형태론 …… 김인균 · 62
통사론 …… 이선웅 · 107
어휘론 · 의미론 …… 이찬규 · 152
국어정보학 · 사전학 …… 남길임 · 183
국어(학)사 · 계통론 …… 윤용선 · 206

【국어 생활 분야】

국어정책 · 사회언어학 …… 손희연 · 236
국어 교육 …… 민병곤 · 279
한국어 교육 …… 김재욱 · 343
여론과 쟁점 …… 김세중 · 382
남북의 규범어와 ≪겨레말큰사전≫ …… 한용운 · 395
국립국어원 동향 …… 이승재 · 421

Ⅲ. 국어학 관계 문헌 · 449

1. 분야별 논저 목록 ····· 451

국어 정책 ····· 451
국어 교육 ····· 465
한국어 교육 ····· 528
음성학 · 음운론 ····· 563
형태론 ····· 581
통사론 ····· 598
어휘론 · 의미론 ····· 621
국어(학)사 · 계통론 ····· 662
문자 · 표기 ····· 680
사회언어학 ····· 688
방언 ····· 700
사전학 ····· 706
국어정보학 ····· 710

2. 정기 간행물 목록 ····· 714

Ⅳ. 색인(논저자명) · 741

Ⅰ. 2006년도
국어 분야의 주요 일지

1월 4일 유네스코 조사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는 약 6000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50% 이상이 멸종 위기에 있다고 하였다. 한편 2100년 한국어의 운명에 대한 국내 학계의 전망은 오히려 사용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했다. 현재 한국어는 전 세계에서 7000만 명이 사용하여 13번째로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와 교육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 부처는 해외에 한국어 보급 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고 하였다.

1월 5일 국립국어원(원장 남기심)은 포르투갈, 네덜란드, 러시아 등 세 언어의 새로운 표기법을 고시했다. 이 표기법은 현지 언어의 발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월 9일 경희사이버대(총장 박건우)가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컨벤션 홀에서 시연회를 했다. 프로그램은 외국인, 해외 동포와 국내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에 접속해 한국어를 익힐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한류문화언어학과의 방성원 학과장은 "한류 붐에 이어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가 느는 아시아 지역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1월 10일 최근 미국 언어학자인 윌리엄 라보프 등 세 사람이 '미국 방언 지도'를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고 시카고 트리뷴지가 보도했다. 책의 정식 제목은 '북미 영어 지도: 음성학, 음운학, 발음변화'이며, 책 외에 CD롬도 만들어 400곳의 미국 대표 도시를 클릭하면 특정 단어에 대한 그 지역의 발음을 청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1월 1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어 교과 수업이 2008년부터는 1학년으로 앞당겨진다는 내용의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부산 진해, 전남 광양 등 3개 경제특구와 제주국제자유도시 초등학교에서는 수학과 과학 교과를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 몰입 교육'을 2008년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하였다.

1월 11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옥편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지석영의 『자전석요(字典釋要)』(1909년 7월)보다 앞서 1908년 11월에 나온 정익로의 『국한문신옥편』의 초판이 최근 공개됐다. 동서대학교 하강진 교수는 『한국문학논총』(41집)에 『국한문신옥편』 초판의 존재와 의미를 알렸다.

1월 13일 국립국어원(원장 남기심)은 글쓰기 지도와 글쓰기 연습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좋은 글의 요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하였다.

1월 13일 조선시대 숙종 때 서포 김만중이 쓴 한글 고소설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의 속편이 발견됐다고 하였다.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문학언어학회 학술대회에서 경북대학교 백두현 교수는 현재까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가 김만중 사후 50년쯤 뒤 쓴 것으로 추정되는 『사씨남정기』의 후속 편인 『속(續)사씨남정기』를 공개했다.

1월 15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한국 최초로 이학·공학·농학·의학 4개 이상의 학문분야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2만2000여 개의 용어를 표준화한 『핵심과학기술용어집』이 지난해 말 완성돼 이달 중 출간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1월 16일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위원회(위원장 황건)는 최근 1만1601여 개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의학 학술 용어를 보완한 『필수의학용어집』을 완성하여 동아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1월 17일 문화방송 아나운서들이 웹매거진 '언어운사(言語運

士)'(ann.imbc.com)를 창간했다.

1월 19일 국립민속박물관이 『한국세시풍속사전』 봄, 여름 편을 냈다. 민속박물관은 이에 앞서 2004년 정월 편을 발간했으며 금년 말까지 나머지 가을, 겨울, 부록 및 색인 편을 내 전 6권을 완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1월 22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일본식 지명을 옛 지명이나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지방자치법 및 측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교부 장관과 해당 지자체장이 일본식 지명을 고유 지명이나 우리말식으로 변경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연구사업도 실시하도록 했다.

1월 25일 국립국어원(원장 남기심)은 '머리(카락)에 영양과 수분을 주는 데 쓰는 물질'을 뜻하는 '헤어트리트먼트(hair treatment)'를 대신할 우리말 순화어가 '머릿결영양제'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1월 26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해(文解·문자해독)교육이 소규모 야학에서부터 전문 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두 수용하기엔 교육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성인이라는 특성을 감안한 전문 교재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했다.

1월 27일 새 국립국어원장에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상규 교수가 취임했다.

2월 1일 경기 의왕시의 한자 이름이 이르면 상반기 중 '의왕(儀旺)'에서 '의왕(義王)'으로 바뀐다고 하였다.

2월 4일 경희대학교 서정범 명예 교수의 어학 관련 글을 모은 전집(5권)이 출간됐다.

2월 5일 법제처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200개가량씩 모두

1000여 개의 법령을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월 7일 서울대가 2006학년도 1학기부터 129개 과목을 영어로 진행하고, 고난이도의 '고전 원전 읽기' 강좌를 신설해 졸업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월 8일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일상에서 점점 속어화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들을 적절한 우리말로 바꿔 정리한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하였다.

2월 10일 러시아 사할린의 유일한 한글신문인 새고려신문사 사장에 윅토리아 배(한국 이름 배순신) 씨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2월 13일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바른 용어 사전』을 만들어 금융회사에 나눠 주고 어려운 금융 용어 2만여 개를 바꿔 쓸 것을 권유했다고 하였다.

2월 15일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특별 수업', '고급 수업' 등의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마스터클래스(master class)'를 대신할 우리말 순화어가 '명인강좌'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2월 22일 서울대 권두환 교수가 도쿄대에서 발견한 『연암열하일긔』를 사진 자료 형태로 공개했다. 이는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한글로 번역한 필사본이며,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교수가 소장하고 있던 것이라고 하였다.

2월 24일 한국관광공사 로스앤젤레스지사(지사장 김태식)와 로스앤젤레스한인요식업협회(회장 이기영), 뱅크카드서비스(대표 패트릭 홍)는 지난 21일(현지 시간) 『한국 음식 메뉴 영문 표기 지침서』 3000부를 제작해 음식점에 무료로 배포했다고 하였다.

2월 26일 행정자치부는 행정 용어 명칭 사용 현황에 대한 표본조사와 행정 용어 개선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행정 용어 개선

을 위한 종합개선계획을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 1일 사법연수원은 원어민 강사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미법 강좌가 필수 과목으로 도입된다고 밝혔다.

3월 1일 필리핀 한인회 홍성천 이사장은 마닐라 중심가인 포트 보니파시오에 이르면 9월 중 유치원과 초·중·고교 과정의 '필리핀 국제한국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3월 7일 한글 인터넷 주소 업체 넷피아가 '한글 이메일 주소' 서비스를 내놨다. 이 서비스는 메일을 보낼 때 '@' 앞의 ID와 '@' 뒤의 계정 모두 한글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3월 8일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재산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肖像)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publicity權)'을 대신할 우리말 순화어가 '초상사용권'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3월 13일 육군은 최근 기존의 영문 이메일 주소 대신 ID와 계정을 한글로만 표기해 사용, 편리성을 높인 한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3월 15일 문화관광부는 국립국어원이 한류 드라마와 영화에 묘사된 한국 문화나 재미있는 한국어 표현 등의 학습 요소를 뽑아 전문가가 해설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개발·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16일 국립국어원 이상규 원장은 "국어원을 연구 중심에서 정책을 생산하고 실천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것"이며, "통일시대를 대비해 어문 정책을 표준어 중심에서 좀 더 포괄적인 '공통어'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들을 수렴해 이를 정책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3월 19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일제 강점기에 왜곡되거나 주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행정구역 명칭 일제 조

사 작업을 5월까지 벌여 명칭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 20일 한글날이 국경일로 제정된 것을 축하하는 '2006 한글날 큰잔치'를 준비하기 위한 기획 공청회가 서울 세종문화회관 콘퍼런스홀에서 열렸다.

3월 28일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노현정 아나운서를 국립국어원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하였다.

3월 28일 권영민 서울대 국문과 교수의 주도로 '인도, 동구권 한류(韓流) 지역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단'이 최근 발족했다고 하였다.

3월 31일 국학진흥을 위한 기획조사연구팀은 '한국고전번역원 및 부설 고전번역대학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열었다.

3월 3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중·고교 과정인 브리티시국제학교(BIC)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다고 하였다.

3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쉬운 말로 쓰인 설명서를 첨부한 의약품만 신규 허가를 내주고, 기존 의약품 설명서의 변경을 제약업체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경면(졸음)·교상(물린 상처)·미란(짓무름) 등 한자 표현은 한글로 바뀌고,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점증요법→점차 양을 늘리는 방법)도 쓸 수 없다고 하였다.

4월 1일 한새암 외 4명이 『전라도 우리 탯말』을 펴냈다고 하였다. 이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의 탯말과 관련한 책도 계속 펴낼 예정이라고 하였다.

4월 3일 경기 영어마을 파주캠프가 문을 열었다고 하였다.

4월 4일 경기도 2청사가 주관하고 연세대 한국어학당이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 '미2사단 장병을 위한 한국 역사·문화 강좌'가

2주 동안 진행된다고 하였다.

4월 4일 전남대 영어교육과 김달용 교수는 최근 삼국유사의 완역본 『Overlooked Historical Records of the Three Korean Kingdoms』를 출간했다고 하였다.

4월 7일 금융연수원과 은행연합회가 5권짜리 『금융실무대사전』을 발간했다.

4월 7일 법무부는 병역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혼혈인' 대신 '결혼 이민자의 자녀'란 용어를 쓰도록 했다고 하였다.

4월 7일 추계예술대학 문예창작과 김다은 교수는 신조어를 문화 비평적으로 고찰한 『발칙한 신조어와 문화 현상』을 출간했다고 하였다.

4월 10일 국어단체연합 국어상담소(소장 남영신)는 온라인 댓글의 언어폭력·훼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극단적인 정치색을 띤 진보적·보수적 사이트에서 인터넷 언어 환경을 악화시키는 악플들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13일 서울 신문로 한글학회에서 '인터넷 댓글의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고 하였다.

4월 10일 서구에 최초로 번역 소개된 한국 서적 『유합(類合·Lui Hŏ)』의 19세기 초 번역본이 발견됐다. 이 책은 독일인 지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가 1838년 네덜란드 라이덴(Leiden)에서 출간한 초판본으로, 최근 윤형원 아트뱅크 대표가 해외에서 입수해 공개했다.

4월 12일 권오운 시인이 유명 소설가 50여 명의 글 실수를 집어낸 책 『작가들이 결딴낸 우리말』을 출간했다고 하였다.

4월 18일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과 국립민속박물관(관장 김홍남)은 제주 지역어의 무형문화유산(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등재를 공동 추진하고, 이를 위해 제주 방언에 대한 언어

학·민속학적 조사를 함께 펼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4월 22일 한국사전학회는 서울대 멀티미디어 강의동에서 '정보화 시대의 사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하였다.

5월 1일 문화재청은 조선왕조의 창업을 칭송한 최초의 한글 서사시 〈용비어천가〉를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판본은 계명대 도서관 소장본으로 전 10권 중 권8~10의 3권이다.

5월 3일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정부부처 홈페이지에 국민 대다수가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외국어·외래어가 남발되고 있다고 하였다. 양명희 학예연구관은 "정부기관이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쓰려는 노력 없이 마구 쏟아내고 있다."며 "외래어·외국어를 전혀 쓰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정부 부처부터 한글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9일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과 문화관광부는 공무원들부터 쉽고 바른 우리말을 쓰도록 제1차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협의회에서는 어려운 한문 투와 영어 남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하였다.

5월 10일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바우처(voucher)'를 대신할 우리말 순화어가 '복지상품권'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5월 17일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프로슈머(prosumer)'를 대신할 우리말 순화어가 '참여형소비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5월 17일 이중언어학회(회장 송향근)는 전문 MC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숙 씨를 한국어 홍보 문화 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5월 18일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교과서 표기·표현 감수제 도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정을 맺었다. 교과서 표기·표현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고, 국립국어원이 교과

서를 감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였다.

5월 20일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6월 초 내부 토론회를 시작으로, 문화관광부 자문기구인 국어심의회 협의, 국어학계의 지식인과 문인 등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거쳐 9월 국어발전기본계획(5년 중기 계획)을 마련한다고 하였다. 김세중 국어정책팀장은 "현재의 표준어 정책은 변해야 한다."며 "사투리라도 여러 지역에서 의미 파악이 가능하고 두루 쓰이는 말들을 표준어에 적극 편입,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5월 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8년까지 영종도 운북복합레저단지에 중국어마을을 조성키로 하고 올 하반기 개발 기본 계획 수립 때 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하였다.

5월 24일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시행하는 외국 국가와 외국인 응시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였다. 올해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인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3개국에서 TOPIK이 처음 실시되고, 중국 내 시험 응시 장소도 기존 6개 지역에 톈진, 광저우 등 4개 지역을 추가해 모두 10개 지역으로 늘었다고 하였다.

5월 26일 지역 말 연구 모임인 '탯말두레'(회장 한새암) 회원 123명은 '현행 표준어 일변도의 어문 정책을 폐지하고 사투리를 지역 2세들에게 교육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지의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5월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서울시장이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버스 외관에 알파벳 영어 문자를 도색하도록 권고한 조치가 승객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한글문화연대가 제기한 헌법 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하였다.

5월 30일 서울대는 "일본 도쿄(東京)대학이 소장 중인 조선왕조실

록 오대산(五臺山) 사고(史庫)본 47책을 서울대 규장각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실록은 7월 초 돌아오는 대로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5월 31일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문화 예술 분야를 지원하는 기업들의 활동'을 가리키는 '메세나(Mecenat)'를 대신할 우리말 순화어가 '문예후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6월 7일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스폿(spot)광고'를 대신할 우리말 순화어가 '반짝광고'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6월 8일 미국 뉴욕에 인접한 뉴저지 주가 '포트리 3초등학교'를 시범 대상으로 정해 정규 수업을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진행하는 이중 언어 교육 도입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였다.

6월 11일 국제노동재단(이사장 박인상)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4개 국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 통역지원센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6월 12일 대전지법 민사1부(부장 손차준)는 성의 한글 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해달라는 柳 모 씨의 호적정정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호적정정을 허가했다고 하였다. 재판부 "성의 한글 표기에서 두음법칙을 강제하는 대법원 호적예규는 개인의 관행과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며 법률의 형식을 취하지 않아 무효"라고 밝혔다.

6월 21일 강동구가 국제결혼이나 산업 근로자로 한국에 온 외국인들을 위해 오는 7월부터 3개월간 '무료 한국어 강좌'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6월 21일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주인공의 여정(旅程)을 담고 있는 영화'를 뜻하는 '로드 무비(road movie)'를 대신할 우리말 순화어가 '여정영화'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6월 25일 주영(駐英) 한국대사관은 영국의 공인 시험 관리기관인 CIE가 한국어 시험지 개발 작업을 완료하고, 견본문제를 웹사이트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9월 학기부터 영국 중등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제2외국어 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됐고, 2007년 5월부터 GCSE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은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하였다.

7월 3일 10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갈수록 짧아지고 내용에서도 의미 변질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 언어 파괴와 한글 변용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장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하였다. 한글문화연대 김형배 학술위원은 "신세대들의 즉흥적이고 직설적인 사고방식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단순화된 언어로써 표출되는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표현 욕구를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언어가 지나치게 파괴되는 현상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월 3일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북한과 수화, 점자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11~14일 평양을 방문,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첫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하였다.

7월 5일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사장 고은)는 서울 백범기념관 대회의장에서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방향과 역사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7월 6일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행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십 년간 쓰이던 교정 관련 용어가 새롭게 바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형법→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교도소→교정시설' 등으로 대체하여 수용자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7월 11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2006년도 1차 정보통신

용어표준화 심의위원회'를 열고 70개 정보 통신 표준 용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7월 12일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경기, 울산, 대구, 전남 지역 310곳의 땅 이름을 중앙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또는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명이 바뀌거나 새로 부여된 곳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개명됐거나 유래와 명칭 등이 새로 밝혀진 곳들이라고 하였다.

7월 14일 이상규(국립국어원장), 김덕호(경북대), 강병주(영진대) 세 학자가 『언어지도의 미래』라는 책을 냈다고 하였다. 이 책은 지도와 언어를 결합한 언어지도 그리기 역사, 제작 원리와 방법을 탐색하고, 프랑스나 이웃 일본 등의 언어지도 제작 수준들과 함께 우리나라 언어지도 현황들을 소개하고 있다.

7월 18일 서울대 규장각 역주팀은 조선 16대 왕 인조의 첫째 아들 소현세자의 동궁일기 4종 25책을 처음으로 완역했다고 하였다.

7월 20일 SK커뮤니케이션즈 연구소는 하반기 인터넷 트렌드를 조명해볼 수 있는 하반기 IT 신조어를 발표했다. 므흣(흐뭇하다), 덜덜(덜덜덜 떨린다), 안습(눈물이 난다), 쌩얼(화장 안한 맨얼굴), 훈남(정이 가는 남자)과 같은 조어 등이 해당한다.

7월 24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과 '교과서 수정 TF'를 구성, 현행 교과서의 분석 작업을 벌여 총 800여 건의 오류를 가려내 이달 초 교육부에 수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7월 24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중견기자 코니강 씨(한국 이름 강견실)의 경어(敬語)를 사용하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기사 '당신을 알면 알수록 사랑해(To Know You Is to Love You)'가 미국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7월 25일 서울시 구로구와 종로구도 주민자치센터에 국내에 거주

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를 개설했다고 하였다.

7월 26일 문화관광부가 선정·발표한 우리 민족문화를 대표하는 '100대 민족문화상징'에 한글이 선정됐다고 하였다.

7월 27일 한글사랑운동본부(회장 차재경)는 제2회 한글 문화상품·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하였다. 이는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한글을 일상 속의 살아있는 문화로 퍼뜨리고자 하는 뜻에서 벌이는 행사라고 하였다.

8월 2일 국토지리정보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영문판 대한민국 전도 제작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내달 중순 최종 완성본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나라의 지명이 일본식 발음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자주 발견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올바른 지명 영문 표기법을 배포하기 위해 영문판 전도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8월 2일 미국 국방부가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아랍어 등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1천 달러(약 96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다.

8월 9일 행정자치부는 "일제 강점기에 왜곡되거나 주민이 사용하기 불편한 행정구역 명칭을 바꾸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비대상 명칭 104개를 선정, 올해 말까지 개정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8월 10일 미국 내 '한국학 대부'로 불리는 제임스 팔레 워싱턴주립대 한국학연구소 명예교수가 6일(현지시간) 향년 72세로 별세했다.

8월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0월 9일 '한글날 국경일 제정 기념주화'를 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8월 12일 미 의회 소속 정부회계감사원(GAO)이 상원 외교위원회에 보고한 '미 국무부 외국어 직무수행 평가서'에 따르면 '초고

난이도 언어'로 한국·중국·일본·아랍어 등 4개 언어를 꼽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초고난이도 언어'임에도 불구, 전체 한국어 필수요원 30명 중 17%인 5명만 한국어가 서툴렀다.

8월 24일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핫팬츠(hot pants)'를 대신할 우리말 순화어로 '한뼘바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9월 12일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슬롯머신(slot machine)'을 대신할 우리말 순화어로 '성인오락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9월 13일 특목고나 자사고의 입시에 언어 능력에 관한 평가로 국어 인증시험을 채택하고 있어 이를 준비하는 중학생이 늘고 있다고 하였다. 취업이나 전문대학원 입학에 성적이 반영되므로 성인 응시생도 많으며 이 시험의 영향력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다.

9월 15일 특허심판원은 특허판결문(심결문)에서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980개를 쉬운 용어로 바꾼 '심결문 용어 순화 편람'을 발간했다고 하였다.

9월 18일 여의도 연구소는 성인남녀 2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한글의 로마자 표기가 잘못됐다고 답했다고 하였다.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66.1%가 개정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다.

9월 18일 제560회 한글날을 맞아 오는 10월 14일 국립국어원 주최 '제1회 전국 국어대회 황금사전 선발대회'를 주관하는 전국 국어상담소 연합회의 남영신 회장은 "중학생의 어휘력과 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9월 21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24일 국내외 28개국 73개 지역에서 치러지는 제10회 한국어능력시험에 모두 3만3973명이 원서를 제출해 1997년 4개국에서 처음

시행했을 당시보다 응시자가 13배나 급증했다고 하였다. 이는 '한류 열풍' 등으로 해외에서 한국의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한국어의 인기도 높아진 결과이다.

9월 25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내년이면 강제 이주 70년째를 맞는 현지 고려인 사회는 급속한 해체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였다.

9월 25일 주요르단 한국 대사관은 요르단 국립대학이 내년 학기부터 한국어과를 개설키로 하고 교육부의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9월 27일 대경대 방송제작과 정희원 교수는 가장 많이 쓰는 명조체가 사실은 일본에서 개발된 서체라며 한글날을 앞두고 한글 서체 개발의 절박성을 호소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고 하였다.

10월 2일 문화관광부는 미국 하버드대 한국문학 교수이자 한국학연구소장인 데이비드 매캔(David McCann) 교수 등 7명을 한글발전유공자로 선정했다고 하였다. 한편 제25회 세종문화상 수상자로는 사단법인 한글문화연구회(대표 박용수) 등 5명이 선정됐다.

10월 3일 문화재청은 일제가 경복궁 후원으로서의 백악산 의미를 낮추기 위해 '북악산'으로 불렀던 것을 조선시대 각종 고지도 및 문헌에 근거해 '백악산'으로 다시 부르기로 했다고 하였다.

10월 3일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은 15년 만에 한글날을 국경일로 되살린 대한민국 국회를 올해 '우리말 으뜸 지킴이'로 선정했다. 반면 교육부는 우리말과 우리 문화 교육은 뒷전으로 하고 오직 영어 교육만 서두르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말 으뜸 훼방꾼'에 뽑았다고 하였다.

10월 3일 제560회 한글날을 앞두고 '제15회 전국 외국인 한글 백일장'이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이 백일장에는 미국, 러시아 등 59개국에서 온 1400여 명의 남녀 외국인이 참석했다.

10월 4일 올해부터 국경일로 승격된 한글날을 기념해 문화관광부는 9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국경일 승격을 경축하는 '훈민정음 반포 560돌 한글날 기념식'을 연다고 하였다. 국립국어원은 10월 중 원내 누리집에서 '디지털 한글박물관 특별전'을 열어 한글관련 국보와 보물을 특별 공개한다. 국립국악원은 11일 예악당에서 '여민락', '봉래의' 등 용비어천가 복원·재현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은행과 정보통신부에서도 한글날의 국경일 승격을 기념하는 기념주화 5만 개와 기념우표 160만 장을 발행하는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예년보다 푸짐한 문화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10월 4일 한글날을 앞두고 한글 창제의 의의를 설명해주는 역사동화 『초정리 편지』가 출간됐다. 이 책은 조선시대 하층민들의 삶에 파고든 한글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통해 한글의 위대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였다.

10월 8일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에 따르면 국어원이 운영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www.malteo.net)를 통해 지금까지 모두 110개의 외래어가 우리말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코드(code)'를 대신할 우리말 순화어로 '성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0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국어 실력이 영어 실력보다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10월 8일 롯데백화점은 백화점의 특성상 외래어 브랜드가 많아 신문 광고나 전단 제작 시 잘못된 표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른 표기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은 각 브랜드의 자문을 바탕으로 국립국어원으로부터 감수를 받았다고 하였다.

10월 8일 서울시는 문화재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글 비석으로 알려진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한글고비(古碑·서울시 유형문화재 27호)'의 보물지정을 신청했다고 하였다.

10월 8일 '세계 문자로서의 한글'을 추구해 온 이현복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류 열풍으로 드라마와 영화가 주목을 받으면서 한글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며 "한글의 세계화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그대로의 한글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아무리 외국인이 한글에 관심을 갖는다 해도 한글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소리와 음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 한글에 대한 관심 역시 한 순간에 사그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0월 8일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산하 한국글꼴개발원 박종국 원장은 "영어 글꼴은 2만개가 넘는데 한글은 고작 1,000개 정도"라며 "이마저도 우리 글꼴 디자인은 부족한 점이 많아 일본의 글꼴을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것처럼 베껴 쓰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였다.

10월 8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민법 용어를 쉬운 한글로 바꾼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발의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일본식 한자로 이뤄진 민법 용어와 문장을 우리말로 순화한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민법의 '사술(詐術)로써 능력자(能力子)로 믿게 한 때에는'은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이 무능

력자인 자신을 능력자인 것으로 믿게 하였을 때에는'으로 바뀌고, '표의자(表意子)'는 '의사표시자'로 바뀐다.

10월 8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882개사 중 한글과 한자로 된 회사명을 쓰고 있는 업체는 181개사로 20.7%에 그친다고 하였다.

10월 9일 공군교육사령부는 장병들이 군에 들어와 처음 접하는 신병교육부터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쓸 수 있도록 '언어폭력 안 하기 100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하였다.

10월 9일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2008년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에서 '종이사전' 대신 인터넷 '웹사전'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하였다. 국립국어원 이운영 연구원은 "웹사전 중심으로 운영하면 오류를 쉽게 수정할 수 있고 이용자들의 접근성도 높아진다."며 "국립국어원은 웹상에 더 방대한 자료를 구축해 일반 출판사들이 다양한 사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도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10월 9일 국어정보화를 하루빨리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국어정보화가 국어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음성 인식·기계 번역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어로 세계의 모든 문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개발할 뿐 아니라 이를 다시 세계에 전파한다는 점에서 국제 정보화 경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998년부터 10년 프로젝트로 '21세기 세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0월 9일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예비학부 어학원 과정이 국내에 설립된다고 하였다. 그동안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는 러시아에서 필수적으로 10개월 어학과정을 밟아야 했다. 그러나 이곳을 이용하면 국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5개월간 예비과정을 수료하고, 나머지 5개월만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예비학부에서 교육을 받으면 학부에 입학할 수 있다고 한다.

10월 9일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도현)가 제560돌 한글날을 맞아 국립국어원과 국어발전 및 보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정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지역주민과 공무원이 우리말과 글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 연구,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10월 9일 주로 10대 청소년층들이 사이버 상에서 한글 축약형, 비속어를 남발해 만들어낸 정체불명의 신조어들이 판을 친데 이어, 최근 들어 한글과 이상한 문자들을 혼용한 속칭 '외계어' 용어들이 급속히 퍼지면서 한글 파괴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속화하는 인터넷 언어파괴 현상이 한글오염 수준을 넘어 문화 파괴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들은 언어순화 캠페인 등 교육 정책과 네티즌들의 윤리의식 강화, 국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각인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10월 9일 채용 포털 커리어가 8일, 직장인 1999명을 대상으로 업무 중 국어 사용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들은 10점 만점에 평균 7.2점(상당히 중요)을 꼽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64.3%가 '업무환경이 디지털화 되면서 국어 사용 능력이 낮아졌다'고 답했으며 특히 언어 능력 중 '어휘력·문법(35%)'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0월 9일 한솔교육은 문화관광부와 함께 한국의 민족 문화를 소재로 한 초등학생용 단행본 『사진과 만화로 배우는 우리 문화 한(韓)』과 『우리민족 문화상징 100』 시리즈를 출간했다고 하였

다.

10월 10일 경기도가 오산, 화성, 평택 등 남부 지역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한글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 내용은 자음, 모음 등 한글쓰기, 인사말, 호칭, 교통수단 이용 등 실생활에 필요한 회화 실습 등이며 향후 나라별 문화 체험 행사를 상설화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10월 10일 관공서에서 주최하는 축제, 행사 등에 영어, 외래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수년째 이어지지만 국적불명의 이름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대구시는 2년 전 시 표어를 'Colorful Daegu'로 정한 뒤 지역 대표 축제인 '달구벌 축제'를 'Colorful Daegu Festival'이란 영문 이름으로 바꾸는 등 홍보문구나 축제, 예술관 이름 등에 무분별하게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역 모 대학 교수는 "공공기관의 홍보 문구 등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10월 10일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야구 경기에서 계투 요원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이기고 있는 채로 마무리 투수에게 넘겨주는 일'을 나타내는 '홀드(hold)'를 대신할 우리말 순화어로 '중간구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0월 10일 원광대 생명자원과학대 김중만 교수가 윷놀이에 사용되는 윷판의 29개 윷밭 모두를 한글로 표현했다. 그가 개발한 우리말 윷판은 29개 윷밭의 수와 한글 자음(14개)·모음(10개)·된소리(5개) 숫자가 같은 점을 착안해 고안됐다. 그는 한글로 형상화한 윷판으로 지난 7월 실용신안을 획득했고, 특허는 심사중이라고 하였다.

10월 10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이원범 부장판사는 25일 열리는 민사·사법 법관연수회에서 판결문을 쉽게 쓸 수 있는 방안

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은 핵심은 짧고, 간결한 문장과 단락을 나눠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이 논증과 법리를 따져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결국은 소송 관계인에게 읽히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라며 "한 문장이 길어도 100자를 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0월 10일 한글문화연대(대표 김영명)는 KBS1, 2와 MBC, SBS, EBS, YTN 등 6개 채널 412개 프로그램의 외국어 사용 실태를 조사해 최근 발표했다. 프로그램 제목의 경우 외래어를 포함한 제목이 246개로 전체의 59.7%에 달했으며, 순수 외국어로 된 프로그램은 123개로 29.9%나 된다고 하였다. 조사자인 김형배 학술위원은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표제어 가운데 순수 서양 외래어는 5.4%, 서양 외래어가 섞인 말까지 합하면 9.2%에 불과하다."며 방송사들의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을 비판했다.

11월 1일 대구대학교가 제80회 점자의 날(11월 4일)을 앞두고 우리나라 최초의 점자출판박물관을 캠퍼스 내에 개관한다고 하였다. 오는 3일 개관하는 대구대 점자도서관 2층 점자출판박물관은 297㎡ 규모의 전시장에 109㎡ 규모의 체험장으로 구성되고 국내외 점자 도서 및 출판 기기 등 총 336점이 전시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11월 2일 서울시와 한국갤럽의 '서우얼 사용실태 및 이미지 분석'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10명 중 4명 정도는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을 '한청(漢城)'보다 '서우얼(首爾)'로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 결과는 지난 9~10월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충칭 등 4개 도시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하였다.

11월 3일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영어 교육 혁신 방안' 등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하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16년 이후에는 모든 초·중·고 영어교사가 수업을 영어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초·중·고교생 대상의 영어능력 인증제가 도입되며, 영어 학습을 위한 위성텔레비전 채널도 마련된다. 농촌·산촌·어촌 초등학교에는 영어 체험 학습 센터도 구축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11월 9일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서명선)은 프레스센터에서 '성평등한 미디어 언어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신문과 방송, 인터넷 언론 등 미디어 언어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성평등한 미디어 언어 개발과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였다.

11월 14일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한자나 일본식 표현 대신 쉬운 용어를 쓰도록 당부하고, 보험업법과 감독규정 등에 담긴 어려운 보험 용어도 고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쳐 써야 할 보험용어로는 가지급 보험금(우선 지급 보험금), 연납 보험료(해마다 내는 보험료) 등 74개를 제시했다.

11월 14일 발해사 연구학자인 홍콩 능인서원 한국학과 김광석 교수는 발해인들이 남긴 문자 128자 가운데 65자의 의미를 풀어낸 뒤 뜻이 맞도록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발해문자를 일부 해독했다고 밝혔다.

11월 14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 산하 중국어국제연구회 사무처가 레바논 베이루트의 성조셉 대학과 공자연구원 개설에 합의했다고 하였다. 중국 정부가 아랍 지역 영사관에 소규모 중국 문화 관련 시설을 운영한 적은 있지만 현지 대학과 본격적인 공자연구원 개설을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월 20일 한국여성민우회 '외화다시보기모임'은 9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지상파 TV에서 방영된 영어권 외화 27편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외화다시보기모임에 따르면 "원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존대와 하대가 한국어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늠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11월 23일 검색포털 야후코리아는 올해 1~10월 네티즌이 많이 찾은 검색어 중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와 유행어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1위에는 '된장녀', 2위에는 '꼭짓점 댄스', 3위에는 '마빡이'가 뽑혔다고 하였다.

11월 27일 심우영 한국국학진흥원장과 이상규 국립국어원장은 12월 1~2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통일의 조건 민족문화 동질성'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하였다.

11월 2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9개 부처 소관 63개 법률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법조문 표현을 바꾼 개정안들을 처리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개정안을 보면 '사태'(死胎)는 '죽은 태아'로, '계도'(啓導)는 '지도'로, '가(假)검역증'은 '임시검역증'으로 각각 바꿔 쓰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법률 문화를 전문가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2월 4일 이우성 민족문화추진회 이사장이 집안에 300년간 내려오는 서예 작품, 현판 등과 평생 수집한 조선시대 학자들의 편지 등 360여 점을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기탁했다.

12월 6일 한겨레말글연구소는 '우리글에 스민 외래·번역 문투'를 주제로 한겨레신문사 강당에서 학술발표회를 열었다.

12월 9일 청주대학교 정종진 교수가 20여 년 동안 수집한 한국의

속담 5만여 개를 묶어 『한국의 속담 대사전』(태학사)을 출간했다.

12월 11일 미국의 사전 출판사인 메리엄-웹스터는 자사 인터넷 사이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를 통해 2006년을 대표하는 단어로 '트루시니스(truthiness)'가 꼽혔다고 밝혔다. 트루시니스는 사실(fact)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려는 성향을 뜻하는 신조어로 지난해 후반기부터 미국을 휩쓸기 시작했으며, 미국방언협회(ADS)도 올 초 이를 '2005년의 단어'로 선정했었다.

12월 12일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SOS'를 대신할 우리말 순화어로 '구원요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2월 19일 한글문화연대(대표 김영명)는 "업계 최고의 디자이너지만 각종 매체를 통해 불필요한 말들로 시청자들의 언어생활까지 해칠 수 있는 앙드레 김씨를 2006년의 '우리말 해침꾼'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을 쓰는 등 우리말 사랑에 가장 게으르다."는 이유로 국정홍보처도 해침꾼으로 뽑았다. 한편 '우리말 사랑꾼'에는 법제처, 최인호 한겨레 말글연구소장, 서울 강서구청, KBS '우리말 겨루기', MBC '말달리자'가 선정됐다.

12월 20일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내년 7월부터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한국어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박물관 측과 공식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어로 서비스되는 유물은 일단 58점으로 정해졌으며 점차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12월 21일 베이징어언대학 한어수평고시센터는 내년 4월부터 그간 고급시험에만 적용했던 회화와 작문 시험을 모든 응시자에게 적용하는 내용으로 HSK 출제 방식을 바꾼다고 발표했다. 현재

1~11급 등 11단계로 세분화된 중국어 등급은 초·중·고급 등 3단계로 간소화된다.

12월 21일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을 '세종'(世宗·Sejong)으로 확정했다고 하였다. 추진위는 세종의 발음이 한울과 금강보다 뚜렷하고 영문 표기가 쉬워 국제성을 갖췄으며 듣기에 편안한 이름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하였다.

12월 26일 글로벌랭귀지모니터(GLM)는 '지속 가능(sustainable)'을 올해의 영어 단어로, '노선 고수(stay the course)'를 올해의 문구로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에너지 분야에서 쓰이기 시작한 '지속 가능한'이란 말이 인구 문제나 결혼, 농업, 경제 등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Ⅱ. 국어 분야별 동향

1. 국어학 분야

음성학·음운론

신 승 용
(영남대학교)

1. 머리말

이 글은 2006년에 나온 음성학·음운론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와 연구 동향을 정리하고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학·음운론 분야의 논문은 꾸준히 일정 양의 성과를 이루었던 것처럼 올해도 단행본, 학위논문, 일반논문을 모두 합치면 210여 편이 조금 넘을 정도로 많은 양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논의의 전개 방법은 연구 결과물의 유형별로 살펴볼 수도 있고, 주제별로 살펴볼 수도 있을 터인데,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의 방법을 취하면서 연구 결과물이 많은 분야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는 주제를 하위 분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도 하지만, 이 글의 독자의 관점을 고려할 때 유형별로 연구 성과를 살펴보는 것이 더 유용하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크게 단행본, 학위논문, 일반논문으로 대별하였다. 일반논문은 다시 음성학, 음운론, 응용언어학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고, 음운론 분야는 다시 현대국어, 고대·중세·근대국어, 음운변화, 방언 네 영역으로 세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영역을 세분할수록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 성과와 동향을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많은 경우 두 영역 이상에 걸쳐 있는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영역을 세분하여 살피는 것이 꼭 정확한 기술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에 큰 틀에서 영역을 구분하였다.

전체 210여 편의 연구 성과를 개괄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행본의 편수가 10편 정도로 얼마 되지 않는데, 이는 2006년의 특징적인 양상이라기보다는 최근 경향의 연속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위논문은 약 50여 편이 조금 넘고, 일반논문이 약 160여 편으로 최근 몇 년간의 연구 성과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특징적인 양상이라면 예년에 비해 응용언어학 분야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음성·음운적 현상을 중간언어의 관점에서 또는 교수-학습의 관점에서 다룬 논문의 편수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에 대한 최근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필자가 보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에 나온 모든 연구 성과를 다 담았다고 할 수 없음을 밝혀 둔다. 아울러 개별 연구에 대한 비판이나 가치, 학문적인 평가보다는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선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러기에는 지면의 한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적인 관찰이 배제된 상황에서 횡적인 관찰만으로 연구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면도 있기 때문이다.

2. 단행본

2006년에는 음성학·음운론 분야의 단행본이 여느 해에 비해 적은 편이다. 총 10권 정도 간행되었는데, 이 가운데서 박사학위 논문

을 깁고 다듬은 것이 4권이고 논문집의 성격을 띤 것이 1권이다. 이렇게 볼 때 비교적 긴 분량의 깊이 있는 연구를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것은 점점 줄어드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박사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4편의 논문은 모두 방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사학위 논문을 깁고 다듬어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으로 먼저 『서울방언의 음운론』(유필재)은 현대 서울방언에 대한 공시적 연구로, 현대 서울방언에 나타난 음운론적, 형태음운론적 사실들을 고찰하였다. 현대 서울방언 가운데서 특히 서울시 종로구와 중구에 살고 있는 토박이 화자들의 말을 대상으로, 음운체계와 음운배열, 교체의 유형, 음운과정 등 서울방언에 대한 음운론 전반을 고찰하고 있다. 『평안북도 의주방언의 음운론』(한성우)은 평북 의주방언에 대한 공시적, 통시적 연구이다. 의주방언의 현재 공시태를 서술하고, 이를 19세기 후기 의주방언의 공시태와 비교하였다. 현대 의주방언과 19세기 후기 의주방언의 모음체계를 확립한 후 음운체계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형태소 내부, 파생과 복합, 곡용과 활용에서의 음운 현상 및 음운 변화 양상을 고찰하였다. 『평북방언과 전남방언의 음운론적 비교 연구』(정인호)는 평북 용천방언과 전남 화순방언을 음운론적으로 비교 · 대조한 연구로, 두 지역어의 공시적 대조와 통시적 대조를 통하여 두 지역 방언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현대 용천방언과 화순방언의 음소체계와 음소배열을 대조하고, 이를 토대로 두 지역어에 일어난 음소 변화 양상을 자음의 변화와 모음의 변화로 장을 나누어 통시적으로 대조하였다. 『평안북도 의주방언의 음운론』(한성우)과 『평북방언과 전남방언의 음운론적 비교 연구』(정인호)는 국어음운론 연구의 영역을 북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북한 지역 방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도 지역어의 통시음운론』(이복영)은 중부

방언의 하위방언인 경기도의 대부도 지역어에 대한 통시적 음운 변화를 다룬 것이다. 대부도 지역어의 형태소 내부에 화석화되어 있는 음운변화들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자료 상호간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이전 시기의 자음체계와 모음체계를 재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음운 변화 양상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후기 중세국어 문헌자료와 관련시켜 각 음운 변화 양상이 국어사에서 차지하는 시기를 추정하였다.

『중부 동해안 방언의 성조 비교』(김차균)는 지금까지 필자가 연구해 온 방점법 성조 이론을 바탕으로 강원 및 경북 동해안의 강릉, 삼척, 울진 세 방언에 대한 성조 체계를 비교·기술하고 있다. 유표성 이론, 조치의 복잡성에 따른 2분법이라는 고전적인 방점법에 다시 현대 음운론에서 대립과 중화라는 음운론에서 핵심적인 방법론을 접목하여 하나하나의 음절과 동시에 성조론적인 낱말 전체를 적을 수 있는 방점형을 표기하였다.

『서울말 진경구어 연구』(이상억)는 국립국어원에서 서울 토박이말 70~80대 화자를 대상으로 구어 자료를 조사한 결과를 간행한 『서울토박이말 자료집』Ⅰ~Ⅳ권 가운데서 Ⅰ권에 나온 자료만을 토대로 한 연구이다. Ⅰ권에 나온 구어 말뭉치에서 어절 빈도를 뽑아 내림 빈도순으로 정리한 목록을 대상으로 하여 서울말의 음변화 규칙을 살피고, 부록에서 서울말 구어 빈도순 목록과 21세기 세종계획에서 수집한 구어투 문헌자료에서 준구어를 제외하고 순구어만의 빈도순 목록을 비교·제시하였다. 『한국어 체언의 음변화 연구』(이상억)는 그동안 국어학계에서 구축된 국어사 문헌자료 말뭉치를 대상으로 어휘 확산 이론의 관점에서 단어 가운데서도 체언만을 대상으로 각 어휘별로 음운 변화가 확산되는 과정을 연구한 것이다. 특히 어휘 확산과 단어 사용 빈도 간의 관계를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중앙어의 음운론적 변이양상』(김선

철)은 2003년에 국립국어원에서 저자가 맡아 수행한 표준 발음 실태 조사 사업의 결과물인 『표준 발음 실태 조사 II』를 다듬고 내용을 보탠 것이다. 몇 가지 음운 현상의 실현 양상과 분절음 및 단어의 발음 혹은 형태 선호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음운론적 견해를 전개하고 있다.

『우리말 음운 연구의 실제』(최윤현 외)는 최윤현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최윤현 교수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논문을 묶어 펴낸 논문집으로, 한말연구학회에서 기획하였다. 전체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각 장의 주제는 제1장이 국어 음운 연구, 제2장이 국어 음운사 연구, 제3장은 국어 현상 연구이다.

『조선문전』(류시욱)은 사할린의 우리 민족어 교육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최초의 자료로, 사할린의 민족어 교육의 사정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가 인정된다. 총론을 비롯하여 성음론, 형태학, 구어 · 문장론 3부로 구성되어 있다.

3. 학위 논문

학위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이 13편, 석사학위 논문이 41편인데, 석사학위 논문 가운데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이 17편이다.

3.1. 박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은 음운론, 방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발표되었다. 그런데 음성학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이 한 편도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총 13편 가운데 방언을 다룬 논문이 5편으로 전체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의 논문도 2편이 발표되었다.

최적성 이론을 도입하여 현상을 설명한 논문이 3편인데, “국어의 유추적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박선우), “현대국어 사잇소리 현상의 형태론과 음운론”(하세경), “강릉지역어의 음운탈락현상 연구”(김옥영)가 그것이다.

“국어의 유추적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박선우)는 유추적 음운현상들을 대상으로 음운론적 제약들과 패러다임 통일성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논의 대상으로 삼은 유추적 음운 현상은 ‘합성어와 접두파생어의 음절화’, ‘ㄴ 삽입’, ‘ㄴㄹ 비음화’, ‘체언말 설정장애음(ㅌ, ㅈ, ㅊ)의 마찰음화’인데, 이들은 일반적인 음운 규칙이나 음운 변화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현상들이다. 이들 현상은 비음운론적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종래에 역사적 변화나 형태론적 현상으로 다루어졌던 것들인데, 이들을 유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최적성 이론을 바탕으로 제약 기반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합성어와 접두파생어’의 음절화는 유추적 평준화, ‘ㄴ 삽입’은 유추적 확대, ‘ㄴㄹ 비음화’는 패러다임 최적화에 해당한다.

“현대국어 사잇소리 현상의 형태론과 음운론”(하세경)은 현대국어의 종속 합성명사 중 일부에 나타나는 사이시옷 현상의 형태적 및 음운적 특성을 최적성 이론의 제약과 제약 위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잇소리 현상이 규칙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함께 다룸으로써 사잇소리 현상의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잇소리의 분포를 결정하는 의미론적 조건과 사잇소리의 음운론적 정체를 밝히고 있다. 사잇소리의 음운론적 정체는 사잇소리가 완전한 분절음이 아니라 X-slot에 경음 자질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후행 명사의 음절 두음이 평음일 때는 경음 자질이 전파되어 경음화 현상을 일으키고, 선행 명사의 음절 말음이 비어 있을 때는 그 자리가 후행 명사의 음

절 두음의 조음 위치로 채워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어의 후두 자질과 음운 현상"(조경하)은 국어의 음소 분류에서 후두 자질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논문이다. 즉 국어에서 후두음 'ㅎ(h)'과 'ㅇ(ʔ)'에 대한 실제적인 음성 관찰을 기초로 이들이 후두음으로서 독자적인 하나의 자연부류를 이룬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들을 특징짓는 후두 자질을 설정함으로써 관련 음운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방언을 대상으로 한 논문 가운데 "경남 서남부 방언의 성조 연구"(김세진)는 성조를 다루었고, "강원도 영동방언의 음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이상녀)는 사회언어학적인 방법론을 도입하였다. "경남 서남부 방언의 성조 연구"(김세진)는 경남 서남부 방언인 사천, 하동, 남해 방언의 성조 체계를 기술하고, 방언 간 성조 현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이들 세 방언의 성조형 체계를 확립하고, 성조형들의 표면적인 실현형인 음조형을 기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용언어간, 파생어와 합성어, 곡용과 활용에서의 성조 변동 및 성조 변동상의 특징을 고찰하고, 나아가 문장 속에 나타나는 성조론적인 낱말들의 화용론적 원인에 따른 여러 현상들을 기술하고 있다.

"강릉지역어의 음운탈락현상 연구"(김옥영)는 강릉 지역어를 대상으로 탈락 현상의 내재적 원리를 밝히고자 한 논문이다. 최적성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제약과 제약의 위계로 개별 탈락 현상을 통합적으로 설명하여 탈락 현상의 공통 원리를 구명하였다.

"공시적 음운 변이와 통시적 음운 변화의 상관성: 함북 육진방언을 대상으로"(소신애)는 함북 육진방언을 대상으로 공시적 음운 변이와 통시적 음운 변화의 원리를 밝히고 양자의 상호 관계를 구명하고자 한 논문이다. 음운 변화의 결과를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운 변화의 요인과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육진방언의 진

행 중인 변화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통시적 음운 변화가 공시적 음운 변이의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을 살피고 있다.

"국어 음운현상에 관여하는 형태 보존의 원리에 대한 연구"(변용우)는 국어의 개별 음운 현상에 관여하는 화자의 형태 보존 원리를 구명하고, 형태 보존 원리가 관여하는 음운 현상에 적용되는 음운 규칙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 형태 보존 원리가 관여하는 음운 현상으로는 탈락 현상 가운데 '으' 탈락, '아' 탈락, 'ㄴ' 탈락을, 첨가 현상 가운데 'ㄴ' 첨가, '반모음 j 첨가'를, 교체 현상 가운데 'ㅂ, ㅅ, ㄷ' 불규칙 어간의 교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밖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의 논문으로 "중국인의 한국어 의문문 억양 실현 연구"(황현숙), "발음 교수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음운 연구"(이미향)가 있다.

3.2. 석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은 다양한 주제가 발표되었지만, 음성학 분야의 연구가 극히 적다. "대구 지역어의 세대 간 단모음 실현 양상 비교 연구"(장혜진), "한국어와 중국어의 단모음 비교연구"(학미) 2편이 전부이다.

석사학위 논문의 특징적인 양상은 먼저 공시적 연구가 주류이고 통시적 연구가 거의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석사학위 과정에서 음운사나 음운 변화에 대한 통시적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대조언어학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국어학을 전공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증가 현상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시적 연구가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시기적으로도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대부분이고 중세국어나 근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극히 적다. 중세국어나 근대국어를 다룬 논문들도 대부분 문헌 연구이어서 실질적으로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의 공시태를 대상으로 한 음운론 분야의 논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반대학원 논문에서는 통시적 연구가 없고, 교육대학원 논문 가운데 "국어 모음체계 변천사 연구"(엄수진), "용언 어간말 'ㅎ'의 표기에 대한 통시적 고찰"(윤미진)이 통시적 연구의 전부이다.

구체적으로 개별 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대국어의 교체 현상을 다룬 논문으로 먼저, "현대국어의 탈락현상 연구"(곽진희)는 현대국어의 중앙어에 나타난 탈락 현상 가운데서 음운론적인 요인에 의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탈락 현상을 유형화하여 그 음운론적 특징을 살펴보고, 각각에 대해 음운론적인 해석을 한 논문이다. "체언말 자음의 교체 현상에 대한 연구"(오재혁)는 현대국어의 /ㅋ, ㅍ, ㅈ, ㅊ, ㅌ/ 말음 체언의 교체 현상을 대상으로 교체의 원인을 구명하고자 한 논문이다. 이론적으로는 사용 기반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어휘 목록의 빈도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음성 실현형을 관찰하여 체언말 교체 현상의 원인을 밝힌 실증적 연구이다. "우리말 /ㅎ/의 음운현상과 제약"(한수정)은 /ㅎ/에 나타나는 음운 현상을 대상으로 규칙 중심 이론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공모성의 문제를 최적성 이론의 제약과 제약 위계로 설명하고 있는 논문이다. 유기음화, /ㅎ/ 탈락, /ㅎ/ 뒤 마찰음의 경음화, /ㅎ/의 비음화 현상이 각각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후두음 제약으로 동시에 관할되는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방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ㄹ/과 관련된 전주방언의 음운현상과 연결제약"(백은아)은 /ㄹ/과 관련된 전주방언의 음운 현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ㄹ/의 자음 연결 제약을 밝히고자 한 논문이다. /ㄹ/ 관련 음운 현상은 학계에서 많이 다루어졌지만 특정 방언을 대상으로 그 전반적인 양상을 다룬 연구는 별로 없었는데, 이러

한 점에서 이 논문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대구 지역어의 세대 간 단모음 실현 양상 비교 연구”(장혜진)는 실험 음성학적인 방법을 통해 대구 지역어의 세대 간 단모음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대구 지역어의 모음 체계는 세대 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40대 화자는 6모음 체계, 20대 화자에서는 7모음 체계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는 서울 지역어의 영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용인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최창원)는 용인 지역어의 공시적 연구로 용인 지역어의 음운 목록,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이 통합할 때의 음운 과정과 해당 음운 과정을 지배하는 음운 규칙을 밝혀냄으로써 용인 지역어의 공시적 음운 현상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조언어학적 연구는 러시아어와 국어, 중국어와 국어, 일본어와 국어를 대조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관련 논문으로는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한국어 분절 음소를 중심으로”(Mozol Tatiana), “한국어의 러시아어 표기에 관한 연구: 지명을 중심으로”(김지윤), “한국어와 중국어의 단모음 비교연구: 실험음성학적으로”(학미), “한·중 음운체계의 대조 연구”(조가), “한·일 외래어의 표기체계에 대한 음운론적 비교고찰: 영어 차용어를 중심으로”(백혜준)가 있다.

4. 일반 논문

4.1. 음성학

음성학 분야의 논문은 약 55여 편으로 음운론 분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 양이 많지 않다. 주제별로는 단모음이나 자음의 음향

음성학적 분석을 다룬 논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리고 성조나 억양, 운율을 다룬 논문들도 다수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 올해의 특징적인 양상은 아니다. 어쨌든 운율이나 억양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음을 음향음성학적으로 분석한 논문 가운데는 지역 방언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다. 그 가운데 제주방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제주방언 단모음과 현대국어 단모음의 음향 분석 비교"(김종훈), "현대 제주방언 단모음의 음향음성학적 특성 연구"(고영림), "제주방언 화자의 세대별(20대, 50대, 70대) 단모음의 음향분석과 모음체계"(김원보) 등이 있고, 대구방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는 "대구 방언 단모음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한 음향 음성학적 연구"(장혜진, 신지영), "대구 지역 방언에 나타나는 접속구의 경계 성조"(안미애) 등이 있다.

"제주방언 단모음과 현대국어 단모음의 음향 분석 비교"(김종훈)는 제주방언의 단모음의 음향 분석을 기반으로 제주방언의 단모음 체계와 현대국어 단모음 체계의 특징을 검토한 논문이다. 두 단모음 체계 모두 저모음일수록 제1 포먼트 주파수 값이 높고, 전설모음일수록 제2 포먼트 주파수 값이 높게 나타나며, 제2 포먼트 주파수 값은 원순모음보다 평순모음일 때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제주방언의 노년층 화자의 단모음 체계에서는 현대국어 단모음 체계와 달리 /에/와 /애/가 음향적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변별력을 갖추고 있으며, /ㅇ/도 여전히 변별력을 갖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어 단모음 /에/와 /애/의 세대와 성별 차이에 대한 음성학적 연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최상홍)는 서울 지역 모음 체계에서 단모음 /에/와 /애/의 제1, 제2 포먼트 값을 통해 세대 간, 성별 간 차이를 고찰한 논문이다. 성

별간 차이는 없으나 세대의 경우 젊은 세대는 /에/와/애/를 변별하여 발음하지 못하지만, 노년 세대는 변별하여 발음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대구 방언 단모음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한 음향음성학적 연구”(장혜진, 신지영)는 대구 지역의 20대와 40대 여성 화자를 대상으로 세대별 단모음 실현 양상을 연구한 논문으로, 40대 화자는 6개의 모음을, 20대 화자는 7개의 모음을 변별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으/와 /어/의 구분의 차이인데, 20대가 /으/와 /어/를 구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서울 방언의 영향으로 해석하였다. “대구 지역 방언에 나타나는 접속구의 경계 성조”(안미애)는 대구 지역 방언을 대상으로 낭독체와 대화체,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여 대구 지역 화자의 억양 패턴을 고찰한 논문이다. 대화체에서는 낭독체에 비해 의미에 따른 운율 구조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대화체에서는 의미 구조가 통사 구조보다 억양구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음의 음향음성학적 특징을 다룬 논문으로는 “한국어 비음의 음향학적 구분을 위한 장구간 스펙트럼(LTAS) 분석”(최순애, 성철재), “Are the Korean affricates alveolars or palato alveolars?”(강경심), “영어권 화자의 국어 폐쇄음 발화와 지각”(김기호, 박윤진, 전윤실) 등이 있다. “한국어 비음의 음향학적 구분을 위한 장구간 스펙트럼(LTAS) 분석”(최순애, 성철재)은 한국어 비음을 음향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음향 매개변수를 LTAS(Long term average spectrum)에 기반하여 제안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이밖에 “한국어 방언 음성의 실험적 연구”(김현기, 최영숙, 김덕수)는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방언의 음성 특징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에 의해면 20대의 경우 충청방언을 제외하고는 /e/와 /ɛ/의 구별이 없어지고 있으며, /ㅚ/는 지역 방언에 따라 /we/, /

ɘ/, /i/, /wj/ 등 다양하게 실현되며, 평음의 VOT 길이는 방언에 따라 유기음의 VOT와 비슷하거나 길게 나타나기도 하며, 사이시옷은 /sh/로 실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어 방송 광고 헤드카피에 대한 운율 분석"(임지원, 성철재)은 전파 광고의 헤드 카피를 대상으로 성별, 관여도, 정서의 세 가지 독립 변인을 이용하여 발화속도 및 억양구와 강세구에 관련된 제반 특징을 연구하였다.

4.2. 음운론

앞서 언급했듯이 음운론 분야의 논문은 크게 시기별로는 현대국어와 현대국어 아닌 논문, 즉 고대 · 중세 · 근대 · 개화기 국어로 크게 둘로 대별하여 살펴보겠다. 이렇게 구분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주제별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대, 중세, 근대, 개화기 국어의 각 시기별 공시태를 다룬 논문의 편수가 몇 편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 정리하였다. 그리고 통시적 고찰을 한 논문은 음운 변화로 묶었고, 방언 분야와 응용언어학 분야도 따로 나누었다.

4.2.1. 현대국어

일반 논문 가운데 시기적으로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다. 음운론의 기본 개념에 대해 고찰한 논문이나, 음운 현상을 구조주의나 생성음운론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론적인 재해석을 시도한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공시적인 교체 현상을 다룬 논문들이 가장 많았고, 운율이나 장단음, 억양을 다룬 논문들도 골고루 발표되었다. 이론적인 재해석을 한 논문들은 제약과 제약의 위계라는 최적성 이론(대응 이론, 산포 이론)의 틀을 도입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어 음운론에서도 점차 최적성 이론이 중요

한 설명 틀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외국에서 언어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한계가 있는 듯하다.

먼저 음운론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고찰한 논문으로 '수의성'의 문제를 다룬 것이 3편이 있고, 이밖에 '공시성'의 문제, '음운 과정'의 문제를 다룬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음운현상의 수의성과 음장"(김종규)은 히야투스 회피 현상에 나타나는 수의적 장모음화 현상을 지배하는 음운론적 단위를 음보로 규정하고, 이러한 현상을 음보구조를 유지하려는 운율 재조정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상적 장모음화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어 온 수의적 장모음화의 음운론적 동인을 음절구조의 차원이 아닌 상위의 운율 단위인 음보의 차원에서 분석하여, 최적성 이론의 관점에서 이를 수의적 비음절화 과정에서 나타난 출-출력형 대응관계의 결과로 보고 있다. "수의적 음운 현상의 종류와 그 특성"(신승용)은 수의적 음운 현상의 유형을 진행 중인 변화, 음절 조정과 관련된 현상, 비음운론적인 요인에 의해 작동하는 규칙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음운 현상들을 살펴보았다. 이때 수의성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조건 환경에서 α가 β로 교체하기도 하고 교체하지 않기도 하는 경우, 또는 α가 β로 교체하기도 하고 γ로 교체하기도 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기본적으로 규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생성음운론의 규칙의 정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공시성의 문제를 다룬 "음운 규칙의 공시성을 바라보는 시각"(이진호)은 음운 규칙 가운데서 형태소 내부에 적용되는 음운 규칙은 기저형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공시적 음운 규칙으로 볼 수 없음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공시적 음운 규칙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일반화될 수 있는 정보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칙성 조건과, 둘째, 공시론의 성격에 부합해야 한다는 공시성 조건이

그것이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공시적 음운 규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밖에 음운론적 유형을 다룬 "국어의 음운론적 유형에 대한 연구(권경근)", 음운 과정을 다룬 "음운과정의 자연성"(김경아), 층위 문제를 다룬 "국어 음운론의 중간 층위"(이진호)가 있다.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한 논문으로 "지배음운론의 설명력 "-르" -불규칙 활용의 기술과 관련하여-"(김정우)는 표기상 동일한 어간 말음 형태를 보임에도 활용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 '따르다', '다르다', '이르다'류의 활용을 지배음운 이론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따르다'류는 빈핵과 빈음절머리 삭제로 모음 어미와의 결합형을 설명하고, '다르다'류는 겹음 구조를 가진 유음을 기저에 설정해서 모음 어미와의 결합형을 설명하며, '이르다'류는 떠돌이 음소의 설정으로 모음 어미와의 결합형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르' 불규칙으로 불리는 '이르다'류에 대한 지배음운론의 설명은 어간말 모음 탈락과 음절 축약이라는 역사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어의 /nl/과 /ln/의 변동에 대한 대응이론 분석"(강옥미)은 /nl/, /ln/ 연쇄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라는 하위 계층에 따라 [ll], [nn], [nɾ]로 실현되는 형태론적 환경을 살펴보고, 이를 대응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는 '유표성제약≫출-출력형 충실성제약≫입-출력형 충실성제약'의 등급을 이루며, [nl], [ln]이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유표성제약을 어기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반면 외래어 합성어 경계의 경우에는 '출-출력형 충실성제약≫입-출력형 충실성제약≫유표성제약'의 등급을 이루기 때문에 [nɾ]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밖에 구성원소 이론을 소개한 "구성원소 이론과 국어의 자음표시"(이상직), 지배음운론을 도입한 "모음교체 현상의 보편성 연구 -영어, 아랍어, 한국어를 중심으로"(허용) 등이 있다.

음운 현상을 직접적으로 다룬 논문에서는 모음 교체보다는 자음 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나타난다. “한국어 체언말 마찰음화의 유추적 분석”(박선우)은 체언의 굴절 체계에 적용되는 ‘패러다임 통일성’의 효과와 ㄷ/ㅈ말음 체언을 제한하는 공시적 제약을 바탕으로 체언말 마찰음화를 분석한 논문이다. 대응이론의 관점에서 체언말 설정장애음의 파찰음화와 마찰음화를 규칙적인 음운변화가 아닌 패러다임 통일성을 요구하는 유추적 제약과 유표성 제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구개 변이음의 발생과 파찰음화”(박종희)는 음의 변별적 대립에 음성 층위의 단위들도 기여한다는 기능적 입장에서 ㄷ〉ㅈ 구개음화의 발달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음소적 ㄷ-구개음화를 /t/의 이음적 구개 변이음 [tj]로 바뀐 다음, 경구개 치경 파찰음 [tj]가 조음상의 무표성 때문에 또는 구개음화의 인지적 단서를 증대시키기 위해 파찰음화하여 [ʧ]가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어 이중모음 /의/가 /이/로 단모음화한 후 파찰음 [ʧ]의 빈도가 높아지고, ‘ㅈ’/ʦ/의 경구개 변이음 [ʧ]와 음성적인 충돌 또는 중첩이 일어나게 되어 ‘ㅈ’의 경구개음 변이음 [ʧ]가 [ʨ]로 변하게 된다. 결국 ‘ㅈ’의 으뜸 변이음이 [ʦ]에서 [ʧ]로 변함으로써 ‘ㅈ’/ʦ/이 ‘ㅈ’/ʧ/로 재구조화되어 음소적 ㄷ-구개음화가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모음의 교체를 다룬 논문으로 “모음교체 현상의 보편성 연구 -영어, 아랍어, 한국어를 중심으로-”(허용)는 여러 언어에 나타나는 ø(zero)가 특정 모음으로 교체하는 현상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국어의 매개모음이 용언의 어간과 어미 사이로 대표되는 형태소 경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나그네, 고드름’ 등에서와 같이 형태소 내부에서 나타나는 ‘으’ 모음도 매개모음임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Charette(1991)의 지배-승인 원리를 확장하여 도입하였으며, 국어의 매개모음 /으/가 국어에 특수한 것이 아니라 언어 보편적 현

상의 하나임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밖에 음소의 분포 양상을 살핀 "국어 단어의 음소 분포"(한성우), 의성 · 의태어를 다룬 "한, 중 의성어의 형태적 음운적 특징"(최원평), 사회언어학적인 고찰을 한 "일상 발음과 언어규범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홍미주)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 가운데 "일상 발음과 언어규범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홍미주)는 언어 의식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대구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발음형, 표준발음법에 대한 의식의 관련성에 대해 고찰한 논문이다. 비표준 발음을 많이 하는 이유가 어문규범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라는 직관적인 설명에서 나아가 실제 언어 사용과 어문 규범에 대한 태도나 의식이 비표준 발음의 사용에 관여적이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구명하고, 이를 토대로 표준발음법의 일부 규정의 수정을 제안하였다.

4.2.2. 고대, 중세 및 근대국어

고대국어나 중세국어, 근대국어를 다룬 논문은 전체적으로 몇 편 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문헌 연구 논문이 많은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정전운옥편 속음의 유형별 고찰"(정경일), "자석류(字釋類) 문헌의 원순모음화와 구개음화"(김주필), "18세기 왕실 문헌의 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김주필), "정선 일어통편에 보이는 어미 '-아/어(X)'의 교체에 대하여" 등이 있다. "자석류(字釋類) 문헌의 원순모음화와 구개음화"(김주필)는 자석류 문헌을 대상으로 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 예들의 출현 빈도를 조사하여 자석류 문헌에서의 국어 사용상의 특징을 고찰한 논문이다. 나아가 지방에서 간행된 문헌들 간의 비교를 통하여 각 시기의 방언에서 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가 확산되는 정도를 비교하여 지역에 따른 음운 변화의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고대국어를 다룬 논문으로 “계림유사의 유기음에 대해서”(최중호)는 『계림유사』에 사용된 어휘들을 검토하고 이를 한음(漢音)과의 대비를 통해 고려시대 유기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고구려어에서 유기음은 방모(滂母), 투모(透母), 청모(淸母)에서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으나 계모(溪母)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데, 이를 통해 유기음의 발생이 일시적인 발생이 아닌 특정 자음에서 시작되어 아음계에서 끝나는 점진적인 발생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구려어에서 유기음은 발생 단계를 지나 과도기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고구려어의 어말모음 교체에 대하여”(이장희)는 『삼국사기』 37권에 들어 있는 다섯 지명과 유리왕명의 이표기를 통해 당시 고유명사의 어말 위치에서 *[i]와 *[u]의 모음교체가 존재했음을 확인하고 있다.

중세국어를 대상으로 한 논문으로 “중세국어 1음절 용언어간의 음운구조”(김현)는 중세국어 1음절 용언어간은 초성이 자음군이나 격음인 경우 어간말음이 ·/ㅡ에 한정되고, 초성이 평음인 어간의 어간말음은 ㅏ/ㅓ/ㅗ/ㅜ에 한정되는 상당히 체계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통해, 자음군과 격음을 초성으로 지닌 ·/ㅡ 말음 어간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자음군 및 격음을 초성으로 갖는 ·/ㅡ 말음 어간은 C1V1C2V2- 어간에서는 V1의 탈락에 의해, C1VC2- 어간에서는 V 탈락 후 ·/ㅡ 삽입에 의해, 그리고 C1VC2- 어간이 모음과 결합할 때 V가 탈락한 후 이를 분석하고 평준화하여 형성되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있다. 이때 C1은 ㅂ 또는 ㅎ이고 V는 · 또는 ㅡ이다. “한국 한자음의 근대성(1) -반영 양상의 종합-”(김무림)은 『훈몽자회』(1527)와 『신증유합』(1576) 등에 나타난 중세국어 한자음을 대상으로 한국 한자음의 근대성을 찾아보려고 한 논문이다. 중세국어 현실 한자음을 대상으로 한어 근대음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용례를 종합하여, 당시 한자음이 후기 근대음의 영

향을 많이 받았음을 고찰하였다.

개화기 국어를 다룬 논문으로 "개화기 국어의 "이(j)" 동화 현상과 모음 체계"(김영선)는 /i, j/ 관련 음운 현상이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간행된 문헌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순행 반모음 j 첨가, 치음 뒤의 j 탈락, 치음 뒤의 '으〉이', '으〉의〉이', 치음 이외 자음 뒤의 '의〉이' 현상들이 /i, j/가 가진 [구개성] 또는 /i, j/에 의해 [구개성] 자질을 가지게 된 치음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i, j/와 음성적, 음운론적 유착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선 일어통편에 보이는 어미 '-아/어(X)'의 교체에 대하여"(김세환)는 20세기 초 회화서인 현공렴(1991)의 『정선 일어통편』을 대상으로 비원순모음화와 '어〉으' 상승 현상을 확인하여 이 책의 언어가 중부방언임을 밝힌 후, 음운 현상 가운데 어미 '-아/어X'의 음운론적 환경에 따른 교체 양상들을 고찰하고 있다.

4.3.3. 음운 변화

공시적 고찰이 아닌 통시적으로 고찰한 논문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나 주제상으로는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ㅸ/의 변화를 재해석한 논문으로 "순경음의 변화에 대한 재론"(김경아), "/Xㅸ-/계 어간의 재구조화와 음운 과정"(김남미)이 있는데, "순경음의 변화에 대한 재론"(김경아)은 'ㅸ'의 변화 자체에 대한 재론이라기보다는 'β〉w' 공식에서 문제가 되었던 'ㅱ〉이'에 대한 재론이다. 이를 통해 김완진(1972)의 'β〉w'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한 논문이다. 'β〉w'로 단일화하여 설명할 때 논란이 되었던 'ㅱ'의 문제를 ㅂ불규칙 용언 어간의 기저형 설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ㅱ'의 문제는 'β〉w'의 예외가 아니라 표기와 관련

된 한계로 해석하였다. "/X붕-/계 어간의 재구조화와 음운 과정"(김남미)은 'ㅸ'의 변화와 관련하여 기왕의 'ㅸ〉w' 공식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ㅸ'과 관련된 음운 과정들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X붕-/계 어간의 재구조화는 어간재구조화라는 음운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데, 자음 앞에서는 음절말 중화라는 음운 과정에 의해 /X ㅂ-/으로 재구조화되었다. 그리고 모음 앞에서는 축약, 탈락, 약화 과정이 개입하였는데, 이 가운데서 'ㅸ'의 [원순성]과 후행 모음이 축약된 /X오-/, /X우-/로 재구조화형이 선택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2음절 이하의 "ᄋᆞ" 변화에 대한 일고찰"(정인호)은 제2음절 'ᄋᆞ'의 변화가 제1음절 'ᄋᆞ'의 변화에 뒤따른 것은 우연적 사건일 뿐이며, 제2음절 'ᄋᆞ' 변화가 그 소실의 시작일 수 없음을 고찰한 논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2음절 이하의 'ᄋᆞ'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2음절 이하의 'ᄋᆞ'는 '이형태의 간소화', 'ᄋᆞ〉으 변화', 'ᄋᆞ〉아, ᄋᆞ〉어 변화'라는 세 가지 다른 기제에 의해 다른 양상으로 변화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15세기에 존재하는 'ᄋᆞ'와 '으'의 동요는 이형태 간소화에 따른 것이고, 'ᄋᆞ〉으' 변화는 [±설축성]에 의한 'ᄋᆞ:으'의 대립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며, 'ᄋᆞ〉아, ᄋᆞ〉어'는 'ᄋᆞ'와 '어'의 후설화에 따른 음성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음운론적 변이의 유형과 요인 -함북 육진 방언을 중심으로-"(소신애)는 함북 육진방언을 대상으로 하여 이 방언의 진행 중인 변화를 중심으로 어휘확산이론의 관점을 수용하여 음운 변화의 어휘적 점진성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러시아 카잔 자료와 필자가 수집한 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음운 변화가 공시적 변이의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수행되며, 이때 음운 과정에 의한 음운 변화는 수의적 음운 교체를 통하여 어휘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국어 음소 분포의 통시적 변화"(한성우)는 현대국어의 고유 단일어와 근대국어 이전의 고유 단일어의 음소 분포를 비교 분석하여 국어 음소 분포의 역사적 변화 과정과 국어의 유형적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국어 전체에서는 CV가 가장 일반적인 음절구조로 선호되고, 현대어에서 자음군과 중자음이 감소한다. 그리고 종성 자음으로는 공명자음이, 어간말 모음으로는 '이'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어말 '이'의 비율과 기원적인 Vy 계열의 모음 비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미루어 Vy 계열의 모음은 Vi가 변화하여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4.2.4. 방언

방언을 대상으로 순수하게 방언의 음운론적 현상을 다룬 논문은 예년에 비해 많지 않은 편이다. 지역별로 보면 충청도 방언을 다룬 논문이 가장 많다. 충청도 방언을 대상으로 한 "충남방언 활용에서의 음성모음화"(김정태), "대전 서남부 지명어의 음운과 형태 연구"(성희제), "충북방언의 어휘음운론 서설(5)"(전철웅), 제주도 방언을 대상으로 한 "제주방언 '불다'의 문법화 과정"(문순덕), 경기도 방언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방언의 음운론적 특징"(김봉국), 함북 육진방언을 대상으로 한 "수의적 교체를 통한 점진적 음운 변화 -함북 육진 방언의 진행 중인 변화를 중심으로"(소신애) 등이 있다.

먼저 "경기도 방언의 음운론적 특징"(김봉국)은 경기도에서 사용되는 60세 이상의 노년층 토박이 화자의 말을 통해 경기도 방언의 음운론적 특징을 음운 목록과 음운 현상으로 나누어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경기도 방언은 음장이 변별적이고, 음운 목록으로는 자음이 19개로 큰 차이가 없으나 모음은 노년층 내에서도 8개에서 10개의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방언의 특성과 관련된 음운 현상으로 체언 어간말음의 변화, 자음군 단순화, 고모음 탈락,

모음조화, 비원순모음화, 모음상승화, 활음화를 제시하고 있다. "충남방언 활용에서의 음성모음화"(김정태)는 용언 활용에서 '잡아 → 잡어'처럼 '양성모음+양성모음'이 '양성모음+음성모음'으로 교체하는 현상을 음성모음화로 규정하고, 이러한 음성모음화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기제가 무엇인지를 구명한 논문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충남방언에서의 모음 변이의 방언적 특징을 고찰하고 있다.

방언 간 대조 분석을 한 논문으로는 "국어 성조 체계의 성조형 대응 양상"(이문규), "천안·아산 지역어와 대구 지역어에 나타나는 w 탈락 현상의 비교 연구"(강현석, 이장희), "안동·성주·경주 방언의 성조 비교"(박숙희)가 있다. 먼저 "국어 성조 체계의 성조형 대응 양상"(이문규)은 중세국어와 함경방언, 경북방언을 대상으로 성조 체계 간 대응의 체계적인 양상을 고찰하고 있다. '가-'류 어간, 변동 상성형 어간, 사피동사 어간, 합성명사의 선행 성분, '말(斗)'류 1음절 어간에서의 성조 변동 현상을 살피고, 이들이 각 성조 체계 사이에 존재하는 대응 관계의 틀 속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조 변동의 음운론적 본질과 성조 체계간의 대응 관계가 기저 성조형 층위에서 온전하게 기술될 수 있다는 사실과, 기저 층위에서 볼 때 성조 변동 현상의 대응 관계는 성조소 및 성조형이 대응 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 대응 관계는 중세국어와 함경방언은 같은 방향의 변동을, 경북방언은 앞의 두 성조 체계와 역전적인 모습의 변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천안·아산지역어와 대구지역어에 나타나는 w탈락현상의 비교연구"(강현석, 이장희)는 대학생의 언어 자료를 토대로 천안・아산 지역어와 대구 지역어에 나타나는 사회언어학적 변이 현상인 활음 w의 탈락 현상을 비교・대조하고 있다. 방법론적으로 Labov의 계량사회언어학을 도입하여 활음 w탈락 현상에서 두 지역어 간 언어 내

적 · 언어 외적 제약의 공유 여부에 초점을 두고 두 방언의 음운적 · 사회언어학적 구조를 비교 · 대조 연구하였다.

방언을 주제로 한 논문 중에서 "문학과 방언: 방언 음성 자료의 전산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소강춘)는 앞으로 방언 연구에서 자료의 처리와 이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실 방언 자료의 구축과 활용이 개인적인 선에서 머무르는 현실에서 연구자들이 자료를 공유하여 함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면 이 분야 연구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문학과 방언: 방언 음성 자료의 전산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소강춘)에서는 녹음된 음성 자료가 정밀 전사된 텍스트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적 자료로 인식되어 온 기왕의 방언 연구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논문이다. 이러한 비판에서 그동안 보조적인 확인 자료로만 사용되어 왔던 방언 음성 자료를 효과적으로 전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메아리 1.0의 구성과 사용 방법을 소개하고, 이렇게 전사된 XML 형태의 텍스트 자료를 다양한 연구 영역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4.3. 응용언어학

여기서 말하는 응용언어학은 국어교육 및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발음이나 음운, 음운 현상을 주제로 교육적인 관점에서 또는 중간언어적 관점에서 이를 고찰하거나, 이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을 다룬 연구들을 말한다. 국어교육 분야의 논문 가운데서 "표준발음법의 이상"(배주채), "표준 발음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신지영), "말소리의 정책과 교육"(이상태)에서는 표준발음법을 다루었고, "읽기과제를 통한 학령기전 아동과 학령기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에 대한 비교연구"(이은선)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연음규칙을 다룬 논문이다.

"효과적인 사이시옷 표기 교육"(이동석)은 사이시옷 표기 규정을 제약 위주로 재구성하고 사이시옷 표기 교육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제반 사항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표준발음법의 이상"(배주채)은 표준발음법의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표준발음과 표준어와의 관계', '표준발음법을 정할 때의 절차와 원칙', '표준발음법의 필요성', '표준발음법의 공표 형식', '표준발음법의 서술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어교육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의 논문이 많다. 이는 최근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가 주목을 받으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연구"(김은애)는 한국어 발음의 오류 교정을 위한 진단과 평가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 논문이다. 학습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발음 진단, 그 결과에 따른 교정 학습 자료의 제공, 일정 시간 연습 후의 평가에 이르는 순환 과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순환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발음 오류 기록표와 기록 방법을 소개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공되었던 피드백의 예와 교정 결과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중국인 학습자언어에 나타나는 한국어 종성에 대한 음향, 청취 음성학적 오류분석"(양순임)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음절 종성의 발음 오류를 기술하고, 오류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발음 오류 기술에서 연구자의 청취 판단에서 나아가 음성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스펙트로그램이나 에너지, 피치와 같은 음향음성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음가를 정확히 분석한 것은 기왕의 발음 오류 연구와 차별화된 이 논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법과 관련된 논문으로 "한국어 억양 습득과 지도 방법 연구: 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김희선)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

어 학습자의 한국어 억양 체계의 습득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한국어 억양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와 원어민 한국어 화자의 우화 읽기 음성 자료를 분석하여 고급 학습자의 경우 단문장 단위에서는 원어민 화자와 비슷하게 억양구와 억양 음조를 구사할 수 있지만, 복문장과 문단 단위에서는 원어민 화자에 비해 구사 능력이 떨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억양 습득의 순서가 작은 억양 단위에서 큰 억양 단위로 진행되는 것으로 일반화하고, 이에 따른 교수법을 학습자 단계별로 제안하고 있다.

"어조청각법을 활용한 한국어 발음교정 연구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권용해)는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분야에서 소개된 '발음교정 어조청각법'을 소개하고, 이 교정법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 한국어를 배우는 프랑스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조청각법을 적용하였을 때 자음 교정에 많은 효과가 있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어 발음 교수를 위한 한자어 음운현상 고찰"(이미향)은 한국 한자어에 적용되는 음운 현상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그 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한자 문화권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 한자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발음 용례를 추출해 내는 전형적인 음운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학습자의 중간언어를 음운론적으로 연구한 논문들도 다수 발표되었다. 이러한 논문으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모음 포먼트 연구"(김희성, 송지연, 김기호), "초점 발화시 한국인 화자와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모음 포먼트 실현"(김희성, 송지연, 김기호),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 음운 인식 능력"(박민영, 고도흥, 이윤경), 러시아어 화자들의 중간언어 음운 연구"(윤영해) 등이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2006년에 발표된 음운론 분야의 연구 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수적으로는 2005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통시적 연구가 줄어들고 응용언어학 분야의 논문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보인다. 지금까지 연구 동향을 정리하면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을 요약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한다.

첫째, 공시적인 연구에 비해 통시적인 연구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연쇄적으로 시기적으로도 현대국어 중심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상대적으로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고대국어 연구가 적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중세국어나 근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이러한 경향은 결과적으로 통시적 연구자들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음성학 분야의 학위논문이 매우 적다. 일반논문에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논문은 없고 석사학위 논문 2편이 전부이다. 이는 음성학 분야의 후속 세대 양성에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

셋째, 구조주의 음운론이나 생성 음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다룬 이론을 적용하여 새롭게 해석한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기왕에 설명하기 어려웠던 현상들을 대상으로 최적성 이론을 도입하여 설명한 논문들이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큰 틀에서 보면 현상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탐색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연구가 국어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기보다는 외국에서 언어학을 공부한 연구자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국어학의 전반적인 경향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겠다.

넷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제2언어 학습자의 발음이나 음운 및 음운 현상을 대상으로 중간언어 관점에서 또는 교수-학습의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최근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에 발표된 논문의 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 지면의 한계상 모든 논문을 소개하지도 못하고 필자가 나름대로 선정하여 소개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논문이라고 해서 결코 우수하지 못한 논문이 아님을 거듭 밝혀 둔다. 그리고 논문에 대한 가치와 의의를 언급하는 일은 가급적 지양하였는데, 이는 필자의 능력 부족도 있지만 선행 연구와의 비교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이 글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소개된 논문 가운데 혹 내용이 잘못 서술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필자가 치밀하게 살피지 못한 때문일 터인데, 여러 연구자 선생님들께 너그러운 이해를 구한다.

형태론

김 인 균
(신라대학교)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2006년도에 이루어진 국어 형태론 분야의 연구 업적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여 그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6년도도 형태론 연구 업적에 있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의미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한다. 전통적인 형태론 분야 조어론·굴절론·품사론 연구는 물론이고 음운론과 통사론·의미론 등의 인접 분야와 분명하게 경계를 긋기 어려운 대상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였고, 조어론·굴절론·품사론 연구에 있어서도 접근 방법이 다양하게 이루어진 결과일 것이다. 이에 원칙적으로 지난해 국어 형태론 분야의 모든 업적을 대상으로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연구 성과를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으로 충실히 기술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꼼꼼히 읽고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집필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었고, 연구사적으로 중요한 논의가 그에 상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거나 잘못된 이해로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을 수도 있으며 누락되었을 수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널리 양해를 구한다.

한편 본고에서는 일반 방언(지역어)에 대한 논의 및 한 지역의 지명(地名)에 대한 형태론적 논의, 남북한 문법 기술에 있어서의 비

교·대조 연구는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 이는 방언이나 어휘론, 국어정책에서 다루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서이다. 한국어와 다른 언어 간의 대조 분석적 연구와 국어·한국어 교육 과정·방법·평가의 일환으로 형태론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일부러 다루지 않았다. 이들 연구자가 거의 외국인이거나 외국인을 가르치는 한국어 교육자 또는 국어 교육자로 국어 형태론 연구의 본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문헌에 대한 전반적인 국어학적 연구나 그 이본에 대한 연구 또는 국어학 전반에 걸친 연구사를 정리하고 전망한 논의들도 일부에서 형태론을 다루었으나 여기에서 언급하기에는 부족하거나 무리라고 생각되어 빠졌다. 또한 2006년 이전에 발표한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을 수정·보완하거나 묶어 단행본으로 펴낸 것들은 이전 자리에서 이미 다룬 것이 대부분이기에 배제하였다. 널리 이해를 바란다.

본고는 단행본 및 석사·박사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을 구분하지 않고 주제별로 묶어 기술한다. 우선 2장에서는 형태론 전반을 다룬 논의 및 일부 한정된 주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3·4장에서는 그간의 형태론 영역인 조어론과 굴절론 관련 논의를 각각 파생어와 합성어, 조사와 어미로 나누어 기술하고, 5장에서는 품사 분류와 각 품사에 속하는 개별 어휘의 음운·형태·통사·의미적 특성을 다루거나 문법화에 대해 논의한 논저들을 개술한다. 이러한 구분은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며, 주제별 논저 배열 순서와 귀속도 자의적인 성격이 강함을 밝혀 둔다.

2. 형태론 일반

여기서는 형태론 전반을 다룬 논의를 소개하나, 일부 한정된 주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한 논의도 일부 포함될 것이다.

먼저 고영근・김영욱・구본관・로스 킹・연재훈・이카라시 고이치・장소원・최동주 등이 엮은『21세기, 형태론 어디로 가는가 -형태론의 과제와 전망(Whither Morphology in the New Millenium?)』은 2003년 어학전문 국제학술지『형태론』편집위원회 주최로 '문법 체계 내에서 형태론의 위상'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깁고 다듬어 낸 단행본이다. 이 책은 제1부 '형태론, 그 위상을 점검하다'라는 주제로 "On the autonomy of the morphological component and its relationship to other components (형태부의 자율성과 다른 부문과의 관계)"(고영근), "Whose morphology? clashes between linguists and psychologists, speakers and hearers(누구의 형태론? 언어학자와 심리학자, 화자와 청자 사이에 놓인 충돌)", "Wuglets, wuglings or wuggies? 'tweenage' acquisition of derivational morphology"(애치슨), "When words form sentences : linguistic field theory : from morphology through morpho-syntax to supra-morpho-syntax(단어가 문장이 될 때 : 언어장 이론 -형태론에서 통사론으로, 그리고 초형태통사론으로-)"(노마 히데키), "Where flexion encroaches on agglutination in Turkish and Korean"(플랑크와 카박), "Twenties-century blending : A new way with words"(아이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2부 '국어 형태론, 쟁점의 현장에 가다'라는 주제로 "사라진 '-ㅿ[겨]-'의 문법 범주를 찾아서"(이승재), "중세국어의 형태론과 관련된 몇 문제"(이현희), "근대국어 형태론의 논의 몇 문제"(홍종선), "현대국어 형태론의 쟁점들"(시정곤), "현대한국어의 용언의 분석적인 형태에 대하여"(노마 히데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규수의 "형태론의 체계와 문법 용어 사용의 문제 -국어학사의 관점에서-"는 형태론(품사론, 굴곡법, 조어법)을 중심으로 한국어 문법 연구사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문법 용어 사용 문제를 문법 체

계와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한국어 문법에는 '이름씨'와 '명사', '씨끝'과 '어미', '토씨'와 '조사', '줄기'와 '어간', '가지'와 '접사'처럼 고유어 계열과 한자어 계열의 용어가 있는데, 이 두 계열의 용어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 정도로 생각하기 쉬우나 문법 체계에 따라 다른 외연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대응하여 해석되지는 않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고유어 계열 안에서나 한자어 계열 안에서도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내세우는 같은 용어가 다른 외연을 가지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양정호의 "'늣씨' 개념의 재고찰"은 여러 방향에서 주시경의 '늣씨'와 현대언어학의 형태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고찰한 논문이다. 결국 주시경 언어 연구 속에서 자생적으로 발현된 개념인 늣씨가 전혀 독립적으로 발전한 서양의 형태소와 매우 닮아 있기는 하나, 주시경 저서에 나타난 자료는 개념적으로 늣씨가 형태소와 같다거나 다르거나를 증명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홍종선 · 김서형 · 고경태 · 김태훈 · 이현희 · 함희진 · 이숙경의 『후기 근대국어 형태의 연구』는 저자 여럿이 후기 근대국어(18세기 말엽부터 1894년 갑오경장 때까지)의 형태 부문을 분담하여 깊이 있게 살핀 결과물이다. 그 구성만 간단히 소개하자면, 우선 "후기 근대국어의 형태"(홍종선)에서는 후기 근대국어의 형태론적 문제에 대한 각 주제별 논의에 앞서 그 시기의 형태론적인 변화 전반에 관해 개관하고, 각론으로 "후기 근대국어의 조사"(김서형), "후기 근대국어 접속어미의 양상 -형태와 분포에 대한 계량적 연구-"(고경태), "근대국어 후기의 종결 어미"(김태훈), "후기 근대국어의 파생법 -파생 접사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이현희), "후기 근대국어의 합성법"(함희진), "후기 근대국어의 문법화"(이숙경) 등 각 주제별로 후기 근대국어의 형태론적 문제를 치밀하게 고구하였다.

한편 권재일의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는 북한 학계에서 이루

어진 우리말 문법 연구가 어떤 연구 대상을 어떤 연구 방법으로 수행하였는지 그 내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서술함으로써 그 성과를 검토하고, 이를 남한의 문법 기술과 대조하여 서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밝혀, 이를 바탕으로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1장에서는 북한 문법 연구의 성격, 곧 북한의 언어관, 문법서, 문법 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2장에서는 단어에 대해 조어론과 품사론을, 3장에서는 문장에 대해 문장성분, 문장 유형, 문장의 확대를, 4장에서는 문법범주에 대해 격체계, 문장종결, 높임, 시간, 사동, 피동, 부정 표현 등을 대조하여 저자가 제안하는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넓은 의미의 문법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음운과 의미에 대해서도 5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다루고 있으며, 6장에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남북 문법의 표준화 방안의 전체 내용을 종합·정리하였다. 서로 이질화된 남북 언어를 다시 통합하기 위한 언어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은 저자가 지적한 대로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의의가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박동근의 “한국어의 접사 체계에 대한 반성”은 기존의 접사 체계 내에서 접사를 파생접사와 굴곡접사(어미)로 하위 구분하는 체계를 비판하고 이 둘을 서로 독자적인 범주로 파악하여 국어의 접사로 파생접사만을 인정하는 접사 체계를 제안하고, 외현적인 접사의 첨가 없이 일어나는 품사 변화를 영접사파생이 아닌 영변화파생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송철의의 “국어 형태론 연구의 문제점”은 형태론적 유형론과 국어 형태론의 문제, 형태론의 범위 문제, 단어형성에 대한 규칙론과 유추론의 문제, 단어형성과 관련한 공시성과 통시성의 문제 등 국어 형태론 연구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네 가지 문제를 논의하였다.

하치근의 “국어 조어론 연구의 어제·오늘”은 국어 조어론의 역

사적인 연구 과정을 종합적으로 개관하여 국어 조어론이 어떻게 계승·발전하여 왔는가 살펴보고 국어 조어론 연구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한 논의이다.

시정곤의 "국어 형태론에서의 '생산성' 문제에 대한 연구"는 국어 형태론에서 생산성(productivity)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고찰한 논문이다. 먼저 생산성을 단어형성 과정, 더 넓게는 형태론적 과정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생산성의 개념을 공시태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토큰 빈도수는 생산성과 무관하고 단발어 빈도도 생산성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계열체의 유형 빈도와 생산성은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생산성의 정도가 가장 높을 때를 규칙성이라 했으며 규칙성을 가진 형태론적 과정을 '규칙'이라고 했다.

채현식의 "규칙과 유추의 틀"은 화자의 조어 기제로 논의되고 있는 규칙과 유추의 틀이 갖는 성격을 면밀히 살피고 이 둘의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한 논문이다. 먼저 유추의 틀과 규칙을 동일한 층위에서 대비하기 위해 규칙의 개념을 좁혀, 진정한 단어형성규칙은 심리 규칙이면서 어휘항목들과는 분리되어 독립된 표상을 지닌 규칙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규칙과 유추의 틀이 표상의 존재 방식과 적용 방식, 어휘부 이론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에 있어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생성형태론에서 수용하고 있는 '일회용 규칙'이 유추의 틀과 다르지 않았다고 하였다.

최명옥의 "국어의 공시형태론 -어간과 어미의 형태소 설정을 중심으로-"는 공시형태론에서 국어의 활용과 곡용에 관여하는 어간과 어미의 형태소 설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때 공시형태론이란 굴절형태론을 대신하는 술어로서 인구어의 굴절은 물론 교착어의 곡용과 활용을 연구하는 형태론의 하위분야인데, 국어의 경우 활용과 곡용에 관여하는 어간과 어미의 형태소 설정을 중요한 과제로 한다고

한다. 한편 통시형태론은 종래의 파생형태론·어휘형태론·단어형성론을 포괄하는 술어로 단어 파생과 형성에 포함되는 파생어와 합성어의 내부구조를 연구하는 형태론의 하위분야라 하였다. 그리고 형태소 특히 공시적 형태소는 통사론의 기본단위이며 음운론의 핵심인 음운과정을 수행하는 형태음소를 가지는 단위이므로 형태론뿐만 아니라 통사론과 음운론을 위해서라도 형태소 설정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국어의 공시형태론에서 주요 과제가 되는 어간과 어미의 형태소 설정을 위한 기준을 제안하면서 그 기준을 적용하면 모든 방언을 포함한 국어의 공시형태론에서 어간과 어미의 형태소가 합당하게 설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국어 형태론에 대한 연구서가 아닌 개괄서로는 고창운의 『형태론의 기초』와 한길의 『현대 우리말의 형태론』이 있으며, 일반 언어학 입장에서 형태론 전반을 다룬 전상범의 『형태론 개론』이 있다. 특히 후자는 형태론 입문서로서 형태론에 관심을 갖고자 하는 이들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된다 하겠다. 한편 국어 문법론 개론서로서 형태론 일반을 다룬 것으로는 김기종·리영순의 『조선어문법론』이 있으며, 국어의 조사와 어미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서로는 허동진의 『한국어 조사의 뜻과 쓰임』, 『한국어 어미의 뜻과 쓰임』이 있다.

3. 조어론

3.1 파생어

먼저 송철의의 “국어의 파생어와 의미”는 파생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합성성의 원리, 어기의 의미, 저지 문제를 살핀 논문으로, 파생어의 의미가 그 구성성분들의 의미로부터 규칙적으로 예측되지 않

는 경우, 어기의 의미 중 일부만이 파생어의 의미에 반영되는 경우, token-blocking(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기존의 단어 때문에 새로운 파생어의 형성이 저지되는 것)과 type-blocking(경쟁 관계에 있는 접사들이 서로 파생어 형성을 저지하는 것) 등 파생어 의미와 관련된 저지 현상을 다루고 있다.

이진호의 "우리말 접사의 음운론적 고찰"은 파생접사에 대한 논의가 기능과 의미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파생접사를 음운론적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고찰한 논문이다. 즉 파생접사의 형태 분석과 이형태 기술의 문제, 기저형 설정, 음운론적 구조, 파생접사가 관여하는 음운 현상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이양혜의 "우리말 접사의 형태론적 고찰"은 형태론적 범위 안에서 파생접사의 자격 조건을 제시하고 기존에 논의되어 온 접사들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본 논문이다. 즉 파생접사의 자격 조건을 필수적 조건과 부수적 조건으로 나누어, 전자로는 파생접사가 의존적 형태소이면서 단어를 파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후자로는 새로운 범주 파생 능력, 의미 첨가 능력, 세부적 역할의 다른 단어 형성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형태가 없어도 능력이 있으면 접사로 인정하고 공시적으로 생산성이 없는 접사는 접사 자격 상실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파생접사의 자격 점검을 통해 문제시되어 오던 파생접사들 중 접두사에 있어서는 어근인지 접사인지 모호한 형태소를 중심으로 파생접사 자격 여부를 살피면서, 자격을 가진 접두사의 역할 확대까지 논의를 확장하였고, 접미사에 있어서는 비생산적 접미사, 피·사동 접미사와 영파생 접사, 조사나 어미와 동형의 접미사, X이/기 류 등의 파생접사 자격을 살폈다.

시정곤의 "우리말 접사의 통사론적 고찰"은 국어 접사를 통사론적 시각에서 접근한 논의로, 먼저 작금의 굴접접사와 파생접사의 이

분법은 문제가 있어 접사 체계를 새롭게 봐야 한다고 가정하고, 접사의 통사적 성격에 대해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결국 조사/어미는 형태·통사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고 하나의 단어 속에 조사/어미가 들어 있는 경우를 통사적 구성의 단어화로 보았으며, 통사적 성격을 보이는 형용사파생접사 '답'과 부사파생접사 '이'를 통사적 접사로 보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비교·검토하면서 장단점을 살피고 이들을 통사적 접사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황화상의 "우리말 접사의 의미론적 고찰 -단어 구조와 관련하여-"는 파생접사의 의미가 단어의 구조를 결정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조사의 중첩 현상을 중심으로 굴절접사인 조사의 의미가 명사구의 형태론적 구조를 결정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고찰하였다. 먼저 '지게꾼, 가구장이'와 '신문팔이, 양치기'가 모두 파생어로서 의미적 속성이 유사하지만 각각 [N+N]과 [N+V+N]의 다른 형태적 속성(형태 구조)을 가짐을 지적하고 이는 파생어의 핵인 접사의 의미 유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조사의 중첩이 각 조사의 작용역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면서 여러 조사 중첩의 예를 통해 작용역이 좁은 조사가 작용역이 넓은 조사를 선행한다고 하였다.

김유범의 "우리말 접사의 국어사적 고찰 -시대별 개관을 중심으로-"는 파생접사에 대한 국어사적 연구 흐름을 알아보고 고대국어부터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국어 접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 왔는지 살핀 논문으로, 시대별 접사 목록과 그에 대한 특징을 개관하였다. 이상의 다섯 논문은 우리말연구 19집의 기획논문들로 국어의 접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뤄 주목을 끈다.

이현희의 〈국어 접사 범주에 관한 연구 -접사와 인접 범주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는 국어 접사가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면서 다른

범주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여 이를 접사 원형성의 정도 차이로 설명하고 접사 범주에 원형적 구조를 적용하여 도식화하며, 접사와 인접 범주에 속한 요소들 간의 관계를 시간의 흐름이 개입된 접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논의하고 이를 3차원 도해를 통해 명시적으로 설명한 논문이다. 먼저 접두사와 접미사, 고유어 접사와 한자어 접사, 어휘적 접사와 통사적 접사 등 다른 기준들이 적용되던 부류들을 묶어서 접사라는 하나의 부류 안에 통합할 수 있는 근거, 곧 접사에 전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조건・기준(독자적 형태소, 생산성, 어기에 대한 의존성(접사 판정 기준);새로운 개념/개체 형성 기능, 문법 구조 변화 기능, 감정 표현 기능(접사 기능 조건))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접사 원형성 혹은 접사 전형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접사 범주의 내부적인 접사 원형성의 정도 차이(혹은 등급화)와, 접사와 인접 범주 간의 접사 원형성의 정도성 차이를 원형 구조 도식과 3차원 도해로 밝히고 설명하였다.

또한 같은 필자의 "범주 구성 요소의 전형성 정도 연구 -접두사 범주를 대상으로-"는 접두사 범주 성격을 하나의 원형구조 내에 포괄하여 그 전형성 정도를 살핀 논문이다. 즉 원형 내부 구성요소들의 배열 의존성과 어형으로 보이는 형태와의 유연성, 분포나 의미의 제약성(혹은 특수성), 생산성 등의 접두사성 기준에 대한 접두사의 정도성 차이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명사류 접두사 중 '개-, 한-, 덧-, 풋-'은 전형적인 접두사이고 '겉-, 온-'보다는 '들-, 찰-'이 접두사의 전형에 가깝다고 하고, 동사류 접두사의 경우 '되-, 짓-'이 접두사의 전형이라면 '맞-, 엿-, 빗-'은 전형성이 조금 떨어지며 이보다 더 전형성이 떨어지는 접두사로는 '헛-, 늦-'이 있다고 하였다.

이광호의 "파생접미사의 생산성과 파생어 집합의 빈도특성 -계량적 접근-"은 현대국어 파생접미사의 생산성을 계량하여 각 접사별로 생산성 차이를 명시하고 생산적인 패턴과 비생산적인 패턴의 대

조적인 특징을 살피면서 생산성의 필요충분조건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파생접미사의 생산적인 패턴이 갖추고 있는 공통 조건으로 '① 유형빈도가 높아야 한다. ② 다수의 저빈도 단어로 전체 집합이 구성되어야 한다.'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생산성을 결정하는 데 유형빈도와 파생어 빈도분포가 모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생산성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유형빈도보다 파생어의 빈도분포라고 하였다. 즉 저빈도 단어가 접사에 대한 분석적 처리를 반복하게 하여 접사의 생성력을 살아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저 위 시정곤의 "국어 형태론에서의 '생산성' 문제에 대한 연구"와 좋은 대비가 되는 논의이다.

김규철의 "지소화의 비지소 의미에 대하여"는 지소사의 범어적인 의미와 대조하여 국어의 형태론적 지소화의 의미와 기능을 살핀 논문이다. 우선 지소사의 원형으로 '아기'와 '알'을 제시하고 이들이 문법화를 거쳐 다양한 의미와 여러 변이형을 생성한다고 하면서, 국어 지소화가 실현된 언어 형식이 '새끼, 작음, 어리다, 모방, 정확성, 근사치, 개체화, 부분, 질병명, 친애, 경멸' 등의 범어적인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경우와, '동식물의 명칭, 인간의 신체부위' 등의 국어만의 독특한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범어적으로 나타나는 의미와 기능이 국어에는 없는 것으로 '성 변화, 작은 유사형, 강화, 토박이 구성원' 등이 있다고 하였다.

시정곤의 "사이버 언어의 조어법 연구"는 사이버 언어의 특성과 유형을 검토하고 그 조어 유형과 특성을 살폈다. 특히 사이버 언어의 조어 유형과 특성에 있어서, 먼저 새로운 단어형성을 크게 기존 형태와 관련된 단어형성과 기존 형태와 관련이 없는 단어형성으로 나누고, 전자를 형태변이와 형태결합, 의미변화에 의한 단어형성 등으로 세분하여 사이버 언어의 단어형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박동근의 "내적변화에 의한 파생과 유표성 -흉내말의 홀소리 교

체를 중심으로-"는 현대언어학의 유표성 이론에 근거하여 현대국어에서 홀소리 교체로 내적 파생을 보이는 흉내말을 대상으로 파생과 유표성의 문제를 흉내말의 사용 빈도, 새말의 생성, 의미의 확장과 관련하여 그 특징을 고찰하고 해석한 논문이다.

임동훈의 "'직하다' 구문의 문법"은 현대국어에서 파생접사 '-음직'과 '하-'가 쓰이는 구성과 어미 '-음'과 보조용언 '직하다'의 통합체로 쓰이는 구성인 'V-음직하-' 구성을 형태와 의미, 통사적 측면에서 고찰한 논문이다. 전자의 '-음직하-'는 선행하는 용언이 타동사라는 조건이 있고 고빈도어는 '-음직스럽-'으로 교체될 수 있으며, 서술어의 결합가를 줄이는 피동 서술어와 같은 기능을 하고 전체가 형용사가 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후자의 '-음직하다'는 품사적 성격이나 문법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 '-음+직하다'로 분석함이 합당함을 보이고 '-음' 선행 용언의 분포와 어미 제약, '-음'의 범주, '-직하다'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 '-음 직하다'가 파생접사화하는 환경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송창선의 "'-답-'을 통사적 접사로 보는 관점에 대한 비판"은 현대국어 형용사 파생접미사 '-답-'의 기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명사구에 붙어서 형용사구를 형성하는 '-답1-'과 명사에 붙어서 형용사를 파생하는 '-답2-'로 구분한 것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결국 필자는 이 둘의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므로 별개의 형태소로 구분할 정도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답-'이 원래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용언이던 것이 문법화되어 오늘날에 이르러 현재는 용언의 성격도 일부 가지면서 동시에 접미사처럼 기능하기도 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하였다.

황화상의 "'-이'형 부사어의 문법 범주"는 논항을 갖는 '-이'형 부사어를, 순수 부사 가운데 논항을 갖는 것들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형용사의 부사형이 아니라 형용사 어기에 부사 파생 접사 '-이'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 부사라고 하였다.

하정수의 〈부사파생어의 저지현상 연구〉는 어기가 용언이고 끝 구성요소가 '-오/우'인 부사파생어를 분석하여 그 부사파생어들과 어기인 용언의 의미 관계를 밝히고, 그 부사파생어가 현대국어에서 생산적인 부사파생접미사 '-이'에 의해 형성된 부사파생어와 저지(blocking) 관계에 있음을 밝혀 현대국어에서 생산성이 없는 부사파생접미사 '-오/우'를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형용의 "다시 '지붕'의 '-웅'에 대하여"는 현대국어의 '지붕'에 대해 통사적 구성 '집+우ㅎ'에서 발달한 것이라는 기존의 지배적인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에 접미사 '-웅'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보면서 이 '-웅'을 일종의 지소사가 아닌 '기둥'의 '-웅'과 같이 별다른 의미 차이를 가지지 않는 '-웅'이라고 하여, 결국 '지붕'이 '집'이 가지던 두 가지 의미가 형태상으로 분화되어 형성된 단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양진의 "타동사 '*식다'를 찾아서"는 중세국어의 보조용언 '식브다'가 본래 어기 '*식다'와 파생접미사 '-브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며, 중세국어의 사동사 '시기다' 역시 기원적으로 '*식다'와 사동접미사 '-이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임을 주장한 논문이다. 이때 '*식다'는 타동사로서 기본적으로 [+행위]의 의미를 가져 'ᄒᆞ다'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데, 중세국어 단계에서는 이미 화석화되어 직접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없으나 '고디식다'에서 합성어의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고, 고대국어 구결자료의 '爲'와 '爲只' 등의 예를 '*식다'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황문환의 "현대국어 파생접미사 '-적/쩍-'의 통시론"은 중세국어부터 현대국어까지 파생접미사 '-적/쩍-'이 통시적으로 변화해 온 과정을 형태 변화와 파생 어기의 변화로 나누어 고찰한 논문이다. 형태 변화는 문헌상에 등장하는 순서를 감안하여 '-젇->-젓->-접->-적

-〉-쩍-'의 변화 과정을 겪은 것으로 파악하였고, 어기 변화는 '-젓-' 단계까지는 별다른 어기 제약을 보이지 않다가 '-접-' 단계부터 어근인 어기의 증대와 함께 부정적 어기를 취하는 경향이 늘고 자음 어기로 고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적-' 단계 이후 어기의 부정적 경향성이 강화되어 현대국어에서 부정적 어기 일색의 편향성을 보이는 것은 '-적-' 단계에 "小, 少"의 의미와 관련된 '-적-' 파생어가 합류하며 간섭을 일으켰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박석문의 "부사 형성 접미사 '-시'에 대하여"는 '애야ᄅᆞ시, 다만지'에 대하여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파생부사의 형태구조 분석을 통하여 부사에서 부사를 형성하는 접미사 '-시'와 '-지'를 추출하고 이들을 접미사 목록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 논문이다.

장윤희의 "고대국어의 파생 접미사 연구"는 석독구결, 향가, 이두 등의 고대국어 자료를 통해 고대국어의 명사·부사·동사·형용사 파생 접미사를 확인하면서, 특히 고대국어에서는 부사 파생 접미사가 가장 다양하게 발견되나 접미사적 성격과 어미적 성격을 모두 지녔고, 피동 접미사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일규의 "현대국어의 하임 풀이씨 뒷가지와 그 파생 양상"은 하임 뒷가지[피동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각각에 대한 파생어의 특성과 하임 뒷가지의 파생 양상을 밑말[어근]의 범주와 끝소리 및 파생어의 범주 등으로 고찰한 논문이다.

3.2 합성어

먼저 하세경의 〈현대국어 사잇소리 현상의 형태론과 음운론〉은 합성명사에 나타나는 사잇소리 현상의 형태론적 측면과 음운론적 측면을 고찰하면서, 경음화 현상뿐 아니라 사잇소리가 비음으로 실

현될 때와 음성형을 갖지 못하는 경우를 분석하고, 사잇소리 현상이 규칙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뿐 아니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논하여 사잇소리 현상의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한 논문이다. 형태론 영역과 관련된 부분만 보자면, 먼저 합성명사의 구성요소 중에는 언제나 사잇소리를 동반하는 어휘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내부 구조에 따라 합성명사들을 분류하여 사잇소리의 분포와 구성요소 간의 결합관계 사이의 상관성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대등 구성, 서술성 명사가 후행하는 종속 구성과 동격 구성, 선행요소가 후행요소의 속성 역할(재료, 형상, 성질, 수단·방법)을 하는 종속 구성에서 사잇소리가 실현되지 않고, 속격 종속 구성(시간, 장소, 소유, 용도)은 사잇소리가 실현되는 전형적인 유형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속격 종속 구성 합성명사만 가지는 의미론적 특징에 집중하여 사잇소리의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론적 조건을 제안하였다. 즉 합성명사의 의미를 해석할 때 선행요소와 후행요소의 의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통사론적 의미만 필요한 합성명사에서는 사잇소리가 실현되지 않으며, 이 밖에도 합성명사의 표면형에서 드러나지 않는 어휘 의미가 더 필요한 속격 종속 합성명사에서는 사잇소리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잇소리는 의미구조가 'N1 × X × N2'인 합성명사에서 출현하는 단어표지 형태소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위의 일반적인 경향에서 벗어난 예들이 동격 구성 합성명사와 용도 관계 합성명사에서 많이 발견됨을 지적하면서, 중세 국어에서 사잇소리가 속격 표지뿐 아니라 동격의 표지로도 사용되었고 사잇소리와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오늘날의 '의'가 동격 구성에도 사용된다는 점을 들어 일부의 동격 구성 합성명사에서 사잇소리가 실현되는 것은 중세 국어 사잇소리의 역사적 흔적이라고 이해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속격 구성과 달리 용도 구성의 속격 합성명사 유형에서 사잇소리가 나타나지 않는 예외가 빈번한 것은 '용도'

라는 의미가 보는 기준에 따라 속성적 의미로 볼 수도 있는 이중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특히 사잇소리가 과대 적용된 예외적인 예들 중 유추가 원인인 것들에 집중하면서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가 유추의 모형이 되는 보편적인 경향이 있다고 가정하고, 구성요소를 공유하는 합성명사들이 있을 때, 사잇소리가 실현되지 않는 합성명사의 유형 빈도성 및 항목 빈도성이 낮고 사잇소리가 실현된 합성명사의 유형 빈도성이나 항목 빈도성이 높다면, 사용빈도가 낮은 쪽이 사용빈도가 높은 쪽을 닮아가려 하기 때문에 사잇소리가 과잉 적용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채현식의 "합성명사에서의 의미 전이와 관습화"는 심리 처리 과정의 측면에서 합성명사의 의미 전이를 다루었다. 곧 은유 표현 합성명사에서, 근원영역의 단어에서 보이는 전이된 의미가 어휘적 의미로 관습화되었느냐에 따라 의미 전이가 합성 과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합성 과정 이전에 일어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박철주의 "먹을거리 합성어의 내면 의미에 대한 연구"는 먹을거리 합성어가 지니는 내면 의미를 '화력에 의한 먹을거리'('군밤'류, '튀밥'류), '다른 먹을거리 재료에 의한 먹을거리'('비빔밥'류, '덮밥'류), '수분 농도에 따른 먹을거리'('된죽'류, '멀죽'류), '투명성에 따른 먹을거리'('맑은장국'류, '멀죽[2]'류), '한데 넣은 먹을거리에 의한 먹을거리'('해물전골'류, '섞어찌개'류), '별도 차림에 따른 먹을거리'('찌개백반'류, '따로국밥'류) 등으로 유형 분류하여 해당하는 합성어들의 내면상 의미구조를 분석한 논문이다.

최형용의 "합성어 형성과 어순"은 합성어 형성과 관련되는 어순의 양상을 고찰하여 '아가방:손발:겁나다:등지다:앞서다'와 같은 단어들이 사잇소리, 음운의 탈락, 어근의 탈락 및 같은 의미를 가지는 환원했을 때 조사의 생략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사실 등을 들어 문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단어 형성 고유의 과

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문장의 구성요소와 그 순서가 같은 것은 문장을 구성하는 원리의 지배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상위에 존재하는 원리인 국어의 '핵-머리 속성' 때문이라고 보았다.

홍윤기의 "합성동사 구성의 한계성 실현 양상"은 합성동사 구성의 상황이 드러내는 상적 의미가 개별 동사 구성의 경우와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합성동사 구성의 상황유형과 개별 동사 구성의 상황유형을 비교·검토하면서 각 구성의 상황이 드러내는 한계성이 활성화되는 양상을 살폈다. 그 결과 '대상'을 공통으로 가지는 합성동사 구성에서는 '대상'이 [잣대]의 상 역할을 하고 그 한계성이 활성화되고, '대상'과 '공간'을 가지는 합성동사 구성에서는 '공간'이 [완결점]의 상 역할을 하고 그 한계성이 활성화된다고 한다. 그리고 '대상'을 공통으로 가지고 '공간'을 가지지 않거나 가지는 합성동사 구성에서는 '공간'이 [완결점]의 상 역할을 하고 그 한계성이 활성화되며, 공통의 '공간'을 가지고 '대상'을 가지지 않거나 가지는 합성동사 구성에서는 '공간'이 [완결점]의 상 역할을 하고 그 한계성이 활성화된다고 한다. 또한 다른 '대상'을 가지는 합성동사 구성에서는 상 역할 [노정]에 대응하는 '대상'이 암시적인 [완결점]과 결합하여 한계성이 활성화되는데 이 경우 '대상'의 특성 때문에 [공간]의 활성화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공간'을 가지는 합성동사 구성에서는 [노정]과 [완결점] 상 역할에 대응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공간의 한계성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장윤희의 "중세국어 비통사적 합성동사와 관련된 몇 문제"는 중세국어의 비통사적 합성동사와 관련하여 그 형성 요인 문제, 판별 문제, 선후행 동사의 의미 관계 문제를 살핀 논문이다. 먼저 중세국어에서 생산적으로 발견되는 비통사적 합성동사는 전기 중세국어 이전 시기에 동사 어간이 어미 없이 사용될 수 있는 독자적 용법

'V_1#V_2'의 통사적 구성으로 존재했던 것이 'V_1+V_2' 형태론적 구성으로 변화한 것이라 하였고, 외형상 'V_1+V_2'의 구조를 지녔다고 해서 모두 비통사적 합성동사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V_1과 V_2 사이에서 파악되는 의미 관계, 대등관계·종속관계·융합관계를 확인하면서, 특히 종속관계를 '방법, 정도, 양상', '계기성', '동시성' 등의 의미관계로 더 세밀하게 나누었다.

이정훈의 "'V-어V' 합성동사 형성 규칙과 범주통용"은 통사적 구성의 성격과 단어의 성격 을 모두 지닌 'V-어V' 합성동사의 형성 기제로 '서로 모순이 되는 요구나 어휘화의 요구가 있을 때 'CP→X'를 적용한다, X의 범주는 CP의 분포에 적합하게 결정한다'라는 범주통용의 통사 절차를 제안하고 'V-어V' 합성동사의 논항 실현 양상을 살핀 논문이다.

정희창의 "준말의 단어 형성 문제"는 단어 형성 과정의 하나로 형식이 감소하는 '준말'을 인정할 수 있고 준말 형성 과정에서 저지 현상이 나타남을 고찰한 논문이다.

하길종의 "중·근세 국어의 첩어 연구"는 중·근세 국어의 4음절 첩어에 대해 의태첩어를 동어첩어와 의사첩어로, 의성첩어를 동음첩어와 유음첩어로, 의정첩어를 동어첩어와 의사첩어로 유형 분류하고 그 특징을 고찰한 논문이다.

4. 굴절론

4.1 조사

먼저 채완의 "국어의 격과 조사"는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발표된 격과 격조사 관련 논저들을 주제에 따라 살피고 있다. 즉 격의 개념과 범주 설정 문제, 격 이론의 수용과 적용 문제, 격조사의 핵성

여부, 격 혹은 조사의 교체, 격조사의 범주적 특성, 개별 조사의 통사의미적 기능, 조사화 과정과 변이 기제, 복합조사의 설정 기준과 그에 따른 조사 목록의 확립, 조사 연속 구성에서의 조사들의 상대적 결합 순서, 말뭉치 자료를 기초로 한 연구, 특수한 텍스트에서의 조사의 쓰임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각 조사에 대한 통시적 관점에서의 연구, 북한어나 방언의 조사에 대한 관심, 한국어 교육과 대조분석에서의 조사 연구 등 2000년 이후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격과 격조사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우순조의 “한국어 조사 기술과 관련된 쟁점과 대안 -표지 이론적 관점에서-”는 한국어 조사 기술과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어 조사의 기능과 분포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논문이다. 먼저 한국어 조사가 통사적 단위로서 그 통합 대상이 선행하는 통사적 구성 전체임을 지지하는 통사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 ‘XP-조사’ 연쇄의 범주적 정체성과 관련하여서는 조사를 핵어로 보는 분석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조사의 분류와 관련하여 문장성분의 문법적 기능을 표상하는 조사와 담화적 의미를 드러내는 조사로 나누는 전통적 분류가 합리적임을 논의하고, 조사 실현과 관련하여 형상에 입각한 설명들이 형상에 대한 편향된 인식에 근거하였음을 비판하고 형상의 수학적 정의에 따라 한국어의 자유 어순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형상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였다. 또한 필자가 계속해서 제안해 온 표지 개념에 따라 조사의 실현과 교체 현상을 승격 원리로써 설명할 수 있음을 예를 통해 확인하였다.

황화상의 “조사 ‘에서’의 문법 범주”는 주어인 단체 명사(구)에 결합하는 조사 ‘에서’의 문법 범주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 고찰한 논문으로, 우선 ‘에서’ 결합 명사구(‘NP에서’)가 처격의 부사어이고 문장의 주어가 ‘그 단체에 속해 있는 누군가’ 정도인 것이 감추어져

있다고 본 기존의 논의에 대해 '그 단체에 속한 누군가'를 가정하기 어려운 문장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NP에서'를 문장의 주어라고 보았다. 그리고 '에서'가 다른 구조격 조사와 달리 '만'에 선행 결합하고 다른 구조격 조사가 결합하지 못하는 '는, 도' 등의 보조사, 보격 조사 '이/가'와도 자유롭게 결합하며, 주어 명사구 'NP에서'가 서술어에 따라 결합 제약을 다양하게 보임을 들어 '에서'가 격(주격)과 관련된 문법 범주라기보다는 의미역(주체)과 관련된 문법 범주, 곧 '주체 표시'의 보조사로 보았다.

이상욱의 "주어적 속격에 대한 재론"은 명사절 또는 관형사절의 주어가 속격으로 실현된 주어적 속격 구성의 통사적 지위를 고찰한 논문으로, 주어적 속격 구성이 단지 그 의미가 후행하는 성분의 주어로 이해될 뿐 일반적인 관형어와 다른 통사적 차이를 보이지 않아 결국 주어적 속격은 내포절의 주어가 아닌 일반적인 속격형에 속하고 그 내포절은 명사절이 아니라 명사구 지위임을 주장하였다.

박철주의 "『육조법보단경언해(상·중·하)』에서의 '을/를' 표지·무표지 양상에 대한 연구"는 『육조법보단경언해』에서 구문의 유형에 따라 '을/를'이 표지 또는 무표지의 일정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보였다.

같은 필자의 "『대명률직해』와 현대국어 간의 조사 '과(果)'의 쓰임 차이에 대한 연구"는 『대명률직해』에서의 조사 '果'가 현대국어의 '와/과'와 달리 접속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거나/또는'처럼 선택의 의미로도 쓰였고 그 쓰임이 매우 분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논문이다.

유하라의 〈현대국어의 조사 배열 양상〉은 현대국어 조사들의 배열 순서를 밝힌 논문이다. 주제가 통사론 영역과 맞물려 있어 거기서 자세히 다루리라 판단되어 그 구성만 간략히 언급하자면, 먼저 조사 범주의 특성을 살피고 조사 범주의 목록을 확정하여 조사를 분

류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들이 어떠한 순서로 배열되는지 격조사, 격조사와 특수조사, 특수조사 순으로 나누어 항목별로 검토하고, 조사 연속 구성의 특성을 살피면서 조사의 의미와 기능이 조사의 배열 순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폈다.

같은 필자의 "조사의 배열 양상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쯤'을 중심으로-"는 '쯤'이 특수조사임을 밝히고 조사 연속 구성에서 '쯤'이 어떠한 배열 양상을 보이는지 검토하였다. 즉 '쯤'은 접미사로 다루어지기도 하지만 용언의 활용형이나 조사 뒤에 실현될 수 있음을 들어 특수조사로 보았으며, 어휘격조사나 특수조사에 선행하기도 하고 후행하기도 하는데 이로써 조사의 의미적 상관성과 작용역이 조사의 배열 순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파악하였다.

박지용의 "조사 연속 구성과 복합조사 -교착소 '서'를 중심으로-"는 교착소 '서'와 관련되는 구성을 중심으로 조사 연속 구성을 단일조사 연속구성과 복합조사로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조사의 결합 원칙을 모색한 논문이다. 곧 '이+서' 구성과 '-고+서' 구성, '에서, 에게서, 한테서, 으로서, 에서부터, 서부터, 에서야' 구성에서의 교착소 '서'의 원형적인 의미 기능을 '조건 제시'라고 하면서 전자는 교착소 연속 구성으로 후자를 복합조사 구성으로 파악하였다. 그 과정에서 ① 조사 연속 구성 내의 각 조사의 본래적 의미기능이 사라진 경우 ② 어느 한 조사가 생략되었을 때 생략되기 전의 의미기능이 사라진 경우 ③ 선행조사가 수의적 성분이거나 후행조사가 필수적 성분인 경우 ④ 조사 연속 구성에서 후행조사가 생략되었을 때 속격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복합조사라고 복합조사의 판별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가 결합한 조사 연속 구성에서 문제가 되었던 구성을 토대로 선후행조사의 결합관계에 따라 조사의 결합 순서가 정해진다는 가설적 수준의 '상대적 결합 순서 가설'을 제안하였다.

한편 백낙천의 "국어 조사의 범주와 의미"는 국어의 격조사와 보

조사의 분류가 그리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국어 조사의 범주적 위상을 검토하고, 국어 조사 중 통합형 접속어미의 마지막 구성요소에서 확인되는 '-만, -도, -야, -은, -을, -에, -으로' 등이 공통적으로 선택에서 배제된 대립하는 요소를 전제하고 조사에 통합되는 선행 요소를 선택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파악하였다.

고대영의 〈현대국어의 후치사에 대한 연구 -'없이, 밖에, 말고'를 중심으로-〉는 체언에 결합하는 요소들을 조사(격조사, 특수조사(보조사), 연결조사) 범주로 다루는 방식이 아닌 격어미와 후치사로 분류하고 '없이, 밖에, 말고'를 후치사로 설정할 수 있음을 형태·통사·의미적인 특징을 통해 검토한 논문이다. 결국 후치사를 '형태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선행어(대체로 명사상당어구)에 결합하여 선행어의 의미를 한정하거나 의미를 더해 주는 요소'로 한정하여 '없이, 밖에, 말고'가 이러한 후치사임을 주장한다.

임동훈의 "'만큼, 처럼, 보다'가 격조사인가"는 현대국어에서 비교격 조사로 간주되는 '만큼, 처럼, 보다'에 대하여 그 문법적 기능, 분포, 다른 조사와의 결합 관계, 역사적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할 때 보조사로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보조사를 뒤에 다른 조사가 올 수 있느냐 여부, 의미상의 지배 영역이 선행어를 넘어 확장될 수 있느냐의 여부, 의미적 추상성의 정도나 문법화 단계에서의 위치 등에 따라 후치사와 첨사로 구분하는 문법 모형을 받아들인다면 이들을 보조사 중에서도 후치사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지연의 〈한국어 보조사에 대한 연구〉는 보조사의 의미적·통사적 특성을 밝힌 후 그 검증 기준을 세워 보조사 목록을 설정한 논문이다. 결국 보조사의 필수적 검증 기준으로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생략하였을 경우 문장의 의미가 변하는가, 문장에서 생략하여도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지 않는가, 체언뿐 아니라 부사와 용언 아래에도 결합이 가능한가, 구 단위의 구성에도 결합이 가능한가' 등

을 내세워 '까지, 다가, 도, 들, 마저, 만, 밖에, 부터, 뿐, 서, 씩, 은/는, (으)ㄹ랑/일랑, (이)나, (이)나마, (이)라(고), (이)라도, (이)라면, (이)라야, (이)란, (이)면, (이)야, (이)야말로, (이)ㄴ가, (이)ㄴ들, (이)ㄴ즉(슨), 조차, 쯤' 등 28개만을 보조사로 인정하고 있다.

김효진의 〈한국어 조사 '만'과 '밖에'의 분포와 의미〉는 '만'과 '밖에'가 only의 의미로 진리 조건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기존 논의를 비판하면서 그 분포와 의미에 있어 다양한 차이를 보임을 주장한 논문이다.

이필영의 "조사 '는'의 의미와 출현 조건"은 '는'의 기본 의미를 찾아 그 의미 자질로부터 두 가지 상이한 기능이 파생하였음을 설명하고 주제 조사 '는'이 출현할 수 있는 선행 명사구의 담화/의미론적 조건을 밝힌 논문이다. 곧 주제 조사 '는'과 비주제 조사 '는'은 'X-로 한정하여 말함(봄)'이라는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X의 잠재적 대립항을 전제하게 마련이므로 대조성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주제의 '는'이 비주제의 '는'에 비해 대조성이 약한 것은 주제가 지시하는 사물과의 잠재적 대립항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주제 조사 '는'의 출현 조건은 그 선행 명사구가 지시하는 사물의 존재가 화자에게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선행 명사구의 담화/의미론적 조건과 그 문장의 주된 관심이 그것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문장의 의미론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김선영의 〈특수조사 '-은/-는'의 연구〉는 '-은/-는' 문장의 담화적 특징과 통사적 특징을 살피고 다양한 상황적·문맥적 의미들의 상관관계를 통해 의미적 특징을 밝혀 '-은/-는'의 '대조'와 '주제'의 의미를 확인하였다.

이규호의 "접속조사의 분류와 목록"은 단어 접속에 쓰이는 접속조사의 분류 기준을 마련하여 접속조사를 분류하고 그 목록을 제시한 논문으로, 우선 접속조사를 구성방식에 따라 종속구성과 대등구

성으로 분류하고, 접속관계에 따라 종속구성을 수식, 대등구성을 나열・선택・대조로 하위분류하였다. 그리고 의미관계에 따라 수식을 수식・내용설명, 나열을 함께・예시・마찬가지・동시・첨가・강조, 선택을 상관없음・불확실함, 대조를 상반됨 등으로 세분하고 총 47개 항목의 접속조사 목록을 제안하였다.

한편 박미영의 〈개화기 신문에 나타난 조사의 연구 -〈뎨국신문〉과 〈독닙신문〉을 대상으로-〉는 계량적 분석을 통해 개화기 국어의 조사 형태 및 표기 양상을 〈뎨국신문〉과 〈독닙신문〉에서 확인한 논문이다.

서민정의 "통어적 기능을 고려한 명사토의 형태론적 구조 분석과 분류"는 핵어 구-구조 문법(HPSG)에 의거하여 명사와 명사토[조사]의 구조를 명사토의 통어적 기능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형태론적으로 분석하고, 명사토를 기능과 분포에 기초하여 분류하고 각각의 자질을 명세화하였다.

4.2 어미

먼저 어말어미와 관련하여, 이금희의 〈인용문 형식에서 문법화된 어미・조사 연구〉는 인용구문에서 문법화된 어미・조사의 문법화 과정과 문법화에 따른 통사적・의미적인 변화를 밝혔다. 인용문 형식에서 문법화된 어미・조사들은 '다(라/냐/자) 하-' 구성에서 'ㅎ'이 탈락한 후에 상위절과 피인용절 어미의 축약 현상이 일어나고, 그 후에 하나의 어미로 굳어지는 융합 현상이 일어난다. 그 결과 문법화된 어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원래의 인용문 어미・조사 형식으로 되돌릴 수 없고 형태・통사적으로 인용문 어미・조사 형식과 다른 특징을 보이며, 의미적으로도 인용의 의미는 사라지고 화자의 [+놀라움], [+친근함], [+무책임], [+의도] 등의 새로운 양태

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박용찬의 〈15세기 국어 연결 어미와 보조사의 통합형 연구〉는 15세기 연결 어미와 보조사의 통합형을 대상으로 형태·통사론적인 특징과 의미 기능을 면밀히 살펴본 것이다. 우선 15세기 연결 어미와 보조사의 통합형을 '-고도, -고셔, -고ᅀᅡ, -곤, -고브터, -곡, -곰, -고옷 ; -어도, -어셔, -어ᅀᅡ, -언, -어다가, -어만, -어곰, -억, -엄, -어옷 ; -며셔, -명 ; -겐, -기곰 ; -다가도, -다각 ; -거늘ᅀᅡ, -(거)든ᅀᅡ, -다가며브터, -디옷, -락, -란ᄃᆡ만뎡' 등 모두 30개로 파악하고, 그 의미는 각각 '-고도([계기]·[양보], [대등]·[양보], [계기]·[역동], [대등]·[역동]), -고셔([계기]·[완료 상태 유지]), -고ᅀᅡ([계기]·[한정]), -곤([계기]·[한정]), -고브터([근거/계기]·[출발점]), -곡([계기]·[시작], [대등]·[시작]), -곰([대등]·[반복]), -고옷([계기]·[지목]); -어도([배경]·[양보], [방법]·[양보], [이유]·[양보], [배경]·[역동], [방법]·[역동], [이유]·[역동]), -어셔([배경]·[상태 유지], [방법]·[완료 상태 유지], [이유]·[완료 상태 유지]), -어ᅀᅡ([조건]·[한정], [계기]·[한정]), -언([배경]·[대조], [방법]·[대조]), -어다가([방법]·[강조]), -어만([방법]·[정도], [방법]·[한정]), -어곰([방법]·[반복]), -억([방법]·[시작], [이유]·[시작]), -엄([방법]·[반복]), -어옷([방법]·[지목]) ; -며셔([대등]·[행위 유지]), -명([대등]·[강조]) ; -겐([결과]·[대조]), -기곰([결과]·[반복]) ; -다가도([중단]·[양보]), -다각([중단]·[시작]) ; -거늘ᅀᅡ([전제]·[한정]), -(거)든ᅀᅡ([조건]·[한정]), -다가며브터([연발]·[출발점]), -디옷([부정]·[지목]), -락([전환]·[시작]), -란ᄃᆡ만뎡([조건]·[양보])'라 하였다.

정언학의 "통합형 어미 '-습니다'류의 통시적 형성과 형태 분석"은 현대국어의 통합형어미 '-습니다, -습니까', '-습디다, -습디까',

'-((으)오)리다, -((으)오)리까', '-(으)ㅂ시다', '-(으)십시오'의 통시적 형성 과정과 형성 시기 및 형태 분석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고광모의 "'-게 ᄒᆞ-'로부터 발달한 종결어미들"은 여러 방언에서 보이는 '-갸오/-갸우/-겨오', '-갸/-겨', '-게요/-기요/-교'(명령법어미)와 '-겝소/-깁소/-깁서', '-게오/-거오', '-게'(청유법어미) 등이 모두 통사적 구성 '-게 ᄒᆞ-'의 명령형이 융합되어 단일 형태소가 된 일종의 문법화의 결과라고 하면서, 명령법과 청유법 어미 '-게'도 '-게 ᄒᆞ여'로부터 발달했을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김수태의 "물음법 씨끝의 체계"는 말뭉치에서 추출된 43개의 물음법 씨끝[의문법어미]에 대해 분포 제약, 들을이의 유무, 물음의 유형, 응답의 특징, 말할이의 명제에 대한 판단 등의 분류 기준을 설정하여 분류함으로써 물음법 씨끝의 체계를 세웠다.

고은숙의 "근대국어 연결어미의 기능 연구 -역학서 자료를 중심으로-"는 동일 원문을 시기에 따라 달리 언해한 역학서에서 보이는 연결어미 기능 변화 양상을 고찰한 논문이다. 그 결과 [원인]의 기능을 갖는 연결어미 '-매, -기예, -므로' 등의 등장으로 이러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니, -거늘, -ㄹ씨, -아' 등이 위축되었으며, 중세국어부터 있던 연결어미 '-니'는 다양한 기능 가운데 [전제] 및 [대조]로서의 쓰임은 줄어들고 [원인]으로서의 쓰임은 확장되었다고 하였다. 결국 중세국어에서는 여러 기능을 가지는 몇몇 연결어미가 활발하게 쓰였던 데 반해, 근대국어에서는 한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는 여러 연결어미가 활발하게 쓰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안주호의 "현대국어 연결어미 {-니까}의 문법적 특성과 형성과정"은 19세기에 등장하는 연결어미 {-니까}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를 파악하고 그 형성과정을 살폈다. 먼저 {-니까}의 의미기능을 [상황의 설명]과 [원인, 이유]로 파악하고 전자보다 후자의 {-니까}가 시상·주어인칭·선행절 동사·서법 등의 제약이 훨씬 많다고 하였다. 그

리고 {-니까}는 {-니}와 {-짜/ᄶᅡ/까}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때 {-니}의 본질적인 의미기능 [상황의 설명]을 이어받아 19세기 처음에는 선행절의 사건과 후행절의 사건을 선시적으로 연결한 것이 [원인, 이유]의 의미도 갖게 되었고, {-짜/ᄶᅡ/까}의 {-ᄀᆞ/가}가 이러한 [원인, 이유]의 의미기능을 강화시켰다고 파악하였다.

장숙영의 "『노걸대·박통사』류에 나타난 국어의 이음씨끝 변화 연구"는 16·17·18세기에 걸쳐 『노걸대·박통사』류에 나타난, 이음씨끝[연결어미]가 생성되고('-ㄹ쟉시면', '-면셔') 음이 변하며('-거ㅿ/어ㅿ', '-아ㅿ/어ㅿ') 의미 및 기능이 축소되는('-락~-락') 모습들을 살핀 논문이다.

정혜선의 〈19세기 국어의 '원인' 통합형 접속어미 연구〉는 통합형 어미의 식별 기준을 마련하고, 19세기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원인' 통합형 어미를 설정하여 그 공시적인 쓰임을 살폈다. 우선 통합형 어미를 통시적으로 구성 성분이 분석되거나, 공시적으로 구성 성분이 분석되더라도 분포 제약성, 공시적 문법 기능의 상실 등 특정한 정보를 요구하는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어미라 정의하고, 그 문법적·의미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19세기 '원인' 통합형 접속어미로 '-어셔, -으니까, -노라고, -노라니, -은즉, -은지라, -을지니, -기에, -기로, -으매, -으므로, -노니, -거늘' 등을 설정하여 그 형성 과정을 논하고, 19세기에 '원인' 통합형 접속어미로 '-다고, -다니'가 새로 출현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인' 통합형 접속어미의 통사적 특징을 살피기 위해 선행절에서의 주어 통합 관계와 서술어 통합 관계, 선문말 어미 통합 관계를 밝히고 후행절에서의 문체법을 확인하였고, 19세기 문헌에 나타난 '원인' 통합형 접속어미의 표기와 이형태·관련 형식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정주리의 "'-음', '-기'의 의미와 제약"은 보문소 '-음', '-기'의 의미를 상위동사 결합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추출하고자 한 논문이다. 그

결과 '-음'과 결합하는 동사들이 상위의 의미 속성으로 [선행적 사건성]을 가지고, '-기'와 결합하는 동사들이 [예측적 사건성]을 상위 의미 속성으로 가진다고 하면서, 이러한 상위의 의미 속성이 '-음', '-기'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나은미의 "접미사 '-음, -기'의 범주와 의미에 대한 연구"는 '-음, 기'의 문법 범주와 의미 특성을 고찰한 논문으로, 형태적 구성과 통사적 구성에 나타나는 두 형태의 문법 범주 기술에 있어 의미적 동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제안하고, '-음, -기'의 의미적 차이를 '-하다', '-이다'와의 결합 제약을 통해 '-음'은 [+추상성]과 [+실체성], [-동작성]을, '-기'는 [+추상성]과 [-실체성], [+동작성]을 의미 특질로 갖는다고 보았다.

유현경의 "형용사에 결합된 어미 '-게' 연구"는 어미 '-게'에 형용사가 결합한 경우를, 형용사가 의미전이를 가지며 '-게'가 파생접사적 성격을 가져 문장에서 하나의 어휘처럼 쓰이는 것과 일반적인 형용사의 활용형처럼 부사절로 쓰이는 것으로 나누고, 각각의 형태·통사적 특징을 고찰한 논문이다.

한편 선어말어미와 관련하여, 박부자의 〈한국어 선어말어미 통합순서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선어말어미의 통합순서가 변화하는 양상을 추적하여 통합순서가 변화한 원인을 구명하고자 한 논문이다. 즉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통합순서가 변화한 [더+시]와 [시+더], [거+시]와 [시+거], [숩+시]와 [시+숩], [엇+숩]과 [숩+엇]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통합순서가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또 그러한 변화를 겪게 된 요인은 어디에 있는지 밝힌 것이다. 먼저 [숩+시]와 [시+숩], [엇+숩]과 [숩+엇]의 경우 '-숩-'의 통합순서가 변화한 것은 기존 논의대로 주체 겸양의 '-숩-'이 16세기 말부터 화자 겸양으로 기능이 변하여 점차 어말어미에 가깝게 밀려났음을 많은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더+시]의 [시+더] 통합순서

변화는 '-더-'의 기능 변화와 무관하게 시상·서법 선어말어미가 모두 주체 존대 '-시-'에 후행하게 된 체계의 압력 때문이라 파악하였고, [거+시]의 [시+거] 변화는 순수하게 두 선어말어미 간의 통합 순서 변화가 아니라 '-거-' 통합형 연결어미의 불안정한 불연속 형태가 안정 상태로 돌아가려는 속성에 의한 변화라고 보았다.

김지은의 〈한국어 형태소 '었-' 연구〉는 컴퓨터 통신 언어 사용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실제 언어생활이 반영된 인터넷 소설을 국어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인터넷 소설 「엽기적인 그녀」에 나타난 '-었-'의 다양한 의미를 밝혔다. 결국 '-었-'은 기본적으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소이며, 특별한 조건, 즉 미래 상황에 쓰인 '-었-'은 중세국어의 '-어 잇-'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어 상적 의미를 지니고, '-었었-'의 경우 '-었1-'은 과거 사태의 모습을 총체적인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전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박선영의 〈현대 국어의 시제형태소 '-었-, -는-, -겠-, -더-'에 관한 연구〉는 '-었-, -는-, -겠-, -더-'의 여러 쓰임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 중심 의미를 밝힌 논문으로, 화자의 적극적 관심 유무에 따라 '-었-, -는-, -겠-, -더-'의 실현 여부가 결정되고, 이들이 상, 시제, 법의 삼원적 짜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모든 문장은 시제성을 가지며 이 시제성은 화자가 상황과 그 상황의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각 시제 범주에 의해 구분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었-'의 중심 의미는 '과거시제성'이며 상황에 따라 '완료성'이 도출되고, '-는-'은 시제성이 약하나 문장의 상황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면 현재시제성, 일치하지 않으면 미래시제성을 가지며, '-겠-'은 시제 요소가 아니라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서법이라 파악하였다. 또한 '-더-'는 문장 상황에 대한 화자의 과거 경험 인식시를 기준 삼아 문장 상황의 시제성을 상대적으로 들어내어 결국 그 전 상황을 화자가 과

거 어느 시점에서 경험했음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송창선의 "현대국어 선어말어미 '-더-'의 기능 연구"는 '-더-'가 원래부터 주어인칭 제약이 없었으며, '-더-'가 종결형에서 '-더라, -더냐'와 같이 쓰일 때 주어인칭 제약이 생긴 것이라고 하면서 관형절에서 쓰이는 '-던'의 '-더-'와 종결형의 '-더-'가 '기준 시점의 이동'이라는 의미를 갖는 하나의 형태소라고 하였다. 아울러 '-더-' 앞에 오는 '-었-'에 대해 과거시제를 나타내지 않고 주로 '완료의 지속'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병기의 ""-겠-'의 문법화와 확정성"은 '-게 ᄒᆞ엿-' 구성이 어떻게 '-겠-'으로 문법화할 수 있었는지 구성요소의 의미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즉 '-겠-'의 미래성은 기본적으로 '-게 되-'의 의미를 갖는 '-게 ᄒᆞ-'에서 기인하나 과거 내지 결과상(완료상)의 의미를 갖는 '-엿(어 잇)-'과 의미가 상충되는데, 확정성을 나타내는 문맥에서 과거나 현재 사태에 대한 기술이 미래 사태를 함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 상충이 해소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게 ᄒᆞ엿-'의 의미는 '예정'이라고 할 수 있고 '-겠-'으로 문법화가 완성되면서 '추정'과 '의도'의 의미까지 확대되었다고 하였다.

정희영의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근대국어 시제 연구 -춘향전을 중심으로-〉는 후기 근대국어 자료인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을 대상으로 종결문과 접속문의 선행절, 관형절에서 보이는 시제 체계를 분석한 논문이다. 우선 과거 시간은 서술어가 동사일 때 종결문과 접속문에서는 '-엇-'과 '-더-'로, 관형절에서는 부정법과 '-더-'로 표현하였고,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종결문, 접속문, 관형절 모두 '-더-'로 나타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시간은 종결문에서는 주로 '-ㄴ/는-'이 동사에 결합하여 나타났고 '-ᄂᆞ-'로도 표현하였으며, 접속문의 선행절 '-으니'에서는 주로 '-ᄂᆞ-'가 탈락한 부정법으로 표현하

나 '-ᄂᆞ니' 형태도 일부 보인다고 한다. 미래 시간은 '-리-', '-겟-'으로 나타나는데, 종결형에서는 경판본과 완판본 모두 '-겟-'보다는 '-리-'가 많이 나타나고 연결형에서는 경판본에서는 '-리-'가, 완판본에서는 '-ㄹ 것-'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종결형에서 '-ㄹ 것'은 아직 현대 국어처럼 활발히 쓰이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김현주의 "후기 중세국어 {-숩-}의 기능 -'존대되는 존재'의 파악을 중심으로-"는 객어를 설정할 수 없는 예들을 통해 {-숩-}으로 존대 상황을 표현할 경우 '존대되는 존재'가 문장 층위가 아닌 의미역 층위에서 수동자로 범주화될 수 있음을 보인 논문이다.

송이규의 〈존대법 '-숩-'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15세기에 객체높임으로 쓰인 '-숩-'이 상대높임으로 변한 시점을 종래의 17세기 초가 아닌 16세기 중반임을 주장하고, '-숩-'의 이형태 교체에 있어 논란이 된 ㅈ(ㅊ) 뒤에 '-좁-'이 출현하는 현상을 파열음(ㄷㅌ)과 파찰음(ㅈㅊ)이 공유하고 있는 자질값[-지속성] ([-continuant])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조규태의 "중세 국어의 선어말 어미 '-으니-'에 대하여"는 중세국어의 선어말어미 '-으니-'의 형태론적인 문제, 문법 기능 문제, 담화 상황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한 논문이다. 결국 중세국어의 선어말어미 '-으니-'는 현대 국어의 선어말 어미 '-으니-'와 같이 말할이가 들을이에게 명제를 '단정 지어 일러주고자' 할 때 사용하는 '단정법' 문법 형태소이고, '-으니-'가 나타나는 위치와 결합되는 형태소와 상관없이 동일한 문법 기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으니-'와 결합된 '-니라, -니이다' 등이 이른바 둘째설명법의 구실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중세국어의 '-으니-'는 어떤 사실이나 행위라도 단정 지어 표현하고자 할 경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현대국어에서는 [+상관적] 장면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말인 경우에 사용되나 중세국어에서는 [+상관적] 장면이라는 제약이 없으며, 손윗사람이거나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이라는 제약도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장요한의 "어미 '-과-'의 의미 기능에 대한 고찰"은 중세국어 '-과라', '-과이다', '-관뎌' 등에서 확인되는 '-과-'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살피고 그 문법적 의미 기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중세국어의 '-과-'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하나의 어미로 '강한 감탄'을 나타내는 감탄의 선어말어미이고, 모든 용언의 어간에 바로 통합하거나 '-슳-' 뒤 '-이-' 앞에 나타나기도 하며, 주로 화자가 주어인 직접인용문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정훈의 "어미의 형태분석에 대하여 -이형태 규칙과 통사구조 형성을 중심으로-"는 어미의 형태분석에 따르는 이형태 문제와 통사구조 형성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한 것으로, (선)문말형태의 이형태 실현을 어휘잉여규칙의 성격을 지닌 이형태 규칙으로 기술할 수 있으며, 이형태 규칙 사이에는 규칙순이 성립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선)문말형태는 그 분포의 제약성과 무관하게 모두 동일한 통사규칙에 의해 통사구조에 도입되며, 분포의 제약성은 통사구조적인 술어로 기술된 어휘적 특성으로 포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유승섭의 "국어의 동사적 기능형태소의 통사적 기제와 통합관계"는 동사적 기능형태소인 문말앞 형태소와 문말 형태소가 각각 통사적 층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법적 기능을 담당함을 이동과 인허(일치·점검)라는 통사적 기제 및 범주선택자질에 의한 통합양상을 통해 고찰한 논문이다.

한편 홍세아의 〈개화기 신문에 나타난 어미의 연구 -〈독닙신문〉과 〈뎨국신문〉을 대상으로-〉는 한글만을 전용한 개화기 신문 독닙신문과 뎨국신문에 나타난 어미(선어말어미,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의 빈도를 조사하여, 두 신문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현대 국어의 어미와 비교·대조하여 개화기 국어 어미에 대한 이

해를 높인 논문이다.

김정대의 “어미의 지배 범주에 대한 주시경(1910)의 인식”은 주시경이 『국어 문법』(1910)에서 현재의 어미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고찰한 논문이다.

5. 품사론 및 품사별 어휘의 음운・형태・통사・의미, 문법화

먼저 품사 분류와 관련하여, 남기심 외 12인의 『왜 다시 품사론인가』는 통사론적 시각에서 품사론을 다시 조망한 결과물이다. 우선 총론으로 남기심의 “왜 다시 품사론인가”에서는 통사론과 분리된 품사론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통사 이론에 변화가 있고 통사 구조의 분석이 정밀해지면서 기존의 품사 개념, 하위분류 등에 추가적인 정보를 더하고, 세부적으로 재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후 품사 각론으로 “명사(이병규), 대명사(정희정), 수사(한송화), 동사(강현화), 형용사(유현경), 관형사(우형식), 부사(조민정), 지정사 ‘이다’(남길임), 조사(이선희), 어미(이종희), 감탄사(오승신)” 등에 대해 각 품사의 선행 연구를 개괄하고 품사로서의 범주적 성격 및 형태・통사・의미적 특성을 기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말뭉치 기반 국어 어휘 기술의 실제”(이희자)에서는 품사의 기본 단위가 되는 어휘를 기술하기 위한 말뭉치 기반 연구 방법론 및 특징에 대해 살폈다.

서태룡의 “국어 품사 통용은 이제 그만”은 국어 문법과 국어사전에서 인정하고 있는 품사 통용의 실상을 드러내고 통용을 몰아내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밝히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다. 즉 국어 문법에 바탕을 둔 국어사전에 품사 통용이 많아진 이유가 수식어와 피수식어라는 통사 기능을 기준으로 삼거나 통합적 특징의 차이

를 기계적으로 품사분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며, 복합어나 파생어에 어휘화되어 들어 있는 표제어까지 뜻풀이를 하기 때문이라 하면서, 국어 단어의 특성에 맞도록 품사분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시 확립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용함으로써 국어 문법 기술에서 품사 통용을 몰아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정택의 "우리말 체언의 품사 설정과 하위분류"는 품사분류의 대표적인 준거인 형태와 기능, 의미가 체언을 명사, 대명사, 수사로 하위분류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이들을 일단 명사 범주 하나로 통합하면서, 세부적인 특징들을 근거로 그 하위범주화를 시도하였다. 즉 문법적 특징을 고려하여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를 일차적으로 구분해 냈으며, 문장성분으로서의 자격 및 의미 기능의 형식성 유무와 구체적 의미 내용 등을 근거로 세부적인 분류도 시도하였다.

한편 국어학계의 최대 논쟁거리인 '이다'에 대한 논의가 지난해에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우선 임홍빈의 "정체 밝힘의 형용사 '이다' 문제와 연어"에서는 '이다'의 활용 양상, 선행 성분의 분포, 모음 뒤에서의 필수적 실현, 논항 구조와 격 여과 문제, 간격화(gapping) 현상을 근거로 '이다'에 대한 기왕의 논의가 온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숨은 주어(공범주 주어)의 존재를 중시하면서 '이다'가 정체 밝힘(identification)의 의미론적 기능을 가지는 독립된 품사, 곧 형용사 범주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내가 철수와 친구이다'와 같은 예에서 '친구이다' 결합 구성을 연어(collocation)로 보고 이 연어가 위 '철수와'처럼 '와' 논항을 요구하기도 하고 동사구 보문이나 목적어 또는 완형 보문이나 불구 보문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목정수의 "한국어 문법 체계에서의 '이다'의 정체성"은 '이다'의 문법적 지위를 '기능동사'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논문이다. 곧 '이다'와 관련된 생략 문제, 구개음화 문제, 격할당 문제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이다'가 적어도 주격조사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통사적 접사설도 기능동사설로 통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다' 구성의 통사구조와 의미해석의 문제를 일관되게 풀기 위해서는 '이다'를 동사의 차원에서 '기능동사'로 보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격 할당 문제는 격조사 또는 격 문제가 아니라 한정조사 제약의 문제로 전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김정대의 "현대 국어 계사 구성의 특이성과 그 이유"는 국어 계사 '이-'가 중세국어와 방언 자료를 통해 기원적으로 '*일-'이었음을 주장한 필자의 2005년 논문 "계사 '이-'의 기원형 '*일-'을 찾아서"를 현대국어로 확대한 것으로, 현대국어 '이-'의 활용상 특이성을 '*일-'의 상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긍정문과 부정문 간의 논항 불일치, 장형 부정문의 부재, 두 번째 명사구에 주격 조사 '이'만 올 수 있는 문제 등의 통사상의 특이성은 '*일-'이 'ㄹ' 탈락을 경험함으로써 허사화된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고창수의 "'이다' 구문의 자질 연산"은 '이다' 구문을 구성하는 형태소 '-이-'를 선행 명사구를 동사구로 만드는 통사적 접사로 분석하는 것이 생성문법이나 자질연산문법과 같은 이론 틀 안에서 내적으로 모순 없는 설명일 뿐만 아니라, 언어 보편적으로도 가능한 분석이며 체계 내에서 고립되지 않는 범주 설정임을 강조하여 그간의 필자가 주장한 대로 위 세 논의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우순조의 "활용 개념과 소위 '이다'와 관련된 오해들: 표지이론적 관점에서"는 이들과 또 다른 주장으로 그동안 필자가 펼친 '이다'의 조사설을 지지하는 통사적·의미적 증거들을 소개하고 조사설의 논거에 대한 비판들이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들 앞 논의와 달리 박철우의 "'이다' 구문의 통사구조와 {이}의 문법적 지위"에서는 '이다' 구문의 유형과 그 의미해석 및 통사구조를 고찰하면서 {이}를 직접 선행하는 요소(XP)를 서술어로

만들어 주는 기능범주적 요소, 곧 선어말어미(INFL)로 보았다.

한편 박종덕의 "으뜸풀이씨 '있다'의 씨갈"은 '있다'의 품사를 '그림움직씨'[형용동사]로 볼 것을 주장한 논문으로, 그 이유로 ① 있음씨[존재사], 움직씨[동사], 그림씨[형용사]의 의미자질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② 움직씨와 그림씨 둘 다의 뜻을 갖는 많은 낱말의 씨가름[품사분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③ '품사전성'이나 '영파생'과 같은 설명이 필요 없고 ④ 움직씨·그림씨의 구문 유사성을 따지지 않고 낱말의 의미자질만으로 씨가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들었다.

정성미의 〈'-하다' 형용사의 형태 구조와 논항 구조 연구〉는 '-하다' 형용사 선행 요소를 한자어와 고유어로 구분하여 그 형태 구조의 차이점을 고찰하고, 문장 구성에서 '-하다' 형용사가 어떤 논항을 요구하는지 곧 그 논항 구조를 밝히면서 유의 관계에 있는 일반 형용사와의 논항 구조를 비교 고찰한 논문이다. 특히 '-하다' 형용사의 논항 구조 중 주어 논항에 집중하여 '경험자' 주어 논항을 요구하는 '경험자 형용사'와 '비경험자' 주어 논항을 요구하는 '비경험자 형용사'로 나누어 '-하다' 형용사의 통사적인 측면을 살폈다.

김창섭의 "[작용]의 '어찌하다'와 '게 ᄒᆞ다'의 위축에 대하여"는 국어 문법에서 [작용] 동사라는 부류의 설정이 의미를 가짐을 확인하는 일환으로 [작용]의 중동사 '하다'에 대해 고찰한 논문이다. 즉 부사 '어찌'와 동사 '하다'가 합성된 '어찌하다'가 오늘날 거의 행위동사로만 쓰여 위축되었지만 이전 단계에 [작용] 동사로서의 '어찌하다'가 존재하였음을 들어 과거에는 [작용]의 일반 중동사 'ᄒᆞ다'가 현재보다 훨씬 폭넓게 존재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근대국어와 그 이전 단계의 보조동사 구성 '-게 ᄒᆞ다'에는 [행위] 동사를 가진 것과 [작용] 동사를 가진 것이 있었는데, 전자는 오늘날의 사동 구성으로 이어지고 후자는 선어말어미 '-겠-'을 남기고 소멸하였다고 보고, 역

시 [작용]의 보조 중동사를 가진 '-어도 ᄒᆞ다'도 중앙어에서는 소멸하였고 서남방언에서는 위축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음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이상금의 〈중세국어의 다소 표현 형용사에 대한 문법적 연구〉는 중세국어의 '하다, 만ᄒᆞ다, 젹다, 쟉다' 등 다소(多少)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의 문법적 특성을 고찰한 논문이다. 특히 중세국어의 다소 표현 형용사가 활용 양상에 있어 동사적 용법을 보이고 어미의 통합 양상이 다양함을 확인하였고, 통사적으로 존재 형용사 '잇다, 없다'가 보이는 구문과 같이 존재 구문과 소유 구문을 보인다고 하였다.

서광진의 〈한국어 의존용언 연구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는 의존용언의 단계적 분류 기준으로 이동규칙(1단계), 생략규칙(2단계), 대용·원의미(3단계), 생산성(4단계) 등을 제시하고, 3단계 규칙 적용 단계까지 의존성이 입증된 형태들을 전형적인 의존용언으로 보고 4단계 의존성을 지닌 형태들은 복합용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전형적인 의존용언으로 '-어 가다/오다, 주다(드리다), 내다/버리다, 보다, 대다/쌓다, 놓다/두다/가지다, 나가다' 등을 제시하였다.

장미라의 "한국어 보조 용언의 상적·양태적 의미 기능과 통사적 특징 -'놓다, 두다, 버리다, 내다, 말다, 치우다'를 중심으로-"는 보조용언 '놓다, 두다, 버리다, 내다, 말다, 치우다' 등이 '행위의 완료'라는 상적인 의미, 주어의 의도·의지를 나타내는 주어 중심 양태와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보이는 화자 중심 양태 등 주체에 따른 양태 의미, 그리고 명제(대상)에 대한 양태 의미에 따라 일정한 통사적 특징을 수반함을 확인한 논문이다.

우창현의 "보조용언의 문법상적 기능에 대하여"는 먼저 보조용언의 개별적인 상 의미를 살피고, 이러한 상 의미가 기본 의미로서 해당 보조용언의 문법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보조용언들이 겹쳐 나타나는 현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보조용언 '-고 있-, -어 오-,

-어 가-, -어 버리-, -어 치우-, -어 놓-' 등이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시간부사구의 결합 관계, 선행절에 대한 부정적인 추론 가능성, 함의 관계 등의 검증 과정을 통해 '진행', '완료' 등의 문법 의미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보조용언들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 '-고 있-'이 '진행'의 문법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상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어 오-, -어 가-, -어 버리-, -어 치우-, -어 놓-' 등은 더 이상 문법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권순구의 "보조용언 '버리다'의 양태 의미"는 본용언 '버리다'의 의미를 살피고 보조용언 '버리다'가 '상' 의미가 아닌 '양태' 의미를 지녔음을 주장하여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유연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곧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포괄된 '상황전환에 대한 판단'의 양태 의미를 갖는 보조용언 '버리다'는 '제거'의 의미를 갖는 본용언의 '버리다'와 유연성이 지닌다고 하였다.

박현아의 〈한국어 서술성 명사의 실현 양상 연구〉는 말뭉치를 통해 서술성 명사의 실현 양상을 살펴 그 서술성 정도를 밝힌 논문이다. 즉 세종 전자사전, 세종 형태의미분석 말뭉치, 신문 표제 말뭉치 등을 통해 선정한 고빈도 서술성 명사 '사용, 발전, 참여, 시작, 변화, 반대, 계획, 요구, 표현, 노력, 생활, 구성, 교육, 주장, 대답, 존재, 의미, 관계, 일, 생각, 자리, 말'(총 22개) 등이 서술성에 있어 각각 다르게 나타남을 밝히고, 이러한 서술성 명사들의 일반적인 특성 및 사용 경향, 동사와의 공기 양상 등을 살폈다.

김성남의 〈국어 인칭대명사의 역사적 연구〉는 인칭대명사의 분류와 특성을 살피고, 시대별로 각 인칭대명사의 형태를 밝히며 이들의 사용양상 및 특성을 분석한 논문이다. 먼저 대명사를 [인칭성]을 기준으로 1인칭대명사, 2인칭대명사, 3인칭대명사, 재귀대명사로 분류하고, 이들 인칭대명사의 형태 및 담화상에서의 특성, 대체 형태 및 표현, 각 인칭과 어울리는 용언 등 전반적인 인칭대명사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향찰·구결·이두·한글 표기 등 다양한 국어사 자료를 검토하여 인칭대명사가 고대국어, 전기중세국어, 후기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에 어떠한 변천 과정을 겪었는지 살폈다. 특히 여성을 지칭하는 3인칭대명사 '그녀'가 근대국어 중·말엽(18세기 중엽~19세기 중엽) 한글소설에서 처음 쓰였음을 확인하고 현대국어 초기 문인들의 작품 속에서 쓰인 것이라는 기존의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장인옥의 〈의존명사의 형태 의미론적 연구〉는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의존명사의 식별 기준을 마련하여 그 목록을 확정하고, 의존명사를 유형별로 나누어 그 특성과 의미 기능을 검토한 논문이다. 곧 의존명사를 관형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명사로 정의하고, 설정 기준으로 먼저 자립성이 없고 선행어와 결합하여 음운론적 단어를 이루며, 의존명사 중 일부는 자립명사와의 복합어 형성이 가능함을 들었다. 그리고 선행성분으로 체언, 체언+의, 관형사, 용언의 관형형이 통사적으로 의존적이고, 실질적인 의미가 약하여 추상성이 높음을 들었다. 또한 의존명사 목록(총 55개)과 유형으로 '것, 분, 손, 이, 자, 치, 데, 바/쪽, 짝, 축, 따위, 법, 폭, 적(제), 동안, 무렵, 즈음, 녁, 지/나위, 수, 리, 줄/해, 게, 만1'(대상성 의존명사), '뿐, 따름, 터, 참, 나름, 때문'(서술성 의존명사), '김, 바람, 통, 차, 섟, 빨, 이래, 채/양, 척, 체, 듯, 만2, 뻔, 성, 둥, 대로, 만큼, 족족, 겸, 등'(부사성 의존명사)을 제시하였다.

이와 비슷한 논의로 김나영의 〈국어 의존명사의 통합 양상 분석〉은 말뭉치 자료를 기반으로 의존명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피고,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는 의존명사 '겸, 김, 수, 줄, 바, 만큼, 따름, 때문'(8개)의 분포 양상과 의미기능을 고찰하였다.

한명주의 〈현대국어 형식명사 구성의 양태성 연구〉는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양태성 형식명사 구성으로 '-ㄴ, -ㄹ 형식명사+이-, 하

-' 중 '-ㄴ, -ㄹ 것이-', '-ㄹ 따름이-', '-ㄴ, -ㄹ 듯하-', '-ㄹ 만하-', '-ㄴ, -ㄹ 모양이-', '-ㄴ 바이-', '-ㄴ 법이-', '-ㄴ, -ㄹ 법하-', '-ㄹ 뻔하-', '-ㄹ 뿐이-', '-ㄴ, -ㄹ 셈이-', '-ㄹ 참이-', '-ㄹ 터이-'(총 13) 등을 제시하고, 그 구성 내부의 조사 개재 여부 및 그 구성과 선문말어미 '-시-, -었-, -겠-, -더-'의 통합관계를 통해 그 구성의 문법적 특징을 밝히면서, 그 구성의 개별 양태 의미를 국어의 양태 체계, 곧 인식 양태(추측, 가능, 단정, 제한, 가치)와 행위 양태(당위, 의지) 안에서 살폈다.

안주호의 "현대국어의 의존명사 목록에 대하여"는 선행연구에서 의존명사 목록에 이견이 있는 항목에 대해, 자립명사로 분류하고 의존적 쓰임으로 볼 수 있는 것, 의존명사로 각립해서 볼 수 있는 것, 연결어미화된 것, 조사와 의존명사로 각각 각립시켜야 하는 것, 접사로 봐야 하는 것, 어휘화되거나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의존명사 목록에서 빼야 하는 것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한편 류정아의 〈영어 외래어의 형태·의미론적 특성 연구〉는 영어 외래어(이하 외래어)의 형태와 의미 변화 특징을 밝혔다. 먼저 외래어의 형태 변화의 유형으로 합성어·파생어·절단어·어두어·혼성어·민간어원을 제시하면서, 외래어를 차용할 때 외래어 자체의 어법적·문법적 기능을 무시하고 우리말 어법에 맞도록 차용하려는 심리가 나타나 외래어가 국어의 형태적 특징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차용된 외래어가 명사든 동사·형용사든 모두 명사로 인식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외래어의 의미 변화 원인을 언어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그 예를 살피고, 기존의 어휘체계와의 의미 충돌 시 일어나는 과정인 합류와 분화에 대해 논하였으며, 의미 영역의 변화 양상을 의미 확대·축소·전이로, 의미 가치의 변화 양상을 의미 상승·하강으로 나누어 그 예를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이선웅의 “단어의 중의성 실현에서의 몇 문제”는 특정 문장에서 단어가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비유 표현, 술어명사와 결과명사, 상의어와 하의어 간의 몇몇 특수한 경우에 대하여 살핀 논문이다.

허재영의 “국어 대명사 발달의 원리”는 국어의 대명사가 수·성·높임법 같은 문법범주의 발달에 의해 빈칸이 늘어나 그 빈칸을 채우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조어 원리와 차용의 원리가 적용되어 발달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내, 네, 제’와 같은 대명사를 기존의 견해와 달리 속격조사가 아닌 주격조사가 접사화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양영희의 “15세기 2인칭 대명사 ‘너’와 ‘그듸’의 기능 비교”는 15세기 2인칭대명사 ‘너’와 ‘그듸’가 화자 자신보다 하위자이거나 동위자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너’가 ‘+친밀, +정감, -공적’의 유대 자질을, ‘그듸’가 ‘+정중, +공적’의 비유대 자질을 각각 보유한 2인칭대명사라 하였다.

같은 필자의 “16세기 2인칭대명사 체계”는 ‘너, 그듸, 자내’로 대표되는 16세기 2인칭대명사의 체계를 수립하고자 한 논문이다. 결국 이들의 변별성을 ‘서열’과 ‘유대’ 관점에서 구하면서, ‘서열’ 관점에서 대립하는 ‘너’와 ‘자내’는 ‘친밀한 대상’을 지시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너’는 서열 차가 큰 대상을, ‘자내’는 그렇지 않은 대상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그듸’는 친밀하지 않은 대상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너, 자내’와 대립하는 것으로 규정지었다.

그리고 같은 필자의 “중세 국어 ‘재귀대명사’ 설정에 대한 재고”는 중세국어에서 보이는 ‘즈갸, 자내, 저’ 등의 공통적인 상위 기능을 ‘3인칭대명사’로 보고 ‘재귀적 기능’과 ‘서열 표지적 기능’을 하위 기능으로 상정하여, 재귀적 용법을 여타 인칭대명사와 대등한 범주로 간

주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하였다. 같은 논지로 필자는 "중세국어 3인칭 대명사의 부류와 기능"에서 중세국어 3인칭대명사로 'ᄌᆞ갸, 자내, 자기, 저, 당신'과 함께 '이, 그, 뎌' 등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하고 각 부류의 기능적 차이를 고찰하였다.

또한 같은 필자 "인칭대명사의 기능 변화 유형과 원인 -중세의 3인칭에서 현대의 2인칭화로-"는 중세국어에서 3인칭대명사였던 '자내, 당신, 자기'가 현대국어에서 2인칭대명사로 활용됨을 주목하여 그 변화 양상과 원인을 구명하고자 한 논문이다. 먼저 3인칭>2인칭대명사로의 전환 양상을 그 기능 변화에 따라 수평 이동, 상승 이동, 급상승 이동으로 구분하고 각각 '자내', '자기', '당신'이 해당된다고 하였고, 이들의 3인칭>2인칭대명사로 변화한 것은 15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동안 미세하게 분화해온 화계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이들 대명사 외에 '그, 뎌, 이'가 3인칭대명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재영의 "존칭체언 소고"는 중세국어 문법의 한 특징을 구성하고 있는 이른바 존칭체언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자 한 논문이다. 먼저 존칭체언의 문법적인 특징을 근거로 존칭체언의 목록을 확보하여 그 어휘적인 특징을 살피면서 평칭의 존칭체언, 절대적인 존대어휘, 상대적인 존대어휘, '-님' 존대어휘 등으로 구분하여 정밀화하였으며, 존대어휘조차도 화자의 대우 의도에 따라 존칭체언으로서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김건희의 "형용사의 부사적 쓰임에 대하여 -'-이'와 '-게' 결합형을 중심으로-"는 형용사 어기에 결합된 '-이'와 '-게'에 대하여 그 형태와 의미, 통사적 특징을 밝힌 논문이다. 즉 동일한 형용사 어기의 부사적 형태인 '-이' 결합형과 '-게' 결합형, 파생형용사의 부사형, 어간 부사형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 먼저 그 형태 및 분포적 특징을 살피고, '-이'가 접미사로 '-이' 결합형이 부사이고 '-게'가 부사형 어미

로 '-게' 결합형이 부사어라는 기존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부 논항, 필수적인 성분, 어휘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철주의 "『대명률직해』의 부정사에 대한 연구 -'不得'과 '安徐'를 중심으로-"는 『대명률직해』에서 보이는 이두어 부정사 -'不得'과 '安徐'가 각각 현대국어의 부정사 '못'과 '아니'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이들 부정사가 현대국어와 통사적 용법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논문이다.

방향옥의 〈「어제내훈」의 어휘론과 형태론〉은 근대국어 문헌인 『어제내훈』(『내훈』(성종 6년(1475년)의 중간본인 개주 갑인자 규장각본(영조 14년(1937년))의 어휘를 어휘계량, 어휘체계, 어휘 변이 양상에 따른 어휘론적 특징과 복합어의 합성법과 파생법 양상 등 형태론적 특징을 밝힌 논문이다.

배선미의 〈Grammaire Coréenne에 대한 연구〉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쓴 한국어 문법서 『Grammaire Coréenne』의 내용, 곧 서론, 품사론, 통사론을 살펴 근대 국어학사 연구의 한 공간을 채우고자 하였다.

한편 하치근의 "'지 짜임월'의 문법화 과정 연구"는 매인이름씨[의존명사] '지'를 대상으로 하여 '지' 짜임월[구문]의 문법화 과정을 살핀 논문이다. 우선 〈사실〉이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는 매인이름씨 '지'가 뒤에 어울리는 풀이말[서술어]에 따라 〈동안〉과 〈회의(물음)〉의 주변적인 뜻이 있는데, 특히 〈회의(물음)〉의 뜻이 있는 어찌씨스런 매인이름씨[부사성 의존명사] '지'는 앞의 매김씨끝[관형사어미] '-는/은'과 어울려 형태론적 짜임새[구성]를 이루면서 씨끝[어미]으로 문법화했는데, 때로는 〈감탄(강조)〉의 뜻을 가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는지/은지'가 씨끝으로 문법화하면 어찌마디[부사절]를 만드는 구실을 하거나 〈원인(근거)〉의 뜻을 나타내는 이음씨끝[접속어미]의 구실을 하며, 이 이음씨끝이 맺음씨끝[어말어

미(종결어미)]으로 바뀌면 말할이의 들을이에 대한 〈물음(회의)〉이나 〈서술(느낌)〉의 의향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김유범의 "형용사 '지다'의 형성과 역문법화"는 현대국어 형용사 '지다'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를 역문법화의 관점에서 살핀 논문이다. 그 결과 19세기 이후 현대국어에서 '고 지고' 구성으로만 쓰이는 형용사 '지다'는 소망의 형태소 'ㅈ'과 계사 '(-)이-'가 결합한 '지'라는 형태가 선어말어미('-고져, -아져, -져, -져라, -거지라/-거지이다'의 '-지-')로 발달하고, 이것이 19세기 이전에 형용사 어간으로 역문법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6. 마무리

지금까지 2006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국어 형태론에 관한 연구 성과를 몇 개 분야로 나누어 중립적으로 개괄해 보았다. 그 결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여러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업적들이 국어 형태론 연구의 위상을 높이고 방향을 정립하는 데 큰 바탕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각 분야별로 특징적인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

먼저 형태론 전반적인 논의에서는 형태론의 체계, 용어, 쟁점에 대한 과거·현재·미래를 고구·조망하면서 형태론의 위상을 점검하였다. 파생어 연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파생어 형성에 있어서의 음운·형태·통사·의미론적 문제 및 생산성과 접사 범주 설정 문제에 집중하면서, 현대국어 이전의 접사 형태에 대한 고찰도 이루어졌다. 합성어 연구는 그 양에 있어 다른 해에 미치지 못하나 합성어에 대한 다양하고도 새로운 해석이 눈에 띈다.

조사에 대해서는 그 범주적 특성 및 개별 조사의 통사·의미적 기능 또는 복합조사의 설정 기준과 그 조사 목록 확정, 그리고 조사 연

속 구성에서의 조사 결합 순서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 특이한 점은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주로 보조사(특수조사)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룬다는 것이다. 한편 어미 중 어말어미는 통합형 종결어미와 연결어미의 형태·통사·의미적 특징을 고찰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그리고 선어말어미에 대해서는 이전 연구와 큰 차이 없이 개별 어미의 의미 기능을 살피거나 어미 간 통합 양상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해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품사와 관련해서는, 품사 분류 근거 설정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각 품사에 속한 어휘에 대한 분류·특성 고찰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국어학의 영원한 숙제인 '이다'와 보조동사, 의존명사, 대명사 논의가 활발하였다.

통사론

이 선 웅
(충남대학교)

1. 머리말

국어 통사론 분야에서는 2006년에도 역시 매우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업적은 단행본 27편, 학위 논문 45편(석사학위 논문 33편, 박사학위 논문 12편), 학술지 논문 220편, 총 294편인데, 이 모든 논저를 본고에서 모두 소개하기에는 지면의 제약이 너무 심하다.

또 단행본 『국어학논총』(이병근선생퇴임기념), 『어문학 연구의 넓이와 깊이』(김규철 외), 『우리말 연구의 이론과 실제』(최남희 외)가 실질적으로 논문집임을 감안하면, 통사론 논저의 수는 훨씬 늘어난다. 『국어학논총』에는 현대국어 공시적 통사론 논문으로 「국어 품사 통용은 이제 그만」(서태룡), 「문장성분, 논항, 그리고 보어」(이윤하), 「구어 문법과 조사의 생략」(권재일), 「'논항 부가어'와 '부가어 논항'의 설정 문제에 대하여」(최형강), 「단어의 중의성 실현에서의 몇 문제」(이선웅), 「현대국어 계사 구성의 특이성과 그 이유」(김정대), 「'직하다' 구문의 문법」(임동훈), 「형용사 명령문에 대한 고찰」(이승희)이 수록되어 있고, 옛말의 공시적/통시적 통사론 논문으로는 「존칭체언 소고」(한재영), 「[작용]의 '어찌하다'와 '-게 ᄒᆞ다'의 위축에 대하여」(김창섭), 「현대국어 파생접미사 '-적/쩍-'의 통사론」(황

문환), 「중세국어 비통사적 합성동사와 관련된 몇 문제」(장윤희), 「중세국어 부사 범주에 관한 시론」(이은섭), 「'ᄒᆞ마'와 시간 인식」(이병기)이 수록되어 있다. 『어문학 연구의 넓이와 깊이』에 실린 현대국어 공시적 통사론 논문으로는 「'것으로' 구문의 형성에 대한 관견」(윤용선), 「한국어의 통사적 특성과 확대투사원리」(윤종열), 「조사 '는'의 의미와 출현 조건」(이필영), 「정체 밝힘의 형용사 '이다' 문제와 연어」(임홍빈)이 수록되어 있고, 옛말의 공시적 통사론 논문으로는 「후기 중세국어의 부정문 연구 -'아니' 부정문을 중심으로-」(박형우)가 수록되어 있다. 『우리말 연구의 이론과 실제』에는 옛말의 공시적 통사론 논문으로 「17세기 국어 자리토씨」(허원욱)가 수록되어 있다.

한편, 통사론의 범위를 형태론, 의미론과 전혀 겹치지 않게 한정하는 것도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갖고 기술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 후, 선별된 대상을 다시 주관적으로 축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 조사와 어미는 관점에 따라 형태론적 연구 대상일 수 있으나 통사 구조나 문장 생성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것들은 통사원자로서 기능하므로 본고의 기술 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품사(혹은 품사의 하위 부류)의 범주적 특성을 다룬 업적, 예컨대 의존명사, 보조동사, 대명사, 수사 등의 특성을 다룬 논저들은 형태론, 통사론, 어휘론 모두와 관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의 대부분은 통사론적 현상에 대한 것이므로 본고의 기술 대상으로 삼았다. 셋째, 기존 박사학위논문이나 저서에 내용상 의의 있는 수정을 하지 않았거나 기존의 논문을 한데 묶은 단행본은 엄밀히 보아 2006년의 성과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술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새로운 연구 성과를 담고 있지 않은 입문서/개설서 등도 제외하였다. 특히 박사학위 논문 혹은 단행본의 일부를 거의 내용 수정 없이 그대로 싣거나

짜깁기 혹은 번역하여 낸 논문은 다루지 않았다. 넷째, 옛말의 통사론에 대한 논저는 국어사에 속한다고 보아 기술하지 않았다. 다섯째, 서평을 비롯하여 특정 인물의 통사론 논의를 탐구한 업적은 국어학사의 영역으로 보아 검토하지 않았다. 여섯째, 방언 간의 대비나 언어 지도 작성 등을 다루거나 특정 방언의 통사 현상에 대해 논의한 업적은 방언학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소개하지 않았다. 일곱째, 통사론의 연구 논문이라기보다 (한)국어 교육이나 국어 지식 보급을 위해 기존의 통사적 논의 내용을 확인·정리·변용한 정도의 논저는 포함하지 않았다. 여덟째, 접면(interface) 현상을 다룬 업적이나 대비 언어학, 국어 정보학적 논저 등은 다른 분야의 집필 내용과 겹칠 가능성이 많아 되도록 배제하였다. 또 형태론 분야에서 소개한 논저들을 뒤늦게 알게 된 후부터는 그것들과 겹치지 않는 업적만을 대상으로 검토했음도 밝혀 둔다.

아래에서 필자는 통사론을 열 개의 하위 분야로 나누어 집필하였다. 그러한 구분은 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다소 편의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연구자에 따라 달리 나눌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떤 논저를 어느 유형에 귀속시킴에도 자의적인 성격이 많음을 언급해 둔다. 각 분야 속에서 연구자들은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2. 조사, 격

김미령의 「국어의 격표지 교체와 의미역 연구 —{처격/대격 표지} 교체 동사를 중심으로—」에서는 내재논항 NP에 결합하는 조사가 {에}, {로}, {에서}, {와}와 {를}이 교체될 수 있는 국어의 2항 술어의 목록을 추출하여 격표지 교체 유형과 하위 의미역에 따라 그 유형을 세분하고, 그러한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제약 양상을 고찰하였다. 첫째, 국어의 격표지가 문법적 기능과 의미적 기능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대격 표지 {를}이 문법적으로 어떤 말 뒤에 오든 간에 그 공통된 의미적 기능은 '대상성'임을 밝혔다. 둘째, {에}는 〈처소〉와 〈대상〉 명사 모두와 관련되고 {로}, {에서}는 주로 〈처소〉와, {와}는 주로 [+대칭성]을 갖는 〈대상〉 명사와 관련됨을 논의한 후, 원형 대상역에 해당하는 {를}은 의미역의 위계상 더 상위 차원의 의미역으로서 주체에 대한 상대적 객체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 모든 논항과 관련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처소〉 논항과 관련하여서는 [+동작성]을 갖는 이동 동사를 세부 의미역과 격표지 교체 유형에 따라 지향 이동, 공간 이동, 경로 이동, 이탈 이동, 상태 이동 동사로 구분하고, 〈대상〉 논항과 관련하여서는 동작성 동사 중 태도 동사, 결과 동사, 상호 대칭 동사를 구분하였고 상태성 동사 중 비교 동사, 상황 동사를 구분하였으며 교차 교체를 보이는 처소 교차 동사를 구분하였다. 넷째, 처격 조사들과 {를}의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제약을 동사의 특성과 논항 명사구의 특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김의수의 「한국어의 격과 의미역 : 명사구의 문법기능 획득론」에서는 국어의 명사구가 '격'으로 대표되는 문법기능을 획득할 때 기본적으로 어떠한 허가 원리가 관여하며 실제로 그러한 원리가 국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는 문장성분을 형식과 기능이 아우러진 개념으로 파악하고 문법기능을 통사기능과 의미기능으로 나누어 명사구의 통사기능을 문장의 구조적 형상에 의거한 '격'으로, 의미기능을 서술어의 논항구조에 의거한 '의미역'으로 형식화하였다. 그는 이러한 전제를 갖고 국어의 격 허가(격 여과 회피)와 의미역 허가(의미역 여과 회피)를 살펴보았는데, 국어에서 격을 허가하는 기제로서 명사 포합, 보조사 첨가, 어휘격 할당, 구조격 할당(의존격 할당, 자립격 할당)을, 의미역을 허가하는 기제로서 의미역 준거를 회피하는 원리(논항-술어 연결 원리 ∩ 의미역 할당)와 의미

역 위계 조건을 회피하는 원리(어순[의미역 위계] 준수 ∪ 어휘격 표지 부착)를 제시하였다. 또 문법기능 허가 유형에 따라 명사구를 음성적인 내용을 가진 논항 NP, 음성적 내용은 없지만 논항인 NP, 음성적 내용은 있지만 비논항인 NP로 분류하고 그 각각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일반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의 대격 중출 구문, 주체 대우법 구문, '하다' 구문, '이다' 구문에 나타나는 명사구들의 통사기능과 의미기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박유현의 「현대국어 조사 '-가'의 구어에서의 비실현 양상 연구」에서는 주어 자리와 보충어 자리에서 조사 '가'가 실현되지 않는 양상을 실제 발화된 현대국어 구어 말뭉치를 통해 고찰한 후, 조사 '가'가 실현되지 않는 환경을 담화적 환경과 의미적 환경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는데, 담화적 환경을 '유일성'[1], '직접적 현장 지시성', '적은 의미 정보량'으로 정리하고, 의미적 환경을 '결합 명사구의 불특정성', '서술어와의 지정 의미 중복'으로 정리하였다.

박정섭의 「속격 표지 '의'의 수의성에 대하여」에서는 명사구 속에서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의'의 의미기능과 통사기능을 고찰하였다. 그는 '의'가 '존재 전제'를 뜻한다는 선행 연구의 직관을 재해석하여 '의'를 '지시성'이라는 의미적 내용을 갖는 K 범주라고 주장하였다. 또 'N1의 N2'가 'N1 N2'로 명사 포합된다는 홍용철(1994)를 세 가지 논거를 들어 비판하였는데, 첫째, 포합 분석은 일부 명사 병치 구문 'N1 N2'에서 N1 다음에 휴지가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예측하지 못하고, 둘째, 소유주 논항 등 의미역 위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논항들이 때로는 핵이 명사에 포합될 수 있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며, 셋째, 이중 속격 구문 '[N1의 N2]의 N3'(예: 철수의 어머니의 생신)으로부터 두 번째 속격 표지가 없는 '[N1의 N2] N3'

1) 이 논문에서 '유일성'이란 주어나 보충어에 올 수 있는 개체나 사태가 맥락상 유일한 대상 또는 명제로 상정되는 것을 뜻한다.

(예: 철수의 어머니 생신)이 허용되는 구문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선행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의 '의'가 구조적 속격만이 아니라 내재적 속격도 가지며 후자는 비가시적 형태를 가진다는 가설을 세우고 여러 언어 현상을 통해 그것을 검증하였다.

서태룡의 「국어 조사와 어미의 관련성」은 핵심적인 단일형 조사와 어미를 별개의 범주로 귀속시킬 것이 아니라 교착어미라는 하나의 범주로 귀속시켜야 할 것을 주장한 논문이다. 조사와 어미는 담화핵의 기능과 통사핵의 기능을 보이며 앞말 뒤에만 통합하는 후치요소로서 비자립형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조사 뒤에 조사가, 어미 뒤에 어미나 조사가 통합하여 계층구조를 이루고 선행하는 어휘의 의미에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는 사실, 필수적인 음운규칙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어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즉 형식과 의미 면에서 조사와 어미가 한 범주에 속하는 사실을 담화화용론, 통사론, 의미론, 형태론, 형태음소론, 음운론 등의 다각도에서 입증하였다.

이근용의 「조사 '에게, 한테, 더러, 보고'의 통사적 특성」에서는 문어의 '에게', 구어의 '한테' 및 그것들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더러, 보고'의 통사적 특성과 범주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첫째, '에게'는 선행 명사가 유정물일 때 쓰이고 존칭 대상이면 '께'로 교체된다고 하였다. 둘째, '더러'와 '보고'는 단문의 여격 구문에서는 쓰이지 못하고 꼭 내포문 안에서만 쓰이는데, 그 문장의 모문의 술어는 대체로 '말하다'류의 동사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셋째, 여격을 배당하는 동사들이 주로 공간과 관련되어 있는 동사들이어서 '에게'가 어떤 방향성을 보여 주는 반면, '더러', '보고'는 방향성을 표시하기보다는 내포문 서술어의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여 주는 기능을 하므로 여격표지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에서 내포문 속의 '에게'나 '한

테'를 '보고'나 '더러'가 대신함으로써 문장의 중의성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밝혔다. 넷째, '에게'와 '한테'가 여격조사로 볼 수 있는 반면, '더러'와 '보고'는 'ᄃᆞ리-[率]'와 '보-[見]'가 완전히 문법화하지 못하였으므로 여격조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종근의 「한국어 동사와 대격에 관한 연구」에서는 처소격 '에' 또는 여격 '에게(께)'를 허용하는 동사들 중에서 어떤 동사들이 대격 '을'과 격교체를 허용하고 어떤 동사들이 대격과 격교체를 허용하지 않는지를 밝히고 대격 면허 능력이 있는 동사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구명하였다. 그는 한국어 이동동사 구문, 태도동사 구문, 결과-상황 동사 구문에서 '에/를' 격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동사 구문에 나타나는 동사의 의미적 중의성 혹은 한국어에서의 대격 면허와 처소격 및 여격 면허에 관한 일반적인 통사·의미적 제약과 일부 동사의 여격/처소격 면허의 수의성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에(게)/를' 격교체가 일어나는 것은 이동동사처럼 동사의 의미가 중의적이 아닌 경우, 특히 대격중출 형식의 초점화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나, 초점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에/를' 격교체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격교체도 여격/처소격과 대격에 관한 일반적인 통사·의미적 조건이나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호승의 「격조사 없는 명사구의 격 문제에 대하여」는 기존의 격조사 생략설과 격조사 비실현설을 비판하였다. 격조사 생략설은 격조사의 생략 전후의 문장이 동일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문제를 드러내고, GB이론에 입각한 격조사 비실현설은 구조격이 국어 격 논의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과 격 범주와 의미역 범주를 개념적으로 혼동하여 내재격이 부정되었다는 문제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격조사가 없는 명사구는 격을 갖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격조사를 갖는 명사구는 특정한 통사·의미적 관계를 표시하는

데 반해, 격조사를 갖지 않는 명사구는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역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이 두 부류의 명사구가 격 범주상 대립 관계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임동훈의 「'만큼, 처럼, 보다'가 격조사인가」는 '만큼, 처럼, 보다'가 보이는 문법적 관계가 일정하지 않고 이들이 나타나는 격 위치가 여러 곳이라는 점, 이들 조사가 일부 어미 형식 뒤에도 결합할 수 있다는 점, 이들이 후행 서술어와 격이라 부를 만큼의 일정한 의미적 관계를 맺지 못하며 서술어가 비교의 의미적 관계를 요구하는 등급적 서술어로 한정되지도 않는다는 점, '만큼, 보다'와 '처럼'이 한 문장에 共起할 수 있다는 점, '처럼'과 '만큼, 보다'가 그 성격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 이들이 다른 의미격 조사 뒤에 후행한다는 점, 이들 조사와 유사한 '같이'가 조사로 완전히 문법화되지 않은 점, '같이, 보다'는 부사, '대로, 만큼'은 의존명사의 용법이 있다는 점, 동등 비교의 '와/과'와 '만큼, 처럼'이 분포상 차이가 크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격조사로 볼 수 없고 보조사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덧붙여 보조사를 후치사와 첨사로 나눈다고 가정하는 경우 문제의 요소 뒤에 다른 조사가 올 수 있느냐의 여부, 의미상의 지배 영역이 선행어를 넘어 확장될 수 있느냐의 여부, 의미적 추상성의 정도나 문법화 단계에서의 위치 등의 기준으로 볼 때 이들 조사는 후치사로 분류하는 것이 최선임을 주장하였다.

임창국의 「한국어 장소교체 구문에서의 대상논항의 통사적 특성과 통사구조」에서는 한국어의 장소교체 구문이 보이는 두 가지 격교체 구문, 즉 '에' 구문과 '로' 구문에 대해 어휘적 접근법을 통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두 구문은 동일한 하나의 기저구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붐비다'류 술어가 두 개의 상이한 논항구조, 즉 하위범주화 자질을 가져 그 각각이 상이한 두 개의 기저구조를 생성한다고 주장하였고, 둘째, '에' 구문에 나타나는 동사는 장

소와 대상 논항을 내재논항으로 갖는 2항 비대격(dyadic unaccusa-tive) 동사로 분석하였으며, 셋째, '로' 구문의 동사는 소유 의미 해석의 소절 PrP를 단일 보충어로 취하는 비대격동사로 분석하였다.

황화상의 「조사 '에서'의 문법 범주」는 단체 명사(구)에 결합하는 조사 '에서'의 문법 범주를 구명하기 위해 'NP에서'가 처격 부사어가 아니라 주어임을 밝혔다. 그러나 'NP에서'가 주어라고 하더라도 '에서'가 주격 조사인 것은 아니고, 주어 명사구가 '행위의 주체' 역할을 하는 타동사 서술어 문장과 일반 자동사 문장에서는 그 주어 명사구의 핵이 단체 명사인 경우 '에서'가 자유롭게 결합하지만 주어 명사구가 '행위의 대상' 역할을 하는 '이다' 문장, 형용사 서술어 문장, 피동사 서술어 문장에서는 그 주어 명사구의 핵이 단체 명사라고 하더라도 '에서'의 결합이 제약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에서'는 의미역(주체)과 관련된 문법 범주로서 '주체 표시'의 보조사임을 논증하였다.

3. 어미, 토/굴절접사/교착소(조사, 어미 아우름)

김수태의 「물음법 씨끝의 체계」는 말뭉치에서 추출한 마침법 씨끝(종결어미) 중 화용적 첨사가 결합된 것, 방언적 실현 형태, 준말, '-고 하-' 생략형 등을 제외한 43개의 어미를 대상으로 하여 그 분포 제약, 들을이의 유무, 물음의 유형, 응답의 특징, 말할이의 명제에 대한 판단 등의 기준을 갖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또 범주화 이론을 바탕으로 물음법 씨끝의 체계를 상위 층위와 기본 층위 하위 층위로 나누고 상위 층위의 물음법 씨끝(의문형 어미)은 기본 층위나 하위 층위의 물음법 씨끝을 대신해서 쓰일 수 있으며, 기본 층위의 물음법 씨끝도 하위 층위의 물음법 씨끝을 대신해서 쓰일 수 있음도 밝혔다.

서민정의 「이름법토 '-음', '-기'의 제약에 기초한 자질 분석」에서

는 먼저 이름법토의 형태·통어적 제약을 상위문 동사, 동사 줄기, 동사토, 명사토, 수식어 등과의 결합 관계를 고려하여 검토한 후, HPSG를 수정한 서민정(2004)의 동사의 어휘 규칙과 형판, 형태론의 통합 도식을 이용하여 이름법토의 문법적 특성을 구명하였다. 또 '-음', '-기'가 결합 가능한 상위문 동사의 종류, 수식어와의 제약에서 보이는 '-음'과 '-기'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서형국의 「국어 연결어미의 통합 관계」는 국어의 연결어미가 보이는 통합 관계와 통사론적 현상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다음 여섯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어미의 통합 관계를 가장 극심하게 제약하는 것은 반복형(내포 접속문)이라는 통사구조이다. 이 구조를 이루게 되는 경우에는 어휘적/담화적으로 생산적인 형태소의 통합도 제약된다. 둘째, 의지·소망의 맥락에 사용되는 연결어미는 형식동사 '하-'와 통합하는 특성을 보인다. 셋째, 어미가 문말 휴지에 선행하여 종결형으로 사용될 경우, 어미의 통합 현상이 제약된다. 넷째, 어미가 연결형으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종결형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 선어말어미 통합이 더 활발하다. 다만, 역사적으로 '-서'와 통합하여 이루어진 어미는 그 반대 방향의 통합 양상을 보인다. 다섯째, 어미와 잘 통합하는 선어말어미는 '-시- 〉 -었- 〉 -었었- ≥ -겠- 〉 -었겠-'의 순으로 나타난다. 여섯째, 선후행 형식과의 통합 관계만을 살펴볼 때,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는 그 구분 한계가 분명하지 않다. 이는 문장(종결)을 통해 규정해 온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구획이 형식적인 근거를 분명히 갖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

안주호의 「현대국어 연결어미 {-니까}의 문법적 특성과 형성 과정」은 19세기에 등장한 연결어미 중 {-니까}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를 파악하고 그 형성 과정을 탐구하였다. 그는 연결어미 {-니까}의 의미를 [원인, 이유]와 [상황 설명]으로 대별하고 전자의 기능을 할 때에는

제약이 없으나 후자의 기능을 할 때에는 주어, 서술어, 서법, 시상 모두에 걸쳐 제약이 작용함을 언급한 후, {-니까}가 {-니}와 {-까/ㅉ/까}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또 {-니까}의 의미적 본질이 선행절이 후행절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음을 설명하고 그러한 시간적 속성이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소로 문법화한 것은 의미가 화용적으로 변화해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서 이는 문법화의 단일방향성 가설과 맞물리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안주호의 「현대국어 연결어미 '-면서'에 대한 고찰」에서는 '-면서'가 단순히 '-며셔'에 'ㄴ'이 첨가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건, 상황, 전제] 등을 나타내는 '-면'과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 보고 범언어적으로 [동시] 구문이 어떤 의미적 확장 경로를 통해 [대립, 양보]의 의미 기능을 갖게 되는지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며'는 [동시]의 의미만이 있는데 '-며셔'가 되면서 [시발점]의 의미가 첨가되었고(아주 조금 [대립]의 의미가 있기는 했지만) '-면셔'가 되면서 [대립]의 의미가 대폭 확장된다고 하였고, 둘째, '-면서'의 형성 과정에서 [동시]를 나타내는 '-며'에 [유지]를 나타내는 '-셔'가 결합되어 '-며셔'가 되어 이것이 [시발점]의 의미 기능을 첨가한다고 하였으며, 셋째, [동시]의 '-며'에 주제 표지가 결합되어 [조건]을 나타내는 '-면'의 영향을 받아 선행절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후행절의 행위에 대해 언급하는 '-면서'가 [대립]의 의미 기능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금희의 「인용문 형식에서 문법화된 어미·조사 연구」에서는 인용문 형식에서 문법화된 어미, 조사들이 공통적으로 '-다(라/냐/자) 하-' 구성에서 'ㅎ'이 탈락한 후에 상위절과 피인용절 어미의 축약을 겪은 후 하나의 어미로 굳어지는 융합 현상이 있었고, 이들이 다시 원래의 인용문 형식으로 되돌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의미의 변화도

입었음을 논의하였다. 그러한 어미, 조사의 총목록으로 '-다-'류에서 종결어미 '-단다' 외 15개를, 연결어미 '-댔자' 외 11개를, '-(으)ㄹ라-'류에서 종결어미 '-(으)ㄹ래' 외 3개를, 연결어미 '-(으)ㄹ라고' 외 4개를, '-느라/노라-'류에서 연결어미 '-느라고' 외 5개를, '-이라-'류에서 연결어미 '-이라도' 외 4개를, 접속조사 '-이라든가' 외 2개를, 보조사 '-이라도' 외 4개를, '-더라-'류에서 종결어미 '-더라고[구]'를, 연결어미 '-더라도' 외 2개를, 선어말어미 '-(었)더랬-' 외 1개를 제시하고 각 형태소의 형태, 통사, 의미를 공시적, 통시적으로 상세히 고찰하였다.

이병기의 「'-겠-'과 '-었-'의 통합에 대하여」는 수용적인 측면에서 '-겠-'과 '-었-'이 통합 가능함을 밝히고 '-겠었-'의 의미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는 '-겠-'과 '-었-'의 순서에 따라 계층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여 '-겠었-'이 '과거에 어떠한 명제 내용을 추측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었겠-'의 '-겠-'은 현재 시점에서의 과거 사태에 대한 추측을, '-겠었-'의 '-겠-'은 과거 시점에서의 당시 사태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의미에서 선어말어미의 통합 순서를 '-었겠더-'로 고정시키고 '-겠-'의 범주적 성격 및 의미를 논의하는 기존 논의에 대해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홍식의 「교착소의 의미 분석에 대하여」에서는 국어의 문법 형식인 조사, 어미의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론에 대해 성찰하였다. 그는 전통적으로 해당 형태소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였을 경우의 의미와 해당 형태소가 부재할 경우의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그 형태소의 의미를 파악해 온 것이 부분적으로는 정당하지만, 방법론적으로 더욱 진척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해당 형태소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형태소의 의미가 사라지지만 그 형태소가 부재하는 경우에는 그 형태소의 의미가 중립적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부재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격과 양태는 전자에, 시제는 후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였다. 또 어떤 형태소를 분석함에서 대치와 분석의 기준만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해당 교착소의 결합 관계까지 기술하고 나아가서는 그러한 기술이 해당 형태소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이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정용길의 「'-고'의 범주에 관하여」에서는 한국어의 '-고'를 부사격 조사라고 주장한 임동훈(1995)의 문제점을 상세히 반박함과 함께 그것을 보문자라고 하는 기존 생성문법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그는 '-고'를 포함하는 내포절이 부사적 기능을 하는 '그렇게'에 의해 대체되는 것은 그 내포절이 부사적 기능의 CP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상위절 동사의 사실성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후, '-고'가 부사적 기능을 하는 접속어미라는 주장은 부가어 기능을 하는 내포절에만 해당되며 논항의 역할을 하는 내포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고'가 생략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 격조사라는 사실을 뜻하지는 않고 그것이 보문자라 하더라도 공범주 원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4. 특정 품사, 품사의 하위 부류

남경완·유혜원의 「중의 어절의 문법 범주별 유형 연구」는 중의 어절 연구의 최종 목표가 중의 어절의 중의성 해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일차적으로 중의 어절의 분석 후보가 가지는 문법 범주에 따라 그 유형을 고찰하였다. 그들은 중의성을 동사 포함 중의성, 명사 포함 중의성, 계사 포함 중의성, 부사 포함 중의성, 관형사 포함 중의성, 감탄사 포함 중의성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어 정보학에서 중의성을 해소하는 작업을 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 하였다.

안주호의 「현대국어의 의존명사 목록에 대하여」는 의존명사 목록에 이견이 있는 항목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자립명사로 분류하고 의존적 쓰임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길, 결, 모양, 서슬, 탓, 턱, 티'를, 의존명사로 각립시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리, 바람, 법, 상, 셈, 지경, 짓, 통, 판, 편, 폭, 품, 한'을 제시하였다. 또 어미와 관련하여 '-ㄴ바, -ㄴ데, -으니망정' 등은 연결어미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들'은 조사로만, '대로, 만, 만큼, 뿐' 등은 조사와 의존명사로 각각 각립시켜야 하며, '직, 쯤, 뻘' 등은 접사로 보아야 하고, 어휘화되거나 현대국어에서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덧, 빨, 해, 섟'과 같은 항목은 의존명사 목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정택의 「우리말 체언의 품사 설정과 하위 분류」에서는 체언을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누어 왔던 전통적 설명에 대해 형태와 기능적 측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음과 의미적 측면에서 체언 범주의 대표 품사격인 명사 범주의 외연을 규정하기 어려움을 밝혔다. 그리하여 명사, 대명사, 수사를 모두 명사 범주로 통합하고 명사는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눈 후, 다시 자립명사는 지시명사와 의문명사, 명칭명사, 용언성 명사로, 의존명사는 보편성 의존명사와 주어성 의존명사, 부사어성 의존명사, 서술어성 의존명사로 분류하였다. 또 각각의 명사 하위 부류의 통사적, 의미적 기능을 고찰하였다.

5. 특정 어휘/구문/논항구조

김경열의 「비교구문의 범위와 특성에 대하여」는 비교 주체, 비교 대상, 비교 기준, 비교격 조사, 비교 내용, 비교 결과를 갖춘 문장 중 특히 비교 대상이 논항인 문장을 비교구문으로, 비교 대상이 논항이 아닌 문장을 비교표현이라고 따로 규정한 후, 비교구문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각각 네 가지씩 제시하고 구체적인 언어 자료를 통해

그 특성들을 상세히 고찰하였다.

김기혁의 「국어 지정문과 존재문의 상관성」은 '이다'와 '있다'가 어원적으로 같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고래는 포유동물이다."와 "포유동물에는 고래가 있다.", "그는 선생이다."와 "그는 선생으로 있다."의 예문 쌍이 존재한다는 점,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지정문도 있고 지정의 의미를 보이는 존재문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지정문과 존재문이 통사, 의미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지정의 의미가 동일성과 속성의 포함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 포함 관계에 의해 지정문이 존재의 의미를 가짐과 유형적 존재문의 의미는 유형적 내포 관계가 포함 관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지정문과 관계가 맺어짐을 밝혔다. 또 인지 의미적으로 존재문은 주어와 부사어가 각각 '모습'과 '바탕'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의미역으로는 각각 '대상'과 '위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정문에서도 주어를 '대상'으로, 보어를 '위치'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 후, 이러한 위치 이론적 설명을 형용사, 동사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형정의 「'와' 보충어의 분포 및 특성」은 술어적 기능을 하는 어휘범주와의 관계에서 필수 성분으로 나타나는 '와' 보충어가 이른바 대칭용언뿐 아니라 일련의 명사(구), 부사 혹은 동사구에 의해서도 요구됨을 밝히고 그 분포와 통사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또 21세기 세종계획의 현대국어 문어 말뭉치 900만 어절을 토대로 표본 추출한 90만 어절의 연구용 말뭉치를 대상으로 '와' 보충어가 술어적 어휘범주와의 관계에서 필수 성분으로 해석되는 3,624개의 용례를 추출하여 '와' 보충어를 취하는 어휘범주의 분포가 '동사(33.1%)〉형용사(20%)〉부사(19.1%)〉명사(구)(16.7%)〉동사구(10.8%)〉수량사(0.2%)'로 나타남을 밝혔다.

남길임의 「말뭉치 기반 국어 분열문 연구」는 구어와 문어 말뭉치

에 나타난 분열문의 빈도 및 실현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그 기능을 밝히고 분열문과 의사분열문의 정의와 범주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열문은 문장성분의 이동이라는 통사적 절차를 통하여 '강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사적 형식이기 때문에 문어에서보다는 발화상황을 공유함으로 인해 음운적 강세, 반복 등의 다른 강조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구어에서 그 빈도가 적음을 밝혔다. 둘째, 분열문의 초점 자리에 오는 성분은 '주어〉부사어〉목적어〉보어'의 순으로 나타나며 초점 자리에 올 수 있는 조사는 '뿐, 부터, 까지' 등의 제한된 보조사와 '에서' 등으로 한정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셋째, 분열문은 담화적으로 강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의사분열문 범주는 분열문의 특정 성분, 즉 '것' 절이나 '이다' 앞의 초점 성분이 변형된 것임을 밝혔다.

남길임의 「'아니다'의 패턴 연구 －말뭉치의 문맥색인(concordance)을 활용하여－」는 '아니다'를 대상으로 하여 말뭉치의 문맥색인을 활용한 어휘 기술의 한 예를 제시하였다. 그는 먼저 패턴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패턴을 두 개의 관점에서 정의한다. 첫째, 형태·통사적 관점에서 패턴은 한 중심어(node)와 함께 빈번하게 자주 나타나는, 그 어휘와 어휘를 둘러싼 조사, 어미 등의 문법 요소로 구성되며 그 구성 내에 빈칸(slot)을 가지는 구조적 단위이고, 둘째, 의미론적 관점에서 각각의 패턴은 독립적인 의미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 문맥색인의 정렬을 통한 패턴 분석의 방법론을 소개한 후, 패턴 분석을 통해 '아니다'가 자유 패턴, 제약 패턴, 관용표현에서 쓰이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목정수의 「한국어 문법 체계에서의 '이다'의 정체성 －기능동사 옹호론－」에서는 '이-'의 생략 문제, 구개음화 문제, 격 할당 문제를 재검토하여 '이다'가 기능동사임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다'의 선행 명사구에 '이/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격이나 격조사의 문제가 아

니라 한정조사 제약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선옥의 「보조동사 '버리다'와 '치우다'가 쓰인 구문에 대한 통사론적·의미론적 연구」에서는 결합 가능한 본동사가 제한적이고 논항 결정력이 있다는 점에서 '치우다'가 '버리다'와는 다른 통사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또 '버리다'와 '치우다'는 모두 완료상 표현과 화자의 부담이나 걱정거리를 해소한다는 것과 강조의 양태 의미를 가지는데, 보조동사 '치우다'가 '버리다'보다는 사건을 좀 더 빠르고 시원스럽게 끝낸다는 의미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박철우의 「'이다' 구문의 통사구조와 {이}의 문법적 지위」는 문장의 통사구조는 그 의미구조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다' 구문의 통사구조를 분류하고 그 속에서 {이-}의 문법적 기능과 지위를 밝혔다. 그는 {이-}가 직접 선행하는 요소(X2)를 서술어로 만들어 주고 따라서 그 결합과 직접구성성분을 이루는 명사구가 주격과 지시성을 받아 문장의 주어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기능범주적 요소임을 논증하였고, 전통적인 논의에서 그 본질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는다면 선어말어미일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박현아의 「한국어 서술성 명사의 실현 양상 연구」는 21세기 세종계획의 형태의미분석 말뭉치를 대상으로 서술성 명사의 실현 양상을 고찰하였다. 첫째, 서술성 명사의 서술성이 어휘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남을 밝혔고, 둘째, 이러한 서술성 명사들의 일반적인 특성 및 사용 경향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서술성 명사와 기능동사의 관계를 共起의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서술성 명사의 개념 및 용어를 자세히 살펴보고 동사구에서와 명사구에서 그 논항이 실현되는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성 명사를 총 24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후, 각각의 유형이 실제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그 특징을 세밀하게 기술하였다. 둘째, 서술성 명사와 공기하는 동사들 가운데 기능동사와 일반 동사의 사용 비율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서술성 명사의 서술성과 기능동사 결합률 사이의 관계를 구하는 한편, 기능동사 '하다, 되다, 시키다'의 어절별 분포를 살핌으로써 기능동사와 서술성 명사 사이의 긴밀성을 드러내고 기능동사별 구성 비율을 살핌으로써 서술성 명사가 구성하는 문장의 의미 중 능동, 피동, 사동이 표현되는 전반적인 양상을 드러내었다.

안희제의 「본용언 형용사 '하다'의 선행 성분에 대하여」는 '관형사절#{만, 법, 성, 양, 뻔, 듯}#하다' 구문, '{-기} 명사절#조사#하다' 구문, 형용사 'X하다' 구문을 대상으로 하여 형용사 '하다'의 선행 성분이 부사어로 기능하는 명사적 성분임을 밝혔다. 특히 'X하다'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 'X#하다'의 통사론적 연쇄라는 것, 이때 X는 모두 명사로 재분류될 수 있는 성분이라는 것, '하다'에 선행하는 성분은 이 명사가 핵이 된 문장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오민석의 「한국어 보조동사 '지다'의 연구」는 보조동사만의 범주적 의의를 확인하고 'V1+-아/어+지다' 구성에서의 '지다'가 보조동사임을 확인한 후, 보조동사 '지다'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동사 '지다'의 의미는 본동사 '지다'의 '生(생김)'의 의미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둘째, 'V1+-아/어+지다' 구성에서 행위주의 존재를 인식하여 이렇게 드러난 행위자와 대상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때 보조동사 '지다'의 의미를 '피동'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상적 특성에 따른 동사 분류 테스트를 이용하여 보조동사 '지다'가 '대상의 변화'라는 의미를 가진다. 넷째, 'V1+-게 되다' 구성과 'V1+-아/어+지다' 구성을 상적인 측면에서 비교하고 두 구성 모두 변화의 끝점을 담당하고 있지만 각각 '예정'과 '완료'라는 의미 차이를 보인다. 다섯째, '피동사('-이-'계)+지다', '사동사('-이-'계)+지다' 두 구성 모두 '대상의 변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섯째, 소위 이중피동이라고 불려 왔던 '피동사+지다' 구성은 '(-이) 피동사+지다'가 아니라 '(-을) 피동사+지다'이다.

이건수·박갑용의 「상태성 '하다' 구문에 대한 소고」에서는 '동사성 명사+하다' 구문에 묻혀 그것과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취급되어 온 '상태성 명사+하다' 구문의 통사적 특성과 구조를 고찰하였다. 그들은 상태성 '하다' 구문에서 '하'는 소절을 보충어로 택하는 비대격 서술어이고 소위 상태성 명사라고 하는 '하'의 선행 요소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와 같은 서술어이며 소절의 서술어라고 주장함과 아울러 상태성 명사와 '하'의 연쇄가 통사·의미적으로 한 단어로서의 서술어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절 병합이라는 통사적 과정을 거쳤기 때문인 반면 두 단어로서의 특성도 함께 보이는 것은 절 병합이 수의적 규칙이기 때문임을 밝혔다. 그들은 특정 이론으로 한국어의 통사 현상을 분석하기 전에 한자어(혹은 외래어)들이 한국어의 문장 구조에 어떻게 적응되었는가를 먼저 밝혀야 하고 그런 작업이 선행될 때 어떤 이론을 택하는가에 상관없이 임시방편적이지 않은 설명이 가능함을 언급하였다.

이숙의 「'다가'의 용법에 대하여」는 '다가'가 어떠한 통사범주로 나타나든지 원래의 동사 '다그다(닥다)'가 갖고 있던 '이동, 접근, 놓임'의 의미를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다가'가 이동동사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동의 경로를 기술하고 비이동동사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방법이나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구와 함께 동사를 수식하는 부가어 구조를 갖는다고 하였고, 둘째, '다가'가 동사구의 수식을 받아 후행하는 타동사를 수식하는 구조에서 '다가'는 동작의 대상물을 후행 움직임 쪽으로 이동시키는 의미를 표현한다고 하였으며, 셋째, '다가'가 연결어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가'로 이끌리는 선행절이 후행절의 사건이 놓이는 배경 사건을 기술하는 것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로 분석한 '중단'이나 '전환', '조건', '인과' 등의 의미는 선·후행절에 나타나는 동사의 의미 관계에 의해 파생된 문맥적 의미임을 밝혔다.

이윤하의 「부사형 어미 '-게' 구성의 통사·의미 기능에 대하여」에서는 부사형 어미 '-게'가 이끄는 절이 부사절이라는 가정 아래에서 '-게 굴-', '-게 하-', '-게 되-' 구성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는 '-게' 구성은 이른바 보조용언 구성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게 굴-' 문형이나 '-게 되-' 및 '-게 하-' 등 이른바 피사동 문형에 나타나는 '-게' 구성은 필수적 성분으로서 모두 바 하나 동사구(V') 부사구의 기능을 갖는다는 것, 종속접속 구성에서 종속절을 이루는 '-게' 구성은 수의적 성분으로서 문장 부사절 또는 부사구의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이은섭의 「'-게 굴다' 구문의 여격 성분과 대격 성분에 대한 고찰」에서는 '-게 굴다' 구문의 이원적 문장 성분 실현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는 '-게 굴다'의 선행 성분이 상태성의 형용사적 성분임을 확인한 후 이 성분의 주어가 경험주 논항일 경우 그것은 대격이나 여격 성분으로 실현되며 대상 논항일 경우 그것은 여격 성분으로 실현되고 전체 문장의 주어로 실현됨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대격과 여격 성분을 갖는 구문은 구조적으로 복합문에서 두 서술어가 인식 차원에서 복합 서술어로 되었다고 하고, 여격 성분을 갖는 구문은 '-게' 구성과 직접 통합하는 용언의 주어 성분이 '-게 굴다' 전체 구성에서도 주어로 실현됨으로써 이 성분이 대격 성분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차단되며 단지 '-게 굴-' 구성의 의미역 관계상 도달점 논항에 해당하는 성분이 여격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이은섭의 「'굴다' 구문의 유형과 통사 구조」는 '굴-'이 실현된 구문을 '같이', '처럼', '으로', '제멋대로', '함부로' 등 조사구나 부사구가 선행하는 구문, '듯', '양', '척' 등의 의존명사구 구성이 선행하는 구문, '-게', '-이' 부사절이 선행하는 구문으로 나누었다. 그는 첫째 유형의 구문에서 필수 성분인 부사어들은 '굴-'이 의미론적으로 모호하고 상황 의존적이어서 의미역을 지닐 수 없으므로 논항의 자격을 부

여받지는 못하지만 구조적으로 필수 성분이므로 보충어의 자격을 지닌다고 하였다. 또 둘째 유형의 구문에서는 의존명사구 구성이 대개 상태성을 지니고 있음과 의존명사인 '듯', '척', '양' 각각이 스스로가 지니는 상태성 자질의 정도에 따라 관형사절과 선별적으로 통합됨을 기술하였다.

임근석의 「한국어 연어 연구」는 연어 범주의 확립, 연어 연구의 대상 검토, 연어 연구 영역의 확대, 연어의 하위 유형 분류를 목적으로 한 논의이다. 그는 연어를 '어휘요소 상호 간 또는 어휘요소와 문법요소 간의 긴밀한 통사적 결합 구성으로, 선택의 주체(연어핵)가 되는 어휘요소가 선택의 대상이 되는 어휘요소나 문법요소(연어변)를 제약적으로 선택한 구성'이라고 정의하고 어휘적 연어와 문법적 연어를 협의의 연어로, 협의의 연어와 공기어를 광의의 연어로 다루었다. 또 광의의 연어와 협의의 연어의 특성을 논의한 후 어휘적 연어와 문법적 연어의 통사적 특성을 상세히 고찰하였다.

임창국의 「한국어 이차술어 구문의 통사」는 "우리 학교 논집이" (정식 학술지로) 발돋움했다."와 같은 문장을 결과 이차술어 구문으로, "인수는 저녁식사 후 (입가심으로) 담배를 피운다."와 같은 문장을 묘사 이차술어 구문으로 규정한 후, 그 통사적 구조와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먼저 결과 이차술어 구문은 결과구와 선행하는 명사구가 하나의 구성소, 곧 서술구 PrP를 형성하기에 결과구는 생략될 수도, 이동을 겪을 수도 없음을 밝히고, 결과 이차술어의 통사 구조를 '[$_{vP}$[주어][$_{v'}$[[$_{VP}$[$_{PrP}$[목적어][$_{Pr'}$[결과구][Pr]]][V]][$_{v}$]]]]'로 제시하였다. 묘사 이차술어 구문은 PRO와 묘사구가 이차술어 구성소를 이루어 관련 동사구에 부가되기에 그 출현이 수의적이며 해석에 있어서도 주어 및 목적어 묘사가 가능함을 밝히고, 묘사 이차술어의 통사구조를 '[$_{vP}$[주어1][$_{v'}$[$_{PrP}$ PRO1 묘사구][$_{v'}$[$_{VP}$[목적어2[$_{PrP}$ PRO2 묘사구][$_{V'}$[V]]][V']][$_{v}$]]]]'로 제시하였다. 또 결과구를 허

용하는 것은 타동사의 직접목적어와 비대격/수동사의 내재논항인 도출된 주어뿐이고 비능격동사의 외재논항은 결과구를 허용하지 못한다는 제약도 함께 밝혔다.

정주리의 「'-주다' 형식의 구문과 의미」에서는 '주다'가 수여 구문에 연결되는 경우, 타동 구문에 연결되는 경우, 자동 구문에 연결되는 경우로 나누어 그 각각의 통사적 양상을 의미론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수여 구문에 연결되는 '-주다'는 수여의 의미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의미구조를 충실하게 실현함으로써 본용언 '주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타동 구문에 연결된 '-주다'는 표면 구조에서 수혜자가 범주화되지 않았으므로 잠재적 수여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전자에서의 수여의 대상이 '개체'인 반면 후자에서의 수여의 대상은 '내포된 사태'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자동 구문에 연결된 '-주다'는 앞의 두 구문과는 달리 '수여성'에서 파생된 '화자의 유익성'이라는 양태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 부수적으로 '-주다' 결합 용언이 관용적 의미를 획득한 경우와 관습적으로 공손 표현에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조경순의 「현대국어 상호동사 구문 연구」에서는 상호동사 구문을 동일한 의미역을 갖는 두 논항의 상호 행위를 나타내는 구문으로 규정하고 '와' 명사구가 행위주로 쓰인 자동사 구문과 '와' 명사구가 행위주나 피험체로 쓰이는 타동사 구문으로 분류한 후, 상호동사 구문에 나타나는 '와' 명사구는 필수 성분이라는 것과 [행위주-행위주-피험체] 구문에서 작용성을 많이 갖는 성분이 주어로, [행위주-피험체-피험체] 구문에서 피영향성을 더 많이 입는 성분이 목적어로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최정진의 「'X다가 Y다가 하-' 구성과 'X다가 x다가'[2] 구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X다가 Y다가 하-'의 의미가 '번갈아가면서 반복됨'

2) 이 논문에서 X, Y는 절 단위, x는 용언 어간 단위를 가리킨다.

인 데 비해 'X다가 x다가'의 의미는 단순히 '강조'라는 사실을 밝혔다. 또 후자의 구성은 'X다가'에서 서술어인 x에 '-다가'가 통합된 형식인 'x다가'를 반복하는 형태론적 조어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전자의 구성은 기존 형태·통사론적 접근만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어 '틀-어휘소'와 같은 범주를 상정하여 설명하고 틀-어휘소의 구성성분인 '하-'는 기능동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최형강의 「'명사+부리다' 연어 구성에서의 의미 전이」는 먼저 실체성 명사와 결합하는 '부리다'가 '실체적인 대상을 보여 주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상태나 행동을 표출하다'의 의미로 전이된 것이고 이때의 실체성 명사는 행위를 나타내는 사태성 명사로 전이된 것이라고 언급한 후, '애교'나 '딴청'과 같은 행위와 관련된 사태성 명사의 경우에도 발화와 관련된 행위로 그 의미가 전이됨으로써 '애교를/딴청을 부리다'가 '-다고' 논항과 같은 새로운 논항을 가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잔)꾀를 부리다'나 '안달을 부리다'의 '부리다'가 '내다'보다는 '에게' 논항의 도입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음도 밝혔다.

6. 문장 성분, 주제

김건희의 「형용사문의 주어와 의미역 설정에 관하여」는 주격중출 구문을 중심으로 하여 형용사문의 주어를 논의하고 구명된 통사적, 의미적 현상을 기반으로 하여 의미역들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기존 의미역 목록들로는 형용사문의 주어의 의미역을 포괄할 수 없음을 관찰하고, '경험주' 외에 형용사문의 주어의 의미역으로 또 하나의 의미역 '소유주'가 설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주격중출 구문에서 주격조사와 결합된 두 번째 명사구는 형용사와 함께 의미적으로 연어 관계를 형성하고 통사적으로 하나의 성분을 이룬다

고 주장하였다.

김동석·김용하·이재철의 「자연언어의 비정규적 주어에 대한 통합적 연구 (Ⅰ) －한국어와 일본어의 비정규적 주어를 중심으로－」는 여격, 속격 등의 형태로 나타난 비정규적 주어들이 형식적/문법적으로 타당한 주어들인지 고찰하고 이들이 보여 주는 다양성에 대해 통합적 설명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주격이 아닌 다른 격을 가진 비정규적 주어에 어떤 방식으로 일치와 격 점검 같은 작용이 일어나는지의 문제가 설명된다면 주어 지향 대용어 결속, PRO의 통제, 그리고 동사의 일치 형태에 의해 비정규적 주어가 타당한 주어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적 주어의 일치와 격 점검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우선 일본어와 비교하여 한국어에서 여격 주어가 일치를 일으킴을 확인한 후,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일치에 주로 작용하는 것은 초점/특정성 자질이므로 격의 겹 점검/부여가 가능하고 비정규적 주어도 추가적 구조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T의 관련 자질이 비정규적 주어를 포함해 주격 목적어까지 겹 일치를 통해 격을 점검/부여한다는 논지를 펼쳤다.

김은일·정연창의 「주어 생략과 모호성 조건」은 모호성(ambiguity)을 초래하지 않는 요소는 생략되는 것이 사실상 의무적이거나 정상적이라는 기존 논의를 '모호성 조건'이라고 이름 붙인 후, 모호성 조건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주어 생략과 관련된 여러 현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해, 주어가 생략될 때 모호성을 초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조 요소이면 생략될 수 없다는 것을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의 여러 관련 현상을 통하여 밝혔는데, 대조 요소를 담화적 대조 요소와 의도적 대조 요소로 나누면 전자가 주어일 경우에만 그것이 생략될 수 없고 후자가 주어일 경우에는 그것이 생략될 수도 있음을 주장하였다.

엄홍준의 「목적어에 관한 연구 : 최소주의 이론에 바탕하여」는 문

장에서 어떤 요소가 목적어가 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이들 요소들이 최소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그는 타동사의 내부논항이 목적어가 될 수 있고 목적격은 타동사에 의해 점검받는다는 기준, 목적어는 문장에서 독자적인 문장성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뒤섞기가 가능해야만 한다는 기준, 타동사의 내부논항이라 하더라도 '을/를' 이외의 격조사로 대치될 수 있는 요소는 목적어가 될 수 없다는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요소를 眞性 목적어로, 그중 하나 이상을 위반하는 요소를 假性 목적어로 규정하였다. 또 목적어의 올바른 도출 과정을 제시하기 위해 타동사와 목적어가 병합(merge)되는 동시에 목적어가 점검되어 목적격 조사 '을/를'을 취하는 도출과정을 채택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한국어 목적어의 형식자질점검이 이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설을 제기하고 그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는 이러한 점검방법을 이용하여 진성목적어만이 위와 같은 점검절차를 거치고 가성목적어, 즉 목적어가 아닌 부사어 기능을 하는 요소들은 비록 자동사 혹은 타동사와 병합하더라도 자동사에는 목적격 자질이 없고 타동사에는 목적격 자질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 요소들과 점검관계를 이루지 못하므로 강조 또는 초점화에 의해 '을/를'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에 선행하는 동사성 명사가 쓰인 구문을 고찰하였는데, 동사성 명사는 '하-'와의 합병(incorpo-ration)을 통해서 그리고 동사구의 재구성을 통해서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이 서술어가 타동성을 지닌다면 그것의 내부논항이 목적어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호승의 「국어 주제어와 담화 주제」는 국어의 주제를 이원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문제의 성분이 재귀사 '자기'의 선행사가 되는 현상, 주체높임의 선어말어미 '-시-'와 호응하는 현상, 일정한 문장성분의 출현을 제약하는 현상, 둘 이상의 문장성분과 관련되어 해석되

는 현상 등을 들어 주제어를 문장성분의 하나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주제 현상이 문장성분들 간의 문법적 관계가 아니라 문장의 정보구조 층위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장성분의 해석과 주제 기능은 한 성분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따라 용언의 어휘 의미와 관련된 논항이 주제의 의미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주제어가 아니라 담화 주제로 해석할 것을 주장하였다.

전영철의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의 표지 '는'」에서는 '는'의 화제와 대조 용법에 대해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도출하려고 한 기존 논의를 비판하고, 화제와 초점은 정보구조적 관점에서 관계적 주어짐성을 토대로 성립되는 반면 대조는 그렇지 않으므로 두 용법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대조의 하위 범주로서 대조 화제, 대조 초점이 모두 존재함을 밝혔으며, 대조 화제, 대조 초점 둘 다 정보구조상 전략을 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대조 초점만이 척도 함축을 유발한다는 차이점도 있음을 논증하였다.

7. 피동, 사동, 부정, 대우법

김윤신의 「사동·피동 동형 동사의 논항 교체 양상과 의미 해석」에서는 피사동 동형 동사들에 대해 각 동사가 보이는 논항과의 결합 관계와 그 논항들의 의미 특성에 따라서 사동과 피동의 의미 해석의 양상이 달리 나타남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동과 피동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는 동형의 피사동사는 그 형태가 암시하는 바대로 사동과 피동의 중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유형과 논항 간의 관계에 의해서 피동적 의미가 우세한 유형으로 나누어짐을 밝히고 이는 사동과 피동이라는 개념이 인과 사건과 재귀적 관계 등의 특징을 바탕으로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김태엽의 「국어 대우법 체계에 낮춤 등급을 설정할 수 없는 이유」에서는 국어 대우법 체계에 높임 등급과 대립하는 낮춤 등급을 설정할 수 없는 네 가지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국어 대우법 체계를 높임 등급과 안 높임 등급의 대립 체계로 기술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서 첫째, 국어의 인칭대명사에 청자로 상정될 수 있는 2·3인칭대명사에 낮춤 형태가 없다는 점, 둘째, 국어에 역사적으로 높임의 선어말어미는 있으나 낮춤의 선어말어미는 없다는 점, 셋째, 간접인용문의 내포문어미로 중화되는 형태는 낮춤형이 아니라는 점, 넷째, 국어 대우법의 하위 범주(주체대우법, 객체대우법, 청자대우법)의 체계는 일관성 있게 기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숙의 「국어의 어휘사동문」은 어휘사동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어휘사동문의 피사동주 명사구에 나타나는 격표지 현상을 설명하고 어휘사동문 논항들의 통사적 지위를 구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사동접사를 기본 동사의 논항을 증가시켜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는 어휘 파생접사로 보고 파생접사로 인해 증가된 논항의 의미역이 기본 동사가 가지는 의미역과 중복되지 않음을 밝혔다. 둘째, 한자리 서술어에서 파생된 동사의 피사동주는 직접목적어 자리에 나타나며 두 자리 서술어에서 파생된 동사의 피사동주는 간접목적어 자리에 나타남을 밝혔다. 그리고 간접목적어 성분으로 나타나는 피사동주가 여격 대신 대격으로 대체되는 현상은 통사구조의 변이가 아니라 담화상 의미에 의해 표지되는 수의적 규칙에 의한 것임을 밝혔다.

이정택의 「피동문의 능동주 표지 선택 원리 재고」는 능동주의 표지 제약을 통해 '지다' 피동을 제외한 접미사 피동, '되다' 피동, '받다' 피동, '당하다' 피동이 거의 같은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격 형태 능동주 표지 제약('-에 의해' 사용)이

있는 피동문은 격 충돌 회피 원리, 무정물 피동주 회피 원리가 적용되고 '-에 의해' 능동 표지 제약(여격 형태의 능동주 표지 사용)이 있는 피동문은 문체 제약의 원리가 적용됨을 논증하였다.

임동훈의 「현대국어 경어법의 체계」는 문법적 수단을 통해 나타나는 주체경어법과 청자경어법에 대해 연구사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는 먼저 '-시-'의 의미에 대한 기존 논의를 존대설, 호응설, 지시설로 나누고, '-시-'를 사회적 관계가 부호화된 사회적 지시소로 보는 지시설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또 사회적 지시소의 사용은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관점(perspective)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즉, 대상 인물이 특정한 존재로 인식되지 않아 화자와 개별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화자는 그에게 사회적 지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시-'의 통사적 특성으로서 '-시-'가 결합하는 사태는 동사구로 실현됨이 일반적이나 사태에서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명사구가 존대 대상에 화용론적으로 결속되는 상황에서는 사태가 절 단위로 실현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청자경어법에서는 청자 대우에만 초점을 맞춰 왔던 기존 논의를 비판하고 등분 체계에 [±청자상위], [±청자하위]뿐 아니라 [±화자상위], [±화자하위] 자질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기존 [±격식성]을 추가하여 합쇼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의 특성을 논의하였다.

최기용의 「장형 부정 구문의 격 교체」는 한국어에서 장형 부정 구문이 보이는 격 인가 양상이 전형적인 격 인가 양상과 공통점(한 가지)보다는 차이점(네 가지)이 훨씬 많음을 언급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논의들이 취해 왔던 이동 분석이 최소주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고 비이동 분석이 격 인가가 성분-통어 및 격 최소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가설을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최형강의 「피동문의 조건과 '받다, 당하다, 되다' 구문의 재고」에서는 '받다, 당하다, 되다'를 통해 피동문의 성립 조건을 고찰하였다. 그는 '되다' 결합형의 경우 '결정되다'류와 같이 '하다-되다' 대응 관계는 성립하지만 '에게' 논항이 도입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받다, 당하다' 결합형과 '주다, 하다' 결합형에서 행위주와 관련이 없는 '에게' 논항이 쓰인다는 점에서 피동문과 능동문의 구문 변화를 상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이때의 '에게'가 '에게서'와 같이 출발점역의 표지로 확실하게 표시될 수 있는 '받다, 당하다' 결합형은 출발점역을 갖지 않는 '주다, 하다' 결합형과 동일한 의미역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이들이 쓰인 문장이 피동문과 능동문으로 묶일 수 없다고 하였다.

8. 시제, 상, 양태, 동작류 및 상황유형/사건구조

고영근의 「동작상에 대한 이해」에서는 동작상의 개념, 유형, 체계를 고찰하면서 동작상과 관련한 동작류, 상황유형, 동작성 등도 함께 살펴보았다. 동작상에 대한 국내외 연구, 중세어/근대어/현대어, 방언적 차이까지 모두 고려한 종합적 통찰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현대어 동작상의 체계를 완료상과 미완료상으로 나누고 미완료상은 다시 진행상과 예정상으로 나눈 후, 그 각각의 예를 양태적 의미와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중세국어가 서법과 동작상의 2원적 체계로 이루어졌던 반면, 현대국어는 시제, 서법, 동작상의 3원적 체계로 변모했음을 밝히고, 그러한 사실이 외국의 범언어적 연구 결과와 부합함을 주장하였다.

고영근의 「절대문은 세울 수 있는가」는 '동사어간-다'에 대해 현대어는 직설법으로, 중세어는 부정법으로 처리한 그의 주장을 임홍빈(1983/1998)이 誤讀하고 '절대문'을 설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는 임홍빈의 주장을 “절대문은 신적인 표현법이다.”, “절대문은 절대어간으로 성립한다.”, “절대문은 ‘서법’(문체법)을 초월한다.”, “절대문은 동사뿐 아니라 형용사와 지정사에도 적용된다.”, “절대문은 그리스어의 ‘aorist’와 다르다.”, “절대문은 부정법이 아니다.”, “공손법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 절대문에서 제외된다.”와 같은 명제로 요약한 후,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그것들이 반직관적이고 관념적이며 선험적 사고의 산물임을 주장하였다.

김윤신의 「한국어 동사의 사건구조와 어휘상」은 상 조동사와 어미 등을 통해 실현되는 문법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가질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휘의미구조상의 사건구조로서의 어휘상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어휘상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그 판별 기준에 대해 논의한 후, 어휘상을 생성어휘부 이론의 사건구조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살피면서 사건지속원리와 대립관계를 파악하여 일관성 있는 의미특성을 보이지 않는 달성동사의 하위 유형과 그 사건구조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김천학의 「국어의 동작상과 동작류」는 국어의 동작류를 동사의 의미자질을 기준으로 하여 어휘·의미론적으로 분류하였던 기존 연구를 비판하고 형태론적 제약을 기준으로 하여 어휘·형태론적으로 분류하였다. 그 분류에서는 ‘-어 있-’과 ‘-고 있-’만을 동작상의 표지로 인정하였는데, 그에 따라 동작류1[진행], 동작류1’[진행(반복)], 동작류2[진행/완료], 동작류2’[완료], 동작류3[진행/완료], 동작류3’[완료], 동작류0[상태]로 분류하였다. 또 ‘-어 있-’, ‘-고 있-’ 앞에 오는 보조용언은 동작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작류의 상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는 범언어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된다고 주장하였다.

박덕유의 「행위동사와 완성동사 부류에 나타난 상적 특성」은 동

사의 상적 자질로서 [±동적], [±완성성], [±순간성], [±접근성]을 설정하고 그 상적 자질의 특성에 따라 동사 부류를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의 동작동사와 [+동태성, +완결성, -순간성]의 완성동사로 나눈 후, 그러한 상적 특성에 의거하여 동작동사와 완성동사가 상 표현의 보조용언 구성 '-고1 있-', '-고2 있-', '-어 있-', '-곤 하-', '-려고 하-'와 결합하는 혹은 결합하지 않는 양상을 설명하였다.

오충연의 「상과 통사구조」는 문장의 내용을 어휘에서 파생되는 분석적인 언어 정보가 아니라 비분석적인 정보로 보았다. 즉, 문법적 구조 및 문법 관계는 곧 의미 관계의 표상이기는 하지만 이를 어휘의 논리구조로서가 아니라 비형상적 인지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상의 본질을 개념범주가 아니라 화자에게 지각·인지된 내용으로서의 상황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언어 양식화하는지를 고찰하였다. 상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패러다임적으로 교체되어야만 함을 주장한 연구로서 상의 개념과 양식, 상과 격, 복합문의 상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상의 개념과 양식에서는 상 지각, 문법화, 상 양식의 범주 교차적 성격, 보조적 상 양식인 '-어 있-'과 '-고 있-'에 대해, 상과 격에서는 국어의 격과 주제 체계, 상과 논항, 주어 및 목적어 실현과 상과의 관계에 대해, 복합문의 상에서는 관형절, 부사절에서의 상적 구조에 대해 고찰하였다.

윤은경의 「한국어 양태 표현 연구 —종결어미 '-(으)ㄹ래, -(으)ㄹ게'를 대상으로—」는 양태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양태를 화자의 명제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인식 양태와 화자의 문장의 주어나 명제에 대한 행위 요구를 나타내는 행위 양태로 나누었다. 또 화자의 [의지] 표현에 해당하는 종결어미 '-(으)ㄹ래'와 '-(으)ㄹ게'의 의미 차이를 고찰하였다. 그에 따르면 '-(으)ㄹ래'는 평서문에서는 화자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청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며 의문문에서는 그 의미 빈도가 [제안/명령], [위협], [부탁/명령], [단

순의지] 순으로 실현됨을 밝혔다. 반면 '-(으)ㄹ게'는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를 중시하여 실제 담화상에서 오가는 이야기는 없었어도 일정 부분 청자로 하여금 행동을 암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고, 그 의미 빈도가 [약속], [의지] 순으로 실현됨을 밝혔다. 요컨대 '-(으)ㄹ래'보다는 '-(으)ㄹ게'가 청자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재성의 「과거 사건의 구조와 과거 사건 인식 방식」에서는 국어에서 하나의 과거 사건이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현상을 과거 사건의 구조를 분석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과거 사건의 구조가 사건의 시간 위치, 전체 모습, 부분 모습으로 구성되고, 이 세 요소는 과거 사건을 인식하는 대상이 되는데, 한국어의 경우 이 세 구성 요소 모두가 인식 대상이 되는 동시에 각각 문법 범주로도 나타남을 주장하였다. 그는 사건에 대한 시간 위치의 인식과 그것에 더해 사실에 대한 사건 중심의 인식이나 현재에 대한 사건 중심의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사건이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고 하고, 그리하여 시간 표현은 시제뿐 아니라 상, 양태 범주로도 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필영의 「서술부 양태 표현의 부정 양상 －보조용언적 구성을 중심으로－」는 서술부가 보조용언적 성격을 지닌 양태 표현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들의 양태 의미가 부정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그는 우선 양태를 심리적 태도의 주체의 측면([행위자], [심리 주체 제약적])과 양태 표현의 의미적 특성([인지적])의 측면에서 하위분류한 기존 연구를 검토한 후, [+행위자] 양태 표현은 선행 부정이나 후행 부정에 의해 모두 명제 내용과 양태가 함께 부정되는 데 비해 [-행위자] 양태는 후행 부정에 의해서만 양태가 부정될 수 있다는 사실과 [-행위자] 양태 가운데서 [+심리 주체 제약적]인 것과 [+인지적]인 것은 후행 부정에 의해서도 부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

다.

임채훈의 「동작류의 상적 특성, 그 본유성과 의존성 –'약속을 지키다'와 같은 사건-성향 술어를 중심으로–」에서는 '약속을 지키다'류나 '약속을 어기다'류가 드러내는 통사적 현상이 이들이 고유한 상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는 이러한 구문의 술어를 사건-성향 술어로 규정하고 이 술어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설명과 판단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이 술어를 포함한 구문은 고유한 상적 특성을 갖기보다는 그것이 지시하는 구체적인 동작의 상적 특성을 상속받아 상적 제약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이는 동작류의 상적 특성을 살필 때 본유적인 것과 의존적인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하였다.

임채훈의 「문장 의미와 사건」은 문장 의미를 단위화하여 유의미한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와 관련하여 사건 의미론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그는 부분들의 합으로는 전체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 그것을 통해 전체로서의 고유한 의미, 그리고 그 전체와 부분들 간의 의미 관계가 문장 의미 형성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전체로서의 개체를 표상하는 '사건 논항'뿐 아니라 '발화상황 논항'을 설정해야만 문장 의미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임채훈의 「완성성과 상의 구조적 실현」은 '부르다, 쓰다'와 같은 [-완성성]의 동사가 쓰인 문장의 상적 특성, 곧 상황유형도 [+완성성]을 가질 수 있음에 주목하여 국어에서 완성성을 나타내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고찰한 후, 완성성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논의하였다. 그는 완성성을 나타내는 요소로서 종래 논의되었던 동사나 논항 외에 부사 '다'가 있음과 AspP가 국어에서도 중요한 구조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Asp의 지정어 위치는 완성성의 척도 역할을 하는 대상들이 이동하는 자리임을 밝혔다.

황병순의 「'-었-' 삭제와 생략에 대한 연구」는 '-(으)ㄴ' 내포절이나 '-고' 대등 접속복문의 선행절에 '-었-'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었-'이 통사 규칙에 의해 삭제되거나 화용 규칙에 의해 생략되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한 후, '-었-' 비실현의 각 유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으)ㄴ' 내포절에 '-었-'이 실현되지 않는 것은 중세국어 문법의 잔영 때문이고, 둘째, '생략'이 일어나는 접속복문은 선행절에 시제소와 양태 표현(쉼과 억양)이 실현되지 않은 대등 접속복문인데, 이 경우 생략의 대상은 정보 기능을 지닌 문장 성분이며, 셋째, '-고' 접속복문에는 선행절에 시제소와 양태 표현(쉼과 억양)이 실현되지 않은 유형과 시제소와 양태 표현이 실현된 유형이 있는데, 전자는 시제소와 양태 표현에 의해 한정되지 않은 선행절의 비한정(부정) 상황이 후행절 상황과 이어진 구성이고 후자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각기 시제소나 양태 표현에 의해 한정된 상황이 이어진 구성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9. 문장 및 성분의 구조, 어순

강소영의 「우측 어순 변동 구문의 실현 양상과 의미 기능」은 정상적인 어순에서 벗어나 주어나 종속절의 위치를 변동시킨 데에는 대화의 흐름을 이어 나가려는 의사소통 구조에 합치되는 바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가정을 갖고 주어와 종속절의 어순 변동 구문의 빈도수를 확인한 후 그 의미 기능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주어의 어순 변동 구문은 타인과의 견해차를 인정하여 대화 참여자들과의 마찰을 줄이거나 서술의 주체를 분명히 하여 타인과의 오해를 해소시키려는 화자의 태도가 담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는데' 절이 주절 뒤에 배치된 데에는 화자, 청자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도가 담겨 있음도 확인하였다.

박진호의 「자연언어처리와 국어 연구」는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단어 의미의 중의성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국어 연구가 소홀히 여겨 온 현상 중 어떤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형태·통사·의미론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는 통사 구문 분석에서의 어려움을 어떤 성분의 문법 역할 결정의 어려움과 지배자 결정의 어려움으로 대별하고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공법으로 한국어의 모든 용언들에 대해 어떠어떠한 문장성분을 취하는지를 명시하고 한국어의 모든 체언에 대해서도 그 의미부류를 명시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한 후, 21세기 세종계획의 전자사전에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을 해 왔음을 밝혔다.

박희문의 「한국어 이중주어구문의 제약기반적 분석」은 핵어문법(HPSG)의 분석 틀 안에서 이중주어 구문의 통사·의미 구조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언어기호의 유형과 제약을 상술함으로써 핵어문법의 이론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는 이중주어구문을 서술절을 가진 문장으로 분석하고, 첫 번째 명사구는 뒤따라 나오는 서술절의 지정어(SPR) 역할을 하며 이 경우 NP1은 주제나 초점과 같은 화용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 그는 화용적 개념인 주제구문을 분석하기 위해서 충전소-공소(Filler-Gap)와 SPR의 도입을 제시하고 초점구문을 분석하기 위해서 머리어-지정어 규칙(Head- SPR Rule)과 지정어 도입 규칙(SPR Lexical Rule)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학생들이 몇몇은 우수하다."와 같이 NP2가 '은/는' 결합 명사구인 대조구문 분석에서는 첫 번째 명사구인 NP1이 주제(topic)이거나 초점(focus) 정보를 지니고 두 번째 명사구의 주격조사가 '은/는'일 경우 NP2가 대조적 [CONTRAT+] 자질의 의미 정보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하여 규칙을 수립하였다.

신서인의 「구문 분석 말뭉치를 이용한 한국어 문형 연구」는 현대국어 문어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 57만 어절의 구문 분석 말뭉치에

서 추출한 실제의 문형을 바탕으로 문형과 용언의 의미 간의 상관성을 밝히고 문형의 변이 양상을 생략과 어순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먼저 원시 말뭉치에 비해 문장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이 가능한 구문 분석 말뭉치의 장점을 언급하고, 규범적인 문형을 이루는 요소들이 실제 문장에서 모두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 동일한 문형을 가지는 용언들은 일정한 의미적 유사성을 공유한다는 사실, 조사 생략이 빈번한 체언이 있다는 사실, 주어 논항이 목적어 논항보다 빈번히 생략된다는 사실, 논항 생략이 빈번할수록 조사 생략이 줄어든다는 사실, 논항 중 일부가 생략된 경우에도 실현된 논항들 사이에서는 기본 어순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 조사가 생략된 경우 어순의 변이가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 등을 밝혔다.

양정석의 『한국어 통사구조론』은 생성문법의 형식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전통문법, 구조문법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함으로써 국어 통사론의 구조적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려고 한 역작이다. 이 저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매우 방대하다. 첫째, 문법단위에 대한 논의에서는 통사구조상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 형태소, 단어, 통사원자, 형태론적 대상 등과 구별되는 '형성소' 설정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둘째, 개별 언어에 특유한 어휘적 근거에 따라 언어 보편적 통사 절차인 재구조화가 가동된다고 보고 재구조화의 원리와 실제를 고찰하였다. 셋째, 형성소를 기초적 문법단위로 하고 재구조화라는 단위들 간의 연계의 기제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 문장이 생성되는 원리와 규칙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문법의 원리로서 핵계층 도식, 논항 연결 원리, 격 표시 원리, 서술화 원리, 수식어 허가 원리, 공범주(t, O, PRO, pro) 원리, 재구조화 원리를 제시하였고, 문법 규칙으로서 이차 서술어 포함 구문에서는 묘사 서술어 구문 규칙, 결과 구문 규칙, 유형 판단 구문 규칙, 판정 구문 규칙, 외치 구문 규칙, 동반

구문 규칙을, 기타 구문에서는 능격동사 구문 규칙, 연산자 이동 구문 규칙, 머리 성분 이동 구문 규칙, 비우기 구문 규칙, '-고 있-' 구문 규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리와 규칙에 따라 명사절 내포문과 관형절 내포문, 서술성 명사 구문, 복합문, 보조동사 구문, 보충어 구조와 부가어 구조, 명시어 구조, 연결어미 없는 연결어미 절, 명사구, 보조사구, 후치사구, 직접인용절과 간접인용절, 외치 구문, 유형 판단 구문, 예외적 격 표시 구문, 지칭문 등 국어 통사 구조론의 거의 모든 핵심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선웅의 「술어명사구와 동사구의 동질성과 이질성」에서는 사동문, 피동문과 술어명사구의 관계 문제, 능동문[주동문]과 술어명사구의 관계 문제, 명사구의 확대에 따른 '의'의 중복과 관련한 수용성 문제, '의'가 대상역 논항에 통합될 때의 문법성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한 후, 동사구의 통사 구조와 동질적인 구조를 보이는 술어명사구를 논항 표지의 평행성에 맞추어 정리하였다. 한편, 동사구의 통사 구조와 이질적인 구조를 보이는 술어명사구를 아홉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그 각각의 통사적 특성을 상세히 고찰하였다.

이은희·이현주의 「한국어의 서술절 설정 연구: 학교문법을 중심으로」는 서술절 설정의 정당성을 주장한 성기철(1987), 임동훈(1997)과 서술절 설정의 부당성을 주장한 남기심(1986)을 검토하고 성기철(1987), 임동훈(1997)이 제시했던 논거를 반박한 후, 서술절을 설정한 학교문법 및 그 교사용 지도서의 기술이 재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나, 그들 자신만의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정택의 「이른바 중주어문에 관하여 —서술절 설정의 당위성을 중심으로—」는 주격 중출 구문에 대한 기존 설명을 서술절 설정을 대표로 하는 복문 구조로 파악하는 입장, 변형 절차를 상정하는 단문 구조로 파악하는 입장, 탈문법적 입장으로 나눈 후, 서술절 설정을 가장 정면으로 비판했던 남기심(1986/1996)에 조목조목 반박함

으로써 첫째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최기용의 「한국어의 “명사+조사” 구성의 구조」는 조사를 핵으로 보는 기존 논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구조격 조사, 의미격 조사, 특수 조사로 나누어 각각의 조사가 결합한 구성의 구조를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해석성]의 추상격 실현인 구조격 조사가 결합된 구조는 [$_N$ [$_N$]-가/를/의]로 파악하였다. 둘째, 의미격 조사가 결합된 구성은 그 논항 여부 및 서술어의 하위범주 특성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눈 후, (ⅰ) 비논항인 경우 의미격 조사가 별도의 의미를 가지는 핵으로 간주되고 의미격 조사의 범주를 후치사로 볼 때, 전체 표현은 후치사로 볼 수 있음을, (ⅱ) 논항인 경우 서술어의 하위범주 특성에 따라 명사구로 실현되기도 하고 후치사구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후자의 경우는 비논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후치사구로 볼 수 있음을, (ⅲ) 명사구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의미격 조사가 고유격의 실현이 아니라 해당 성분에 부여되는 의미역의 실현으로 볼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셋째, 특수 조사의 경우는 의미역 표지로서의 의미격 조사와 같은 양상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홍용철의 「한국어의 명사 확장 범주」는 명사에 기능요소(조사)가 결합한 구성을 명사 복합체라고 이름 짓고, 그 구조와 본질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째, 한국어의 명사 복합체에서 명사 다음에 나타나는 기능범주들인 Num, P, Xlim, Ylim 각각은 직전 요소를 보충어로 취하여 투사범주를 형성하는 핵어이므로 명사 복합체의 구조는 기능투사범주들이 결합한 계층적 구조이고, 지시사 ‘이/그/저’는 ‘여기/거기/저기’와 같은 직시적 의미를 강화하는 요소와 함께 지시사구 DemP를 형성하고 DemP는 NP 이상의 명사 관련 기능범주의 지정어 위치에 나타나며, 명사 복합체에서 명사 다음에 나타나는 기능요소들의 투사범주인 NumP, PP, XlimP, YlimP 각각은 명사 확장범주라는 사실을 밝혔다. 둘째, 지시사가 명사 관련 기능투사범주의 핵

어가 아니라 이것의 지정어 위치에 나타나는 지시사 최대투사범주 DemP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시사가 계층적 구조의 기능투사 범주 지정어 위치들 중 어디에 위치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명사 후행 기능요소 각각의 투사범주들은 모두 그 본질이 명사 확장범주임을 주장하였다.

10. 이어진 문장, 안은 문장, 관형화, 보문화

오정은의 「명사의 문장 연결 기능 연구」에서는 일부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들이 '관형사형 어미+명사+(조사)'의 구성을 이루어서 수행하는 문장 연결 기능을 연결어미의 그것과 비교·대조하여 고찰하였다. 그는 연결 기능 명사의 식별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식별한 결과의 목록을 제시한 후, 그것들이 선어말어미 '-시-'의 결합, 시제 선어말 어미 결합, 부정소의 작용역, 분열문 형성에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해 통사론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배경의 '가운데, 김, 마당, 바, 터, 판, 판국'에 대해, 시간의 '결, 다음, 동안, 때, 무렵, 사이, 연후, 즈음, 적, 족족, 참, 틈'에 대해, 인과의 '관계, 끝, 나머지, 덕/덕분/덕택, 만큼, 바람, 탓, 통, 이상'에 대해, 대조의 '대신, 반면, 뿐, 한편'에 대해, 조건의 '경우, 한'에 대해, 나열의 '겸, 등/등등'에 대해, 양보의 '간, 망정'에 대해, 비유의 '양'에 대해 의미론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정훈의 「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그리고'에 대한 고찰」은 '그리고'에 의해 접속되는 모든 경우를 유형화하고 그 통사적 특성을 고찰하였다(엄밀히는 통사 단위 以上도 다룸). 그는 '그리고'의 접속 유형을 동종 접속과 이종 접속으로 나눈 후, 다시 동종 접속은 다시 문 접속, 절 접속, 명사구 접속, 문장성분 접속, 중첩으로 나누고 이종 접속은 범주 이종 접속과 문법기능 이종 접속으로 나누었다. 여기에

이종 접속의 한 형식으로서 동종 접속의 기저에 생략이 적용되어 나타나는 표면적 이종 접속을 더 설정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또 접속 중 문 접속 유형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절 접속과 명사구 접속이 그 다음을 차지하며 나머지 유형들은 빈도가 매우 낮음을 확인하였고, 동사구 접속과 이종 접속은 핵 이동과 생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허철구의 「접속과 부가」는 먼저 종속접속을 내포로 해석하는 최근 논의의 흐름을 확인하고 내포된 부사절을 문장부사절과 성분부사절로 나눈 후, 문장부사절이 대등접속문의 선행절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가진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는 대등접속문이나 문장부사절을 안은 문장 둘 다 선행절이 보문자 '-다'의 하위에 놓이는 구조가 아니라 후행절 CP의 외부에 놓이는 CP-CP의 구조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주제화 혹은 초점화 이동, 언표내적효력, 동남방언의 의문사 일치 등의 현상을 볼 때, 대등접속은 [$_{CP3}$ CP_1 CP_2]의 외심구조를 갖고 있는 데 반해 문장부사절을 안은 문장은 [$_{CP2}$ CP_1 CP_2]의 내심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전자는 접속 구조이고 후자는 부가 구조라는 것이다.

11. 총론, 이론, 연구 방법론, 타 분야와의 접면

강창석의 「국어 문법의 특징과 연구 방법론 Ⅰ」은 구미 이론에 의존한 국어 문법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흔히 주격조사로 상정되는 형태소 '이'의 기능을 고찰하면서, 국어 문법 연구가 구미 이론에 의존해 온 결과로 빚어진 폐단 중의 하나로서 불필요하거나 적절치 못한 과제가 많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비문 판정의 문제 자료의 수집/분류/분석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론적 성찰을 반영한 결과로서

첫째, '이'는 주어나 주격 표지가 아니고 명사(구)와 동사(구)를 묶어 주는 것이고, 둘째, '이'는 '본래 기능' 외에 '위치 기능'이나 '조건 기능' 등의 부차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으며, 셋째, '이'로 묶인 통사 단위는 동사 성격을 가지며 다른 단위와 다시 묶일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권재일의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는 남한의 학교문법(1996, 2002)과 북한의 교육용 규범문법서 『국어문법』(2001), 이론문법서 『조선어리론문법』(1985-1987), 규범문법적 이론서 『조선어학전서』(2005)를 정밀하게 비교·대조한 후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에 걸친 통일 문법을 제시하였다. 통사론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품사 체계, 문장성분, 격 체계, 문장 종결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사동 표현, 피동 표현, 부정 표현에서의 용어 및 개념 차이, 문법적 사고 전개의 차이를 상세히 고찰한 후 통일안을 제시하였다.

김지홍의 「국어 통사·의미론에서의 '방법론' 검토」는 논항구조와 언어 사용을 중심으로 국어 통사·의미론에서의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유한한 전체가 아니라 무한한 전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열관계와 통합관계를 선조적 결합 속에서만 파악하려고 한 소쉬르의 한계를 언급하고 프레게의 방법론적 일원론을 옹호하였다. 또 논항구조에서는 포괄적 적용 모습을 소개하고 의미역이 배당되는 모습을 다룬 후, 어휘 의미의 변동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였고 이른바 예외적 격표시 동사가 매개인자를 지닌 표상이라는 점을 논의하였다. 언어 사용에서는 현장 층위와 점검 경로와 새로 도입되는 층렬에 대한 바탕 위에서 '대화 규범'이 재해석되어야 하고 언어 사용도 '자유 의지'의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화용론을 자연주의 모습으로 환원하려는 시도의 결점도 지적하였다.

류병래의 「LKB를 이용한 제약기반 한국어 단편문법의 구축과 전

산적 검증」에서는 '언어지식구축'(Linguistic Knowledge Build -ing, LKB) 시스템을 이용한 한국어 제약기반 단편문법[3]의 구축과 그 문법의 실제 적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한국어 단편문법 구축을 위한 LKB 시스템[4]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한국어 단편문법의 구축을 위해 유형계층 및 어휘부의 구조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런 다음 LKB 시스템에서 한국어의 기본적인 문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끝으로 동사성 명사 구문과 형용사성 명사 구문의 전산적인 분석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신효필의 「유형화된 자질구조(Typed Feature Structur)와 LKB (Linguistic Knowledge Building)를 기초로 한 한국어 단층 분석」은 한국어 구문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추구되어 온 양분 분석이 아닌 단층 구조[5] 분석을 LKB에 적용하여 한국어의 기본 문장들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단층 분석에서 필요한 문법 규칙, 어휘부, 자질 유형 등을 상세히 고찰하였다. 예컨대 한국어의 문법 규칙을 단어의 구 전환 규칙(word-to-phrase rule), 수식어 규칙(modifier rules), 결합 규칙(attaching rules), 문장 형성 규칙(sentence rules)로 나누고 수식어 규칙은 다시 NP 수식어 규칙(modifying NP rule), VP 수식어 규칙(modifying VP rule)으로, 결합 규칙은 다시 조사 결합 규칙(marker attaching rule)과 보문소 결합 규칙(comple mentizer attaching rules)으로, 문장 형성 규칙은 다시 문장 종결 규칙(end sentence rules), 관형절 형성 규칙(adnz-sentence rules), 명사절 형

3) 과문한 필자는 '단편문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으나, 내용상 대략 '단문(單文)'과 같은 간단한 문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된다.
4) HPSG 및 유형화된 자질구조에 근거한 문장 분석 도구이다.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에서 개발하였다.
5) 전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동사구 등을 평행하게 설정한 구조를 뜻한다. 이 구조에서 각 구(phrase) 성분은 수식어구나 내포된 구조 외에는 그 하위 구조로 분석되지 않는다.

성 규칙(nomz-pump rules), 인용문 규칙(comple sentence rules), 기타 문장 규칙으로 나누고 그 적용의 실례를 상세히 살펴보았다.

이정택의 「필수성과 수의성의 본질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에서는 필수와 수의의 개념을 오로지 문법론의 시각에서만 관찰하려 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비판하고 인지언어학의 '모습'과 '바탕'의 개념을 '필수'와 '수의' 구분에 적용하였다. 그는 필수성에 관한 직관이 '모습'의 골격 형성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기본적인 장면이나 명제인 '모습'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요소는 필수적으로 인식되고 그 이외의 성분은 일반적으로 수의적인 요소로 인지된다는 것이다.

이정훈의 「파생접사 '-답-'의 통사적 파생」은 어휘부에서 이루어지는 '-답-' 파생과 통사부에서 이루어지는 '-답-' 파생을 확인한 후, 한국어의 생략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기준으로 하여 '-답-'의 통사적 파생이 수평 이동, 다중 관할에 의한 것이 아닌 핵 이동에 의한 것임과 이때의 핵 이동은 음성형식부 핵 이동이 아니라 통사부 핵 이동임을 밝혔다. 또 '-답-'의 보충어가 '-으시-' 일치의 대상일 수 있는데, 통사적 파생을 통사적 핵 이동으로 설명하면 '-답-'의 보충어와 '-으시-' 사이의 일치를 '핵-핵 관계'에 의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형용의 「합성어 형성과 어순」은 단어 형성에서 나타나는 사잇소리, 음운 탈락, 어근의 존재 등과 같은 의미를 갖는 문장으로 환원했을 때 조사의 생략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사실 등을 논거로 들어 흔히 통사적 합성어로 불려 온 '아가방, 손발, 겁나다, 등지다, 앞서다'와 같은 말이 문장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단어 형성 고유의 과정으로 설명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그러한 주장이 통사부에서의 단어 형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는 단어 형성을 관장하는 어휘부의 지위를 분명히 하려는 시도임

을 밝혔다.

12. 맺음말

최근 국어 통사론 분야뿐 아니라 인문학 전반적으로 연구의 양적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다(필자는 거의 '폭발'이라고 느꼈다). 그에 따라 연구자들은 기존 통사론의 범위에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여 대비(comparative & contrastive) 언어학적 연구, 전산(computational) 언어학적 연구, 인지(cognitive) 언어학적 연구, 통시(diachronic) 언어학적 연구 등으로 그 방법론의 지평을 넓혀 가고 있다. 2006년은 특히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 해라고 판단된다. 본고에서 이런 경향의 논저들을 거의 언급하지 못함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물론 기존 국어 통사론 업적에서 보인 이론 틀과 방법론으로 작성된 논저 역시 매우 많았는데, 특히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조사, 어미 연구가 2006년에도 매우 활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특정 어휘나 구문, 상이나 양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도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이어진 문장과 안은문장에 대한 구조적 연구, 관형절과 보문에 대한 연구, 품사론적 연구는 적은 편이었다. 한편 계열체 탐구에 비해 미미했던 통합체 탐구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여겨진다.

머리말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앙어의 현대 공시적 통사론 업적만 소개하여도 지면의 한계를 훨씬 넘었기 때문에(청탁받은 원고 매수의 두 배를 훌쩍 초과하였다) 필자가 주관적으로 선별 기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논저를 소개하지 못하였는데, 관련 연구자 여러분의 용서를 구한다. 통사론의 참고문헌 총목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글에서는 각 업적의 내용 소개에만 주력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논저도 없지 않고 자료를 잘못 관찰하거나 분석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간간이 눈에 띄었다. 반면에 특히 가치 있는 주제를 다루거나 국어학사적 의의가 큰 주장을 담고 있는 논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필자의 의견 표출은 되도록 자제하였다. 그것은 독자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어휘론 · 의미론

이 찬 규
(중앙대학교)

1. 총론

2006년 어휘론·의미론 분야는 예년에 비해 양적으로도 성장하였으며, 질적으로도 주목할만한 연구 성과들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새로운 연구 대상의 발굴이나 연구 방법론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연구 결과물의 효용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양적인 성장의 내용을 보면 한국어교육 분야의 양적 팽창으로 인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어휘·의미 교육 연구가 많아진 반면, 전통적인 의미 분야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위축되었다. 또한 순수 이론적인 측면의 연구보다는 실용적인 목적의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였는데, 대표적으로는 의미 교육과 담화 분석이 두드러진다. 2006년 어휘·의미론 분야의 연구 성과물은 일반 논문이 295편, 학위 논문이 118편, 단행본이 29권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 일반 논문의 의미 단위별 연구 성과 분류

대분류	소분류	논문편수
어휘 의미 (114편)	어원론	25
	의미장-의미망	22

	어휘군(語彙群)[6]의 의미 (서지학적(書誌學的) 어휘 분석[7])	21(8)
	신어(新語)	12
	지역어(지명 어휘)[8]	11
	의미 관계	9
	의성·의태어	6
	의미 변화	6
	단어 의미[9]	2
문장 의미 (50편)	문법· 구문[10] 의미	40
	관용 표현	8
	의미역	2
발화 의미 (65편)	담화 분석(대화 분석, 화법, 의사소통)[11]	51
	함축·화행·직시	9
인지 의미 (27편)	은유(수사)표현[12]	21
	기타 인지 의미	6
텍스트 의미		20
의미 교육		8
복합적 연구[13]		15
북한 의미 연구 소개		1
합 계		295

6) 어휘군이란 의미장으로 묶을 수 없는 '외래어나 준말, 수업용 어휘' 등 의미상의 분류가 애매한 것들을 모두 묶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어원이나 신조어 등은 관련된 연구가 많아 따로 독립해서 분류하였다.

7) 서지학적 어휘분석이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왜어유해(倭語類解)'처럼 특정 도서(圖書)를 대상으로 어휘적 특성을 연구한 결과물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8)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방언이나 지명어, 농기구 명칭, 간판어 등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9) 이것은 한 단어나 관련된 두세 단어의 의미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물을 지칭한다.

10) 구문 의미는 '의미호응, 특정 문장유형에 따른 의미특성, 중의문'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11) 담화란 통상적으로 '일정한 의미적 결속성을 갖는 언어 표현들의 집합체'로 규정되고 있으나 아직 문장을 넘어서는 언어 단위에 대한 용어의

일반 논문의 연구 성과로는 역시 어휘의미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담화 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화용론 분야의 연구 결과도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에 비해서 문장 의미에 대한 연구는 은유 표현이나 문법 의미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연구 성과물이 없는 편이다. 문장을 하나의 단위로 개념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연구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휘 분야에서 어원론의 연구 성과가 예년에 비해 많은 것은 국립국어원의 '새국어생활', 한글학회의 '한글새소식'에서 개별 단어들의 어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신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하는 '쉼표, 마침표'에서 지속적으로 어휘 자료들을 정리 분석하고 있어서 결과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어휘 연구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연구방법론에서 상당 부분 말뭉치(코퍼스)를 통한 연구(10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휘 연구에서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연구가

구분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담화분석, 텍스트 분석, 대화 분석은 모두 문장 이상의 언어 단위를 연구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되, 담화는 '언어 그 자체와 언어가 사용되는 시공간, 사회 문화적 배경, 사용자들 간의 상화관계 등을 포함하는 구어적 발화'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텍스트는 '담화의 문어적 개념'으로, 대화 분석은 '발화자간 상호 교류의 직접적 발화물'을 분석하여 대화 구조를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화법은 효율적 듣기·말하기에 관련된 연구로 한정하고, 의사소통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용하는 언어적 소통을 포함하여, 소통 행위가 소통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를 고려하는 분석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구분을 위한 임의적인 구분일 뿐 학술적 근거에 의한 구분이 아님을 밝혀 둔다.

12) 은유 연구가 모두 인지언어학적 방법론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은유 연구를 개관할 필요가 있어 은유 연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지언어학 분야로 분류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3) 한 가지 주제로 분류하기 어려운 것들을 복합적 연구로 모아 정리하였다.

수행되게 된 것은 국립국어원의 세종계획 연구 결과물이 널리 공유된 결과일 것이다.

문장 의미에서는 문법소의 의미나 문법 규칙이 갖는 의미 등에 대한 연구 성과가 많은데, 이것은 문법 연구가 결국 의미 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구문 의미에서는 중의성에 관한 연구가 3편 있을 뿐 나머지는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나와 문장 의미 부분에 아직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보여 주고 있다.

발화 의미 분야는 화용론의 전통적인 연구 분야인 '화행, 함축, 직시' 등에 대한 연구는 줄어든 대신 담화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대중 매체에 나타나는 담화 상황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이 11편이나 되는 것으로 보아 언어 연구가 점차 문어(文語)·이론 중심에서 구어(口語)· 실용 중심으로 옮겨 가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인지의미론 분야에서는 은유(수사) 표현에 대한 연구 성과가 많은 편인데, 한국어의미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어의미학 20호(2006. 6.)'가 '은유'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인지 의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갖게 되는 은유(수사) 표현에 논의가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의미를 다룬 논문이 13편, 국어교육 분야에서 의미를 다룬 논문(순수 의미 교육적 관점의 논문 8편 포함)이 14편에 이르러 의미 학습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와 외국어를 대조하는 논문이 10편이나 나온 것이다. 이것은 전부 한국어를 연구하는 외국인들의 연구 성과인데, 대부분의 연구가 단순 대조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 외국인 연구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언어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2〉 학위 논문의 의미 단위별 연구 성과 분류

대분류	소분류	논문 편수	박사학위 논문 분포
어휘 의미 (51편)	어휘군의 의미·(서지학적 어휘 분석)	16(2)	
	지역어(지명어휘)	15	
	의미장-의미망	10	2
	신어	3	
	단어 의미	3	
	의미 관계	3	
	의성·의태어	1	
문장 의미 (22편)	관용 표현	11	2
	문법·구문 의미	11	1
발화 의미 (40편)	담화 분석 (대화 분석, 화법, 의사소통)	23	5
	함축·화행·직시	6	
인지 의미 (5편)	은유(수사) 표현(3) 포함	5	
텍스트 의미		11	
합 계		118	

의미론 관련 학위 논문을 구분해 보면 박사 학위 논문이 10편, (일반)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이 45편,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이 63편이다. 이 중 담화 분석에 대한 연구가 28편으로 가장 많았고, 박사학위 논문의 영역별 분포에서도 담화 분석에 관련된 것이 10편 중 5편이나 되어 이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대중 매체에 나타난 언어의 의미 분석을 시도한 논문도 9편이나 되어 역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도 이 분야의 언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체 언어 분석 방법론[14]에 대해서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14) 최근 들어 학제 간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신문방송학이나 인간 의사소통학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참조하여 연구 방법론을 개발하는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교육대학원 논문이 많다보니 의미(화법) 교육에 관한 논문이 23편이나 되었고, 한국어 교육 관련 논문이 12편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에 한국어 교육 분야를 연구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다 보니 역시 언어 대조 연구에 관련된 논문들이 21편이나 나온 것은 간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위 논문에서도 전반적으로 공통기반 없는 대조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제 의미 연구에서 대조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특히 관용 표현에 관한 연구 11편 중 7편이 대조 연구 논문인데, 이 연구들이 대체로 언어나 문화적 공통요소 기반 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서 외국인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 분야의 개척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나타났다.

〈표3〉 단행본의 의미 단위별 연구 성과 분류

대분류	소분류	
어휘 의미	의미장-의미망	6
	지역어(지명어휘)	4
	어휘군의 의미	3
	어원론	1
	의미 관계	1
	신조어	1
	어휘 대조	1
문장 의미	구문 의미	2
	의미역	1
발화 의미	담화 분석(화법, 의사소통)	4
인지 의미		1
텍스트 의미		1
의미(화법) 교육		1
외국 의미론 소개		2
합 계		29

방향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일반 논문이나 학위 논문의 성과에 비해 어휘론·의미론 관련 단행본의 출간은 저조한 편이었다. 김응모의 『한국어 농업어휘 낱말밭 1권~5권』,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질문지 1권~4권』, 총 9권을 빼고 나면 겨우 20권뿐이다. 의미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집약해서 보여 주는 단행본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음에도 현재 학계에서 지나치게 논문 위주의 연구만 강조하다보니 연구자들이 정작 종합적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저서를 집필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단행본에서도 역시 담화 분석에 대한 연구 성과가 단연 두드러지며, 연변에서 발간된 의미 연구 개론서가 출간되어 관심을 끈다.

2. 개별 연구 성과 검토

2.1. 어휘 의미론

2.1.1. 어휘군(語彙群)-서지학적(書誌學的) 어휘 의미

이 분야에서는 범주가 한정된 일련의 어휘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다루고 있다. 의미장처럼 관련되는 어휘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일정한 범주 안에서 그 범주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어휘를 연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로 한 책에 담긴 어휘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라든지, 특정 형태소와 관련된 어휘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서지학적 관점에서 그 책에 있는 어휘를 연구한 것으로는 '『언해납약증치방(諺解臘藥症治方)의 희귀어휘 연구』'(장영길)와 '용비어천가 주해 속의 우리말 어휘에 대하여'(조규태), '유해류 역학서의 "인품"(人品)부 어휘의 고찰', '유해류 역학서의 "궁실"(宮室)부 어휘의 고찰'(박찬식), '훈몽자회 「질병」부 자훈의 고찰 -"내과"를 중심으로'(최홍열) 등이 있다. 이 중 '『언해납약증치방(諺解臘藥症治

方)의 희귀어휘 연구』'는 현재까지 간행된 사전에 올라있지 않은 17세기 희귀어 40여 개를 발굴하여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훈몽자회 「질병」부 자훈의 고찰 -"내과"를 중심으로'는 훈몽자회의 분류 중 '질병' 부분에 해당하는 자훈을 '신증유합', '천자문', '왜어유해', '전운옥편', '자류주석', '아학편' 등에 등장하는 자훈과 비교하며, 형태적·의미적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한자 훈에 고유어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기도 하거니와 한자 훈이 고정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자훈의 의미 변화 연구는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형태소 관련 연구로는 '"앚" 계열 어휘의 형성(形成)과 의미(意味)'(조항범)와 국어국문학회 특집으로 기획한 '국어국문학과 지역의 문제' 중 '한국 근대 초기의 洋 관련 서구 문명 어휘에 대하여'(신중진)가 있다. '"앚" 계열 어휘의 형성(形成)과 의미(意味)'에서는 '앚'이 '간접성(間接性), 부차성(副次性)'의 의미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현대국어의 '아줌마', '-아지'등과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문법 범주와 관련된 연구로는 '국어 대우법의 종합적 검토: 국어 대우법의 어휘론적 이해'(조남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우법과 관련된 어휘를 '대우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대우법이 지금까지 통사론의 범주에서만 다루어져 오던 것과 달리 순전히 어휘론적 측면에서 그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복잡한 대우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였다.

이 분야에 해당하는 학위 논문(석사)으로는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어휘 연구'(송신지)를 눈여겨 볼만하다. 자토석독구결(字吐釋讀口訣) 자료에서 훈독표기가 된 어휘들을 고찰하였는데, 당시 어휘들을 읽은 방식을 재구하기 위해 후기중세국어 자료에서 어휘가 사용된 양상을 함께 제시해 독법을 재구하고, 32자(字)에 대한 독법을 제시

하였다. 또한 '우리말 접사의 의미론적 고찰 -단어 구조와 관련하여-'(황화상)에서는 접사의 의미가 단어의 구조를 결정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명사 파생 접사가 단순히 한 개의 의미만을 가진 경우는 [N+V+N]의 형태를 가진 파생 명사를 형성하고, '--하는 X'의 뜻을 가진 접사는 [N+N]의 형태를 지닌 파생 명사를 형성한다고 분석하였다. 한국어 단어 형성 원리를 한 가지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단행본으로는 한국어 어휘와 일본어 어휘를 대조 분석한 '韓日共通語彙硏究'(金公七)가 있다. 직관에 의존하지 않고 저자 나름대로 어휘 대응의 규칙성을 찾았는데, 중세 한국어의 어두자음군화의 특수한 발달에 의해 한·일어 간 어형의 괴리가 생긴 기제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만엽집의 枕詞를 새롭게 해독하고 거기에 담겨 있는 한일 공통 어휘를 찾아냈으며, 뿌리 깊은 고대 한·일 지명어휘의 대응 예도 제시하고 있다.

2.1.2. 어원론

어원에 관한 연구는 의미론의 끊임없는 관심사이지만 중세 국어 이전 언어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원을 밝히는 것은 단어의 의미에 생명을 불어 넣는 것과 같은 작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어원을 밝히는 작업은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소식지인 '쉼표, 마침표.' 중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홍윤표) 부분에서 연재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논의된 것만 해도 '가물치와 붕어의 어원'을 비롯하여 15개의 단어에 이른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하는 '새국어생활'에서도 '잘못 알고 있는 어원 몇 가지'(조항범)를 3회[15]에 걸쳐 연재하였다. 또한 한글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글새소식'

15) 분석 대상 기간만 3회라는 의미이며,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주제이다.

에서도 어원 해제 부분이 있어 꾸준히 개별 단어에 대한 해제가 진행되고 있다.

어원을 밝힐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정밀한 논의가 어려워서인지 논문지에 실린 논문은 많지 않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앟-[小]” 계열 어휘의 어원(語源)과 의미’(조항범), ‘한국어 수사의 어원과 어형 변화에 대하여’(조규태)는 면밀한 문헌 조사를 통해 어원을 추적해 가는 과정을 보여 주었다. ‘“앟-[小]” 계열 어휘의 어원(語源)과 의미’에서는 이미 사라진 형용사 ‘앟-’의 잔존 형태 ‘아츰’, ‘아촌설’을 통해 이것이 ‘작은(小)’이라는 의미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어원 연구 관련 단행본으로는 ‘어원산책’(최창렬)이 있다. 그 동안의 어원 연구 결과물을 모아 ‘착각 속에 맴도는 말들, 푸짐한 음식, 수를 헤아리는 말의 어원, 인관과 자연’이라는 주제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2.1.3. 신어(新語)

신어에 관한 논의는 역시 국립국어원에서 주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하는 ‘새국어생활’, 온라인 소식지 ‘쉼표, 마침표.’, 그리고 매년 정리해 내고 있는 신어목록뿐만 아니라 신어 생성 규칙, 신어와 관련된 문화적 현상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최근 신어의 조어적 특성’(노명희), ‘20세기 초기의 신어’(송민), ‘인터넷상의 신어’(김한샘)을 참조하면 신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그 한계선을 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립국어원의 노력과 성과에 반해 이와 관련된 연구논문집이 별로 없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학위 논문으로는 ‘현대 국어의 새말 형성에 관한 연구’(이리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휘적인 측면에서의 새말 생성에 대해서 다루

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장 단위에서도 새말의 특성을 다루고 있는데, ‘“10계명”류 문장’, ‘어록류 문장’의 특성과 의미를 다루고 있다. 앞으로 어휘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장 단위에서도 새로운 구조나 유형이 등장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2.1.4. 지역어(지명 어휘)

지역 방언이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는 지역어는 고어의 잔존 형태를 보여주고 사회적 특성을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의미론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全北 鎭安地方의 風水地名 硏究(1)’(김병균)은 풍수지리에 근거한 지명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지명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앞으로의 성과가 주목되는 연구이다. ‘땅이름 “덤”의 분포와 의미’(박용식)에서는 경상도에서 지명의 뒤형태로 많이 나타나는 ‘덤’의 의미를 ‘벼랑 또는 큰 바위’로 해석하여 소개하였으며, ‘지명소 고마의 의미와 분포’(정호완)는 단군으로부터 이어지는 곰(熊) 신앙이 지명에 어떻게 정착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地名의 同義 重複 현상에 대하여(조항범)’에서는 주로 외래적인 요소로 인해서 생겨나는 단어의 동의중복 현상이 지명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지명에서는 한자어+고유어 동의중복 뿐만 아니라 ‘들+벌’, ‘티+고개’처럼 고유어간에도 동의중복이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학위 논문에서는 지역어에 대한 연구 결과물이 많은데, 그 이유는 각 지역 대학에서 해당 지역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1.5. 의미장-의미망

의미장이나 의미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것은 전통적인 관점의 의미장 연구 부분보다는 대부분 컴퓨터 자연어 처리를 위한 어휘망(의미망) 구성에 관한 연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의미장 연구로는 '후기 중세국어 색채어의 어휘적 특징과 의미'(이선영), '감정동사의 분류와 특성분석'(이원경)이 있는데, '후기 중세국어 색채어의 어휘적 특징과 의미'에서는 당시에 형용사 색채어 뿐만 아니라 '푸를다, 누를다'와 같은 동사 색채어도 존재했었다는 것과 'ᄑᆞ라ᄇᆞᆯ가ᄒᆞ다'처럼 혼합색을 표현할 때 앞에 오는 성분이 덧나는 색을 나타내고, 뒤에 오는 성분이 주(主)색을 나타낸다는 것을 밝혀 냈다.

어휘망(의미망)에 관한 일반 논문으로는 '다국어 어휘의미망에 한국어 관용표현을 연결하는 방법'(이동혁, 오장근), '대규모 우리말 어휘지능망 구축 방법'(최호섭, 임지희, 옥철영, 김정우), '자연언어처리를 위한 구문, 의미 정보 구축 -날씨어휘장의 {비}를 대상으로-'(박건숙) 등이 있다. '자연언어처리를 위한 구문, 의미 정보 구축 -날씨어휘장의 {비}를 대상으로-'는 결합적 장이론을 활용하여 문장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자연어 처리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명사와 동사의 결합관계만을 다루어 구조화했는데, 앞으로 문장의 다른 성분까지 확대한다면 자연어 처리에 유용한 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분야에 해당하는 2편의 박사 학위 논문이 나왔다. 하나는 '현대국어 〈음식물〉 명칭의 분절구조 연구: 〈식사 음식〉을 중심으로'(정태경)인데, 이는 고려대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는 '의미 분절 구조' 연구의 결과물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어 동사 의미망 구축 연구'(이숙의)이다. 자연어 처리를 위한 동사 의미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동사 분류와 코어넷의 의미 분류를 검토하여 한국어 동사 의미망 구축을 위한 의미 분류를 제시하였다. 동사를

능동과 피동으로 구분하고, 이를 '활동'과 '현상'에 대입하여 분류를 시도하였는데, 이와 더불어 주어의 의지가 동사에 반영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의지성'과 '무의지성'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해 본다.

단행본으로는 '우리말 신체어 형성'(이경자)이 있는데, 이는 1999년에 출간한 '우리말 신체어 형성'을 근간으로 하여 그 이후에 연구된 신체어(몸, 목, 무릎, 볼, 허튀(장단지), 突出 개념 낱말 '솟-' '돋-') 부문 내용을 모아서 재정리한 것이다.

2.1.6. 의미 관계

어휘의미론의 가장 중심적인 연구 분야였던 의미 관계에 관한 일반 논문은 많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 부문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특별히 더 논의할 논제를 발굴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도 '국어 한자어와 고유어의 동의중복 현상'(노명희)과 '국어 반의어의 존재 양상- "무-" 접두어를 중심으로-'(손남익)의 연구는 의미 관계 연구의 깊이를 더해 주고 있다. '국어 한자어와 고유어의 동의중복 현상'은 한자어와 고유어 간의 동의중복 현상이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잉여적이라는 기존의 해석과 달리 이를 해당 한자어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변화해서 생기는 언어 현상으로 파악하고 한자어와 고유어의 중복형이 형태적 구성을 보이는 경우와 중복되는 고유어가 독립된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 통사적 구성을 보이는 경우로 나눠 고찰하고 있다. '한자어+고유어' 구조와 '고유어+한자어' 구조가 의미 관계상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밝혀 동의 중복이 일정한 규칙 하에 생성되는 것임을 보여 주었다. '국어 반의어의 존재 양상 -"무-" 접두어를 중심으로-'에서는 국어에서 반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어휘 중 소위 '무(無)-'가 붙은 반의어에 대해서 분석하였는데, 국어에서 대

부분의 어휘 중 '무(無)'는 '유(有)'와 대립하면서 반의 구조를 이루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무+X'형 단어와 대립 관계를 형성하는 단어의 유형도 '유+X형', 'X형', '대립 없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대립어를 화용적 관점에서 접근한 '광고 문구에 나타난 "화용적 대립어" 연구'(강연임)도 눈길을 끈다. 이 논문에서는 고정적 대립 관계를 형성하는 어휘적 의미의 대립어와는 달리 발화 맥락에 따라 형성되는 대립어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광고라는 제한된 담화 범주 속에서 다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논의된 바 있는 문화적 대립어('칼-붓'과 같은 관계)와 함께 대립어의 유형을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낯과 얼굴의 의미 고찰'(이광호)에서는 '낯과 얼굴' 이 둘의 통시적 관계를 살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달리 중세국어 시기부터 이미 유의 경쟁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얼굴'은 일반적으로 '모습'의 의미로만 알려졌으나, '늧'과 교체가 가능한 '顔'의 의미로도 쓰이는 용례를 제시하여 의미 관계를 새로이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학위 논문의 경우는 의미 관계를 다룬 논문이 3편이 있는데, 모두 국어 교육적 관점에서 다의어 교육이나 유의어 교육에 관한 것들이다. 단행본인 '16세기 국어의 동의어 연구'(남성우)는 16세기 국어의 동의어를 크게 두 부분, 1510년대 국어의 동의어와 1580년대 국어의 동의어로 나누고, 각각의 시기별로 고유어간의 동의,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동의, 한자어간의 동의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2.1.7. 의성·의태어

'의성어·의태어'를 음성 상징어와 혼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음성 상징어는 특정 인

상을 상징적(자의적)인 음성으로 나타내어, 듣는 이에게 그 뜻을 짐작하도록 하는 어휘를 가리키는 용어이고, 의성어·의태어는 사물의 소리나 사람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내는 말이다. 굳이 이 둘의 관계를 설정하자면 음성상징어가 상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도 어느 정도 논의가 정리되어서인지 일반 논문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국어교육이나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이 의성어·의태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중, 근세 국어의 첩어 연구'(하길종)는 중·근세 4음절 첩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인데, 이를 의태첩어, 의성첩어, 의정첩어(그저그저, 다문다문 등)로 구분하여 그 형성과 특성을 살폈다.

2.1.8. 의미 변화

의미 변화 부문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의미 변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어휘의 의미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논의 대상에서는 의미 변화의 원인에 관한 논문은 없고, 어휘의 의미 변화 과정을 추적하거나 변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말뭉치에 기반한 공간 명사의 의미 변화 연구'(김한샘)에서는 문법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추적해 보고, 이것이 범언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한 내용을 여러 시기에 출간한 '노걸대언해'와 현대국어 말뭉치를 비교하면서 관계 공간 명사의 의미 변화를 추적하였다. 말뭉치를 통해서 살펴 본 결과 공간 명사의 의미는 Heine et al(1991)에서 밝힌 대로 '구체적 공간〉 심리적 공간(범위・양)〉 조건, 상황〉 원인〉 시간〉 질'의 방향으로 변화해 갔으며, 의미 영역이 중복을 보이면서 이동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변화의 경우에도 근원적 의미인 '[+공간성]'을 잃지 않은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으로 보아 이 논의를 발전시켜 인지적 접근을 통한

공간 명사의 '원형 의미'를 추출해 보는 것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 의미로부터 추상적 의미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결국 문법화로 진행되어 갈 때 원형적 의미를 설정해 놓으면 그 변화의 방향을 보다 명확히 추적하여 분석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세국어 "짛다"의 의미 및 변화 연구'(이동석)에서는 이미 소멸된 중세국어 단어 "짛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소멸되었는지를 추적하였다. 중세국어 당시 '기르마(안장), 활, 일홈'과 공기하던 '짛다'가 소멸된 이유는 '짛다'의 'ㅎ'이 모음 사이에서 탈락하면서 나타난다. 이 단어는 결국 16세기와 17세기를 거치면서 '짓다'로 재구조화되었지만 이것이 '짓다(만들다)'와 경쟁을 하게 되고, 언중들이 '짛다'에 대한 어원 의식이 희박해 지면서 이 단어를 기피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는 '이름 짓다'에만 그 잔존형이 남아 있을 뿐, 안장이나 활 등은 모두 다른 단어와 공기한다는 흥미로운 사실도 발견하였다. 그것은 원래 '짛다'가 '만들다'와 약간의 유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사실은 단어 의미의 변화나 소멸이 하나의 원인에 기인하지 낳고 매우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2. 문장 의미론

문장 의미에 관한 논문은 사실 문법 연구와 상당 부분 겹쳐 있는 것들이 많다. 의미론 분야가 어휘의미론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문장 의미에 대해서는 주로 문법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의미론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 온 문장 의미의 주제는 '의미 호응(선택 제한), 연어, 관용어, 중의 표현, 모호문, 의미격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의미 구조, 문장 차원의 전제와 함의, 개별 문

법소의 의미, 문장 유형별 의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간의 발화가 문장을 기반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앞으로 한국어 의미론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장 의미 연구에 관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2.1. 문법·구문 의미

문법 의미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문법 형태소' 관련 연구이다. 대표적으로는 '"-음", "-기"의 의미와 제약'(정주리), '교착소의 의미 분석에 대하여'(이홍식), '"-겟-"의 문법화와 확정성'(이병기), '"-도록"의 의미와 문법에 대한 통시적 고찰'(석주연) 등이 있다. '"-음", "-기"의 의미와 제약'에서는 지금까지 '-음', '-기'가 지니고 있다는 의미 자질들이 개별 동사와 구문의 의미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음'과 결합하는 동사들은 [+선행적 사건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와 결합하는 동사들은 [+예측적 사건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결국 '-음', '-기'가 어떤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그것과 결합하는 동사의 상위 의미 속성이 '-음', '-기'를 선택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문법 형태소의 의미 연구가 해당 형태소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보여 주고 있어 연구 결과에서 뿐 아니라 연구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참고할 만한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개별 형태소의 의미에 대한 논의와 관련지어 우연하게도 맥락이 닿아 있는 연구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교착소(조사와 어미를 통칭함) 연구의 원론적 방법론을 설명한 '교착소의 의미 분석에 대하여'는 교착소의 분석에서 해당 교착소의 결합관계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교착소가 다른 문법 단위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정보도 기술되어야 하고, 다른 문법 단위와 결합할 수 없다는 정보도 기술되어야만 보다 정밀한 교착소의 의미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겟-”의 문법화와 확정성’에서는 중세국어에서 결과상(완료상)을 나타내던 ‘-게 ᄒᆞ엿-’ 구성이 어떻게 미래성을 가진 ‘-겟-’으로 문법화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과거나 현재 사태에 관한 기술이 [+확정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미래 사태를 함축하므로 확정성의 의미를 지닌 ‘-엇-, -엿-, -어 잇-’이 포함된 ‘-게 ᄒᆞ엿-’이 ‘예정’의 의미를 갖게 되고, 이것이 ‘-겟-’으로 문법화 되면서 ‘예정 · 의도’의 의미로까지 확장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문법화나 새로운 의미 형성이 결국 아주 작은 의미의 공유로부터 발생한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문법 범주의 의미나 개별 문법 형태소의 의미와는 달리 구문 의미에서는 문장 전체의 의미나 문장 내의 구성 성분들 간의 의미 관계를 다룬 논문으로는 ‘사건의미론 관점에서 본 상징부사의 서술성 해석’(김진해), ‘문장 의미와 사건’(임채훈), ‘사동·피동 동형동사의 논항교체 양상과 의미 해석’(김윤신), ‘“명사+부리다” 연어 구성에서의 의미 전이’(최형강)가 있다. 이 중 ‘사건의미론 관점에서 본 상징부사의 서술성 해석’과 ‘문장 의미와 사건’은 문장 의미 분석에서 사건 의미론적 방법론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구 언어학계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사건 기반 의미론(event-based semantics)이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지 않은 것은 문장을 유의미한 연구 단위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건의미론이 좀 더 다양한 문장 유형을 해석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론으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두 연구자들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사동·피동 동형동사의 논항교체 양상과 의미 해석’에서는 사동과 피동이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동사군을 논항 교체 양상에 따라 네 유형으로 구분하고 재귀적인 논항을 허용하지 않는 ‘안기다’, ‘그슬리다’와 같은 것이 나타나는 문장은 사동·피동이 모두 가능한 중

립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 논문은 문장 의미 해석에서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인 '사동·피동 동형 동사 문장'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 논의가 앞으로 이 과제의 총체적인 분석의 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학위 논문으로는 '국어 명사구 구성 요소의 의미 관계 연구: "N의 N" 구조를 중심으로'(최정혜)가 있는데, 이 논문은 일정한 구조의 명사구를, 명사의 의미 부류(실체류와 양식류)에 따라 일정한 패턴으로 구분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N의 N' 구조의 명사구 의미를 좀 더 큰 틀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것을 하나의 원리로 삼아 다른 명사구에도 활용할 수 있을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2.2.2. 관용 표현

관용 표현은 한국어 의미론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 중 하나이다. 관용 표현 안에 많은 언어적 현상들이 녹아 들어 있어 다양한 방면의 논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도 넓어 많은 연구 과제를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관용 표현에 대해서는 이미 국어학회에서 한 차례(2002년 제29회 공동토론회 주제), 한국어 의미학회에서 한 차례(2003년 제13차 학술대회) 집중 논의를 통해 대략의 연구 성과가 정리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외국인 한국어 전공자들에 의해 주로 관용 표현의 대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 논문으로는 관용 표현의 출현시기와 그 기원에 관해 살펴 볼 수 있는 '開化期를 前後한 시기에 생성된 관용 표현'(조항범)이 있고, 박사 학위 논문으로는 인지언어학적 연구 방법론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용표현을 비교한 '중·한 관용 표현의 대조 연구'(김혜원)가 있으며, 석사 학위 논문으로는 '우리말 관용표현의 관용성

척도 설정 연구'(하진희), '한국과 영 · 미 문화권 동물 속담의 문화 언어학적 비교'(John Mar D. Minguillan)가 있다. '한국과 영 · 미 문화권 동물 속담의 문화 언어학적 비교'에서는 한국 속담 195개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영어 속담을 비교하여 '동형 동의 속담'(문화적 배경 같고 표현형식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속담), 동형 이의 속담(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르지만 표현 형식은 같거나 서로 유사한 속담), 이형 동의 속담(같은 문화적 배경을 지니지만 형식은 서로 다른 속담), 이형 이의 속담(한국에서는 사용하지만 영 · 미 문화권에서는 대응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한국어 속담과 영어 속담의 대조적 분석을 통해 문화적 보편성을 탐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이다. 앞으로 이런 연구를 계속 발전시켜 속담에 나타난 문화적 보편성과 고유성 비율의 정상성을 밝혀내기를 기대해 본다.

이 밖에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 '연어' 문제를 통시적 변화의 입장에서 논의한 '연어 구성 변화에 대한 국어정보학적 연구 -신소설 자료를 중심으로-'(황용주)가 있다. 신소설에 나타난 연어적 구성을 빈도 중심으로 통계 처리하여 연어 관계의 의미 구성도 인지적·문화적 영향에 의해 변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연어와 관용 표현의 차이점을 밝혀 준 좋은 연구 결과라고 본다.

2.3. 발화 의미

발화 의미에 대한 연구는 매년 논문의 수가 늘어 가고 있다. 이것은 어휘의미론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고, 문장 의미론은 문법적 논의와 맞물려 있어 논의가 쉽지 않지만 발화 의미는 아직 연구 성과가 일천하여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

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발화 의미 연구가 지닌 직접적 효용성으로 인해 앞으로도 이 부문에 대한 연구는 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어 중심의 연구가 보다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역시 정밀한 연구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발화 의미에 대한 연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용어의 구분과 범주 설정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3.1. 담화 분석(대화분석, 화법, 의사소통)

담화 분석은 먼저 문장 이상의 언어 단위를 분석 대상으로 하며, 구어적 속성을 가진 발화의 의미와 속성을 구명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 담화 연구에 대한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논저자의 용어를 최대한 반영하여 논의의 영역을 구분해 보고자 한다.

가. 담화 구성 요소의 의미 분석

담화 구성 요소의 의미 분석에 관한 연구는 다시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담화 표지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담화 전체에 나타나는 언어적 현상에 관한 분석이다. 담화 표지에 관한 연구로는 '국어 담화의 연결 표지- 완형 표현의 반복'(이기갑), '국어 의문사 "무슨"의 담화표지 기능'(김명희), '의지 표현들의 의지 정도성 비교- "-겠어요", "-(으)ㄹ거예요", "-(으)ㄹ래요", "-(으)ㄹ게요"를 중심으로'(박숙영)이 있다.

'국어 담화의 연결 표지 -완형 표현의 반복'에서는, 선행 문장의 서술어를 포함한 구나 절을 그대로 되풀이하되, 여기에 특정 연결어미를 결합시킨 형식을 '완형 표현'의 반복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유형이 '그러하-'형의 대용 표현에 의한 연결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방식의 연결은 담화에서 결속

성 유지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담화 전체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에 관하여 연구한 것으로는 '의사-환자 대화의 제도적 특징과 유형학'(박용익)이 있다. '의사-환자 대화의 제도적 특징과 유형학'에서는 의사와 환자간의 대화를 대화 유형학적으로 분류하였는데, 현재 대부분의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유형별로 나누고 분석하여 대화상의 문제점을 찾아 내었다. 앞으로 의료 기관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의료 선진화를 한층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다.

박사 학위 논문으로는 '국어 담화상의 중의 현상 연구'(이유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담화상에서 중의는 청자들의 이해를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의사소통 흐름에 합치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화자들은 이를 책략적으로 활용하는 면이 강하게 나타났고, 청자들은 문화적 스키마에 바탕을 둔 추론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청자가 중의 표현을 접했을 때, 이에 대한 처리를 판단, 판단 보류, 수용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따라 소통이 전개되는 양상을 분석한 것은 앞으로 중의 연구의 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석사 학위 논문으로는 'TV 뉴스의 담화분석: 의도성을 중심으로'(문규원)가 있는데, 이 논문은 담화 연구에서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인 '의도성'을 전자 메일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전자 메일 속에 나타나는 호칭의 사용 양상, 본문 텍스트의 구성 방식에 따라 의도성을 파악하고 있다. 담화 내에서 화자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담화 연구의 최종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가 발전되어 담화의 의도성 양상에 관한 원리를 찾아내기를 기대해 본다.

나. 의사소통적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의사소통적 연구 방법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

용하는 언어적 소통을 포함하여, 소통 행위가 소통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를 고려하는 분석으로 규정하였다. 최근 언어학의 외연이 확대되면서 대화분석이 단순히 언어적 소통 문제만을 다루지 않고 언어적 소통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함께 고려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연구 방법이라고 본다. 소통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언어가 단순히 음성이나 문자의 해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모든 사회 현상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사소통적 연구 방법은 발화의미 해석의 타당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장(場)의 유형에 따른 연구로는 '한국 가족의 의사소통 문제와 개선 방안'(이창덕)이 있고, 의사소통 참여자의 특성에 따른 분석으로는 '언어 사용자의 성별과 발화 특성'(전혜영)과 박사 학위 논문인 '한·일 양언어의 젠더표현의 대조연구'(이혜영)가 있으며, 의사소통의 기능 중 하나인 친교적 의사소통에 대해 다룬 '"패틱 커뮤니온"의 전통적 개념규정과 그 소통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박성철)도 주목해야 할 연구들이다. 특히 '"패틱 커뮤니온"의 전통적 개념규정과 그 소통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는 인간의 의사소통이 단지 정보의 교환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와 하나의 관계망 속에 결속하기 위한 행위라고 본다면 모든 의사소통을 '패틱(친교성)'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는 없는가 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 제안을 고려하여 앞으로 친교적 의사소통이 지니는 함의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한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 편이다. '이동 전화를 통한 대화와 메시지 연구'(전은진)는 박사 학위 논문으로 이동전화를 통한 의사소통 전반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대 사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원격 의사소통, 그 중에서도 대인의 사소통으로서의 이동 전화 의사소통의 특수성을 각각 음성 소통과

문자 소통, 멀티미디어 소통으로 나누어 분석해 냈다.

또한 전체 의사소통의 60~70%를 차지한다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도 활발한데,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한국어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석사 논문 '한국어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 교육 연구'(譚麗麗)가 있다.

다. 함축·화행·직시

이 분야는 전통적인 화용론 분야의 핵심인데 반해 한국어 화용론의 역사가 짧아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과제가 많다. 이를테면 함축에 관해서도 그라이스의 이론을 답습하고만 있어 우리 이론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화용론이 발화 의미 분석에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함축에 관한 연구로는 '함축구문 형성규칙에 대한 연구 -주제구문에 의하여-'(박철주)가 있고, 화행에 관한 논의로는 '일상 대화에 나타난 진술의 평균 확장 발화 수'(김정선·장경희), '거절 화행의 실현 양상'(전정미)이 있다. 함축과 화행에 관한 연구에 비해 지시와 대용에 대한 연구가 많은 편인데, '비지시 대용어의 대용성'(양명희), '지시 해석을 위한 "그것"의 쓰임에 관한 연구'(조은경·서상규·서정연), '지시 해석을 위한 "것"의 식별과 쓰임에 관한 연구'(조은경·이민행), '"이", "그", "저(더)"의 의미 기능 변화'(박근영) 등이 두드러진다.

특히 '비지시 대용어의 대용성'에서는 지시사가 없는 대용어를 비지시 대용어로 규정하고, 명사를 대용하는 비지시 대용어로 사물을 대신하는 의존명사 '것'과 사람을 대신하는 의존명사 '이 분', 그리고 장소와 때를 나타내는 명사 '곳, 때' 등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3인칭 대명사를 구성하는 후행 성분으로 사용되는데, 그 이유가 이들 비지

시 대용어가 갖고 있는 대용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담화의 결속성 판단에서 지시와 대용의 범위가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면 이러한 비지시 대용 분석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지시 해석을 위한 "그것"의 쓰임에 관한 연구'와 연속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시 해석을 위한 "것"의 식별과 쓰임에 관한 연구'는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여 '그것'의 쓰임을 비지시 강조, 인접 지시, 비인접 지시 세 가지로 분류하고, '그것'이 가리키는 선행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문장 성분의 현저성, 개별 술어의 의미적 제약과 연여 정보 등도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지시적 '것'과 보문자 기능을 하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을 보여 주고 있다. 여전히 논란이 많은 '것'에 대한 논의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연구이다.

단행본으로는 '의사소통 속의 대응 발화'(김미령)가 있는데, 의사소통에서 참가자들 간에 나타나는 대응 발화를 '화행' 관점에서 대응 발화의 특성, 유형, 화행 조건 등 총체적으로 정리하였다.

2.4 텍스트 의미

텍스트 연구의 범위는 문어적인 성격의 담화체로 한정하였으나 연구 대상이 구어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구어의 텍스트에 있다면 텍스트 의미로 분류하여 다루었다. 국어학에서 텍스트 연구는 전적으로 보그랑드와 드렉슬러(1981)가 제시한 7가지 텍스트 요건에 기초하고 있다. 텍스트 연구에 대한 논의가 진전하기 위해서는 이 일곱 가지 텍스트성에 대한 검증과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러한 반성이 없이 모든 텍스트 분석에서 이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텍스트 의미 분석은 텍스트가 형성되는 매체의 특성을 텍스트 연

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밝히는 연구가 많다. 특히 대중 매체의 발달로 각 미디어 매체의 특성을 텍스트적 방법론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나타났다. 두드러진 연구로는 '텔레비전 뉴스 기사의 특징과 텍스트성 -메인 뉴스를 대상으로-'(양명희), '텔레비전 뉴스꼭지의 연결구조'(박영준·이동혁), '미디어 텍스트의 상호텍스트적 특성 연구'(이성만), '광고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전략 -국순당 광고의 기호학적 분석-(백승국)' 등이 있다. 이 중 '텔레비전 뉴스꼭지의 연결구조'는 텔레비전 뉴스가 온전한 텍스트성을 갖춘 텍스트라고 전제하고, 뉴스 꼭지와 꼭지 사이에는 의미적 연결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꼭지들이 응집성과 응결성에 의해 연결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기능적 분류에 따른 텍스트의 특성을 밝히려는 연구로는 '유머 텍스트의 응결성과 응집성'(한성일), '정치 연설 텍스트에 나타난 민족공동체 담론 분석 -국가사회주의를 중심으로'(김종영), '論證텍스트의 段落間 의미구조'(申智姸), '설득 화법 교육을 위한 텍스트 연결 표현의 의미기능 연구'(박재현) 등이 있다.

'설득 화법 교육을 위한 텍스트 연결 표현의 의미기능 연구'에서는 화법 교육의 관점에서 구어 텍스트의 연결 표현을 관찰하였는데, 모어 화자의 화법 지도에서는 단락 간의 논리적 연결에 필요한 거시 구조 접속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구어 의사소통의 텍스트 연결에서는 텍스트 내부적 결속뿐 아니라 텍스트와 청자의 심리적 결속이 의사소통 효과를 높이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도 적시하고 있다.

2.5. 인지 의미론

분석 대상 연도인 2006년 인지 의미론의 성과는 단연 '은유의 종합적 고찰'에 있다. 제18차 한국어 의미학회 전국 학술대회(2006년 2월24일)의 공동 주제로 '은유 연구의 회고와 전망'을 정하고, 그 동

안의 은유 연구 성과와 향후 연구 과제들을 점검하였다. 광범위한 관점에서 '은유'는 인간의 의식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와 관련되는데, 그 결과 의미의 적용과 확대와 같은 변화를 이끌어 가는 가장 강력한 동인(動因)으로 인식되고 있다. 은유에 관련된 논문으로는 '은유연구의 성과와 방법론'(박영순), '개념적 은유에 대하여'(임지룡), '같은꼴 매인풀이씨의 은유적 의미 확장'(김문기), "정"과 "한"의 은유적 개념화'(나익주), '영어와 한국어에서의 "화"와 "행복" 은유'(송부선), '설득의 수단으로서의 은유'(신선경), '시선의 은유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연구'(吉本一), '한국어 은유의 근원 영역 특징'(이유미), '신체적 경험에 의한 '마음'의 개념화 양상'(이종열), '바둑 용어의 은유'(채완), '코퍼스를 이용한 은유 표현의 추출과 어휘데이터 베이스의 확장 연구'(최운호, 강범모, 차재윤), '은유 이해 능력의 습득과 발달 양상'(이종열·배기조), '유아용 동화책에 나타난 은유표현의 특성 연구'(이종열), '은유표현의 해석과 유추 -심리과정을 중심으로-'(채현식), 은유의 관점에서 별명의 생성 과정을 다룬 '이름의 유사성으로 생성된 별명에 관한 연구'(정종수) 등이 있는데 의미론에서 단일 분야 연구로는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국어학계에서 인지의미론을 개척해 온 임지룡의 뒤를 이어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는 이종열은 이 시기에 '은유'에 관한 세 편의 '의미 있는'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끈다. '신체적 경험에 의한 '마음'의 개념화 양상'에서는 '마음'의 개념을 신체적·감각적 경험과 물리적·공간적 경험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이미지 도식→기본 은유→ 환유 양상'으로 이어지는 은유·환유 상호작용 확장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간이 유아기부터 어떻게 은유를 습득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은유 이해 능력의 습득과 발달 양상', '유아용 동화책에 나타난 은유표현의 특성 연구'를 발표하였다.

은유는 환유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은유와 환유의 상호 작용성 연구'(이수련), '은유와 환유의 인지언어학적 관련성 연구'(이수련), '환유 표현의 의미 특성'(임지룡)과 같은 연구가 있다. '은유와 환유의 인지언어학적 관련성 연구'에서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인지 작용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환유와 은유가 하나의 표현 속에서 공존하는 상호 작용의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시기의 연구에서 주로 감정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임지룡은 '감정의 인지작용 양상'이라는 논문과 단행본 '말하는 몸: 감정 표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을 통해 인지언어학의 체험주의와 민간모형의 관점에 기초하여 이제까지 우리 학계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화, 두려움, 미움, 사랑, 슬픔, 기쁨, 부끄러움, 긴장'의 주요 감정을 대상으로 '감정의 개념화 양상과 그 작용 양상'을 구명하였다. 인간이 지닌 추상적인 감정은 우리 몸의 신체 생리적 반응과 일상의 구체적 경험에 기초한 은유의 방식에 의해 개념화 되며, 그 작용방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문화적 토대 위에서 우리말과 유기적으로 상관성을 맺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박사 학위 논문으로는 '시간표현의 인지언어학적 연구'(吉本一)가 있는데, 시간과 관련된 인지적 양상을 각각 '시간의 공간화·사물화', '시간의 이동화', '시간의 자원화', '시간의 신체화'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6. 기타

이 밖에 많은 연구 성과물들이 집적되지 않아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없거나 연구 결과물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관심을 가져야 할 개별적인 연구들이 많다. 우선 한국어의미학회 제19차 전국학

술발표대회(2006년 8월)에서 논의한 '의미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눈길을 끈다. '전통 및 구조 언어학에서 본 의미의 본질'(최호철), '인지·화용적 관점에서의 의미의 본질과 유형'(이찬규),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의미의 본질'(임지룡), '문장 의미와 사건: 문장 의미는 무엇으로 환원되는가'(임채훈), '코퍼스 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의미의 본질'(김진해)에서는 각 의미 단위별로 의미의 본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비록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 제기되지는 못했지만 '의미'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해 보려는 이 시도는 의미론 연구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의미 연구사를 소개한 논문도 발표되었다. 한국어라는 동일한 대상을 연구하면서도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갖지 못해 체계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었던 북한의 의미 연구 동향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본 '북한의 국어 의미 연구 60년'(최호철)은 1945년부터 지금까지 60년 동안을 4기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최근에는 북한이 서구의 의미이론을 수입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학문의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여서 앞으로 북한의 의미 연구자들과 교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해 주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연변 조선족 학자들의 의미 연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조선어의미론 연구』(유은종)도 출간되었다.

의미 연구 도입 단계에서 늘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대상 언어를 설명하고 기술하는 언어, 즉 메타 언어의 문제이다. 대상 언어를 설명하는 메타 언어와 관련된 연구로 '한국어의 메타언어적 의미 분석을 위한 소론 -동사 "깨다, 부수다, 쪼개다, 나누다"를 중심으로-'(이정애)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사전의 의미 기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순환정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메타언어의 기술 방식에서 찾고 있다. 이 논문에서도 제기하고 있으며, 그 동안 산발적으로 논의되어 온 의미 그 자체로서의 '메타 언어'가 지닌 제반 문제

에 대하여 의미학계에서 앞으로 집중 조명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맺음말

어휘론·의미론에 관련된 연구 범주는 점차 넓어지고 있다. 많은 분야의 언어 관련 연구들이 의미 분석과 관련이 있고, 언어 활동의 대부분이 '의미의 전달과 이해'라는 측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휘론·의미론의 연구 성과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해야 할지 정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의미론에 관련된 주제의 국어교육이나 한국어 교육 논문을 모두 의미론에서 다루어야 하는지도 문제거니와, 화용론이나 담화·대화 분석이야 의미 해석이 최종 목적이므로 문제가 없지만 발화의 효율적 방식이나 인간 관계를 다루는 화법론이나 의사소통론을 의미론의 범주에서 다루어야 하는지가 고민이다. 광범위하게 논의하자면 결국 의미 교육이나 발화방식 등도 의미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엄격하게 범주를 정하자면 이들은 '의미 파악'이라는 최종 목적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향후에는 '의미 교육'과 '화법·의사소통'에 관련된 범주는 어휘론·의미론과 별도로 다루었으면 한다.

어휘론·의미론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서 느낀 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여전히 우리 이론이 없다는 것이다. 언어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의미가 그나마 보편성을 띠고 있어서 외국 이론의 수용이 다른 연구 부문에 비해서 자유롭기는 하지만 한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의미 연구의 질이 외국 이론의 통달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미시적인 언어 형상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원리나 이론을 이끌어 내는 거시적 연구에도 많은 관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 나오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미의 규정은 결국 객관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기 위해서는 타당한 연구 방법론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특히 문장의미 분석과 발화의미 분석에서 좀 더 강력하고 적용 가능한 연구 방법론이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장의미 연구가 거의 대부분 문법 연구 방법론에 의지하고 있어 광범위한 문장 유형에 적용 가능한 문장 의미 분석 방법론 개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발화의미 분석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수집된 자료를 직관에 따라 분석하는 양적(量的)·직관적 연구에 의존하고 있어 질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도 역시 발화 의미 분석에 적합한 연구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된 동일한 방법론을 통해 다양한 대상을 바라봐야만 대상들 간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 해 동안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는 일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매우 뜻 깊은 작업이기도 하다. 모든 논문과 저술을 다 읽고 각각의 논문이 지닌 가치와 성과를 일일이 제시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특히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찾을 길이 없었던 것들이 있어 아쉬움이 더 컸다. 수많은 논문보다 내 논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논문 한 편이 필요한 때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학계에서는 연구 논문의 보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미처 접하지 못하고, 소개하지 못한 좋은 연구 성과물들이 있을 것이나 이는 전적으로 필자의 아둔함과 게으름으로 인한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국어정보학 · 사전학

남 길 임
(경북대학교)

1. 머리말

이 글은 2006년도에 이루어진 '국어정보학'과 '사전학' 분야의 연구 성과와 동향을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어'가 정보기술(IT) 분야의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이후, 인접 학문 간의 학제적 분야로서 국어정보학, 사전학에 대한 연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에 발맞추어 이번 연감에서는 '국어정보학' 분야를 새로이 추가하고 지금까지의 연감에서 어휘론·의미론·사전편찬학의 일부로 기술되었던 '사전편찬학'을 '사전학'으로 독립시켜 함께 기술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글의 구성 방식에 대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사전이 언어 정보의 구조화된 집합체이며 사전편찬 과정 역시 대량의 언어 자료의 활용과 언어처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사전학은 국어정보학의 한 하위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국어정보학(2장)과 사전학(3장)을 장을 달리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이때 기계가독형 어휘부로서의 전자사전(Machine Readable Dictionary, Machine Readable Lexicon) 관련 주제들은 국어정보학 분야에서, 사전 단행본에 대한 소개나 인쇄사전(Book Dictionary) 및 시디롬·

온라인 전자사전(Machine Readable Dictionary) 관련 연구는 사전학에서 논의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어떤 논저들은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양 분야 모두에서 언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연구 목적과 대상, 연구 의의를 고려하여 한 분야에서만 비중을 두어 소개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간략한 연구 목록만을 언급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둘째, 국어정보학 및 사전학 관련 연구는 다른 국어학 연구 분야와 달리 국어학 외에도 공학, 정보학 등 인접 분야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어학 분야뿐만 아니라 공학, 정보학 등 인접 연구 분야의 논저도 포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단 공학, 정보학 분야의 논저들을 국내 주요 학회 논문집에 한하여 소개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의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어정보학이나 사전학 연구가 국어학 내 다른 연구 분야와 인접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통사론, 형태론, 텍스트언어학, 한국어교육학 분야 등의 연구가 국어정보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일 경우, 이들을 국어정보학의 하위 분야로서 말뭉치언어학 내에 포함시켜 소개할 것이다.

2. 국어정보학

여기서는 국어정보학 분야 논저를 말뭉치언어학 분야(2.1)와 자연언어처리 분야(2.2)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말뭉치언어학 분야는 말뭉치를 활용한 통사, 형태, 어휘 범주 등에 대한 계량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포함하며, 자연언어처리 분야는 자연언어처리를 위한 기반 자료 구축과 응용 시스템 개발 부분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어정보학의 주요 분야로서 이 두 분야 외에 개론적 성격이 짙은 국

어정보학의 일반론이나 정체성, 학문적 연구 동향 등과 관련한 기타 논의들을 별도의 절(2.3)에서 소개할 것이다.

2.1. 말뭉치언어학

말뭉치언어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로 통사 분야의 연구는 "구문분석 말뭉치를 이용한 한국어 문형 연구"(신서인)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구문분석 말뭉치를 활용하여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된 57만 어절의 문어 텍스트를 대상으로 자동으로 문형을 추출하여 실제 문형의 실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조사가 생략되는 등 실제 문장에서 추출한 문형은 규범적인 문형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문형과 용언의 의미 간에도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문형의 변이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조사가 주로 생략되는 문장성분이 '주어>목적어' 순에 의하고 논항의 생략이 빈번할수록 조사의 생략이 드물다는 것, 논항의 필수성과 논항의 의미역이 어순의 변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등을 논의하였다.

"텍스트 장르에 따른 문장 확대 양상 연구 -학술개론서와 학술강의 텍스트를 중심으로"(남길임), "말뭉치 기반 국어 분열문 연구"(남길임)는 형태 분석 말뭉치를 분석함으로써 국어 통사 현상을 분석한 연구이다. 전자의 경우는 제보 텍스트로서의 공통성을 지닌 학술개론서(문어)와 대학 강의 전사 말뭉치(구어) 각각 5만여 어절씩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여 문어와 구어에서 각각 달리 나타나는 문장 유형, 문장 확대의 양상을 분석·비교함으로써 텍스트에 따라 선호되는 텍스트 전개의 양상이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통사적 관점에서 텍스트의 복잡성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문장의 어절 수가 아닌 통사적 구조를 기준으로 분석되어야 하며, 이는 문장 내의 절 표지의 수와 절 구성을 통해 계량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또한

후자, "말뭉치 기반 국어 분열문 연구"(남길임)에서는 국어 분열문의 개념을 통사 구조와 형태 분석 표지를 중심으로 정의하고, 문어·구어 형태 분석말뭉치에 나타나는 분열문의 계량적 특성과 질적 특성들을 비교·분석하였다.

어휘 분야의 연구로는 "한국어 어휘 교육·학습 자료 개발을 위한 계량적 분석의 한 방향 -어휘 빈도 조사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한영균)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말뭉치 분석 결과로서의 어휘 빈도 정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기존 연구 사례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단어족 개념에 바탕을 둔 어휘 빈도 조사, 즉 단어족 빈도를 활용하는 조사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여기서의 '단어족'은 '문화성, 문화적, 문화화, 이문화' 등과 같이 의미적으로 유연성을 지니는 일련의 단어 집합을 의미한다.

"한국어 어휘의 교육용 시소러스 개발 방향 연구"(조형일)에서는 온톨로지 환경의 어휘 분류 관점에서 시소러스 개발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어 시소러스 연구 현황과 구축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필자는 한국어교육에서 필요한 한국어 어휘 시소러스의 개발 시 품사, 의미관계, 문법 정보, 화용 정보 등의 분류자가 명시된 어휘 정보의 총체로서 한국어 교육용 시소러스의 개발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어휘 분야의 연구로 어휘·문법적 관점에서 출발한 개념인 '패턴'과 관련한 연구도 있었다. "'아니다'의 패턴 연구-말뭉치 문맥색인(concordance)을 중심으로"(남길임)에서는 문어·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문맥색인을 중심으로 '아니다'의 어휘 기술을 시도하였다. 여기서는 한 어휘와 일정하게 조합되는 구조로서의 '패턴(pattern)'의 개념이 응용언어학적 유용성과 문법·의미의 상호 작용 관계를 명시하는 데 유용함을 지적하고, 패턴을 '중심어와 함께 빈번하게 자주 나타나는 조사, 어미 등의 문법 요소로 구성되며 그 구성 내에 빈칸을

가지는 구조적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기반으로 '아니다'의 말뭉치 용례를 분석한 결과 '아니다'는 '~가 아니면, -거나/-든지/-ㄹ지 아니면 ~' 등을 포함한 10개의 패턴으로 기술된다.

"지시 해석을 위한 '것'의 식별과 쓰임에 관한 연구"(조은경·이민행), "지시 해석을 위한 '그것'의 쓰임에 관한 연구"(조은경·서상규·서정연)는 자연언어처리에서의 지시 해석(reference resolution)과 관련한 연구이다. 전자에서는 지시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 후자에서는 '그것'의 용례를 말뭉치에서 추출하여 지시 해석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였다. 대표적으로 전자의 경우 약 5만 어절 가량의 대화말뭉치를 분석함으로써 '것'의 쓰임을 "비지시적인 '것'"과 "지시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 지시 대상의 해석 유형에 따라 고정 표현 및 고정 지시, 인접 지시, 비인접 지시, 임의 대상 및 후행 지시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언어처리에 있어서 지시 해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코퍼스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의미의 본질"(김진해)에서는 의미론적 관점에서 말뭉치언어학이 의미론 연구와 관련하여 가지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필자는 담화공동체 속에서 실현되는 어휘의 용법과 다시쓰기를 의미의 중요한 본질로 지적하고, 코퍼스언어학이 언어학적 주장의 객관성이나 용례 제시의 보조적인 기능을 넘어서 향후 의미 연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것이라 하였다. "말뭉치에 기반한 공간 명사의 의미 변화 연구"(김한샘), "은유 연구의 회고와 전망: 코퍼스를 이용한 은유 표현의 추출과 어휘데이터베이스"(최운호·강범모·차재은) 역시 의미론적 관점에서 말뭉치를 활용한 연구들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말뭉치언어학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말뭉치 구축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연구, 학습자 말뭉치나 역사 말뭉치를 활용한 연구, 소설에 나타난 방언에 대한 연구 등이 그것

이다. 말뭉치 구축이나 주석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연구로 “방언 음성 자료의 전산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소강춘), “독립신문 어휘색인 작업과정에 이용된 형태주석 편집도구의 활용 전망”(송길룡) 등이 있는데, 전자는 국어학적 관점에서 방언 음성 자료를 효과적으로 전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메아리 1.0)의 구성과 기능, 전사 자료의 활용 방안을 소개한 연구이며, 후자는 필자가 개발한 역사 말뭉치의 형태 주석과 어휘 색인에 활용되는 프로그램(매김틀)의 기능과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 논문이다.

“신소설 말뭉치와 깜짝새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최근세국어 문법의 연구 방안”(김남돈), “學習者 말뭉치에 기반한 國語知識의 計量的 硏究 方案-초등학교 일기 말뭉치에서 조사를 중심으로”(김남돈)는 각각 역사말뭉치와 학습자말뭉치를 활용한 문법 기술을 시도한 연구이다. 후자의 경우 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방안과 깜짝새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사 추출 과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어린이의 조사 사용 실태와 계량적 특성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4만 5천 어절 규모의 실험 말뭉치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의 분석 결과 147개 조사 종류를 산출하였고 이를 균형말뭉치와 비교·분석하였다. 한편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오류 표지 방안 재고”(이승연)는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분야에서의 오류말뭉치 관련 연구로, 기존의 한국어 학습자 오류 말뭉치의 오류 유형 분류 체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 학습자의 어휘·문법·담화 차원의 오류를 반영한 오류 말뭉치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밖에 문학작품 말뭉치를 활용하여 작품에 나타난 방언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조정래 소설 아리랑에 나타난 전북방언의 계량언어학적 연구: 음운현상을 중심으로”(김귀복)와 “박경리 소설『토지』에 나타난 서부 경남 방언의 계량언어학적 연구: 음운현상을 중심으로”(박미경) 등의 학위논문을 들 수 있다.

2.2. 자연언어처리

2.2.1. 자연언어처리를 위한 기반 자료 구축

자연언어처리를 위한 구문 정보 및 의미 정보 구축을 위한 기반 작업들이 온톨로지(ontology), 어휘의미망 구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국어 부정표현의 형식화와 온톨로지 변환"(송도규)은 한국어 부정 문형을 'A는 B가 아니다, A는 B하지 않는다' 등의 네 가지 형식으로 나누고 각 문형을 논리 언어로 형식화함으로써 온톨로지로 자동 변환하는 알고리듬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어 양화표현의 형식화와 온톨로지 변환"(송도규) 역시 논리언어와 형식언어를 적용하여 한국어 양화표현을 변환하는 알고리듬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연구는 자연언어가 가진 의미의 형식화를 통해 지식기술 텍스트가 담고 있는 의미를 컴퓨터가 직접 이해하고 추론, 처리할 수 있는 기반 자료 구축을 위한 연구의 특성을 가진다.

"자연언어처리를 위한 구문·의미 정보 구축 -날씨어휘장의 {비}를 중심으로"(박건숙)는 날씨 어휘장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어휘 항목을 대상으로 각 어휘 항목의 구문 결합 양상을 분석하여 자연언어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구문 정보와 의미 정보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일기예보 텍스트에 나타난 '기상현상'이라는 어휘장 속에서 '비'의 구문 및 의미 정보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나타나는 선·후행 요소를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정보가 자연언어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구문 분석과 정보 검색 과정을 통해서 기술하고 있다.

어휘의미망 구축과 관련한 논저 중에는 사전정의문의 패턴을 활용한 인쇄사전의 재활용과 관련된 논의도 있었다. "동사 어휘의미망의 반자동 구축을 위한 사전정의문의 중심어 추출"(김혜경·윤애선)

에서는 사전정의문을 이용하여 서술성명사와 기능동사 쌍을 중심으로 명사와 동사를 통합할 수 있는 어휘의미망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때의 동사 어휘의미망은 사전정의문의 중심어(head word) 개념을 통해 반자동으로 구축되며 중심어는 명사의 경우 사전정의문에 포함된 상위어에, 동사의 경우는 풀이말에 대응된다. 중심어의 추출은 사전정의문의 형태적 제약 정보나 필수격 논항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추출되는데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는 몇 가지 규칙과 준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연언어처리를 위한 어절 사전이나 의존명사, 용언 등의 하위 전자사전 구축과 관련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한국어 형태론적 중의 어절 사전 구축과 표제어 선정”(유혜원·남경환·홍종선)은 한국어 정보처리를 위한 한국어 중의 어절 사전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중의 어절 사전 표제어 선정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표제어 선정 절차로서, 형태분석 말뭉치를 활용하여 둘 이상의 서로 다른 형태소 분석 결과로 나타나는 어절 전체를 추출하고, 중의성 유형에 따라 품사 범주 중 대범주의 차이를 보이는 어절들을 대상으로 표제어를 선정하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 의존명사 전자사전 어휘부 구성을 위한 연구”(남지순), “한국어 명사구성비자립어(NXF) 전자사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논의”(남지순) 역시 자연언어처리를 위한 전자사전 구축과 관련한 연구이다. 두 연구에서는 각각 한국어 전체 어휘 부류에 대한 전자사전을 구현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의존명사와 명사구성비자립어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유형 분류를 제공하였다.

“전산학적 응용을 위한 한국어 용언 위계 구축”(김종복·임경섭·이주원)에서는 잉여성을 최소화한 효율적인 용언 어휘부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때의 잉여성이란 동사의 하위범주화 정보 등과 같

이 어휘 요소가 다른 어휘 요소와 공유하는 정보에서 생기는 수직적 잉여성과 어휘요소의 굴절이나 파생 관계에서 나타나는 수평적 잉여성을 말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수직적 잉여성에 초점을 두고 형태·통사적 기준을 통해 용언의 하위 유형을 구분하였는데, 실제 이러한 연구 결과가 한국어 구문분석기 구축의 사전부에 적용되어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2.2.2. 자연언어처리 및 응용 시스템 개발

자연언어처리 및 응용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전문용어 자동 추출이나 핵심어·상위어 판별 시스템, 기계번역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기계학습에 기반한 생의학분야 전문용어의 자동인식"(오종훈, 최기선)에서는 이상적인 전문용어 인식 기법은 용어 목록에 대한 올바른 순위화와 이를 통한 전문용어와 비전문용어 간의 경계 정보 제공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한 전문용어 자동인식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단순 통계적 정보만 사용하는 기존 연구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양한 전문용어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진분류 기계학습에 기반한 전문용어 선택 기법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통해 순위화의 문제와 전문용어와 비전문용어 간의 경계 인식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하였다.

"MeSH 시소러스를 이용한 한영 교차언어 키워드 자동부여"(이재성·김미숙·오영순·이영성)는 한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요약에서 통제된 영어 키워드, 특히 MeSH(Medical Subject Heading) 키워드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제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한국어 키워드 추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띄어쓰기 변이 처리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키워드 자동 부여 프로그램이 색인 전문가나 저자의 능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기계가독형사전에서 상위어 판별을 위한 규칙 학습”(최선화·박혁로)은 사전 정의문에 포함된 각 명사의 문장 내 위치, 부착된 조사 및 어미, 명사의 문맥 정보 등 상위어 판별을 위한 구문적 특성들을 활용하여 상위어 판별 규칙 학습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소러스와 전자사전의 정의문을 선택하여 실험한 결과 구문 특징을 이용한 상위어 판별 결과가 기존 연구의 어휘패턴 중심의 상위어 추출 결과보다 정확도가 높다고 하였다.

“‘단어-의미, 의미-단어’ 관계에 기반한 번역어 선택”(이현아)에서는 원시언어와 목적언어의 단어-단어 대응 관계에 기반한 기계번역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원시언어의 의미를 반영하면서 자연스러운 목적언어를 구성하는 단어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원시단어의 의미와 그 의미에 대응하는 목적 언어의 단어 관계에 기반한 번역어 선택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은 우선 번역 예문에서 문맥 정보나 공기 정보를 이용한 의미 선호도를 분석함으로써 의미를 분별하고, 목적 단어간의 공기 빈도를 이용하여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최종적인 번역어 선택에 이르는 방법이다.

“한영 기계번역 시스템의 다의 정보 처리에 대하여”(이동혁)에서는 다의 형태 ‘굽’을 중심으로 기계번역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다의성’의 개념, 다의어 정보의 저장·처리 과정을 논의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기계 처리에 적용되는 다의어와 동형어의 구분 기준을 제시하고 기계 처리에서의 의미 분절 과정을 한영 기계번역 시스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실제 시스템에서의 다의성 해소 알고리듬의 예를 ‘굽’을 통해 보이고 있다.

“자연언어 문장의 자동 변환을 위한 수화 표현의 언어학적 특성 분석”(최지원·장은영·이희진·박종철)은 자연언어를 수화로 변환하여 자연언어문장으로부터 수화 애니메이션을 자동생성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이를 위해 수화를 음성언어와 독립적인 언어로 인지하

고 시각적인 언어로서의 특징을 고려하여 한국어 문장을 수화로 변환할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수화의 표현 공간과 어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2.3. 기타 국어정보학 일반

기타 국어정보학 일반에 대한 개론적 논의와 지금까지의 국어정보학의 성과와 현황을 점검한 논의들도 다수 있었다. 〈한국어와 정보〉(황화상)는 한국어 정보 처리의 관점에서 자연언어처리의 개념을 소개한 개론서로, 정보 사회에서 언어의 역할, 정보 처리를 위한 컴퓨터 활용의 의의 등을 논의하면서 한국어 정보 처리와 자연언어처리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한국어 형태소 분석, 한국어 구문 분석의 과정 및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어정보학 관련 논저로 〈응용국어학의 탐구〉(시정곤)은 국어정보학, 한국어교육 분야를 포함하는 저자의 응용언어학 관련 논문들을 모아 엮은 것인데, 국어정보학 부분에서 어휘망 관련 연구와 전문용어 등에 대한 논문 6편을 제시하고 있다.

"국어국문학의 정보화 수용에 대한 논의의 반성과 전망"(이태영)은 말뭉치 구축, 사전편찬, 21세기 세종계획 등 최근 20여 년간의 국어국문학계의 정보화 사업을 소개하고, 국어학 및 국문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의 현황을 자료 구축과 강의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어국문학의 정보화가 진행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아직 충분히 저변이 확대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시급한 과제로 정보화 인력 양성과 자연언어처리용 주석말뭉치 구축을 들고 있다.

"자연언어처리와 국어 연구"(박진호) 역시 국어학 연구가 자연언어처리와 가지는 관련성 및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어학 연구

의 효용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자연언어처리의 형태 분석, 구문 분석, 단어 의미 중의성 해소 등의 분야에서 국어학적 연구가 적용되는 경우를 실제의 예를 통해 소개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물이 실제 인간이 가지는 언어학적 메커니즘을 기계적 차원으로 적용하여 음성합성, 음성인식, 자동 문서 분류 등의 응용 학문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 IT교류"라는 특집 주제 하에 정보처리학회지에서는 "남북정보기술 용어표준"(최기선·변정용·신효식·옥철영), "한글·조선글 문자부호표준 개선방안"(변정용), "전문용어 표준화의 원칙과 평가기준"(리수락), "남북 국어정보기술 표준안개발의 과제"(정희성) 등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들은 남북한의 문자부호 체계의 차이점, 어문체계의 자모순서, 전문용어 표준화 등과 관련한 논문들로, 모두 남북의 국어 정보 처리 표준 기술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하고 있다.

3. 사전학(Lexicography)

여기서는 사전학 분야를 다음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논의할 것이다. 첫째, 실제 참고 저작물(reference work)로서의 각종 사전단행본(3.1), 둘째, 사전편찬 과정에서의 실제적인 쟁점들을 주제로 한 사전편찬학(lexicography) 관련 논저(3.2), 마지막으로 기존 사전에 대한 비평이나 사전 구조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를 포함하는 사전학의 이론적인 논의들을 다룬 이론사전학(lexicography)(3.3)이다.

3.1. 사전단행본

〈(외국인을 위한)한국어 학습 사전〉(서상규·백봉자·강현화·김홍

범·남길임·유현경·정희정·한송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개정판)(백봉자), 〈Korean picture dictionary〉(강현화)는 모두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사전이다. 〈(외국인을 위한)한국어 학습 사전〉(서상규 외)은 한국어의 약 80%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약 5000여 개의 기본 어휘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구어를 비롯한 일상생활 어휘, 문화어 등도 포함된다. 이 사전을 특히 각종 기관의 한국어교재와 한국어교육 말뭉치를 활용하여 표제어를 선정하고 각종 사전 정보를 기술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활용 및 곡용의 발음 정보, 문형정보, 관용표현, 연어 정보 등을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전과 변별된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개정판)〉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2000)의 개정판으로 한국어교육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한국어 문법 일반과 한국어 문법 형태를 사전 형식으로 배열한 것이다. 이와 함께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Korean picture dictionary〉(강현화)는 기초 생활 한국어 어휘를 그림으로 보인 사전으로 '일상, 사람들, 의복, 음식' 등 13개의 주제에 따라 그림으로 보여 주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한편 〈(풍부한 관용구를 수록한)어미·조사 사전: 한국어 학습 학습자용〉(이희자·이종희)은 사용자 범위가 한국어 학습자를 넘어서는 사전이다. 이 사전은 국어 문법의 이해에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어미와 조사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포함한 관용구·준꼴 등 900여 개의 표제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용자 대상은 "국어문법 중 어미 조사부분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 일반인 연구자부터 특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사에게까지 사용가능한 사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입에 익은 우리 익은말: 글쓰기에 좋은 말글 사전〉(김준영), 〈우리말글쓰기 연관어대사전:상, 하〉(김일성종합대학 교수진)는 저작

의 제목에 '글쓰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 중 〈입에 익은 우리 익은말: 글쓰기에 좋은 말글 사전〉은 속담이나 관용어 사전의 일종이다. 표제어는 주로 오랜 세월 동안 구전되면서 입에 익은 말들 중 재미있고 유용한 표현들을 모아 정리한 것이며, 속담, 관용표현, 유용한 어휘류 등을 포괄한다. 예를 들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와 같은 쉬운 속담부터 '강감찬이 번갯칼 꺾듯 한다'와 같은 다소 생소한 속담을 포함하고 있으며, '효불효, 황고집' 등의 유용하고 재미있는 어휘류들도 표제어로 등재하고 있다. 한편 〈우리말글쓰기 연관어대사전:상, 하〉(김일성종합대학 교수진 외)는 표제어의 뜻풀이를 포함한 사전적 기술 외에 표제어와 연관된 문학적 표현을 제시하여 우리말 어휘들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보이고 있다.

역사사전으로서 고대 한국어 차자표기 자료에 사용된 용자를 표제어로 삼아 그 용례를 모은 〈고대 한국어 차자표기 용자 사전〉(이은규)과 1948년에 출판된 〈朝鮮 古語 方言 辭典〉을 복간한 〈조선고어방언사전〉(정태진·김병제)도 출판되었다. 고대 한국어 차자표기 용자 사전 경우 차자표기에 쓰인 용자가 어떤 문헌에 나오고 어떤 환경에 나타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고, 문헌별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해당 용례를 출전을 제시하여 원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그밖에도 〈작가들이 결딴낸 우리말: 우리말 분류 소사전〉(권오운),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 한국어 어원 사전〉(백문식), 〈우리말 부사 사전〉(백문식), 〈우리말 색이름 사전〉(한국색채연구소 편) 등은 최근 국내 사전 편찬의 다양성을 보여 준다.

3.2. 사전편찬학

3.2.1. 표제어 선정과 미시구조의 기술

우선, 거시구조와 관련한 연구 중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국어사전에서의 구어 어휘 선정과 기술 방안 연구"(안의정)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말뭉치를 분석함으로써 사전에서의 구어 표제어를 선정하고 기술하는 방법을 연구한 논문이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 사전 편찬에서 구어 말뭉치를 활용한 시도가 없었으므로, 잘 구성된 구어 말뭉치를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구어 표제어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구어 표제어 추출 방법은 비교 대상 말뭉치 간의 유의미성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G^2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G^2값은 구어·문어 말뭉치의 어형별 빈도 목록을 비교하여 구어성 점수를 산출하는 데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구어 표제어와 가표제어 외에 미시구조 항목에서 기술되어야 할 구어의 특성에 관한 정보도 함께 다루고 있다.

"구어 어휘의 사전 기술 방법 -담화표지를 중심으로-"(전영옥) 역시 구어의 사전 기술 방법을 밝힌 논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사전이 표제어 선정과 미시구조의 의미 기술 방법 모두에서 구어의 쓰임을 충실하게 기술하지 못했음을 비판하면서 담화표지를 중심으로 사전 기술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어휘 부류나 구 표현으로서의 담화표지가 구어 전사 말뭉치의 분석을 통해 사전의 새로운 표제어로서 선정되어야 하며, 기존 사전의 표제어로 기술되어 있는 '아, 어, 응, 음' 등의 감탄사류 역시 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구어의 사용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의미 기술이 보완되어야 한다.

"국어 중사전의 전문어 표제어 선정에 대하여 -역사전문어를 중심으로"(김양진)는 '중사전' 내의 전문용어표제어의 선정 기준에 대

한 연구이다. 여기서 중사전은 '휴대가능한 규모로 해당 언어의 필수적인 단어를 모두 담고 있는 사전'으로 규정되며 표제어는 '현대어'로 한정된다. 이때 교육목적과 교양적 필요 등의 요건에 의해 중사전의 표제어에는 일상화된 전문어를 포함하게 되는데 역사전문어의 경우 표제어의 선정 여부는 일반인의 이해도와 밀접히 관련된다. 즉, 이에 따르면 '문예부흥, 명예혁명, 보불전쟁' 등은 현대어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사용빈도나 검색빈도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중사전의 표제어로 선정되지만 '전옥서, 승지, 안찰사' 등은 교육적 목적이나 교양적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정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미시구조 기술과 관련한 논문으로 "국어대사전의 새로운 발음정보 처리 방법에 대하여"(김선철)은 한국 표준어의 실제 모습을 제시하는 기술적 언어사전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발음정보의 기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는 향후 전자사전이라는 사전 매체의 변화를 염두에 둘 때, 경제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1) 발음기호의 종류, (2) 굴절형의 발음, (3) 음장의 표시, (4) 표기 대상이 아닌 어형에 대한 배려의 관점에서 발음정보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에서의 어휘 기술 방법론 연구 - 시간표현을 중심으로"(남길임) 역시 미시구조의 참고상자 기술과 관련한 논문으로 한국어의 시간 명사 '해, 달, 월, 계절' 등을 중심으로 어휘 기술 방법론을 살펴본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오류말뭉치에 나타난 한국어 학습자들의 시간 표현 관련 오류를 분석하고 한국어 교재 말뭉치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표현의 사전 기술에 있어서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를 제시하는 방법론을 기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참고상자(usage note)'는 표제항 중심의 사전 구조에서 어휘 이상의 구 표현과 계열 관계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보항목으로 기능하며, 이러한 정보는 학습자의 표현적 지식을 증가시키는 데

유용하다.

"중세국어 심리 형용사의 사전 기술에 대하여"(이영경), "국어사전의 '관련어' 연구"(이희자·우재숙) 역시 사전의 미시구조 기술에 대한 연구이다. 전자에서는 통사정보 등 문법 정보를 반영한 고어사전 편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밀한 통사정보가 반영된 중세국어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심리형용사의 문형 정보 기술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중세국어 심리형용사의 문형은 문형에 따라 '저프다, 믭다, 뉘웃브다, 랍다'를 대표적인 예로 하는 네 가지 유형의 기술 모형으로 제시된다. "국어사전의 '관련어' 연구"에서는 사전의 미시구조 중 관련 어휘 정보에 초점을 두고 '관련어'항목을 '표제어의 의미 이해에 도움을 주는 의미 관계 정보'로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풍부한 관련어의 기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자사전과 관련한 연구로,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사전의 조건"(정철)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사전 데이터베이스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책 사전 DB를 기본으로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전자사전 서비스를 할 경우 새롭게 요구되는 점들에 대해 살피고 있는데, 표제어/부표제어/가표제어의 구분 문제부터 의미 항목의 배열, 약호, 발음 표현 등에서 인터넷 시대의 사전이 지향해야 할 요소들을 지적하였다. 한편 "국내외 전자사전 개발의 현황과 전망-자연언어처리 관점에서"(이용훈·이종혁)은 인간중심의 전자사전(human-oriented EDs)과 NLP시스템에서 주로 사용하는 NLP사전(pure NLP systems)의 두 가지를 전자사전의 범주로 한정하고, 출판용 전자사전과 말뭉치, 자연언어처리용 전자사전의 개발 현황을 각각 소개하였다. 여기서는 미래의 전자사전의 특성으로 다목적, 다기능 전자사전, 다국어 전자사전, 언어학적 지식과 인간의 세계 지식이 결합된 전자사전(Lexicon+Ontology)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휘망 구축을 비롯한 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인쇄사전을 재활용한 연구들이 더러 있는데, 주로 사전정의문 패턴이나 구문 구조를 분석한 논의들이다. “동사 어휘의미망의 반자동 구축을 위한 사전정의문의 중심어 추출”(김혜경·윤애선), “기계가독형사전에서 상위어 판별을 위한 규칙 학습”(최선화·박혁로) 등은 어휘망 구축을 위한 기반 자료로서 〈우리말큰사전〉을 비롯한 인쇄사전의 정의문을 활용한 연구이다. 그밖에도 “한국어의 형태론적 중의어절 사전 구축과 표제어 선정”(유혜원·남경완·홍종선), “한국어 의존명사 전자사전 어휘부 구성을 위한 연구”(남지순), “한국어 명사 구성비자립어(NXF) 전자사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논의”(남지순) 등도 자연언어처리를 염두에 둔 전자사전 개발에서 특정 언어 범주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이다.(자연언어처리를 위한 전자사전, 어휘망 구축에 대한 연구는 2장 참조.)

3.2.2. 사전 편찬 기반 자료 구축 및 도구 개발

사전 편찬 기반 자료 구축 및 도구 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독립신문 어휘색인 작업과정에 이용된 형태주석 편집도구의 활용 전망”(송길룡)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독립신문(1896-1899) 말뭉치를 구축하여 어휘색인집을 만드는 작업 과정에서 개발된 형태 분석 작성 보조 프로그램 ‘매김틀’과 어휘 용례 색인 생성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소개된 ‘매김틀’은 유니코드를 지원하며, 기분석 사전을 이용하고, 미등재 어절의 분석 시 기분석 사전을 통해 자동생성된 규칙을 이용하는 형태 주석 도구로, 옛한글말뭉치나 구어 전사 말뭉의 주석에 활용될 수 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향후 이러한 프로그램의 후속 도구 개발에 있어서 말뭉치의 자료적 성격에 따라 폭넓은 처리 기법이 탐구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3.2.3. 특수 사전 관련 연구

여기서는 사전편찬의 실제 작업 과정에 대한 연구 보고나 연구 제안의 성격을 띠는 논저들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특히 특수 사전류에 대한 사전편찬과정을 보인 연구가 많았는데, 실제 사전편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후 이 과정을 소개한 다음과 같은 논문이 이에 해당한다.

"구결사전편찬에 대하여"(이전경·하귀녀·박진호·황선엽)는 구결학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구결사전 편찬 사업의 연구 진행 상황을 소개하고 구결사전의 구조를 거시구조적 측면과 미시구조적 측면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구결사전 편찬에서 실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표제항 선정과 관련한 복합구결토의 처리 문제나 문법 기술 용어 통일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향후 구결 사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윤동주 시어 사전, 이렇게 편찬하였다"(조재수)에서는 필자가 2005년 직접 편찬한 〈윤동주 시어 사전〉의 작업 과정과 문학사전 편찬의 의의를 소개한 논저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전의 편찬 자료와 사전의 구조를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윤동주 시어와 표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문학이 좋은 사전의 밑바탕 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학의 실적에 비해 사전편찬의 실적은 부족하였음을 지적하면서 문학 작품이 가진 시대성과 지역성, 작가의 특성을 반영하는 언어학적 고찰을 담은 사전 편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지형어사전의 편찬 가능성 검토"(강소영)는 '문화지형'을 문화현상들 아래 자리잡고 있는 문화세력들간의 관계, 그리고 그것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주체들의 활동과 관계를 보여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개화교육잡지 〈소년〉(1908-1911)을 대상으로 개화기의 생활상과 의식을 조명할 수 있는 사전편찬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문화지형어사전은 일반 사전과는 다소 변별되는 전자사전/백과사전/특수사전/선별형사전의 특성을 띠는데, 이 논문에서는 '개화, 문명, 인민/국민' 등의 대표적인 어휘를 예시로 들면서 표제항 선정과 미시구조 기술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3.3. 이론사전학

이론사전학에서는 사전비평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용례에 대한 사전학적 검토-용언의 경우"(한영균)는 확장형 단일어 사전에서의 용례의 역할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의 용언 주표제항와 부표제항에 나타난 용례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용언류 주표제항, 어근형 표제항의 부표제항 용언, 일반 표준어 표제항의 부표제항 용언 전체 중 용례가 제시된 것은 48.6%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일러두기와 편찬지침의 용례 선정 원칙이 반영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인용례의 중복, 표제어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어휘가 용례에 쓰이는 문제 등을 용례 선정의 문제로 제시하였다.

두언어사전(bilingual dictionary)에 대한 사전 비평으로 "Parvum Vocabularium Latino Coreanum(羅鮮小字典)과 『羅韓辭典』의 학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하여"(안재원·김현권)와 "초기 露韓辭典의 편찬 經緯 및 체제와 구조"(곽충구)가 있다. 전자의 경우, 〈Parvum Vocabularium Latino Coreanum(羅鮮小字典)〉(1891)과 〈羅韓辭典〉(1936-1959) 두 사전이 라틴어 단어에서 한국어로의 단순한 대응・번역이 아니라 라틴어에 기반하고 있는 서양의 문화와 제도, 세계관이 번역・조어된 한국어 단어에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하고 사전의 분석이 당시 한국 사회의 근대화 양상을 해명해 줄 수 있는 언

어 자료의 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사전의 분석을 통해 당시 라틴어에서의 한국어로의 번역 · 조어 과정이 단순한 축자적 번역·대응이 아니라 라틴어 의미 세계를 한자 문명권으로 옮길 때의 한자 문명권의 체계와 구조가 반영되었음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다. "초기 露韓辭典의 편찬 經緯 및 체제와 구조"에서는 최초의 노한사전이자 최초의 한국어 대역사전으로 알려진 〈*Opyt RusskoKorejskago Slovarja* (시험적인 露韓辭典)〉와 〈*Opyt Kratkago RusskoKorejskago Slovarja* (시험적인 露韓小辭典)〉의 편찬 경위와 내적 구조를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우리 민족이 러시아 영내로 이주함으로써 생겨난 산물로서의 이들 사전이 한 세기 전 육진방언 및 그 변화, 한국어의 음운, 어휘 연구 등에 대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중 사전 비교 연구"(황은하) 역시 두언어사전으로서의 한·중 사전의 비교·분석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내에서 출판된 한·중 사전의 목록을 수집하고 표제어 규모 및 특성, 뜻풀이, 대역어 등의 미시구조 정보항목에서의 각각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한국어 학습 사전의 연구 동향 분석"(박수연)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논문들을 연구 주제별로 제시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한 논문이다. 다섯 가지의 연구 영역 분류 기준 즉, 사용 언어, 사전의 종류, 편찬 방식, 연구 방법, 거시·미시구조에 따라 학습 사전과 관련한 연구 동향을 분류한 다음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학습 사전 연구는 사전 모형을 제시한 연구가 부족하며, 미시구조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사전 편찬자 중심으로만 논의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4. 결론

이상으로 2006년도의 국어정보학과 사전학의 연구동향을 개괄하였다. 국어정보학의 경우는 말뭉치언어학과 자연언어처리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사전학은 사전단행본과 사전편찬학 관련 연구들을 중심으로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2006년도의 말뭉치언어학의 연구는 통사, 형태, 어휘·의미 등 국어학 전 분야를 망라하여 연구되었으나 음성말뭉치와 관련한 연구는 드문 듯하다. 자연언어처리 분야의 연구는 자연언어처리를 위한 온톨로지와 어휘의미망 구축이나 전자사전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용어 자동 추출, 핵심어 자동 추출 시스템 등의 응용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주제도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한편 말뭉치언어학 연구는 주로 국어학 분야에서 연구된 반면, 자연언어처리 관련 연구는 양적인 면에서 주로 공학 분야의 논문이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연구 경향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사전학의 경우 표제어 선정과 미시구조 기술, 사전 편찬 기반 자료 구축 및 도구의 개발, 특수 사전 관련 연구, 사전 비평을 비롯한 이론사전학 연구 등 비교적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단행본 사전 역시 다양한 유형의 소사전들이 출판되고 있으며, 편찬의 주체 역시 국어학, 사전학자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의 연구소, 기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확장되는 추세를 보였다. 단, 사전학 관련 논문들이 대부분 하나의 학회 논문집에서 나온 자료들이어서, 국내 사전학 연구의 저변이 그리 넓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어정보학과 (국어)사전학은 비교적 역사가 짧은 학문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논문의 수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닌 듯하다. 이 글에서 소개된 2006년도 국어정보학, 사전학 관련 논저 중에 언급되지 못하거

나 연구 내용이 잘못 소개된 경우도 있을 듯하다. 또한 이 글에서 다룬 논저는 주로 국내 저서와 학회 논문지로, 자연언어로서 한국어 정보 처리와 관련한 해외 학회지의 논문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능력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국어(학)사 · 계통론

윤 용 선
(명지대학교)

1. 머리말

이 글은 2006년에 이루어진 국어학 연구 논저 중, 국어사와 국어학사의 성과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어사는 좁은 의미에서는 통시적 연구를 지칭하나 일반적으로 옛말과 글을 다룬 것은 모두 국어사에 넣기 때문에 국어사의 영역은 매우 넓다. 여기서는 이 모두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문법사와 문헌 자료, 문자와 표기에 대한 성과만을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음운의 변화나 어휘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서 언급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글은 연구 성과들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고 지면의 제한도 있는 관계로 연구 성과의 결론이나 주요 요지를 간략히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연구의 의의를 평가하거나 논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의 평가적 기술은 지양하고자 한다. 다만 필자가 주관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논저에 대해서는 간략한 의견을 덧붙인다.

모든 논문을 나열하고 요약하는 것은 번거롭기만 할 뿐이고 이 글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단행본(저서), 학위 논문(박사),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 일반 논문집의

논문이나 석사학위논문, 잡지의 글 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을 보충하기로 한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연구 성과는 목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2. 문법사 연구

문법사 연구는 문법형태소나 형식을 중심으로 그 기능과 형태의 변화를 다룬 성과가 주를 이루었다. 구문과 통사구성을 다룬 성과는 아주 미비했다. 여기서는 연구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제(문법 현상)를 중심으로 연구 성과를 분류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2.1. 총설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국어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업적이 이에 포함된다. 총설적 성격의 성과는 대부분 논문집 혹은 공저의 형식으로 발간되었다.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임용기·홍윤표 편)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과 국어사학회가 주관한 학술 대회의 발표 논문을 모은 논문집이다. 각 분야별로 가장 뛰어난 업적을 쌓으신 국내외 원로 석학들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국어사 연구의 흐름과 방법을 회고하고, 연구 성과를 총체적으로 이해함은 물론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문헌 자료 연구, 표기법, 한국어의 계통, 음운사, 문법사, 어휘사, 방언사, 지명 연구, 연구사 등 국어사 전반을 포괄하는 논문 27편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 논문을 간략히 살펴 본다.

〈우리말의 '역사 연구'와 '연구 역사'의 한 시각〉(김석득)은 연구

태도와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어사와 국어학사의 상생적 연구 태도, 세기별 공시적 체계를 바탕으로 개별 범주의 통시 체계를 추구하는 연구 방법론, 연구 중심의 국어학사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어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이기문)은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 국어사 연구의 전개 과정과 문제점을 언급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문헌 자료의 철저한 검토와 활용, 현대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 자세, 방언 연구의 가치, 알타이어 연구를 통한 비교 연구의 체계화 등 국어사 연구의 과제와 후학들에 대한 警戒를 담고 있다.

〈국어사연구와 한글資料〉(안병희)는 언해 양식의 차이, 언어 자료의 고증(오자와 교정), 자료의 문헌학적 窮究 등 한글자료의 이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한 글이다. 〈국어사 연구를 위한 전자 자료 구축의 현황과 과제〉(홍윤표)는 국어사 자료 말뭉치의 구축 현황과 문제점, 이를 국어사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기술한 글이다. 〈석보상절 제24와 월인석보 제25의 대비 연구〉(김영배), 〈왜학서 자료에 대하여〉(정광), 〈천자문에 대하여〉(후지모토 유키오)는 구체적인 문헌 자료 연구이다. 〈석보상절 제24와 월인석보 제25의 대비 연구〉(김영배)는 두 문헌의 서술 내용을 대비하여 차이를 검토한 문헌학적 연구에 해당한다. 〈왜학서 자료에 대하여〉(정광)는 조선시대 전기에 사용되던 일본어 학습교재의 목록을 역사 기록을 통해 확인하고, 그것은 일본에서 건너온 훈몽 교과서였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천자문에 대하여〉(후지모토 유키오)는 천자문의 서지 사항과 기술 내용을 토대로 異本 관계를 규명한 연구이다. 〈근대국어 음운사와 '가나' 表記 資料〉(송민) 역시 문헌 자료 연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자료인 雨森芳洲의 全一道人(1729)이 음운사 연구에 여하히 활용될 수 있으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를 검토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국어 자료의 이용 방법과 연구 태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시상법의 변천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고영근)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상법 변천 양상에 관련된 논의와 쟁점을 고찰한 글이다. 고대어와 중세어는 서법과 동작상 중심의 시상법 체계이고 근대국어는 시제 체계 중심의 시상법이 형성되고 서법 중심의 체계가 위축되는 과도기이며 현대어는 시제, 서법, 동작상의 3원적 시상법이 완성된 시기로 보고 있다.

〈현대 국어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김민수)는 국어사 연구의 성과를 대상으로 한 국어학사의 논문이다. 우리의 현대 국어학 연구를 초기(1945-59), 2기(1960-79), 3기(1980-99)로 나누어 개관하고, 북한의 업적도 같은 시기 구분에 따라 조망하고 있다.

〈훈민정음 「해례」의 설명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강신항)은 훈민정음(해례본) 연구에 있어 검토가 미진했던 사항을 검토한 글이다. 성리대전으로 대표되는 송학의 영향 관계, 자음자와 모음자에 나타나는 비체계적인 요소, 성조와 방점의 본질 등이 훈민정음에서 불명료하게 설명된 부분으로 이에 대한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국어 표기법의 두 원리〉(이익섭)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표음주의 원리와 표의주의 원리의 어느 쪽으로 움직여 왔는가를 검토하고, 그 위에서 현행 한글맞춤법의 원리가 타당함을 입증하고 있다. 〈국어표기법의 전개와 변천〉(지춘수)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표기법의 혼란상을 검토하고 그 원인을 설명한 글이다. 분철의 등장은 한자음을 정음으로 적기 시작한 데 원인이 있으며, 음운 변화에 표기가 제대로 따라 가지 못함으로써 신,구형이 공존하는 혼란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韓國의 古代口訣資料와 그 變遷에 대하여〉(남풍현)은 국어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여러 구결 체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연관 관계에

대해 정리한 글이다. 자토석독구결은 7세기 후반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널리 사용되었으며, 점토석독구결은 자토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2계통(화엄경계와 유식론계)이 있었는데 주로 제한된 식자층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순독구결은 한문의 보급에 따라 12세기부터 발달해 석독구결을 쇠퇴시키고 14세기부터는 구결의 주된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불경 언해에 나타난 구결의 변천〉(김문웅)은 한글 구결이 문헌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검토한 글이다. 부정법, 의문법, '與'구문, 속격의 구결 'ㅅ', 목적어 표지 '-ㄴ둘'에 있어 능엄경언해(1462)에서 선가귀감언해(1610)까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살피고, 후대로 갈수록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필자의 담당 분야가 아니어서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방언사를 다룬 〈全羅北道 方言 硏究와 方言史〉(전광현), 어휘를 다룬 〈四字成語와 韓國語文法〉(심재기), 〈國語 同義語의 通時的 考察〉(남성우), 지명을 주제로 한 〈지명 해석과 고어 탐색법〉(도수희), 〈우륵의 고향 '省熱'은 어디인가〉(김종택), 성조와 한자음을 다룬 〈우리말 성조사 오백년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김차균), 〈한국한자음의 몇 가지 특징〉(이돈주), 우리말의 계통을 다룬 〈알타이어족의 비교언어학〉(송기중), 〈이른바 알타이 조어의 모음 체계와 한국어 모음 체계〉(김동소)도 넓은 의미의 국어사 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후기 근대국어 형태의 연구〉(홍종선 외 공저)와 〈후기 근대국어 통사의 연구〉(홍종선 외 공저)는 후기 근대국어의 문법 체계를 정리한 책이다. 〈형태〉편에서는 조어법과 문법 형태, 문법화를, 〈통사〉편에서는 문법 현상과 통사 구성, 문체를 다루었는데, 후기 근대국어의 형태·통사의 특징적 사실을 조망한 후, 특정 주제별로 논의·검토하

는 체재를 취하고 있다. 논문집 성격의 공저인 관계로 통일성은 결여되어 있지만, 의미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대국어에 대한 국어학계의 연구 성과와 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06년에는 해외에서의 국어사 연구 성과와 경향을 엿볼 수 있는 저서가 2권 나왔다. 해외의 자료인 관계로 실제 연구보다는 뒤에 소개된 셈이다. **〈조선어언어력사연구〉(리득춘 편)와 〈조선어 발달사〉(리득춘 외 공저)**가 그것이다. 〈조선어언어력사연구〉는 크게 연구 논문을 실은 연구편과 문헌 해독 자료를 실은 자료편으로 나뉜다. 연구편에서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뉘어 다양한 분야의 논문 21편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어 발달사〉는 고대조선어(선사시대~통일신라말), 중고조선어(신라 멸망~고려말), 중세조선어(조선왕조 건립~임진전쟁 이전), 근대조선어(임진전쟁~갑오경장 이전), 현대조선어(갑오경장~현재)로 나누어 각 시대별로 역사 개관과 자료, 문자, 음운, 문법, 어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공저인 관계로 술어나 체재, 영역별 기술 내용이나 사실이 통일되지 않은 면이 있다.

이 밖에 국어사 전반에 걸치는 총설적 성격의 책으로는 **〈역학서와 국어사 연구〉(정광 외 공저)**가 있다. 정광 선생의 정년퇴임 논문집으로 역학서 연구와 국어학 연구 논문 20편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 논문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譯學書와 國語史 연구〉(정광), 〈朝鮮時代 多重 言語辭典類에 대하여〉(양오진), 〈東京大 小倉文庫 소장 諺文에 대하여〉(정승혜), 〈飜譯朴通事와 박통사언해의 번역 양상 차이〉(장향실), 〈捷解新語의 언어 교재로서의 특징과 언어 기능 분석〉(김유정), 〈19세기 한학서 화음계몽언해 연구〉(이승연), 〈京都大學 河合文庫 소장 司譯院 관련 고문서〉(박진완), 〈역학서의 문체 특징 연구〉(박미영), 〈飜譯『老乞大.朴通事』改修『老乞大.『老乞大諺解』의 한문원문 對照〉(김현주. 정경재), 〈1880년 刊『韓語入門』의 韓語表記

에 대하여〉(사이토 아케미), 〈月印釋譜 編刊 再考〉(정광), 〈慕竹旨郎歌의 '目煙廻於尸'는 '눈의 감올'이다〉(이창호), 〈한자와 한자어 수용 과정〉(이준석), 〈용비어천가의 훈민정음 주음 어휘 연구〉(김양진), 〈훈민정음, 언문, 반절, 그리고 한글의 역사적 의미〉(이상혁), 〈新約全書 국한문』의 저본에 대하여〉(히로 다카시), 〈Ramstedt의 「Studies In Korean Etymology」에 나타난 한국어 표기 방식〉(배성우), 〈러시아 학자의 알타이어 주석〉(꼬미싸로바 빅토리야), 〈주어적 속격과 명사형 어미의 상관성〉(김일환), 〈표기법 규정과 문자 생활〉(최정혜)

총설 성격의 논문으로는, 〈국어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하여〉(백두현), 〈한국어 변천사 연구의 문제점〉(김동소), 〈고대국어 연구 방법에 대하여〉(배대온)를 들 수 있다.

〈국어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하여〉(백두현)에서는 실용 위주의 현 교육 상황에 걸맞은 국어사 연구를 위해서는 실증적 연구를 강화하여 언어 변화에 관한 일반 이론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인접 학문과 소통하는 연구를 통해 현실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국어 변천사 연구의 문제점〉(김동소)은 국어사의 시대 구분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언어 자체의 변화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과 'ㆍ'가 실재 존재하지 않았던 비음소적 과잉 문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고대국어 연구 방법에 대하여〉(배대온)은 고대국어 연구에 있어 자료의 신중한 사용을 강조하고 차자표기 자료를 시대별로 정리하여 제시한 글이다. 10세기를 기점으로 차자표기의 양상이 달라짐을 강조하였다.

2.2. 조어법

조어법에 관한 연구로는 모두 파생 접미사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연구였다.

〈고대국어의 파생 접미사 연구〉(장윤희)는 차자표기 자료를 분석하여 파생 접미사의 목록을 확인하고 그 기능에 대해 정리한 논문이다. 명사 파생 접미사로는 '-옴/음', 부사 파생 접미사로는 '-거/긔, -고, -뎌, -디, -둑/득, -둘, -며, -아, -오, -이, -히, -ㅅ'와 영파생, 동사 파생 접미사는 '-ᄒᆞ-'와 사동의 '-이-, -오/우-, -호-, -히-, -기-'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부사 파생 접미사는 어미적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예가 다수 있으며, 피동 접미사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연구 방법론으로서 고대국어의 자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세국어의 언어사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도 강조하고 있다. **〈우리말 접사의 국어사적 고찰〉(김유범)**는 파생 접사에 대한 연구를 개관하고 기존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대별 접사 목록을 정리·제시하면서 특징적 사실을 검토하고 미해결의 연구 과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 피·사동접미사의 역사적 발달 양상과 중첩 현상, 부사 파생접미사 '-이'와 '-히'의 발달 양상 등을 향후 연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부사 형성 접미사 '-시-'에 대하여〉(박석문)**는 '애야ᄅᆞ시'를 '애야라, 애아라이'와 비교하여 접미사 '-시'를 추출하고, '애오라지'의 '-지'는 이 '-시'가 변화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3. 조사

조사에 관한 연구 성과는 특정 형태의 발달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성과가 돋보인다.

〈'-도록'의 의미와 문법에 대한 통시적 고찰〉(석주연)은 후기 중

세국어에서 "도급"과 "익심"의 의미를 지닌 '-도록'이 현대국어와 같은 의미 기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자료를 통해 확인한 논문이다. "익심"의 의미는 점차 쇠퇴하여 19세기 이후 보이지 않으며, "도급"의 의미는 문맥적 의미와 화용적 의미가 "정도"와 "결과"의 독립적 의미로 분화되고, 분화의 결과 '-도록 ᄒᆞ-'와 '-게 ᄒᆞ-'의 대치 관계를 형성하게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복합조사 '이라고'의 생성과 분화〉(이규호)는 '-이라고'의 용법을 부사격조사, 글 인용조사, 말 인용조사, 보조사의 넷으로 나누고, 각각의 생성 과정에 대해 검토한 논문이다. '-이라고'는 기원적으로 지칭문의 '-이라 ᄒᆞ야 V'가 문법화하여 형성된 것이며, 이 형식이 현대국어의 네 용법으로 분화되었다고 설명하고, 각각의 최초 출현 시기를 種德新編(1758), 독립신문(1896), 신학월보(1901), 순천 김씨묘 간찰(1565)로 밝히고 있다.

〈고대국어의 처격 조사〉(황선엽)는 이두와 향가 자료를 대상으로 사용 글자와 형태소의 대응 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처격조사의 목록(-中, -良, -良中, -矣/衣)을 확인하고 고대국어 처격 조사 연구에 있어 향후 과제를 제시한 글이다. **〈處所副詞格助詞의 用法考察〉(조재형)**도 같은 주제를 다룬 논문이다. 석독구결 자료를 검토하고 각 자료별로 용법을 정리한 점과 '良中'을 문법 기능의 변화와 독음의 변화로 보아 '아긔〉아히〉아이〉아ㅣ'의 가설을 세운 점, 15세기 국어와의 연관성을 해명하려 한 점이 구분된다. 후자에 대해서 〈고대국어의 처격 조사〉(황선엽)은 향후 과제로 보고 있다.

2.4. 높임법

〈통합형어미 '-습니다'류의 통시적 형성과 형태 분석〉(정언학)은 최상위 대우 표현인 '-습니다'류 어미의 형성 과정을 형태적 측면에

서 검토하고 공시적 분석 문제에 대해 논의한 논문이다. 평서형 어미 '-습니다,-습디다'와 의문형 '-습니까'는 'ᄉᆞᆸᄂᆞ이다〉ᄉᆞᆸᄂᆡ이다〉ᄉᆞᆸᄂᆡ다〉ᄉᆞᆸᄂᆡ다〉ᄉᆞᆸ니다〉습니다', 문어적인 '-리다'와 '-리까'는 '(ᄉᆞᄫᅥ)리이다〉(오)리이다〉(오)리다', 청유형 어미 '-읍시다'는 '(ᄋᆞᆸ)사이다〉(ᄋᆞᆸ)새이다〉ㅂ새다/ㅂ세다〉ㅂ시다', 명령형 어미 '-읍시오'는 청유형 어미 성립 후 '-다'가 명령형 '-오'로 교체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국어에서 '이'와 '습'은 형태 분석할 수 없으나 겸양의 '-습-'은 분석될 수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국어 대우법의 통시적 이해〉(윤용선)는 고대국어로부터 근대국어에 이르기까지의 대우법 체계의 통시적 변화와 종결어미의 형태 변화에 대해 논의한 글이다. 형태의 출현이 체계의 정착으로 이어졌다는 전제 위에서 청자 높임법 체계의 확대와 분화 과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형태의 출현은 절단 현상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방식은 후대로 갈수록 절단 범위가 확대된다고 설명하였다. 종결어미의 형태 변화에 대해서는 미해결 분야를 정리하고 가설을 제기하였다.

〈후기 중세국어 '-습-'의 기능〉(김현주)은 '-습-'의 존대 대상이 특정한 형식적 단위나 문법 관계로 범주화하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의미역 이론에 기대여 '수동자'의 의미역에 해당하는 존재가 존대의 대상이라 기술하고 있다.

2.5. 시상법

시상법 분야는 의미 있는 논저가 많이 발표되었다. 차후 연구에 있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한국어 미래성 표현의 역사적 연구〉(이병기)은 미래성의 문법 표현들을 확인하고 그 문법 표현들이 형태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형성된 것임을 입증하려 하였다. 논문은 미래성을 사태 미래와 인식

미래와 관련된 특성으로 규정하고, 미래성의 의미 범주를 추측과 예정, 의도와 약속, 명령과 청원, 조건과 목적으로 규정한 후 이 의미 범주를 나타내는 문법 표현을 문헌 자료에서 확인하는 순으로 전개되었다. 선어말어미 '-리-'와 선어말 구성으로서 명사구 보문 구성 '-ᄋᆞᆫ 거시-, -ᄋᆞᆫ 양이-, -ᄋᆞᆫ디-, -ᄋᆞᆫ 듯ᄒᆞ-', 동사구보문 구성 '-고져 ᄒᆞ-, 오려 ᄒᆞ-, -으라 ᄒᆞ-, -게 ᄒᆞ-, -게 되-' '-을가 식부-', '-아/어 가-', 종결어미로서 명령형, 청유형, 약속형 어미와 '-ᄋᆞᆫ'계 의문형어미, 접속어미로서 조건의 '-거든, -으면, -ᄋᆞᆫ뎬', 목적의 '-오려, -으라, -고져, -과뎌', 관형사형어미 '-ᄋᆞᆫ'을 미래성의 문법 표현으로 확인하고, 이들 문법 표현이 기본 형태 '-ᄋᆞᆫ, -게(거), -고-'가 확대되어 발달하는 과정을 논의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무관한 형태들을 공통 특징으로 묶음으로써 형태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설명적인 문법 체계를 구성하는 데 의의를 지니는 작업이라 판단된다. 다만 각 문법 표현들의 통시적 변화 과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쉽게 느껴진다.

〈상 이론과 보조 용언의 역사적 연구〉(정언학)은 현대 일반 언어학의 상 이론을 정리한 위에 보조 용언 구성의 상적 특성에 대해 논의한 연구이다. 이 책은 크게 중세국어의 보조 용언의 상적 특성과 문법화를 다룬 1부와 보조용언으로서의 '시-'와 '-고 잇-'구성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 연구한 논문을 수록한 2부로 나뉜다. 2부는 기존의 연구 성과이므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1부는 'V-어 V', 'V-고 V'의 형식으로 실현되는 중세국어의 보조용언 구성의 용례를 검토하고, 그 기능을 상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보조용언 구성을 크게 비상적(非相的)인 것과 상적(相的)인 것으로 분류한 후, 상적 구성을 미완료의 상과 완료상으로 구분하고, 다시 미완료의 상을 결과 상태 지속과 과정 지속으로 나누고 있다. 또 문법화의 정도에 따라 '발전된 단계의 구성', '분포의 제약을 지닌 구성', '초기적 발달 단계

의 구성'으로 분류하여 문법화의 과정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중세국어 보조용언 구성에 대한 자료 분석과 체계화의 방법은 차후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세국어에서 형용사와 결합하는 '-어 잇-'의 상적 의미〉(박진호)에서는 형용사와 결합한 '-어 잇-'은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상적 의미를 나타내고, 결합하지 않는 형용사는 항구적 속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논증하고 있다. '일시성 - 항구성'의 의미 대립은 세계 여러 언어에서 확인되는 것이며, 현대국어의 정태동사에 결합한 '-고 있-'도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 밖에, 중세국어의 선어말어미 '-과-'를 실현 환경이 '-거-'와 다르고 감탄문에서는 '-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근거로 통합형이 아닌 단일 어미로 보고, 문법적 의미를 "강한 감탄"으로 파악한 **〈어미 '-과-'의 의미 기능에 대한 고찰〉(장요한),** 중세국어 '-니-'의 기능을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진술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단정 지어 일러주고자' 할 때 사용하는 '단정법'이라 규정하고, 둘째 설명법어미로 '-니라'의 '-니-'도 동일한 것이며, [+상관성] 장면이라는 사용 제약이 없다고 주장한 **〈중세 국어의 선어말 어미 '-으니-'에 대하여〉(조규태)**는 서법에 관한 연구이나 중세국어에서는 시상법이 서법에 바탕하여 표현되므로 시상법과 같이 다룰 수 있다.

2.6. 종결어미

〈인용문 형식의 문법화〉(이금희)는 인용문 형식에서 발생한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문법화 과정과 문법화 정도를 검토한 논문이다. 문법화에 관계하는 규칙으로 재구조화, 탈락, 축약, 융합, 생략을 들고 종결어미 '-단다'류와 연결어미 '-다고'류는 '재구조화〉탈락〉축약〉융합'의 과정을, 종결어미 '-다고'류는 위 과정에 '생략'이 더 포함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근대국어의 종결어미 연구〉(김성란)는 노걸대의 언해본 4종(번역노걸대, 노걸대언해, 몽어노걸대, 청어노걸대)에 나타내는 종결어미를 비교하여, 비대우의 종결어미(명령법은 예외)의 통합 양상을 검토하고 문헌별 분포를 통계 수치로 제시한 논의이다. 특정 문헌에 국한된 조사이고, 한정된 형태에 대한 검토이기 때문에 근대국어 종결어미 체계에 대한 기술은 아니고, 문법화나 기능 변화 등의 통시적 변화를 밝히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장숙영 씨의 〈노걸대·박통사류에 나타난 국어의 이음씨끝의 소멸〉과 〈노걸대·박통사류에 나타난 국어의 이음씨끝 변화 연구〉는 서로 관련된다. 노걸대, 박통사의 언해본 사이에 나타나는 연결어미의 교체 자료를 전자는 연결어미의 소멸로 파악하고 소멸 과정과 이유에 대해 검토한 것이고, 후자는 연결어미의 생성과 음 변화, 기능 축소의 유형으로 정리한 것이다.

2.7. 연결어미

〈15세기 국어 연결 어미와 보조사의 통합형 연구〉(박용찬)는 15세기 자료에서 확인되는 연결어미와 보조사가 통합된 형식을 대상으로 각각의 형태·통사론적 특징과 기능을 검토한 논문이다. 논문은 통합형 30개의 목록을 밝히고, 각각을 분류를 달리하여 구성 형식과의 상관성을 검토하였다. 즉 연결어미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연결어미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보조사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보조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있다. 논의의 결과 통합형의 의미 기능은 각 구성 형식이 본래 지녔던 기능의 총합에 해당하며, 형태론적으로는 공시적 분석에 있어서 통합형을 연결어미와 보조사로 분석하여 설명하는 것이 연결어미의 체계화에 유용함을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자료를 공시적 관점에서 정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연결어미의 문법화를 궁구함에 있어 기초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다만 의미 기능을 분석하는 기준이 좀 더 명료하게 제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근대국어 연결어미의 기능 연구〉(고은숙)은 동일 원문을 시기에 따라 달리 언해한 역학서의 교체 예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결어미의 생성과 연결어미 간의 기능 조정에 따른 체계의 변화를 다룬 글이다. 전자의 예로는 "원인"의 '-매ᄂᆞᆫ -기에, -므로'의 등장으로 '-니, -거늘, -ᄅᆞ씨, -아'의 사용이 위축되는 현상을, 후자로는 중세국어 '-니'가 "전제", "대조"의 의미에서 "원인"으로 변화한 것을 들었다.

2.8. 구문 연구

통사구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었다. 예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분야라 하겠다.

〈인용동사의 문법적 고찰〉(안주호)는 근대국어의 인용동사를 분류하고 각각의 문법적 특징을 밝힌 글이다. 인용동사는 크게 대화 인용동사와 혼잣말 인용동사로 분류하고, 대화 인용동사를 다시 고유어계와 한자어계로 나누었다. 문법적 특징으로는 구문 형식과 피인용문(보문)의 문체법, 간접인용과 직접인용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釋讀口訣의 被動 表現〉(김성주)는 중국어의 '爲A所B' 피동문이 석독구결 자료에서 현토된 양상을 고찰한 논문이다. 이 구문의 현토 양상은 화엄경 계열과 유가사지론 계열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화엄경의 '-尸入乙'와 유가사지론의 '爲' 모두 피동만을 위한 형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려 시대에 피동이 문법 범주로 존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2.9. 단어

특정 단어의 문법적 기능이나 형성 과정을 다룬 성과가 이에 포함된다. 어휘론의 연구와 구별하기 어려웠으나 의미보다 문법 기능 규명에 치우친 연구로 제한했다.

〈형용사 '지다'의 형성과 역문법화〉(**김유범**)은 '-고 지고'에 나타나는 '지-'를 중세국어의 '-져, -져라, -거지이다, -고져, -아져'의 '-지'와 연관시켜 설명한 글이다. 소망의 형태소 'ㅈ'과 계사 '이-'가 결합해 생성된 선어말어미 '지'가 역문법화에 의해 어휘형태소로 쓰이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타동사 '*식다'를 찾아서〉(**김양진**)은 중세국어 '식브다'와 '시기다'에서 '*식다'를 재구하고자 한 글이다. 근거로는 '-브다'와 '-이-'의 구성 방식과 '시기다'의 형태구조, 중세국어의 '고디식다'와 구결자료의 '爲ㅅ, 爲只'를 들고 있다.

〈국어 의존명사 '것'의 사적 연구〉(**홍사만**)는 중세·근대국어에 나타나는 '것'의 용례를 중심으로 통합 관계와 의미를 분석한 논문이다. 어휘사적으로 '것'은 실질 명사가 추상화에 의해 외연이 확장된 것으로 '物(물건)'의 의미에서 '事(사실)'의 의미로 확대된다. 중세·근대국어에서 '것'의 통합관계는 현대국어와 큰 차이가 없으나 유의적 의존명사 'ᄃᆞ, ᄉᆞ, 줄, 이'와 동명사 표현에 위축되어 '사실'의 '것'의 출현 빈도가 높지 않았다. '것이다'와 '것ᄀᆞᆮ다'의 통합형은 현대국어와 차이가 없었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양영희 씨의 일련의 논문은 내용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 **〈15세기 2인칭 대명사 '너'와 '그듸'의 기능 비교〉**에서는 '유대' 자질을 도입하여 '너'와 '그듸'의 기능을 구분하고 있다. **〈중세 국어 '재귀대명사' 설정에 대한 재고〉**와 **〈중세국어 3인칭 대명사의 부류와 기능〉**에서는

재귀대명사 '즈갸, 자내, 저'를 '3인칭대명사'로 보고 3인칭 대명사 체계를 [+재귀성], [+주관성]을 지닌 1류와 [-재귀성], [-주관성]을 지닌 2류로 나누고 있다. **〈16세기 2인칭 대명사 체계〉**는 '자내'가 2인칭 대명사로 편입된 체계를 제시하고, **〈인칭대명사의 기능 변화 유형과 원인〉**에서는 '3인칭 대명사>2인칭 대명사'의 변화 양상과 원인을 정리하고 있다. **〈15세기 호칭어 체계 구축을 위한 시론〉**에서는 15세기 국어의 호칭어를 '명사형'과 '대명사형'으로 구분하고 '유대'와 '서열(power)'의 관점에서 체계화하려 하였으며, **〈중세국어 호칭어와 종결어미의 호응에 대한 재고〉**에서는 호칭어와 종결어미의 호응 양상을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려 하였다. **〈중세국어 시기 설정에 대한 단상-존대법과 인칭대명사를 중심으로〉**에서는 씨가 주장한 높임법과 대명사 체계의 차이를 근거로 15세기와 16세기를 구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10. 번역 양상

중세국어 문헌을 번역의 관점에서 검토한 성과가 이에 해당한다. 자료 연구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언어 사실과의 영향 관계를 중시하므로 구별해 보고자 했다.

〈諺解와 諺解書의 史的 考察〉(이호권)은 언해의 절차, 언해서의 체재, 번역 양상을 검토하고 이들이 서로 관련되는 관계에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언해 사업을 5기(1기 한글 창제~세조 2기 성종~임란 3기 임란~경종 4기 영조~정조 5기 순조~갑오경장)로 나누어 각 시기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소학언해의 구결체계에 대한 검토〉(윤용선)은 소학언해의 한글 구결 목록과 체계를 확인하고 불교 문헌과 비교하여 구결 체계의 사

적 변화에 대해 검토한 글이다. 소학언해의 구결 체계는 전대에 비해 간결화된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구결문의 문법체계가 언해문의 문법체계와 독립되는 과정으로 인식하여 소학언해의 구결 체계가 정착 고정된 단계임을 밝혔다.

순수 번역학적 관점에서 국어사 자료를 다룬 논의로는 **〈中庸栗谷先生諺解의 번역전략 연구〉(여찬영)**, **〈中庸諺解의 번역언어학적 연구〉(여찬영)**, **〈大學栗谷先生諺解의 번역학적 연구〉(여찬영)**가 있다. 모두 언해 자료에 나타나는 번역상의 특성을 정리한 글이다. 중용언해, 대학언해 모두 한문 원문에 정음 구결을 첨가하고 원의(原義) 유지를 위해 직역을 기본으로 하며, 그것은 한문 원문 한자를 적극적으로 연용하는 방식(연용법)으로 실현된다. 연용법에도 일정 경향이 있어 체언류 그대로, 용언류의 연용 한자는 '-ᄒᆞ(다)', 부사류는 '-히'를 접미하는 형식을 취한다. 한자 독음은 전통조선 한자음을 쓴다는 특성이 언해문의 언어 사실을 파악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다.

3. 국어사 자료 연구

특정 문헌이나 제한된 문헌을 대상으로 한 성과가 이 분야에 해당한다. 자료가 반영하는 언어 현상을 다룬 국어학적 연구와 문헌의 서지 사항을 다룬 문헌학적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문법사 연구와도 연결되나, 언어 체계를 논의하기보다 특정 문헌의 언어적 성격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연구는 자료 연구로 보았다.

문헌 연구로는 차자표기, 특히 석독 구결에 관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차자표기의 문헌은 한정되어 있고 연구 목적이 차자표기 체계의 정밀화에 있기 때문에 여타 문헌 연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차자표기는 함께 묶어 정리하는 것이 흐름을 파악하기 쉽다는 점도 고려했다.

또 새로운 자료가 아닌 기존 자료를 역주한 성과도 다루지 않았다. 역주 작업은 국어사 지식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자료의 교정 등을 통해 정확한 자료 이용에 도움을 주는 등 가치 있는 활동이지만 순수 연구 논문이라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만 논저 목록에는 실어 2006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3.1 국어학적 연구

〈대명률직해의 국어학적 연구〉(박철주)는 박사학위 논문 '대명률직해의 구문에 대한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14세기 중엽 이후의 국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대명률직해의 특정 이두 서술어가 보이는 구문을 분석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며, 문법형태 '-乙, -果, -及'와 현대국어와의 표현 차이에 대한 논의, 부정사(否定辭)와 처격 및 구격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씨가 발표한 일련의 논문 〈대명률직해 구문의 형식에 대한 연구〉, 〈대명률직해의 구문과 현대구문 간 표현 차이에 대한 연구〉, 〈대명률직해에 쓰인 이두 '급(及)'의 의미〉, 〈대명률직해의 구문상 표현 차이 연구〉, 〈대명률직해와 현대국어 간의 조사 '과(果)'의 쓰임 차이에 대한 연구〉, 〈대명률직해의 부정사에 대한 연구 -'부득(不得)'과 '안서(安徐'를 중심으로-〉은 이 책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특정 문헌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사서언해 5종을 비교 검토한 **〈사서언해의 비교 연구〉(김해정)**도 문헌 연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율곡본(1749), 교정청본(1590), 내각장판(1820), 전주본(1810), 영영 중간본(1862)의 5종을 문헌학적으로 고찰한 후, 번역 양식, 구결, 표기법, 음운, 문법, 어휘, 문장으로 나누어 언어적 사실에 대해 비교 검토하였다. 결과 문헌학적으로는 다양한 판본이

나, 국어학적으로는 '율곡본'과 '비율곡본'으로 대분되며, '비율곡본'은 교정청본이 근간이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후대의 내각장판, 전주본, 영영 중간본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유교에서의 사서가 지니는 위상 때문에 지극히 보수적이어서 언해의 변개가 별로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고, 19세기의 자료라도 그 안에는 중세국어의 요소가 상당 부분 들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조선후기 한글 간찰의 형식과 내용〉(백낙천)은 언간 자료 5종(고령 박씨 언간, 창원 황씨 언간, 순흥 황씨 언간, 연안 이씨 언간, 광산 김씨 언간)을 대상으로 표기 양상과 특징적 언어 사실을 검토한 글이다. 특히 재점(再點)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유형화하고 기능을 밝히려 한 점이 주목된다.

〈영건의궤(營建儀軌)류 차자표기 용자의 특성 연구〉(김연주)는 17세기 자료인 14개의 영건의궤 자료에 나타난 차자표기를 해독하고 251개 용자를 분석하여 표기법상의 특징을 검토한 글이다. 음가자의 비중이 높고, 독자(정차)의 사용이 여타 차자 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고유 한자의 출현과 종성표기의 변화를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육조법보단경(六祖法寶檀經) 언해(諺解)(상·중·하)에서의 '을/를' 표지, 무표지 양상에 대한 연구〉(박철주)는 '을/를'의 사용이 통사 구성에 따라 일정 경향을 보임을 밝힌 글이다. 지시관형사 '이, 그, 뎌', '므슴', '여러', '제'가 통합된 명사, 명사 '히(年)'와 '날', 대명사 '너', 동명사 '홈'의 지배를 받는 명사구에는 '을/를'이 반드시 쓰이며, 의존명사 '이'와 '번' 뒤에서는 '을/를'이 쓰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 있다.

〈明治時期 日本의 韓語 學習書 硏究〉(齊藤明美)는 일본 明治 시대의 한어 학습서 6종(明治13年刊 韓語入門, 明治13年刊 日韓善隣通語, 明治25年刊 日韓英三對話, 明治26年刊 日韓通話, 明治37年刊 韓

語會話, 明治42年刊 韓語通)을 소개하고, 일본어 면에서 明治37年本 交隣須知와 비교한 것이다. 부분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체계적인 기술은 아니고 주로 일본어의 개신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09刊 韓語通의 일본어와 한국어〉(齊藤明美)는 1909년 田間恭作이 간행한 韓語通의 서지 사항을 소개하고, 交隣須知와의 비교를 통해 사용된 일본어· 한국어 공히 당시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특정 문헌의 표기 양상에 주목한 연구로는 **〈근대국어 시기의 진언 표기 연구〉(안주호)와 〈온주법의 표기법 연구〉(서보월)**이 있다.

〈근대국어 시기의 진언표기 연구〉(안주호)는 이제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진언집(봉정사본 眞言集, 日用集, 불정심관세음보살 대다라니경, 結印法室)을 대상으로 표기 양상을 고찰한 글이다. 작은 사찰에서 독송용으로 제작된 자료였기 때문에, 표기가 정제되지 못하고 실제 발음을 그대로 적은 관계로 현실적인 음 변화가 반영되어, 원범어음이나 한자음과 달라졌다고 한다. **〈온주법의 표기법 연구〉(서보월)는** 18세기 후반의 필사 자료 온주법의 표기 양상을 검토한 글이다. 연철·중철·분철 표기, 모음 사이의 유기음 표기, 'ㄹㄴ, ㄹㄹ, ㄹㅇ'의 표기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근대국어 표기법과의 연계성을 고찰하고 있다.

〈문예독본류와 한글 문체의 형성〉(문혜윤)은 관점이 독특하다. 최남선의 시문독본과 이윤재의 문예독본을 비교하여, 시문독본은 한글과 한문을 혼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문예독본은 한글을 위주로 한 문장을 지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런 변화는 시대적 추이 외에 개인이 지향했던 문체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3.2. 문헌학적 연구

새로이 발견된 국어사 자료에 대한 소개로는 화암사판 부모은중경(1441)의 문헌학적 특징을 논하고 필사로 기록된 구결과 언해문의 특성을 검토하여 여타 언해본과의 이본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佛甲寺 所藏의 花岩寺版 父母恩重經에 대하여〉**(정재영), 후기 근대국어의 편지 자료를 발굴하여 서지적 사항과 방언적 성격(대구 지역 중심의 남부 경북 방언)을 밝힌 **〈동래정씨 소장편지급지문집(便紙及祭文集)의 자료적 성격과 특징〉**(김무식)이 있다. 한글 반절표를 원용한 가요 자료를 소개한 **〈월본산취월정언셔상ᄉᆞ가〉**(황선엽)도 같은 성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의 발굴과 해석은 국어사 자료의 질적· 양적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학계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에 대한 재평가로는 **〈한글고문서의 연구 현황과 과제〉**(홍윤표)이 두드러진다. 논문이지만 단행본에 필적할 만큼 방대한 분량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글 고문서의 개념과 역사, 연구 현황과 과제, 효용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국어사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고문서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고문서의 개념을 공적 성격을 지닌 문서로 제한하지 않고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성책(成冊)되지 않은 기록류로 확대하고, 일반인의 생활 속에 사용된 한글 기록들은 언어생활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언어 연구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언어 생활사의 정립을 위해서도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서지 사항에 대한 연구로는 〈純國文 이태리건국삼걸젼(1908)에 대하여〉(정승철), 〈속사씨남정기의 서지·국어학적 연구〉(백두현), 〈'陋巷詞'의 文獻學的 考察〉(김석배)를 들 수 있다. **〈純國文 이태리**

건국삼걸젼(1908)에 대하여〉(정승철)는 본서의 번역자가 주시경이 아니고 '리현셕'임을 「월남망국ᄉᆞ」와의 번역 태도, 표기 양상의 비교를 통해 논증하고, 근대적 개념어와 문명어의 번역과 정착 과정에 있어 순국문자료가 지니는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속사씨남정기의 서지· 국어학적 연구**〉(백두현)는 필사 양태와 언어학적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속사씨남정기의 필사 연대가 18세기 중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陋巷詞'의 文獻學的 考察**〉(김석배)은 '누항사'의 원전 확정을 위한 논의로, '누항사'가 실린 네 문헌(목판본 노계가집, 고사본노계집, 노계선생문집, 악부)의 서지적 사항을 밝히고 각 이본 사이의 차이를 검토하여, 노계선생문집에서 노계가집의 원전이 의도적으로 변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밖의 문헌 연구로는 불교 강독 자료에 치중된 현 중세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서 삼강행실도가 가지는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해 기술한 〈**중세국어 문법 교육과 언해본 三綱行實圖**〉(김유범)와 石峰 千字文과 비교·검토하여 註解 千字文의 새김이 제시 구문 안에서의 문맥 의미를 중시하는 새김을 다는 특색이 있음을 밝힌 〈**註解 千字文의 單數字釋과 文脈之釋의 반영에 관하여**〉(박병철)이 있다.

4. 문자 · 표기법

이 분야에서는 차자표기에 대한 연구가 특히 활발하였다. 반면 한글(훈민정음)과 표기법의 연구는 단편적인 언급에 그친 느낌이 없지 않다.

4.1. 차자표기

차자표기 특히 석독구결(자토, 점토)에 대한 연구는 그 성과가 괄목할 만하다. 2006년의 연구 성과는 석독구결의 해독과 체계 수립에 있어 국어학계의 연구 능력이 일정 단계에 올라섰음을 보여 준다.

많은 연구 중에서도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2〉(이승재 외 공저)**은 특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 책은 11세기말엽 혹은 12세기 초엽 자료인 성암고서박물관 소장의 周本 華嚴經 권36의 각필구결을 해독하여 정리한 업적으로, 연구논문, 판독과 해독 및 번역, 각필 점토 색인의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의 연구논문에는 〈付點口訣의 記入位置에 대하여〉(이승재), 〈佐藤本 華嚴文義要訣의 新羅時代 點吐口訣 硏究〉(김영욱), 〈周本 華嚴經 권제36 點吐口訣의 解讀〉(박진호), 〈연세대 소장 각필 묘법연화경의 조사(助詞)〉(이전경), 〈구결자 'ㅕ'와 구결점 '43(＼)'〉(김성주)이 실려 있어, 각필 구결의 체계와 해독에 대한 논의와 연구 성과에 대해 알 수 있다. 2부의 해독 부분에서는 화엄경 권36의 모든 각필 구결을 문자 구결로 옮기고 현대어로 번역하였다. 공동연구회의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현 학계의 衆智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책은 2005년에 나온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1〉(이승재 외 공저)**과 더불어 각필 구결의 체계를 규명하였다는 가치 외에 후기 중세국어 이전의 국어사 연구를 위한 언어 자료를 확보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구결 자료를 확보하고 해독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 노력도 꾸준히 집적되었다.

〈六祖大師法寶檀經의 구결 연구〉(남경란)은 아직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檀經의 구결 자료를 대상으로 각 이본의 문자 체계와 형태

서지 및 구결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高峰和尙禪要의 구결 연구〉(고정의)**는 이본 6종 8권에 나타난 문자 체계와 구결의 표기 양상을 살피고 구결의 목록을 정리하였다. **〈晉本 華嚴經 卷第20의 點吐 解讀〉(박진호)**는 周本 華嚴經의 점토 체계와 비교하고 字吐 석독구결 자료의 연구 성과를 활용해 진본 화엄경의 점토를 해독하고, 점토와 자토의 대응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구결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월례 강독회의 성과를 정리한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11)~(14)〉**도 같은 유형의 연구로 볼 수 있다. 이 일련의 논문은 황선엽, 김선영, 이병기, 정진원 씨가 권8의 15장 4행부터 권8의 끝인 21장 15행까지를 담당하여 세밀하게 정리한 것으로, 학계의 점토 석독구결 연구의 성과가 잘 반영되어 있다.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고대국어의 자료를 차자표기의 관점에서 검토한 **〈武寧大王 出土 銘文들에 대한 語學的 考察〉(권인한)**과 **〈廣開土大王碑文의 吏讀的 要素〉(이용)**도 유사한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위 논문은 모두 이두와 한문의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구별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고대 국어 자료의 이두적 요소를 밝히기 위해서는 한문 한자 표현에 대한 정밀한 검토 위에서 결론을 내리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차자표기의 정확한 해독을 위한 연구로는 점토구결의 체계가 유가사지론과 화엄경의 두 계열로 구분됨을 밝히고 그러한 점토 체계의 특징이 부호의 사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찰한 **〈점토 체계의 특징이 부호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장경준)**, 점토석독구결의 체계를 자토석독구결의 체계와 비교·검토하여 독법을 명확히 하고자 한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에서 '故'자에 현토된 구결점의 해석〉(장경준)**, 舊譯仁王經의 'ㄴ'는 '붓'으로 읽어야 함을 설명한 **〈석독구결의 구결자 '火'과 'ㄴ'에 대하여〉(장경준)**이 있다. **〈願往生歌의**

해독에 대하여〉(황선엽)는 석독구결 자료 및 15세기 국어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향가 원왕생가의 해독을 검토하고 정밀한 해독을 시도한 논문이다.

차자표기의 연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韓國의 口訣〉(정재영), 〈上古時代에 있어서 借字表記法의 발달〉(남풍현), 〈吏文과 漢吏文〉(정광), 〈角筆의 起源에 대하여〉(김영욱)를 들 수 있다. **〈韓國의 口訣〉(정재영)**은 그간의 구결 자료에 대한 연구 성과를 체계화하고 정리한 논문이다. 구결 연구 입문의 역할과 차후 연구에 대한 제안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上古時代에 있어서 借字表記法의 발달〉(남풍현)**은 금석문 자료를 통하여 차자표기법이 발달양상을 고찰한 논문으로, 한국어적 어순, 국어의 특수한 용법으로 쓰인 한자, 한자의 훈을 이용한 표기의 세 특징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 **〈吏文과 漢吏文〉(정광)**은 조선시대의 '이문'이 중국 元나라에서 사용한 공식 문어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이문과 이두의 차이에 대해 논하고 있다. **〈角筆의 起源에 대하여〉(김영욱)**은 인도의 구술문화에 이용되던 각필이 7세기경 중국 유학승을 통해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2. 훈민정음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는 문자 연구, 문헌 연구, 외적 사실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 그 성격이 다르나 훈민정음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강조하여 함께 묶어 정리하고자 한다.

문자 연구로는 **〈훈민정음 제자 원리와 육서(六書)〉(안명철)**이 있다. 육서의 원리가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여하히 반영되었는가를 논의

한 글로서, 상형은 자음의 기본자, 지사는 자음의 가획자, 모음자, 회의는 병서와 연서, 모음의 합용자에 대응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자해의 원문을 태극사상과 음양오행 등의 역학적 관점에서 해설한 **〈訓民正音 制字解와 초성의 易學思想〉**(**황경수**)도 이에 포함될 것이다.

문헌 연구로는 훈민정음 혜례본의 배면 문자 등 서지적 사항을 검토한 **〈훈민정음 해례본의 겉과 속〉**(**김주원**)이 있다.

외적 사실을 다룬 논문으로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유출 과정 연구〉**(**박종덕**)가 있다. 해례본 훈민정음의 소장 경위와 세간에 알려지기까지의 과정을 논증한 글이다. 경상북도 안동시의 긍구당이 출처이며, 이용준이 무단으로 유출하여 매도함으로써 전형필 씨에게 전달된 것이라 밝히고 있다.

김슬옹 씨의 일련의 논문은 독특한 관점에서 기술되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우리나라와 말글' 명칭 번역 담론〉**는 훈민정음(해례본)을 현대어로 번역한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國之語音, 東方, 諺語, 諺-, 方言俚語'를 '우리나라 말, 동방겨레, 토박이말, 우리나라말/토박이 말, 우리나라 세속말'로 옮길 것을 제안하고 있다. **〈'훈민정음'의 명칭 맥락과 의미〉**은 문자 체계 '훈민정음'의 명칭이 세종의 다중 전략에 의해 명명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訓民正音(해례본)의 간행 책으로서의 담론과 교육 전략〉**은 창제일과 한글날의 관계, 원본 발견의 과정, 저술자에 대한 논의, 해례본의 구성 체재 등 책자로서의 훈민정음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수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4.3. 표기법

연구 논문으로서 표기법에 관한 성과는 미비했다. 특히 현대국어의 표기법에 대한 논의가 빈약한데, 현 대학생들의 작문 자료를 대

상으로 띄어쓰기의 오류 양상을 검토한 **〈국어의 띄어쓰기 오류 분석〉(김상태)**이 유일할 듯하다.

〈상해판 독립신문 국문시의 문체와 표기법 양상〉(호광수)는 1920년대 전후의 자료인 국문시가의 사용 문자와 표기 양상(구두점, 띄어쓰기, 종성표기, 분철 표기)을 검토한 것이다. 한문, 국한문, 국문의 세 문체가 공존하며, 표기 양상은 후기근대국어의 표기법 경향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개화기 교과서의 종성표기와 어간 어미 분리표기에 관하여〉(정길남)는 개화기에 간행된 교과서(국민소학독본(1895), 소학독본(1895), 신정심상소학(1896), 녀ᄌᆞ독본(1908), 부유독습(1908), 초목필지(1903))를 대상으로 종성 표기와 분철 표기의 양상에 대해 검토한 글이다.

5. 국어학사

국어학사는 연구 대상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기술 범위가 달라진다.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정의에 따른다. 문자 체계와 표기법은 전장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국어 연구의 경향이나 논저, 국어학자, 언어 정책, 국어생활을 대상으로 한 연구만을 다루기로 한다.

국어생활에 관한 연구로는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백두현)와 〈근대계몽기 여성의 문자 생활〉(허재영)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백두현)는 음식조리서와 여성교육서를 대상으로 여성 교육 측면의 문자 생활에 대해 논의한 글이다. 조선 시대에 간행된 음식조리서(필사본 30종)과 여성교육서(간본7종, 필사본29종)의 문헌 정보를 밝힌 후, 필사본의 필사 관련 요소(저자, 필사자, 필사자수, 서문, 발문, 필사기, 사용문자(서명, 본

문), 서체와 필치 등)를 세밀히 정리하여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 각 요소별로 특징적 사실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 문헌의 내용을 검토하여 생활적 측면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논문에서 검토된 결과와 실증적 연구 방법은 차후 국어생활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큰 가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근대계몽기 여성의 문자 생활〉(허재영)은 19세기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의 여성 교육 교재를 분석하여 여성의 문자 생활을 검토한 글이다. 근대식 여학 제도가 확립되기 전에는 가정 중심의 교육으로 한글 필사본의 교재가 주를 이루었고, 제도 확립 이후에는 한자가 포함된 교재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여성들의 문식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연구 논저를 대상으로 한 성과로는, 주시경의 국어문법(1910) 짬듬갈의 기술 내용을 현대 언어학의 관점과 접목하여 고찰하고 재해석하여, '끗'은 서술구, 복합동사구, 서술절을, '잇'은 명제문을, 전성어미 '-기, -은/을, -게, -이'는 명시적이지 않지만 명제문을 지배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밝힌 **〈어미의 지배 범위에 대한 주시경(1910)의 인식〉(김정대)**, 「국어문법」, 「우리말본」, 「신편고등국어문법」의 조사 체계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설명하고, 상관관계를 밝힌 **〈주시경, 최현배, 정열모의 조사 체계 비교〉(이정택)**, 국어 연구 초기의 학자, 이완응의 朝鮮語發音及文法(1926)과 (中等教科)朝鮮語文典(1929)를 비교하고 국어학사적 의미를 재조명한 **〈朝鮮語發音及文法의 '문법'편과 (中等教科)朝鮮語文典〉(최웅환)**이 있다.

연구사를 다룬 논의는 3편이 검출되었는데, 기술 방식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

〈국어 사동 범주의 연구사〉(최성덕)는 사동법과 관련된 형태론과 통사론의 기존 연구를 총괄하여 개관한 글이다. 현대국어에 대한 연구와 중세·근대국어에 대한 연구로 구분하여 기존 논저들의 내용을

요약·기술하고 있다. 나열식 기술이어서 연구 경향 및 과제와 같은 흐름을 파악하기에 미흡했다.

〈**국어 조어론 연구의 어제·오늘**〉(**하치근**)은 주시경에서부터 현대까지의 조어법 연구를 전통문법적 연구(1910년 이후), 구조·기술문법적 연구(60년 이후), 변형생성문법적 연구(80년 이후), 인지문법적 연구(90년 이후)로 나누어 시기별 연구 경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앞 두 장은 연구사적 기술이나, 뒤 두 장은 형태론의 이론 소개에 치우쳐 있어 전형적인 연구사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국어 문법론 연구의 어제와 오늘**〉(**한영목**)은 품사 분류, 조사와 격실현, 구문도해에 대한 현황과 과제, 외국 이론의 수용 태도를 비판하고 자생적 체계를 정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객관적인 사실보다 비판적 시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언어 정책을 다룬 성과로는 1934년 '한글' 11호부터 19호에 실린 기사들을 중심으로 조선어학회의 통일안 보급 노력에 대해 검토한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 보급을 위한 조선어학회의 활동**〉(**김덕신**)이 있다.

이 밖에 한글날 관계, 한글의 가치 등에 관한 기사가 다수 있으나, 연구 논문의 성격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논저 목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6. 맺음말

2006년의 국어사 관련 연구 성과를 문법사 연구, 국어사 자료 연구, 문자·표기법, 국어학사로 나누어 보면 국어사 자료 연구와 문자·표기법의 비중이 높고, 본격적인 국어학사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함을 알 수 있다. 문자·표기법 연구의 대부분은 석독구결에 관한 것인데 넓은 의미에서는 국어사 자료 연구와 통하므로 자료를 중심으

로 한 연구가 2006년의 추세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비단 2006년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최근 몇 년간의 추세이므로 2006년이라 해서 특별한 변화한 것은 없다고 하겠다.

문법사 연구는 주제 면에서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다만 통사구성이나 구문에 관한 연구가 예년에 비해 줄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또 차자표기 자료를 이용한 고대국어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舊譯仁王經 발견 이후 꾸준히 집적된 석독구결의 해독과 자료 발굴의 성과가 본격적인 국어 연구로 정착되어 가는 단계라고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국어사 자료 연구는 가장 활발한 연구를 보인 분야이다. 그러나 차자표기(특히 석독구결)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면 풍족했다고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개별 문헌들의 연구 성과가 쌓임으로써 시대별 공시적 연구가 충실해질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한글 자료에 대한 문헌 연구에도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문자, 표기법 역시 차자표기를 빼면 두드러진 성과가 보이지 않으며 양적으로도 많지 않다. 기존의 연구 성과가 일정 수준에 올랐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학계의 관심이 너무 한 쪽으로만 쏠린 것은 아닌가 하는 감을 지울 수 없다.

국어학사 연구는 양적으로 많지 않았으나, 언어·문자 생활에 대한 관심과 논저가 눈에 띈다. 차후 좀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된다. 또 현대의 언어 생활, 언어 교육과 관계된 연구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2006년의 국어사 분야의 연구 성과를 대략적으로 정리하였으나 필자가 미처 다루지 못한 귀중한 업적이 다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다룬 연구 역시 그 내용을 잘못 전달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다. 필자의 준비가 부족하고 능력이 미흡하여 발생한 일이므로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며 널리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2. 국어 생활 분야

국어정책 · 사회언어학

손 희 연
(연세대학교)

1. 머리말

이 글은 2006년도에 발표된 국어 관련 연구 논저들 중에서 국어정책과 사회언어학 분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의 성과와 동향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국어정책·사회언어학 관련 문헌 목록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그 목록에 포함된 논저들 중에서 한국어교육, 국어교육, 국어정보학, 문자·표기 등의 분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은 제외하였다. 반면에, 지역어 조사 관련 보고서들은 방언의 통사론, 형태론, 음운론 등의 세부적인 논의가 아니라 국어정책적인 차원에서 언급할 만한 것들이기에 이 글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어정책과 사회언어학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학술적 성격이 적은 글들(소식지의 칼럼 등)은 지면상의 문제로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국어정책은 크게 보아 사회언어학의 한 분야로 취급해야 마땅하겠으나, 이 글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먼저 관련 논저들을 국어정책과 사회언어학의 두 분야로 나누고, 다시 각 분야를 8-9개의 하위 분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각 하위 분야에 속하는

논저들은 단행본, 학위논문, 일반논문의 순으로 배열하였고, 그 내에서 다시 필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2. 국어정책

2.1. 남북 언어 비교 및 통일

2.1.1. 단행본

『남북 통일말 사전』(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편)은 남북 언어의 차이를 상세히 밝히어, 남북 사람 모두가 서로 말이 통할 수 있도록 꾸민 것으로, 남과 북에서만 각각 쓰이는 이질화된 어휘를 〈남북말사전〉과 〈북남말사전〉으로 구분하여 엮고, 그 뜻풀이 및 대응어를 제시하여 남북 언어의 비교, 연구,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 사전은 〈북에서 잘 모르는 남의 말〉 5,000개, 〈남에서 잘 모르는 북의 말〉 5,000여 개를 수록하였으며,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및 관용구를 두루 선정, 반영하였다.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권재일)는 북한에서 이루어진 우리말 문법 연구의 성과를 검토하고 이를 남한의 문법 기술과 대조하여 서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이 책은 북한에서 발간된 교육용 규범문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대표적인 이론 문법서, 특히 2005년 발간된 「조선어학전서」를 참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먼저 북한 문법 연구의 성격을 서술하였다. 북한의 언어관, 북한의 문법서, 문법 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서술하였다. 제2장은 단어에 대한 서술이다. 조어론과 품사론을 대조하여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장은 문장에 대한 서술로서 문장성분, 문장의 유형, 문장의 확대 구성을 대조하여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문법범주에 대한 서술이다. 구체적으로는 격, 문장종결, 높임, 시간, 사동, 피동, 부정 표현 등을 차례로 대조하여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음운론과 의미론에 대한 서술이다. 제6장은 위에서 논의한 표준화 방안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결론으로 삼았다.

2.1.2. 박사 학위 논문

『남북한 국어 교육과정과 국어과 교육의 내용 비교』(손병출)는 남북한의 국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비교하였다. 이 논문은 먼저 남한의 교육과정 변천과 국어과의 특징을 북한의 소학교 교육과정과 국어과의 특징과 비교하고 남북한 국어 교과서 편찬의 특징과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남북한 국어 교과서 내용의 단원별 주제 및 영역, 문종, 어조 등을 비교하면서 북한에만 있는 단어와 우리말에 있지만 낯선 느낌을 주는 말 등을 정리하였다.

2.1.3. 석사 학위 논문

『남·북한 말다듬기 비교 연구』(박은배)는 남과 북의 말다듬기(국어 순화) 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먼저 남한과 북한의 말다듬기 정책 및 사업을 비교·분석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다음으로 남북한 말다듬기의 실제를 공통 대상어로 살펴본 남북한의 말다듬기와 동일한 낱말의 의미 차이로 살펴본 남북한의 말다듬기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남·북한 맞춤법 비교 연구: 통일방안 모색을 위하여』(이은주)는 남북한의 맞춤법을 비교하고 그 통일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논문은 먼저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의 요인으로서 양측의 언어관 및 언어정책의 차이를 분석하고, 남북한의 맞춤법 변천 과정을 살폈다. 다음으로 남북한의 맞춤법을 체재, 총칙, 자모의 수와 순서 및 이름, 소

리, 형태, 띄어쓰기 등의 측면에서 비교하고 각 측면에 필요한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2.1.4. 일반 논문

"통일언어철학의 탐색방향"(고영근)은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이질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으로서 양쪽의 언어철학을 통합하여 제3의 새로운 언어철학을 정립하고 이를 어문정책과 언어연구의 기조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언어철학의 정립을 위해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언어를 주체적이고 생동적인 힘으로 파악하였다. 남북한 언어 이질화를 극복할 수 있는 통일언어철학은 '민족어 발전철학'으로서 남북한 고유의 언어적 자산과 문화에 뿌리를 둔 단어형성법과 문장표현법을 개발하는 메타이론이며 동시에 정보화시대에 대비하는 언어문화의 정체성 확보의 바탕이 된다. 논문은 '민족어 발전철학'을 발판으로 삼아 '민족어 순화운동'을 범민족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우리의 언어문화를 통합하고 세계문화를 주도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남북한 맞춤법 통일 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박동근)는 남북한 맞춤법 규정 가운데 두음법칙에 관련하여 앞서 제기된 맞춤법 통일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동시에 언어적 합리성과 실천 가능성을 갖춘 통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논문은 두음법칙이 남북한 언중의 발음실현이나 통시적인 면에서 남과 북에 있어서 여전히 유효하며, 실천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북한의 언중이 두음법칙을 익히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남한의 언중들이 새롭게 한자어의 본음을 익혀 어두에 'ㄹ, ㄴ'을 가려 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두음법칙에 관한 통일된 표기는 남한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좋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남한과 북한의 언어 문화에 관한 고찰"(이주행)은 공적인 상황

에서 쓰이는 텍스트를 분석하여 남한과 북한의 언어문화를 비교, 고찰하였다. 분석의 결과, 남한이 언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 간주하는 데에 반해 북한은 국가 수호와 사회주의 혁명의 도구로 간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북한에서는 주체성을 강조하고 언어규범을 중시하며 최고 통치자를 우상화하고 그 통치자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언어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면 남한에서는 사대주의가 잔존하고 탈규범적인 언어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北韓 '말다듬기 사업'의 漢字語 관련 對應語 연구"(崔尙鎭, 金鎭海)에서는 북한의 '말다듬기 사업'의 주요 대상이었던 한자(어)가 어떤 대응어로 연결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다듬은 말' 중에는 한자의 발음을 그대로 전사하거나 고유어로 바꾸더라도 한자의 기본 의미를 그대로 반영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북한의 말다듬기 사업이 직역의 한계, 즉 한자어에 대한 의미적 관련성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아울러 북한의 국어사전에서 다듬은 말의 변모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다듬은 말'을 실제 사용하면서 발견되는 어휘적 공백을 보충하거나 의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2.2. 지역어 조사

2.2.1. 단행본

2004년부터 시작된 남북 지역어 조사 사업의 2006년 보고서(국립국어원)는 총 9권이다.

각 지역의 구술발화, 어휘, 음운, 문법 등을 전사·기술한 보고서의 조사 지점을 살펴보면, 『강원 지역어 조사 보고서』(연구 책임자: 김봉국)는 강원도 양양군 서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기 지역어 조사 보고서』(연구 책임자: 최명옥)는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경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연구 책임자: 김정대)는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경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연구 책임자: 김무식)는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연구 책임자: 이기갑)는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전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연구 책임자: 소강춘)는 전라북도 무주군 서면,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연구 책임자: 강영봉)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충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연구 책임자: 한영목)는 충청남도 논산시,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연구 책임자: 박경래)는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을 조사 대상 지역으로 하였다.

『지역어 조사 질문지』(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는 남과 북이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인 지역어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 질문지는 급격한 사회 변화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어를 어휘, 음운, 문법의 고유 어형뿐만 아니라 문장과 담화 차원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었다. 이 질문지는 제1편, 구술 발화, 제2편 어휘, 제3편 음운, 제4편 문법 등 네 분야의 질문지로 이루어졌다. 제1편은 해당 지역어의 일상어를 구술 형식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제2편에서 제4편까지는 조사자의 질문을 통해서 각 항목에 대한 해당 지역어형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2.3. 국어능력 향상

2.3.1. 단행본

『국어능력 조사방법 연구1』(국립국어원, 연구 책임자: 김성규)은 국어기본법 제9조에 명시된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한 연구의 결과이다. 이 보고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국어능력 가운데 읽기, 듣기, 쓰기 능력에 대한 실태 조사

방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존의 연구 및 언어능력에 대한 실제 평가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표본 추출 방법, 조사 방법, 조사 점수 체계, 지수 산정 방법, 국어능력 측정 도구 틀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국어 능력 조사의 주기적 실시, 예비 검사의 실시, 본 검사의 실시 등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말하기능력 측정도구 개발1』(국립국어원, 연구 책임자: 장경희)은 국어기본법 제9조에 명시된 '국민의 국어능력 검정'을 위하여 말하기 능력 측정 도구 개발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말하기 능력 평가의 항목 및 기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말하기 능력의 개념 및 평가 내용에 대한 기존 연구와 국내외 말하기 능력 평가 사례를 검토하고 말하기 평가에 관한 요구 및 말하기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말하기 능력 평가의 항목 및 평가 기준 시안을 제시하였다.

2.3.2. 일반 논문

"말하기 능력 평가에 관한 요구 조사 연구"(장경희, 권우진, 김순자, 김정선, 김태경, 이필영, 전은진)는 국민의 말하기 능력 평가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의 요구를 분석하고, 말하기 능력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말하기 능력 평가에 대한 요구 분석을 위해서는 설문 조사의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설문 내용은 말하기 능력 개선 노력과 개선 영역에 대한 요구, 말하기 능력 평가 방식에 대한 요구, 말하기 능력의 평가 항목별 의사소통 기여도, 현행 말하기 능력 평가의 실태와 개선점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는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조사의 결과를 통해 말하기 능력 평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요구를 파악하였고, 말하기 능력 평가의 방식과 항목에 관한 기초적 통계 자료를 구축하였다.

2.4. 신문·방송 언어 개선

2.4.1. 단행본

『방송 언어 경어법 개선을 위한 연구』(국립국어원, 연구 책임자: 정희창)는 에스비에스(SBS)와 공동으로 방송에서의 경어법 오용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는 프로그램별 내레이션의 경어 사용 태도 분석, 방송 언어의 경어 사용에 대한 의식 조사, 경어법의 변화 양상 분석, 사회자 발화에 나타난 경어 사용 분석, 호칭어 '님'과 '씨'의 사용 분석, 방송 언어에서의 주체 과다 높임 현상 등의 개별 논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방송 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교수법과 교재 개발』(국립국어원, 연구 책임자: 정희창)은 문화방송(MBC)과 공동으로 방송 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교수법과 교재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는 방송 언어의 발음 교육, 글쓰기(보도문, 교양 프로그램 등) 교육, 방송 화법(인사말, 호칭과 지칭, 경어법, 소개하는 말 등)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5. 국어 순화

2.5.1. 단행본

『2006 우리말 다듬기 자료집』(국립국어원, 연구 책임자: 박용찬)은 국립국어원이 동아일보, 동아닷컴 등과 함께 개설하여 운영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지난 2004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쓰인 외래어,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은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집에는 '웰빙'('참살이'로 순화), '스크린 도어'('안전문'으로 순화) 등 총 116개의 다듬을 말이 다듬은 말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집은 특히 '다

듬을 말의 용례', '다듬은 이유', '다듬은 말 선정 과정', '다듬은 말의 용례' 등으로 구분하여 우리말 다듬기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2.5.2. 일반 논문

"국어 순화어의 생성과 정착에 대하여"(심지연)는 국어 순화어의 생성 과정과 생성된 순화어의 정착 여부를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국어 순화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고찰한 논문이다. 이를 위해 논문은 국어 순화의 역사, 국어 순화의 방법 등을 문헌과 자료 등을 통하여 요약·정리하여 제시하였고, 개선 방향으로 순화 작업 확인 사업과 언중들의 활발한 참여 유도를 제안하였다.

2.6. 전문용어 정비

2.6.1. 단행본

『전문 용어 정리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국립국어원, 연구 책임자: 조동성)는 전문용어 정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전문용어 정비 및 관리를 위한 표준화 절차와 방법론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는 먼저 전문용어의 정의 및 전문용어 정리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연구하고 국내외 전문용어 정비 사례 및 관련 기구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말 전문용어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전문용어의 어문규정 준수 문제, 조어법 문제, 의미 문제, 원어 차용 시 대역 기준 문제 등의 문제들에 대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문용어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최종보고서』(국립국어원, 연구 책임자: 김평)는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전문용어 관리 및 검색 시스템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여 전문용어 표준화 작업을 원활하게 진

행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대한 보고서이다. 전문용어 지원 시스템 구축은 2006년과 2007년 2개년에 걸쳐 수행되는 사업으로 1차년도인 2006년에는 전문용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와 통합 대상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의 분석을 바탕으로 2007년 최종 구축을 위한 사전 작업이 이루어졌다.

2.7. 어문 규범 및 정책

2.7.1. 단행본

『국어의 맞춤법 표기』(이종운 편)는 1998년에 나온 초판을 개정한 2판으로 '한글맞춤법' 고시 이전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 시대부터 문제가 되어 온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설과 예시를 보여주었다. 예시는 각종 참고서적에서 다루어진 것에서 선택하였고 필요한 문법 사항도 학교문법에 기준하여 다루었다. 학교문법 시간의 단순하고 공식적인 해설만으로는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되거나 구체적인 구별 기준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편자 고유의 방식으로 해설하고 정리하고 있다.

『바른소리(일본어판)』(국립국어원, 연구 책임자: 최혜원)은 일본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의 발음을 소개하고 일본어 학습자가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도록 설계된 시디이다. 녹음 기능을 통해서 원어민과 학습자의 발음을 비교하면서 학습자의 발음을 평가할 수 있게 하였고, 특별히 문장의 억양 높이도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2.7.2. 석사 학위 논문

『한국어의 러시아어 표기에 관한 연구: 지명을 중심으로』(김지윤)는 지명을 중심으로 한국어의 러시아어 표기 방법에 대한 연구

논문이다. 이를 위해 논문은 먼저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음소 체계를 비교하여 대조 분석표를 만들고, 표기법의 기준 설정 도입을 위해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북한의 로마자 표기법을 대조한 후에 표음 원칙에 기반한 표기법을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러시아의 기존 학자들의 연구를 검토한 후 한국어의 러시아어 표기법을 제안하였다.

『한글 맞춤법·표준어의 사용 방안 연구: 서울 지역 20대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김철순)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젊은이들의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의 사용을 준수하게 하는 방안을 연구한 논문이다. 이를 위해 논문은 표준어의 제정 경위와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의 제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조사 대상자들의 실제 사용 실태 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외래어 표기법 연구』(황재성)는 외래어 표기법의 변천 과정과 문제점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속에서 연구한 논문이다. 이를 위해 논문은 먼저 외래어의 정의에서 출발하여 외래어 표기법의 변천을 살피고,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를 기본 원칙, 표기 세칙, 인명 및 지명 표기 원칙 등의 측면에서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논문은 외래어 사용의 문제를 외래어의 남용, 잘못된 외래어의 발음, 일본식 외래어 발음 사용 등으로 나누어 살피고, 간판, 상표, 인명, 지명 등 생활 속에 나타나는 예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이러한 외래어 표기법이 7차 교육과정의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2.7.3. 일반 논문

"현행 정서법에 어긋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김홍석)는 표기법과 띄어쓰기와 더불어 의미역의 부분에서 현행 정서법이 적절한 규정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표기에서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 '줏다, 택, 복숭아뼈, 먹거리, 뻘쭘하다, 고동, 아구, 꼼장어, 윗글, 예초기, 짝퉁, 불나비/불나방'등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어류의 이름 중 일본어 '아나고'도 외래어로 인정하며, ㅎ종성체언과 관련된 어휘들의 일관적인 규칙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또한 띄어쓰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와 '그동안'을 붙여 쓰는 것이 타당함을 지적하였고, 마지막으로 의미역 부분에서는 '껍데기/껍질'이 유의어로 인정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국어 띄어쓰기 規定의 改善案 연구"(朴錠奎)는 국어의 띄어쓰기 규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행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이 가진 문제점으로는, 우선 10개 조항 가운데 대부분의 항목이 띄어쓰기의 대원칙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경제적 규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외에도 세부조항이 10개 항이나 제시되고 있지만 각각의 조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띄어쓰기의 기준 또한 단어라는 기준 이외에 음절 및 전문용어라는 이질적 기준이 제시되는 등 일관성이 없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띄어쓰기 규정에 반영되어 국어의 띄어쓰기 규정이 보다 쉬운 띄어쓰기 규정이 될 수 있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표준발음법의 理想"(裵株彩)은 국어의 표준 문법, 어휘, 표기 및 발음에 대한 규정이 유기적으로 잘 짜여 제시되지 못했고 언어변화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표준발음법의 이상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표준발음법의 구성요소로는 음소뿐만 아니라 변이음과 초분절음도 포함할 필요가 있고 현실발음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통일의 원칙과 규칙화의 원칙에 따라 사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표준발

음법 규정은 사전의 발음표시와 함께 필요한 존재로서 이는 문서로 뿐만 아니라 매체를 통해서도 공표되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 표준표기법과 표준발음법이 순환론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규정이 되려면 표준표기법을 발음과 관련짓지 않고 서술하고 표준발음법은 표기를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표준 발음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신지영)는 현행 표준 발음법이 전체 어문 규정 속에서 의도했던 바와 실제로 규정을 통해 의도한바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전체 규정의 구조 속에서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발음법과 그와 관련된 규정으로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표준 표기의 발음법' 즉 '한글 맞춤법에 맞춰 쓰인 표기형을 어떻게 발음하는(읽는)지'에 관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논문은 표준 발음법이 표준 표기 발음법이라면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발음형의 용례, 즉 발음 사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표준 발음법 규정을 '표준어의 발음법'으로 한다고 해도 이를 어문 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어색한데 이는 규정 대상이 아니라 기술 대상이기 때문이다. 논문은 변화하는 소리 표준어를 묶어두는 규정을 만드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소리 표준어의 내용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연구 작업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발음 사전이나 연구서, 발음 교육서 등을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글이름 로마자 표기에 관한 제언"(양병선)은 한글이름 영자표기의 원칙과 한글이름에 사용되는 547자의 로마자 표기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국가대표선수 2,122명의 인명로마자표기 실태와 영어 1음절어 15,297개 단어를 분석하여 영어 철자와 발음이 보이는 상관성을 제시하였다. 현재 인명로마자표기는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이러한 혼란은 한글 자모를 영자가 아닌 추상적인 로마자로 바

꾸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음운변화를 이해하여만 표기할 수 있으며 성씨표기를 이름과는 다른 원칙에 따라 표기하기로 함으로써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한글이름에 사용되는 547자, 그리고 한자 이름에 사용되는 482자 중 중복된 268자를 제외한 761자에 대한 표기를 통일시키는 것이 급선무임을 지적하고 있다.

""짜장면"을 위한 변명 -외래어 표기법을 다시 읽는다-"(연규동)는 1986년 개정·고시된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를 살피고 있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서 제시된 기본 원칙 다섯 개 중 특히 세 조항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데, 제1항, 제2항 그리고 제4항의 된소리 표기에 대한 것이 그것이다. 논문에 따르면, 제1항은 표기하는 문자의 개수를 다룬 것으로 여기에서 규정된 24개 이외의 다른 글자들도 표기에 이용되어야 하고, 제2항은 실제 많은 예외가 있으므로 폐지되거나 명시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제4항의 된소리 표기 금지 조항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비현실적인데 이러한 된소리 표기 금지 조항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관용화한 외래어의 경우는 금지 방침에 좌우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문장 부호 사용 실태의 조사 분석"(이승후)는 현행 국어 문장 부호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가장 대중적 접근성이 높은 인쇄 매체인 신문에서 문장 부호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살피고 있다. 더불어 텔레비전과 인터넷의 문장 부호 오용 실태도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현행 문장 부호 규정의 문제점을 찾고 그 대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신문에서 쓰이는 문장 부호로는 낫표의 쓰임이 절대적이며 줄임표는 현행 규정의 6점(……)이 아닌 3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더불어 신문과 방송, 인터넷 모두에서 잘못 쓰는 문장 부호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큰따옴표(" ")였다. 한편 꺾쇠표(〈 〉, 《 》)나 낫표(「 」, 『 』), 밑줄표(_) 등은 새로운 문장 부호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명과 도로명의 로마자표기에 관한 제언"(정경일)은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명과 도로명의 표기 방식이 불러일으키는 문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은 현행 로마자 표기법이 표기 대상과 표기 문자를 명확히 한정하지 못하고 그 결과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지명이나 도로명에서 해당 지명이나 도로명의 특성을 반영하는 접사적 성격을 지닌 후부요소와 후부요소가 결합하는 전부요소를 나누어 보고, 전부요소는 영어 알파벳을 이용하여 발음대로 표기하고 후부요소는 영어 단어로 표기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한강'의 표기는 'Han River'가 되고 '세종로'는 'Sejong Street'가 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표기는 궁극적으로는 로마자표기가 아닌 영어표기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준어 정책과 교육의 현재적 의미"(최경봉)는 표준어가 규정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서, 근대 어문정리 시기의 표준어 인식 양상, 당시 표준어 정립의 시대적 요구, 표준어 논쟁의 쟁점 등을 밝혔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표준어 규정 및 표준어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말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표준어 정책의 전개 방향을 논하였다.

"일제 강점기의 국어 정책"(최용기)은 1910년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의 일제 강점기의 국어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저자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있던 국어 정책 추진 기관으로 일제가 의도적으로 일본어를 보급하기 위해 만든 '조선총독부'와 대한제국이 만든 학부 안의 '국문연구소'를, 조선의 민간 조직으로 '조선어학회'와 '조선어학연구회'가 있음을 들고 있다. 조선총독부의 국어 정책을 전개 방식과 특성에 따라 '무단 통치 시대', '문화 통치 시대', '강압 통치 시대'로 나누어 소개하였고 대한제국 시기의 국어 정책으로는 '언문 철자법'의 제정, '국어사전' 편찬 작업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아

울러 주시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선어학회의 국어 운동과 박승빈을 중심으로 진행된 조선어학연구회의 국어 운동에 대하여도 소개하였다.

"이태준의 근대 소설에 반영된 식민지 어문정책과 민족어의 성격"(안미영)은 이태준의 소설 〈실낙원 이야기〉와 〈패강랭〉에 반영된 근대 식민지 어문정책을 밝히고 있다. 〈실낙원 이야기〉가 교수어로 강제된 일본어의 위상을 보여주고, 〈패강랭〉에서 제도적인 교육의 장에서 소멸의 길을 걷는 조선어 교과의 운명을 드러내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논문은 이태준의 어문운동이 가장 적극적으로 실현된 예를 일제의 식민지 언어정책을 비판하는 이러한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주장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태준의 소설에 구현된 한글(조선어)은 그 자체로 민족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이태준이 그의 소설에서 '민족어'를 통해 조선적인 것을 환유해 내며 당대 조선적인 것이 직면한 운명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었음을 논하였다.

"말소리의 정책과 교육"(이상태)은 우리말의 말소리에 관한 정책과 교육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말 말소리 정책은 어휘의 표기법 정하기와 표준 발음법 정하기가 있는데 이때 {ㄹ}, {ㄴ} 계 한자에 대한 표기와 비음동화 어휘의 표준 발음법 설정이 특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을 지적했다. 우리말 말소리 교육에서는 표준어 음소의 인식과 통달, 표기법의 통달, 음소체계에 관한 지식 및 체계구현 실습을 통한 탐구, 음운 규칙에 관한 지식 및 규칙 구성 실습을 통한 탐구 등 네 개 영역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말 말소리에 대한 인지론적 내지 구성주의적 훈련은 보편교육 체제 내에서 이루어지기에는 이론 구성이나 교육 내용의 구성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 함께 이해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2.8. 소수자를 위한 언어정책

2.8.1. 단행본

『신나는 점자놀이/점자놀이 학습 자료』(국립국어원, 연구 책임자: 박중휘)는 기존의 점자 익히기 책자와는 달리 청각과 촉각, 미각을 함께 사용하면서 놀이를 통해 재미있게 점자를 익힐 수 있게 만들었으며, 묵자로 된 내용, 촉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기본 점자, '신나는 점자놀이'와 '가게 놀이' 노래가 수록된 시디, 6점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음성 키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점자놀이 학습 자료는 손으로 눌러서 간단한 낱말을 쓰고 뒤집어서 바로 읽어 볼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시각 장애 유아들의 소근육 운동 기능의 강화와 함께 점자의 위치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점사랑』(국립국어원, 연구 책임자: 시각장애인연합회)은 비시각 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자를 쉽게 배우고 입력할 수 있게 해 주는 점역용 소프트웨어이다. 2006년 개정·고시된 「한국점자규정」에 맞는 점자 도서를 제작할 수 있고, 점역 교정사를 비롯하여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점자 문서를 제작·출력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특수 부호 예제와 점역 원칙 연구』(국립국어원, 연구 책임자: 한국시각장애재활교육학회)는 각 영역별 특수 부호의 제정 및 활용 예제집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점역에 필요한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사용상의 오류와 혼란을 막고 점자 도서 점역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이 보고서는 도표나 그림, 각주, 구두점, 비문자 기호, 점역자 주 등 6개 영역별 점역 원칙을 제시하였고, 그에 대한 다양한 예제를 보여주고 있다.

『한글 3종 약자』(국립국어원, 연구 책임자: 한국점자연구회)는 한글 3종 약자의 효율성에 대한 문헌 연구와 개인 약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95개의 약자와 1,280개의 약어를 제시한 연구이다. 이

보고서는 약자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추천 약자 23자와 추천 약어 151개를 선정하여 실생활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는 특정한 사회 집단 및 개인에 대해 차별적인 언어 표현과 사회적 사건이나 사실의 전달 과정에서 나타는 비객관적인 언어 표현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가능한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이 보고서는 신문, 방송, 그리고 인터넷 언론에서의 해당 표현을 조사 및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를 양성 불평등 관련 표현, 신체적 특성 관련 표현, 인종·국적·지역 관련 표현, 직업 및 사회적 지위 관련 표현, 정보의 객관성 관련 표현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그 조건에 따라 분명한 대안 제시가 가능한 경우, 관점에 따라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경우, 문제는 있으나 대안 제시가 어려운 경우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8.2. 일반 논문

"새터민(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 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 방안"(김석향)은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의 하나인 새터민이 경험하는 언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고 그 상황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여 적합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논문은 먼저 새터민과 면담하는 과정을 통해 이들이 경험하는 언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사소통 장애와 해결 방안"(김승국)은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서 문제를 가질 수 있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의사소통의 장애와 그 해결 방안을 논한다. 이를 위해 논문은 청각

장애인과 건청인, 시각 장애인과 정안인, 언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지체 장애인과 비장애인, 정신지체인과 비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의사소통상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외 계층 언어 실태와 그에 대한 바람직한 언어 정책"(김하수 외)은 『새국어생활』 2006년 봄호의 특집 좌담을 정리한 글이다. 이 좌담에서는 국립국어원의 김하수 언어정책부장이 사회를 보고, 김승국 교수(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왕한석 교수(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김석향 교수(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윤인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조선경 연구원(한국어세계화재단) 등이 참석하여 우리 사회 내의 다양한 소외 계층들이 겪는 언어 문제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언어 정책의 방향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언어 문제와 해결 방안"(왕한석)은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 여성의 언어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논하였다. 이 논문은 먼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현황을 살피고 연구 대상 지역 이주 여성의 언어 적응에 관한 사례와 한국어 사용 능력의 수준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어 학습의 일반적 상황을 정리한 후에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사회 통합을 위한 언어 정책"(윤인진)은 우리 사회 내의 다양한 소수자들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사회 통합 정책의 일환으로서 언어 정책이 갖는 의미와 기능을 논하였다. 이 논문은 먼저 사회 통합의 의미와 조건을 밝히기 위해 국제관계론, 사회학, 인종·민족관계론 등에서의 사회 통합 연구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사회 통합과 언어 정책의 관계를 설정하고 한국 사회 내의 다양한 소외 계층의 언어 실태를 살핀 후에 소외 계층을 위한 언어 교육 및 정책은 '관용적 동

화주의'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 문제와 대응 방안"(조선경)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사용 실태 및 한국어 교육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 대응 방안을 논하였다. 이를 위해 논문은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한국어 사용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한국어 사용의 실태 및 교육에 대한 요구 사항이 성별, 국적별, 체류 기간에 따른 사증(비자)의 종류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고용주들의 인식 및 요구 사항도 조사하여 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2.9. 기타

2.9.1. 단행본

『언어 경관 조성 장기 계획 연구』(국립국어원, 연구 책임자: 김란기)는 옥외 광고물을 중심으로 한 '언어 경관'을 정비, 개선, 조성하고자 하는 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외국의 사례와 시범지구의 운영과 홍보 상황을 살피고, 주민 참여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학제적 협력과 지역 거점 마련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연도별 추진 계획을 세우고 그 기대 효과를 예측하는 연구도 진행하였다.

『한글 이미지화 및 산업화 전략』(국립국어원, 연구 책임자: 신승일)는 한글을 이용한 문화 콘텐츠의 생활화 및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이라는 목적 아래 한글의 이미지화 및 산업화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고 장기적인 전략 방안을 모색하였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한글을 이용한 문화 산업의 현황을 살피고, 그 대안으로 전문가 그룹과 산업계, 정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활용 방안과 한글 이미지화 및 산업화에 대한 대 국민(외국인) 홍보 방안을 제안하였다.

3. 사회언어학

3.1. 매체 언어 연구

3.1.1. 단행본

『신문 문장 이해』(고창운)는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그 쓰임에 문제가 있는 표현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로잡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한쪽으로만 여론을 몰고 가려는 감정적이고 상투적인 표현들, 주어가 불분명한 서술어, 어려운 한자말, 직역된 영어, 일본어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지적하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바른 표현을 소개하였다.

『인터넷 통신 언어와 청소년 언어문화』(이정복, 양명희, 박호관)는 통신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언어 변화를 예측하고 청소년의 언어문화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책은 청소년기의 사회문화적 특징과 통신 언어와의 관련성, 청소년들이 만들어내는 새말의 창의적 측면, 청소년 언어문화의 한 코드로 자리 잡고 있는 비속어의 일상적 사용, 경어법 사용 양상, 스스로의 언어생활에 대한 청소년들의 자기 평가, 통신 언어와 관련된 국어 교육의 과제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3.1.2. 석사 학위 논문

『한일 웹 게시판언어 비교연구』(고정현)는 한국과 일본의 웹 게시판 언어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논문은 먼저 통신언어의 발생 동기와 게시판 통신언어의 특징을 살피고 한국과 일본의 웹 게시판 통신언어의 특성을 표기, 어휘, 음운, 문법 등의 측면에서 비교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상이점이 갖는 사회언어학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방송 광고 언어의 사회언어학적 고찰』(김현실)은 방송 광고에 사용되는 언어의 특성과 의미를 사회언어학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논문은 먼저 사회적 의사소통 체계로서의 광고 언어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광고 언어에 나타난 사회상을 시대 의식과 생활 양식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논문은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광고 언어를 바라보면서 광고 언어의 영향력, 국어 교육에서 본 광고 언어의 문제점, 광고 언어가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국어 교육에 주는 시사점 등을 정리하였다.

『통신 언어의 특징과 실천적 교육 방안』(이윤경)은 통신 언어, 특히 청소년 통신 언어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하고 이것을 국어 교육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하였다. 논문은 먼저 통신 언어 및 청소년 언어의 성격을 덧글 게시판과 휴대전화 문제메시지를 통해 살펴보고 통신 언어의 국어학적 특징을 음운 및 표기, 문법, 어휘 등의 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초·중·고 교과서에 반영된 통신 언어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천적인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간판 언어 분석을 통한 국어사용 실태 조사: 전주시내 간판을 중심으로』(이윤희)는 전주시내의 간판 언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어 사용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논문은 먼저 간판 언어 및 국어 정서법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후 간판 언어의 문제점을 외국어·외래어 남용, 일본어의 잔재, 유행어·속어의 사용, 표기상의 오류 등의 네 측면에서 지적하였다. 특히 논문은 간판에서의 표기상의 오류를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의 네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정서법 규정 자체의 문제와 사용자들의 문제로 나누어 지적하였다.

『통신 언어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이은영)는 인터넷 통신 언어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연구하

였다. 논문은 먼저 통신 언어의 정의, 특징, 생성 원인 등의 이론적 배경을 살피고 설문 조사를 통해 얻은 사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통신 언어의 형태적 구성상의 문제점과 통신 언어 사용의 교육적·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교육적, 개인적, 기술적,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인터넷 통신 언어의 연구』(조상진)는 인터넷 통신 언어의 언어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올바른 사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논문은 먼저 통신 언어 발생의 원인과 특징을 살펴보고, 통신 언어의 특성을 음운적인 측면, 어휘상의 측면, 이모티콘의 측면 등에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인터넷 통신 언어의 필요성과 방향을 분석하고, 인터넷 통신 언어가 사회 교육과 학교 교육을 통해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제안하였다.

3.1.3. 일반 논문

"통신 이름에 나타난 정체성 표현의 양상"(김정우)은 다양한 언어 기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통신 이름 즉 이메일 아이디를 통해 사용자들이 가상 사회 내에서 정체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양상을 관찰하고 있다. 논문은 총 471명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각 개인이 사용하는 통신 이름 1044개를 수집하고 이들 통신 이름이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통신 이름이 만들어지는 데에 바탕이 되는 정보들로는, 자기 정보, 자기특성 정보, 주변인 정보, 우상의 정보, 사물 정보, 지향 이미지 정보, 별명 정보, 단어 정보 등을 들 수 있다. 전체 통신 이름의 39.4%는 현실 사회에서 통용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만들되, 그 조합에서 창조성을 발휘한 것들이었고, 나머지 60.6%는 자신이 주관적으로 선택한 정보를 창조적으로 조합한 것들이었다.

"고등학생들의 비규범적 통신 언어 사용과 국어 교육의 과제"(박

호관, 이정복)는 언어 규범의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통신 언어 사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어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를 살피고 있다. 분석 자료는 서울과 대구 지역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쓴 통신 언어와 모둠 일기에서 가져온 것이며, 통신 언어는 구체적으로 게시판 언어(미니 홈페이지), 대화방 언어(메신저), 전자편지 언어(일반 전자편지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이다. 사례 및 통계 분석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음운 및 표기'와 '형태 및 통사' 모든 영역에서 비규범적 통신 언어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인터넷 통신 언어 자료에 나타난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의 방언 사용 실태"(이정복)는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의 인터넷 통신 언어 자료에 나타난 방언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방언이 어떠한 조건과 맥락에서 잘 쓰이며 그 효과 또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자료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인터넷 및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통신 언어이며, 음운, 문법, 의미의 전반적인 면에서 드러나는 방언의 특징적인 쓰임 및 방언형과 통신 언어 영역의 관련성, 나아가 방언의 사용 조건과 맥락, 사용의 동기를 분석하였다. 지역 방언은 예상과는 달리 인터넷 통신 공간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방언이 자기 영역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일제 시대 광고 언어의 특징 연구"(서은아)는 광고 언어에 대한 통시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일제 시대 광고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당대의 광고 언어의 특징을 밝힌다. 이 논문은 상업적인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한 유형인 광고를 관련 시대의 문화와 생활상, 나아가 당대의 언어생활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다루며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온 광고 언어에 대한 통시적 연구의 의의를 강조하였

다. 분석의 대상이 된 주된 자료는 일제 시대(1910~1945)의 조선일보, 매일신보, 동아일보에 실린 한글 광고와 국한문혼용의 광고이며 이들 광고에 나타나는 언어의 구조, 표제와 본문, 슬로건과 광고주의 사용 양상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현대와 구한말 시대 독립신문에 게재된 광고 언어와 부분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정체성의 또 다른 표현: 전자우편 아이디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오현아)는 온라인상의 아이디를 전자우편에 국한해 그 사용 실태와 양상을 파악하고 그 의의를 살피고 있다. 논문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전자우편 아이디 작성 시 고려된 사항과 전자우편 아이디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학교급별, 학년별, 남녀별로 그 차이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학생들의 전자우편 아이디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고,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신문 방송 언어의 실태와 언어 규범"(이동석)은 규범 지향적이면서도 현실 언어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신문 방송 언어가 규범과 현실 사이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 규범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표기 면에서는 경음 표기와 사이시옷 표기를, 발음 면에서는 장단의 구별 문제, 'ㅐ'와 'ㅔ'의 구별 문제, '닭, 꽃, 밭' 등의 받침 발음, 경음 발음, 연구개음화 된 발음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들과 관련된 규정들이 모두 일반 언중들의 언어 및 신문 방송의 언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어문 규정이 현실 언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실제 언중들의 언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신문 제목의 유형 및 그 실현 양상"(정여훈)은 우리나라 종합 일간지의 사회면에서 실제로 사용된 신문 제목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기존의 문법론적 시각을 벗어나 텍스트언어학적 관점에서 이들 신

문 제목을 유형화하고 그 실현 양상을 고찰하고 있다. 일간 신문 사회면에서 나타나는 신문 제목은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성에 따라 정보 전달형 제목과 관심 유도형 제목으로 구분되는데, 정보 전달형 제목에서는 기사에서 다루어지는 정보가 제목에서 직접 제시되고 있고 관심 유도형 제목에서는 기사에서 다루어지는 정보가 제목에서 간접적으로 제시되거나 제시되는 정보량이 최소화되었다. 논문은 신문 제목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통해 그간 편집자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졌던 제목 작성에 작용하는 원리를 밝혔다.

3.2. 국어사용 실태 조사

3.2.1. 단행본

『공공기관 누리집의 언어 사용 실태』(국립국어원, 연구 책임자: 조태린)는 국어기본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국어책임관의 2006년 활동을 평가하고 공문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언어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한 것이다. 27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는 기관별로 누리집 초기화면과 누리집에 등록된 보도 자료에서 문제가 되는 단어나 표현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유형(외래어·외국어 사용, 어문 규범 준수 여부, 낱말 사용, 문장 표현 등)으로 나누고 그 정도에 따라 다른 벌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어책임관 활동의 필요성을 재확인시키고 공공기관의 언어 사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새터민 언어 실태 조사 연구』(국립국어원, 연구 책임자: 문금현)는 2005년에 나온 『새터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실태 조사 대상 새터민의 수를 확대하고 설문 조사, 어휘 테스트 외에 담화 표현 설문 조사와 심층 면접을 추가하였다. 이 보고

서는 1차적으로 새터민의 남한 사회 적응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1차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새터민이 어려워하는 담화 표현이나 언어문화적 적응실태 및 사회적 적응 실태에 대한 2차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터민의 적응 실태를 밝히고 어휘 및 담화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령별·계층별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연구 1』(국립국어원, 연구 책임자: 김덕호)은 일반적인 관계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학력별 호칭어·지칭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장관계와 친구관계 및 기타관계(사회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호칭어·지칭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연령(세대별), 계층(학력별), 성(남녀별)을 변수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직장관계와 친구관계에 해당하는 설문 항목은 남성용 59항목, 여성용 59항목이고, 기타 관계(사회관계)는 46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92년에 확정된 표준 화법의 수정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언어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호칭어·지칭어를 선정하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외래어 및 외국어 인지도 조사 보고서』(국립국어원, 연구 책임자: 양명희)는 최근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외래어·외국어로 된 시사용어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이 조사는 '블루오션', '매니페스토' 등 10개의 시사용어와 '바우처', '클로스터' 등 10개의 문화관광부 용어를 대상으로 국민들의 이해도를 파악하여 지역, 권역, 지역규모, 성, 연령, 교육수준 등의 응답자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3.2.2. 석사 학위 논문

『중·고등학생들의 높임법 사용 실태 연구』(김현영)는 중·고등학생들의 높임법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높임법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지도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다. 논문은 먼저 높임법에 대한 중·고등학생들의 의식과 사용 실태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지도 방안을 지도의 내용(의식, 원리)과 방법(교과 학습 시간, 일상생활)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3.2.3. 일반 논문

"텔레비전 어린이 만화에 나타난 국어사용의 문제점: 지상파 방송 3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구현정, 정수희, 김해수)는 어린이 만화 프로그램을 언어 사용에 초점을 두어 살피고 있다. 만화 프로그램은 영상과 언어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만화에 사용된 언어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데, 특히 문법 습득이 완성되고 어휘 습득이 활발히 진행되는 시기의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언어 사용 환경으로서 조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논문은 어린이들이 비교적 많이 시청하는 16시에서 18시 사이 방영되는 지상파 방송 3사의 어린이 대상 만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폭력성과 선정성 등이 프로그램명과 부제명, 등장인물명과 주제가, 대사에서 어떤 언어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기술하였다.

"국어 사용 실태 연구의 내용과 방법론에 대한 고찰(김호정)은 언어 계획(language planning)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로서 행해지는 국어 사용 실태 연구의 최근 동향을 고찰함으로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의 내용과 방법론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다. 국어 사용 실태는 '국어공동체의 국어 사용 실태'로서 정의되었으며 국어 사용 문제의 계획 및 실천이 행정적으로 수행되는 문화관광부의 국어민족문화과와 국립 연구 기관으로 정책 기획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국립국어원의 연구 동향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되었다. 국어 사용 실태 연구를 '국어 특질', '국어 능력', '국어 의식·태도', '국어 생

활', '국어 사용 화자/필자의 특징' 및 '국어 사용역'에 대한 내용 연구로 분류하여 각 분야 연구가 내용과 방법론의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경어법 사용 실태 분석 -대구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이정복)는 대구 지역의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제보자로 하여 그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상위자인 교사와 부모에게 경어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호칭어와 높임 어휘, 주체 및 객체 경어법과 청자 경어법의 범주에서 청소년들의 경어법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친밀성의 강화', '교사에 대한 부정적 표현의 증가', '새로운 경어법 관련 형식의 등장'과 같은 경어법 사용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논문은 우리말의 가장 중요한 범주의 하나로 인식되는 경어법의 쓰임 실태를 자세히 확인하고 앞으로의 경어법 변화 및 화자의 나이 단계에 따른 경어법 사용 차이를 밝히기 위한 비교 자료를 구축하였다.

3.3. 대조사회언어학

3.3.1. 단행본

『한국인과 일본인의 언어행동과 문화의 차이』(신혜경)는 종래의 경어 연구가 경어법을 문법 틀 속에서 정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연구해 온 것을 비판하면서, 경어의 사회적, 문화적 기능과 사회와 시대에 따른 변화를 연구하였다. 이 책은 특히 한국의 경어는 절대 경어이며, 일본의 경어는 상대 경어라는 통념에 의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책은 대학생, 주부, 직장인 남성들의 대우 표현법의 특성을 살펴보고, 한국과 일본의 대우 표현법의 특징 및 대우 행동의 핵심을 각국의 사회적 상황과 연관 지어 비교·분석하였다.

3.3.2. 박사 학위 논문

『독일과 한국의 청소년언어 특성 연구』(곽은하)는 독일과 한국의 청소년 언어의 특성과 기능을 비교·분석하였다. 논문은 먼저 청소년의 개념 및 특성 그리고 청소년 언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독일과 한국에서 이루어진 청소년 언어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독일과 한국의 청소년 언어의 특성을 음운·표기, 어휘·의미, 조어·통사, 텍스트 등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고, 이러한 청소년 언어의 기능을 의사소통 기능, 사회적 기능, 심리적 기능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한일 언어행동의 대조사회언어학적 연구』(권은숙)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의례 표현과 요구 표현의 언어행동을 대조사회언어학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논문은 먼저 언어행동의 정의와 분석 범위를 확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주요 의례표현의 장면별 언어행동을 비교·분석하였는데, 여기에는 인사, 위로, 칭찬, 병문안, 축하 등의 언어행동이 포함되었다. 또한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주요 요구 및 응답 표현의 장면별 언어행동을 비교·분석하였는데, 권유, 생일초대, 양해, 거절, 의뢰 등의 언어행동이 그것이다.

『한 · 일 양언어의 젠더표현의 대조연구』(이혜영)는 한국과 일본의 언어에서 나타나는 젠더표현을 비교·분석하였다. 논문은 먼저 생물학적 성과 구별되는 젠더의 개념을 정의하고 구미와 한국, 일본 등에서 이루어진 젠더표현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인칭대명사, 문말 표현, 여성관사와 남성관사, 속담 등에 나타나는 젠더표현을 비교·분석하였다.

『한 · 일 호칭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한영옥)는 한국과 일본의 친족 호칭을 사회언어학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논문은 먼저 친족의 개념 정의와 함께 한국과 일본의 친족 범위와 친족어의

의미 용법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에서의 부부호칭이 각각 조사 지역과 대상자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양국의 친족 호칭의 차이점을 정리하였다.

3.3.3. 석사 학위 논문

『한·일 신조어의 비교연구』(김대희)는 한국과 일본의 컴퓨터 통신언어에서 나타나는 신조어를 비교·분석하였다. 논문은 먼저 컴퓨터 통신언어의 정의, 발생 배경, 변화 추이를 밝히고, 각국의 컴퓨터 통신언어의 구체적 사용례를 보였다. 다음으로 논문은 양국 컴퓨터 통신언어의 언어학적 특성을 음운, 문법, 어휘, 표기 등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리한 양국의 신조어 일람표를 제시하였다.

『한일양국의 외래어 사용에 관한 연구: 양국 신문을 중심으로』(여준기)는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 신문에서 나타난 외래어 사용 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논문은 먼저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를 밝히고 외래어가 유입되어온 양국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중앙일보와 일본의 아사히신문의 7일분에 나타난 외래어의 사용 실태를 분야별로 정리·비교하였고, 각국 신문에서의 외래어 사용 빈도, 어원이 같으나 그 쓰임새가 다른 외래어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한·일 외래어의 표기체계에 대한 음운론적 비교고찰: 영어 차용어를 중심으로』(백혜준)는 한국과 일본의 외래어(특히 영어에서 차용한 외래어) 표기체계를 음운적으로 비교하고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논문은 한국어, 일본어, 영어의 분절음 체계를 비교하고 영어에서 차용한 외래어 1,026개가 한국어와 일본어의 모음체계와 자음체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비교·고찰하였다.

3.4. 변이 연구

3.4.1. 박사 학위 논문

『현대 국어의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오새내)는 20세기 수도권 지역 출신 거주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수의적인 음운 현상으로 보았던 몇 가지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들을 언어 사용자들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밝히고, 이를 사회언어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논문은 먼저 언어 변이 현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언어 변이의 분석 방법론과 도시 방언 평준화 모형과 언어사회유형론의 틀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고유어와 한자어에서 어중경음화의 변이 현상, 복합어 내부 ㄴ삽입의 변이 현상, 한자어 내부 ㄴㄹ연쇄의 변이현상 등의 실현 경향과 변이 양상을 살피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과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강원도 영동 방언의 음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이상녀)는 강원도 영동 방언의 음운을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논문은 먼저 조사 지역을 선정·개관하고 제보자 선정 및 자료 조사 과정 등을 밝힌 후에 제보자들의 방언에 대한 선호도, 계승 의지, 사용 태도 등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영동 방언의 음운 체계와 음운의 변리 현상, 즉 단모음 실현 양상, 비모음화, 움라우트 현상, 고모음화, 단모음화, 어두 경음화, 유기음화, 구개음화, 자음군 단순화, 어중 자음 실현 양상 등을 연령별, 성별, 학력별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하였다.

3.4.2. 석사 학위 논문

『대구 지역어의 세대 간 단모음 실현 양상 비교 연구』(장혜진)는

대구 지역어에서 세대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단모음 실현 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논문은 대구 지역 20대 화자와 40대 화자의 단모음 실현 양상을 비교함과 동시에, 대구 지역 화자와 서울 지역 화자의 단모음 실현 양상을 비교하였다.

3.4.3. 일반 논문

"천안·아산지역어와 대구지역어에 나타나는 w탈락현상의 비교연구-대학생 언어를 중심으로"(강현석, 이장희)는 Labov의 계량사회언어학 방법론을 사용하여 천안·아산 지역어와 대구 지역에 나타나는 사회언어학적 변이 현상인 활음 w의 탈락을 관찰하고 있다. 두 지역 대학생의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어간의 w 탈락 현상에 대한 언어내적·언어외적 제약의 공유 여부에 초점을 두고 두 방언의 음운적·사회언어학적 구조를 비교·대조한 것이다. 천안·아산방언과 대구방언의 w 탈락 빈도는 예상만큼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고 두 지역어에서의 w 탈락은 동일 제약군에 의해 아주 유사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적어도 w 탈락이라는 사회언어학적 변수에 있어서는 두 지역 언어 사회가 유사한 평가 기준을 공유하는 언어사회임을 밝혔다.

"전남방언 택호의 변이와 변화"(강희숙)는 전남방언에서 나타나는 택호(宅號)의 형식과 체계 및 실제 사용 양상을 관찰하여 전남방언에서 택호가 어떠한 지리적, 사회적 변이를 보이며 발달해 왔는가를 제시하는 한편,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진행되어 오고 있는 여성 호칭 체계의 변화 양상을 밝히고 있다. 전남의 중·서부 지역어와 동부 지역어를 대표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이 지역의 토박이 화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면담한 결과를 분석하여 전남방언에서 택호는 여성의 별호이자 남편이나 자녀 혹은 친족 호칭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폭넓게 기능하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택호는 주

로 중년층 이상의 연령층에게만 부여되며 일부 반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젊을 세대들에게는 사용되지 않는 등 그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어휘사용의 성적변이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방법 시론-현대 소설작가 공선옥, 김소진, 신경숙, 윤대녕을 중심으로"(김명운)에서는 여성어의 여러 가지 특징들 중 특히 어휘와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는 데 있어 그 방법론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의 소설로 구성된 말뭉치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시키는데, 먼저 16편의 소설 작품을 선정, 130여 명의 피험자들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작품의 작가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100% 여성이라고 판단된 지문의 소설 작품에서 어휘 빈도를 확인하여 고빈도 어휘 추출을 통해 여성어의 기준 어휘로 삼았다. 기준 어휘의 다른 작품에서의 빈도를 다시 확인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언어 차이가 특정 어휘의 선호도나 사용 빈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어휘를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남을 보이고 있다.

"언어 사용자의 성별과 발화 특성"(전혜영)은 언어 사용자의 성별에 따른 발화 특성의 차이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결과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방법의 문제와 결과 해석에 대한 문제를 논하였다. 사회언어학적 조사 연구 방법을 통해 발화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남녀 발화 차이의 해석에서 편향적 시각이 지양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Impact of Culture in Communication: Different Verbal Styles and Miscommunications"(Kyong-ae Yu)은 문화적 다양성에 근거한 여러 의사소통 양식(communication style)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 210명의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운 한국인 화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영어 발화에서 영어식 소통 양식을 따르려고 하지만 많은 부분 그들의 모어와 모어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논문은 모어의 전이(transfer)에 따른 오류가 화석화되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어 교육에서 아주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전이 오류를 인식하게 하고 그 근원을 밝혀줄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며 아울러 이러한 영어 교육이 구성되는 데에는 소통 양식의 사회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기술 작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Who Accentuates an Inter-group Dialect in an Inter-dialectal Place?"(Jin-sook Choi)는 한국인 방언 화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방언사용과 민족지학적 정체성(ethnolinguistic identity)이 맺고 있는 관련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에 거주하면서도 출신 지역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성인 화자 85명에 대한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소속 그룹의 정체성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고 자신의 방언의 가치를 다른 방언들에 비해 높이 평가하는 화자일수록 그들의 방언사용을 의식적으로 강조하게 됨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논문은 출생지나 나이 그리고 거주 기간과 같은 변수들과 방언사용이 맺고 있는 관련성을 기술하고 있는데, 나이의 변수가 가장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3.5. 이론 및 방법론

3.5.1. 일반 논문

"21세기와 한국의 사회언어학"(김희숙)은 21세기의 전 세계적 사회 맥락에서 한국 사회언어학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양면성의 방법론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사회언어학적 일반성을 추구하는 Labov식 방법론과 언어와 문화별 사회언어학의 특수성을 추구하는 Sapir-Whorf식 방법론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 논문은 한국의 사회언어학계가 나아갈 방향으로서 특히 한국사회를 통한 Sapir-

Whorf 신 경쟁가설의 증명 작업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언어학의 지위와 의미에 대한 입장들"(조태린)은 사회언어학의 지위와 의미에 대한 여러 입장들을 살펴보고, 그 논리와 설득력, 그리고 한계 등을 겨루어 논하고 있다. 논문은 사회언어학의 발전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양성이 사회언어학의 결점이 아니라 장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모습들 간에 지속적인 관심과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사회언어학은 '언어, 언어 사용자, 그리고 사회 구조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상호학문적, 해석학적, 현실참여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논문은 사회언어학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사회언어학의 지위와 의미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 간에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사회언어학이 사회 속에서 언어 문제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조직구성원의 논쟁성, 논쟁 유연성, 언어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전지현, 성지현)는 논쟁 커뮤니케이션 태도와 조직성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탐색적인 연구이다. 논문은 논쟁상황에서의 개인의 논쟁 커뮤니케이션 태도를 논쟁 상황에 대한 개인적 선호여부를 의미하는 논쟁성, 논쟁상황과 논쟁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반응성을 포함하는 논쟁 유연성, 그리고 논쟁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인 언어적 공격성의 세 측면에서 살피고 있다.

"국어 경어법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이정복)은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국어 경어법을 다룬 선행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논문은 경어법의 개념에 대한 인식과 연구 태도, 연구되고 있거나 연구 필요성이 높은 주요 경어법 현상, 연구 대상 집단과 연구 방법 등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논문은 특히 경어법의 개념 인식 및 연구 태도와 관련하여서는 문법 중심적 연구들이 가진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국어 경어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잘 설명하기 위

해서는 대화 참여자, 대화 상황, 사회 구조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회언어학적 시각과 연구 방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3.6. 대화·담론 분석

3.6.1. 일반 논문

"기능단계별로 나타난 의료면담의 제도 대화적 특징 연구"(진제희)는 병원이라는 제도적으로 고유하게 특성화된 배경(setting)에서 행해지는 의료면담 가운데 나타나는 의사-환자 간 상호행위의 불균형의 측면을 대화분석을 통해서 살피고 있다. 의료면담의 실제 자료를 근거로 의료면담 각 단계마다의 대화이동연속체를 구성해 보고 각 대화이동연속체에서 드러나는 의료면담의 불균형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궁극적으로는 제도 대화로서 의료면담이 지닌 정형화된 틀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료면담의 분석을 통해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아울러 지적되었다.

"An Analysis of TV Homeshopping Commercial: A Case of Multi-party Talk"(Kyung-hee Suh, Kyu-hyun Kim)는 대화분석의 관점에서 텔레비전 홈쇼핑 방송 담화를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진행자와 초대 손님과 같은 참여자들이 상품을 광고하는 미리 주어진 목적을 지향해 나가면서 발화 순서나 발화 연쇄들을 어떻게 조직해 나가는지 그 방식과 특성에 관심을 두었다. 논문은 TV 홈쇼핑 발화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trust-evoking)' 담화들은 참여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특징으로 함을 밝히고, 청자 반응 신호, 반복, 겹침, 공동 완성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세계화시대의 영어학습' 열기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사회적 기호화과정(social symbolization)의 탐색"(박휴용)은 한국사회에서

영어학습에 대한 사회적 담론형성과정 및 구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했다. 논의의 중심이 되는 세 가지 담론은, 첫째, '세계화의 피할 수 없는 전 지구적 대세를 한국사회가 발맞추어 가야 한다', 둘째, '영어능력은 국가경쟁력이자 선진국과 강대국으로의 지름길이다', 셋째,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마을' 경험과 '조기교육'은 매우 효과적이다' 등이다. 논문은 이 세 가지 이데올로기를 한국사회의 영어교육에 대한 과열된 기대현상과 밀착되어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형성과정과 그 성격을 분석하면서, 지금의 한국사회의 교육현장을 호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이고 사회진화론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하였다.

3.7. 언어 의식 및 태도 연구

3.7.1. 일반 논문

"이민 커뮤니티의 언어의식"(임영철)은 이민에 의해서 점차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재미한국인과 중국조선족의 한국어 운용실태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지금까지 연구되어 축적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관련된 언어현상을 기록하고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총 282명의 재미한국인과 423명의 중국조선족에게 실시한 설문 조사의 결과 한국과의 교류는 재미한국인에게서 동포끼리의 교류는 중국조선족에서 그 비율이 높았는데 젊은 층에서는 재미한국인과 중국조선족 모두 동포와의 교제 비율이 줄어들었다. 반면 젊은 층일수록 다른 문화에 대한 적응도는 높았으며 이주자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전승, 유지되는 생활문화는 식문화로 밝혀졌다.

"일상 발음과 언어규범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홍미주)는 대구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발음실태와 언어의식을 조사하고자 하며

특히 표준발음인지도와 표준발음법에 대한 의식을 관찰하고 있다. 관찰 결과, 어두경음화형의 실현비율이 높았고 겹받침의 발음에서 규범을 준수하는 비율은 낮았다. 표준발음법에 대한 의식을 보면 규범을 준수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과 규범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모두 높게 나왔다. 자신의 일상 발음과 표준 발음이 얼마나 일치하느냐도 규범 준수 의지 정도를 다르게 나타나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됨을 볼 수 있었다. 논문은 표준발음에 대한 높은 거부감이 확인된 이상 표준발음도 거부감을 주지 않는 지킬 수 있는 규범이 될 수 있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아울러 지적하였다.

"Korean Children's Identity Construction while Living in Two Languages"(Yun-joo Park)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아동들이 지닐 수 있는 언어와 정체성에 관련된 인식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명의 한국인 어린이들이 주로 관찰되었으며 관찰 결과 이들이 미국 사회, 특히 미국 학교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식과 부모로부터 강요되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보존에 대한 의식 속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논문은 영어와 한국어 모두에 능통하고 영어와 한국어 문화 규범 모두에 익숙해지기 위한 시도는 일상적으로 지속되는데 이는 사실 부모로부터 부여되는 기대이고 어린이들에게는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3.8. 기타

3.8.1. 단행본

『발칙한 신조어와 문화 현상』(김다은)은 신조어와 문화 현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글들을 모아 묶어낸 것이다. 이 책은 신조어 뒤에 숨어 있는 '권력의 입'이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가로막으며, 자신들의 '정의'를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살폈다. 특히 이

책은 신조어와 결합하는 권력을 크게 남성 권력, 예술 권력, 상술 권력, 고용 권력, 디지털 권력 등으로 나누어 그 구체적인 결합 양상과 담론을 분석하였다.

『응용국어학의 탐구』(시정곤)는 응용국어학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총14편의 논문을 모은 것이다.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은 다시 표기법(5편), 국어정보학(6편), 국어학의 미래(3편)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표기법에서는 띄어쓰기와 외래어 표기법과 같은 어문규범에 대한 고찰과 말다듬기나 문법교과서에 대한 글이 포함되어 있다. 국어정보학은 전자사전이나 자연언어처리, 그리고 전문용어표준화와 같은 국어공학 쪽의 논문과 디지털 문화 속에서 사이버 언어의 양상에 대해 고찰한 논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어학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국어학과 인지과학의 관계를 비롯하여 10년 후 국어 연구의 지형 변화와 21세기 국어학의 방향에 대한 전망에 관한 논의가 담겨있다.

『언어지도의 미래』(이상규, 김덕호, 강병주 편저)는 개인 컴퓨터를 활용하여 언어 자료를 구축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효율적으로 언어지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책은 언어지도가 방언형의 언어적 분포만 보여주는 한계를 극복하는 단계로 발전될 뿐만 아니라 사회언어학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다른 학문 영역인 지리학 연구에서 인문학적인 해석을 위한 실마리도 제공할 수 있고, 사회학이나 인류학에서는 사회 현상이나 인간 삶의 다양한 공간 환경과 그 특성을 규명하는 기초 자료로도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3.8.2. 석사 학위 논문

『조선족의 친족 호칭어 · 지칭어 연구: 연변 훈춘 지역을 중심으로』(최경희)는 중국 연변의 훈춘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친족 호

칭어와 지칭어를 사회언어학적 개념과 분석 틀을 통해 연구하였다. 논문은 먼저 호칭어와 지칭어의 일반적인 특성과 함께 연구를 위한 사회언어학의 개념과 분석 틀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친족 호칭어와 지칭어의 사용 실태를 친가, 외가, 시가 등의 세 가지 환경으로 나누어 분석·비교하였다.

『아파트 이름의 사회언어학적 고찰』(최혜정)은 우리나라 아파트 이름의 변천 과정을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논문은 우리나라 아파트 이름의 특징을 1990년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조사하고 그 이름에 반영된 사회 심리와 사회상을 부의 욕망, 행복 추구, 신문 상승 및 과시, 차별화 된 삶 추구 등의 개념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3.8.3. 일반 논문

"중세국어 호칭어와 종결어미의 호응에 대한 재고"(양영희)는 사회언어학의 관점에서 중세국어 호칭어 사용의 제반 양상을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은 기존의 입장에서 밝혀진 호칭어와 특정 종결어미의 호응 양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화자의 전략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 중세국어 호칭어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결과를 얻고자 했다. 실제 자료의 용례를 분석한 결과 중세국어 호칭어에서 '명사형'은 'ᄒᆞ쇼셔'체와, '그듸'는 'ᄒᆞ야쎠'체와, '너'는 'ᄒᆞ라'체와 호응하는 일관된 체계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표현할 의도가 있을 경우 이들 가운데 하나가 전략적으로 선택되고 있음을 보였다.

"근대계몽기 여성의 문자 생활 -여자 교육 교재를 중심으로"(허재영)는 근대계몽기(1880~1910)에 이루어진 여자 교육과 여성의 문자 생활을 여자 교육에 사용되었던 교재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

다. 근대계몽기 여자 교육용 교재에 반영된 문자 생활은 근대식 여학 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에는 주로 가정이나 문중을 중심으로 필사된 형태로 드러나고 근대식 여학 제도가 확립된 이후에는 국한문 본문을 한글 번역하거나 순국문 본문에 한자가 병기되는 형태로 드러남을 밝혔다. 논문은 이러한 특성이 현실적인 문제(가독 능력)와 지식 습득 의도가 반영된 이중적인 문자 생활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고, 일상의 문자 생활과 교육의 문자 생활은 큰 차이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4. 맺음말

지금까지 2006년에 이루어진 국어정책론과 사회언어학 분야의 연구 논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지면상의 한계와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각 논저의 연구사적 의의와 업적에 대한 깊이 있는 서술을 하지 못하고, 그 목적과 내용만을 개략적으로 나열하여 기술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더구나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목록에서 빠진 논저들이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할 여유를 갖지 못한 점도 걱정스러운데, 혹시라도 여기에서 빠진 논저들이 있다면 그 저자들에게는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

위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국어정책론과 사회언어학 분야에서는 양적으로 많은 연구 논저들이 나오고 있으며, 그 세부 분야와 내용도 무척 다양하다. 이처럼 국어정책론과 사회언어학 분야의 연구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학문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언어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 노력이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몇 가지 문제점도 존재한다. 첫째는 국어정책론과 사회언어학의 다양한 세부 분야

가 균형 잡힌 발전을 보이지 않고 특정 세부 분야에만 연구 인력이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 세부 분야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나친 쏠림 현상은 국어정책론과 사회언어학의 건강한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둘째는 국어정책론과 사회언어학의 연구 논저들에서 전형화된 연구 방법을 답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언어정책론 및 사회언어학의 연구 방법론이나 연구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회의와 반성이 부족한 채로 이미 짜여진 분석 틀에 새로운 예들을 넣어 찍어 내는 식의 연구가 늘어난다면 기존 언어학에 대한 비판과 함께 출발했던 이 분야의 참신성과 가치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어정책론과 사회언어학의 세부 분야들은 그 대상과 방법론의 다양성으로 인해 서로 소통하고 이해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국어정책론과 사회언어학은 언어 문제와 사회 문제를 연결하여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세부 분야들 간에도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만 더 큰 성과를 이룩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짧은 글이 국어정책론과 사회언어학 분야의 다양한 논의들이 서로 소통하고 발전하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국어 교육

민 병 곤
(경인교대)

1. 머리말

이 글은 2006년도 한 해 동안 국어 교육학 분야에서 산출된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학문적 동향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받은 학술지 게재 논문 목록, 학위 논문 목록, 단행본 목록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학술지 62종 87책에 게재된 논문 393편, 학위 논문 396편(박사 학위 논문 9편 포함), 단행본 51권의 목록을 정리한 후,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피고 연구 동향을 국어과 교육의 내용 영역별 논의와 교육 과정 실행 요소를 중심으로 한 일반 논의, 그리고 국어과 교육 정책 관련 논의로 나누어 고찰하였다.[1)]

국어과 교육 전체에서 가장 두드러진 동향은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고시를 앞두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과 관련한 학술적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2005년에 이루어졌던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논의의 연장선에서 국어과 교육 과정 개정 시안에 대

1) 학술지 게재 논문 및 단행본 목록은 제공 받은 목록을 필자가 수정·보완하였으며, 학위 논문 목록은 제공 받은 목록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목록을 분류하고 검토한 후에 확인하게 된 일이지만 문학 교육 분야 학위 논문 목록이 대부분 제외되어 있어 이번 동향 검토에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혀 둔다.

한 비판과 대안에 대한 논의가 총론적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 구성 요소나 영역별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중등 국어 교과서 발행 체제가 국정에서 검정 체제로 바뀜에 따라 교과서 개발에 관한 실제적인 논의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국어 교육학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국어 교육의 성격과 본질에 대한 원론적이고 철학적인 논의에서부터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의 논의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연구 방법론의 다각화와 정교화를 추구한 학술 논문들이 다수 생산되어 국어 교육학의 학문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진 근·현대 어문 교육사에 대한 연구와 하이퍼텍스트와 표현 교육 연구도 국어교육연구사의 획을 긋는 뜻깊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산적인 학술 담론의 성과들은 단행본 출판으로도 이어져 학술 담론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학위 논문과 기 발표된 학술 논문을 함께 엮어 낸 것들도 많았지만 현장의 풍부한 경험적 성과들을 반영하여 국어 교육의 실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성과물들도 적지 않아 이론과 실제의 측면에서 각각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대학원 학위 논문의 경우, 실태나 자료의 분석과 교수 학습 방안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방법론의 적용이 미흡하거나 연구 내용의 상호 참조 등 연구 윤리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들도 더러 있었다. 아울러 연구 주제가 다양하지 않고 이전의 주제들을 답습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충실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국어 교육 연구에 의의 있는 기여를 한

논문들도 있었다.

국어 교육 연구 동향을 기술하면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살피다 보니 자료가 누락되어 언급하지 못한 것들도 있었고, 확보한 자료라도 원문을 일일이 들여다보지 못한 것들도 많아 연구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어 교육의 미시적인 주제들에 대한 필자의 이해가 천박하여 연구 성과들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필자는 연구 성과에 대한 통계적 정보나 평가적 정보의 제공보다는 국어 교육의 동향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꾀하는 데 목표를 두고자 한다.

2. 국어과 교육 영역별 연구

1) 듣기·말하기 교육

듣기·말하기 교육 분야에서는 듣기·말하기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체계화하고 교재 개발의 방향을 제안하는 등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한 연구, 화법 및 화법 교육 현상을 기술한 연구, 화법교육 및 화법 교육 연구를 사적으로 고찰한 연구, 그리고 화법 교육의 실천 개선을 위한 실행 연구 등 이론과 실제의 측면에서 듣기·말하기 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연구물들이 생산되었다.

말하기 교육 목표와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는 "말하기 교육 목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도영)"를 들 수 있다. 이도영은 말하기의 고유한 특성에 주목하면서 말하기 교육의 목표를 '개인적·심리적 차원에서 개인의 생각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 형성하기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하기, 윤리적 차원에서 말과 행동 일치시키기, 예술적(오락적) 차원에서 말하기를 통해 즐거움 느끼기' 등 네 가지를 상정하였다.

듣기·말하기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과 관련해서는 다음 네 편의 논문이 주목할 만하다. “소통 능력 신장에 중점을 둔 말하기 교육 내용 선정의 방향(이문규)”에서는 말하기 교육의 성격을 표현관과 소통관의 두 가지로 대별하고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말하기 교육의 내용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언어, 담화, 상황, 심리, 문화의 다섯 가지를 논의하였다. “말하기·듣기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에 대한 고찰(민병곤)”에서는 말하기 듣기 교육 내용을 지식의 관점에서 논의하면서 지식 선정의 준거를 말하기·듣기 활동 즉, 음성 언어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 과정에 관여하는 언어적, 인지적, 사회적 제약의 극복 자원에서 찾고자 하였다. 또 “텍스트 중심 말하기 교육 내용 구성의 전제와 함축(민병곤)”에서는 텍스트 중심의 말하기 교육을 내용 구성의 전제로 ‘기능주의적 언어관과 텍스트 개념, 텍스트·언어·사고·맥락의 내용 범주, 학년별 내용과 내용 요소의 맥락화, 통합 및 초점화, 위계화’의 세 가지를 논의하고, 텍스트를 매개로 한 통합적 말하기 교육 지향, 실제 중심의 교수·학습과 평가, 담화 유형의 상황성을 중시한 교재 구성 등 내용 구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말하기 교육 내용 체계화 방안 연구(이도영)”에서는 말하기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텍스트를 주된 준거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상황과 인지를 통합하고 말하기에 관여하는 모든 구성 요소를 반영하여 체계화하되, 교육 내용을 제시할 때에는 텍스트의 특성에 따라 내용 요소의 결합 방식을 다양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말하기 목적, 상황, 담화 유형 등에 따른 말하기 교육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로는 “설득 담화의 내용 조직 교육 연구(박재현)”와 “공감적 화법 교육 연구(정상섭)”가 주목할 만하다. 박재현은 설득 담화의 내용 조직 원리를 ‘목적 지향 체제성, 청자 중심 유기성’으로 전제한 후, 설득 담화 내용 조직의 체제를 유형, 기본 체

제, 교육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피고 내용 조직의 변인을 검토한 후, 설득 담화 내용 조직 교수 학습 모듈을 설계·적용하고 교육 효과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정상섭은 공감적 화법 교육의 본질과 방법을 논의하고 초등학생들의 일상 대화 실태를 참여자의 인지·심리적 측면, 언어적 표현 측면,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분석하여 원인과 해결 방안을 논의한 후, 공감적 화법 교육의 내용과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 "바꿔말하기 교육 내용 연구(윤다운)", "국어과 대화교육 내용 구성 방안에 관한 연구(김정란)", "공식적 말하기 교육내용 고찰(김윤옥)"도 듣기 말하기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로 참고할 만하다.

듣기·말하기 교수·학습 방향을 개관한 연구로는 "말하기・듣기 교수 방법 연구(이도영)"를 들 수 있다. 이도영은 말하기・듣기 수업 방법을 구안하기 위한 틀을 수업 운영에 따른 수업 조직과 관련된 활동 고려하기, 교육 내용을 활동으로 변환하기, 활동을 '시각, 청각, 시청각 매체' 등으로 매체화하기의 세 층위로 설명하였다. 또 "말하기 교육 효율화를 위한 동기 유발 방법(류성기)"에서는 말하기 교육에서 학습 동기 유발 요소를 교사, 청자, 교재, 교수·학습 방법, 학습 조건의 다섯 가지로 상정하고 각각의 측면에서 말하기 교육 효율화를 위한 동기 유발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편 말하기·듣기 수업을 초점화한 연구로는 "초등 말하기 수업의 내용과 방법(서현석)"과 "말하기・듣기 수업의 참여구조 양상 연구: 초등학교 4학년 중심으로(박창균)"가 주목할 만하다. 서현석은 초등 말하기 수업의 내용을 '인격적 말하기, 깨달음을 통한 주체적 말하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러한 내용을 교수·학습하기 위한 수업 방법으로 '소집단 말하기 활동'의 의의를 밝히고 수업 대화를 예로 제시하였다. 박창균은 초등학교 4학년 말하기·듣기 수업을 의사소통의 방향, 참여자의 역할, 피드백의 기능 등 세 가지 기준을 적

용하여 분석하고 그 참여 구조를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 “말하기·듣기 수업 대화에 나타난 교사의 피드백 양상 연구(김혜정㉡)”에서도 말하기·듣기 수업대화에 나타난 피드백의 양상을 피드백 대화의 구조와 피드백 대화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인 담화 유형과 관련한 듣기·말하기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논의로 가장 주목되는 논문은 “토론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최복자)”이다. 최복자는 토론 능력의 개념과 구성 요소, 토론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하여 논의한 후, 토론 수업 모형을 지식 중심의 코치 협력 학습과 수행 중심의 경기 대회로 나누어 논의하고 수업 모형의 통합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교수·학습 방안 논의가 있었는데 학술지에 발표된 것으로는 “설화 제재를 통한 듣기·말하기 지도의 한 방안(이강엽, 김상한)”과 “활동 중심 교육연극 활용을 통한 말하기 지도 방안 연구: 초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고창운)”를 들 수 있고, 학위 논문으로는 “Meta-plan을 활용한 토의·토론 학습 모형 연구(이희녕)”, “설화를 활용한 말하기·듣기 교육 방법 탐색(김영인)”, “방송자료를 활용한 토론학습 방안연구(강수희)”, “국어 표현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연극 활용 방법 연구(김혜정㉢)”, “토론 연극(Forum Theatre)을 통한 토론 활성화 방안 연구(박혜련)”,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말하기 능력 신장 방안 연구(염혜진)”, “교육연극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한 초등학생의 말하기 능력 신장(이기호)”, “설득하는 말하기 지도방법 연구: 비판적 읽기를 활용하여(정다와)”, “연행을 통한 말하기 교육 방법 연구(최향순)” 등을 참고할 만하다.

듣기·말하기 교재 개발과 관련한 연구로는 “말하기·듣기 敎科書 單元 構成 方案 연구: 談話類型을 중심으로(이창덕, 박창균)”가 주목할 만하다. 이 논문에서는 담화 유형 중심 단원의 유형으로 ‘담화 기능 및 독립적 언어 사용 중심 단원’, ‘담화 기능 및 통합적 언어 사

용 중심 단원', '담화 상황 및 상호 작용적 언어 사용 중심 단원', '담화 상황 및 통합적 언어 사용 중심 단원'의 네 가지를 제안하였다.

듣기·말하기 평가와 관련된 논의로는 "판별함수를 활용한 화법능력의 평가에 관한 연구: 자기 소개 대화를 매개로(유동엽)"와 "말하기 능력 평가에 관한 요구 조사 연구(장경희, 권우진, 김순자, 김정선, 김태경, 이필영, 전은진)" 두 편이 두드러진 성과이다. 유동엽은 대학생의 자기 소개 대화를 분석하여 피조사자의 화법 능력을 가장 잘 판별해 주는 판별함수를 도출하여 검증하고, 화법 평가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장경희 외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말하기 능력 평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말하기 평가의 방식과 항목에 관한 기초적 통계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 듣기·말하기 평가의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의 실제를 탐구한 조재윤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국어과 말하기·듣기 평가 실태 조사 연구(조재윤)"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말하기·듣기 평가의 실태를 설문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 현장에서 말하기 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말하기 평가 방법간 신뢰도 분석 연구: 초등학생의 설득하는 말하기를 중심으로(조재윤)"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4명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말하기에 대한 교사 평가자들의 총체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 결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말하기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듣기 평가와 관련한 연구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듣기 평가의 적합성 연구: 질문지와 선택지 제시 방식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최주원)"가 주목할 만하다. 최주원은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 평가의 문항 제시 방식에 대한 실험 연구를 통하여 듣기 평가는 질문지와 선택지를 음성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 듣기·말하기 평가와 관련하여 학위 논문

으로는 “연설의 담화 유형적 특성과 평가의 방향(김소영)”, “교실수업을 위한 초등학교 국어과 듣기평가 방법 연구(문영숙)”, “자기평가 활동이 초등학생의 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경은)”, “듣기 교육에 관한 연구: 대학수학능력 시험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진혜림)” 등이 있다.

듣기·말하기의 담화 특성과 문화, 듣기·말하기 교육 현상에 대한 기술적 연구들은 듣기·말하기 교육의 내용을 선정하고 바람직한 교육 실천의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설득 화법 교육을 위한 텍스트 연결 표현의 의미 기능 연구(박재현)”에서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구어 텍스트를 분석하여 열두 가지 유형의 텍스트 연결 표현을 선정하고 이들이 텍스트의 논리적 구조를 표시해 주며 텍스트와 청자를 심리적으로 결속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상호주관적 화법의 특성 연구(김윤옥)”에서는 상호주관적 화법의 특성을 언행면과 참여자 관계면으로 나누어 논의한 후, 화법교육에 대한 시사점으로 상호 이해의 자세 함양, 상호 존중 의식의 형성, 바람직한 언어 습관 형성, 상호 관계 증진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초등학생 일상대화의 문제점 고찰(정상섭)”에서는 4~6학년 초등학생의 일상 대화를 어휘, 언어 사용 태도, 대화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공감의 대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수업상황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비언어적 표현 양상 연구: 신체언어와 준 언어를 중심으로(정영희)”에서는 수업상황에서 나타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비언어적 표현 양상을 고찰하고 지도 방향을 제안하였다.

화법 교육과 화법 교육 연구를 사적으로 고찰한 “화법교육 변천사(전은주)”와 “화법교육 연구방법의 내용분석(유동엽)”은 화법 교육의 반성과 전망, 이론화에 기여하는 의의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전은주는 개화기(1895년)부터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기에 이르기까

지 국어과 말하기·듣기 교육의 변천을 태동기, 초창기, 침체기, 발전기로 나누어 고찰하고, 변화 경향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유동엽은 화법 교육 연구를 표방한 학술지 논문 및 학위 논문 173편을 내용 분석하여, 연구 방법의 경향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화법 교육 연구가 인문학적 개념 연구에서 사회적인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학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2) 읽기 교육

읽기 교육 분야에서는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는 읽기 교육의 성격과 방향, 읽기 교육의 내용, 읽기 능력 및 태도의 규명과 검사와 관련된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고,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한 연구는 학위 논문과 단행본의 형태로 많이 생산되었다.

읽기 교육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김도남이 발표한 일련의 연구가 주목을 끈다. "共주관 구성 읽기 교육 방향 탐색(김도남)"에서는 읽기 주체 역할의 다면화, 관념 소통의 내실화, 관념의 합일화를 통한 共주관 구성 읽기 교육이 필요함을 논증하였다. "읽기 주체의 관념 구성 교육 방향(김도남)"에서는 읽기 교육에서 학습자들이 타 주체와의 관계를 통한 관념 구성 즉, 상호 주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텍스트 이해 지도를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해석 공동체의 개념 탐구: 읽기 교육을 중심으로(김도남)"에서는 해석 공동체를 미시 해석 공동체, 거시 해석 공동체, 중재 해석 공동체, 총체 해석 공동체로 나누어 살핀 후, 읽기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 공동체주의 관점을 수용하여 해석 공동체의 기반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독자의 緣起的 관념 구성 교육 방향 탐색(김도남)"에서는 불교의 '공사상(空思想)'을 읽기 교육에 적용하여, 독서를 독자와 텍스트와 읽음이 연기적(緣起的)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작용으로 보고, 관념의 연기적 구

성을 통하여 독자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꾀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정서 함양 읽기 교육 방향(김도남)"에서는 읽기를 정서와 관념의 구성 과정으로 보고, 정서 함양을 위한 읽기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한편 "읽기: 그 개념에 대한 은유적 이해(윤준채)"에서는 읽기에 대한 관점이 전달 관점, 번역 관점, 상호 작용 관점으로 변화·발전되어 왔음을 지적한 후, 이를 각각 항아리의 비유, 보물 찾기의 비유, 흥정의 비유로 설명하고, 최근의 문식성 개념 및 문식성에 대한 논의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읽기 교육의 마당 넓히기: 내용교과에서의 읽기 지도(이성영)"에서는 국어 교육의 도구적 성격과 관련된 학습 도구로서의 국어 능력을 학습자들에게 길러주기 위해서 내용교과에서 읽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교사 교육, 교육과정, 교과 지도, 교사 태도 등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읽기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김봉순)"에서는 읽기 교육의 내용으로서의 지식은 독자의 심리 현상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며, 이것은 기능, 기호(언어)에 대한 지식, 맥락에 대한 지식, 태도로 범주화할 수 있고,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요소인 기능은 그것을 수행할 과제로 체계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추론적 읽기 지도의 내용 연구(박수자)"에서는 추론적 읽기를 위한 기본 활동으로 문맥 형성 방법을 제안하고 심화 활동으로 은유, 가설추리, 교과학습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독자의 목적에 따른 요약하기 체계화 연구(이수희)"에서는 독자의 목적에 따른 요약하기의 의의와 개념을 밝히고 요약하기에서 내용과 형식이 작용하는 양상을 바탕으로 요약하기의 수준을 구분하고 그 과정을 제시하였다.

정의적 영역의 성격과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로는 "읽기 태도의 개념과 성격(정혜승)"과 "중학생 읽기 동기의 구성 요인(박영민)"이 주목할 만하다. 정혜승은 읽기 태도를 가치, 흥미, 선호, 동기, 의도와

구별하여 정의하고, 읽기 태도 교육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박영민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중학생의 읽기 동기 구성 요인을 분석하고 이것이 성별, 학년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밝혔다.

한편, 독서 동기와 몰입 독서를 주제로 하여 이순영이 발표한 일련의 논의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몰입 독서의 개념에 관한 비판적 검토(이순영)"에서는 몰입 독서의 개념에 관한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몰입 독서의 개념을 규정하였다. 또 "독서 동기와 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이순영)"에서는 독서 동기와 몰입 독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텍스트 요인, 독자 내적 요인, 교사, 교수학습, 교실 환경 요인, 가족과 가정환경 요인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검토하고, 이러한 영향 요인들의 작용 기제를 밝혔다. 그리고 "독서 동기와 몰입 독서의 영향에 관한 비판적 고찰(이순영)"에서는 독서 동기와 몰입 독서의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몰입 독서의 개념 차이로 인한 연구 결과의 왜곡 문제와 몰입 독서와 독서 성취 간의 관계에 관한 비판적 이해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과정 중심 읽기 지도 방안(박영목)"과 "읽기 교육 방법론에 대한 재고(김혜정㉠)"가 주목된다. 박영목은 읽기 전략 지도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략 사용 동기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현시적 교수의 제공, 정보처리 부담의 경감, 전략 사용에 관한 대화와 토의 기회의 충실한 제공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전략 중심 읽기 지도의 내용을 텍스트 중심 지도 내용과 활동 중심 지도 내용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그리고 김혜정㉠은 읽기 교수법에 대한 접근법을 사적으로 고찰하여, 읽기 교육이 총체적 접근과 균형 잡힌 접근에 의해 그 의미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방법론도 문학, 언어 지식, 언어 기능을 포함한 체계적인 과정으로 발전하면서,

전반적으로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읽기 부진 학습자에 대한 경험적 사례를 다룬 연구로는 “읽기 부진 개선을 위한 보충학습반 운영의 경험(엄훈)”이 주목할 만하다. 엄훈은 중학교 읽기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한 1년 간의 보충학습반 운영 경험을 성찰적 글쓰기를 통하여 보고하였다. 연구자는 자기주도적 읽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읽기 행동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독해 능력과 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음을 밝혔다.

읽기 교육에서 특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독서 요법과 관련해서는 “독서요법을 통한 아동의 인성지도 방안(최경희)”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독서 치료 방법 연구(황수경)”가 주목할 만하다.

읽기 교수·학습과 관련하여 발표된 두 편의 박사학위 논문도 참고할 만하다. “텍스트 의미 구조의 읽기 교수・학습 연구(박진용)”에서는 텍스트 의미 구조의 읽기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논의한 후,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고, “읽기 수업의 교수적 비계설정 양상 연구(김국태)”에서는 초등학교 읽기 수업에서 전개되는 교수적 비계설정 양상을 직접적 비계설정과 지원적 비계설정으로 유형화하여 학습 구조 형성을 위한 교수 활동 계획과 교수 대화 실행 양상으로 기술하고, 이를 과정적 의미, 기능적 의미, 상호보완적 의미, 제한적 의미의 네 층위에서 해석하였다.

새로운 연구 방법론의 적용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대화식 읽기 교수 전략 개발 연구: 설득적 텍스트의 중심 생각 찾기 수업을 중심으로(홍현정)”를 들 수 있다. 홍현정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득적 텍스트의 중심 생각 찾기 수업의 대화를 대화 분석 및 근거 이론의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하여 대화식 읽기 교수 과정의 핵심 범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식 읽기 교수 전략의 원리를

도출하였다. 또 "텍스트 종류와 Cattell-Horn-Carroll (CHC) 인지요인과의 관계(김수연, 하대현)"는 학습자 특성 분석과 관련하여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수연·하대현은 수도권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 423명을 대상으로 CHC 지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설명적 텍스트보다 이야기 텍스트를 더 이해하며, 이야기 텍스트를 더 잘 이해하는 집단이 Gc(결정지능), Ga(청각처리), Gsm(단기기억)에서 점수가 더 높다는 점을 밝히고 결과를 논의하였다. "초등학교에서의 독서 클럽 활동을 통한 독서 지도 실행 연구(황원희)"에서는 실행 연구 방법으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독서 클럽 프로그램을 1차, 2차 실행을 통하여 적용한 후, 교사의 성찰적 관찰 일지, 학생들의 반응 학습지, 비디오 녹화 및 음성 녹음 자료, 사진, 동료교사와의 협의 자료, 면담, 서술적 질문지 등을 분석하여, 효과를 논의하였다.

"독서 성향면에서 본 어린이 독자(진선희)"에서는 우리나라 대도시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거시적 독서 성향과 미시적 독서 성향을 탐구하였다. 이 외에 읽기 지도 교수·학습 전략 및 프로그램의 개발·적용과 관련하여 약 60 편의 학위 논문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 일부만 제시하면, "초인지 전략을 활용한 독서프로그램이 독해력과 수학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남경미)", "육하원칙 요소를 활용한 추론적 읽기 지도 방안 연구(문경은)", "고등학교 국어교과 읽기수업의 독해력향상 TAI협동학습 모형 개발과 효과성 검증: 학업성취도와 학습동기를 중심으로(성찬호)", "후일담 쓰기를 통한 읽기 능력 향상 방안 연구(원지희)", "낭독 속도 지도 연구(주중연)", "다중지능 독서 프로그램이 독서 능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한기현)" 등을 들 수 있다.

읽기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하여 이론과 실제를 함께 논의한 단행본으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독서 전략 지도(천경록, 박진남,

백해경, 진명숙, 양서영)", "독서교육과 독서활동(김승환)", "초등학생을 위한 독서지도방법(박대용)", "창의성개발을 위한 활동중심 독서지도법(조일제)", "독서치료 어떻게 할 것인가(이영식)"를 들 수 있다. 천경록 외에서는 독서 전략들을 소개하고 전략의 적용 결과물과 전략 학습지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김승환은 독서교육과 독서활동의 의의, 독서활동의 현황, 독서지도 사례연구 방법, 독서교육의 주요 교과과정, 독서회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기술하였다. 박대용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 지도와 글쓰기 지도의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였다. 조일제는 개인별 활동, 짝이나 집단 활동을 독서 전, 중, 후에 다양하게 해 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의견을 발표, 문답,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활동중심의 독서 개념을 강조하였다. 이영식은 '개입전략과 기법'이라는 관점에서 독서치료의 원리와 방법을 개관하였다.

읽기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과 실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책으로 주목되는 것은 "신나는 놀이 재미있는 읽기 수업 1~6(박태호 외)", "대한민국 희망 1교시 아침독서: 초등·중고등(아침독서추진본부)", "독서는 힘이 세다: 독서교육법(임영규 외)", "푸른 영혼을 위한 책읽기 교육(허병두)", "독서캠프 운영 매뉴얼(김승환)", "창의적인 독서지도 77가지(독서지도연구모임)", "어린이 글쓰기지도와 독서지도법(이노국)"을 들 수 있다. 박태호 외의 여섯 권은 초등학교 1~6학년 '읽기' 교과서 체제에 따라 읽기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즉, 노래, 율동, 게임 등을 소개하고 이를 읽기 활동과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아침독서운동추진본부에서 낸 두 권은 전국의 약 500개 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침독서활동의 사례를 모아 엮은 것으로, 아침 독서의 원리, 학교 사례, 학급 사례, 교사 글, 학생 글, 학부모 글이 폭넓게 실려 있다. 임영규 외는 초·중·고 교사들이 독서교육의 실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허병두는 청소년들에게 독서 습관을 길러주고, 유익한 책을 통해 올바른 독서로 이끌어 주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승환은 독서캠프 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의 원리와 실제를 소개하였다. 독서지도연구모임은 독서 수업을 실행하는 교사의 심정과 수업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생생히 기록하고 실제 수업에 활용된 도서 109권의 색인을 제시하였다. 이노국은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지도와 독서 지도 방법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다.

읽기 교재와 관련해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거의 찾을 수 없고 학위 논문을 수 편 찾을 수 있다. 이 논문들은 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제재나 특정 단원의 내용을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읽기 평가와 관련한 논의는 읽기 능력과 태도를 검사하기 위한 연구와 읽기 교수·학습 평가를 위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의 논의로는 "읽기 능력과 읽기 인지 변인과의 상관(가경신)", "읽기 태도 구인과 검사 도구의 요건(정혜승)", "독서 능력 표준화 검사 도구의 연구 개발(천경록)"을 들 수 있고, 후자의 논의로는 "읽기 평가틀에 대한 비교 연구(노명완, 박창균)", "실증주의적 관점의 독서 평가 방법(박정진)", "독서교육평가의 과제(송문석)", "적용적 개선을 통한 초등학생용 비형식적 읽기 검사 개발(엄훈)"을 들 수 있다. 정혜승은 읽기 태도 검사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읽기 태도 검사 도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논의하고 읽기 태도 구인을 인지, 정서, 행동의 세 요인으로 구성하여 검사 예비 도구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천경록은 3~6학년의 독서 능력을 측정하는 표준화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고전검사이론에 입각하여 검사 도구의 양호도를 검증하였다. 노명완과 박창균은 국제수준의 PISA와 PIRLS 및 국가수준의 NAEP와 NAER의 읽기 평가틀을 비교·분석하여 읽기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독서 및 독서 교육 현상, 독서 담론, 독서 문화에 대한 논의들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독서학회에서는 '독서 연구' 제 15호 기획 특집으로 "학교 현장과 독서 문화"를 주제로 다루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현장의 독서 문화 비판(김도남)", "중등학교 독서 문화 비판(박혜영)", "대학에서 학제적 독서 교육의 실제와 전망(한금윤)", "독서 교육 연구사: 학교 독서 교육을 중심으로(허재영)", "독서교육의 관점 변화 및 지향점(차호일)" 등이 실려 있다.

이 외에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조선시대 독서 방법론 연구(김은경)"와 "고전 논변 텍스트를 통한 문화 읽기(엄훈)"를 들 수 있다. 김은경은 조선시대 사상사를 대표하는 학자들의 독서에 대한 담론을 탐색하여 '방법의 개별화'가 이루어졌던 독서 방법론을 분석하였으며, 엄훈은 고전 논변을 통한 문화 읽기의 교육이 문화 인식을 통한 주체적인 인간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방법으로 문화적 키워드를 활용한 문화 읽기를 제안하였다. 학위 논문에서는 주로 학교 독서 및 독서 교육 실태와 학습자의 독해 과정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였다.

독서 교육 및 독서 교육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로 "독서 교육 사전(한국어문교육연구소, 국어과교수학습연구소)"를 들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독서 교육학 이론을 독서 교육의 실제에 적용하여 해설하고 구체적인 지도 방법과 자료를 제시하였다. 주요 항목으로는 '도서 선정, 독서 과정, 독서 교사, 독서 교육, 독서 교육 모형 및 방법, 독서 능력, 독서와 문학, 독서와 어휘, 독서학 이론, 독서 전략, 독서 프로그램' 등 20여 가지이다.

3) 쓰기 교육

쓰기 교육 분야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쓰기' 영

역 및 '작문' 과목의 성격 및 방향과 내용에 대한 검토와 논술 지도를 포함한 다양한 글쓰기 장르의 교수·학습 및 방안, 교재 개발 및 평가 도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가 생산되었고 특히 대학 작문 교육 분야의 연구 성과도 중요한 연구 분야로 자리 잡았다. 또 논술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쓰기 교육을 주제로 한 학위 논문이 70여 편에 이를 정도로 많았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

쓰기 교육의 성격 및 방향과 관련한 논의로는 "국어 표현 교육의 방향: 과정 중심 글쓰기 교육을 중심으로(이재승)", "과정 중심 쓰기 수업의 비판적 검토(임성규)", "필자의 관념 완성 쓰기 교육 방향 탐색(김도남)"을 들 수 있다. 이재승은 과정 중심 글쓰기 교육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 방향으로 '글쓰기 과정의 충실한 지도, 교육 내용의 확대, 상황 요인의 강화, 상위인지(초인지)적 측면의 강화, 적용 범위의 확대와 유연성, 학생들의 체험활동 강조' 등을 제시하였다. 임성규는 과정 중심 접근법이 쓰기 수업에 적용되는 양상을 비판적으로 살피고 과정의 적용에서는 과정의 고정성 문제와 과정 적용의 연속성 문제를, 전략 적용에서는 전략의 최적성 문제와 전략의 편중성 문제를 지적하였다. 김도남은 쓰기 교육이 필자의 관념 완성을 지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쓰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 쓰기 주체의 구성, 관념의 표현, 관념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관념 완성 쓰기 교육을 통하여 쓰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을 논의하였다.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논의로는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쓰기〉 영역 내용 검토(김정자)"와 "고등학교 작문 과목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박영민)"을 들 수 있다. 김정자는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쓰기' 영역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지식'과 '맥락' 범주의 내용 체계화, '태도' 범주의 삭제, '내용 요소'의 체계성, 학습량 과다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을 지적하였

다. 그리고 박영민은 고등학교 작문 과목 교육 과정 개정의 방향을 첫째, 제7차 고등학교 작문 교육 과정의 수정·보완, 둘째, 국어 과목 쓰기 영역을 심화, 셋째, 교육과정의 상세화를 지향, 넷째, 정의적 요인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 등 네 가지로 지적하였다.

쓰기 교육의 내용을 지식의 관점에서 접근한 "쓰기 교육에서 지식의 범주와 교육 내용의 구조(박영민)"와 "글쓰기에서의 내용 지식에 대한 개념 규정(서수현)"은 쓰기 교육 내용의 이론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민은 쓰기 교육 내용의 하위 범주로 지식과 기능(機能)의 두 범주를 설정하고 전자에는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을, 후자에는 학습 기능, 사고 기능, 반성 기능, 소통 기능을 상정하여 쓰기 교육에서 지식과 함께 수행성과 실제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서수현은 글쓰기에서 내용 지식의 개념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특정 과제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보, 경험의 총체로서의 지식'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지식은 필자의 글에 적절한 자료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의 사용을 전제한다고 보았다.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쓰기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고 교육 내용을 구안한 "인터넷 시대의 글쓰기와 표현교육(우한용 외)"은 쓰기 교육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 연구소 사업 지원으로 수행한 '하이퍼텍스트와 표현교육'이라는 주제의 연구 결과를 다듬어서 묶은 단행본이다. 이 책에서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하이퍼미디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특성을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에서 표현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이론적으로 설계한 뒤, 특히 홈페이지에서의 글쓰기 교육, 인터넷 메신저에서의 표현교육, 전자게시판 쓰기 교육을 실제 수업으로 구현하여 얻게 된 결과물과 교사, 학생의 다양한 반응을 분석하여 이를 국어교육의 내용으로 설정할 경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쓰기 교수·학습 방법 또는 수업과 관련한 연구는 쓰기 교수·학습 및 수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논의한 것과 개별 장르나 지도 요소와 관련하여 논의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총론적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쓰기 교수행위의 예술적 의미(이정숙㉠)"와 "초등학교 글쓰기 수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임성규)"을 들 수 있다. 이정숙㉠은 교사의 교수 행위에 대한 예술적 시각의 필요성과 의의를 전제하고 교수 행위의 예술적 자질을 '앎의 문화적 확장, 앎의 질적 변환, 아우라'로 설명한 후, 내러티브 탐구 방법으로 쓰기 수업의 장면들을 설명하여 교수행위의 의의를 비평적으로 기술하였다. 임성규는 초등학교 글쓰기 교육을 '교과 수업의 쓰기' 수업과 '비교과 수업의 쓰기' 수업으로 구분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쓰기 이론의 탐구와 적용의 관점에서 주목되는 논문으로는 "쓰기 '과정'의 초점화를 통한 쓰기 지도 방안: 수정하기와 출판하기 과정을 중심으로(김정자)"와 "반성적 쓰기 활동이 학생필자의 쓰기 능력 및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박영민, 김종백, 우은실)"을 들 수 있다. 김정자는 쓰기 이후의 사회·문화적 과정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수정하기와 출판하기 단계를 초점화한 쓰기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박영민 외에서는 반성적 쓰기 활동이 계획적 글쓰기 활동에 비해 쓰기 능력이나 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 연구를 통해 논의하였다. 이 외에 논술 교육을 교육공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논술 학습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정재형)"도 주목할 만하다. 정재형은 초등학교 4~6학년 쓰기 교과의 교육 목표를 근간으로 '투입 - 활동 - 산출'의 교육공학적 설계 원리를 적용하여 '논술 학습 리엔지니어링'이라는 쓰기 전략을 도입하여 논술에 대한 통합 교과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쓰기 교수·학습과 관련하여 학술지에 게재된 그 밖의 논문으로는 "학생 수준차를 고려한 과정중심 쓰기 지도 방안 연구: 교사의 비계

설정 양상을 중심으로(박대응)", "구두작문과 자유쓰기가 설명적 텍스트 쓰기 능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기명숙)", "초등학교 학생들의 고쳐쓰기 능력 증진을 위한 전체적 접근 전략 지도의 효과(김대조)", "중등학교의 신문 활용 논술 교육(김두루한)", "'읽기 중심의 쓰기' 모형 실행 연구: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김선정)", "건의문 쓰기의 지도 방안 연구(김소영)", "미니홈페이지를 통한 글쓰기 교육이 작문에 미치는 영향(박세욱, 한건우, 이은경, 이영준)", "국어과 '그려쓰기' 교수·학습 방법 연구(민현미)", "전기문 쓰기의 지도 모형 연구(박미정)", "작문 교육에서 컴퓨터의 위상(박인희)", "'낯설게하기' 쓰기 교수·학습 방안 연구(박현정)",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토의 중심의 글쓰기 교육(안숙현)", "통합 논술 첨삭 지도 방법 고찰(임칠성)", "대중 문화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 방안: 〈싸이월드〉(cyworld)와 대중가요를 중심으로(조상우)"를 참고할 수 있다.

학위 논문으로 제출된 것들은 그 나름으로 쓰기 교육에 의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 수가 많아 여기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 중에서 일별할 만한 것을 예로 들자면 "WBI(Web Based Instruction)를 활용한 중학교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향상 방안 연구: '사이버모듬일기'(www.modumilgi.com) 학습 모형을 적용한 글쓰기를 중심으로(이강명)", "통합적 쓰기 지도 방법 연구: 초등학교 2학년 전 교과를 중심으로(최승숙)", "초등학생의 쓰기 과제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한정희)" 등이 있다.

쓰기 교수·학습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단행본으로는 "글쓰기 교육과 협력학습(정희모)"을 들 수 있다. 정희모는 글쓰기 협력학습과 관련된 이론과 원리를 개관하였다. 이 외에도 "과정중심 쓰기 전략 적용을 통한 글쓰기 능력 신장(대구신암초등학교)", "신문활용교육과 논술(정영주)" 등의 단행본도 쓰기 교수·학습의 실행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쓰기 영역의 교재와 관련한 연구는 쓰기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구상을 밝힌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다. “제7차 초등학교 ‘쓰기’ 교과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성영)”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쓰기’ 교과서를 내용, 형태, 활용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쓰기 교과서의 ‘활동’ 구성에 대한 연구(염은열)”에서는 현행 쓰기 교과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습을 위한 글쓰기 개념을 도입하고 내용 중심의 활동 구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국어 교과서 개발의 방향: 중학교 ‘쓰기’영역을 중심으로(서혁)”에서는 쓰기 교과서의 개선 방안으로 쓰기와 읽기의 통합적 접근, 읽기 텍스트의 구조를 활용한 쓰기 활동, ICT와 매체를 활용한 쓰기 강조, 융통성 있는 단원 구성 체제, 국외 사례 참조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용 쓰기 교재 개발 방안 연구(양명희, 이영숙, 정희창)”는 국립국어원의 단계별 글쓰기 교재 개발 사업 중 초등용 쓰기 교재의 방향을 소개한 것으로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쓰기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재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쓰기 평가에 관한 논의는 쓰기 평가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와 쓰기 평가의 이론과 체계를 세우거나 쓰기 능력이나 태도 등을 검사하기 위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로는 “반성적 쓰기를 활용한 작문 평가 방안(박영민)”, “초등학생 쓰기 능력 신장을 위한 쓰기 평가 연구(이병승)”, “초등학교 쓰기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최경희)”, “국어과 쓰기 평가 문항 작성의 실태와 개선 방안(임천택)”을 들 수 있고 후자의 경우로는 “담문 평가의 요소 체계: 초등 담문 평가를 중심으로(최명환)”와 “초등학생용 쓰기 동기 검사 도구 개발과 활용 방안(이재승, 신헌재, 임천택, 전제응)”, “논술고사의 성격 및 타당성 고찰(이병민)”

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임천택은 쓰기 평가 내용의 타당도 문제를 성취 기준뿐만 아니라 수행성, 메타성, 상황성의 세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하고, 초등학교 쓰기 평가 문항의 작성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재승 외에서는 10개의 쓰기 동기 요인을 검사하는 4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초등학생용 쓰기 동기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그 활용 방안을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교수 학습 개선 차원에서 제안하였다.

학위 논문으로는 중학생 쓰기 평가를 논의한 "창의력 신장을 위한 글쓰기 평가방법 연구(강현화)"와 "중학교 글쓰기 수행평가 사례 연구: 교사 태도와 논술문 쓰기 지도 사례를 중심으로(김혜미)" 그리고 고등학생 작문 평가를 논의한 "작문 수행평가의 실태와 개선방안: 수도권지역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염혜정)"를 들 수 있다.

쓰기 및 쓰기 교육 현상과 담론, 문화에 관한 연구로는 "중학생의 쓰기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박영민)", "쓰기 교육에서 학생 필자의 자리(이재기)", "한국의 언어 문화와 글쓰기의 원리(최명환)" 등이 있다. 박영민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중학생의 쓰기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협력적 상호작용, 쓰기 효능감, 경쟁적 노력, 도전심의 네 가지로 상정하고 각 요인의 설명력을 검토하였다. 이재기는 사회적 관점에서 필자를 규정한 바흐친의 관점을 적용하여 현행 쓰기 교육의 학생 필자관을 비판하고, 쓰기 교육이 궁극적으로 학생 필자를 사회적 주체로 형성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최명환은 훈민정음 해례에 우리 말글의 표현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글쓰기의 원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쓰기 교육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고찰한 "근대 초기의 작문교육 환경 연구: 『國語教授法』(1912)을 중심으로(배수찬)", "쓰기 교육과정의 변천과 이론적 배경(허재영)", "교육과정기 이전

의 작문 교재 변천사(허재영)"는 쓰기 교육의 역사 기술에 의의 있는 성과를 남겼다.

학위 논문 중에서는, "텍스트 의미 구조 표지 연구: 초등학교 교과서와 초등학생 작문을 중심으로(김수경)", "설명문 쓰기 과정 양상 연구: 초등학교 3, 5학년을 중심으로(송강숙)", "아동의 문단 형성 능력 발달 연구(유승애)" 등이 주목할 만하다.

이 외에도 쓰기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高等學生들의 글쓰기 事例 연구: 自己 表現的 쓰기와 協議하기를 통한 쓰기를 중심으로(김선정)", "국어교사의 쓰기 교수 전문성 준거 설정 기초 연구: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김선정)", "쓰기에서 자기 조정을 위한 주제 활용 양상 연구(류미영)", "쓰기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신념 및 유치원에서의 쓰기 지도 실태(서정연)", "인터넷 작문과 펜 작문의 사례 연구: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신미영)", "전남 지역 도농통합시 초등학생들의 쓰기 실태와 개선 방안(심은숙)", "과학고등학생 논술문의 수준별 양상 분석 연구(오찬세)", "고등학생 논술문 실태 연구(이성건)"는 쓰기 교육 현상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사를 보여준다.

초·중등학교 수준의 쓰기 교육 논의와 다른 연구 분야를 형성하고 있는 대학 작문 관련 연구 성과로 대표적인 것은 한국작문학회에서 "작문연구" 2집 기획 주제로 다룬 대학생 글쓰기 관련 연구이다. 여기에는 "사회과학 글쓰기의 논리와 과제(이황직)", "이공계 과학글쓰기 교육을 위한 강의 모형: 연세대학교의 「과학글쓰기」를 중심으로(박권수)", "의과대학생을 위한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신선경)", "교원 양성 대학의 작문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안(박영민)" 등이 게재되어 있다. 이황직은 사회과학 글쓰기가 독자성을 갖기 위한 논리를 세 가지 제시하고, 대학생 스스로 자신의 연구 관심에 적합한 글쓰기를 선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권수

는 2006년 1학기 연세대학교에 개설된 '과학글쓰기' 강의 내용을 소개하고 과학글쓰기 강의 모형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논점을 제시하였다. 신선경은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글쓰기 교육의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의학, 국어학, 수사학 및 작문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 전문가들의 학제적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박영민은 대학 작문 교육에서 작문 경험, 작문 지식, 작문 방식 요인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고, 이 요인들을 모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후, 교원 양성의 교양 과정과 전공 과정에서 작문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 대학 작문 교육과 관련하여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으로는 "대학 작문 교육의 전략적 접근(도애경)", "대학생의 글쓰기 실태조사와 효율적인 지도방안 연구(심보경)", "대학의 교양교육과 글쓰기 교육(서정혁)", "理工系 大學生을 對象으로 한 글쓰기 敎授法의 方向(오윤선)" 등이 있고, 단행본으로는 "대학생 글쓰기 특강: 글쓰기의 모든것: 글에 대한 욕망과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강준만)", "대학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의 실제(최규수)", "초등 교사를 위한 글쓰기와 화법(김재봉, 선주원)"을 참고할 만하다.

4) 문법(국어지식) 및 어휘 교육

문법 및 어휘 교육 분야는 학술지 논문 57편, 학위 논문 90편, 단행본 5권 등 연구 성과가 매우 많았다. 문법 및 어휘 교육에서는 문법 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에 대한 논의, 교수·학습 방법 관련 논의, 교재 및 교과용 도서에 관한 논의, 교육 실태 및 학교 문법에 관한 논의가 많았고 평가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특히,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문법 교육의 위상과 관련한 문법 교육 연구자의 목소리가 강하게 표출되었던 점이 주목할 만하다.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과 문법 교육의 과제(민현식)”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을 기능 중심의 4영역 체제로 개정하려는 교육과정 개정안의 논리와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의 기능 교육은 비문학 내용을 중심으로 효율성과 유창성을 지향하는 교육으로 지속하고, 이에 덧붙여 정확성과 적절성을 지향하는 문법 교육, 창의성을 지향하는 문학 교육을 새롭게 강화하는 5영역 체제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 “사범대 문법 교육과정의 구성과 문법 교육의 개선에 대한 연구(민현식)”에서는 사범대학 국어 교육 과정 중 문법 교육의 용도를 표준어 교육, 언어 규범 척도, 언어 표현력 증진, 언어 이해력 증진, 현대 언어 사회 이해, 사고력 증진, 외국어 학습 대조, 인지 능력 증진 등으로 보고 이에 근거한 문법 교육의 목표와 방법론 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학교문법’의 정체성에 대하여(김용석)”에서는 학교문법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문법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학교문법의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 교수·학습의 필요성과 용이성, 학습 내용의 실용성과 규범성, 학교문법의 보편성 등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 선정 및 체계화와 관련해서는 “문법 연구와 문법 교육의 상관관계: 문법 교육의 내용 선정 원리와 관련하여(이관규)”, “국어지식 영역의 규범성 패러다임: 창의성과 균형 잡기(주세형)”, “국어지식 영역에서의 지식의 성격과 내용 체계화 방법론 연구(주세형)”, “문법 영역의 내용 선정 방법 연구(이병규)” 등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주세형의 첫 번째 논문은 국어 교육에서 국어지식 영역의 규범성 패러다임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이를 창의성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세형의 두 번째 논문은 국어지식 영역의 지식이 활동의 내용으로서의 위상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 내용의 체계화를 위

한 교육 패러다임으로 '소통으로서의 언어관, 의미와 문법 관계 재고, 규범성-창조성의 균형'을 제안하고 지식의 종적·횡적 체계화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병규는 문법 영역의 내용 선정 방식으로 국어학적, 언어학적 체계에 따라 내용을 선정하는 체계 중심적 접근법과 학습자 말뭉치(학습자 오류 말뭉치)를 구축·분석하는 자료 중심적 접근법의 의의와 한계를 지적하고, 분석 범위나 기준을 국어학적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설정한 후 분석을 진행하면서 수정·보완해 나가는 절충 방안을 제안하였다.

문법 교육 내용 선정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논의한 학술지 논문으로는 "담화 차원의 문법 교육 내용 연구(김호정)", "국어 교육에서의 중세국어 문법 교육(박형우)", "국어교육에서의 한글 교육(박형우)", "어휘 교육 내용 체계화를 위한 어휘어미의 가치 교육 연구(박재현)", "표준어 정책과 교육의 현재적 의미(최경봉)", "발음 학습의 개념에 대하여(윤국한)", "'담화문법 교육'에 대하여(임규홍)", "의미교육의 학습 내용에 대하여: 제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임지룡)" 등을 들 수 있다.

학위 논문 중에서는 박사학위 논문인 "국어 문법 교육의 태도 교육 내용 연구(김은성)"와 석사학위 논문인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김형복)"와 "어휘 교육 내용 설계를 위한 낯선 어휘의 의미 처리 양상 연구(이기연)"를 주목할 만하다. 김은성은 문법 교육에서 태도 교육의 중요성과 의의를 고찰하고, 국어 인식 활동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 태도 교육의 내용 요소를 선정하여, 태도 교육의 내용 구성 원리와 실제를 밝혔다. 김형복은 한국어 발음 교육 및 발음 교육에 대한 교사 및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한국어 발음 교육의 내용 체계와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기연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낯선 어휘 의미 처리 양상을 조사·분석하여 어휘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의 학위 논문들에서도

국어지식 교육의 내용 및 내용 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제시를 주제로 삼아 논의를 전개한 것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문법 교육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단행본은 모두 네 권이 출간되었다. "학교문법론의 이해(박덕유)"는 저자가 2005년에 출판한 '문법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수정·보완한 책이다. 수정·보완된 주요 내용은 제1장에서 7차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한 부분, 제2장에서 문법 교육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좀 더 구체화한 부분 등이다. "문법 교육의 이해와 실제(송현정)"는 저자가 문법 교육과 관련하여 발표한 소논문들을 분류하고 수정·보완하여 묶어 낸 책이다. "국어 문법의 교육과 연구(이충우)"는 연구자의 석·박사 학위 논문의 주요 내용과 발표 논문을 묶고 관련 논의를 보태어 펴낸 책이다. "문법교육론과 국어학적 지식의 지평확장(주세형)"은 연구자의 "통합적 문법 교육 내용의 원리와 실제"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비롯한 최근 발표 논문을 재구성하고 보완하여 펴낸 책이다.

문법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한 주요 연구 성과는 어휘, 맞춤법, 문장, 현대 국어 및 중세 국어 문법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어휘 교수·학습 관련 논의로는 "한국어 명사 '눈'의 교육 방안(문금현)", "표현 어휘의 교육 방법 연구(임성규)", "토박이말 지도 방안(오정훈)", "방언 학습을 위한 재량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이정기)"를 들 수 있다. 맞춤법 교수·학습 관련 논의로는 "초등학교에서의 맞춤법의 지도(양태식)", "효과적인 사이시옷 표기 교육(이동석)", "국어 규범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 학습자의 국어 오용 예방을 중심으로(이지선)"를 참고할 수 있다. 문장 교수·학습 관련 논의로는 "비문법적인 문장 분석을 통한 올바른 문장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손경미)", "쓰기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수학습방안: 10학년 국어교과를 중심으로(정미숙)", "중학생의 문장 실태와 교육 방안(

조은희)"을 참고할 수 있다.

문법 교수·학습에 대한 전반적 논의로는 "국어 지식 영역의 검토 및 지도 방안: 초등학교 중학년을 중심으로(이숙영)", "초등학생의 대용 표현 사용 실태와 그 지도 방향(서주형)", "중세국어 문법의 효과적 교육을 위한 모색(김유범)"을 들 수 있다. 이숙영은 초등학교 중학년의 국어지식 내용 검토를 통하여 특징과 문제점을 밝히고 언어 발달과 적합성을 고려한 국어 지식 영역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고, 김유범은 15세기 중세 국어 문법 교육에서 수업 교재의 문제, 강독 자료의 문제, 학습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책으로 '중세국어의 현실을 보여주는 1차 자료의 선정, 전체 내용의 이해가 가능한 텍스트의 사용, 자료 속에서 단편적 문법 특징의 귀납, 단편적 문법 특징의 종합과 기존 연구 정리를 통한 체계화'를 제안하고 수업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였다.

학위 논문 중에서도 위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 "총체적 언어 접근법과 발음중심 교수법을 병행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서윤정)"와 "중학교의 바람직한 음운 교육 방법론 연구(정미라)"는 각각 유아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발음 및 음운 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초등학생의 은어와 비속어에 대한 지도 방안 연구: 편지글을 중심으로(김옥희)"에서는 초등학생의 은어·비속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편지글을 이용한 쓰기, 읽기, 듣기의 통합 교육을 통하여 언어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밝혔다.

매체 및 통신 언어를 문법 교수·학습의 관점에서 접근한 "초등학생의 통신언어 실태 분석 및 지도 방안 연구: 울산 지역 초등학생을 중심으로(박인환)", "통신 언어의 특징과 실천적 교육 방안(이윤경)", "통신언어 교정 지도를 통한 규범적 쓰기 능력 향상 연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학교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언어를 중심으로(조국선)", "광고 언어를 활용한 국어 지식 교육 방안(홍정은)", "PC

통신 언어의 사용 실태와 교과 지도 방안: 중학생을 대상으로(홍지은)"도 참고할 만하다.

학위 논문 중 문법 교수·학습 방안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어휘 지도와 맞춤법 지도, 그리고 다양한 문법 범주의 지도와 관련한 논문들이다. 이 외에 어휘 교육과 관련한 단행본으로는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어휘획득 전략: 학습전략 교육과정, 지식획득(김윤옥)"을 참고할 수 있다.

문법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매우 생산적으로 발표된 것도 특징적이다. "문법 교과서의 내용 체계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최경봉)"에서는 문법 교과서의 내용 체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법 교과서에서 문장 구성을 중심으로 내용 체계를 개편할 것과 형태 중심으로 문법을 기술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법』 교과서 어휘 대단원의 비판적 검토(신승용)"와 "『문법』 敎科書 內容 記述上의 몇 問題와 改善 方向(신승용)", "국어 음운론 지식의 교과서 수용 실태와 문제점: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를 중심으로(신지영)", "국정 문법 교과서의 피동법 기술에 대한 고찰(왕문용)", "중학교 〈생활국어〉에 나타난 문법영역 구성분석(정주리)", "국어교과서의 관용표현에 대한 연구: 7차 국어교과서 관용표현의 빈도와 교과 내용 분석을 주로 하여(조창규)", "고등학교 국어 문법 교과서 분석 연구: 체재와 구성을 중심으로(최호철)"에서는 '문법' 교과서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第7次 敎育課程의 文法 敎科書와 敎師用 指導書 검토: '單語'와 '文章' 單元을 중심으로(이선웅)"에서는 제7차 문법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단어'와 '문장' 단원의 내용을 사실 설명의 오류나 기술의 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문법 내용의 국어 교과서 구현 방안 연구(장윤희)"와 "문법교

과서의 내용 개발을 위한 연구: 중학교 〈생활 국어〉 '음운과 음절' 단원을 중심으로(정주리)"에서는 문법 교과서 개발의 방향과 대안적 내용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 이 외에도 교육대학원에 제출된 학위 논문 중에서 18편 정도가 문법 교과서에 대한 분석과 문법 교육 내용 및 교수·학습 방안을 다루었다.

문법, 어휘 평가 분야와 관련한 연구는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과 평가방법에 관한 고찰(김진규, 안주호)", "중학교 국어 지식의 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정진화)", "어휘 평가 문항 분석: 대학수학능력시험 어휘문항을 중심으로(현빈)"를 찾아볼 수 있다.

문법 및 어휘 교육 관련 현상 또는 실태의 기술을 목적으로 한 연구로는 "學習者 말뭉치에 기반한 國語知識의 計量的 硏究 方案(김남돈)", "한국어 발음교육 연구 동향 분석(김상수, 송향근)", "국어 인식활동의 경험적 속성(남가영)"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김남돈은 초등학생의 일기 자료 4만 5천 어절의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 빈도에서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얻어냄으로써 실험 말뭉치에 적용된 연구 방안이 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남가영은 국어 인식활동을 국어 지식 교육에서 제공하는 본질적인 경험으로 간주하고, 경험의 속성과 그 확장 가능성을 논의한 후, 국어지식교육에서 제공하는 경험의 의의와 가치를 논증하였다.

이 외에도 "고등학생들의 비규범적 통신 언어 사용과 국어 교육의 과제(박호관, 이정복)", "보어와 학교문법(양명희)", "초등학교 3·4학년 아동의 접속부사 사용 특성(유경, 정은희)", "언어 구조의 다차원성과 학교문법의 연결어미 교육 내용(유혜령)", "한국어의 서술절 설정 연구: 학교 문법을 중심으로(이은희, 이현주)", "중세국어 문법 교육과 언해본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김유범)", "한국어 발달 특성과 학령전기 문법형태소(배소영)" 등이 있다.

학위 논문으로는 “중학생의 띄어쓰기 사용 실태 연구: 3학년 학생의 글을 중심으로(박지언)”와 “강남과 강북 학생들의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사용실태 비교 연구: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이유신)”를 참고할 수 있다.

문법 교육의 역사 기술과 관련한 연구로는 “국어 지식 교육 내용의 변천 연구(박형우)”, “통합적 문법 교육에 관한 담론 분석(신명선)”,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어 지식 영역 지도 내용 변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이창근)”, “역대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매체 식별 교육 내용의 변천 양상과 국어교육사적 함의(주세형)”, “역대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문법 교육 내용의 목표 표상성 변천 양상(주세형)”, “문법 교육의 내용과 교수-학습 이론 변천사(허재영)”를 찾아볼 수 있다. 박형우는 제4~7차 교육과정 시기 국어과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을 학교급별로 나누어 고찰하고 국어 지식 영역 교육 내용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세형의 첫 번째 논문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반영된 ‘매체 식별 교육 내용’의 변천 양상을 고찰하여 ‘그림의 역할’과 관련해서 이론적 합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이들 내용에 대한 목표 표상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식성 개념의 확장과 내용 선정 근거의 합리화기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주세형의 두 번째 논문에서는 역대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문법 교육 내용의 변천 양상을, 목표 표상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허재영은 근대계몽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법 교육의 내용 및 교수-학습의 원리를 교재 중심으로 고찰하여, 근대계몽기로부터 검인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문법 교육 내용이 교수-학습 원리를 철저하게 구현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 문법 교육 통합론의 의의를 평가하면서 통합의 원리가 문법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을 지적하였다.

5) 문학

문학 교육 분야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와 문학 교육 연구 방법론에 대한 연구 성과가 가장 주목되며, 문학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등에서는 문학의 하위 갈래에 따른 다양한 논의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졌다.

문학 교육의 성격과 목표 및 내용과 관련해서는 “문학교육학” 제19호 기획 주제인 “새로운 문학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연구”와 제20호 기획 주제인 “심화선택과목 ‘문학’의 교육과정 개정 방향”의 논의가 주목할 만하다. “새로운 문학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연구”와 관련한 논문으로는 “문학을 통한 국어교육의 재개념화(김상욱)”, “총체적 언어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과 문학교육의 중요성(임경순)”, “문학 교육과정 내용 선정을 위한 대안적 연구 방향(신헌재)”, “읽기 교육과정과 문학 교육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한명숙)”, “문학교육과정의 경험 범주 내용 구성을 위한 시론(류수열)” 등이 게재되었다. 김상욱은 국어 능력을 사회적 정치적 실천으로서의 문해력 관점에서 규정한 후, ‘책 읽어주기’ 활동의 사례를 들어 문학을 통한 국어교육의 의의와 효과를 밝혔다. 임경순은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문학 교육의 위상 축소를 비판하고, 총체성을 전제로 한 국어(문학) 능력은 가치 있는 보다 광범위한 능력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신헌재는 문학교육 연구, 특히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문학체험 기초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 분야 연구의 개념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명숙은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을 자료로 삼아 읽기 교육과정과 문학 교육과정의 공생성과 독자성을 논의하였다. 류수열은 문학 교육에서 지식과 경험의 관계를 텍스트를 매개로 논의하고 문학 교육 과정에서 경험 범주 내용 구성 방법을 밝히고 경험의 목록을 구성하는 주요 범주를 제시하였다.

"심화선택과목 '문학'의 교육과정 개정 방향"과 관련한 논문으로는 "문학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탐색: 심화선택과목 〈문학〉의 경우를 중심으로(우한용)", "서사 장르의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한 제언: 작품의 축약과 도식화를 중심으로(김중신)", "시가문학 장르의 교육과정 개정 방안(한창훈)", "희곡문학 장르의 교육과정 개정 방안(황정현)", "심화 과목으로서의 고전 교육과정 개정 방향(조희정)"이 게재되었다. 우한용은 고등학교 심화선택과목인 '문학'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을 문학 과목의 성격, 내용 및 내용 체계, 문학의 갈래와 범위, 교수 학습과 평가, 독서 목록 등과 관련하여 제안하였다. 김중신은 '문학' 과목의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전제를 내용, 방법, 평가의 측면에서 제시한 후, 질적 축약화라는 텍스트적 재현과 작품 내용을 도식화하는 비텍스트적 재현을 서사 장르의 교육과정 개정의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한창훈은 교원 임용고시와 수능 시험 언어 영역의 시 제재에 대한 평가 현황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문학을 역사 사회적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기 위한 문학사 교육 특히 시(가)사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황정현은 교육과정에서 희곡문학 장르를 다루어 온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희곡문학 장르의 교육과정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희정은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고전 교육의 위상 변화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심화 과목으로서의 고전 교육의 방향을 '고전의 차이를 인식하고 차이를 운용하는 능력의 습득'으로 제안한 후, 이를 습득하기 위한 단계와 교수 학습의 요점을 밝혔다.

이 외에도 문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논의한 연구로는 "중등학교 문학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교육과정용어 선정 및 범주화에 관한 연구(Ⅱ): 미국과 캐나다의 영어과 교육과정과 문학교육과정용어(최지현)", "심화 선택 과목 '문학'교육의 내재적 가치(한창훈)"를 찾아볼 수 있다. 최지현은 미국과 캐나다의 영어과 교육과정을 문학교육과

정용어의 선정과 범주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문학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창훈은 심화선택과목 '문학'은 문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 즉 문학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학작품에 나타난 언어적 가치, 예술작품으로서의 문학의 성격, 문학의 역사적 층위를 강조하였다.

문학 교육의 내용을 지식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논의한 "문학 지식의 교육적 구도(류수열)"와 "문학교육에서 지식의 재개념화를 위한 연구(김미혜)"도 주목할 만하다. 류수열은 문학 교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학 지식을 텍스트적 지식, 콘텍스트적 지식, 메타텍스트적 지식으로 구분하고 문학지식이 문학의 향유와 일상적 의사소통에서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지식이 언어교육의 영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김미혜는 문학교육에서 지식의 성격을 구성성과 상호주관성, 경험성, 변환성 등으로 규정하고, 작가, 작품, 독자, 세계로 이어지는 문학의 소통 구조를 고려하여 문학교육에서 지식의 범주를 학습자 지식, 작품 관련 지식, 작가 관련 지식, 세계 지식으로 제시한 후 각 범주 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구조화하였다.

문학 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의는 문학의 갈래에 따라서도 풍부하게 이루어졌다. 현대시 교육 분야에서는 "현대시 교육의 방향(정재찬)", "시 이해를 위한 시 창작교육의 방향과 내용(김정우)", "초등학교 쓰기 교육에서의 동시 창작 교육의 방향(정정순)", "수사학적 지식의 교육 내용 연구: 현대시 텍스트의 설의적 표현을 중심으로(김미혜)", "가상공간과 시 교육(이정환)", "텍스트 가치평가 활동을 위한 시교육 연구(남민우)"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정재찬은 현대시 교육이 실체 중심 교육에 활동 중심 교육을 결합하여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인문주의 교양 교육이 되어야 하며 속성 중심 교육에

활동 중심 교육을 결합하여 문학과 일상의 건강한 관계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우는 시 창작 교육의 방향을 자기표현과 쓰기 능력의 증진, 시 구조에 대한 이해와 시에 대한 안목 키우기의 두 측면으로 제안하고, 시 창작교육의 내용을 시의 장르적 특성과 서정에 대한 이해, 새로운 시선과 감각에 대한 이해, 시적 화자에 대한 이해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정정순은 예술국어를 배우게 하는 과정으로서 동시 창작 교육을 위해서 창작 활동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과정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학습할 내용 요소를 초점화하여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미혜는 현대시 텍스트에 나타난 설의적 표현의 양상을 유형화하여 설명하고 현대시 교육에서 학습자가 시적인 수사의 의미를 적확하게 읽어내고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언어적 구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남민우는 시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창조적 시문화 형성을 위해 학습자에게 필요한 능력이 시 텍스트에 대한 가치 평가 능력이라는 전제 하에, 그것의 원리와 교육 내용을 논하였다.

서사 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연구로는 “아이러니와 아이러니 서사의 읽기 문제(문영진)”, “서사이론과 읽기 교육의 소통을 위한 시론(김성진㉠)”, “‘타자’의 서사적 기능과 서사교육의 내용(선주원)”, “작중인물의 정체성을 활용한 비판적 문식성 교육 내용 연구: 청소년 소설에 형상화된 정체성을 중심으로(선주원)”, “북한의 서사 교육(김양희)”를 찾아볼 수 있다. 문영진은 아이러니의 특성과 아이러니 (서사) 읽기의 원리와 절차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러니 서사 읽기를 위한 교수·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다. 김성진㉠은 ‘비문학 읽기’ 영역에 ‘서사 이론’ 개념이 될 수 있음을 버드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의 플롯 재구성을 통한 비평적 읽기 과정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선주원의 첫 번째 논문에서는 서정인의 소설에서 타자

의 존재 의미와 서사적 기능을 살펴본 다음, 타자의 서사적 기능에 초점을 둔 서사 교육의 내용을 제안하였다. 선주원의 두 번째 논문에서는 비판적 문식성 함양의 관점에서 청소년 소설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김양희는 북한의 국어 교과서에서 수록된 서사 제재의 내용과 특징 및 서사 교육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고전 문학 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연구로는 "고전 리터러시의 '시공간적 거리감' 연구(조희정)", "시조 교육에서 태도의 개념: 태도의 두 가지 양상을 중심으로(서명희)", "시조 수용 태도 교육 연구를 위한 〈오우가〉 읽기: 절차로서의 태도를 중심으로(서명희)", "고전시가교육과 문화콘텐츠(최혜진)"를 찾아볼 수 있다. 조희정은 '시공간적 거리감'의 문제를 15세기 고전 교육의 사례를 통하여 살피고 고전 교육의 접근법은 단순히 '역사적 원근법'을 강조하는 데서 벗어나 학습자가 고전과 대면하며 던지는 질문이라는 관점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서명희의 첫 번째 논문에서는 태도의 개념을 절차로서의 태도와 내용으로서의 태도로 나누고 '오우가'를 예로 들어 시조 수용 태도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서명희의 두 번째 논문에서는 '오우가'를 분석하여 '오우가'의 태도 자극 자질을 논의하고, 시조를 읽는 태도의 교육 내용으로 '대화적 관계 형성의 태도, 발견에 참여하는 태도, 자기 준거에서 재의미화하는 태도'를 제시하였다. 최혜진은 고전시가 교육을 문화 콘텐츠와 관련지어 논의한 후, 고전시가의 문화콘텐츠적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문학 교육을 문화적 시각에서 수행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어린이 문학 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연구로는 "문화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아동문학(황정현)"과 "여가적 읽기를 위한 어린이 문학교육 내용 연구: 문학 생활화를 중심으로(선주원)"를 찾아볼 수 있다. 황정현은 문화 생태학적 관점에서 아동 문학의 현상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후, 아동 문학의 본질 회복을 위한 원리로 '생명 가

치의 회복, 상생의 원리, 순환의 원리'를 제시하고, 아동 문학 비평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선주원은 여가적 읽기와 어린이 문학 읽기 특성 간의 관련성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문학 교육의 내용을 문학적 지식 구성, 문학 능력(수용과 창작) 증진, 여가적 문학 읽기 태도 형성으로 나누어 논의한 후, 여가적 문학 읽기에 의한 문학 생활화의 실천을 논의하였다.

비평 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연구로는 "'사이버-청소년문학'의 문학교육적 의미 연구(남민우)"와 "영향 개념의 문학교육적 함의와 그 적용 가능성(유철상)"을 찾아볼 수 있다. 남민우는 정신 분석학적 관점을 수용하고 있는 사회기호학적 텍스트이론을 적용하여, 사이버-청소년 문학의 기능 체계와 가치구조를 논의한 후, 사이버-청소년 문학에 대한 문학교육적 비평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유철상은 비교 문학과 해체주의 비평에서 주된 연구 대상이었던 '영향' 개념의 함의와 변모 과정을 고찰하고,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에 대한 비평적 독해와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이 개념의 문학교육적 적용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학 교육의 방향 및 내용과 관련한 연구로는 "〈文學創作敎育論〉 강의 개설을 위한 구상(우한용)"과 "비평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소설 교육: 교육대학생의 비평적 에세이 쓰기를 중심으로(선주원)"를 들 수 있다. 우한용은 문학교육에서 창작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범대학 학부 과정에 '문학창작교육론' 강의를 설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문학창작교육론의 성격과 내용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선주원은 교육대학원생들의 비평적 에세이 쓰기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이들의 비평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설 교육의 내용을 발견적 읽기에서 비평적 에세이 생산하기까지의 여섯 가지 요소로 제안하였다.

문학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주로 다룬 단행본으로는 "문학교육 틀

짜기(김대행)", "문학교육론(김인환)", "문학교육과정론(최지현)", "시 해석 교육론(김정우)", "학습자 중심 시 교육론(신헌재, 진선희)", "시 교육의 해체와 재구성: 여성시, 사이버시 그리고 텍스트 가치평가 활동 교육(남민우)", "문학 교육의 역사와 성장의 시학(남민우)", "유아문학교육(이대균)"을 들 수 있다. 김대행은 문학교육의 본질, 내용, 방법, 국어 교육과의 관계 등 문학교육 설계에 대한 성찰을 제시하였다. 김인환은 문장 교육론, 시 교육론, 소설 교육론으로 나누어 문학교육론을 논의하였다. 최지현은 문학 교육과정에 대한 통시적·공시적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문학교육과정 설계의 원리와 실제를 제시하였다. 김정우는 박사학위 논문 "시 해석 교육 내용 연구"와 이에 대한 보론적 성격의 소론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신헌재·진선희는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이론과 실제를 논의하였다. 남민우의 첫 번째 책은 박사학위 논문 "텍스트 가치평가 활동을 위한 시교육 연구"를 단행본 체제로 재구성하고, 여성시론과 사이버-청소년 문학론을 보론으로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남민우의 두 번째 책은 문학교육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맥락의 변화에 대한 방법론적 대응 그리고 기형도, 이상, 윤동주, 임화 등의 소위 성장시를 문학교육적으로 접근한 논의들을 함께 엮어 제시하였다. 이대균은 예비 유아교사를 위한 유아문학교육론의 이론과 실제를 다루었다.

문학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을 논의한 논문들도 갈래별로 살펴볼 수 있다. 현대시 교수 학습과 관련한 논의로는 "대화 중심의 현대시 교수・학습 방법(최미숙)", "'이야기시'의 화자 분석과 시의 해석 방법(박윤우)", "비유적 표현을 통한 시 쓰기 지도 연구(주강식)", "시의 구성요소에 따른 낭송 활동 중심의 시 교육 연구(김태숙)", "시적 발상과 창작 지도 원리(염창권)", "장르 해체 현상을 활용한 시 교육 방법 연구: 오규원의 시를 중심으로(이연승)", "학습자 중심의 문학사교육 연구: 정지용의 시론을 예로 하여(김정우)", "치료적 시

문학 교육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시치료의 이해와 임상사례 연구를 중심으로(최소영)"를 찾아볼 수 있다. 최미숙은 현대시 수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를 세 층위로 구분하고 대화 중심 현대시 교수·학습 방법의 절차를 제시하였다. 박윤우는 '이야기시'의 성격과 구조, 화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소통 구조와 해석의 과정을 밝히고 이를 학습독자의 시 해석 과정에 도입함으로써 시 읽기의 방법론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김정우는 학습자 중심의 문학사 교육의 방향을 활동 중심과 해석 중심으로 설정하고 정지용 시론을 예로 하여 문학사 교육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최소영은 우울증 극복과 자기계발을 위한 시치료 임상 사례 연구를 통하여 시치료의 효과를 밝혔다.

서사 문학의 교수 학습과 관련한 논의로는 "가난 체험을 통한 현실주의 동화 읽기의 방법 탐구: 김중미의 『괭이부리말 아이들』을 중심으로(임성규)", "바꿔 쓰기를 활용한 동화 감상 교육 방법 연구(이아경)", "이미지 표현 활동을 적용한 동화 지도방안 연구(김진영)", "이야기 스키마 활성화를 통한 이야기 창작지도 방안 연구(고선아)", "패러디를 활용한 어린이 문학 교육(선주원)", "창의적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한 국어과의 교수 학습 전략 방안: 문화 텍스트적 관점에서의 번역 동화 이해와 감상 표현을 중심으로(권순희, 서명옥 ㉠)", "서술자·시점을 통한 소설 감상 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정연희)", "장소애·교육연극을 매개한 서사체 통합 교육(한귀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임성규는 '괭이부리말 아이들'을 가난이라는 주제와 관련을 맺는 작품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거리두기를 통한 균형 잡힌 읽기라는 작품 읽기 방법을 탐색하고 교사와 아동들이 함께 하는 협력적 읽기를 통하여 건강한 문학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귀은은 '장소애(場所愛, topophilia)' 개념을 결합하여 교육연극에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한 후, 장소애가 있는 서사체로 이상의

'날개'를 예시하여 교육연극적 접근 방법을 논의하였다.

고전 문학의 교수·학습과 관련한 논의로는 "중학교 고전소설 교육의 지향과 방법: '환상성'과 '상호소통성'을 중심으로(권순긍)", "碑誌類 樣式을 활용한 傳記 쓰기 敎育 연구(이영호)" 등을 들 수 있다. 권순긍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박씨전'과 '토끼전'을 선정하여, 전자는 판타지 문학의 '환상성' 기제를, 후자는 다양한 이본을 통한 '상호소통성' 기제를 활용하여 접근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고전 소설 교육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영호는 조선 후기의 문장가인 농암(農巖)과 연암(燕巖)의 비지류 글쓰기 방식을 분석하고 이러한 방식이 전기 쓰기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객관적 정보나 단편적 사건의 나열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전기 쓰기 교육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드라마 및 매체 문학 교육의 교수·학습 관련 논의로는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한 희곡 교재 지도 방안 연구: 연극 놀이를 중심으로(김성진㉡)", "즉흥극을 활용한 동화지도 연구(최선영)", "소설과 텔레비전 드라마의 통합적 교육 방안: TV단막극을 중심으로(한귀은)",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교육의 방법(김상욱)"을 들 수 있다. 김성진㉡은 희곡 교육의 본질을 다중지능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연극 놀이를 위한 희곡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적용하여 학습 효과가 있었음을 밝혔다. 한귀은은 소설과 드라마의 통합적 읽기 방안을 '인물-배우-화면미학, 사건·구성-편집-몽타주 효과, 배경-장소-화면미학'으로 범주화하고, 은희경의 소설('내가 살았던 집')과 단막극의 통합적 읽기 과정을 제시한 후, 소설과 단막극의 통합적 수업 방향을 제안하였다. 김상욱은 그림책의 의미 실현 양상을 동일시, 비동일시, 반동일시의 개념적 범주로 설명하고 그림책의 문학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이혜란의 '우리 가족입니다'를 예로 들어 제시하였다.

단행본 "어린이 문학교육의 방법(선주원)"은 어린이 문학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1부에서는 어린이 문학교육의 본질과 지향을, 2부에서는 장르적 특성에 따른 어린이 문학교육의 방법과 어린이들의 다양한 반응을 유발하는 표현 중심의 문학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문학 교육 교재에 대한 비판적 점검과 개발 방향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는 논의로는 "문학교육의 성격과 문학 교과서의 지향: 제7차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점검과 논의(김창원)", "목표 중심 단원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초등학교 문학 영역을 중심으로(권혁준)", "교과서 문학 영역에 제시된 질문의 양상 탐색: 반응중심학습법으로 설계된 차시 교재를 중심으로(김선배)", "시 교육에서 이미지·비유의 교육과정과 교재의 설계 방향(노철)",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시 자료의 분석 연구(전원범)", "설화의 교재화 양상에 대한 고찰: 교육과정의 '내용'영역과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신원기)", "초등 교과서 수록 고전 제재 변천 연구(1): 건국 과도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문헌 제재를 중심으로(조희정, 서명희)", "초등 교과서 수록 고전 제재 변천 연구(2): 건국 과도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 구비 전승 제재를 중심으로(서명희, 조희정)", "텔레비전 드라마 교육에 대한 장르별 접근: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18종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한귀은)" 등을 들 수 있다. 김창원은 제7차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구성, 작품 선정, 학습 활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문학 교과서 편찬에서 문학 요소와 교육 요소를 상생적으로 고려하는 문학 교육관을 강조하였다. 권혁준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학 영역에서 목표 중심 단원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선배는 반응 중심 학습법으로 설계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문학 단원의 질문 양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철은 이미지·비유 개념을 일상 언어활동과 사고활동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이미지와 비유

교육을 위한 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다. 전원범은 제7차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게재된 시 205편을 분석하여 그 의의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원기는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과서에 나타난 설화교육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밝혔다. 조희정·서명희는 해방 이후 초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 문헌 제재를 대상으로 삼아 서정, 서사, 교술, 극으로 구분하여 수록 양상을 검토하였고 서명희·조희정에서는 해방 이후 초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구비 전승물을 설화, 민요, 그리고 속담과 수수께끼로 분류하고 구비 전승된 인물 설화를 반영하는 전기 텍스트를 함께 고려하여 그 빈도와 경향을 파악하였다. 한귀은은 텔레비전 드라마 장르를 교육적으로 분류하고, 이 분류체계에 따라 제7차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텔레비전 드라마 교육 내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국어과 교육에서 텔레비전 드라마 교육의 정체성과 경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문학 교육 현상에 대한 기술접 접근이나 개별 작품에 대한 분석과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연구는 학습 독자의 경험에 대한 연구와 문학 작품 또는 관련 문헌에 대한 분석적 연구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학습 독자를 논의 대상으로 삼은 논의로는 “학습자의 현대시 감상 경향에 관한 연구(유영희)”, “초등학교 학생들의 시텍스트 수용 양상 연구: 초등학교 6학년을 중심으로(정우기)”, “대도시와 읍면이하 지역 학습독자의 시적 체험 대비 연구: 시 「엄마는 진짜 애쓴다」, 「벌」 읽기에서 〈구체화〉와 〈주제화〉 양상을 중심으로(진선희)”, “청소년 문학 경험의 질적 이해를 위한 독서 맥락의 탐구(최인자)”를 찾아볼 수 있다. 유영희는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에 대한 대학생의 비평문을 분석하여 대학생들의 비평적 사고 과정과 경향을 밝혔다. 진선희는 시 ‘엄마는 진짜 애쓴다’와 ‘벌’에 대한 대도시와 읍면이하 지역 학습독자의 시적 체험 양상을 비교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인자는 청소년의 독서 클럽 활동을 성취형, 아카데미형, 향유형 클럽으로 유형화하여 특성을 밝히고 청소년의 독서 경험을 질적으로 기술하였다.

문학 작품이나 관련 문헌에 대한 분석적 연구로는 "〈학원〉의 심사평에 나타난 학생문예관 연구: 〈학원〉(1954.1-1956.2)의 '학원문예상'과 '학원문단'을 대상으로(황혜진)", "'엇디ᄒᆞ리' 표현을 통해 본 고전문학교육의 가능성(최홍원)", "성찰적 사고의 문학교육적 구도: 〈도산십이곡〉과 〈어부사시사〉를 대상으로(최홍원)", "기행가사의 '공간' 체험이 지닌 교육적 의미(염은열)", "〈關東別曲〉의 교재사적 맥락(류수열)", "향유 문화의 관점에서 본 「옹고집전」의 교육적 의미(서유경)", "귀신 등장 이야기의 문화적 변화와 문학교육: 〈귀신이 산다〉와 〈시실리 2km〉를 중심으로(서유경)", "설화의 문학교육적 가치에 관한 고찰(신원기)"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전통적 서사 소통 방식의 하나인 이야기판으로 설명한 "이야기판과 서사적 정체성의 역학 관계: MBC FM『라디오 여성시대』를 중심으로(김근호)"도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문학 교육의 연구와 담론에 대하여 메타적으로 접근한 논의로는 "문학교육학" 21호 기획 논문 네 편과 그 밖의 논문 두 어 편을 들 수 있다. "문학교육학" 21호에 게재된 기획 논문은 "문학교육 연구방법론의 확장과 그 실제: 서사 텍스트의 표현 능력을 중심으로(김상욱)", "문학교사는 존재하는가: 문학교사에 대한 문학교육학 교수, 예비교사, 그리고 국어교사의 이해(최지현)", "국어과 교사의 실천적 지식 성찰을 위한 방법론적 탐색: '성찰적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중심으로(최인자)", "초등학교 저학년 문학 수업에 대한 실행연구: 그림책 수업 담화 분석을 중심으로(정현선, 이미숙)" 등 네 편이다. 김상욱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서사 능력을 측정하는 준거를 마련하고 이를 검증하는 사례 연구를 통하여 문학 교육 연구

방법론의 확장과 혁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최지현은 민족지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문학 교사에 대한 문학교육학 교수, 예비교사, 국어교사의 이해를 탐구하였다. 최인자는 성찰적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적용하여 국어과 초임 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형성과 재구성 과정을 고찰하였다. 정현선·이미숙은 실행 연구를 통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의 그림책 만들기 수업에서 교사 학생 간의 의사소통 방식을 탐구하였다.

이 밖에 "학습독자에 대한 질적 연구 방법 고찰: 문학 반응을 중심으로(진선희)"와 "희곡교육・교육연극의 연구 동향(윤금선)"도 주목할 만하다. 진선희는 학습독자의 문학 반응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가 지향해야 할 방법을 목적 및 주체 인식에 의한 구성적 특징, 자료 수집 방법의 상황맥락 중심성, 자료의 기술 및 분석과 해석의 귀납적 특성, 연구 문제 및 방법 간의 순환성과 발견 지향성 등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그리고 윤금선은 희곡교육·교육연극 관련 논저를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연도별·범주별·대상별로 분류하여 그 연구 동향을 고찰하였다.

6) 매체 교육

매체 교육 분야에서는 주로 매체 교육을 국어 교과에서 수용하는 방안과 매체 교육의 방향 및 내용이 주조를 이루고 있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교수·학습 방안과 국어 교육의 방법으로서 매체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재화나 평가 방안, 미디어 교육 현상과 담론에 대한 기술과 분석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국어 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의 위상과 방향에 대한 논의로는 "어린이 대상 영상 창작 교육의 국어 교육적 함의(정현선)", "리터러시

槪念의 擴張에 관한 연구: 미디어 리터러시 media literacy를 중심으로(김대희)", "초등학교 국어과에서의 정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연구: 전자게시판을 중심으로(김선겸)" 등을 들 수 있다. 정현선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공동으로 창작한 영상물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창작 주체로서 어린이들이 영상 언어를 통해 생산하는 의미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상 창작 교육이 국어 교육에 지니는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김대희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을 미디어를 사용하고 해석하고 생산해 내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능력으로 규정한 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선겸은 정보 리터러시 교육의 이론 및 현황을 검토하고 전자 게시판을 중심으로 정보 리터러시 교수·학습 방법을 '나에게 필요한 정보 찾기' 활동, '내 생각, 내 의견 쓰기' 활동, '댓글 달기' 활동으로 나누어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위 논문에서도 관련 논의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매체 언어의 국어과 수용 방향 고찰: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을 중심으로(권성란)", "국어 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의 수용 방안에 관한 연구(남의경)", "국어교육에서의 미디어교육에 관한 연구(박선영)", "매체 언어 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소성룡)", "중등 국어교과의 매체교육 실태와 수용 방안 연구(이경미)", "매체 문식성의 개념과 그 교육적 필요성에 관한 조사 연구(이임순)", "인터넷 담화의 구비문학적 특성과 통합적 국어교육으로서의 가능성 연구(이지혜)" 등에서는 국어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의 위상과 실태에 대한 논의가 주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체 교육 분야에서 가장 주목되는 연구 성과로는 단행본으로 출간된 "하이퍼텍스트의 언어문화 이해교육(김대행 외)"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2002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연

구 과제 “하이퍼미디어 시대의 언어문화 이해교육”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묶은 책이다. 주로 인터넷을 통해 하이퍼텍스트로 실현되는 다양한 언어문화 현상의 특징을 탐색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텍스트 이해 교육의 목표, 내용 및 방법을 구안하여 현장 연구를 통해 이를 검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체 교수·학습 방안과 관련한 논의들은 매체를 중심으로 한 영역 통합적 접근과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 방안(나근화)”, “‘비유’를 통한 자아 탐색하기, 그 통합적 교육 방안(한귀은)”, “매체를 활용한 읽기・쓰기 교육 방안 연구: 신문 사설・칼럼을 중심으로(김영만)”는 전자의 경향을 보여주며, “텔레비전 뉴스 텍스트의 국어 교육적 접근(박광숙)”, “그림 읽기를 통한 시각적 문해력(Visual Literacy) 지도 방안 연구(박숙현)”는 후자의 경향을 보여준다.

미디어 교수·학습 방안과 관련한 학위 논문들로는 영화, 광고, 애니메이션 등의 활용 또는 매체 이해를 목적으로 한 논의들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속한 논문들로는 “‘영화 읽기’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박주희)”, “광고언어를 활용한 이해력 신장교육에 대한 연구(박기원)”,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중학생 국어능력 신장 방안에 관한 연구(서심미)”, “듣기와 보기를 연계한 교수・학습 방안 연구: 애니메이션 보기를 중심으로(한영환)” 등이 있다.

매체 교육의 담론과 문화에 대한 비평적 논의로 주목할 만한 것은 “미디어 소통의 관점에서 본 인터넷 공론장의 언어문화(정현선)”이다. 정현선은 인터넷으로 인해 생겨난 소통 언어와 소통 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해 생겨난 다양한 소통 현상에 대한 국어 교육적 고찰의 필요성을 전제하고 인터넷 인민재판의 사례를 토대로 공론장의 언어문화의 인식과 소통 윤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3. 국어과 교육과정 실행 요소별 연구

1) 성격과 목표 및 내용

국어과 교육의 성격과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총론적 성격의 논의는 국어 교육의 방향과 위상을 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연구로서 국어생활과 국어 문화, 사고력, 국어 능력, 교육과정, 상생 화용, 문식성 등 국어 교육의 핵심 주제를 다룬 학술 논문이나 단행본 연구 성과가 두드러졌다.

국어 교육의 성격을 규정하고 방향을 제시한 연구로는 "국어생활, 국어문화, 국어교육(김대행)"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철학적 기반 탐색: 국어교육의 개념과 관련하여(임경순)"를 들 수 있다. 김대행은 '국어교육'을 '국어생활의 교육'으로 규정하고, '국어생활'의 총체성을 논의하기 위한 요소로 '체계, 행동, 문화, 사고, 사고, 소통, 문학'의 여섯 가지를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고 국어문화 교육을 위하여 '지식, 수행, 경험, 태도'의 네 가지 요소를 교육 내용으로 도입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임경순은 국어교육의 언어관, 성격과 목표, 국어능력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국어 교육이 단편적인 지식과 지적 기능의 '변화' 차원을 넘어 삶의 의미를 간파하고 사회문화적 의미를 창출해 내며 나아가 삶의 새로운 형식을 도모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논의하였다.

국어과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와 개선을 위한 연구로는 "통합적 국어교육의 개념과 성격(이재승)",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 대화, 구성 공간, 그리고 탐구(윤준채)", "국어과 교육내용 적정성에 대한 연구(송현정)"을 들 수 있다. 이재승은 통합적 국어교육과 관련한 여러 개념들을 고찰한 후, 통합적 국어교육은 주로 언어 기능들의 통합적 지도를 대상으로 함을 밝히고 통합 지도를 위

하여 교육과정, 교과서, 지도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였다. 윤준채는 국어과 교육의 목적인 창의적 언어 사용 기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은 대화의 장으로서, 국어 수업은 의미를 협상을 통하여 인지적 변화를 경험하는 구성 공간으로서, 그리고 평가는 학생들의 문식성 발달과 교사의 수업 개선을 위한 탐구의 과정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송현정은 국어과 교육내용의 적정성 문제에 대하여 개념과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설문 조사와 교과서 내용 분석 결과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新 國語科 敎育課程의 개선 방향(방인태)"에서는 문화 생산의 관점에서 국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고, "세계의 자국어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 내용 영역을 중심으로(이관규)"에서는 자국어 교육 과정의 비교·검토를 통한 국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사고력 함양의 모국어 교육(이상태)"에서는 사고력 함양의 관점에서 국어 교육의 성격과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 외에 학위 논문인 "남북한 국어 교육과정과 국어과 교육의 내용 비교(손병출)"와 "도시형 대안학교의 국어과 통합교육과정 사례 연구: 서울,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문혜영)"도 참고할 만하다. 손병출은 남북한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교과서 내용의 주제와 영역, 문종, 어휘를 비교 분석하고 통일에 대비한 국어과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문혜영은 서울, 부산 지역 도시형 대안학교의 국어과 통합교육과정 사례를 검토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국어과 교육을 도구 교과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타 교과 교육과의 관계 정립 방향을 논의한 연구로는 "국어교육과 타 교과교육의 상호성(박인기)", "교과 문식성을 통한 국어과와 타 교과의 관계(신지현, 최영환)", "소통과 연대를 위한 국어교육(정재찬)", "수리·과학적 문제해결과 언어(김선민)", "예술교육에서의 언어의 문제(김창

원)"를 들 수 있다. 박인기는 국어 교과와 타 교과 간의 상호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교과 지식의 습득에서 언어의 역할, 내러티브의 범교과적 작용력, 교육 방법 일반에 기여하는 국어 교육 방법론의 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신지현과 최영환도 '교과 문식성' 개념을 도입하여 국어과 교육과 타 교과 교육 간의 관계를 논의한 후, 국어 교과의 도구 교과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정재찬은 비판적 사고와 사회적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국어과 교육의 기본 관점 및 도구교과적 속성을 재개념화하고 사회과 교육과의 공동 목표 추구를 위한 주제 통합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김선민은 국어교육을 통한 언어사용 기능의 신장이 수리·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 신장에 기여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실생활과 실제 수업 장면을 예로 들어 문제 해결 능력 신장을 위한 언어의 역할을 논의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수립 및 교수·학습 방법의 모색을 제안하였다. 김창원은 예술교육에서 언어의 기능을 초등학교 3학년 음악과 6학년 미술 수업의 분석을 통하여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 교육과 예술 교육의 상생적 관계 탐색, 국어교육과 학교 교육의 관계 재정립, 예술 교사 양성에 교수언어 관련 강좌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국어 교육에서 기초학력과 문식성 교육의 문제를 다룬 논의로는 "초등국어과 기초학력 교육 방향 탐색(김도남)", "균형적 기초문식성 교육 내용 연구(이경화)", "批判的 主體 형성을 위한 文識性 교육 원리 및 모형 探究(이재기)"를 들 수 있다. 김도남은 국어과 기초학력의 개념을 '국어심성을 바탕으로 국어생활을 할 수 있는 국어문식력'으로 정의하고, 국어과 기초학력의 교육 목표를 '국어생활인'으로 설정한 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육 내용의 범주와 교육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경화는 기초문식성 지도에서 발음 중심 지도와 의미 중심 지도의 균형적 구성이 필요하며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에서 관련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와 쓰기 교과서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재기는 비판적 주체 형성을 위한 소통 중심 문식성 교육 모형을 제안하였다. 소통 중심 문식성 교육 모형은 교실 맥락, 상황 맥락, 사회문화 맥락이라는 세 범주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석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학습 주체 간의 대화를 기본 구조로 삼고 있다.

국어과 교육의 윤리성과 인간 형성의 측면에 주목한 논의로는 "상생언어 연구의 과제(최영환)", "상생 화용 교육을 위한 소통의 중층적 기제 연구(최인자)", "마음 수련을 통한 국어교육적 태도 형성(곽재용)", "도덕적(道德的) 인간(人間) 육성(育成)과 국어(國語) 능력(能力)(방인태)", "'인격적 지식'을 위한 국어 수업의 현상 탐구(서현석)"를 들 수 있다. 최영환은 상생언어 연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상생 언어의 기본 개념을 검토하고 상생 언어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인자는 상생이라는 윤리적 목적과 의도를 중시하는 언어 사용으로 상생 화용을 파악한 기존 논의에 동의하면서 소통의 상호교섭성에 주목하고 그 중층적 기제를 고찰하였다. 곽재용은 경남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음 수련 지도를 하고 언어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 인성 즉 국어교육적 태도의 변화 효과를 논의하였다. 방인태는 도덕 교육과 국어 교육의 관계를 초등학교 도덕 및 생활의 길잡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논의하였다. 서현석은 국어 교육에서 지향하는 지식을 학습자의 국어사용 수행의 총체와 관련되는 '인격적 지식'으로 보고, 국어 수업 현상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참여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인격 형성과 경험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법의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국어과 교육의 성격과 목표 및 내용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담고 있는 단행본으로는 다음의 여섯 권을 찾아볼 수 있다. "국어교육의

재개념화와 문학교육(김상욱)"은 저자가 발표한 소논문을 분류하여 묶은 책으로, 국어교육을 보는 '시각', 국어교육 실천에 대한 '비판'과 문학을 통한 재개념화 문제, 문학교육을 통한 '대안'적 구상, 문학교육 담론에 대한 검토와 문학 교육 과정의 '모색'이 주요 내용이다. "배달말 가르치기: 고치고 더한 국어교육의 길(김수업)"은 저자가 1998년에 출판한 '국어교육의 길'을 체제와 내용, 표현 면에서 대폭 수정 보완한 책이다.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던 책의 체제를 크게 '뜻'과 '길'의 두 부분으로 나누고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아울러 1998년 판에서 한자어로 쓰였던 용어들을 고유어로 더 다듬어 제시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내용'을 '속살'로, '일상 국어'를 '말'로, '예술 국어'를 '말꽃'으로 순화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장국어교육의 길잡이: 국어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김주환)"는 저자가 전국국어교사모임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함께 여는 국어교육'에 연재했던 원고를 수정·보완하여 단행본으로 구성한 것으로, 국어 교육 연구가 국어교육 현장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국어 교육과 '국어' 교과서(돈암어문학회 편)"는 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소속한 돈암어문학회에서 단행본으로 펴낸 논문집으로, 국어교육 관련 논문은 "국어 교과서에서의 이념 지향과 출판 정책(이종국)", "국정 중학교 국어과 교과서에서의 국어 지식 영역 변천(허재영)", "'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고전소설 교육의 현황과 문제: 〈박씨전〉을 중심으로(심치열)", "한국 현대소설의 정전화 과정 연구: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와 지배 이데올로기의 관련성을 중심으로(차혜영)", "국어 교과서 현대시 제재와 해석의 다양성(유영희)" 등 다섯 편이다. "자주적 한국어 교육론: 문화 생산의 원리와 방법(방인태)"은 저자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문화 생산'을 주제로 발표한 11편의 논문을 단행본의 체제에 맞게 분류하여 펴낸 책이다. 이 책에서는 자국어 교육의 핵심이 '문자를 통

한 문화의 생산'에 있음을 핵심 주장으로 삼아 국어교육의 방향과 문화 생산을 위한 언어 및 문자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언어, 문자, 화법, 독해, 작문, 문법, 문학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국어과 교육의 이해와 탐색(허재영)"은 저자가 2001년에 출판한 '국어과 교육의 탐색'을 수정 보완한 책이다. 2001년 저서의 장절 체계를 수정하고 저자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수행한 '근현대 민족어문 교육 기초 연구'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2) 방법

국어과 교육의 방법과 관련한 논의에는 국어과 교육 방법론에 대한 개념적 고찰, 수업 모형 및 프로그램의 도입 및 적용, 수업의 설계와 분석 및 비평, 교실 의사소통에 대한 분석 등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에서부터 새로운 개념과 관점의 적용까지 다양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국어과 교육 방법론을 개념적으로 고찰한 논의로는 "맥락 중심 문식성 교육 방법론(이재기)"을 들 수 있고, 수업 모형 및 프로그램의 도입과 적용을 논의한 것으로는 "KWL 모형의 국어교육적 가치(이성영)", "반응중심학습법의 현장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김선배)", "국어과 협동 학습에 관한 인식 조사(전은주)", "국어과 교수·학습 모형 개발을 통한 상호작용성 증진 연구(임정연)", "상호작용적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적용 연구(권연희)"를 찾아볼 수 있다. 이재기는 맥락의 개념을 '텍스트 생산·수용 과정에 작용하는 물리적, 정신적 요소'로 정의하고, 맥락의 특성을 살핀 후, 맥락 중심의 문식성 교육 원리를 제안하고, 이러한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맥락 중심 문식성 교육 모형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이성영은 원래 설명문 읽기 교수 모형으로 개발된 KWL 모형이 학습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의로 평가하고, 그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한 후, 이 모형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나 효과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김선배는 문학교육의 주요 방법으로 제공된 반응중심학습법의 개념과 주요 배경 이론을 점검하고 현장 적용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학위 논문 중에서는 "중학교 국어과 학습일지 쓰기에 관한 현장 연구(이화수)"와 "놀이 담화의 교육적 효용에 대한 연구(장미희)"를 참고할 만하다.

국어과 수업 모형 및 프로그램의 도입 및 적용, 수업의 설계와 분석 및 비평과 관련한 논의로는 "국어과 수업 설계와 교수·학습 모형 적용의 원리(서혁)", "국어과 도입 수업의 교육공학적 접근(임칠성)", "국어 수업 비평론(정재찬)", "국어과 수업 분석의 방법 연구(이석규)"를 들 수 있다. 서혁은 국어과 수업 설계의 원리와 교수·학습 변인, 교수·학습 모형의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 교수·학습 모형의 적용 원리를 1차시와 다차시 수업의 구분에 따른 적용, 단일 모형 대 복합 모형에 의한 적용, 모형의 변형을 통한 적용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임칠성은 현행 국어과 도입 수업의 체계적(systematic) 접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합리적 계획 모형인 체제적(sytemic) 접근에 따라 국어과 도입 수업의 구성을 제시하고, 각 단계별 수업 설계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재찬은 수업을 예술의 한 형태로 간주하면서 국어 수업 비평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타진하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다룬 초등학교 국어 수업에 대한 수업 비평을 제시하였다.

교실 의사소통 문제를 다룬 논의로는 "교실 소통의 양상과 문제(정혜승)", "국어 수업의 질문활동 양상 연구(박정진)", "국어 수업의 수준별·주체별 질문활동 연구(박정진)", "수업 담화에서의 질문활동 구조(박정진)", "國語 授業의 言語活動 樣相 硏究(박정진)", "수업 현장의 교사 화계에 대한 연구(서덕현)", "교사의 비언어적 의사

소통 행위에 관한 교육적 의미 연구(심영택)"를 들 수 있다. 정혜승은 우리나라 교실 대화의 문제점을 소통 주제, 내용, 방법의 측면에서 제기한 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교사 차원과 화법 교육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박정진은 "국어 수업의 질문활동 양상 연구"를 비롯한 일련의 논문에서 초등학교 2, 6학년 국어 수업을 관찰하여 국어 수업에서 나타나는 질문활동의 양상, 언어활동 및 비언어활동의 양상을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고 그 교육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서덕현은 국립국어원에서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전국 11개 지역의 고등학교 국어 수업에서 교사의 발화를 녹음하여 전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의 화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가 수업에서 사용하여야 할 바람직한 화계를 대명사와 종결어미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학위 논문 중 국어 수업을 주제로 삼은 것을 20여 편 찾아볼 수 있다. 몇 편을 예로 들어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중등 국어교육에서 블렌디드 러닝 전략을 활용한 커뮤니티 기반 탐구학습 모형의 효과 연구(김새롬)"에서는 국어 지식과 문학 영역에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전략을 활용한 커뮤니티 기반 탐구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지도하고 그 효과를 논의하였다. "국어 교육을 위한 문장 완성형 게임 개발(이상화)"에서는 초등학생과 외국인을 위한 문장 완성형 게임 개발의 과정을 시스템 설계 및 구현으로 나누어 밝혔다. "라디오극 제작을 활용한 총체적 국어교육 방안 연구(이은주)"에서는 라디오극 제작의 과정과 방법을 소개한 후 수업 모형을 구안하여 제시하였다. "댓글을 활용한 국어과 수업 방안 연구(정선임)"에서는 댓글의 개념 및 구조를 밝히고 댓글을 활용한 국어과 수업 방안 및 사례를 제시하였다.

3) 교재

국어 교재와 관련한 연구는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개발 및 중·고등학교 검정 교과서 개발을 앞두고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외국의 자국어 교과서 분석, 그리고 새로운 교과서의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제7차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점검(최미숙)"에서는 제7차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제점을 교과서 구성 방향 및 체제의 차원과 교과서 학습 내용의 차원으로 나누어 지적하고, 새로운 교과서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역할 분담형 국어 교과서 분책 방식, 다양한 크기를 가진 단원의 설정, 학습 요소를 학습 활동의 차원에서 구현하는 방식, 교수·학습과 평가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의 제시 등 네 가지를 제안하였다. "외국의 초등 교과서 분석을 통한 교과서 개발 방향 연구(김혜정㉠)"에서는 미국과 독일의 초등학교 자국어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대부분 주제 중심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단원 내에서는 주제를 중심으로 언어 기능과 개념, 언어 목적과 언어 형식을 결합하여 구조주의적·기능주의적·주제적 원리를 통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차기 초등 교과서 개발에 참고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한·중 국어 교과서 비교 연구(임효례)"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역사적 변천, 외형, 단원의 구성, 바탕글의 특징, 영역별 교수·학습 내용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국어 교과서에 대한 관심과 분석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Analysis of North Korean Language Textbooks: Altered Jucheism Ideology(이동배)"에서는 비평적 담론 분석법으로 북한의 국어 교과서를 분석하여, 북한의 교과서 내용이 주체이념의

반영이라는 점을 밝히고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였다. “북한 교과서의 고전문학 작품 선정 원칙과 수록 체제: 고등중학교 『국어』, 『문학』을 중심으로(이상일)”에서는 북한의 고등중학교 ‘국어’ 및 ‘문학’ 교과서의 고전 작품 수록 현황을 분석하여, 작품 선정의 원칙과 단원 편제상의 특징을 밝혔다. 이 밖에 “북한 고등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어휘 연구(이성연, 정옥란)”에서도 북한의 국어 교과서에 대한 어휘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다.

새로운 교과서의 개발 방향을 밝힌 연구로는 “검정 도서로서의 국어 교과서 개선 방향(박영목)”, “초등 수준별 국어교과서의 개선 방안 연구(이수진)”, “중등 국어과 교과서 내용 개발 전략 소고(임칠성)”, “국어 교과서를 구성하는 텍스트들의 유형(이성영)”, “좋은 國語 敎科書의 요건과 團員 構成의 방향(정혜승)”, “국어교과서 기능의 변화와 단원 구성 방안(박영민)”,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단원 구성과 전개 방식 탐색(이경화)”, “초등 국어과 교과서 개발과 단원 구성 체재: 초등학생을 위한 다중 개발 체제를 중심으로(한명숙)”, “초등 국어과 교과서 구성의 방향과 원리: 창의적 국어사용 능력을 중심으로(황정현)”, “다문화 시대의 국어교과서 단원 개발을 위한 연구(박영민, 최숙기)”를 찾아볼 수 있다. 박영목은 검정 도서로서 국어 교과서의 의미, 좋은 국어 교과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검정 제도와 과정, 좋은 국어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외적 구조와 내적 구조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임칠성은 중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체제와 관련해서는 ‘인쇄 매체+인터넷 매체’의 입체적 교과서, ‘독본 + 학습장’의 이원적인 교과서, ‘주제+기능’ 체제의 교과서를 제안하고, 교육 내용과 관련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적극적 참여, 사고 과정의 구체적인 지침 제공, 지역의 언어 문화 포함, 수행 평가 활동의 제시 등을 제안하였다. 정혜승은 좋은 국어 교과서는 수업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언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교사의 수업 자율성과 가능성을 담보하고 학생의 총체적 언어 활동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두고 단원 구성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경화는 3~7차 교육과정기 국어 교과서 및 외국의 자국어 교과서 단원 검토를 통해 새로운 교과서에 적용할 단원 구성과 전개 원리를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원 설계와 학습활동을 제안하였다. 한명숙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특성에 따라 독본형, 학습형, 활동형의 세 가지로 구분한 후, 독본형 교과서는 국정으로 학습형 교과서와 활동형 교과서는 검인정으로 개발하는 다중 개발 체제의 편찬 방식을 제안하고 언어 사용 목적과 제재 특성을 고려한 단원 구성 체제를 예시하였다. 황정현은 창의적 사고력 계발을 위한 초등 국어교과서 개발의 방향과 원리를 제안하였다. 박영민과 최숙기는 다문화 시대에 적합한 국어교과서의 단원을 개발하기 위한 단원 구성 방안을 목표 설정 방안, 제재 선정 방안, 활동 구성 방안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를 적용한 실제 학습 단원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교과서의 표기 문제를 다룬 "교과서 표기·표현 감수제 도입에 부쳐(이승구)"와 "교과서의 국어 표기 감수 제도 도입과 대책(최용기)"을 참고할 수 있고, 영상 교육 내용의 반영 방안을 다룬 "국어교과서의 영상 제작 활동 도입 방안(한귀은)"도 참고할 만하다. 한귀은은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에 제시된 영상 교육 내용을 검토하고 국어과에서 영상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구안·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였다.

교과서 분석 및 개선 방향과 관련한 학위 논문은 약 20편에 이르는데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과서 어휘 분석, 교과서 비교 분석, 교과서 및 지도서 분석과 개선 방안 제시, 전자 교과서, 교과서 재구성 및 통합 방안 논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과서 어휘를 분석한 논문으로는 "7차 중학교『국어』의 어휘 연구(김경하)", "중학교 국

어 교과서의 어휘 분석 연구(박주화)"를 들 수 있다. 김경하는 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 6권의 본문을 대상으로 어휘를 계량하여 개별 어휘 13,163개, 연어휘 89,982개를 확인하고, 이를 빈도별, 품사별, 어종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존의 5, 6, 7차 초·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어휘 연구 결과와 비교·검토하였다. 그리고 박주화는 중학교 국어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교과서를 분석하여 13,600개의 연어휘와 4,047개의 개별어휘를 산출하고 빈도별, 품사별, 조어형태별, 의미영역별 분포를 학년별로 고찰하였다. 교과서를 비교·분석한 논문으로는 "남한·북한·중국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비교 연구(목경균)", "북한 소학교 4학년 국어교과서 분석(김충근)", "중국 조선족의 『조선어문』 연구: 초급중학교를 중심으로(박경애)", "고등학교 '국어 생활' 교과서 비교 분석: 검인정 4종을 중심으로(민지현)", "고등학교 국어 국정교과서와 대안교과서의 비교 연구: 〈고등국어〉와 〈우리말우리글〉을 중심으로(홍진희)"를 들 수 있다. 이 외의 논문은 주로 교과서 및 지도서 분석과 개선 방안, 국어 교과서 재구성과 통합 지도에 대한 연구와 관련한 것들이다.

국어 교과서에 대한 연구 성과를 단행본으로 펴낸 "국어과 교과서와 교재 지도 연구(허재영)"에서는 국어과 교과서 및 교재 지도 관련 내용을 개관하고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교과서의 기능과 교과서 정책, 국어과 교수·학습 이론, 국어과 교재 연구 및 학습 지도안, 저자의 소논문 두 편과 국어과 교과서 관련 자료 목록을 제시하였다.

4) 평가

국어과 교육 평가를 전반적으로 논의한 것으로는 "국어과 평가의 반성과 탐색(최미숙)"을 들 수 있다. 최미숙은 기존의 국어과 평가를 반성하고, 국어과 평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개별화된 평가

시스템의 도입, 흥미와 향유를 아우르는 국어 능력의 평가, 평가 결과의 상세한 피드백'을 제안하였으며, 평가 결과 보고 방식으로 '등급화를 겸한 영역별 평가 결과 보고, 특성 진술형 보고' 등을 제안하였다.

학위 논문 중에서는 "초등학교 국어과 수행평가의 실태와 효과에 대한 교사의 지각에 관한 연구(김광필)"를 참고할 만하다. 김광필은 충청북도 제천시와 단양군에 소재한 초등학교 교사 414명의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수행평가 운영 실태, 수행평가의 방법, 수행평가의 효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 등을 기술하고 성별, 연령, 담당학년, 교육경력 등 배경변인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이외에도 "국어 교육 수행평가 방법 연구(김길자)", "국어과 자기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의 '되돌아보기'를 중심으로(김동희)",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의 상관성 연구 및 타당도 분석: 2005학년도 언어 영역을 중심으로(박정은)", "국어과 수행평가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박혜례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의 개선 방안(이승철)" 등도 국어과 교육 평가와 관련한 연구 성과이다.

5) 특수 영역의 국어 교육

특수 영역의 국어 교육으로는 전통적으로 국어과 교육에서 다루어 오지 않았던 분야들 중에서 총론적 논의와, 언어 영재, 부진아, 장애 학생 등을 위한 각론적인 논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총론적 논의로 주목할 만한 것은 "특수 영역으로서의 초등국어교육 방향 탐색(박인기)"을 들 수 있다. 박인기는 전통적 관점에서 국어교육의 영역에 들지 않았으나 사회·문화 환경 변화에 따라 국어 교육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척해야 할 특수 영역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교육

과정의 혁신과 국어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각론에서 언어 영재를 위한 국어 교육 연구 성과로는 “국어 영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권순희)”, “언어 영재를 위한 논리적 독서 지도(박수자)”, “언어영재성 판별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1): 평가 준거 및 기준 산출을 위한 이론적 검토(최지현, 이충우, 이정숙㉠)”를 주목할 만하다. 권순희는 국어 영재의 개념을 정의하고 전주교대에서 실시하는 국어 영재 프로그램에서 영재의 선발 과정 및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적용 사례를 소개하였다. 박수자는 언어 영재의 개념을 문학 영재, 창작 영재 등과 관련하여 논의한 다음, 언어 학습에 뛰어난 자질을 보유한 영재를 위한 교육과정 내용 구성 시 고려해야 할 점을 밝히고, 언어 영재를 위한 논리적 독서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최지현·이충우·이정숙㉠에서는 언어 영재성이 산출물보다는 잠재성 측면에서 규명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언어영재성 판별 준거를 실체적, 기능적, 경험적, 심리적 측면에서 제시한 후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다. 학습 부진아를 위한 국어 교육은 “광주 지역 학습 부진아 교육 실태 조사(천경록)”를 참고할 수 있고, 그 밖에 교육 대학원 학위 논문 중에서는 “정신지체 특수학교 국어과 교과교육 운영 실태(김희자)”, “통신매체를 활용한 청각장애학생의 국어능력 신장 방안 연구(남연숙)”, “정신지체 학생의 어휘 지도 방안 연구: 제 7차 정신지체 학교 고등부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유희숙)” 등 장애 학생을 위한 국어 교육 연구 성과들을 찾아볼 수 있다.

4. 국어 교육 정책 및 연구

1) 국어 교육 정책

국어 교육 정책 논의 중 주목할 만한 현안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적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요구되는 언어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한 탐색이다. 이와 관련한 논의로 주목할 만한 것은 "전환기의 국어 문제에 관한 사례 연구: 프랑스와 불가리아의 언어정책과 국어교육(윤희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 모색: 호주의 언어 교육 정책 검토를 중심으로(권순희)", "다중언어 사회의 언어문화현상을 통해 본 21세기 언어문화교육의 방향: 싱가포르의 사례를 바탕으로(김창원)"를 들 수 있다. 윤희원은 프랑스와 불가리아의 언어정책과 자국어교육 현황을 대비하여 살펴보고 우리의 언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방향을 가늠하고자 하였다. 프랑스가 자국어의 보존과 관리에 철저한 국가라면 불가리아는 상대적으로 자국어 정책과 교육에 소극적인 국가이고 우리나라는 그 중간에서 프랑스 쪽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면서 언어 문제에 대한 인식과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의 설정 및 의지 그리고 인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한 의지의 현실화가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권순희는 호주의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언어 정책 방향을 부모(특히 외국인 어머니) 대상,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일반 학생 대상, 교사 대상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주류 다문화주의에서 조합적 다문화주의로 이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김창원은 영어와 모어를 양축으로 하는 이중언어 사회인 싱가포르의 언어문화현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언어 교육에서 사고와 의사소통, 문화형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며, 국제어로서 영어교육을 강화하되 목표와 범위를 분명히 하고, 모어문화 및

모어교육의 가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국어 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것으로 “서부 경남 지역에서의 지역화 교육 실천 사례(김연희㉠)”, “어문 정책과 어문 교육 정책의 협력 방안 모색(김차진)”, “말소리의 정책과 교육(이상태)”, “대학국어 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 대학의 자국어 교육 현황과 문제점(박세영)”, “대안학교의 국어교육 실태 연구(이영의)” 등을 들 수 있다.

2) 교사 교육 및 교사 평가

교사 교육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초등학교 국어교사 양성과정 개선 방안(최영환)”, “사범대학교 국어과의 교사교육체제와 지향점(김혜영)”, “국어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최지현)”, “존재 정체감을 높이는 교사재교육과 국어과 지식의 활용 잠재력(박인기)”, “국어교육에서의 지도력(리더십) 교육 시론(민현식)”을 들 수 있다. 최영환은 초등학교 국어 교사의 자질을 국어 사용의 모델, 국어 교수·학습의 진행자라는 두 측면에서 규정하고, 교육대학교의 국어 교사 양성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혜영은 사범대학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교과목 선정, 교과목 분류, 교과목 위계화의 측면에서 살피고 국어과의 교육과정의 방향을 국어과 교사의 신념 형성, 교과목의 성격, 학습의 위계성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최지현은 교과 전문성을 국어교사 전문성의 핵심으로 보고 그 내용으로 현실 언어의 이해와 평가, 학습자의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와 평가, 교재 분석과 평가, 산출 능력 등을 설정하고 이러한 교과 전문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박인기는 미래의 교사 재교육을 교사의 존재 정체감과 존재의 만족감, 존재의 정신적

복지를 추구하는 생태학적 삶의 총체적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고, 국어교과에서 교사 재교육을 위한 범교과적 접근 영역으로 '언어 수행과 관련된 지식·기능, 의사소통과 관련된 지식·기능, 문화교육과 관련된 지식·기능, 창작과 관련된 지식·기능, 비평과 관련된 지식·기능'의 다섯 가지를 원천으로 제시하고 구체적 사례로 '내러티브 영역, 의사소통 영역, 독서 영역'의 경우를 들었다. 민현식은 국어교육에서 지도자 교육의 기능을 언어(화법) 능력 계발과 위인 모델 제시 교육을 통하여 수행해 왔음을 지적하고, 그 개선 방안으로 언어 능력 계발과 관련해서는 경청, 설득, 논증, 수사법, 어휘력 훈련 등을 강화하고, 위인 교육과 관련해서는 문학적 교양 위에서 실사구시형 인간형 모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교원 임용시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중등교사 임용시험 국어 문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이남호)", "중등교원을 위한 국어과 임용고사 문항분석(김덕남)"과 평가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국어과 교사의 평가 문식성에 대한 연구: 읽기 영역 평가를 중심으로(김종윤)"도 참고할 만하다.

3) 국어 생활사 및 국어 교육(연구)사

국어 생활사, 국어 교육사, 국어 교육 연구사에 대한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개화기 국어 생활 연구: 독립신문의 광고를 중심으로(신명선)"에서는 개화기 언중의 국어 생활 양상을 독립신문의 광고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해방 이후 독서 대중화 운동(윤금선)"에서는 해방 이후인 1945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의 독서 운동을 고찰하였다. "고종·순종시대 국어교과서의 서사유형 연구(전용호)"에서는 1895년에서 1909년까지 간행된 국어교과서의 서사를 크게 경험적

서사와 허구적 서사로 나누어 고찰하고 그 유형적 특질을 전통 양식의 변용과 새로운 시대의식의 담보라는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잡지 〈少年〉의 독자투고에 대한 어문교육사적 연구(황혜진)"에서는 잡지 '少年'의 '독자투고란'을 중심으로 독자투고가 홍보된 기사, 독자투고가 실린 '소년문단'과 '소년통신'을 살펴보고, 그 어문교육사적 의의를 제시하였다. "국어과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현황과 과제(정혜승)"에서는 국어과 교육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질적 연구를 검토하여, 국어 수업 대화 특성 연구, 국어과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기술 연구, 국어과 교육과정 실행 양상 연구로 분류한 후, 그 과제로 연구 방법의 정밀성과 다양성의 추구, 연구의 정리 및 기술 방식의 다양화, 실행 연구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이 밖에 "개화기 교과서의 종성표기와 어간 어미 분리표기에 관하여(정길남)", "반공주의와 국어교과서: 1차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교과서의 선택과 배제 양상(조미숙)", "국어과 교수 학습 이론 변천사(허재영)"도 참고할 만하다.

국어 교육사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는 단행본 두 권으로 출판된 "국어교육 100년사 Ⅰ, Ⅱ(윤여탁 외)"이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 학문 사업 지원으로 '근현대 민족어문교육 기초연구'를 2년에 걸쳐 수행하여 근대계몽기 이후의 국어교육과 관련된 기초 자료에 대한 수집과 분석 결과를 두 권의 단행본으로 펴낸 것이다. Ⅰ권은 국어 정책과 국어 운동, 국어과 교육 과정과 교재, 북한의 국어교육 역사를 기술하였고, Ⅱ권은 학회지 수록 논문을 중심으로 한 국어 교육 연구, 신문 기사와 단행본을 중심으로 한 국어교육 연구, 한국어 교육의 역사를 고찰하였다.

한국어 교육

김 재 욱
(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본고는 2006년도에 출판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분야의 저서와 연구논저들을 통해 이 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의 의뢰를 받아 국립국어원 측에서 제공한 2006년도 한국어교육 관련 저서 및 논문 목록과 필자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연구 목록을 수합하여 저서 및 연구물 등 총 393편의 목록을 수합하였고, 이중 KBS한국어능력시험[1]과 관련된 수험서 등 13편을 제외한 380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6년도의 한국어교육학의 연구 업적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2005년도부터 비약적으로 증가한 연구물들이 2006년도에도 양적인 면에서 비슷한 양의 연구 성과물들이 나와 한국어교육학의 연구 열기가 식지 않고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5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단행본의 증가가 두드러져 한국어교육학의 연구 역량이

1)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외국인 및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고, KBS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국어 지식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2006년도에 한국어능력시험이란 명칭으로 출판된 대부분의 출판서는 KBS 한국어능력시험과 관련된 수험서이다.

이제는 학문적인 면에서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도 느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80편의 연구물을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형식적인 면에서의 분류는 단행본, 일반 논문, 그리고 박사 논문 및 석사 논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단행본으로 출판된 책은 총 52권으로 이 중 25권이 학문적인 연구 업적을 담고 있고, 이외의 27권은 한국어교재 혹은 산문집 등과 같은 실용적인 서적들이다. 이는 2005년도 연구물(단행본 9편)과 비교하여 보면 단행본으로 출판된 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저서의 절반 이상이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편찬한 한국어 교육 관련 교재에 집중되어 있고 연구저서는 2005년도에 출판된 단행본과 마찬가지로 아직 한국어학에 기반을 둔 개론적인 성격의 저서가 대부분이어서 향후 이러한 개론서를 바탕으로 한 각론으로서의 연구저서들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다.

학회지 등에 실린 일반논문은 총 179편으로 양적인 면에서 2005년도의 233편에 비하여 다소 줄었으나 다양한 방면의 연구 영역이 나타났고 또 이전과 동일한 연구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보다 세분화된 연구 주제들이 나타나 연구자의 관심이 여러 방면으로, 그리고 깊이 있는 연구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위 논문은 박사 학위 논문이 8편, 석사 학위 논문이 138편으로 2005년도와 비슷한 양이다. 이는 교육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의 한국어 교육 전공 석·박사 학위 과정이 늘어나면서 여기에서 배출되는 연구자가 증가하고 있음과 연관이 있다. 학위 논문에서도 일반 논문과 마찬가지로 보다 세분화된 연구 주제들이 나타나 학문적인 깊이가 더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적인 면에서의 분류는 대부분 2006년도 국어 연감의 분류 목록을 따른다. 이는 2006년도 국어 연감에서의 분류가 이전의 국어

연감에 제시된 분류를 아우르면서 한국어교육학의 영역별 구분을 따라 체계화되어 있고 이번의 연구 성과물과 객관적으로 비교하면서 그 성과 및 연구 동향을 쉽게 살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위 부류는 각 논저들의 주제에 따라 분류하였다. 하위 부류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교육학 총론 분야는 57편(15%; 단행본 5, 일반 논문 48, 학위 논문 4), 언어 내용 교육 분야는 135편(35.5%; 단행본 8, 일반 논문 61, 학위 논문 66), 문학 교육 및 문화 교육 분야는 27편(7%; 단행본 8, 일반 논문 10, 학위 논문 9), 한국어 교수방법 분야는 46편(12%; 단행본 2, 일반 논문 18, 학위 논문 26), 한국어 교재 및 사전 개발, 교육과정, 평가 분야는 55편(14.5%; 단행본 2, 일반 논문 23, 학위 논문 30), 대조분석, 오류분석, 중간언어 분야는 19편(5%; 일반 논문 15, 학위 논문 4), 기타(학습자 요인 및 학습 자료 개발 등) 분야는 13편(3%; 일반 논문 6, 학위 논문 7)이다.

2005년도 연구물과 비교하여 보면 한국어교육학 총론과 오류분석, 중간언어 분야의 양이 줄어든 데 비하여 언어 내용 교육 분야는 크게 늘었다. 이는 2005년도에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인한 오류분석, 중간언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에 비하여 2006년도에는 개별 관심 분야에 따른 언어 내용 교육 분야의 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분류한 하위 부류 분야별로 각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2장에서는 한국어교육학 총론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언어 내용 교육 분야를 다시 세부 단위로 분류하여 발음 및 억양 교육, 어휘 교육, 문법 교육 분야로 나누어 그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문학 교육 및 문화 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5장에서는 한국어 교수 방법 분야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6장에서는 한국어 교재 및 사전 개발, 교육 과정, 평가 분야

에 대한 연구 내용을 살펴본다. 7장에서는 대조분석, 오류분석, 중간언어 분야의 연구 내용들을 정리하고 8장에서는 학습자 요인 및 학습 자료 개발 등에 관한 기타 분야의 연구 내용을 살펴본다.

2. 한국어교육학 총론

한국어교육학 총론에 해당하는 저서에는 정책적으로 국립국어원 등의 국가기관에서 기획한 연구보고서가 많고 개인적인 연구 저서에는 한국어학 및 교수법을 바탕으로 저술한 개론적인 성격의 교재들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한국어교육학 관련 단행본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 최종 보고서(국립국어원),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 최종 보고서(국립국어원),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수방법 연구(김충실), (외국어로서의)한국어 교육론(우형식 편저), 한국어교육의 이해(황경수) 등이 있다.

한국어교육학 총론 관련 논문은 총 52편이다. 이 가운데 한국어 교원 양성 및 그 자격 인증 제도에 대한 연구가 10편으로 다른 세부 주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국어기본법 시행 이후 한국어 교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논문으로는 김준희 “한국어 교사 양성 제도의 실태와 전망”, 김중섭 · 조현용 · 이정희 “인터넷을 활용한 한국어 교사 교육 사례 연구”, 박영순 “한국어 교원 자격시험과 검정시험 제도: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교육”, 이병규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제도와 그 운영 방안”, 이상규 외 “한국어 교원, 그들은 누구인가?”, 이정희 · 김중섭 “중국 대학 한국어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례 연구”, 채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 최은규 “한국어 교육과 교사 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최정순 “한국어 교원 양성 제도에 대하여”, 허용 · 김하수 · 박동호 · 이병운 · 이삼형 · 최은규 · 윤유

선 · 박주연 "바람직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 방안" 등이 있다.

김준희는 "한국어 교사 양성 제도의 실태와 전망"에서 국어기본법 이후 달라진 한국어 교사 양성 제도의 실태와 전망을 통해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한국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지려면 한국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교육(특히 한국어 교육)에 관한 지식, 한국어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수 방법, 한국 문화와 학습자의 언어문화에 대한 지식과 같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중섭 · 조현용 · 이정희는 "인터넷을 활용한 한국어 교사 교육 사례 연구"에서 국어기본법에서 한국어 교사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전문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시간적 제약이나 공간적 제약 때문에 한국어 교사 교육은 많은 한계점을 가진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교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어 교사 교육에서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대상자가 성인 학습자인 점을 감안하여 강사주도형 강의 방법론을 적용하고, 동영상 기반 강의콘텐츠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았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교사 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사이트의 부가정보 서비스의 제공 방안 및 한국어 교사들 간의 정보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운영방안에 대하여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과 유씨엘(UCL)이 운영하는 실제 인터넷 한국어교사학교(www. myhangul. com)의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이정희 · 김중섭은 "중국 대학 한국어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례 연구"에서 현재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특히 교재 개발의 문제, 교사의 수급과 전문성 향상의 문제, 시청각 자료의 부족 등 중국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국어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 현지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집중적인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최은규는 “한국어 교육과 교사 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한국어 교사 자격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즈음하여,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당면 과제를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규정,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교사의 양성과 인증의 발전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외에 한국어교육학 관련 논문은 각 지역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조사하여 그 동향을 살펴본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최근 한국어교육의 관심을 반영하듯 중국 지역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동향을 제시한 연구가 많다. 그 외에 지난 기간 동안의 연구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연구의 기반을 제시하는 각 영역별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가 많이 나와 그동안의 한국어교육학 연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언어권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김병운의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실태와 과제”, 김순녀의 “중국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말하기 교육 방법론”, 우영란의 “중국의 한국어교육 현황 및 전망”, 윤해연의 “중국 내 한국어문학 교육현장에서의 느끼는 문제점과 그 해법”, 이정희 · 김중섭의 “중국 대학 한국어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례 연구”, 송향근 · 김상수의 “재중 동포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장정렬의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법”, 禹尙烈의 “중국에서의 한국 · 국어 국문학 현황 및 전망” 등 8편으로 가장 많다.

일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권현주의 “일본 내 한국어 교재의 명칭에 대한 실태 분석”, 권현주의 “한국어 교육과 명칭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및 실태 분석”, 우메다히로유키의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몇 가지 문제점", 鄭丞惠의 "對馬島에서의 韓語 敎育" 등이 있다.

영어권 학습자 대상의 연구는 김영의 "LA지역 한글학교의 한국어 교육 방안", 이은희의 "미국 대학 한국어 강좌의 학습자 특성 연구" 등이 있고, 기타 지역으로 인도 학습자 대상 논문은 Neer Ja Singh의 "인도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등이며, 태국어권 학습자 대상 논문은 도옥순의 "태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 홍혜련의 "태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등이 있다. 그리고 Nam Victor의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교육"은 우즈베키스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 하민탄의 "베트남에서의 한국학 현황 및 전망"은 베트남에서의 한국어교육과 한국학의 현황에 관한 연구이다.

3. 언어 교육 내용

언어 교육 내용에는 발음 및 억양 교육과 어휘 교육, 그리고 문법 교육으로 구별하여 그 연구 동향을 살핀다.

3.1. 발음 및 억양 교육

발음 교육 관련 단행본으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발음교육론"(허용 · 김선정)이 있다. 이 책에서는 한국어 발음교육의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한국어 자음과 모음의 특징을 제시한 후 자음과 발음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교육방안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어의 억양과 발음 관련 규칙을 소개한 후 교수활동도 제시하여 발음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제시한 저서이다.

2006년 한 해 동안 발표된 발음 교육 관련 논문 총 13편 중 억양

교육 관련 논문은 3편인 것으로 나타나 발음 교육 관련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억양 교육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김주연은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의문문 억양 연구”에서 한국어 의문문 중에서 통사적 구조는 같으나 억양에 의해서 의미 변별을 가져오는 ‘의문사 의문문’과 ‘네-아니요 의문문’에 대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발화를 대상으로 한국어 의문문의 억양을 음향음성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밝히고,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의문문 억양 교육을 위한 실증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국인의 발화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의문사 의문문’과 ‘네-아니요 의문문’ 모두 월끝가락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한국어 ‘의문사 의문문’의 월끝가락은 내려간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네-아니요 의문문’과 유사하게 월끝가락이 직선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비해 일본인은 하강 후 상승하는 굴곡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인이 한국어 의문문을 발화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억양 특징은 월끝가락의 굴곡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김희선은 “한국어 억양 습득과 지도 방법 연구-영어권 학습자들 대상으로”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억양 체계의 습득 과정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어 억양 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와 원어민 한국어 화자가 우화를 읽은 음성자료를 바탕으로 억양구, 억양 음조, 경계음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단문 단위에서는 초급 학습자보다 고급 학습자가 억양구와 억양음조를 원어민 화자와 비슷하게 구사할 수 있으나, 복문과 문단 단위에서는 고급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문장 사이의 정보 구조를 나타내는 경계음조나 문단음조의 사용이 아직 원어민 화자에 비해 많이 다름을 보였다. 이 실험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의 억양 습득의 순서가 작은 억양 단위에서부터 큰 억

양 단위로 진행된다는 것을 밝히고, 이러한 습득의 과정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억양학습을 위한 교수법을 학습자 단계별로 제안하고 있다.

황현숙은 "중국인의 문미 억양 실현 분석과 교육 방안"에서 한국어 문미 억양 경계에서 나타나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의문문의 억양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음성학적 시험과 분석을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억양을 정확히 인지시키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한국어 의문문 중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반복의문문만으로 한정하여 전선아(2000)의 K-ToBI(Korean Tones and Break Indices) 전사 체계를 이용하였으며, 서울 방언을 한국어의 표준 패턴으로 삼았다. 피치웍스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난 중국인 학습자의 억양 곡선이 한국인의 표준형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첫째, 언표내적인 의미를 정확히 숙지시킬 것, 둘째, 모국어인 중국어의 성조에 노출되어 있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반복의문문의 문미 억양 경계 음조의 구조를 정확히 인지시킬 것, 셋째, 단어 띄어쓰기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등과 같은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발음 교육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은애는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효과적인 발음 오류 교정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단, 적절한 피드백과 모니터링, 평가로 이어지는 순환적인 발음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어 발음의 오류 교정을 위한 진단과 평가의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습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발음 진단, 그 결과에 따른 교정 학습 자료의 제공, 일정 시간 연습 후의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순환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 순환 과정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개발한 발음 오류 기록표를 각 항목별 기록 방법 및 예와 함께 제시하였으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제공되었던 피드백의 예와 교

정 결과도 소개하였다.

이미향은 “한국어 발음 교수를 위한 한자어 음운현상 고찰”에서 고유어 음운현상과 한자어 음운 현상에 다른 점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 특수성을 검증하고, 한자어 음운현상에 대한 정밀한 연구를 통해 한자문화권 학습자의 발음교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선정한 〈한국어 학습용 어휘〉(2003)에서 대상 자료를 선정하여 이를 계량화함으로써 한자어의 음운 현상을 분석하고 발음교정 훈련에 필요한 어휘 용례의 전형적인 환경을 추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첫째, 한자어에 적용된 음운 현상의 특성을 중요도에 따라 살펴보면 ‘경음화〉연음화〉두음법칙〉비음동화〉설측음화〉축약’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한자어는 고유어보다 경음화 적용도가 높고 어휘 내부의 연음화가 고유어와 다르며, 장애음의 비음동화에 비해 유음의 비음동화가 많고 역행동화에 의한 설측음화가 대부분이며, 축약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결과를 한국어 교육에 응용하여 학습 수준에 따른 음운현상 위계를 설정한 후, 학습용 어휘가 사용 빈도와 난이도에 따라 등급화 되어 있으므로 각 학습 단계의 어휘 적용 시기에 따라 음운 현상의 학습 순서도 달라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소연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중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권설음의 영향을 받아 한국어의 ‘ㄹ’발음 중 탄설음으로 구분되는 /r/ 발음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평음과 경음을 혼동하여 발음하는 한편, 한국어의 특징 중 하나인 음운 변동의 규칙을 잘 적용하지 못하여 단어를 모두 음절로 발음함으로써 한국인이 들을 때 어색한 발음이 많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발음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새로운 발음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을 대조한 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발음 학습의 한 방법으로 노래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발음학습에 있어서 노래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고, 대조분석을 통한 발음의 교수가 실제 학습현장에서는 불가능하므로 발음의 교수나 평가에 있어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주명진은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교수 방안 연구"에서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에게서 자주 등장하는 발음오류, 중국어의 음운체계, 중국어를 발화할 때 나타나는 다양한 변이음 등을 고려하여 한국어 발음 교수방안을 연구하였는데, 특히 중국인 학습자의 모국어 변이음으로부터 한국어의 정확한 발음으로 유도하고 교정하는 방안을 각 발음별 특성에 맞게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외에도 발음 교육 관련 논문으로 권용해의 "어조청각법을 활용한 한국어 발음교정 연구-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김소야의 "한국어 평음/경음/기음에 대한 중국인의 지각적 범주 연구", 김은경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음운 지도 방안 연구", 김희성 · 송지연 · 김기호의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모음 포먼트 연구", Mozol Tatiana의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범류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의 "ㄹ" 발음의 길이와 포먼트에 대한 연구", 유재선의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악센트 실현 양상 연구", 이미향의 "발음 교수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음운 연구" 등이 있다.

학습자의 언어권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6편(김소야 "한국어 평음/경음/기음에 대한 중국인의 지각적 범주 연구", 범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의 "ㄹ" 발음의 길이와 포먼트에 대한 연구", 유재선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악센트 실현 양상 연구", 이소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중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주명진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교수

방안 연구", 황현숙 "중국인의 문미 억양 실현 분석과 교육 방안")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일본인 대상 논문이 3편(김주연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의문문 억양 연구", 김희성 · 송지연 · 김기호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모음 포먼트 연구", 황혜숙 "일본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교재 개발 연구")으로 뒤를 이었고, 영어권 학습자(김희선 "한국어 억양 습득과 지도 방법 연구-영어권 학습자들 대상으로"), 프랑스어권 학습자(권용해 "어조청각법을 활용한 한국어 발음교정 연구-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러시아인(Mozol Tatiana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3.2. 어휘 교육

어휘 교육 관련 논문을 언어권별로 살펴보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7편으로 가장 많고,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3편이다. 중국인 학습자 대상 논문은 곽단양의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완곡표현 교육 연구", 박융배의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방법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박현정의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어 교수 · 학습 방안 연구", 장주화의 "한 · 중 이형동의 한자어의 비교 연구", 황종의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교육 연구", 祝翠瑛의 "한국어 관용적 비유표현 교육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郭爽의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 · 중 동형 한자어의 의미 기술과 지도 방안 연구" 등이다.

곽단양은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완곡표현 교육 연구"에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완곡 표현을 설문조사하여 정리하고, 이들 표현에 대한 언어적, 문화적, 심리적 측면

에서의 해석으로 보다 원리적으로 접근하는 교수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에게 완곡 표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국어 완곡 표현의 형태는 어휘 차원, 문장 차원, 담화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중국어에서의 완곡 표현은 주로 어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문장 형태의 완곡 표현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완곡 표현 사용 오류의 원인을 중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 한국 한자어 이해의 오류, 습관적 표현 방식으로 인한 오류를 포함하는 언어적 원인, 사회 문화적 원인, 심리적 원인, 완곡 표현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인한 교육적 원인 등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3,4학년 학생들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완곡 표현의 교육 내용 구성을 제시하였다.

박현정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어 교수 · 학습 방안 연구"에서 '체언+용언' 형태의 연어로 연구를 한정하여서, 중급 수준의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연어의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의 연어 지식을 파악하고 중국인 학습자들의 연어 오답률에 따라 어떤 연어를 왜 어려워하는지를 분석하여 중국인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장주화는 "한 · 중 이형동의 한자어의 비교 연구"에서 〈국립국어연구원〉 발간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보고서〉에서 선정한 어휘 목록을 토대로 사전을 통해 한 · 중 양국의 한자어 중에서도 이형동의(異形同議) 한자어를 선정하고,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 어휘의 특징 및 '한, 중 이형동의(異形同議) 한자어'의 유형 및 특징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일본인 학습자 대상 논문으로는 김춘호의 “한국어와 일본어의 색채표현「녹 · 청」에 관한 대조 연구”, 하수정의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신체 관용어 이해 연구”, 谷崎美津子의 “한국어 색채 표현 교육 연구: 한 · 일 색채 표현 대비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하수정은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신체 관용어 이해 연구”에서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신체와 관련된 관용어를 이해할 때 작용하는 다양한 인지적인 사고과정에 주목하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목표언어의 관용어와 모국어와의 관용어 사이의 연관성의 정도에 따라서 그 이해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후, 관용어를 인식하고 이해하고자 할 때 학습자들이 어떠한 인지작용에 의해 그 의미를 유추해 내는지에 대한 이해전략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동남아시아(양지선 “동남아시아 한국어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 방안”), 몽골(김주희 “몽골 전래 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지도 방안”), 베트남(도 옥 루이엔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연어 교수 · 학습 방안 연구”) 학습자를 위한 논문이 각 1편씩 있고, 특수목적 학습자로서 학문목적 학습자(신명선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육의 내용 연구”)와 국제이주여성(장수정 “국제이주여성을 위한 어휘교재 개발 연구”)을 위한 논문이 있다.

어휘 교육 관련 논문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관용어 연구가 김지혜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관용표현 연구”, 박융배의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방법 연구”, 하수정의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신체 관용어 이해 연구”, 祝翠瑛의 “한국어 관용적 비유표현 교육 연구” 등으로 가장 많다. 다의어 연구로 고광도의 “한국어의 다의어 교수 · 학습 방안”, 박서향의 “한국어 교재의 의미 분석을 토대로 한 다의어 교육 연구”, 조선경의 “한국어 신체 관련 다의어 교육

방법 연구" 등이 있고, 한자어 연구로 장주화의 "한 · 중 이형동의 한자어의 비교 연구", 韓在永의 "非漢字文化圈 韓國語 學習者의 漢字敎育을 위한 기초적 연구", 郭爽의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 · 중 동형 한자어의 의미 기술과 지도 방안 연구" 등이 있다.

도 옥 루이엔의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연어 교수 · 학습 방안 연구", 박현정의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어 교수, 학습 방안 연구"는 연어에 관한 연구이고, 양지선의 "동남아시아 한국어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 방안", 오지혜의 "언어 관련 속담을 통한 한국어 교육 연구"는 속담 연구에 속한다. 김춘호의 "한국어와 일본어의 색채표현 「녹 · 청」에 관한 대조 연구", 谷崎美津子의 "한국어 색채 표현 교육 연구"는 색채어 연구이고, 남길임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에서의 어휘 기술 방법론 연구", 조형일의 "한국어 어휘의 교육용 시소러스 개발 방안 연구"는 사전 관련 연구에 속한다.

이 외에도 어휘 교육 관련 연구의 세부 주제에 해당하는 논문으로 김하나의 "초급 한국어 학습어휘 선정 연구", 배현숙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 교수법 연구", 손지영의 "장이론을 활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교육", 신성철의 "한국어 제1화자와 제2화자가 판정한 한국어 어휘의 수용성", 안경화의 "신문 수업용 어휘 목록의 작성 방향", 이윤진의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 연구", 임지아의 "한국어 교육용 어휘에 관한 연구", 조은호의 "한국어 외래어 교육 연구", 진대연의 "한국어 쓰기능력 구성요소로서의 어휘에 대한 연구", 황종의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교육 연구", Lee Smith Angela의 "어휘적 접근법을 통한 한국어 교육 방안" 등이 있다.

3.3. 문법교육

2006년에는 언어 교육 내용 중 문법 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다. 단행본 7권, 학술지 논문 40편, 석사 논문 38편, 박사 논문 2편 총 87편에 이르며 학술지 논문과 석사 논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단행본으로는 어미・조사(학습자용) 사전(이희자), (외국인을 위한)한국어 학습 사전(서상규 외) 등 2권의 사전이 새로이 출간되었고 (외국어로서의)한국어 문법 사전(백봉자)은 새로운 모습으로 출판되었다. 사전류 발간이 활발해짐에 따라 특정 국가 학습자를 위한 사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오선영은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법 사전에서의 기술 방법론 연구-한국어 연결어미 '-아서'를 중심으로"에서 한국어 사전은 의미나 통사, 화용 정보를 포함해야 함을 주장하며 대조언어학적 관점으로 '-아서'를 기술하였다.

한국어 문법 교육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로 "한국어교육 방법론의 재검토, 한국어 문법 교수학습 방법의 새로운 방향"(강현화), "수업 구성 원리에 따른 한국어 문법 교수 방법"(김재욱), "메타언어를 활용한 한국어 문법 교육 방법론 연구"(홍윤기), "외국어로서 한국어 문법에서의 새로운 문법 체계를 위하여-형식 문법에서 기능 문법으로"(한송화), "한국어 문법 교육 방안 연구: 문법 형태 초점을 기반으로 하여"(이윤영) 등이 있다.

위의 연구 중에서 강현화는 "한국어교육 방법론의 재검토, 한국어 문법 교수학습 방법의 새로운 방향"에서 향후 문법 교육은 어휘문법 및 담화문법으로 확대시켜야 하며 나아가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 이해 문법과 표현 문법, 문어 문법과 구어 문법, 교수 문법과 참고 문법을 각각 구별하여 연구해야함을 주장하였다.

김재욱은 "수업 구성 원리에 따른 한국어 문법 교수 방법"에서 수

업 구성 원리인 도입-제시·설명-연습-사용-마무리의 단계에 따라 한국어 문법교육도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면서 문법교육의 원리와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홍윤기는 "메타언어를 활용한 한국어 문법 교육 방법론 연구"에서 학습자의 상황 이해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문법 교육을 위해서는 메타언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메타언어는 상황의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구성 요소를 추출해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실 활용이 가능한 메타언어의 유형 및 메타언어를 활용한 문법 교육 모형을 제안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조사, 연결어미, 종결어미, 접속부사, 시제, 보조용언, 대우법을 주제로 한 내용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김은경은 "시간의 연결어미 '-아/어서'의 통사론적 특징을 이용한 지도 방안"에서 시간의 연결어미 '-아/어서'의 통사론적 특징을 살펴보고 그와 유사한 시간의 연결어미인 '-고'와 비교하여 통사론적 특징을 이용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통사론적 심층구조를 제시할 때는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주행은 "한국어 청자 경어법의 교육 방안에 관한 고찰"에서 일본어와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경어법을 살펴보고 한국어와 일본어에 각각 대응되는 경어법은 있으나 표현 방식은 상이한 점이 많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교수법을 활용하여 한국어 초급과정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청자 경어법의 교수안을 제안하였다.

김재욱은 "한국어 미래범주 종결어미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미래 범주를 나타내는 한국어 종결어미 형태 '-겠-', '-(으)ㄹ것이다', '-(으)ㄹ게', '-(으)ㄹ래'에 대한 문법 설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 문법 형태들의 음운, 형태, 통사, 의미, 화용적 특

성 및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문법 형태제시와 설명 방법의 체계를 세우고자 하였다.

최해주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보조용언의 의미 범주 설정 및 그 활용 방안”에서 한국어 교육용 보조용언을 선정, 의미범주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2단계에 걸친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 1단계는 현행대로 각 수준별로 보조용언을 가르치고 2단계에서 중・고급단계의 학생들에게는 의미범주별 분류를 활용하여 보조용언을 체계적으로 인지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제의 문법 연구 외에도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에 대한 연구-시제 및 연결어미를 중심으로”(김정남), “한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 문법 지식 내용 연구-관형 표현을 중심으로”(김호정), “어휘 의미를 활용한 유의적 문형 교수 방안”(진기호) 등의 논의도 이루어졌다.

화용 교육 측면에서는 칭찬 응답 화행, 거절 화행, 요청 화행, 시간 표현, 양보 표현, 추측 표현 등의 주제로 논의되었다. 이하나는 “영어권 한국어 고급학습자의 칭찬 응답 화행 연구”에서 12개의 칭찬 상황을 설정하고 칭찬 상황의 객관성을 SAQ를 통해 한국어 모어화자와 영어 모어화자에게 검증하였고 이에 따라 DCT를 제작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자들이 지니고 있는 목표어에 대한 언어규범이 언어적 유창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칭찬 상황에서 적합한 발화를 할 수 있도록 한국어 언어규범을 신장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화행 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김화진은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거절 화행 연구”에서 한국어 모국어 화자,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 일본어 모국어 화자의 거절 화행 분석 및 비교를 통하여 일본인 학습자들이 거절 화행을 실현할 때 한국어 및 일본어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어와 일본어의 언어 표현의 차이 및 사회 문화

적 차이를 사회 언어학적, 화용론적 지식의 일부로 받아들여 일본인 학습자들이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담화 교육 측면에서는 맞장구 연구, 담화 표지 연구, 인터뷰 평가의 담화분석 연구, 담화 정보 활용 및 담화 원리를 바탕으로 한 제안 기능 교육 내용 구성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종국・신동일・박성원은 "인터뷰평가의 담화분석 연구 -상호작용 담화모형 관점에서"에서 한국어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여 일대일 인터뷰 담화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인터뷰 평가 양식이 실제 쌍방향 대화의 특징이 아닌 전형적인 인터뷰 대화 구조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수험자도 말차례 기회를 공유해야 하며 구체적인 말하기 과업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담화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지영은 "담화 원리를 바탕으로 한 제안 기능 교육 내용 구성"에서 먼저 한국어 교재에서 제안 기능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피고, 드라마 대본의 대화를 분석하여 일상 대화에서 제안 기능을 나타낸 언어 표현을 살펴서 유형을 분석하였다. 한국어 제안 기능의 유형을 ① [제안하기]→[제안 수용하기]. ② [제안하기]→[제안 거절하기], ③ [제안하기]→[제안 부분수용하기], ④ [제안하기]→[반대 제안하기], ⑤ [제안 유도하기]→[제안하기]→[제안 수용하기]로 설정하고 제안 기능 교육을 위해 위의 유형과 언어 형식 정보, 제안의 조건과 절차, 다양한 담화 유형에 따른 제안 기능의 특징이 교육 내용에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4. 문학교육, 문화교육

4.1. 문학교육

문학교육과 관련된 논저는 단행본 1권, 학술지 논문 2권, 학위 논문 4권 총 7편이다. 총론적 성격의 논저로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교육의 이론과 실제(신주철)이 있다. 여기에서 신주철은 문학작품은 상황과 행위의 구체성을 담고 있으며, 어휘, 문법, 통사구조 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보여줄 수 있는 '담론discourse'의 단위이므로 훌륭한 언어학습 자료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문학작품을 통하여 자신의 문화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것을 간접 체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지와 정서의 폭을 확장해가는 것은 중요한 학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외의 논문에서는 소설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이 주를 이루었으며 최권진은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 연구'를 통해 불가리아 소피아대학교의 중급의 한국어 학습자에게 전래동화를 이용해 한국어 교육을 하는 수업의 모델과 교육 내용을 밝히고, 국내외의 다른 교육 기관에서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그 근거로 언어 능력 향상, 번역 능력 향상, 지적 호기심 충족, 타 과목과의 연계성, 타 문화에 대한 이해도 증진 등을 제시하였다.

4.2. 문화교육

문화교육은 문학교육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었다. 종류별로 보면, 단행본 7권, 학술지 논문 9편, 석사 논문 4편, 박사 논문 1편 총 21편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서강대학교, SBS와 함께 한류 상품을 한국어 교육 자료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한류 상품

의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드라마로 배우는 생생 한국어』를 일본어판, 영어판, 중국어판으로 발간하였다. 학습 대상은 각 언어권 초급으로 설정하고, 그에 맞춰 제시되는 내용의 난이도를 조절하였으나, 교재의 활용 방법에 따라서 중・고급 수준의 학습자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론적 성격의 연구로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한국문화론(박영순),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 문화교육의 방향"(권오경),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황인교) 등의 저서와 논문이 있으며, 그 외에도 문화 요구조사, 문화 교육 방법, 인터넷 문화 콘텐츠 활용방안, 한국어교원 자격시험의 문화영역 문항, 문화수업 교수요목 구성 방안 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강현화는 "외국인 학습자의 문화 요구조사 -문화교재 개발을 위해"에서 문화 교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교재를 마련하기 위해 학습자들의 문화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화 교재는 외국인이 알아야 할 문화항목을 설정하고, 실러버스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지현배는 "국어 교원 자격 시험의 문화 영역 문항 연구"에서 한국적인 것의 대상 항목을 설정하고 교육 방법에서의 비교문화적인 안목의 도입하여 문항을 설계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김영주는 "고급 한국어 읽기 수업에서 정보 처리 접근법을 이용한 문화 교육"에서 이문화간 의사소통을 요구하는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외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 화자와 인터뷰를 함으로써 목표 문화와 상호작용하고, 이러한 교차 문화 학습 경험을 통해 제2언어 학습자로 하여금 유연한 자세로 타문화를 이해하며 문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며, 정의적으로 풍부한 언어 학습자를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5. 한국어 교수 방법

이 분야의 연구로는 단행본 2편, 학술지 논문 20편, 석사 논문 26편, 박사 논문 2편으로 총 50편의 논문이 있다. 언어 기능 중 쓰기와 읽기 영역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으며 통합 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조명되었다.

남성우 외 언어교수이론과 한국어교육에서는 언어교수이론은 물론 실제 활용에 중점을 두어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어 교사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제1부에서는 제2언어습득과 관련된 이론적인 기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2부에서는 각각의 교수법을 실제 한국어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허용・오문경은 즐거운 한국어 수업을 위한 교실활동 100에서 교사들이 수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필요한 자료 및 카드와 함께 각각의 교수법이 가지는 이론적인 배경과 특징을 활용하여 실제 한국어 수업에서의 적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교육에 대한 논의를 보면 김영만은 “다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통합 교육 방안 -고급 수준 학습자를 중심으로”에서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도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매체 활용 교육 방안을 제안하며 이는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 제공, 매체에 대한 학습자의 친숙도 증진, 언어 기능 통합적으로 발달,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교과서의 선형성 극복 등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말하기 교육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의 말하기 과제중심의 말하기 수업 구성 방안”(양현민)이, 듣기 교육에서는 “대학 수학 목적의 한국어 듣기 교육 방안 연구: 강의 담화의 특질과 듣기 전략 적용을 중심으로”(오선경)가 논의되었다. 오선경은 이 논문에서 강의 담화 분석은 강의 듣기가 일반적인 대화 듣기와는 다르다는 인식에서 실

제 강의를 녹음하여 이를 전사하고 강의의 일반적인 특징, 강의 유형, 강의 구조, 담화표지를 분석하여 전략 중심의 듣기 교육 방안을 연구하였다.

쓰기 교육에 대한 논의로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능력 발달에 대한 연구"(진대연), "중급 재미동포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연구"(이지영) 등이 있다. 장향실은 "중국 대학의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쓰기 교육 연구"에서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한국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한국인 담화 공동체의 글쓰기 방식을 습득하여, 의미가 명료하고 구조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춘 전문 분야의 글쓰기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연속성, 단계성, 일관성이라는 쓰기 교육의 원칙이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각 학습자 수준별 쓰기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읽기 교육은 언어 기능 중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로 "학문 목적 한국어 읽기 교재 개발 연구"(윤혜리),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읽기 텍스트 구성 연구: 자유 텍스트 활용을 중심으로"(김미경), "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교육 연구"(홍애란) 등의 논의가 있다. 김정숙은 "고급 단계 한국어 읽기 자료 개발 방안"에서 고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교육의 목적을 정확하고 유창한 이해력을 배양하는 데 두고, 고급 읽기의 숙달도를 기르는 데 효과적인 읽기 자료 구성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 개발된 한국어 고급 읽기 교재를 검토, 분석하고 고급 단계의 읽기 자료 선정 기준을 제시하며 읽기 활동의 유형을 분석한 후 읽기 자료 구성의 실례를 제시하였다. 김태자・김혜숙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읽기 교육의 화용론적 인식 지도"에서 학습자 스스로 읽는 목적을 알게 하고 학습자의 배경지식과 경험적 인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습자의 스키마를 형성하도록 해야 하며,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는 지식과 한국문화 내용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때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습득은 더욱 효과적임을 주장하며 읽기의 각 단계별 학습을 제안하였다.

언어 기능별 교육에 관한 연구 외에도 학습자 대상 및 교수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보면, 귀국 초등학생 학습자, 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 영어권 아동 학습자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며, 학문목적 학습자 대상도 세분화되어 상경계 전공 학습자, 신학 전공 학습자,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또한 "다언어 학습 시스템을 통합 웹기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동경외국어대학 「TUFS」개발 사례를 중심으로"(안은희)와 "초급 학습자를 위한 웹 기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연구 -Click Korean을 중심으로"(최은규 · 장은아 · 남수경 · 채숙희)와 같이 웹기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최은규 外는 위 논문에서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웹 기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 개발된 'Click Korean'의 개발 원리와 특성, 구성과 발전 과제 등을 살펴보았다.

교수 도구에서는 영화, 드라마, NHK 텔레비전 교육 방송, 시각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 방법이 연구되었다. 신혜원 · 김은아 · 김은영은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의 실제 -「ENJOY 韓國語」를 중심으로-"에서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자료의 개발 원리 즉, 초급 학습자 대상,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 자가 점검 및 평가, 학습자 편의를 위한 DVD 제작, 문화를 학습 내용에 포함을 제시하고 「ENJOY 韓國語」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기타 연구로 이미혜는 "고급 단계 학습자를 위한 토론 수업 방안"에서 토론의 발화 특징 및 유형을 분석하여 토론 수업 구성 원칙 및 방향을 살펴보고, 과정 중심의 수업 구성과 토론 자료 구성의 실례

를 제시하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응용 방법을 제안하였다.

최권진은 “통역을 위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 연구”에서 한국어 통역 교육이 간과되고 있음을 주장하며 통역의 종류와 한국어 학습자가 접하게 되는 통역 유형에 대해 언급하고 통역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실례를 알아보기 위해 불가리아 ‘성 클리멘트 오흐리드스키’ 소피아대학교의 한국학 전공에서 이루어지는 통역 교육의 방법을 살펴보았다.

6. 한국어 교재 및 사전 개발, 교육 과정・평가

6.1. 한국어 교재 및 사전 개발

이 분야의 연구들을 논저 종류별로 구분하면, 단행본 1편, 학술지 논문 11편, 석사 논문 13편, 박사 논문 2편으로 총 27편인데 석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대부분을 이룬다. 주제별로는 이전의 통합 교재 개발에 대한 연구는 줄어들고 언어권별 혹은 목적별 교재 개발 연구가 많이 논의 되었으며, 교재 분석 및 교재 구성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교재 개발 연구에서는 수준별로 초급 교재에 대한 교재 개발 방안이 주로 논의되었으며, 언어권별로는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권 교재 개발이 연구되었다. 김정현은 “한국어 교재 구성에 관한 연구”에서 초급 한국어 교재 구성에 적용할 각 영역(안)과 초급 한국어 교재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단원은 초급 1・2로 나누어 20개 단원씩 40개로 설정하고 주제 단원 5개가 끝날 때마다 종합단원을 설정하여 보충과 심화학습을 하고 다음 단원에 대한 예비 학습을 하게 하였다. 주제별로 단원을 구성하고 언어 기능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학습 요목을 설계해야함을 주장하였다. 권용해는 “초급 한국어

교수법 모델 및 교재 구성에 대한 연구- 프랑스 대학생을 대상으로"에서 1단계(30시간)는 '기초수업'과 '발음연습', 2단계(30시간)는 '기초수업', '발음연습', '듣기연습', 3단계(40시간)는 '기초수업', '발음연습', '회화연습'으로 구성된 교수법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교재 구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는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와는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문법과 어휘의 난이도, 문화 소개, 학습 활동, 교육자료 등에서 이를 살펴보았다.

정연희 · 김세랑은 "일본 대학의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교재의 만족도와 요구조사 분석을 중심으로-"에서 일본 대학 내 강좌에 있어서는 강의의 목표 및 내용, 그리고 학습자와 교사의 요구에 맞는 교재 개발이 요구된다는 전제 아래 현재 일본의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교재를 중심으로 학습자와 교사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새로운 교재 개발을 위한 요구 사항을 살펴보았다.

학습 목적별로 대부분 학문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 개발이 많았으나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는 교재 개발도 연구되었다. 또한 결혼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대상의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은주는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초급 한국어교재 단원 내용 구성 방안"에서 이주 여성은 처음 정착 단계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고 담화 중심의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요구조사를 통해 상황중심적인 단원 내용 구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학습 내용별로 발음 교재, 한국 사회, 문화 교재, 관용어 교재, 자습용 문법 학습 교재 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해영 · 최수진 · 임명걸 · 왕청청 · 필신연 · 정란은 "한국학 전공자를 위한 한국사회, 문화 교재 개발 방향"에서 중국에서 이뤄지는 한국어교육은 한국의 사회 · 문화를 이해하는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

며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특성상 교육 과정에서 별도의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한국 사회 · 문화 교과목 개설의 당위성을 논의하고 나아가 교과목의 효과적인 운영과 교육 목표의 실현을 위해 학습자의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내용적, 형식적 측면으로 나누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재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영선은 "한국어 교육 발음 교재의 구성 방식과 내용"에서 발음 교육을 위한 모형으로 '듣기 단계-수용(인지 및 이해) 단계-발성 단계-확인 및 교정 단계'를 상정하였다. 발음 교재의 전체적인 체계는 한글의 자모와 음가, 음절 구성과 종성의 처리, 음운 규칙, 문장과 운소의 순서를 바탕으로 실제 내용을 구상한다고 하였다. 김선정 · 강현자는 "한국어 관용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및 단원 제시"에서 관용어 사용은 외국어 학습자들에게는 목표어의 수행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사용빈도를 통해 관용어 목록을 선정한 후 수준별로 관용어 목록을 분류하여 이야기 구성하기에 좋은 관용어 끼리 짝을 지어 제시하는 교수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외에 황혜숙의 "일본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교재 개발 연구"도 있다.

6.2. 교육 과정

교육 과정을 연구한 논문들은 대부분 특수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연구 과제로 삼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가 3편으로 가장 많았는데, 최정순은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교육 과정과 평가"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학습 목적별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한국어의 하위 분류와, 일반 목적 한국어와 특수 목적 한국어의 구분을 위한 문지방 등급(Threshold Level)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지방 등급은 일반적인 기초적 능력에 도달하고자 하는 학

습자들을 목적 집단으로 하는 등급으로서, 이 등급으로 도달하기까지의 '공통 한국어(General Korean)'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통 한국어'의 설정과 한국어 학업능력평가 실시를 통해 대학의 한국어 교육기간의 역할 및 한계를 파악하고, 한국어교육기관과 대학 입학 후의 지속적인 한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이원화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교육과정상의 등급의 구체적인 능력 기술을 위해서는 기존의 한국어 능력시험의 등급기술은 목적에 충분하지 못함을 밝혔고, 하나의 대안으로서 CEF(유럽의회의 공통지침서) 척도를 이용한 배재대학교의 등급 기술을 소개하였다.

황현주는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과제 단위 요구 분석"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 조사를 토대로 첫째, 다양한 자료원과 방법을 통한 과제 단위 요구 분석을 기초로 하여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과제 단위 교수요목을 설계해야 하고 둘째, 유학생들의 전공 분야, 학년, 한국체류기간, 한국어 학습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제 단위 교수요목을 설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신문경은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서 내용 중심교수 모형을 기초로 하여 학문 목적의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교수요목을 구성하고 교수 학습 방법론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이주 노동자(박성수, 임승선), 국내 이주 노동자 자녀(신영옥), 여성결혼이민자(장미영), 주한 미군(최연주), 태국과 캄보디아의 관광 안내원(조수현)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가 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연구로는 염창권의 "중국 대학의 한국어학과에서, 한족 학생들의 한국어 습득 양상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와 허재영의 "한국어 교육의 입장에서 본 중국 동북3성의 우리 민족

학교의 〈조선어문〉 교과 연구"가 있고,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연구로는 아사리 텐세이의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고급 교육과정 개발 연구"가 있다. 한편, "한국어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김용임)도 특수 목적의 교육 과정 개발 관련 연구로 볼 수 있다.

6.3. 교육 평가

교육 평가 관련 단행본으로는 한국어 평가론(강승혜 외)이 있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가르친 결과에 대해 무엇을 평가해야 하고 어떻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비롯하여 평가의 다양한 기술을 총 8장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제1장 '언어평가의 기초'에서는 언어 평가와 관련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루고 언어 평가의 목적, 언어 평가의 유형, 언어 평가의 요건, 언어능력 평가의 역사를 개괄하였다. 제2장 '언어평가 도구의 개발과 활용'에서는 언어 평가 도구의 기본 개념을 다루고 언어 평가 도구의 개발 절차, 평가 결과의 해석과 활동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 '한국어 평가의 기초'에서는 한국어 평가를 위한 한국어 능력의 구성 개념 등을 살펴보고, 한국어 등급별 평가목표, 등급별 평가 영역 및 내용, 등급별 평가 기준 등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 제7장까지는 한국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각 기술별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장에서는 각 기술의 개념 및 특성을 살펴보고 각 기술별 평가의 목적 및 기능, 각 기술별 평가의 범주, 각 기술별 평가의 내용, 각 기술별 평가의 유형, 각 기술별 평가의 실제(초급의 예)를 예시하였다. 제8장은 '언어능력 평가의 사례'로 외국어 언어능력 평가와 한국어 능력 평가 등을 살펴보았다. 이 책은 한국어 평가와 관련된 일반적인 언어 평가의 기본적인 개념을 한국어 평가에 적

용한 내용뿐만 아니라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예들을 사용하여 한국어 평가의 실제적인 내용 역시 비중 있게 다루었다.

교육 평가 관련 논문으로는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것이 3편으로 가장 많았다. 김유정은 "한국어능력시험의 난이도 분석 연구"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해 보고, 한국어능력시험의 개발 원칙에 따라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제6회~제8회 시험을 중심으로 등급별 문항 난이도를 분석한 결과, 1급과 2급은 7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이며, 3급부터 6급까지는 0.65% 이상의 정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초급에서는 읽기가 어렵게 출제되었으며, 고급으로 갈수록 어휘·문법이 어렵게 출제되었고, 모든 급에서 듣기가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어능력시험이 앞으로 등급별 난이도 조정과, 등급 내와 등급 간 영역별 난이도 편차의 조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영역별 문항 난이도 분포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는 첫째, 모든 급과 영역에서 난이도 상의 문항 개발이 요구되고, 둘째, 급별 난이도 조정에 있어서 중급은 난이도 중의 문항 수를 줄이고 초급과 고급은 난이도 하의 문항 수를 줄여야 하며, 셋째, 영역에 있어서 듣기와 쓰기가 상대적으로 너무 쉽게 출제되는 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하였다.

장은아·양길석은 "한국어능력시험의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문항 분석"에서 제7, 8, 9회 한국어능력시험 3급의 각 영역별 총 360문항을 대상으로 문항반응이론에 근거한 SIBTEST 방법을 사용하여 총 98문항을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문항으로 추출하였다. 각 영역의 문항들을 문항 내용(소재), 출제의도, 문항 유형, 기능, 선택지 유형, 텍스트의 종류와 텍스트의 길이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문항 내용 면에서 여성 취향적인 소재의 경우에 여자에게 유리한 문제로 분석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으며 남성적인 소재는 남자에게 유

리하게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검사에 차별기능문항이 존재하게 되면 그 검사의 신뢰도가 감소하므로, 다양한 변인을 바탕으로 차별기능 문항을 분석하고 이를 문항 제작에 참고함으로써 한국어 능력시험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한글능력검정시험에 대한 연구로 니시야마 노조미의 "한글능력검정시험의 구성과 문항 분석 연구"가 있으며, 스가이 요시노리는 "한국어능력시험과 일본 〈한글〉능력검정 시험"에서 두 시험의 초급 문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언어 영역별 평가에 대한 연구로는 김종국 · 신동일 · 박성원의 "인터뷰평가의 담화분석 연구", 배정옥의 "쌍방향 한영 이중언어 몰입 프로그램 학습자들의 미국에서의 모국어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쓰기능력 평가 연구", 이자련의 "한국어 수업에서의 수행평가 방안 연구". 조아라의 "한국어 말하기 수행평가의 역류효과 비교연구", 조용준 · 전선경의 "한국어능력 평가로서의 빈칸 시험의 개발에 대한 기초적 연구" 등이 있다.

6.4. 교육 정책

교육 정책 관련 논문으로는 노형남의 "이중언어교육정책의 멱함수 성향"이 있다. 노형남은 이 논문에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의 이중언어교육 정책을 인권과 관련하여 통합인권정책과 선별인권정책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현재 여러 나라에서 선별인권정책에 근거하여 이중언어교육 정책을 펴고 있으나 이는 외국인들을 주변인으로 살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하면서 통합인권정책에 따른 이중언어교육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7. 대조분석, 오류분석, 중간언어

대조분석 관련 논문은 총 3편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각각 몽골어(박덕유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상에 대한 비교 연구"), 중국어(심혜령 "한자어 명사의 공기 관계와 중국어와의 비교"), 일본어(제등명미 "1909년 간(刊) 한어통(韓語通)의 일본어와 한국어")를 한국어와 대조하여 연구하였다.

한편 오류분석 관련 논문의 수는 총 13편으로서 오류분석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언어권별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6편, 영어권 학습자 대상 논문이 2편으로 나타났다.

나은영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분석"에서 학습자들이 6개월 동안 제출한 쓰기(작문)을 분석 자료로 삼아 중국인 한국어 중급 학습자들의 쓰기에서 나타나는 문법 오류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교착어인 한국어의 특성으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미와 조사의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특히 각 연결어미들의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연결어미와 비교·대조하기보다는 각 연결어미만의 의미·형태 등을 학습함으로써 이러한 연결어미들이 함께 제시되는 중급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혼란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조사에 있어서는 특수조사보다는 격조사에서 많은 오류가 나타났는데, 중국어는 격조사가 발달되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초급 단계에서부터 격조사의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특히 한국어 말하기 상황에서 격조사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격조사를 학습하는데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향화는 "중국인의 한국어 학습상 오류 연구"에서 오류과정을 크게 모국어 습관에 따른 오류인 '중국어의 간섭에 의한 오류'와 목

표어인 한국어 내에서 혼동으로 인한 오류인 '한국어의 내접 간섭에 의한 오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유형의 오류 표현을 오류 판정의 기준에 따라 '대치', '누락', '첨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차숙정 · 송향근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에서 나타나는 어휘 오류"에서 중급 수준의 중국인 학습자의 쓰기에서 나타나는 어휘 오류를 바탕으로 쓰기 차원에서 오류 유형을 제시하여 중국인 학습자 오류 유형의 특징을 알아보고, 오류 기술을 통해서 오류 원인을 찾고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어휘 오류는 쓰기의 관점에서 판정하였고, 판정 기준에 따라 오류 유형을 형태적 오류, 의미적 오류, 통사적 오류, 학습자 전략 오류로 나누어 중국인 학습자의 어휘 오류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형태적 오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의 잘못된 발음으로 인한 표기 오류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므로 중국어와 한국어와의 음운 체계 대조를 하여 그 차이점을 인지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울러 정확하게 철자를 쓰기 위한 맞춤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유의어 오류와 사용 영역 확대 오류가 대부분의 중국인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휘의 사용 영역에 대한 교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학습자 전략 오류는 쓰기 과정에서의 학습자의 의사 소통 전략이 오류로 나타난 것인데, 중국인 학습자에게서 나타난 모국어 직역으로 인한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 분석에 의한 어휘 제시도 필요하지만, 먼저 중국어로 문장을 만들고 다시 한국어로 바꾸는 습관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송춘애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분석 및 교육 방법 연구", 양순임의 "중국인 학습자언어에 나타나는 한국어 종성에 대한 음향, 청취 음성학적 오류분석", 홍은진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 연구" 등도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오류분석 연

구에 해당한다.

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으로는 김영주의 “영어권 고급 학습자들의 조사 및 동사 어미 사용 오류 분석”과 조인정의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주격과 목적격 조사 대치 오류에 대한 비교언어학적 분석”이 있다. 김영주는 “영어권 고급학습자들의 조사 및 동사 어미 사용 오류 분석”에서 영어권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의 작문에 나타난 조사 및 동사 어미 오류들을 수집해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조사 사용 오류는 영어권 학습자들에게 가장 빈번한 누락 오류, 대치 오류, 첨가 오류, 올림표현의 오류 순으로 정리하였다. 조사 사용 오류에서 대부분의 오류는 누락의 오류(주격 조사 ‘이/가’의 누락, 목적격 조사 ‘을/를’의 누락, 부사격 조사 ‘에’의 누락, 보조사 ‘은/는’의 누락)로 나타났는데, 조사 누락의 원인을 영어와 한국어의 상이에서 찾을 수도 있으나 연구 대상 학습자들이 구어에 강하다는 점에서 구어가 그대로 문어로 옮겨진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동사 어미 오류는 그 유형에 따라 시제 선택의 오류, 시제 이동의 오류, 상의 오류, 연결어미의 오류, 전성어미의 오류, 종결어미의 오류, 올림 표현의 오류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특히 연결어미 및 전성어미의 사용 오류가 복잡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조인정은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주격과 목적격 조사 대치 오류에 대한 비교언어학적 분석”에서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서 주격 조사인 ‘이/가’가 ‘을/를’로 대치되는 현상, 그중에서도 학습자의 모국어인 영어의 간섭에서 비롯된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영어권 학습자가 자주 범하는 조사 오류와 연관이 있는 용언들이 ① ‘있다/없다’, ② 영어 타동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형용사(심리 형용사와 ‘필요하다’), ③ 자동사와 피동사, ④ ‘되다’와 ‘아니다’임을 찾아낸 후, 이들 용언에 대응하는 영어

구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조사 대치 오류가 학습자의 모국어인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에서 오는 것임을 밝혀냈다. 즉 영어에서는 타동사를 사용하는 구문이 한국어에서 형용사와 자동사(피동사)로 표현될 때 영어권 학습자는 주격과 목적격 조사 대치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오류 구문이 한국어의 이중주어 구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도 밝혀냈다.

오류분석 관련 논문들을 학습자 언어권별이 아닌 세부 주제별로 살펴보면 문법(김영주 "영어권 고급학습자들의 조사 및 동사 어미 사용 오류 분석", 김정남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에 대한 연구-시제 및 연결어미 표현을 중심으로", 나은영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분석 -중급 학습자에서 나타나는 문법 오류를 중심으로", 조인정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주격과 목적격 조사 대치 오류에 대한 비교언어학적 분석", 지현숙 "한국어 인터뷰 시험 담화에서 나타난 구어 문법적 오류 분석")과 어휘(梁水香 "韓國語 學習者들의 連語 誤謬 연구", 차숙정 · 송향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에서 나타나는 어휘 오류", 홍은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 연구") 관련 연구가 가장 많았고, 이 외에도 쓰기(이근용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오류 분석"), 발음(양순임 "중국인 학습자언어에 나타나는 한국어 종성에 대한 음향, 청취 음성학적 오류분석"), 말뭉치(이승연 "한국어학습자 말뭉치 오류 표지 방안 재고"), 오류수정유형(이석란 "교사의 오류 수정 유형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 반응에 관한 연구"), 오류분석방법(김민애 "한국어 학습자 오류의 분석 방법 고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중간언어 관련 논문으로는 신현정의 "한국어 학습자들의 '-겠-'과 '-(으)ㄹ 것이' 사용에 나타난 중간언어 변이 연구"가 있다. 이 논문은 한국어 교육에서 시제 및 양태 범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두

문법 항목인 '-겠-'과 '-(으)ㄹ 것이'를 대상으로 학습자들의 중간언어에서 나타나는 변이를 밝히기 위하여, '-겠-'과 '-(으)ㄹ 것이'의 선택과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제약 조건들을 고려하여 일본어 학습자, 중국어권 학습자, 영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과제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변이 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다양한 모국어를 배경으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겠-'과 '-(으)ㄹ 것이'를 선택하고 사용할 때에 과제 유형에 따라 변이가 나타나는 것과 언어적 맥락에 따라서도 변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밝혔다.

8. 기타

소수의 연구물로 학습자 요인, 메타언어표현, 말차례 가지기, 학위논문 서론의 분석, 코드 스위칭, TV프로그램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등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있다.

김영미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내용영역 잡기에 관한 연구"에서 내용 영역을 담화·기능 영역, 문법 영역, 문화영역으로 나누고 그 하위범주의 내용들은 서로 체계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손희연은 "한국어 수업 상황의 코드 스위칭"에서 프랑스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수업 상황에서 나타나는 코드 스위칭의 유형과 기능을 기술하였다. 분석은 담화 조직화와 관련된 코드 스위칭을 시도하였으며 코드 스위칭의 다양한 유형들과의 관계를 통해 상호행위의 흐름의 관계들을 분석하였다. 코드 스위칭에 대한 이러한 기술적 연구는 수업 담화 연구 현장의 지평을 넓히고 다양한 분석 대상을 개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박은선은 "한국어 학위논문 서론의 장르 분석적 연구-한국어 모어화자와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에서 KAP 논문 쓰기 교육에 실제적 자료를 제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CARS모형과 CARS+3 모형을 적용하여 실제 논문의 서론부분을 분석하였다.

9. 결론

이상으로 2006년도에 출간된 한국어교육학에 관한 저서와 연구 성과물들을 개괄하였다. 2006년도에 나온 연구 성과물의 양적인 증가는 2005년도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한 한국어교육학계의 뜨거운 연구 열기를 반영한다 하겠다.

연구 분야별로 양적인 내용을 보면 단연 언어 내용 교육 분야의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이는 응용 언어 학문인 한국어교육학의 특성상 많은 연구자가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발생하는 발음이나 어휘, 문법 등 언어 내용 교수에서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연구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고, 그 외의 연구자들도 교수학습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고 필요한 내용을 연구 주제로 삼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실용적인 부분에서 연구 결과들이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는 연구를 주제로 삼은 경우도 많았다.

그 다음으로 활발히 연구된 분야가 한국어교육학 총론 분야와 한국어 교재 및 사전 개발, 교육 과정, 평가 분야로 두 분야의 연구 성과물에서 비슷한 분량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2005년도의 연구 물들과 비교하여 보면 총론 분야의 연구가 줄어든 반면 한국어 교재 및 사전류의 출판이 많아진 점 또한 2006년도 한국어교육학 연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재 및 사전류의 출판도 통합적인 성격이 아닌 언어권별, 특수 목적별에 맞춘 개발이 이루어져 다양한 학습자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전의 연구가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

등 기관 주도의 프로젝트성 연구 성과물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2006년도에는 개별적인 연구 성과물들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어교육학에 관한 연구 역량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어 교수 방법 분야의 연구는 2005년도에 비하여 양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이전의 연구에서는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던 데에 비하여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것과 학문 목적의 기능교육 방안을 연구한 논문이 많았다. 이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단순히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에서 나아가 한국의 대학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등 목적이 다양해지면서 고급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수 방법 연구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학 교육, 문화 교육 분야에서는 단행본이 8편이나 출판되는 등 어느 때보다 이에 대한 연구가 풍성한 때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연구의 대부분이 문화 교육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과 외국어로서의 한국 문학 교육 분야의 질적 성장을 보여 주는 연구 성과가 적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대조분석, 오류분석, 중간언어 연구 분야는 이전보다 급격히 연구의 양이 줄었는데 이는 프로젝트성 연구가 종료되면서 그 연구 결과물들이 줄어든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은 이전의 중간언어 연구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개별 연구자의 연구 역량은 높아졌다는 점이다. 학습자의 화행 전략, 전략 오류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적 연구 성과는 바로 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대상자에 따른 연구 성과가 집중된 점도 특이할 만하다. 특히 중국지역 학습자의 증가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급증하였는데 이러한 연구의 집중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한국어 교육의 위상이 높아짐과 발맞추어 한국어 교육학의 연구도 그 자리매김을 할 때라 생각한다. 2006년도 한국어교육학의 연구 성과와 동향을 분석하면서 몇 가지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부분의 연구가 단일 연구들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어교육학 분야가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연구도 통합적 연구로서의 성과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한국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접·관련학문 분야에서도 한국어교육을 연구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물들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를 선도해 갈 한국어교육학계의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는 또한 역설적으로 한국어교육학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넓어지고 있고 다양한 학문과의 연계도 가능함을 시사해 주는 바라 할 수 있겠다. 보다 다양한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어교육학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시각에서의 한국어교육학에 관한 연구 성과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필자의 역량 부족으로 국어학이나 응용언어학, 국어교육 등 다양한 인접·관련학문 분야에서도 다루어진 연구 성과물들을 미처 살펴보지 못한 한계점을 밝히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바란다.

여론과 쟁점

김 세 중
(국립국어원)

1. 머리말

이 글은 2006년에 국어, 언어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06년에도 역시 언어 생활과 관련하여 국민의 관심을 모은 일이 여러 건 있었다. 성씨에 대해서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었고, 표준어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어 중국, 일본의 인명, 지명을 한국 한자음으로 적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언어 생활을 옥죄고 제약한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동안 어문규범이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의식이 지배했다면 점차 언중의 의식이 깨어나면서 어문규범에 대한 대중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06년에 국어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었으며 그 논란이 어떻게 귀결되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경우도 있고 다만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해본 것으로 그친 것도 있다. 각 사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2006년의 시점에서 국어에 대한 대중의 관심, 요구를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국어 문제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사안별 문제와 쟁점

2.1. 표준어와 방언

2006년에는 그동안 표준어에 눌려 온 사투리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다. 사투리 연구모임인 탯말두레(회장 한새암)가 표준어 중심 어문 정책 폐지와 사투리를 학교에서 교육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 소원을 2006년 5월 제기하였다. 탯말두레 측은 현행 표준어규정과 국어기본법·초중등교육법 등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교육권을 침해하였다며 120여 명이 연명하여 헌법 소원을 제출하였다. 이들은 헌법소원청구심판서에서 표준어규정이 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 것은 지역어 사용자를 교양 없는 사람으로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이며 국어기본법에서 표준어를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용 도서 편찬과 공문서 작성에 준수하도록 한 것은 지역어 사용을 제한할 뿐 아니라 지역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어기본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역어 보존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 언어의 보존 차원에서 지역 학교에서 사투리를 가르치는 한편 사투리를 공용어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투리는 중앙집권적 문화규범의 희생물이며 언어 다양성을 억압하는 기존 표준어 정책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움직임이 나타났다.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사투리뉴스와 사투리

퀴즈까지 방송되고 영화도 짙은 사투리를 쓴 작품이 여러 편 나타났는데 '사생결단' '국경의 남쪽' '맨발의 기봉이' '비열한 거리' '짝패' 등은 그런 예이다. 한편 사투리를 '탯말'이라 이름 지은 '탯말 두레' 모임은 전라도 사투리의 정수를 담은 '전라도 탯말'을 낸 데 이어 '경상도 탯말'을 출간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표준어 중심의 어문정책이 워낙 강고해 지역의 고유한 정서를 담은 고장말이 부당하게 억압받아 온 데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다. 표준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표준어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해서 지역의 방언의 가치가 훼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도 그동안의 어문정책은 표준어 일변도로 나갔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각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방언이 급격히 사라지거나 특징이 엷어져 갔다. 이는 도시화, 산업화화 함께 나타난 농촌인구의 급감과 맞물려서 벌어진 현상이다.

2.2. 두음법칙과 성씨

유(柳) 모 씨는 각종 자격증에 성을 '류'로 표기해 왔으나 호적에 '유'로 기재되자 법원에 호적정정신청을 냈으나 2006년 3월 1심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2006년 6월 12일 대전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손차준 부장판사)는 유 씨가 낸 호적정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의 한글 표기에 두음법칙을 강제로 적용하는 행위는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수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본적 인권 보장과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성씨의 한글 표기를 통일하기 위해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며 혈통을 상징하는 성에 두음법칙

적용을 강제할 만한 정당한 목적, 구체적 이익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또 성의 한글 표기에 두음법칙을 강제하는 대법원 호적예규는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규정일 뿐 아니라 법률의 형식을 취하지 않아 무효라고 밝혔다.

호적은 원래 한자로만 기재되어 왔다. 그러다 1994년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한자와 한글을 병행해서 표기하게 되자 대법원은 성(姓)을 한글로 적을 때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호적예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유(柳)씨 성을 가진 이들은 호적에 일률적으로 '유'로 표기되었고 호적이 아닌 다른 각종 자격증에 이미 그 전부터 '류'로 표기되어 온 이들이 호적과 그 밖의 증명서 사이에 성의 표기가 일치하지 않게 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06년 6월 대전지법의 이 같은 판결은 두음법칙을 포함하여 한글맞춤법의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달리 말해 어문규범과 개인의 인격권이 상충할 때 어느 쪽이 우선되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호적의 성씨 표기의 경우에 개인의 인격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성씨도 한국어의 일부인 만큼 한국어의 어문규범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주장과 성씨는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만큼 어문규범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대립하는데 2006년 6월 대전지법에서는 후자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담당 재판부로서는 그동안 각종 증명서에 '류'로 표기되어 온 소송 제기자가 호적에서는 '유'로 표기됨으로써 겪는 피해를 덜어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성씨의 사람들이 호적에서 '유'로 표기되는 사람들과 '류'로 표기되는 사람들로 갈리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2.3.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논란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비판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 하나로 외래어를 표기하기 위해 'ㅍ'을 변형한 새 글자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타났다. 일테면 양식기 포크(fork)를 돼지고기 포크(pork)로, 열광하는 팬(fan)을 요리기구 팬(pan)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한글이 국제 소통 언어로서나 국내 소통의 말로나 절름발이 신세를 면할 수 없으며 이 결함 때문에 글로벌 시대 우리말의 발전이나 아동의 영어 교육이나 원천적으로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글자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음소가 생겼을 때 가능한 것인데 과연 새로운 음소가 생겼느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f/ 음을 인식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일 뿐이라는 점, 그리고 /f/ 음이 나타나는 단어가 외래어에 한정된다는 점 등이 새로운 글자 제정이 곤란한 사유가 된다. 물론 f 소리 표기를 위한 글자 제정 논란은 그것이 국어 생활을 위한 것이냐 외국어 교육을 위한 것이냐는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국어 생활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새로운 글자 제정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 외국어 교육의 용도에서는 어떤 글자든 만들 수 있을 것이지만 한글을 변형한 새 발음 기호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외국어 발음 교육 방법인가 하는 문제가 별도로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외래어 표기법은 국어 생활을 위한 것이지 외국어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한편 중국의 인명, 지명을 중국어 발음에 가깝게 적는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반감이 여기저기서 표출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중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도 한국 한자음으로 중국 인명, 지명을 읽는데 왜 한국에서 굳이 중국식을 따를 게 뭐냐

는 의견이 있다. 또 중국은 한국의 '대전'을 '대전'이라 읽지 않고 '다톈'으로 읽으니 우리도 중국 인명, 지명을 우리 식으로 읽어야 형평에 맞지 않는가 하는 의견도 있다.

사실 외래어 표기법 고시 이후 만들어진 외래어 표기 용례집에 따르면 중국의 지명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자음으로 널리 알려진 지명에 대해서는 중국 한자음에 따른 것과 한국 한자음에 따른 것을 복수로 허용하고 있다. 베이징이 원칙이지만 북경도 허용되고 옌볜이 원칙이지만 연변도 허용된다. 북경, 연변으로 쓰는 것도 허용되는데 이를 오해하여 베이징, 옌볜만 쓰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잘못이다. 물론 아예 근본적으로 북경, 연변만 쓰도록 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그 반대 의견도 있다. 중국의 인명, 지명의 표기 기준을 일반적인 중국인이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두어야지 중국에서 소수에 불과한 우리 동포의 습관에 맞추어야 하느냐는 반론이 있다. 또 중국인들이 '대전'을 '다톈'으로 읽으니 우리도 '연변'을 '옌볜'이라 할 필요 없이 '연변'이라 해야 한다는, 형평성을 내세우는 의견이 있는데 '옌볜' 역시 정확한 중국어 발음이 아니고 근사한 발음일 뿐이므로 형평성 문제는 반대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2.4. 외국어, 외계어 사용 증가

정부의 정책 이름이 외국어로 된 것이 많다는 지적이 2006년 한글날을 맞아 언론에서 제기되었다. 행정자치부가 정부혁신관을 홍보하면서 만든 'INNOVISION(이노비전)'은 '혁신(Innovation)'과 '미래상(Vision)'을 합쳐 만든 조어인데 일반 국민들이 이를 얼마나 인식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나왔다. 농림부의 '청렴-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대전지방국세청의 '홈택스'(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종

합소득세신고를 하도록 한 대화형 프로그램), 산림청의 산림휴양 포털서비스 '숲에 on', 국가청렴위의 청렴물결 확산 캠페인 '클린 웨이브(Clean Wave)', 건설교통부의 정책결정시스템 개선안 '정책 닥터 MC^2(엠씨스퀘어)' 등도 외국어이거나 아예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의 정책 외에 기업 이름에 외국어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한글날을 전후하여 나왔다. 회사 이름으로 한자어를 포함한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는 상장사는 전체의 3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673개사)과 코스닥시장(882개사)에 상장된 총 1,555개사 가운데 한글과 한자로 사명을 만든 기업은 566개사에 그쳐 셋 중 한 회사만이 우리말 회사 이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들은 '테크', '바이오' 등을 많이 쓰기에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81개사만이 우리말로 된 회사 이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계어가 범람하는 데에 방송이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인기 프로그램인 '상상플러스' 중의 '세대공감 올드앤뉴'가 10대들이 사용하는 신조어와 외계어를 마구잡이로 소개해 우리말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올드앤뉴는 세대간 언어장벽을 허물어 보겠다는 의도로 기획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50대가 모르는 10대의 말' 코너에서 세대공감이라는 명목 아래 10대들의 비속어나 은어, 축약어 등을 소개함으로써 바른 우리말 사용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 오히려 우리말을 비속화시킨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지대'('제대로'의 줄임말), '지름신'('지르다+신'의 합성어로 충동구매를 부추긴다는 가상의 신), '므흣'(수상쩍은 미소나 흡족한 상태), '안습'(안구에 습기찬다, 즉 눈물이 난다는 뜻) 등의 말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퍼졌다.

정부의 정책이나 새로운 제도 이름이 외국어거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 듯하다. 방송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이다. 비속어나 신조어를 소개하더라도 젊은이들의 기호에 맞아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계속해서 그와 같은 말을 방송에서 다루려고 할 것이다.

2.5. 영어마을에 대한 논란

경기도는 2006년 4월 850억 원을 투자해 만든 파주 영어마을을 열었다. 이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공무원 수련원을 개조해 2004년 8월 개원한 안산캠프의 1.5배 규모이다. 또 2008년 4월에 양평캠프(총 사업비 625억 원, 수용인원 300명)도 개원할 예정이다.

한편 2006년 3월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영어마을 설립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영어마을을 만들 돈으로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더 채용하면 학생들의 영어 교육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2005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가 영어교육활성화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영어캠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상치된다. 경기도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경기도의 영어마을 설립 노력을 깎아내리려는 것이라며 반발하였다.

서울에서도 영어마을 설립 추진이 계속되었다. 서초구에서 2005년 하반기에 만든 서초영어체험공원 앨리스파크는 개관 후 이용자 수가 당초 예상치에 훨씬 못 미쳤다.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등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에 따라 제3영어마을을 유치하겠다고 나섰고 강남구도 영어마을 설립 계획을 발표한 뒤 사업을 추진했으나 비용이 수백억 원 들고 효과도 입증되지 않아 계획을 접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엇갈린다.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공

교육을 피폐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투자 효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2.6. 그 밖

말이란 계속 새로 생겨날 수밖에 없다. 새로 생겨난 말을 신어라고 하는데 신어 중에는 얼마 동안 쓰이다가 사라져 버리는 말도 있고 살아남아 계속 쓰이는 말도 있다. 국어사전에서는 신어를 어떤 기준으로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2006년 상반기에 잠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금성출판사가 낸 국어사전에 '얼짱'이 오른 데 대해 '얼짱'은 일시적 유행어일 뿐이므로 사전에 오를 말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금성출판사측이 이에 대해 '얼짱'은 4~5년 동안 지속적으로 쓰인 말이므로 충분히 사전에 오를 만하다고 반박하였다. 사실 '얼짱'만이 문제가 아니다. 짝퉁, 여친, 초딩, 디카 등과 같은 말들도 논란의 대상이 될 말들이다.

유엔이 2008년부터 중국어로 작성하는 문서에 간체자(簡體字)만을 사용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우리나라에서도 간체자를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번체자를 사용하다가 1994년부터는 중국어 교과서에서 간체자를 사용해 왔는데 중국어 교과서에서뿐 아니라 한자어를 가르칠 때에도 간체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중국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체자만 익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어 단어를 새로 익혀야 한다. 우리말과 중국말 사이에는 단지 글자만 번체자냐 간체자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어 자체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한문 고전 번역을 전담할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됐다. 2006년 3월 '한국고전번역원 및 부설 고전번역대학원'

설치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한문 고전 번역 작업은 민간 학술 단체인 민족문화추진회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주도해 오고,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등이 부분적으로 맡아 왔는데 체계적인 고전 번역이 이루어지기에는 미흡했다. 이에 민족문화추진회를 정부 출연 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추진되지 못하였다. 공청회에서 해당 정부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전번역원 설립에 적극 의지를 보임에 따라 한국고전번역원 설립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역사용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역사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다. 35명의 지식인들이 한국 근현대사의 논쟁적 용어들을 짚어 보았는데 '6·25전쟁' 대신 '한국전쟁'(박명림 연세대 교수), '통일신라시대' 대신 '남북국시대'(송기호 서울대 교수), '신사유람단' 대신 '1881년 일본시찰단'(이이화 서원대 석좌교수), '한일합방조약' 대신 '한국병합늑약'(이태진 서울대 교수) 등을 쓰자는 제안이 있었다. 역사의 한 측면만 강조해온 식민사관·반공사관 등을 극복하고 이념적 편견 없이 역사적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역사용어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2006년은 한글날이 국경일이 된 첫해였다. 단순히 한글날이 국경일이 된 데 만족할 게 아니라 세종의 업적을 기리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경복궁도 복원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세종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리 곳곳에 세종의 정신이 투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로에 한글 조형 작품을 설치한다든지, 보도블록이나 세종문화회관의 기둥, 가로변 건물의 벽과 울타리에 한글의 문양을 새기는 아이디어도 제시되었다.

건설교통부는 2006년 7월 교육인적자원부에 현행 인문사회계열 교과서에 잘못 기재된 건설교통 관련 표현과 통계수치 등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고속도로'를 '고속국도'로 바꾸어 달라고 한 것과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생활하수'를 '생활오수'로 바꾸어 달라고 한 것이다. 고속도로는 너무나 국민들에 익은 표현이지만 법률에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속국도라 되어 있다는 것이다. 명칭 변경 문제는 관계당국이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기도 하다. 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법을 현실에 맞게 바꾸거나, 법을 관철시켜야겠다면 관계당국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법을 실현시키려고 해야 하는데 '고속도로/고속국도'가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두고 볼 일이다.

세대간 언어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말을 정확하게 사용하자는 취지의 KBS 2TV 오락프로그램 '상상플러스'에서 '걔네들'이 맞는지 '게네들'이 맞는지를 놓고 혼란이 빚어졌다. 출연자가 '게네들'이 맞다고 한 데 대해 진행자가 '걔네들'이라고 해야 옳다고 말하자 방송사 홈페이지의 시청자게시판에는 두 표현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고 국립국어원에도 문의 전화가 잇따랐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걔'는 '그 아이'의 준말이며 '게네'는 삼인칭 무리를 낮추어 부르는 대명사로 정의돼 있다. '걔네들'은 '걔'에 접미사 '네'와 '들'을 붙인 형태로서 문법적으로 맞고, '게네들'에서의 '게네'는 사전에는 있지만 잘 쓰이지 않는다. 사전만 놓고 보면 '걔네'와 '게네'가 다 맞는 표현이다. '게네'가 '게-네'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는 것을 보면 '게'를 '그 애'의 축약형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그 애'의 축약형으로 '걔'도 인정하고 '게'도 인정하고 있다.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계통의 혼혈인들이 급증했다. 한국 사회가 본격적인 다인종 시대에 직면한 것이다. 이처럼 단일민족 통념이 급속히 해체되고 있지만 혼혈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편견과 차별에는 교과서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고등학교 시민윤리 교과서에는 "우리나라

는 단일민족 국가이다."라고 되어 있고 국사 교과서에도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 국가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구절이 있다. 이에 따라 교과서에서 한민족의 정체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혼혈인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임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혼혈'이나 '코시안'이란 말부터 차별적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용어도 제시되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국제결혼 가정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온누리안'을 발표했다. 온 세상을 뜻하는 '온누리'에 영어로 사람을 뜻하는 'ian'을 붙인 말이다. 혼혈인 단체인 '국제가족한국총연합회'는 '국제가족'이란 표현을 제안하였다. 전문가들은 혼혈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맺음말

2006년에 국어, 언어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사안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방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자는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어문규범과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할 때 개인의 인격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었다. 특히 중국의 지명, 인명은 우리 한자음으로 적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관공서와 방송에서 외국어를 남용하는 데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았다. 영어마을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다투어 영어마을을 지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밖에도 국어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 제기와 논란이 있었다. 신어를 얼마나,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든지 전통적으로 단일민족이었

던 우리 사회에 이주여성이 들어와 가정을 꾸림으로써 다문화가정이 발생한 데 따른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등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남북의 규범어와 ≪겨레말큰사전≫

한 용 운
(겨레말사전편찬사업회)

1. 머리말

남과 북이 분단된 지 6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남북의 우리 겨레는 이념과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생활하였고, 교류마저 단절되었으므로 사유(思惟) 방식과 생활 방식 등 여러 분야에서 차이가 생겼다. 그리고 그 차이는 언어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남북의 어문 규범에 차이가 생겼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휘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1998년 11월에 북의 금강산이 남측에 개방이 되고,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에 두 차례의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남북 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교류를 통하여 우리는 북의 신문이나 방송 등을 제한적이나마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북의 문체나 어휘, 그리고 발음 등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이러한 남북의 규범어[1] 차이는 북측과의 교류가 차단되어 있었던 1980년대 초부터 남측 학자들에 의해 이미 보고되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기관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어문 규범의 통일을 위한 남북의 만남도 몇 차례 있었다.[2] 그렇지만 이러한 만남은 일시적인 만

1) 이 글에서의 '규범어'는 남측의 '표준어'와 북측의 '문화어'를 각각 일컫거나, 이 둘을 함께 일컬을 때 사용하기로 한다.

남이었으므로 남북 규범어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지는 못했다.

남북의 학자들이 남북 규범어 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이 시작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즉 2005년 11월 24일에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제4차 남북공동편찬위원회에서 남북단일어문규범작성위원들이 '단일 어문 규범 작성 요강'을 만들면서부터 비로소 남북 규범어 통일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05년 11월의 제4차 남북공동편찬위원회 회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이 글에서는 남북 규범어의 주요 차이점을 살피고, 그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현재 편찬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남북 규범어의 차이

분단 이후 남측의 규범어는 '서울말'을 중심으로 한 '표준어'이고, 북측의 규범어는 '평양말'을 중심으로 한 '문화어'이다. '표준어'와 '문화어'에 대한 정의를 남과 북의 사전에서 찾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표준어(標準語)**: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국어대사전≫(1999))

---

2) 1996년 8월 중국에서 남북의 어문 규범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남측의 국립국어원과 북측의 조선어사정위원회 구성원들이 만난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2) **문화어(文化語)**: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수도를 중심지로 하고 수도의 말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로동계급의 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게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언어. 사회주의민족어의 전형으로서 전체 인민이 규범으로 삼는 문화적인 언어이다. 우리의 문화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언어사상과 당의 옳바른 언어정책에 의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지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게 문화적으로 가꾸어진 조선민족어의 본보기이다.
(≪조선말대사전≫(1992))

현재 남측의 '표준어' 개념은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의 '표준말' 개념과 같다. 다만 ≪한글 맞춤법≫(1988)의 총칙에서 ≪한글 마춤법 통일안≫의 '표준말' 대신 '표준어'로 쓰고 있는 점과, '현재 중류 사회' 대신 '교양 있는'으로 표현이 일부 수정되었을 뿐, 그 본래의 개념은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북측에서는 ≪한글 마춤법 통일안≫의 '표준말' 대신 '문화어'로 용어를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개념도 상당히 수정하였다. 즉 규범어 설정 지역을 '서울'에서 '평양 중심 지역'으로 수정하였고, 규범어 설정의 기준이 되는 대상을 '현재 중류 사회'에서 '로동계급'으로 수정한 것이다. 게다가 '주체적인 언어 사상'이 규범어 정의에 포함되면서 언어의 자율성마저 제한되었다.[3)]

---

3) 문화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선어규범변천사≫(2005:102-114)에 기술된 '새로운 글말규범을 제정하는데서 견지한 원칙'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새로운 글말규범을 제정하는데서 견지한 원칙〉
가. 평양말(평양 문화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처럼 남측의 표준어와 북측의 문화어는 그 정의에서부터 차이가 생기게 되었는데,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규범어 설정 지역의 차이', '언어관 및 언어 정책의 차이', '표기 규범의 차이', 그리고 '자연 발생적인 차이'로 나누어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2.1. 규범어 설정 지역의 차이

남북 규범어의 근본적인 차이는 규범어 설정의 바탕이 되는 지역이 다르다는 점이다. 남측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규범어(표준어)와 표준 발음을 설정한 반면, 북측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규범어(문화어)와 표준 발음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가 언어 규범에 적용되면서 남북의 규범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서울말'이 규범어로 규정된 것은 조선총독부의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1912)부터이다.[4] 비록 일제의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나. 말과 글의 사회적 기능을 높이는 방향에서 언어 규범화 사업을 진행한다.

다. 민족어를 주체성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방향에 맞게 맞춤법을 비롯한 글말 규범을 제정하는 원칙을 지킨다.

라. 형태주의적 원칙을 지키도록 한다.

4)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우리 겨레에게 일본어 교육을 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편찬한 교재이다. 최근에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이 어떠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을 권영민 교수가 2004년에 동경대학 도서관에서 찾아내었다. ≪조선어 조사회의 의사록(朝鮮語調査會議事錄)≫(총 5회), ≪조선어 조사회의 연구사항(朝鮮語調査會議硏究事項)≫, ≪조선어조사회의(朝鮮語調査會議錄)에 관한 보고원안(報告原案)≫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조선어 조사회의(朝鮮語調査會議錄)에 관한 보고원안(報告原案)≫의 첫 번째 항에 '조선어는 모두 현대 경성어를 표준어로 하고 그 발음대로 표기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어 조사회의'는 1911년 7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것이지만, 국어 철자법을 처음으로 제정하였다는 점과 규범어로 '경성어'를 규정에 명문화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후 '경성어'를 중심으로 한 규범어 선정은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는데, 분단 이후 북측에서 규범어 설정 지역을 '평양 중심'으로 수정하면서 차이가 나게 된 것이다.

북측 규범에서 '평양말'이 규범어로 성문화된 것은 ≪조선말규범집≫(1966)에서부터이다. 그런데 '서울말'을 규범어로 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1954년 9월에 공포된 ≪조선어철자법≫에 이미 나타난다. 즉 ≪한글 마춤법 통일안≫의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고 하는 표준어 정의를 ≪조선어철자법≫에서는 "표준어는 조선 인민 사이에서 사용되는 공통성이 가장 많은 현대어 가운데서 이를 정한다."로 수정하여 공포한 점에서 그러하다. 이후 1966년 5월에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려 나갈 데 대하여(1966)'라는 김일성 주석의 다음과 같은 연설이 이어지면서 북측의 규범어는 '평양말'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3) 우리는 우리 혁명의 참모부가 있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방면에 걸치는 우리 혁명의 전반적전략과 전술이 세워지는 혁명의 수도이며 요람지인 평양을 중심지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전집 36권:503-504≫, ≪조선로동당언어정책사 :239≫에서 재인용.)

이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조선어 조사회의(朝鮮語調査會議錄)에 관한 보고원안(報告原案)≫을 작성하였다. 이 보고 원안은 1912년 4월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의 모태가 되었다.

이 연설을 뒷받침한 것이 1966년 6월에 제정된 ≪조선말규범집≫이라 할 수 있다. ≪조선말규범집≫(1966)에 따라 분단 이전에 남북에서 공히 '서울말'로 규정되어 있던 규범어의 설정 지역이 '서울'과 '평양'으로 나뉘게 되면서, 남북의 규범어는 실질적으로 둘로 나뉘게 되었다.

'규범어 설정 지역의 차이'로 남북의 규범어에 차이가 생긴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4) 거머리(남)/거마리(북), 거위(남)/게사니(북),
낙지(남)/오징어(북), -ㅂ니까(남)/-ㅂ네까(북: 입말체)

(4)처럼 '규범어 설정 지역'이 달라 남북에서 차이가 나는 어휘는 체제 통일 이전에는 그 차이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려면 '규범어 설정 지역'을 어느 한쪽이 양보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규범어 설정 지역'이 달라 남북에서 차이가 나는 규범어는 남북의 겨레가 서로의 어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복수 규범어를 설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후 복수 규범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일은 체제 통일 이후에 언중에게 맡기면 될 것이다.

2.2. 언어관 및 언어 정책의 차이

표준어와 문화어의 근본적인 차이로 들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 즉 '언어관'의 차이이다.[5]

---

5) 일반적으로 언어관은 '사고(思考)'와 '언어'의 관계를 바탕으로 '도구관', '일체관', '형성관'으로 나뉜다. 도구관은 '언어가 사고의 도구'라고 보는

남측에서는 언어를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에 쓰는 음성, 문자 따위의 수단(≪표준국어대사전≫)'으로 생각하며, 특별한 '언어관'을 강조하지 않는다.[6] 반면 북에서는 언어의 본질과 기능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조선문화어건설리론≫(2005:13))'로 본다. 이처럼 언어를 '혁명과 건설의 도구'로 보는 것은 유물론적 언어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물론적 언어관에 '주체의 언어 사상'과 '언어 이론'이 부가되면서 본질적으로 남측과 차이가 나게 되었다.

주체의 언어 사상이란 '민족어 안에 스며든 사대주의적 요소를 배격하여 민족어의 주체성을 살리고, 인민대중의 창조적 지혜를 발휘하여 민족어를 혁명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알맞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으로, '자주성'과 '창조성'의 개념을 언어 사상에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측에서는 '혁명과 건설'을 위한 인위적인 언어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5) "문화어란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주의적민족어의 전형, 평양말에 기초하여 우리 말의 우수한 언어요소로 이루어진 언어로서 전체 조선인민이 공통적으로 써야 할 규범적인 말이다. … 문화어가 사회주의민족어라는것은 문화어가 단순히 사회주의

견해이고, 일체관은 '사고가 곧 언어'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리고 형성관은 '언어가 곧 사고'라고 보는 견해이다. 언어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민수(1985/1997:98-99)를 참조하라.

6) 고영근(1999:127)에서는 남측의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남측의 언어관은 '공리적 언어관'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는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한 민족이나 국가가 같은 말을 쓰고 있다면, 그 구성원들은 언어에 의해 쉽게 뭉쳐질 수 있다. 더욱이 한 민족이 자기 고유의 언어를 가졌을 때에 그것은 자주성을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보람이 될 수도 있다."

> 제도가 수립되고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한 언어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부르죠아민족어단계에 이르는 착취계급사회에서의 언어는 해당 사회제도의 성격과 사회적관계에 따라 거의다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민족어류형들이다. … 착취계급사회에서의 언어발전에 대한 인민대중의 관심성은 상대적으로 완만하며 언어발전도 매우 굼뜨게 거의다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민족어발전은 착취계급사회에서의 언어발전과 본질상 뚜렷이 구별되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 우리 당과 국가는 광복후 첫날부터 민족어발전의 합법칙성, 언어가 혁명과 건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옳게 파악한데 기초하여 올바른 언어정책을 내놓고 그 실현에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함으로써 사회주의 민족어발전을 주동적으로 이룩해나갔다."
>
> (≪조선문화어건설리론≫(2005:38-41))

≪조선문화어건설리론≫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남측에서는 언어의 변이나 변화를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보면서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규제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자연 발생적'인 상태로 두되, 규범어나 표기법 등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규범으로 정해 최소한의 규제를 할 뿐이다. 따라서 분단 이전에 존재하던 어휘의 경우, 남측에서는 형태나 의미 면에서 급격하게 변화한 것이 거의 없다. 반면 북측에서는 주체의 언어 사상을 고취하거나 정치적 선전 선동을 위해 언어 변화에 적극적인 규제를 가했다. 그 결과 북측의 어휘 체계는 남측에 비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7]

---

7) 또한, 북측에서는 이념과 체제를 굳건히 하려는 의도로 '행정 지역명'을 인위적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김일성 주석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

언어관 및 언어 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된 낱말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6) 의미의 차이

가. 양반/량반

ㄱ) ① 고려 · 조선 시대에, 지배층을 이루던 신분. 원래 관료 체제를 이루는 동반과 서반을 일렀으나 점차 그 가족이나 후손까지 포괄하여 이르게 되었다. … 《표준국어대사전》

ㄴ) ① 고려와 리조 봉건사회에서, 신분적으로 제일 웃자리에 있으면서 지배계급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가장 반동적인 상류계층 또는 그 계층에 속한자. 대대로 내려가면서 문관과 무관이 될 자격을 가진다. … 《조선말대사전》

나. 동무

ㄱ) ①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
② 어떤 일을 짝이 되어 함께 하는 사람. … 《표준국어대사전》

ㄴ) 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대오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 …
② 같이 어울리여 사귀는 사람. … 《조선말대사전》

(6)의 예는 분단 이전에 우리 겨레가 같은 의미로 사용하던 어휘였는데, 분단 이후에 북측에서 인위적으로 사상과 이념적 의미를 더

하여 '김일성광장', '주체탑거리', '만수대언덕', '김정숙군', '선봉군', '충성동' 처럼 행정 지역 이름을 바꾸기도 하였고, '김책시', '학송리', '룡진리', '김제원리'처럼 사회주의 건설에 앞장섰던 사람의 이름을 행정 지역명으로 쓰기도 하였다.

하면서 그 의미에 차이가 생긴 것이다. 이 예들은 분단 이전에 우리 겨레가 같은 의미로 사용하던 어휘이므로 이념적인 의미를 제외하면, 남북의 겨레가 의사소통을 할 때 큰 어려움은 없다.

(7) 순화어의 차이

가. 투피스(남)/나뉜옷(북), 프리 킥(남)/벌차기(북),
주스(남)/과일단물(북)

나. 노안(남)/늙은눈(북),
가시거리(可視距離)(남)/눈보기거리(북)

다. 개고기(남)/단고기(북)

(7)의 예는 북측에서 어휘를 순화한 결과 남북의 차이가 생긴 낱말들이다. 북측에서는 두 차례의 김일성 연설[8]에 따라 '외래어', '기존의 어려운 한자어', '낡은 말과 비문화적인 말'을 적극적으로 순화하거나 폐기하였다. (7 가)가 외래어를 순화한 예이고, (7 나)는 한자어를 순화한 예이며, (7 다)는 '비문화적인 말'을 순화한 예이다.[9]

현재 남북에서 차이나는 어휘의 상당수는 순화어이다. 외래어의 경우 남측에서는 영어권의 외래어를 많이 받아들인 반면, 북측에서는 러시아를 통해 외래어를 많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남측에서는 외래어를 순화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이 많은 반면, 북측에서는 고유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순화했다는 차이가 있다. 한자어의 경우도 남측에서는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북측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라고 판단한 어휘를 고유어로 순화하였다는 차이가

8)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1964. 1. 3)와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려나갈데 대하여'(1966. 5. 14)라는 김일성 주석의 연설을 말한다.

9) '개고기'의 '개'는 고유어이기는 하지만 어감이 좋지 않은 비문화적인 말이라고 판단하여 순화한 것이다.

있다.

언어 순화는 언어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과 북에서 각각 순화하여 남북의 어휘 체계에 정착한 것은 그대로 쓸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순화할 어휘에 대해서는 남북이 함께 논의하여 하나로 통일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8) 새 말의 차이

가. 군중가요 : 인민대중이 널리 부를 수 있도록 건전한 사상적 내용을 간결한 형식에 담은 통속적인 노래.《조선말대사전》

나. 혁명전우[10] : 혁명의 한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함께 싸워나가는 전우.《조선말대사전》

다. 주민ˆ등록증 : 주민 등록법에 따라, 일정한 거주지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 《표준국어대사전》

라. 국립대학 : 나라에서 설립하여 직접 관리 운영하는 대학. …《표준국어대사전》

(8)처럼 분단 이후 남과 북에서는 새로운 낱말들이 많이 생겨났다. 특히 이념과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교류마저 단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이나 북의 어느 한쪽에서만 쓰이는 낱말들도 많아지게 되었다.

10) 특히 ≪조선말대사전≫의 경우 '혁명'이라는 어휘가 포함된 올림말(혁명적군중관점, 혁명적락관주의, 혁명적조직생활 등)이 170여 개 수록되어 있다.

2.3. 표기 규범에 따른 차이

1954년에 ≪조선어철자법≫이 북측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우리 겨레는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1940)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규범으로 언어생활을 해 왔다.[11] 이후 남측에서는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1958)을 거쳐, 현재는 1988년에 문교부에서 고시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따른 어휘를 '표준어'라 하여 규범어로 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1940)에 비해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12] 반면 북측에서는 ≪조선어철자법≫(1954)을 거쳐 ≪조선말규범집≫(1966)을 제정하고, 이를 다시 수정·보완한 ≪조선말규범집≫(1988)에 따른 어휘를 '문화어'라 하여 규범어로 정하고 있는데[13], 여러 면에서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1940)과 달라졌다.

현재 남측의 어문 규범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비해 북측의 어문 규

---

11) 김민수(1985/1997:76-79)은 1945년부터 1954년까지의 시기를 '통일안 시대'라 이르면서, 이 시기에는 남북이 공통적으로 ≪한글 마춤법 통일안≫(1940)에 따라 언어생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2) 이 외에도 한글학회에서 개정한 '≪한글 맞춤법≫(1980)'이 있다. 다만 ≪한글 맞춤법≫은 한글학회에서 편찬한 ≪우리말 큰사전≫(1992)에만 반영되고, 규범으로 실용화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다른 규범들과 차이가 있다.

13) 1948년에 북측에서 ≪조선어 신철자법(朝鮮語 新綴字法)≫을 제정하였지만, 이는 공식적인 규범으로 실용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북측의 ≪조선어규범변천사≫(2005)에서 규범변천사를 다루면서 ≪조선어 신철자법(朝鮮語 新綴字法)≫이 아닌, ≪조선어철자법≫(1954)을 시초로 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논의로 전수태(2004:13)에서는 "≪조선어 신철자법(朝鮮語 新綴字法)≫(1948)은 1949년에 간행된 ≪조선어학≫, ≪조선어문법≫에만 반영되었을 뿐, 국가의 공식적인 정서법으로 실용화되지는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범은 '조선말규범집', '외국말적기법', '로마자표기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북의 규범집에서 규범으로 제정된 항목은 거의 비슷한데, 다만 책의 구성에 일부 차이가 있다. 즉 남측에서는 '맞춤법'에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규정을 포함시켜 놓은 데 비해, 북측에서는 '조선말규범집'에 '맞춤법'과 별도로 '띄여쓰기', '문장부호법'을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측에서는 '표준어 규정'을 별도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북측에서는 문화어 규정을 따로 정하지 않고 ≪조선말규범집≫(1988)에 '문화어발음법'으로 대체되어 있는 점도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남측의 ≪한글 맞춤법≫(1988)과 ≪표준어 규정≫, 그리고 북측의 ≪조선말규범집≫(1988)에 따를 경우 '한글 자모 명칭'에서부터 '자모의 배열 순서', '외래어 표기', '띄어쓰기', '두음법칙', '사이시옷', '형태 표기' 등 여러 부분에서 남북의 차이가 나게 된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두음법칙', '사이시옷', '형태 표기', '띄어쓰기'에서의 차이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2.3.1. 두음법칙

분단되기 이전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에는 두음법칙을 반영하여 표기하도록 규정하였다. 남측에서는 이 규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북측에서는 ≪朝鮮語 新綴字法≫(1948) 이후부터 두음법칙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한자의 본음을 밝혀 적는 형태주의 표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남과 북에서는 낱말 첫머리에서의 한자음 'ㄹ'과 'ㄴ'의 표기에 차이가 나게 되었는데,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9) 양심(남)/량심(북), '여자(남)/녀자(북)', '낙원(남)/락원(북)', '노인(남)/로인(북)'

2.3.2. 사이시옷

사이시옷 표기도 남북의 표기 규범에서 드러나는 두드러진 차이 가운데 하나이다. 남측에서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이거나,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그리고 두 음절로 된 한자어 6개에 한해 사이시옷 표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북측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이시옷 표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직접구성성분이 같은 고유어 합성어이면서 둘 간에 의미 차이가 나는 낱말에 한해 사이시옷 표기를 인정하고 있다.[14] 남북의 사이시옷 표기에 차이가 나는 낱말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0) '깃발(남)/기발(북)', '바닷가(남)/바다가(북)',
'콧소리(남)/코소리(북)', '하룻밤(남)/하루밤(북)'

2.3.3. 형태 표기

형태 표기에서 차이 나는 것 가운데 두드러진 것으로는 어미와 접사의 표기를 들 수 있다. 특히 어미 '-아/-어'의 경우, 남측에서는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ㅗ' 이외의 모음인 경우에 '-어'로 적고 있으나, 북측에서는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ㅣ, ㅐ, ㅔ, ㅚ, ㅟ, ㅢ'인 경우에 '-여'로 적고 있다. 이 밖에도 어미의 된소리 표기, 접미사 '-이'의 표기 등에서 차이가 있다. 형태 표기에서 남북의 차이가 나는 낱말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1) ㄱ. 어미 '-아/-어'의 표기 차이 :
'개어(남)/개여(북)', **'되어(남)/되여(북)'**

14) 이와 관련된 내용이 ≪조선말규범집≫ '맞춤법' 제15항의 【붙임】 조항에 있다. 즉 '소리같은 말인 다음의 고유어들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적는다.'고 하면서 '샛별-새 별(새로운 별)', '빗바람(비가 오면서 부는 바람)-비바람(비와 바람)'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ㄴ. 어미의 된소리 표기 :
'-(으)ㄹ까(남)/-(으)ㄹ(북)', '-(으)ㄹ쏘냐(남)/-(으)ㄹ소냐(북)'
ㄷ. 접미사 '-이'의 표기 :
'싸라기(남)/싸래기(북)'

2.3.4. 띄어쓰기

띄어쓰기도 남북 규범에서의 두드러진 차이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명사 연결체, 의존명사, 보조용언 등의 띄어쓰기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2) 가. 명사 연결체 : 옥희 아주머니(남)/옥희아주머니(북),
농촌 경리 부문 일꾼들(남)/
농촌경리부문일군들(북)
나. 의존명사 : 할 수 있다(남)/할수 있다(북),
세 명(남)/세명(북)
다. 보조용언 : 먹고 있다(남)/먹고있다(북),
먹어 버렸다(남)/먹어버렸다(북)

남북 모두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에 차이가 있다. 즉, 남측에서는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보조 용언의 경우에만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 데 비해, 북측에서는 '단어 단위로 띄어 쓰되', '하나의 의미를 형성하는 단위'에 대해 붙여 쓰도록 하여 '명사 연결체의 후행명사', '의존명사', '보조용언'을 앞말과 붙여 쓴다는 점에서 남측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2.4. 자연 발생적인 차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남북 어휘 차이의 대부분은 우리 겨레가 교류 없이 60여 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비롯된 것이다.

(13) 가. 신사(紳士)

ㄱ. 남 : ① 사람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이 있으며 예의바른 남자.…

② 보통의 남자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ㄴ. 북 : ① 낡은 사회에서: '말쑥한 차림을 하고 점잖게 행동하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남자'를 이르는 말. …

② 전날에 '지식이 있거나 개명한 남자'를 점잖게 가리켜 이르는 말.≪조선말대사전≫

나. 소행

ㄱ. 남 : 이미 해 놓은 일이나 짓. ¶ 소행이 괘씸하다/어느 놈의 소행이냐./그는 자신이 저지른 소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범행 수법으로 보아 면식범의 소행이 틀림없다.≪표준국어대사전≫

ㄴ. 북 : 해놓았거나 하는 일이나 행동. ¶ 학생들속에서 발현되는 아름다운~/옳바른~/누구의~/생각할수록 금순이의 소행이 엉뚱하고 갸륵해보였다.《장편소설 '한자위단원의 운명'》.≪조선말대사전≫

(13)은 분단 이전에 남북이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지만 분단 이후에 그 의미가 달라진 낱말의 예이다. '신사'의 경우 남측에서는 긍정적

인 의미로 사용되는 데 비해, 북측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고 '소행'의 경우는 남측에서는 '소행이 괘씸하다/어느 놈의 소행이냐'처럼 부정적인 문맥에서 쓰이는 데 반해, 북측에서는 '아름다운 소행/옳바른 소행'처럼 긍정적인 문맥에서 사용된다. 이처럼 분단 이전에는 남북이 같은 의미로 사용했던 낱말의 의미가 정반대로 달라진 경우 의사소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14) 가. 신세대 :
① 새로운 세대. 흔히 20세 이하의 젊은 세대를 이른다. …
② 기성의 관습에 반발하여 새로운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개성이 뚜렷하며 자기 중심적 사고 및 주장이 강한 세대.≪표준국어대사전≫
나. 편의점 :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24시간 문을 여는 잡화점. 주로 일용 잡화, 식료품 따위를 취급한다.≪표준국어대사전≫
다. 밥공장 : 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식물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서 근로자들에게 공급하는 공장.≪조선말대사전≫

(14)의 예는 분단 이후 남북에서 각각 새로 생긴 낱말들이다. '신세대'와 '편의점'은 남측에서 새로 생긴 말이고, '밥공장'은 북측에서 새로 생긴 말이다. (13)과 (14)의 예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남북의 어휘에 차이가 생긴 낱말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어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가야 할 것이다.

3. 남북 규범어의 통합을 위한 ≪겨레말큰사전≫

남북의 규범어 차이는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고, 또한 그 차이가 체제와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단번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규범어 설정 지역'이나 '언어관 및 언어 정책', 그리고 '어문 규범'은 남북의 이념 및 체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체제가 통일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차이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남북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 규범어 차이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체제와 이념이 다른 상황에서 남북의 규범어를 통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남북 규범어에 대한 이해 없이 규범어가 통일될 경우, 남북의 언중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북의 어휘 차이를 당장 해소할 목적으로 남북 규범어 통일을 위한 남북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두 체제가 공존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안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설혹 이러한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양측 모두 체제와 이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제정된 규범은 순수 언어적인 현상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남북 규범어의 통일을 위해 상정해 볼 수 있는 단계로는 '규범어 비교 -규범어 통합- 규범어 통일'이 있다. '규범어 비교' 단계는 남북의 규범어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밝히는 단계이고, '규범어 통합' 단계는 비교 단계에서 드러난 차이점을 논의하고 합의하면서 규범어 통일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규범어 통일' 단계에서는 앞의 두 단계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의 규범어를 하나로 완성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1980년대 초 이후 남측에서는 북측의 문화어에 대한 연구나 남북 규범어 비교·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도 충분히 축적되었다.[15] 따라서 현재는 이러한 남북 규범어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규범어 통합'을 위한 노력이 이어질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규범어 통합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남북이 공동으로 남북의 어휘 전반을 아우르는 큰사전(unabridged dictionary)을 편찬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공동으로 큰사전을 편찬할 경우, 남북의 규범을 비교·검토하게 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규범 및 규범어의 통합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때맞춰 2005년 2월 19일에 남북의 사전 편찬 전문가들이 금강산에 모여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결성식을 가졌다. 같은 해에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남북공동편찬위원회'와 '단일어문규범작성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듬해인 2006년 3월에 '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출범하였다. 2005년 7월 제2차 남북공동편찬위원회 회의에서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공동편찬요강'을 작성하였는데, 이 가운데 '사전의 성격'과 '사전의 편찬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요강

가. 사전의 성격

15) 이주행(1996:365)에 의하면 분단 이후 남측에서 북측의 언어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81년부터이다. 이후 규범어 통일 방안에 대한 논의도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21세기 세종계획:2003)', '남북 통일말사전(관정 이종환 교육재단편(2006)', 두산동아.)', '남북한말 비교 사전(조재수(2007), 한겨레출판)'처럼 표준어와 문화어를 비교한 사전도 출간되고 있다.

① ≪겨레말큰사전≫은 우리 겨레가 오랜 기간에 걸쳐 창조하고 발전시켜 온 민족어 유산을 조사 발굴하여 총집대성한 사전이다.

② ≪겨레말큰사전≫은 사전 편찬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합의 해결한 통일지향적인 사전이다.

③ ≪겨레말큰사전≫은 수집한 어휘 자료 가운데서 남과 북이 공통으로 쓰는 것은 우선 올리고 차이 나는 것은 남과 북이 있는 힘껏 합의하여 단일화한 약 30만 개의 올림말을 가진 대사전이다.

④ ≪겨레말큰사전≫은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자사전을 동시에 발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언어 정보를 주는 현대사전이다.

나. 사전의 편찬 원칙

①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맞게 민족 공조의 원칙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

② 남과 북의 언어적 차이를 한꺼번에 다 없앨 수 없는 조건에서 단계를 설정해 놓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사전을 완성하되 이를 지속적으로 보충하도록 한다.

③ 남과 북의 언어적 차이를 줄이며 우리말의 민족적 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방향에서 사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부문별 작업 요강 3~5개를 만들어 사전 편찬 작업의 공통된 지침서로 삼는다. 작업 요강은 '원고 집필 요강', '언어 규범 단일화 요강', '어휘 조사 요강', '남북 국어사전 비교 요강', '사전 자료 정보화 요강' 등이다.

2005년 7월 10일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평양

'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사전 편찬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하기 위하여 '남북공동편찬위원회'를 1년에 4회 개최하고 있다. 2006년까지 8번의 남북공동편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를 통해 '올림말 선별 지침', '새 어휘 조사 지침' 등의 세부 작업 요강을 완성하였다. 2007년에는 1차 올림 선별 작업을 완료하고 '집필 지침'을 완성하여, 2008년부터는 선별된 올림말을 중심으로 집필을 할 예정이다.

한편, 남북의 어문 규범 단일화를 위하여 '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서는 '단일어문규범작성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남측에서는 남북공동편찬위원회와 별도로 2005년 11월 11일에 5명의 단일어문규범작성위원을 위촉한 반면, 북측에서는 '남북공동편찬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단일어문규범작성위원을 겸하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단일어문규범작성위원회 회의는 '남북공동편찬위원회' 회의와 함께 개최되고 있다.

남북 단일어문규범작성위원회는 2005년 11월 24일에 개성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2006년까지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남북의 어문규범 가운데 합의가 필요한 것(두음법칙/사이시옷/띄어쓰기/문법형태의 표기/외래어 표기법 등)을 유형별로 나누어 그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어문 규범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05년 11월의 첫 회의에서 남북이 합의한 '단일 어문 규범 작성 요강' 가운데 '단일 규범의 성격'과 '단일 규범의 작성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6) **《겨레말큰사전》 단일 어문 규범 작성 요강**

가. 단일 규범의 성격

ㄱ. 이 규범은 남북의 현행 어문 규범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는 통일 지향적인 단일 언어 규범이다.

ㄴ. 이 규범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단일 규범이지만 남북이 다 같이 널리 받아들여 쓸 것을 전제로 한다.

ㄷ. 이 규범은 단계적인 수정, 보충, 완성 과정을 거쳐 민족어통일 규범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잠정적인 규범 초안의 성격을 지닌다.

ㄹ. 이 규범은 남북에서 사용하는 현행 어문 규범에 대하여 어떠한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

나. 단일 규범의 작성 원칙

ㄱ. 남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북의 ≪조선말큰사전≫에 쓰인 어문 규범, 그리고 남북 각각의 어문 규범 전반을 조사하고 정리한 다음,

① 공통되는 것은 단일 규범에 그대로 반영하며

② 차이 나는 것은 토론과 합의를 거쳐 단일 규범을 작성한다.

ㄴ. 단일 규범 작성의 대상은 언어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류로 한다.

① 자모

② 어휘 표기: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③ 띄어쓰기 ④ 문장부호

⑤ 말다듬기 ⑥ 문법 용어

⑦ 발음(단, 사전에 발음 정보를 주기로 결정한 경우)

ㄷ. 단일 규범 작성의 유형은 다음의 2개 부류로 한다.

① 반드시 단일 규범으로 해야만 사전을 편찬할 수 있는 부류 예: 위의 ①~④ 및 사전부호

② 여유를 주거나 허용 한계를 두고 조절할 수 있는 부류 예: 위의 ⑤~⑦.

'단일 어문 규범 작성 요강'에 따라 2006년 남북 단일어문규범작성위원회에서는 '자모의 명칭, 자모의 배열 순서, 사이시옷,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 언어학 용어, 형태 표기, 두음법칙'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양측의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이 남북 규범어 통합에서 갖는 의의(意義)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7) **≪겨레말큰사전≫ 편찬의 의의**

가. 남북의 어휘 전반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개별 어휘에 대한 차이를 서로 확인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나. 남북의 어휘를 집대성할 수 있다.

다. 남북의 합의로 편찬될 것이므로 남북 겨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라. 남북의 어휘 차이를 해소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밑바탕이 될 수 있다.

마. 남북의 규범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장을 마련할 수 있다.

바. 편찬 과정에서 합의하여 작성하게 될 어문 규범은 통일 이후 남북 단일 어문 규범을 작성하는 데 밑바탕이 될 수 있다.

(17)에 제시된 것처럼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면 남북의 어문 규범 및 어휘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 방안을 자연스럽게 모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림말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올림말을 '여자'로 올릴 것인지, '녀자'로 올릴 것인지, '의식주(남)'와 '식의주(북)' 가운데 어느 것을 기본 올림말로 다룰 것인지, 이념이나 체제

와 관련된 남북의 새 어휘(주민등록증(남), 군중가요(북) 등)를 사전에 수록할 것인지, 그리고 의미에 차이가 있는 어휘의 뜻풀이를 어떻게 사전에 반영할 것인지 등을 남북이 하나하나 논의해서 합의하게 될 것이다. 남북의 규범어 통일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념과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규범 자체를 단번에 통일하려 하기보다는 사전 편찬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단계적인 과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4. 맺음말

분단 이후 남북에서 각각 제정한 어문 규범은 남북 체제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북측의 문화어는 '주체사상'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것이어서, 체제 통일 이전에는 남측의 표준어와 단번에 통일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남북의 규범어를 통일하기 위해 '규범어의 비교', '규범어의 통합', '규범어의 통일'이라는 세 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현재 상황은 '규범어의 통합'을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았다.

남북의 규범어를 통합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남북이 함께 큰사전을 편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남북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사전을 편찬할 경우, 체제와 이념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부담을 받지 않으면서, 양측의 규범어 전반에 대한 논의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남북의 어휘 차이도 남북이 공동으로 큰사전을 편찬하면 그 차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남북의 학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규범어 설정 지역'에

차이가 나는 어휘는 복수표준어 개념을 적용하여 남북의 어휘를 모두 사전에 수록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고, '언어관 및 언어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되어 의미에 차이가 있는 어휘는 이념적인 의미를 사전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표기 규범'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하되, 합의가 어려운 것은 양측 어휘를 모두 사전에 수록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사전편찬을 위한 모임에서는 가능한 일이라 생각되지만, 규범 자체를 통일하기 위한 모임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참여하고 있는 북측의 사전편찬가 정순기(2006)의 글을 옮기며, 이를 맺음말로 삼고자 한다.

(18) "북과 남의 규범문법에서의 차이는 조선어의 문법구조자체에서의 차이인 것이 아니라 문법적 현상에 대한 분석과 해석에서의 차이이며 따라서 그것은 북과 남의 언어이질화의 근거나 내용으로 될 수 없으며 동질적인 현상에 대한 제나름대로의 분석과 해석이 가져다준 견해상의 차이이다. …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서로 합심하고 단합하여 문법연구를 깊이하고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견해와 주장을 피력하고 합의점을 찾는다면 규범문법 서술에서의 차이는 능히 극복될 것이다."

〈참고 문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2005),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백서≫.

고영근(1999), ≪북한의 언어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권영민(2004), "일제 강점 1년 후 '조선어 정책' 결정한 총독부의 원문사료 발견", 문학사상 12월호, pp178-189.

김민수(1985/1997), ≪北韓의 國語硏究≫, 일조각.

사회과학출판사(2005), ≪조선문화어건설이론≫, 조선어학전서 2.

사회과학출판사(2005), ≪조선로동당언어정책사≫, 조선어학전서 3.

사회과학출판사(2005), ≪조선말사전편찬론연구≫, 조선어학전서16.

사회과학출판사(2005), ≪조선어규범변천사≫, 조선어학전서 46.

사회과학출판사(2005), ≪조선어규범리론≫, 조선어학전서 47.

이주행(1996), "남북 언어의 동질성 회복 방안", KBS 한국어문연구 논문 제44집, pp.365-387.

전수태(2004), ≪남북한 어문 규범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정순기(2006), "규범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북과 남의 차이에 대하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위원회 제5차 회의 자료집.

국립국어원 동향

이 승 재
(국립국어원)

1. 들어가는 말

2006년은 국립국어원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 2006년 1월 26일 제6대 남기심 원장이 퇴임하고 난 후 1월 27일 경북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이상규 원장이 제7대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국립국어원은 2004년 11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정책 기능을 이관 받아 2005년 한 해 시험 기간을 거친 상태였기 때문에 2006년에는 본격적인 정책 기관으로 발돋움해야 하는 시기였다. 새로 취임한 이상규 원장은 이러한 국립국어원의 상황을 인식하고 정책 기관의 위상에 걸맞도록 여러가지 변화를 꾀하기 시작하였다.

2. 조직 정비

2006년 2월 국립국어원은 조직의 기능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하여 조직 진단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 조직의 기능 진단과 기관 전체의 임무(미션), 미래상(비전) 등이 검토되었다. 또한 조직의 기능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조직 개편을 이루기 위하여 1차 혁신 전담팀(T/F)이 구성되었고 여기에서는 국립국어원의 전체 조직을 1과 3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능적으로는 1과 1본

부 6팀(국어정책팀, 국어정보화팀, 국어실태연구팀, 홍보출판팀, 국어진흥팀, 한국어보급팀)을 갖춘 본격적인 팀제 체제로 전환하는 안을 내놓게 되었다. 이 안은 정부 조직의 정비가 이루어져 국립국어원의 팀제가 공식 직제로 자리잡을 때까지 내부적으로 팀제를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1차 혁신 전담팀의 조직 개편안은 2006년 4월 5일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은 4월 6일부터 내부적으로 팀제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국립국어원이 팀제로 개편을 하게 된 것은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팀 중심의 사업군으로 사업을 집중화하고 조직의 전문성, 생산성, 유연성을 강화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와 성과 관리 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팀제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시 2차 혁신 전담팀이 구성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조직 개편에 따른 기능 중심의 예산 구조 개편, 성과 관리 체계 수립을 위한 성과 지표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성과 지표 개발 과정에서 국립국어원의 역할, 임무(미션), 미래상(비전)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2006년 상반기에 추진된 일련의 조직 정비 작업은 사업 추진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용역 사업과 국고 보조 사업을 위한 공모제가 정착되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평가와 중간 평가가 강화되었다.

3.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국어기본법'은 5년마다 한 번씩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는 조직 정비가 마무리된 6월 초부터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전담팀을 구성하여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작업은 국어정책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국립국어원의 임무(미션), 미래상(비전)을 중심으로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8월 26일 원내 토론회를 거친 후 전담팀 워크숍, 자문회의 등을 거쳐 초안이 마련되었고 9월 27일 국어심의회에서 1차 검토를 하게 되었다. 1차 검토안에서는 3개의 핵심 과제와 10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후에 세종학당 개설 사업으로 추진), 국어 전문 교육과정의 설립,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 웹사전의 편찬 사업이 핵심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1차 검토안은 이후 수정, 보완 작업을 마친 후 10월, 11월 국어심의회 검토를 거치게 되었고 2006년 12월 28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되었다.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은 2002년 문화관광부 국어정책과에서 '국어기본법'을 수립하기 위하여 만든 적이 있으나 법령에 의하여 최초로 계획 수립 작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4. 외부 기관과의 업무 협정 체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민간 회사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번지기 시작한 것이 기관 간 업무 협정(또는 양해 각서(MOU)) 체결이었다. 기관 간 업무 협정 체결은 두 기관 간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 중반 이후에는 공공 기관에서도 여러 기관과 많은 협정을 맺기 시작하였다.

국립국어원은 2002년 법무부, 2005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엔에이치엔(NHN)과 업무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2006년에도 지식 정보 확산을 위한 업무 협정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였다.

4.1. 국립국어원·국립민속박물관 업무 협력 협약

○ 체결식: 2006. 4. 18. (화) 11:00, 국립민속박물관 대회의실
○ 참석자: 국립국어원, 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 및 기자단
○ 주요 내용:
- 민속, 언어에 대한 사업 기획 시 공동 관심 사항 협의
- 민속, 언어에 대한 공동 조사
- 국립민속박물관 전시물 국어 표현 감수
- 실무협의회 구성 등

4.2. 국립국어원·교육방송(EBS) “언어문화 양극화 해소” 업무 협약

○ 체결식: 2006년 5월 11일(목) 오전 11:00, 한국교육방송공사 본관
○ 협약 내용:
- 여성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우리말 받아쓰기 대회 공동 개최
- 한국교육방송(EBS)이 제작한 국어 프로그램의 교육적인 활용 가치 증진
- 직원 연수 및 세미나 공동 개최 등

4.3. 국립국어원 교육인적자원부 업무 협정 체결

○ 체결식: 2006년 5월 18일(목) 오전 11시, 교육부 대회의실
○ 주요 내용
- 교과서의 표기·표현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전문 감수제 도입·

추진

- 교과서와 표준국어대사전 간 표기 방식의 차이(띄어쓰기, 사이시옷 등)를 단일화
- 교과서의 표기·표현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근간으로 하기로 함.
-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국립국어원과 교육인적자원부가 협조 체제를 구축함

5. 국어심의회 개최

'국어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어심의회는 2005년 '국어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어기본법'에 맞게 3개의 소분과로 개편을 단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3개의 소분과를 총괄할 전체 위원장도 정해지지 않았고 새롭게 개편한 국어심의회의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진행된 적이 없어 2006년 5월 국립국어원에서 국립국어원장과 3개 소분과 위원장, 그리고 실무인원이 모여 전체위원장 선출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 이 논의는 7월에 다시 이어져 국어심의회 전원이 모이는 전체 회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5.1. 국어심의회 전체 회의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심의회 개편 후 처음으로 국어심의회 전체 위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전체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가. 회의명: 국어심의회 전체 위원회
나. 일시: 2006년 9월 27일 수요일 16시~20시

다. 장소

1) 전체 회의: 국립국어원 중1층 세미나실

2) 분과 위원회 회의: 국립국어원 중1층 세미나실(국어 순화 분과), 국립국어원 2층 회의실(어문규범 분과), 국립국어원 7층 회의실(언어 정책 분과)

라. 회의 안건

- ㅇ 국어심의회 전체 위원장 선출
- ㅇ 국어심의회 향후 운영 방향 논의
- ㅇ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시안 검토
- ㅇ 3개 분과 위원회 회의 개최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 개편된 국어기본법에 맞추어 국어심의회 전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그동안 원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던 국어 발전 기본 계획에 대한 1차 검토가 있었다. 그 후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여 분과별 현안 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체 위원회의 인사말에서 이상규 국립국어원 원장은 그동안 최종 시안을 검토했던 국어심의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자문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어서 전체 위원장 선출이 있었는데 전체 위원장에는 대구 가톨릭대 총장을 지냈던 김수업 선생님이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언어 정책 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윤표 선생님이 선출되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수업 선생님은 국어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각 분과 대표단으로 구성된 분과 소위원회가 필요하며 분과별로 전문적인 사안의 검토를 위해서는 실무 소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국어심의회 전체 위원들은 분과별로 5명 이하로 분과 대표단을 두어 분과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검토를 마친 후 각 분과별로 모여 분과 대표단을 선출하고 분과별 의제에 토론을 벌였다.

5.2. 국어심의회 실무위원회 개최

국립국어원은 9월 27일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국어심의회 각 분과 위원회의 대표로 선출된 위원들이 참여한 소위원회 회의를 10월 27일 개최하였다.

가. 회의명: 국어심의회 실무위원회
나. 일시: 2006년 10월 27일 금요일 14시~16시
다. 장소: 국립국어원 내 2층 회의실
라. 회의 안건
- ㅇ 국어심의회 운영 방향 및 세칙 논의
- ㅇ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시안 검토
- ㅇ 성씨 '柳'의 한글 표기 검토
- ㅇ 로마자 표기법 검토(김복문 명예 교수 제출안)
- ㅇ 외래어 표기법 검토(나라 말글 바로 하기 모임 제출안)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국어심의회 운영 세칙의 보완,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시안 등을 논의하였다. 지난 전체 회의에서 국어심의회(및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체 내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바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의 소위원회 이름을 실무위원회로 바꾸어 운영하기로 하고,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하였다.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시안에 대한 2차 검토도 있었는데 목표와 목

적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단계별 추진 방향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 시안은 수정·보완하는 대로 다시 한번 더 실무위원회가 검토하고 국어심의회 위원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유 모 씨의 호적 정정 신청으로 사회 문제화된 성씨 '柳'의 한글 표기 문제와, 국어심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로마자 표기법 문제(김복문 명예 교수 제출안)', '외래어 표기법 문제(나라 말글 바로 하기 모임 제출안)' 등의 문건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들 문제에 관해서는 성격상 실무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5.3. 국어심의회 실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국립국어원은 국어심의회 실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가) 회의명: 국어심의회 제2차 실무위원회
나) 일시: 2006년 11월 21일 화요일 18시~20시 30분
다) 장소: 국립국어원 내 2층 회의실
라) 회의 안건
- ㅇ 국어심의회 운영 방향 및 세칙 논의
- ㅇ 국어심의회 운영 세칙의 보안
- ㅇ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시안 검토
- ㅇ '우금치/우금티' 표기 문제

이번 회의에서는 국어심의회 운영 세칙의 보완,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시안, '우금치/우금티' 표기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이번 회의에서는 국어심의회 실무위원회와 국립국어원이 협력하여 금년 내에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보완할 수 있는 '국어심의회 운영 세칙'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시안에 대해서는 일부 제목 수정과 세부 과제 분류 등을 일부 수정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우금치/우금티' 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원적으로는 '우금티'가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어원을 중시하여 현재 널리 쓰이는 어형을 버리고 고어화된 역사형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명 자체는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우금치'를 그대로 쓰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우금티기념사업회' 같은 기구의 이름은 고유 명칭이므로 국어심의회의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우금티'가 20세기 초반 일본 사람들에 의해 '우금치'라는 한자로 음차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5.4. 2006년 국어심의회 어문 규범 분과위원회 회의

가) 일시: 2006년 11월 28일(화) 17:00~19:00

나) 장소: 국립국어원 2층 회의실

다) 참석자

- 국립국어원: 이상규(원장), 김세중, 이승재, 조태린
- 국어심의회 위원: 정국, 박창원, 박헌순, 이화연, 성낙희, 오수경

라) 논의 내용

현행 어문 규범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하여 어문규범 분과 위원회 내에 2개의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연구위원회별로 필요한 인원을 정하고, 위원 후보를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추천받기로 하였는데 잠정적으로 2개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 ㅇ 맞춤법, 표준어, 한자음 연구위원회: 7명(위원장 1명, 맞춤법 2명, 표준어 2명, 한자음 2명)
- ㅇ 외래어, 로마자 표기법 연구위원회: 5명(위원장 1명, 외래어 2명, 로마자 2명)

이 2개의 연구위원회는 어문 규범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우금티/우금치' 표기 민원과 관련해서는 우금치'를 '우금티'로 변경할 국어학적 근거가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성씨 '류'의 표기와 관련해서는 어문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류'는 '유'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규정을 개정할지 여부는 연구위원회의 연구에 맡기기로 하였다.

민원으로 제기되었던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20분간 설명할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5.5. 2006년 국어심의회 어문 규범 분과위원회 회의

가) 일시: 2006년 12월 20일(수) 14:00~17:30
나) 장소: 국립국어원 내 7층 회의실
다) 참석자
- 국립국어원: 손희하, 김세중, 이승재, 박용찬
- 국어심의회 위원: 정국, 박창원, 이화연, 성낙희, 김규철, 이규철, 유재원, 모세종

라) 논의 내용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준비 작업을 해 왔던 그리스어, 터키어에 대한 외래어 표기법 시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켰고 지난 번 회의에서 결정하였던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관련 민원 제출자(3인)의 의견 청취를 하였다.

또한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고구려, 발해 등과 관련된 중국 지명에 관한 외래어 표기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향후 어문 규범 분과위원회의 연구 과제로 삼기로 하였다.

6. 언어 정책 토론회 및 혁신 회의 개최

국립국어원에서는 언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언어 정책 토론회와 초청 특강을 개최하고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원내 혁신 회의를 통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다.

6.1. 2006년도 언어 정책 토론회 개최

〈제1회〉

(1) 일시: 2006. 2. 21. 15:00~17:00

(2) 주제: 인터넷 통신 언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

(3) 발표자: 변정수(사이버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서울디지털 대학교 문예창작학부 교수)

〈초청 특강〉

(1) 일시: 2006. 3. 28. 15:00~17:00

(2) 주제: GIS(지도 정보 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활용한 언어 지도

(3) 발표자: 나카이 세이이치(中井精一, 일본 도야마[富山] 대학교 교수)

〈제2회〉

(1) 일시: 2006. 3. 30. 15:00~17:00

(2) 주제: 공통어 정책-표준어 정책의 새로운 모색

(3) 발표자: 김정대(경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3회〉

○ 일시: 2006년 4월 26일(수) 15:00 ~ 17:00

○ 주제: 한국어 심성어휘집의 구조와 표상 양식

○ 발표자: 남기춘(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제4회〉

○ 일시: 2006년 6월 1일(목) 15:00 ~ 17:00

○ 주제: 민속 문화의 종 다양성과 언어 정책

○ 발표자: 주강현(한국민속연구소장, 한국역사민속학회장)

〈제5회〉

○ 일시: 2006년 6월 28일(수요일) 15:00~17:00
○ 주제: 한류와 한국어 보급
○ 발표자: 유재기(전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제6회〉

○ 일시: 2006년 7월 20일(목요일) 15:00~17:00
○ 주제: 공공기관(정책기관)에서의 혁신의 필요성과 방향
○ 발표자: 김충환(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

〈제7회〉

○ 일시: 2006년 8월 22일(화요일) 15:00~17:00
○ 주제: 국립국어원에 바란다
○ 발표자: 조동일(계명대학교 석좌교수)

〈초청 특강〉

○ 일시: 2006년 9월 20일(수요일) 15:00~17:00
○ 주제: 황해도 방언의 특징에 대하여
○ 발표자: 황대화(중국 해양대학 한국어계 교수)

〈제8회〉

○ 일시: 2006년 9월 29일(금요일) 15:00~17:00
○ 주제: 알타이 언어 현지 조사의 의의와 방법
○ 발표자: 김주원(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제9회〉

○ 일시: 2006년 11월 10일(금요일) 15:00~17:00
○ 주제: 신세대 대중 문화의 이해
○ 발표자: 이승재(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초청 특강〉

○ 일시: 2006년 11월 22일(수요일) 14:00~16:00
○ 주제: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한국어, 한국 문화의 미래
○ 발표자: 배기찬(대통령 비서실 동북아시대위원회 비서관)

〈1차 혁신 회의〉

○ 일시: 2006년 6월 1일 (목) 오전 10:00~12:00
○ 주제: 국립국어원 사전 사업의 나아갈 방향
○ 발제: 김세중 국어정책팀장

〈2차 혁신 회의〉

○ 일시: 2006년 6월 27일(화요일) 10:00~12:00
○ 주제: 전문 용어 표준화 사업의 방향
○ 발제: 박용찬 학예연구관(국어정책팀)

〈3차 혁신 회의〉

○ 일시: 2006년 9월 28일(목요일) 11:00~12:00
○ 주제: 동북아 문화 공동체 건설 전략
○ 발제: 이준석 학예연구관(한국어보급팀)

〈4차 혁신 회의〉

○ 일시: 2006년 10월 31일(화요일) 14:00~16:00
○ 주제: 21세기 세종계획 후속 사업
○ 발제: 조남호 학예연구관(국어정보화팀장)

7.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개최

2006년에도 외국의 인명, 지명을 포함한 시사성 높은 외래어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68차

에서 72차까지 5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외국의 인명, 지명, 일반 지명으로 나누어 심의 작업을 벌였다. 세부 활동 사항은 아래와 같다.

68차 회의, 2006년 2월 22일 개최, 총 31건 심의
69차 회의, 2006년 5월 25일 개최, 총 39건 심의
70차 회의, 2006년 7월 25일 개최, 총 30건 심의
71차 회의, 2006년 9월 13일 개최, 총 26건 심의
72차 회의, 2006년 11월 1일 개최, 총 39건 심의
73차 회의, 2006년 12월 6일 개최, 총 31건 심의

8. 국어책임관 지원을 위한 국어능력향상정책 협의회 개최

국립국어원에서는 중앙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을 지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제1차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는 2006년 5월 9일 문화관광부 5층 제1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정부 각 부처와 공공 기관의 국어책임관에게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위원 위촉패를 수여하였는데 이 자리에는 문화관광부장관, 국립국어원장을 비롯하여 중앙부처 국어책임관 24명이 모여 효율적인 협의체 운용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는 국립국어원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한국방송(KBS) 노현정 아나운서의 강연도 있었다.

제2차 회의는 9월 1일 오전 11시 국립국어원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는 국립국어원장, 국어상담소장을 비롯하여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들이 참석하여 국어책임관 제도의 시행 경과를 보고하고 기본의 모범적 활동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국어책임관의 업무를 예시하면서 향후 국어책임관 활

동에 대한 평가 계획을 발표하였다.

두 번의 국어책임관 회의를 통하여 많은 의견이 교환되었고 국어책임관의 이러한 활동들은 국어책임관 전용 누리집(http:// www.korean.go.kr/klofficer)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8.1. 국어책임관 지정 현황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국어기본법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는 2005년 말부터 해당 기관에 국어책임관의 지정을 공식 요청하하여 90% 이상의 기관이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였다. 특히 지방 자치 단체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눈에 띈다.

〈중앙 행정 기관(부·처·청)〉(가나다순)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노동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15개)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기획예산처, 법제처(4개)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 해양경찰청(14개)

〈기타 중앙 행정 기관〉(가나다순)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대통령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동북아시대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비상기획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15개)

〈지방 자치 단체(광역)〉(가나다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15개)

8.2. 국어책임관 제도 운영 현황 및 계획

국립국어원은 국어책임관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2006년 상반기에 국어책임관의 역할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 국어책임관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안내서에는 구체적인 업무 예시와 함께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진행해 온 다양한 연구 및 교육 사업들과의 연계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2006년 하반기에는 국립국어원이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의 국어사용 실태를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을 통해 국어책임관 활동의 필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앞으로의 활동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 국립국어원은 이와 함께 국어책임관의 실제 활동을 점검하면서 국어책임관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 및 지침의 단계적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9. 국어상담소 지정, 운영

국립국어원에서는 2006년에 전국에 국어상담소 11곳을 지정하여 운영하였는데 세부적인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국어단체연합 국어상담소: 외국인 한국어 배움터 개설 등
(2) 동아대학교 국어상담센터: 한글 학교 개최 등

(3) 영남대학교 국어생활상담연구센터: 교원 양성 과정 개설 등
(4) 경북대학교 국어생활상담소: 한국어 교육 전문가 과정 개설 등
(5) 전남대학교 국어교육원: 우리말 겨루기 대회 개최 등
(6) 청주대학교 국어상담소: 국어 능력 인증 시험 특강 등
(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상담소: 이주민 한국어 교사 연수 등
(8)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센터: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등
(9) 충북대학교 국어생활연구소: 국제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등
(10) 상명대학교 국어상담소: 이주민 대상 우리말 겨루기 대회 등
(11) 한국방송(KBS) 국어상담소: 방송인 우리말 교육 등

10. 국어문화학교 운영

2006년에도 국어문화학교는 공무원, 방송인, 출판인 등을 대상으로 원내 국어반과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로 나누어 운영하였는데 원내 국어문화학교 국어반 강좌는 2006년 1월에 동계 교사 직무 연수를 2회, 7월~8월에 하계 교사 직무 연수 2회를 실시하였고, 3월부터 12월까지 공무원, 출판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가 18회 실시되어 1,921명이 수강하였다.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1월부터 12월까지 총 190회 강좌를 열어 총인원 12,926명이 수강하였고 2월에 찾아가는 국어 강사 공동 연수를 실시하여 10개 지역 국어강담소에서 21명의 상담원이 참가하였다.

11. 한국어 전문가 초청, 파견을 통한 국제 교류

국외 한국어 교육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사 및 전문가들을 국내로 초청하면서 국내의 한국어 전문가를 국외에 파

견하여 현지 한국어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11.1. 한국어 전문가 파견

ㅇ 태국: 빠따니 송클라대학교, 촌부리 부라파대학교
- 기간: 2006. 1. 19.~1. 25.
- 파견자: 정호성(국립국어원)
- 내용: 학술대회 참석 및 교재 현지화 작업 협의

ㅇ 아르헨티나: 바릴로체, 부에노스아이레스
- 기간: 2006. 2. 11.~2. 25.
- 파견자: 정호성(국립국어원), 박지영(서울대)
- 내용: 한국어 교사 연수

ㅇ 중국: 베이징
- 기간: 2006. 3. 17.~3. 19.
- 파견자: 이상규(국립국어원 원장), 김원희(국립국어원)
- 내용: 주중한국문화원 방문 및 한국어 강좌 현황 파악

ㅇ 독립국가연합(CIS):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카자흐스탄(알마티)
- 기간: 2006. 5. 19.~5. 26.
- 파견자: 정희원(국립국어원), 이병규(국립국어원), 허범무(문화관광부), 한광수(재외동포재단), 조선경(한국어세계화재단)
- 내용: 현지 한국어 교육 실태 부처 간 공동 조사

ㅇ 파라과이
- 기간: 2006. 7. 2.~7. 10.
- 파견자: 박용찬(국립국어원)
- 내용: 한국어 교사 연수

ㅇ 카자흐스탄: 알마티
- 기간: 2006. 7. 13.~7. 21.
- 파견자: 김희진(국립국어원), 이은경(동덕여대)
- 내용: 한국어 교사 연수

ㅇ 러시아: 사할린
- 기간: 2006. 7. 31.~8. 7.
- 파견자: 조태린(국립국어원), 한재영(한신대)
- 내용: 한국어 교사 연수

ㅇ 일본: 도쿄
- 기간: 2006. 8. 13.~8. 19.
- 파견자: 김세중(국립국어원), 김재욱(한국외대)
- 내용: 한국어 교사 연수

ㅇ 러시아: 하바롭스크
- 기간: 2006. 7. 31.~8. 7.
- 파견자: 전수태(국립국어원), 백두현(경북대)
- 내용: 한국어 교사 연수

ㅇ 중국: 청도(해양대), 선양, 창춘
- 기간: 2006. 12. 16.~12. 21.
- 파견자: 최용기(국립국어원), 김현준(국립국어원)
- 내용: 한중 국제 학술회의 참가 및 한국어 교육 현황 파악

11.2. 한국어 전문가 초청

국립국어원에서는 2006년에도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중국(북경 및 동북 삼성),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지), 그리고 러시아(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 사할린 등지) 지역에서 한국어 교사 등 한국어 관련 전문가 45

명을 초청하여 한국어 어문 규범, 한국어 교수 방법 등을 교육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교육'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 기간: 2006. 8. 21.~2006. 9. 1.
- 교육 내용 및 강사(총 30강좌(1강좌 90분))
○ 한국어 교육 관련
○ 한국어 어문 규범 관련
○ 기타: 국악의 이해, 한국의 역사와 유물
○ 한국어 교육 기관 탐방: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
○ 문화 유적지 답사
○ 영화 및 공연 관람
- 참가자: 45명(러시아 지역 24명, 중국 지역 21명)
- 교육 장소: 국립국어원 대강당/중1층 세미나실/2층 회의실

12.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와의 국제 교류

국립국어원에서는 일본 국립국어연구소를 방문하여 우리 국어원의 사업을 소개하고, 국제 심포지엄(주최: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에 참가하였다. 이는 2003년 10월, 국립국어원과 일본의 국립국어연구소가 맺은 '학술 교류 합의서'에 따른 후속 교류이다.

- 출장자: 정호성, 박민규, 김한샘
- 기간
  ① 정호성, 박민규: 2006. 3. 5.~3. 11.
  ② 김한샘: 2006. 3. 4.~3. 11.
- 장소: 일본 국립국어연구소, 동경 시사통신홀(국제 심포지엄)

- 내용: 국립국어원 사업 소개(한국어 교육, 남북 방언 조사),
국제 학술회의 발표(말뭉치 구축 관련)

일본의 국립국어연구소 방문 후 국립국어원에서는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의 일본어교육기반 정보센터 정비보급그룹장 노아먀 히로시 씨를 초청하여 일본 내의 이주민을 위한 일본어 교육 및 일본 문화 교육 현황과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받았다. 노야마 히로시 씨는 국립국어원을 방문하여 특강을 실시한 후 국립국어원과 사회언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발표를 하였다.

13. 외부 기관과의 업무 협정

13.1. (주)지어소프트와의 업무 협정 체결

국립국어원은 2006년 8월 8일 지상파 DMB 콘텐츠 제공업체인 (주)지어소프트를 대상으로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지상파 DMB 채널인 YTNDMB에 데이터 방송용 콘텐츠를 공급하는 (주)지어소프트 측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로써 지상파 DMB 시청자들이 다듬은 말/바른 말/고운 말/우리말 소식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국어에 대한 내용을 매주 1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각 콘텐츠는 약 800자 정도로 작성되며 DMB 방송 수신이 가능한 컴퓨터와 휴대용 DMB 단말기로 볼 수 있다.

13.2. 강서구청과의 업무 협정 체결

국립국어원에서는 국경일로 제정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한글날

을 기념하기 위하여 10월 9일 오후 4시에 국립국어원 1층 대강당에서 자체 축하 행사를 개최하고 신기남 국회의원, 김도현 강서구청장, 국립국어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서구청과 업무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 협정 체결을 통해서 향후 국립국어원과 강서구청 사이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교육 · 연구 ·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13.3. (주)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와의 업무 협정 체결

국립국어원은 지속적으로 수집하며 다듬고 있는 다량의 국어 정보를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네이트닷컴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10월 20일 11시, 네이트닷컴의 운영사인 (주)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의 사옥(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두 기관의 관계자가 만나 이에 대한 업무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정식에서는 상호 자료 제공, 이용 상황에 대한 공동 분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협정서를 교환하였다. 이번 협정으로 국립국어원은 국어에 대한 국민들의 인터넷 사이트 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더욱 다양한 포털 사이트로부터 제공받음으로써 국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더욱 폭넓고 빠르게 파악하게 되었다.

14.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및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 실시

최근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강화되고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표준화된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지닌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었

다. 이에 2005년 7월 27일 시행된 국어기본법에서 한국어 교사에 대한 자격을 명문화하였고,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는 2006년 첫 심사를 하게 되었다.

제1회 한국어교원자격심사에서 자격 심사 신청자 1,533명 가운데 747명(48.7%)이, 제2회 한국어교원자격심사에서는 자격 심사 신청자 218명 가운데 122명(55.96%)에게 교원 자격이 부여되었다. 심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였다.

국어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와 함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 실시되었다. 제1회 시험은 2006년 9월 24일에 치러졌는데 1,022명이 응시하여 342명이 합격하였다. 이 시험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한국어교원 자격 3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시험 응시 전에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해야 하게 되어 있다.

15. 국어 및 한국어 홍보 활동

15.1.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 사이트 운영

국립국어원은 함부로 쓰이는 외래어와 외국어를 걸러 내고, 우리말을 더 다듬어 가꾸기 위하여 2004년 7월 5일부터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15.2.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쉼표, 마침표.' 본격 서비스

국립국어원은 국민의 언어생활 수준 향상과 국립국어원 활동의 홍보를 위해 2005년 7월 온라인 소식지 '쉼표, 마침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소식지는 월간 '새국어소식'과 통합되어 다채로운 내용으로 좀 더 많은 독자들을 찾아가게 되었다.

15.3. 국립국어원 홍보 대사 위촉

국립국어원에서는 3월 28일 한국방송(KBS) 노현정 아나운서를 '국립국어원 홍보 대사'로 위촉하였다. 노현정 아나운서는 세대 간의 언어 차이를 다루는 프로그램인 '상상플러스'에서 우리말의 바른 쓰임을 알려 주는 우리말 선생님으로 인기를 모았던 아나운서이다. 홍보 대사로 위촉된 후, 노현정 아나운서는 우리말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고, 우리말 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홍보 대사 위촉을 계기로 우리말의 소중함과 문화적인 가치를 널리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쓰게 되었다.

15.4. 한글날 국경일 제정 기념 주화 발행

2006년은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71호)된 후 처음으로 한글날을 맞는 해이며, 동시에 훈민정음 반포 560돌이 되는 뜻 깊은 해였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한글날 국경일 제정을 기념하는 주화 발행을 한국은행에 건의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기념주화를 제조하게 되었

다. 한글날 기념주화는 국경일을 기념하는 주화로는 광복절에 이어 두 번째이다.

15.5.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방송

국립국어원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방송하였다.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어 교육은 다원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소해야 할 언어 문화의 양극화 문제로 인식되어 온 것으로 국립국어원과 EBS의 프로그램 방송은 이주 여성에게 한국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전해주었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목과 방송 시간은 아래와 같다.

○ 제목: 아시아 여성 한국어 프로젝트 '한국말 쉬워요'
○ 방송 시간: 9월 2일부터 매주 토요일 아침 6시~6시 20분.
○ 방송 횟수: 5회

9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방송되는 '한국말 쉬워요'는 국제 결혼으로 며느리와 아내가 된 이주 여성이 출연하여 한국말을 재미있게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음식, 시장, 생활, 교통, 호칭의 5가지 주제로 한국어를 공부하였다.

15.6. 국립국어원 출판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시행

국립국어원에서는 각종 연구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의 결과물과 이의 발간 및 출판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6년 7월 1일 "국립국어원 출판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로써

보고서 발간 및 출판 등에 관한 양식, 절차 등에 관한 표준 업무 지침이 마련되었다.

15.8. 해외 한국학 사서 국립국어원 방문

해외 한국학 관련 사서들이 2006년 11월 1일 오전 국립국어원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벌이고 있는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전문 사서들로, 북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지의 10개국에서 모두 19명이 참가하였다. 이 워크숍은 해외 한국학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고 도서관 정보 자원의 공동 활용 방안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하는 연례행사인데, 올해는 2006년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되었다. 해외 한국학 사서들은 이 워크숍의 일환으로 한국의 어문 정책 기관인 국립국어원을 방문한 것으로, 손희하 언어정책부장의 인사말, 이승재 국어정책팀장의 '한국의 국어 정책' 강의를 들은 후, 홍보출판팀의 안내로 국립국어원의 시설을 둘러보았다.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은 북미, 오세아니아, 유럽, 아시아 등 세계 10개국의 국립 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에서 한국학 관련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 19명이 참가하여 한국학 관련 주요 정보원에 대한 이해와 고문헌 자료의 보존을 위한 관리 실습, 한국학 관련 기관의 방문, 경주 지역 문화 유적 답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Ⅲ. 국어학 관계 문헌

1. 분야별 논저 목록

국어 정책

〈단행본〉

고제윤, 『새한글』, 새한글
고창운, 『한글 맞춤법 해설과 이해』, 경진문화사
관정이종환교육재단 편, 『남북 통일말사전』, 두산동아
국립국어원, 『(21세기 세종계획)21세기 세종계획 성과물 관리·보급 및 정제·보완 지원』, (연구 책임자: 성원경),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1세기 세종계획)국어 기초자료 구축』, (연구 책임자: 김흥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1세기 세종계획)국어 특수자료 구축』, (연구 책임자: 서상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1세기 세종계획)문자 코드 표준화 연구』, (연구 책임자: 정우봉),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1세기 세종계획)전문 용어의 정비』, (연구 책임자: 최기선),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1세기 세종계획)전자사전 개발』, (연구 책임자: 홍재성),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1세기 세종계획)한민족 언어 정보화』, (연구 책임자: 이태영),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1세기 세종계획)현대국어 기초 말뭉치 활용 시스템 개발 사용자 설명서』, (연구 책임자: 김흥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06년도 국어능력검정시험 결과 보고서』, (연구 책임자: 한국언어문화연구원),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강원 지역어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김봉국),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경기 지역어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최명옥),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경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김정대),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경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김무식),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공공기관 누리집의 언어 사용 실태』, (연구 책임자: 조태린),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국어능력 조사방법 연구 1』, (연구 책임자: 김성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 최종 보고서』, (연구 책임자: 조선경),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디지털 한글박물관 구축 사업』, (연구 책임자: 박창원),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말하기능력 측정도구 개발 1』, (연구 책임자: 장경희),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바른소리(일본어판)』, (연구 책임자: 최혜원),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방송 언어 경어법 개선을 위한 연구(SBS 공동)』, (연구 책임자: 정희창),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방송 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교수법과 교재 개발』, (연구 책임자: 정희창),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방송 언어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 책임

자: 한글문화연대),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새터민 언어실태 조사 연구』, (연구 책임자: 문금현),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신나는 점자놀이/점자놀이 학습 자료』, (연구 책임자: 박중휘),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신문 언어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 책임자: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언어 경관 조성 장기 계획 연구』, (연구 책임자: 김란기),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언어와 문화 교류를 위한 한국어 교육 네트워크』, (연구 책임자: 이준석),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언어정책 토론회 자료집[2006]』, (연구 책임자: 조태린),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연령별·계층별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연구 1』, (연구 책임자: 김덕호),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 최종 보고서』, (연구 책임자: 조선경),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외래어 및 외국어 인지도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양명희),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우리말 다듬기 자료집[2006]』, (연구 책임자: 박용찬),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李衡祥의『字學提綱』譯註』, (연구 책임자: 김언종),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이기갑),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전문 용어 정리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 책임자: 조동성),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전문 용어 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 책임자: 성원경),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전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소강춘),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점사랑』, (연구 책임자: 시각장애인연합회),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정부·언론 표준어 사정 심의회 논의 자료(2003~2006)』, (연구 책임자: 정희창),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제6회 KBS 한국어능력시험 결과 분석 연구』, (연구 책임자: KBS한국어팀),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강영봉),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 책임자: 조태린),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충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한영목),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박경래),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특수 부호 예제와 점역 원칙 연구』, (연구 책임자: 한국시각장애재활교육학회),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판각 복원 "용비어천가" 1권(1~5장)』, (연구 책임자: 김옥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결과 보고서(2003~2006)』, (연구 책임자: 김원희),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제1회) 문항출제 및 선제 최종 보고서(내부용 보고서)』, (연구 책임자: 김유정),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제1회) 실시 최종 보고서(내

부용 보고서)』, (연구 책임자: 김유정),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한글 3종 약자』, (연구 책임자: 한국점자연구회),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한글 이미지화 및 산업화 전략』, (연구 책임자: 신승일),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한류 상품의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드라마로 배우는 생생 한국어(영어판)』, (연구 책임자: 서강대학교),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한류 상품의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드라마로 배우는 생생 한국어(일본어판)』, (연구 책임자: 서강대학교),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한류 상품의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드라마로 배우는 생생 한국어(중국어판)』, (연구 책임자: 서강대학교),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지역어 조사 질문지』, 태학사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지역어 조사 질문지, 1』, 태학사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지역어 조사 질문지, 2』, 태학사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지역어 조사 질문지, 3』, 태학사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지역어 조사 질문지, 4』, 태학사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지역어 조사 질문지, 5』, 태학사
국립국어원 편, 『말하기 능력 측정도구 개발, 1』, 국립국어원
국어단체연합 국어상담소(김슬옹 외), 『나만 모르는 우리말: 365일 헷갈리는 365가지』, 모멘토
권재일,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김경원·김철호, 『국어 실력이 밥먹여준다: 글이 좋아지고 생각이 깊어지는 한국어 연습장, 1: 낱말편』, 유토피아
김광희, 『어문 규범과 언어생활』, 학문사
김규철 외, 『어문학 연구의 넓이와 깊이』, 역락
김수업, 『말꽃 타령: 김수업의 우리말 사랑 이야기』, 지식산업사
김유동, 『편집자도 헷갈리는 우리말』, 삶과꿈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진 외, 『우리말글쓰기 연관어대사전, 상: 자음편』, 황토출판사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진 외, 『우리말글쓰기 연관어대사전, 하: 모음편』, 황토출판사
김재창, 『(찾기쉬운) 바른말』, 대구출판사
김정우,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국어 어문규범 365가지』, 경남대학교 출판부
김진호, 『재미있는 한국어 이야기』, 박이정
김한배, 『우리말을 좀먹는 우리말 속의 일본말: 일본어 오·남용사전』, 동언미디어
김희숙·황경수·박종호, 『우리말글 조금만 알면 쉽다』, 청운
동아대학교 출판부 편, 『한글맞춤법: 글쓰기 부록』, 동아대학교 출판부
문화관광부, 『(개정)한국점자규정』,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한국어세계화재단,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 (연구 책임자: 조선경), 국립국어원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한국어세계화재단,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 (연구 책임자: 조선경), 국립국어원
박용찬, 『우리말 다듬기 자료집, 2006』, 국립국어원
시정곤, 『응용국어학의 탐구』, 月印
이종운 편, 『국어의 맞춤법 표기』, 세창미디어
이희자·이재성,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한국어』, 커뮤니케이션북스
중앙일보 어문연구소 우리말바루기팀, 『로서와 로써가 헷갈리니?』, 커뮤니케이션북스
중앙일보 어문연구소 우리말바루기팀, 『한국어가 있다, 4』, 커뮤니케이션북스

최남희·최중호·이근영·송창선·박동근·허원욱·허재영·권재일·윤혜영·이석규·이수련·정동환·방운규·김준희·김용경·이만식·최용기·서은아, 『우리말 연구의 이론과 실제』, 경진문화사
최재희, 『한국어 교육 문법론』, 태학사
태영M&B 편, 『한글 바르게 알고 쓰자, 1』, 태영M&B
태영M&B 편, 『한글 바르게 알고 쓰자, 2』, 태영M&B
KBS 한국어연구회, 『바른말 고운말, 2』, 한국방송출판

〈학위 논문〉

고정현, 〈한일 웹 게시판언어 비교연구〉,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성희, 〈세계의 자국어 교육과정 비교 연구: 한국,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연화,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의 국어교육 연계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은미, 〈정부 ODA사업을 통한 한국어 국외보급의 효과적인 방안 연구〉, 상명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지연, 〈신문에서의 띄어쓰기 실태 분석 고찰〉, 충남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지윤, 〈한국어의 러시아어 표기에 관한 연구: 지명을 중심으로〉, 단국대 대학원(석사)
김철순, 〈한글 맞춤법·표준어의 사용 방안 연구: 서울 지역 20대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충근, 〈북한 소학교 4학년 국어교과서 분석〉, 춘천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현숙, 〈표준 발음법의 비판적 검토〉,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상미,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말하기·듣기 교육 비교 연구〉, 경

희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은배, 〈남·북한 말다듬기 비교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백혜준, 〈한·일 외래어의 표기체계에 대한 음운론적 비교고찰: 영어 차용어를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석사)
손병출, 〈남북한 국어 교육과정과 국어과 교육의 내용 비교〉, 경남대 대학원(박사)
이은주, 〈남·북한 맞춤법 비교 연구: 통일방안 모색을 위하여〉, 공주대 대학원(석사)
장은영, 〈제7차 국어과 쓰기 영역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 연구: 중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은숙, 〈국어 영역의 통합 방안 연구: 고등학교 국어 지식 영역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지영, 〈국어 교과서의 통합적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홍진희, 〈고등학교 국어 국정교과서와 대안교과서의 비교 연구: 〈고등국어〉와 〈우리말우리글〉을 중심으로〉, 군산대 교육대학원(석사)
황재성, 〈외래어 표기법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강명순, "남북한 언어의 사·피동사 비교 연구", 어문연구 51, 어문연구학회
고영근, "통일언어철학의 탐색방향", 어문학 91, 한국어문학회
권재일, "남북한의 언어학 전문용어 표준화 방안 연구", 한글 274, 한글학회
김덕신,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 보급을 위한 조선어학회의 활

동”, 어문학 91, 한국어문학회
김상태, “국어의 띄어쓰기 오류 분석”, 인문과학논집 34,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김준희, “한국어 교사 양성 제도의 실태와 전망 -국어기본법 시행 이후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김차진, “교육인적자원부·국립국어원 간 업무협정의 경과와 과제: 어문 정책과 어문 교육 정책의 협력 방안 모색”, 교과서연구 48,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김호정, “근현대 민족어문교육 기초 연구(2) 전국학술대회: 국어 사용 실태 연구의 내용과 방법론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연구 17,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김홍석, “현행 정서법에 어긋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새국어교육 72, 한국국어교육학회
박동근, “남북한 맞춤법 통일 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겨레어문학 37, 겨레어문학회
朴錠奎, “국어 띄어쓰기 規定의 改善案 연구”, 어문연구 1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박종호, “어문규정 바로 알기”, 언어학 10, 중원언어학회
裵株彩, “표준발음법의 理想”, 어문연구 1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손범규, “남북한 월드컵 중계방송 언어 비교 연구 -2002년과 2006년 월드컵 중계방송을 중심으로-”, 화법연구 9, 한국화법학회
신지영, “표준 발음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심지연, “국어 순화어의 생성과 정착에 대하여”,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안미영, “이태준의 근대 소설에 반영된 식민지 어문정책과 민족어의 성격”, 국어국문학 142, 국어국문학회

양병선, “한글이름 로마자 표기에 관한 제언”, 현대문법연구 43, 현대문법학회
연규동, ““짜장면”을 위한 변명 -외래어 표기법을 다시 읽는다-”,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이관규, “국어 기본법 시대의 국어 정책 방향”, 한글 272, 한글학회
이광석, “정책학의 관점에서 본 국어 정책의 의미와 방향”, 한글 271, 한글학회
이동석, “『동아일보 스타일북』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민족문화연구 4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이동석, “신문 방송 언어의 실태와 언어 규범”,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이상태, “말소리의 정책과 교육”, 어문학 94, 한국어문학회
이승구, “교육인적자원부·국립국어원 간 업무협정의 경과와 과제: 교과서 표기·표현 감수제 도입에 부쳐”, 교과서연구 48,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승후, “문장 부호 사용 실태의 조사 분석”, 새국어교육 74, 한국국어교육학회
이주행, “남한과 북한의 언어 문화에 관한 고찰”,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육학회
장경희·권우진·김순자·김정선·김태경·이필영·전은진, “말하기 능력 평가에 관한 요구 조사 연구”, 한국언어문화 31, 한국언어문화학회
정경일, “지명과 도로명의 로마자표기에 관한 제언”,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최경봉, “표준어 정책과 교육의 현재적 의미”,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崔尙鎭·金鎭海, “北韓 ‘말다듬기 사업’의 漢字語 관련 對應語 연구”,

어문연구 1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최용기, “교육인적자원부·국립국어원 간 업무협정의 경과와 과제: 교과서의 국어 표기 감수 제도 도입과 대책”, 교과서연구 48,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최용기, “일제 강점기의 국어 정책”, 한국어문학연구 46, 한국어문학연구학회
최호철, “북한의 국어 의미 연구 60년”, 한글 273, 한글학회
홍미주, “일상 발음과 언어규범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사회언어학 14-1, 한국사회언어학회
황경수, “우리말글 어문규정 바로 알고 쓰기”, 인문과학논집 34,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기타〉

구법회, “공문서에 ‘육아데이’가 웬 말인가?”, 한글새소식 407, 한글학회
구법회, “우리말 바르게 가꾸기 -토박이말, 한자말, 외래어 부려쓰기에 대하여-”, 한글새소식 409, 한글학회
김석향, “소외 계층의 언어 실태와 언어 정책: 새터민(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 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 방안”, 새국어생활 16-1, 국립국어원
김세중, “한글날 국경일 되다”, 쉼표, 마침표. 6, 국립국어원
김승곤, “‘지무리다’는 일본말 ‘이지메’에 해당한다”, 한글새소식 411, 한글학회
김승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바로 알자”, 한글새소식 405, 한글학회
김승곤, “호칭어를 바로 씁시다 (1)”, 한글새소식 402, 한글학회

김승곤, “호칭어를 바로 씁시다 (2)”, 한글새소식 403, 한글학회
김승국, “소외 계층의 언어 실태와 언어 정책: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사소통 장애와 해결 방안”, 새국어생활 16-1, 국립국어원
김영환, “미국말 숭배, 이대로 둘 수는 없다”, 한글새소식 405, 한글학회
김정도, “누구를 위한 영어 마을인가?”, 한글새소식 405, 한글학회
김정섭, “한말글 문화를 가꾸는 길 (1)”, 한글새소식 402, 한글학회
김정섭, “한말글 문화를 가꾸는 길 (2)”, 한글새소식 404, 한글학회
김청구, “‘이음꼴 씨끝’에 기생하는 ‘언어 바이러스’”, 한글새소식 410, 한글학회
김청구, “듣기 거북한 ‘풀이말의 이음꼴+요’”, 한글새소식 407, 한글학회
김하수 외, “소외 계층의 언어 실태와 언어 정책: 좌담: 소외 계층 언어 실태와 그에 대한 바람직한 언어 정책”, 새국어생활 16-1, 국립국어원
박용찬, “물은 셀프(self)?”, 교육마당21 288, 교육인적자원부
박용찬, “순 일본어에서 유래한 일본어 투 용어는 우리말로 다듬어 써야”, 쉼표, 마침표. 5, 국립국어원
박용찬, “쓰레빠, 난닝구… 일본어 투 개선해야”, 교육마당21 291, 교육인적자원부
박용찬, “어울모임과 교례회(交禮會)”, 교육마당21 287, 교육인적자원부
박용찬, “월드컵 응원 구호 이젠 ‘아자! 아자!’”, 교육마당21 290, 교육인적자원부
박용찬, “일본식 외래어”, 쉼표, 마침표. 6, 국립국어원
박현우, “‘왠지’와 ‘웬지’”, 교육마당21 297, 교육인적자원부
박현우, “노랫말의 어법 파괴”, 교육마당21 298, 교육인적자원부

박현우, “배다와 배이다”, 교육마당21 295, 교육인적자원부
박현우, “수재민들의 잠자리[잠자리/잠짜리] 걱정”, 교육마당21 296, 교육인적자원부
박홍길, “홍수 되어 흐르는 혼탁한 말들”, 한글새소식 407, 한글학회
왕한석, “소외 계층의 언어 실태와 언어 정책: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언어 문제와 해결 방안”, 새국어생활 16-1, 국립국어원
유동삼, “‘눅이다’와 ‘눅다’”, 한글새소식 404, 한글학회
윤인진, “소외 계층의 언어 실태와 언어 정책: 사회 통합을 위한 언어 정책”, 새국어생활 16-1, 국립국어원
이규봉, “‘동무’를 찾고 싶다”, 한글새소식 405, 한글학회
이대성, “‘누리꾼’을 통해 본 우리말 다듬기”, 쉼표, 마침표. 11, 국립국어원
이대성, “‘드레싱’ 대신 ‘맛깔장’은 어때요?”, 쉼표, 마침표. 8, 국립국어원
이대성, “‘말터’에서 다듬은 예쁜 말들(1)”, 쉼표, 마침표. 12, 국립국어원
이대성, “‘말터’에서 다듬은 예쁜 말들(2)”, 쉼표, 마침표. 13, 국립국어원
이대성, “‘말터’에서 다듬은 예쁜 말들(3)”, 쉼표, 마침표. 14, 국립국어원
이대성, “‘핫팬츠’와 ‘한뼘바지’의 차이”, 쉼표, 마침표. 15, 국립국어원
이대성, ““Music Start!”보다는 “부~탁해요”가 어떠세요?”, 쉼표, 마침표. 9, 국립국어원
이대성, “가요가 우리말을 망치고 있다!”, 쉼표, 마침표. 10, 국립국어원
이대성, “건설 분야에서 쓰이는 일본어 찌꺼기들”, 쉼표, 마침표. 7,

국립국어원
이병규, “한국어 교원 자격시험과 검정시험 제도: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제도와 그 운영 방안”, 새국어생활 16-2, 국립국어원
이병운, “국경일로 다시 태어난 한글날: 한글과 정보화”, 새국어생활 16-3, 국립국어원
이상규, “민족 언어 통합을 위한 언어 정책의 전망”, 한글새소식 405, 한글학회
이상규, “지역어를 살려야 겨레말이 산다”, 쉼표, 마침표. 5, 국립국어원
장재성, “문장 수칙(안) (1)”, 한글새소식 403, 한글학회
장재성, “문장 수칙(안) (2)”, 한글새소식 404, 한글학회
조선경, “소외 계층의 언어 실태와 언어 정책: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 문제와 대응 방안”, 새국어생활 16-1, 국립국어원
최용기, “‘세종로’를 ‘세종길’답게 가꾸자”, 한글새소식 407, 한글학회
최용기, “며칠과 몇일”, 교육마당21 294, 교육인적자원부
최용기, “숟가락과 젓가락”, 교육마당21 293, 교육인적자원부
최정순, “한국어 교원 자격시험과 검정시험 제도: 한국어 교원 양성 제도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16-2, 국립국어원
허종진, “그리스도교 들온말을 비롯한 들온말의 바른 적기”, 나라사랑 111, 외솔회

국어 교육

〈단행본〉

강준만, 『대학생 글쓰기 특강: 글쓰기의 모든것: 글에 대한 욕망과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 인물과사상사
김대행, 『문학교육 틀짜기』, 역락
김대행 외, 『하이퍼텍스트의 언어문화 이해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상욱, 『국어교육의 재개념화와 문학교육』, 역락
김수업, 『배달말 가르치기: 고치고 더한 국어교육의 길』, 나라말
김승환, 『독서교육과 독서활동』, 강남대학교출판부
김윤옥,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어휘획득 전략: 학습전략 교육과정, 지식획득』, 교육과학사
김인환, 『문학교육론』, 한국학술정보
김재봉·선주원, 『초등 교사를 위한 글쓰기와 화법』, 형설출판사
김정우, 『시 해석 교육론』, 태학사
김주환, 『현장국어교육의 길잡이: 국어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말
남민우, 『문학 교육의 역사와 성장의 시학』, 역락
남민우, 『시 교육의 해체와 재구성: 여성시, 사이버시 그리고 텍스트 가치평가 활동 교육』, 역락
대구신암초등학교, 『과정중심 쓰기 전략 적용을 통한 글쓰기 능력 신장』, 대구신암초등학교
독서지도연구모임, 『창의적인 독서지도 77가지』, 해오름

돈암어문학회 편, 『국어 교육과 '국어' 교과서』, 푸른사상사
박대용, 『초등학생을 위한 독서지도방법』, 태일사
박덕유, 『학교문법론의 이해』, 역락
박태호·김기철·홍정표, 『신나는 놀이 재미있는 읽기 수업 5』, 정인출판사
박태호·김동환·경이호, 『신나는 놀이 재미있는 읽기 수업 4』, 정인출판사
박태호·류지춘·김종길·한예지, 『신나는 놀이 재미있는 읽기 수업 2』, 정인출판사
박태호·박대응·홍정표, 『신나는 놀이 재미있는 읽기 수업 6』, 정인출판사
박태호·박미옥·김종길, 『신나는 놀이 재미있는 읽기 수업 1』, 정인출판사
박태호·채은영·홍종선·경이호, 『신나는 놀이 재미있는 읽기 수업 3』, 정인출판사
방인태, 『자주적 한국어 교육론: 문화 생산의 원리와 방법』, 역락
선주원, 『어린이 문학교육의 방법』, 박이정
송현정, 『문법 교육의 이해와 실제』, 한국문화사
신헌재·진선희, 『학습자 중심 시 교육론』, 박이정
아침독서추진본부, 『대한민국 희망 1교시 아침독서: 중고등』, 청어람미디어
아침독서추진본부, 『대한민국 희망 1교시 아침독서: 초등』, 청어람미디어
우한용 외, 『인터넷 시대의 글쓰기와 표현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부
윤여탁 외, 『국어교육 100년사, 1』, 서울대학교출판부
윤여탁 외, 『국어교육 100년사, 2』, 서울대학교출판부
이노국, 『어린이 글쓰기지도와 독서지도법』, 골드닷컴

이대균, 『유아문학교육』, 공동체
이영식, 『독서치료 어떻게 할 것인가』, 학지사
이충우, 『국어 문법의 교육과 연구』, 역락
임영규·김양희·김동준·이민옥·예경순·노인석, 『독서는 힘이 세다: 독서교육법』, 다산북스
정영주, 『신문활용교육과 논술』, 태일사
정희모, 『글쓰기 교육과 협력학습』, 삼인
조일제, 『창의성 개발을 위한 활동중심 독서지도법』, 한국문화사
주세형, 『문법교육론과 국어학적 지식의 지평확장』, 역락
천경록·박진남·백해경·진명숙·양서영,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독서 전략 지도』, 교육과학사
최규수, 『대학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의 실제』, 보고사
최지현, 『문학교육과정론』, 역락
한국어문교육연구소·국어과교수학습연구소, 『독서 교육 사전』, 교학사
허병두, 『푸른 영혼을 위한 책읽기 교육』, 청어람미디어
허재영, 『국어과 교과서와 교재 지도 연구』, 한국문화사
허재영, 『국어과 교육의 이해와 탐색』, 박이정

〈학위 논문〉

강귀정, 〈훈민정음 단원의 교육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석사)
강대훈, 〈교육 과정 내용이 교과서 대단원에 반영된 정도에 관한 연구: 중학교를 중심으로〉,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강덕현,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국어과 단원 학습 연구: 고등학교 국어(상)을 중심으로〉, 강원대 교육대학원(석사)

강수희, 〈방송자료를 활용한 토론학습 방안연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강인선, 〈동시확장활동 프로그램 적용이 어휘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 교육대학원(석사)
강준상, 〈초등학교 발음 교육 내용 연구〉, 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강현주, 〈신문을 활용한 읽기-쓰기 지도 방안 연구: 브룸의 인지 발달 단계 이론을 적용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경대 교육대학원(석사)
강현화, 〈창의력 신장을 위한 글쓰기 평가방법 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석사)
강호준, 〈중·고등학생의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방안 연구〉, 상명대 교육대학원(석사)
고광옥, 〈사이시옷 교육방법론〉, 세종대 교육대학원(석사)
고유숙,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국어지식영역의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고종숙, 〈읽기 학습부진아를 위한 독서지도 프로그램 연구〉, 전주교대 교육대학원(석사)
고혜원, 〈중등학생 어휘 지도 방안 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석사)
공윤정,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의 '탐구' 활동 개선 방안〉,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권성란, 〈매체 언어의 국어과 수용 방향 고찰: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권영임, 〈추론적 읽기 전략 동영상 자료 활용 수업이 추론적 읽기 능력 및 읽기 태도에 미치는 효과〉, 경남대 교육대학원(석사)
기명숙, 〈구두작문과 자유쓰기가 설명적 텍스트 쓰기 능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광주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경은, 〈국어 지식 영역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

경기대 교육대학원(석사)
김경하, 〈7차 중학교 『국어』의 어휘 연구〉, 울산대 교육대학원(석사)
김경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독서치료 방안 연구: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김광필, 〈초등학교 국어과 수행평가의 실태와 효과에 대한 교사의 지각에 관한 연구〉, 세명대 교육대학원(석사)
김국태, 〈읽기 수업의 교수적 비계설정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박사)
김길자, 〈국어 교육 수행평가 방법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남희, 〈오독분석법을 활용한 읽기 부진아 진단에 관한 연구〉, 광주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대조, 〈초등학교 학생의 고쳐쓰기 능력 증진을 위한 전체적 접근 전략지도의 효과〉, 대구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덕남, 〈중등교원을 위한 국어과 임용고사 문항분석〉,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동희, 〈국어과 자기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의 '되돌아보기'를 중심으로〉, 경인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령, 〈말놀이 활동을 통한 어휘 지도 방안: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명숙, 〈국어교과서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 구조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미경, 〈받아쓰기의 확산적 적용을 통한 저학년 아동의 쓰기 능력 신장〉, 부경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미란, 〈높임법 지도 방안 연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공주대 대학원(석사)
김미림,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화법교육 연구〉, 선문대 대

학원(석사)

김미성, 〈논증 도식 지도가 논설문 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김미숙, 〈이야기 구조 학습이 초등학교 아동의 독해력과 읽기태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미정, 〈창의적 사고기법을 활용한 국어학습활동이 아동의 창의적 사고력 및 성향에 미치는 효과〉, 부경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미향, 〈의미 지도 그리기 활동이 이야기 글 독해에 미치는 효과 연구〉, 대구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미희, 〈청자 분석이 화자의 말하기 내용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민영, 〈우리말 신체어의 의미 확장을 통한 어휘 지도 방안 연구〉, 전북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민중, 〈논설문의 논증 능력 증진을 위한 근거 제시 전략 지도 연구〉, 대구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민호, 〈불규칙 활용에 대한 고찰과 지도방안〉, 전북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상희, 〈국어 중복 표현의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새롬, 〈중등 국어교육에서 블렌디드 러닝 전략을 활용한 커뮤니티 기반 탐구학습 모형의 효과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석사)

김선겸, 〈초등학교 국어과에서의 정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연구〉, 전주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선미, 〈'낱말 형성법' 지도방안 연구: 8학년을 중심으로〉, 인제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선영,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쓰기를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선영, 〈학교 문법에서의 높임법 교육 연구: 제7차 '문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안동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선옥, 〈초등학교 독서교육의 실태 분석 연구-인천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성은, 〈담화 구조 학습이 읽기에 미치는 영향: 설명적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석사)
김성재, 〈국어교육에 있어 창의성 계발에 관한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성환, 〈중학교 국어과 읽기 평가 개선 방안 연구: 중학교 1학년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홍익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성희, 〈세계의 자국어 교육과정 비교 연구: 한국,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소영, 〈제7차 중학교 교과서의 〈듣기・말하기〉 영역 분석〉, 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수경, 〈텍스트 의미 구조 표지 연구: 초등학교 교과서와 초등학생 작문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석사)
김수주, 〈'다매체 시대의 언어활동' 지도 방안: 10학년을 중심으로〉, 인제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수희, 〈사고조직자 활용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신장 방안 연구: 중학생의 논설문 읽기 활동을 중심으로〉, 홍익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순애, 〈소집단별 주제 중심 독서활동에 관한 연구〉, 광주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시진, 〈상황 맥락을 활용한 어휘력 신장 효과의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신혜,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 방법 구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연화,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의 국어교육 연계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연희㉡,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글에 대한 학생 흥미도 분석: 현행 제7차 중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영만, 〈매체를 활용한 읽기·쓰기 교육 방안 연구: 신문 사설·칼럼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박사)

김영옥, 〈독서 능력 신장을 위한 독서 지도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진주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영이, 〈교육방송 VOD 및 ICT를 활용한 자기표현능력 신장 방안: 중학교 말하기, 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영인, 〈설화를 활용한 말하기·듣기 교육 방법 탐색〉, 신라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옥순, 〈학습일지에 나타난 초등학생의 읽기 학습 양상 연구〉, 경인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옥희, 〈초등학생의 은어와 비속어에 대한 지도방안 연구: 편지글을 중심으로〉, 신라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원관, 〈신문을 활용한 쓰기 능력 신장 방안 연구: 중학교 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군산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은성, 〈국어 문법 교육의 태도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 대학원(박사)

김은주, 〈중학교 듣기·말하기 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자영, 〈매체 교육의 수용 현황과 문제점: 중학교 국어과 교과서의 〈활동〉 학습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정란, 〈국어과 대화교육 내용 구성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교

육대학원(석사)
김정은, 〈사고 구술을 활용한 읽기 지도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정현, 〈쓰기 교육의 활성화 방안: 읽기와 매체의 통합 지도를 바탕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종윤, 〈국어과 교사의 평가 문식성에 대한 연구: 읽기 영역 평가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석사)
김지선,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의 실행 연구: 중학교 국어과 교과서의 '자기점검'과 '보충·심화'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지영, 〈문학을 활용한 논술 지도 방법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지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 1학년 2학기 〈〈능동적으로 읽기〉〉 단원의 학습 과제 분석〉,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진경, 〈논술 능력신장을 위한 지도 방안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진주, 〈읽기 평가 문항 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창국, 〈제7차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적용 관련 교사 인식 검증〉, 경북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창욱, 〈'국어'와 '생활 국어' 교과서의 통합 지도 방안 연구: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경성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충근, 〈북한 소학교 4학년 국어교과서 분석〉, 춘천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태연, 〈초인지 전략과 동기 전략을 이용한 읽기 교수·학습 방안 연구〉, 전북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태옥, 〈초등 국어과에서 정의적 영역 요소의 변천에 따른 지도 방

향〉, 서울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해영, 〈소집단 토론을 통한 논술문 쓰기 지도 방안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현미, 〈국어과 교과서 그래픽 자료 유형 및 내용에 대한 연구〉, 경인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현주, 〈국어 청자대우법의 교수-학습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형복,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부산대 대학원(박사)
김혜경, 〈국어 교육에서의 매체 텍스트 활용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혜미, 〈중학교 글쓰기 수행평가 사례 연구: 교사 태도와 논술문 쓰기 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경상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혜정㉡, 〈말하기·듣기 수업대화에 나타난 피드백 양상 분석〉, 광주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혜정㉢, 〈국어 표현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연극 활용 방법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효숙㉠, 〈읽기와 연계한 독서 감상문 쓰기 지도 방안 연구-통합적 관점의 작문 이론 적용을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효숙㉡, 〈학교 독서의 현황과 효율적인 독서 지도 방안: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희선, 〈탐구학습과 협동학습의 혼합모형에 의한 맞춤법 지도 방안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희자, 〈정신지체 특수학교 국어과 교과교육 운영 실태〉, 대구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희정, 〈드라마 매체를 활용한 쓰기 교육 방안 연구: 감상문 쓰기를 중심으로〉, 홍익대 교육대학원(석사)
나근화, 〈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 방안〉, 광주교대 교육

대학원(석사)
나미경, 〈언어사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극 활동에 관한 반성적 실천연구〉, 경남대 교육대학원(석사)
남경란, 〈반성적 쓰기를 통한 쓰기 능력 향상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남경미, 〈초인지 전략을 활용한 독서프로그램이 독해력과 수학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 교육대학원(석사)
남민우, 〈텍스트 가치평가 활동을 위한 시교육 연구〉, 서울대 대학원(박사)
남연숙, 〈통신매체를 활용한 청각장애학생의 국어능력 신장 방안 연구〉, 강원대 교육대학원(석사)
남은아, 〈영화 자료를 활용한 교과수업 방안: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교과를 중심으로〉, 전주교대 교육대학원(석사)
남은주, 〈다매체를 활용한 읽기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석사)
남의경, 〈국어 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의 수용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남효진, 〈활동학습의 지도 방안 연구: 교육연극 방법을 중심으로〉, 부산교대 교육대학원(석사)
류미영, 〈쓰기에서 자기 조정을 위한 주제 활용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류보라, 〈중학교 국어 교과서 읽기 제재의 교육적 적합성 연구: 제7차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목경균, 〈남한·북한·중국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비교 연구〉, 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문경은, 〈육하원칙 요소를 활용한 추론적 읽기 지도 방안 연구〉, 경

인교대 교육대학원(석사)
문명환, 〈독서 교과서 분석을 통한 독서 과목 평가의 개선 방안 연구〉, 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문미란, 〈독서클럽 활동이 읽기 동기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문영숙, 〈교실수업을 위한 초등학교 국어과 듣기평가 방법 연구〉, 춘천교대 교육대학원(석사)
문진숙, 〈성서를 통한 국어교육의 방안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문혜영, 〈도시형 대안학교의 국어과 통합교육과정 사례 연구: 서울,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신라대 교육대학원(석사)
민지현, 〈고등학교 '국어 생활' 교과서 비교 분석: 검인정 4종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석사)
박경애, 〈중국 조선족의 『조선어문』연구: 초급중학교를 중심으로〉,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박경옥, 〈국어지식 교육의 대안 모색을 위한 고찰: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박고분, 〈용언활용표를 이용한 용언활용 지도 방법 연구: 초등학교 4학년 과정을 중심으로〉, 경인교대 교육대학원(석사)
박광숙, 〈텔레비전 뉴스 텍스트의 국어 교육적 접근〉, 전주교대 교육대학원(석사)
박광용, 〈국어과 현시적 교수-학습 모형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박기원, 〈광고언어를 활용한 이해력 신장교육에 대한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석사)
박명우, 〈제7차 작문 교과서의 '작문의 실제' 단원 구성 방안 연구〉, 경남대 교육대학원(석사)

박미영, 〈국어 지식 영역에서 국어사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국어의 변화를 고려한 훈민정음 교수·학습 원리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석사)
박미자, 〈초등학생의 맞춤법 오류실태분석과 지도방안〉, 세명대 교육대학원(석사)
박병삼, 〈미적 체험 활동을 통한 창의적 글쓰기 지도 방안〉, 전주교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상미,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말하기·듣기 교육 비교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선영, 〈국어교육에서의 미디어교육에 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성미, 〈국어 불규칙 활용의 종합적 논의: 학교문법의 관점에서〉, 경남대 대학원(석사)
박숙현, 〈그림 읽기를 통한 시각적 문해력(Visual Literacy) 지도 방안 연구〉, 서울교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유미, 〈학습부진아의 문자해득 지도법 연구: 도서 벽지 복식 학급 아동을 중심으로〉, 광주교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유민, 〈교과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독서 지도 연구〉, 서울교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은경, 〈제7차 중·고등학교 국어 지식 교육의 연계성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인환, 〈초등학생의 통신언어 실태 분석 및 지도 방안 연구: 울산 지역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울산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재현, 〈설득 담화의 내용 조직 교육 연구〉, 서울대 대학원(박사)
박정미, 〈학급 웹사이트의 게시판 기능을 활용한 국어과 학습 효과 분석〉, 강원대 정보과학대학원(석사)
박정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의 상관성 연구 및 타당도 분석: 2005학년도 언어 영역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정진, 〈국어 수업의 질문활동 양상 연구〉, 고려대 대학원(박사)
박종숙, 〈도·농 지역 독서 실태 비교 연구: 전주와 부안 지역을 대상으로〉, 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주득, 〈과정 중심의 쓰기 지도 프로그램 구안 및 반응 양상에 관한 연구〉, 대구교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주화,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어휘 분석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주희, 〈'영화 읽기'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지언, 〈중학생의 띄어쓰기 사용 실태 연구: 3학년 학생의 글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박진용, 〈텍스트 의미 구조의 읽기 교수·학습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박사)
박진우, 〈배경지식 활성화를 통한 읽기 지도 방안 연구: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철현, 〈도해조직자를 활용한 지도가 실업계 고등학생의 읽기능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 교육대학원(석사)
박현표, 〈학교 독서 실태 조사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박혜련, 〈토론 연극(Forum Theatre)을 통한 토론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교대 교육대학원(석사)
박혜례나, 〈국어과 수행평가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박혜숙, 〈사이버공간에서의 저학년 어휘력 신장을 위한 글쓰기 지도〉, 백석대 정보기술대학원(석사)
방지민, 〈중등과정 『생활국어』교과의 교육 연극 활용방안 연구〉, 중

앙대 교육대학원(석사)

배설아, 〈사이시옷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배정희, 〈'개인 상황맥락'을 반영한 쓰기 교수·학습 방법 연구〉, 춘천교대 교육대학원(석사)

배해남, 〈고등학생의 독서 경향에 대한 실태 분석 및 실질적 독서 지도 방안〉, 서남대 교육대학원(석사)

백미령,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의 계통 기술에 대하여〉, 순천대 교육대학원(석사)

백정운, 〈내용 생성을 위한 동료 협의가 쓰기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변경애, 〈중심내용찾기 지도방법 연구〉, 경북대 교육대학원(석사)

변지현, 〈중등학교 국어지식 교육의 연계성 연구: '공통과정'과 '선택과정'의 연계를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부종철, 〈국어 교과서를 활용한 논술교육 연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서기문, 〈독서요법을 활용한 독서지도 방법과 효과에 관한 연구〉, 전주교대 교육대학원(석사)

서명애, 〈찬반 대립 토론법을 활용한 초등학생의 논술문 쓰기 능력 신장 방안〉, 가톨릭대 교육대학원(석사)

서명옥㉡, 〈국어교육을 통한 통일교육 방안 연구: 고등학교 국어교과를 중심으로〉, 단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서순복, 〈문법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7차 국어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및 문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서심미,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중학생 국어능력 신장 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 대학원(석사)

서영은, 〈국어 관용어 지도 방법 연구: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현대소

설에 나타난 국어 관용어를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서영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쓰기 교육 방안 연구〉, 한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서영희,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부경대 교육대학원(석사)
서윤대, 〈협동학습이 논설문 쓰기 능력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서윤정, 〈총체적 언어 접근법과 발음중심 교수법을 병행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배재대 대학원(석사)
서일오, 〈국어과 말하기 영역의 태도 교육 개선 방안〉, 홍익대 교육대학원(석사)
서정연, 〈쓰기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신념 및 유치원에서의 쓰기 지도 실태〉, 경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서정원, 〈구조중심 협동학습이 국어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홍익대 교육대학원(석사)
서정임, 〈인터넷 카페를 활용한 작문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석사)
성시정, 〈어휘력 신장을 위한 사전 찾기 사례 연구: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성옥정, 〈교과서의 속담 분석과 그 지도 방안〉, 경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성용근, 〈효율적인 고등학교 어휘 지도 방안 연구-읽기 자료와 어휘 지도 관점의 비교를 통하여〉,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성찬호, 〈고등학교 국어교과 읽기수업의 독해력향상 TAI협동학습 모형 개발과 효과성 검증: 학업성취도와 학습동기를 중심으로〉, 부산대 교육대학원(석사)
성필숙, 〈고등학교 국어생활 교과서 분석: 단원 구성 양상을 중심으

로〉, 경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소성룡, 〈매체 언어 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 상명대 교육대학원(석사)
손경미, 〈비문법적인 문장 분석을 통한 올바른 문장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 부산교대 교육대학원(석사)
손병출, 〈남북한 국어 교육과정과 국어과 교육의 내용 비교〉, 경남대 대학원(박사)
손영선, 〈논술지도의 방안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관동대 교육대학원(석사)
손영은, 〈스키마 활성화를 통한 독서지도 방안 연구: 황순원의 「소나기」를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손은영, 〈읽기·쓰기의 통합지도를 통한 읽기능력 신장 방안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석사)
송강숙, 〈설명문 쓰기 과정 양상 연구: 초등학교 3, 5학년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송무아, 〈논술 텍스트의 구조 분석 및 단락 형성 방안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송미아, 〈소그룹과 가정에서의 독서지도를 통한 독서습관의 형성 방안 연구〉, 제주대 대학원(석사)
송미영, 〈중세국어 대우법의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석사)
송의련, 〈쓰기 전 과정 전략 지도가 쓰기 능력 수준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대 교육대학원(석사)
송태영, 〈창의성 신장을 위한 논술 교육 방법론 연구〉, 세종대 교육대학원(석사)
송희원,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나타난 국어지식영역 연구: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신미경, 〈7차 〈문법〉 교과서와 〈국어생활〉 교과서의 비교연구: 표준어와 맞춤법 교육을 중심으로〉, 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신미영, 〈인터넷 작문과 펜 작문의 사례 연구: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신상팔, 〈탐구활동을 통한 어휘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신선미, 〈효과적인 국어 관용어 지도방안 연구: 8학년 심화 학습을 중심으로〉, 인제대 교육대학원(석사)
신연순, 〈중학교 국어 교과서 '읽기 전에' 활동의 적절성 연구: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신연희,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개선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신정민,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한 통합 교과형 논술 지도법 연구: 함축과 숨은 전제, 재정의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교육대학원(석사)
신종숙, 〈독서신문 제작 과정과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신현순, 〈인성함양을 위한 독서지도 방안 연구: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신현주, 〈중학교 '국어 지식' 영역 분석: 제7차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창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심은숙, 〈전남 지역 도농통합시 초등학생들의 쓰기 실태와 개선 방안〉, 순천대 교육대학원(석사)
심현미, 〈강원지역 고등학생들의 고유어 인지 실태 및 교육 방안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안선옥, 〈중학생 구어 표현 양상과 지도 방안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석사)

안연진, 〈국어과 매체 교육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석사)

안연희, 〈국어 관용어 지도 방안 연구: 고등학교 국어를 중심으로〉, 국민대 교육대학원(석사)

안영희, 〈설득적 텍스트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한 읽기·쓰기 연계 지도 방안〉, 상명대 교육대학원(석사)

안희숙, 〈비언어적 표현활동이 말하기 태도에 미치는 효과〉, 제주교대 교육대학원(석사)

양경화, 〈독서교육을 위한 웹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양소영, 〈국어과 내적 통합에 관한 메타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양승만, 〈문화 생산을 위한 독해 지도 방법 연구〉, 서울교대 교육대학원(석사)

염혜정, 〈작문 수행평가의 실태와 개선방안: 수도권지역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염혜진,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말하기 능력 신장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오명희, 〈인지적 도제 활성화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중학생의 글쓰기 능력 신장 방법 연구〉, 경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오미선, 〈제 7차 교육과정상 국어지식 내용 구성 연구: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오정석, 〈독서 노트를 활용한 효율적인 독서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오정훈, 〈연결성과 통일성 지도를 통한 논술 쓰기 능력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 경상대 교육대학원(석사)

오찬세, 〈과학고등학생 논술문의 수준별 양상 분석 연구〉, 한국교원

대 교육대학원(석사)
오화영, 〈과정 중심 글쓰기에서 자기 조정 전략과 상호 평가 전략의 효과 비교〉, 순천대 교육대학원(석사)
우영실, 〈동화 읽기 지도가 학습부진 아동의 읽기 및 쓰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청주교대 교육대학원(석사)
우화영, 〈수행평가에서의 상호평가지 활용 방안〉,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원경미, 〈요리활동을 통한 유아의 언어 양상에 관한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원선희, 〈독서지도를 통한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 신장 연구: 초등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원지희, 〈후일담 쓰기를 통한 읽기 능력 향상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유기라, 〈중학교 어휘 지도 방안 연구: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유승애, 〈아동의 문단 형성 능력 발달 연구〉, 경인교대 교육대학원(석사)
유정희,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읽기 교과서 구성 방안〉,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유환수, 〈중학교 독서지도의 심화 방안 연구〉, 순천대 교육대학원(석사)
유희숙, 〈정신지체 학생의 어휘 지도 방안 연구: 제 7차 정신지체 학교 고등부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부경대 교육대학원(석사)
윤경자, 〈비판적 읽기의 지도 방안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윤기숙, 〈중학교 국어 교과서 '읽기 전에'에 관한 연구: 7차 교육 과정에 따른 1학년 국어 교과서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부경대 교육대학원(석사)

윤다운, 〈바꿔말하기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윤미옥, 〈전래동화를 활용한 국어과 사고력 신장 방안: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소재 전래동화를 중심으로〉, 인천대 교육대학원(석사)

윤선숙, 〈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방법 연구〉, 경인교대 교육대학원(석사)

윤인구, 〈글 없는 그림책 읽기 활동을 통한 이야기 구성력 신장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윤혜정, 〈웹 기반 쓰기 훈련이 학습부진아의 쓰기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 특수교육대학원(석사)

이강명, 〈WBI(Web Based Instruction)를 활용한 중학교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향상 방안 연구: '사이버모듬일기'(www.modumilgi.com) 학습 모형을 적용한 글쓰기를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이강현, 〈단계적 글쓰기 학습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문장 표현력 신장 방안〉, 가톨릭대 교육대학원(석사)

이경명, 〈국어과 쓰기영역 교과서 분석과 개발 방향 모색: 10학년, 작문 교과서를 중심으로〉, 신라대 교육대학원(석사)

이경미, 〈중등 국어교과의 매체교육 실태와 수용 방안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석사)

이경미, 〈초등학생의 독서 성향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독서 지도의 방향〉, 대구교대 교육대학원(석사)

이경아,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대중가요의 국어교육 활용 방안 연구: 고등학교 국어·음악 교과서 수록곡을 중심으로〉,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이경은, 〈자기평가 활동이 초등학생의 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이규순, 〈과정 중심 논술 지도 방안: 텍스트 논술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이금주, 〈사고구술을 활용한 초등학생의 독해 양상 분석〉, 광주교대 교육대학원(석사)

이기연, 〈어휘 교육 내용 설계를 위한 낯선 어휘의 의미 처리 양상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이기종,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교육방법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석사)

이기호, 〈교육연극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한 초등학생의 말하기 능력 신장〉, 진주교대 교육대학원(석사)

이남희, 〈'글쓰기 실제' 지도 방안 연구: 대화주의 작문이론을 중심으로〉, 인제대 교육대학원(석사)

이동숙, 〈통합학습 방법을 적용한 논술 지도 방안 연구〉, 강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이명숙, 〈토의학습을 통한 비판적 읽기 지도 연구: 초등학교 4학년 읽기를 중심으로〉, 덕성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이미란, 〈구조분석을 통한 설명적 텍스트의 이해과정에 대한 연구〉, 부경대 교육대학원(석사)

이미현, 〈인터넷 신문을 활용한 논술 지도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이미혜, 〈이야기 구성하기가 쓰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이민영㉠, 〈토의를 통한 독서교육 방안 연구: 7학년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이민영㉡, 〈효과적인 읽기 학습을 위한 텍스트의 도식조직화 방안: 중학교 〈국어〉 교과서 설명문을 중심으로〉, 계명대 교육대학원(석

사)

이민주, 〈중·고등학교 국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게임 유형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이병준, 〈중학교 협동 작문 지도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상헌, 〈세계통합이 국어 교과내용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 대학원(석사)

이상화, 〈국어 교육을 위한 문장 완성형 게임 개발〉, 계명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성건, 〈고등학생 논술문 실태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수연, 〈중학교 생활국어 교과서의 '국어지식' 영역 연구: 제7차 교육과정의 학년별 단원 구성을 중심으로〉, 세명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수진, 〈통합적 문법 교육을 위한 교과서 구성 방안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숙영, 〈국어 지식 영역의 검토 및 지도 방안: 초등학교 중학년을 중심으로〉, 서울교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승영, 〈논술텍스트 쓰기 지도 내용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승철,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의 개선 방안〉,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연희, 〈'구조화' 중심의 읽기 교육 방법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영란, 〈국어 교육의 발전 방향과 「국어 생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영의, 〈대안학교의 국어교육 실태 연구〉, 서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영주㉠, 〈웹기반 독서 교육을 통한 긍정적인 독서 태도 형성 방안: 과정 중심 독서 교육을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영주㉡, 〈유의어 지도 방법 연구: 중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우식, 〈읽기 지도의 효율화를 위한 수준별 수업 방안 연구〉, 대구교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유신, 〈강남과 강북 학생들의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사용실태 비교 연구: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윤경, 〈통신 언어의 특징과 실천적 교육 방안〉, 경성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윤정, 〈e-러닝 기반 초등 독서 교육 연구: 4~6학년을 중심으로〉, 제주교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은영, 〈국어 교과서 재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이은주, 〈라디오극 제작을 활용한 총체적 국어교육 방안 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임순, 〈매체 문식성의 개념과 그 교육적 필요성에 관한 조사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재임, 〈전략적 읽기 지도를 통한 독해 능력의 향상 방안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정숙㉡, 〈'국어지식' 영역의 연계성 분석: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창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정희, 〈중학교『생활국어』교과서 '국어 지식' 영역의 단원 배열 연구〉, 공주대 대학원(석사)

이종걸, 〈국어 교과서 분석·평가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 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명지대 교육대학원(석

사)

이주영, 〈제7차 교육과정 구현으로서 중학교 교과서 작품 선정의 적절성 고찰〉, 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주철, 〈논쟁토론학습을 적용한 주장하는 글쓰기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지선, 〈국어 규범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 학습자의 국어 오용 예방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석사)

이지연, 〈문법 교과서의 비판적 검토: 제7차 문법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신라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지혜, 〈인터넷 담화의 구비문학적 특성과 통합적 국어교육으로서의 가능성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춘화, 〈인터넷을 활용한 국어교육 방안 연구〉, 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이태연,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의 연결성 연구: 「생활국어」 교과서 듣기・말하기 영역을 중심으로〉, 계명대 교육대학원(석사)

이항준, 〈국어과 온라인 콘텐츠 유형설정방안 연구〉, 신라대 교육대학원(석사)

이해진, 〈학교문법에서의 보어의 범위 연구〉, 서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이향연, 〈문맥을 이용한 국어 어휘 지도 방안 연구〉, 창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이현숙, 〈토론 교육을 통한 중학생들의 언어 사용 능력 향상 방안〉, 부경대 교육대학원(석사)

이현정, 〈국어과 수준별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7차 중학교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이현주, 〈국어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중학교 독서지도에 관한 연

구〉, 여수대 교육대학원(석사)
이형숙,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 지도에서 ICT 활용 교육의 효과〉, 청주교대 교육대학원(석사)
이혜경, 〈중학교 듣기 교육의 실태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석사)
이혜원, 〈제7차 중학교 교과서의 〈국어지식〉 영역 분석〉, 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이화수, 〈중학교 국어과 학습일지 쓰기에 관한 현장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이화중, 〈과제 해결 중심의 쓰기 지도 방법 연구〉, 인천대 교육대학원(석사)
이희녕, 〈Meta-plan을 활용한 토의·토론 학습 모형 연구〉, 부산교대 교육대학원(석사)
임성호, 〈쓰기 능력 신장을 위한 읽기·쓰기 통합 지도 방안〉,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임영숙,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방안 연구〉, 안동대 교육대학원(석사)
임용달, 〈논술 교육의 쓰기 영역 지도에 관한 연구: 소집단 활동과 연계한 논술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경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임정선, 〈학교문법에서 담화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임채희,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국어부진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태도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임화영,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교과서의 특성 및 개선 방안 연구: 고등학교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전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임효례, 〈한·중 국어 교과서 비교 연구〉, 경상대 대학원(박사)
장경순,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독서 토론 지도 방안〉, 한국교

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장기배, 〈과정중심 전략 지도가 독해 능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 교육대학원(석사)

장기순, 〈현대국어 '사이시옷' 교수-학습 방안〉, 단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장미희, 〈놀이 담화의 교육적 효용에 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장수연, 〈초등교육 독서지도 방안 연구: 초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장은영, 〈제7차 국어과 쓰기 영역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 연구: 중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장은자, 〈단계별 독서 활동의 지도 방안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장정희, 〈독서 교육이 중학생의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서강대 교육대학원(석사)

전난희, 〈국어지식영역의 국어에 대한 태도 연구: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심으로〉, 공주대 교육대학원(석사)

전미선, 〈협동 학습을 통한 쓰기 능력 신장 방안 연구: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전보영, 〈패러디를 활용한 창의적 글쓰기 교육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전영신, 〈탐구 학습 모형을 활용한 띄어쓰기 지도방안〉, 경성대 교육대학원(석사)

전희경, 〈교과서 편찬 기본 방향에 따른 국어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분석: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석사)

정다와, 〈설득하는 말하기 지도방법 연구: 비판적 읽기를 활용하여〉,

국민대 교육대학원(석사)
정미라, 〈중학교의 바람직한 음운 교육 방법론 연구〉, 경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상섭, 〈공감적 화법 교육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박사)
정선임, 〈댓글을 활용한 국어과 수업 방안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성애, 〈내용 생성 협의가 논술문 쓰기에 미치는 효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수연, 〈비판적 읽기 지도 내용 연구: 독해점검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승연, 〈고등학교 국어 지식 교육에 관한 연구-국어 교과서 영역 분석을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영희, 〈수업상황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비언어적 표현 양상 연구: 신체언어와 준 언어를 중심으로〉, 경인교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유정,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 재구성 방안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은숙㉠, 〈국어 영역의 통합 방안 연구: 고등학교 국어 지식 영역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은숙㉡, 〈쓰기 수업에 나타난 교사의 비계설정(Scaffolding) 양상 연구: 생활문 쓰기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정재학, 〈중학생의 독서 실태 분석을 통한 아침독서 10분 운동의 효과 검증과 지도방법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정희, 〈학습자 중심 생각고리 방법이 국어과 학업성취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4학년 읽기를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지영㉠, 〈의미 관계를 이용한 어휘력 확대 방안: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지영㉡, 〈국어 교과서의 통합적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정진화, 〈중학교 국어 지식의 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석사)

정해영, 〈매체언어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어 수업 개선 방안: 중학교 2학년 1학기 '3. 우리 고전의 맛과 멋'을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제수현, 〈내용생성 전략을 활용한 말하기 교수-학습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조국선, 〈통신언어 교정 지도를 통한 규범적 쓰기 능력 향상 연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학교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언어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윤서, 〈비판적 문식성 향상을 위한 논증 교육 방안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윤옥, 〈쓰기 수행 과제 분석 연구: 초등학교 쓰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경인교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은아, 〈'EBS 수능특강 언어영역' 동영상 강의의 교수발화 분석〉,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은영, 〈신문을 활용한 논술 수업 지도 방안 연구〉, 전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은희, 〈중학생의 문장 실태와 교육 방안〉, 창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인혜, 〈내용 생성과 조직화 전략을 통한 쓰기 지도 방안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석사)

조향선, 〈인터넷 언어가 청소년 국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조현아, 〈광고언어의 국어 교육적 활용 방안〉, 연세대 교육대학원(석

사)
조혜원, 〈협동학습 중심의 읽기 지도 방안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석사)
조혜진, 〈독서 클럽을 통한 독서 치료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주중연, 〈낭독 속도 지도 연구〉, 경상대 교육대학원(석사)
진선주, 〈방언 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경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진정아, 〈국어사 교수-학습 방법 연구: 고등국어(하)를 중심으로〉, 전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진혜림, 〈듣기 교육에 관한 연구: 대학수학능력 시험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중앙대 교육대학원(석사)
차윤정, 〈텔레비전 출연자의 말과 자막의 대응 양상〉, 대구대 교육대학원(석사)
천경순, 〈중학교 교과서의 '국어지식' 영역 분석과 교수·학습방법 연구〉, 경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최귀헌, 〈매체 활용 말하기 교수·학습 방법 연구〉, 춘천교대 교육대학원(석사)
최명자, 〈도식 조직자(Graphic Organizer)를 활용한 이야기글 구조 지도 방안 연구〉, 대구교대 교육대학원(석사)
최복자, 〈토론 교육의 수업 모형 개발 연구〉, 전남대 대학원(박사)
최선미, 〈학습 부진아의 읽기 지도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성진,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쓰기' 영역 '원리' 범주의 교과서 구현 양상 연구: 중학교 〈생활국어〉 쓰기 단원을 중심으로〉, 경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승숙, 〈통합적 쓰기 지도 방법 연구: 초등학교 2학년 전 교과를 중심으로〉, 춘천교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안나, 〈읽기 부진아의 특성 연구: 초등 6학년〉,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은진,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높임법 연구: 제7차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인천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주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듣기 평가의 적합성 연구: 질문지와 선택지 제시 방식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최향순, 〈연행을 통한 말하기 교육 방법 연구〉, 춘천교대 교육대학원(석사)

최희선, 〈방언 교육의 이해와 실제〉, 전북대 교육대학원(석사)

표은주, 〈중학교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 체계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석사)

하기란, 〈중학교 말하기 교육 방안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석사)

한광희, 〈중학교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요구 분석〉,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한기현, 〈다중지능 독서 프로그램이 독서 능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한숙희, 〈입문기 기초 문식성 지도 방안〉,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한영환, 〈듣기와 보기를 연계한 교수·학습 방안 연구: 애니메이션 보기를 중심으로〉, 전주교대 교육대학원(석사)

한유경, 〈설명하는 글 구조 중심의 고쳐쓰기 지도 방안〉, 공주교대 교육대학원(석사)

한정희, 〈초등학생의 쓰기 과제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 경인교대 교육대학원(석사)

한지연, 〈제7차 문법 교과서 분석: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심으로〉, 홍

익대 교육대학원(석사)
한지효, 〈교사의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이 초등학교 아동의 독서 태도와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 교육대학원(석사)
허수진, 〈중등학교 논술지도 방안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허영희, 〈광고언어를 활용한 중학국어 수업 방안〉, 단국대 교육대학원(석사)
허윤미, 〈다매체를 활용한 토의·토론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고등학교 국어과목을 중심으로〉, 홍익대 교육대학원(석사)
허은주, 〈쓰기 전 말하기가 쓰기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현빈, 〈어휘 평가 문항 분석: 대학수학능력시험 어휘문항을 중심으로〉,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홍정은, 〈광고 언어를 활용한 국어 지식 교육 방안〉,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홍지은, 〈PC 통신 언어의 사용 실태와 교과 지도 방안: 중학생을 대상으로〉, 단국대 교육대학원(석사)
홍진희, 〈고등학교 국어 국정교과서와 대안교과서의 비교 연구: 〈고등국어〉와 〈우리말우리글〉을 중심으로〉, 군산대 교육대학원(석사)
홍현숙, 〈대학생의 독서 태도와 전략 활용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 교육대학원(석사)
홍현정, 〈대화식 읽기 교수 전략 개발 연구: 설득적 텍스트의 중심생각 찾기 수업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석사)
황경림, 〈창의력 신장을 위한 말하기 교수·학습 방안〉,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황선경, 〈중학교에서의 토론활동을 통한 논술지도방안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황선희, 〈중학교 국어 지식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 낱말과 형태소 단원을 중심으로〉, 군산대 교육대학원(석사)
황성현, 〈중학생의 작문에 나타난 한글 맞춤법 오류 분석 및 지도 방안 연구: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글을 중심으로〉,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황수경, 〈실업계 고등학생의 독서 치료 방법 연구〉, 경북대 교육대학원(석사)
황원희, 〈초등학교에서의 독서 클럽 활동을 통한 독서 지도 실행 연구〉, 청주교대 교육대학원(석사)
황정미, 〈국어사 교육의 내용과 방법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황진옥, 〈읽기·쓰기 통합 논증텍스트 교육 방안: 통합논술교육의 기초적 접근〉, 경기대 국제문화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가경신, “읽기 능력과 읽기 인지 변인과의 상관”, 독서연구 15, 한국독서학회
강영기, “독서매뉴얼 개발과 독서교육”, 백록어문 22, 백록어문학회
고선아, “이야기 스키마 활성화를 통한 이야기 창작지도 방안 연구”, 초등국어교육 15,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초등국어교육연구소
고창운, “활동 중심 교육연극 활용을 통한 말하기 지도 방안 연구: 초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3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곽재용, “마음 수련을 통한 국어교육적 태도 형성”, 한국초등국어교육 3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구진령, “교육연극을 통한 독서교육 방법 연구”, 어문학교육 32, 한

국어문교육학회
권순긍, “중학교 고전소설 교육의 지향과 방법: “환상성”과 “상호소통성”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21, 반교어문학회
권순희, “국어 영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한국초등국어교육 3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권순희,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 모색: 호주의 언어 교육 정책 검토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27, 국어교육학회
권순희, “문화 텍스트적 관점의 번역 동화 이해 교육”, 독서연구 15, 한국독서학회
권순희·서명옥㉠, “창의적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한 국어과의 교수 학습 전략 방안: 문화 텍스트적 관점에서의 번역 동화 이해와 감상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32,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권연희, “상호작용적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적용 연구”, 초등국어과교육 18 , 광주교대 초등국어교육학회
권혁준, “목표 중심 단원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초등학교 문학 영역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1, 한국문학교육학회
기명숙, “구두작문과 자유쓰기가 설명적 텍스트 쓰기 능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초등국어과교육 18 , 광주교대 초등국어교육학회
김근호, “이야기판과 서사적 정체성의 역학 관계: MBC FM『라디오 여성시대』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27, 국어교육학회
김남돈, “學習者 말뭉치에 기반한 國語知識의 計量的 硏究 方案”, 어문연구 1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김남희, “오독분석법을 활용한 읽기 부진아 진단에 관한 연구”, 초등국어과교육 18 , 광주교대 초등국어교육학회
김대조, “초등학교 학생들의 고쳐쓰기 능력 증진을 위한 전체적 접근 전략 지도의 효과”, 한국초등국어교육 3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김대행, “국어생활, 국어문화, 국어교육”,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김대희, “리터러시 槪念의 擴張에 관한 연구 －미디어 리터러시 media literacy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12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김도남, “共주관 구성 읽기 교육 방향 탐색”, 국어교육학연구 27, 국어교육학회
김도남, “독자의 緣起的 관념 구성 교육 방향 탐색”, 한국초등국어교육 32,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김도남, “읽기 주체의 관념 구성 교육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25, 국어교육학회
김도남, “정서 함양 읽기 교육 방향”,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김도남, “초등국어과 기초학력 교육 방향 탐색”, 한국초등국어교육 3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김도남, “초등학교 현장의 독서 문화 비판”, 독서연구 15, 한국독서학회
김도남, “필자의 관념 완성 쓰기 교육 방향 탐색”, 청람어문교육 34, 청람어문교육학회
김도남, “해석 공동체의 개념 탐구: 읽기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26, 국어교육학회
김동준, “독서인증제를 통한 독서교육 평가”, 백록어문 22, 백록어문학회
김두루한, “중등학교의 신문 활용 논술 교육”, 한글새소식 407, 한글학회
김미혜, “문학교육에서 지식의 재개념화를 위한 연구”, 문학교육학 19, 한국문학교육학회
김미혜, “수사학적 지식의 교육 내용 연구: 현대시 텍스트의 설의적 표현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26, 국어교육학회

김병구, “논술과 작문 교육의 관계 정립을 위한 시론”, 국어교육학연구 27, 국어교육학회

김봉순, “읽기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 국어교육학연구 25, 국어교육학회

김상수·송향근, “한국어 발음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김상욱,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교육의 방법”, 한국초등국어교육 32,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김상욱, “문학교육 연구방법론의 확장과 그 실제: 서사 텍스트의 표현 능력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1, 한국문학교육학회

김상욱, “문학을 통한 국어교육의 재개념화”, 문학교육학 19, 한국문학교육학회

김선겸, “초등학교 국어과에서의 정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연구: 전자게시판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3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김선민, “수리·과학적 문제해결과 언어”,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김선배, “교과서 문학 영역에 제시된 질문의 양상 탐색: 반응중심학습법으로 설계된 차시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32,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김선배, “반응중심학습법의 현장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학교육학 21, 한국문학교육학회

김선정, “‘읽기 중심의 쓰기’ 모형 실행 연구: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김선정, “高等學生들의 글쓰기 事例 연구 －自己 表現的 쓰기와 協議하기를 통한 쓰기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12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김선정, “국어교사의 쓰기 교수 전문성 준거 설정 기초 연구: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작문연구 3, 한국작문학회
김성진㉠,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한 희곡 교재 지도 방안 연구: 연극 놀이를 중심으로”, 어문학교육 32, 한국어문교육학회
김성진㉡, “서사이론과 읽기 교육의 소통을 위한 시론”, 문학교육학 19, 한국문학교육학회
김소영, “건의문 쓰기의 지도 방안 연구”, 우리말연구 19, 우리말학회
김소영, “연설의 담화 유형적 특성과 평가의 방향”, 화법연구 9, 한국화법학회
김수연·하대현, “텍스트 종류와 Cattell-Horn-Carroll(CHC) 인지요인과의 관계”, 독서연구 16, 한국독서학회
김순애, “소집단별 주제 중심 독서활동의 효과”, 초등국어과교육 18, 광주교대 초등국어교육학회
김양희, “북한의 서사 교육”, 국어교육연구 17,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김연희, “서부경남 지역에서의 지역화 교육 실천 사례”, 배달말 38, 배달말학회
김용석, ““학교문법”의 정체성에 대하여”, 문법교육 4, 한국문법교육학회
김유범, “중세국어 문법 교육과 언해본『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새얼어문논집 18, 새얼어문학회
김유범, “중세국어 문법의 효과적 교육을 위한 모색”, 청람어문교육 33, 청람어문교육학회
김윤옥, “공식적 말하기 교육내용 고찰”, 새국어교육 72, 한국국어교육학회
김윤옥, “상호주관적 화법의 특성 연구”, 청람어문교육 34, 청람어문

교육학회
김은경, “조선시대(朝鮮時代) 독서(讀書) 방법론(方法論) 연구(硏究)”, 한문고전연구 13, 한국한문고전학회
김인경, “논쟁의 불일치 조정 방안”, 초등국어과교육 18 , 광주교대 초등국어교육학회
김정우, “시 이해를 위한 시 창작교육의 방향과 내용”, 문학교육학 19, 한국문학교육학회
김정우, “학습자 중심의 문학사교육 연구: 정지용의 시론을 예로 하여”, 국어국문학 142, 국어국문학회
김정자,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쓰기〉영역 내용 검토”, 작문연구 3, 한국작문학회
김정자, “쓰기 ‘과정’의 초점화를 통한 쓰기 지도 방안: 수정하기와 출판하기 과정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26, 국어교육학회
김중신, “서사 장르의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한 제언: 작품의 축약과 도식화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0, 한국문학교육학회
김진규·안주호, “국어 지식 영역의 내용과 평가방법에 관한 고찰”, 새국어교육 73, 한국국어교육학회
김진영, “이미지 표현 활동을 적용한 동화 지도방안 연구”, 초등국어과교육 18 , 광주교대 초등국어교육학회
김차진, “어문 정책과 어문 교육 정책의 협력 방안 모색”, 교과서연구 48,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김창원, “다중언어 사회의 언어문화현상을 통해 본 21세기 언어문화 교육의 방향: 싱가포르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어교육학연구 25, 국어교육학회
김창원, “문학교육의 성격과 문학 교과서의 지향: 제7차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의 점검과 논의”, 국어교육학연구 27, 국어교육학회
김창원, “예술교육에서의 언어의 문제”,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

회
김태숙, “시의 구성요소에 따른 낭송 활동 중심의 시 교육 연구”, 어문학교육 33, 한국어문교육학회
김혜영, “사범대학교 국어과의 교사교육체제와 지향점”, 국어교육학연구 26, 국어교육학회
김혜정㉠, “‘교과 독서’의 수업 적용 원리”,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김혜정㉠, “말하기·듣기 수업 대화에 나타난 교사의 피드백 양상 연구”, 초등국어과교육 18, 광주교대 초등국어교육학회
김혜정㉠, “외국의 초등 교과서 분석을 통한 교과서 개발 방향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7, 국어교육학회
김혜정㉡, “읽기 교육 방법론에 대한 재고”, 국어교육학연구 26, 국어교육학회
김호정, “담화 차원의 문법 교육 내용 연구”, 텍스트언어학 2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나근화, “신문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통합지도 방안”, 초등국어과교육 18 , 광주교대 초등국어교육학회
남가영, “국어 인식활동의 경험적 속성”, 국어교육학연구 27, 국어교육학회
남민우, “‘사이버-청소년문학’의 문학교육적 의미 연구”, 문학교육학 19, 한국문학교육학회
노명완·박창균, “읽기 평가틀에 대한 비교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9-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노명희, “한자어 문법 단위와 한자어 교육”, 국어국문학 142, 국어국문학회
노철, “시 교육에서 이미지·비유의 교육과정과 교재의 설계 방향”, 문학교육학 19, 한국문학교육학회

도애경, “대학 작문 교육의 전략적 접근”, 한국언어문학 57, 한국언어문학회
류성기, “말하기 교육 효율화를 위한 동기 유발 방법”, 한국초등국어교육 31,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류수열, “〈關東別曲〉의 교재사적 맥락”,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류수열, “문학 지식의 교육적 구도”, 국어교육학연구 25, 국어교육학회
류수열, “문학교육과정의 경험 범주 내용 구성을 위한 시론”, 문학교육학 19, 한국문학교육학회
문금현, “한국어 명사 ‘눈’의 교육 방안”, 한국어의미학 21, 한국어의미학회
문영진, “아이러니와 아이러니 서사의 읽기 문제”, 국어교육학연구 25, 국어교육학회
민병곤, “말하기·듣기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25, 국어교육학회
민병곤, “텍스트 중심 말하기 교육 내용 구성의 전제와 함축”, 어문학교육 33, 한국어문교육학회
민현미, “국어과 ‘그려쓰기’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32,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민현식,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과 문법 교육의 과제”, 문법교육 4, 한국문법교육학회
민현식, “국어교육에서의 지도력(리더십) 교육 시론”, 화법연구 9, 한국화법학회
민현식, “사범대 문법 교육과정의 구성과 문법 교육의 개선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17,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박권수, “이공계 과학글쓰기 교육을 위한 강의 모형: 연세대학교의

「과학글쓰기」를 중심으로", 작문연구 2, 한국작문학회
박대응, "학생 수준차를 고려한 과정중심 쓰기 지도 방안 연구: 교사의 비계 설정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3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박미정, "전기문 쓰기의 지도 모형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11, 국어교과교육학회
박미정, "전기문 쓰기의 지도 요소 연구", 작문연구 2, 한국작문학회
박세영, "대학국어 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 대학의 자국어 교육 현황과 문제점", 강남어문 16, 강남대 국어국문학과
박세욱·한건우·이은경·이영준, "미니홈페이지를 통한 글쓰기 교육이 작문에 미치는 영향", 교원교육 22-4, 한국교원대 교육연구원
박수자, "언어 영재를 위한 논리적 독서 지도", 한국초등국어교육 3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박수자, "추론적 읽기 지도의 내용 연구",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박숙현, "그림 읽기를 통한 시각적 문해력(Visual Literacy) 지도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23, 한국어문교육학회
박영목, "검정 도서로서의 국어 교과서 개선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27, 국어교육학회
박영목, "전략적 과정 중심 읽기 지도 방안", 독서연구 16, 한국독서학회
박영민, "고등학교 작문 과목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작문연구 3, 한국작문학회
박영민, "교원 양성 대학의 작문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안", 작문연구 2, 한국작문학회
박영민, "국어교과서 기능의 변화와 단원 구성 방안", 한국어문교육 15, 한국교원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박영민, “반성적 쓰기를 활용한 작문 평가 방안”, 새국어교육 73, 한국국어교육학회
박영민, “쓰기 교육에서 지식의 범주와 교육 내용의 구조”, 국어교육학연구 25, 국어교육학회
박영민, “중학생 읽기 동기의 구성 요인”, 독서연구 16, 한국독서학회
박영민, “중학생의 쓰기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어교육학연구 26, 국어교육학회
박영민·김종백·우은실, “반성적 쓰기 활동이 학생필자의 쓰기 능력 및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연구 12-1, 안암교육학회
박영민·최숙기, “다문화 시대의 국어교과서 단원 개발을 위한 연구”, 청람어문교육 34, 청람어문교육학회
박유미, “학습 부진아의 문자해득 지도 방안”, 초등국어과교육 18 , 광주교대 초등국어교육학회
박유민, “교과서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독서 지도 연구”, 초등국어교육 15,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초등국어교육연구소
박윤우, “‘이야기시’의 화자 분석과 시의 해석 방법”, 문학교육학 21, 한국문학교육학회
박인기, “국어교육과 타 교과교육의 상호성”,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박인기, “존재 정체감을 높이는 교사재교육과 국어과 지식의 활용 잠재력”, 교육논총 26-1, 경인교대 초등교육연구소
박인기, “특수 영역으로서의 초등국어교육 방향 탐색”, 한국초등국어교육 3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박인희, “작문 교육에서 컴퓨터의 위상”, 새국어교육 72, 한국국어교육학회
박재현, “설득 화법 교육을 위한 텍스트 연결 표현의 의미기능 연

구", 텍스트언어학 2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박재현, "어휘 교육 내용 체계화를 위한 어휘어미의 가치 교육 연구", 새국어교육 74, 한국국어교육학회
박정진, "국어 수업의 수준별·주체별 질문활동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31,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박정진, "國語 授業의 言語活動 樣相 硏究", 어문연구 1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박정진, "수업 담화에서의 질문활동 구조",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박정진, "실증주의적 관점의 독서 평가 방법", 한국어교육 24, 한국어문교육학회
박창균, "말하기·듣기 수업의 참여구조 양상 연구: 초등학교 4학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32,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박현정, "'낯설게하기' 쓰기 교수·학습 방안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3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박형우, "국어 교육에서의 중세국어 문법 교육", 문법교육 4, 한국문법교육학회
박형우, "국어 지식 교육 내용의 변천 연구",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박형우, "국어교육에서의 한글 교육", 청람어문교육 34, 청람어문교육학회
박혜영, "중등학교 독서 문화 비판", 독서연구 15, 한국독서학회
박호관·이정복, "고등학생들의 비규범적 통신 언어 사용과 국어 교육의 과제", 어문연구 50, 어문연구학회
방인태, "도덕적(道德的) 인간(人間) 육성(育成)과 국어(國語) 능력(能力)",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육학회
방인태, "新 國語科 敎育課程의 개선 방향", 어문연구 12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배설아, “사이시옷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 비교문화연구 18, 부산외대 비교문화연구소
배소영, “한국어 발달특성과 학령전기 문법형태소”,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배수찬, “근대 초기의 작문교육 환경 연구: 『國語教授法』(1912)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27, 국어교육학회
백광호, “漢字能力試驗과 讀解力의 비교 연구: 初等學生을 대상으로”, 어문연구 12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변화영, “하근찬 소설에 나타난 식민교육담론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27, 현대문학이론학회
봉하창, “반응중심 학습법을 적용한 시조 지도 방안 연구: 초등학교 5학년을 중심으로”, 초등국어교육 15,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초등국어교육연구소
서덕현, “수업 현장의 교사 화계에 대한 연구”, 화법연구 9, 한국화법학회
서명희, “시조 교육에서 태도의 개념: 태도의 두 가지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서명희, “시조 수용 태도 교육 연구를 위한 〈오우가〉 읽기: 절차로서의 태도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1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서명희·조희정, “초등 교과서 수록 고전 제재 변천 연구(2): 건국 과도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 구비 전승 제재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3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서수현, “글쓰기에서의 내용 지식에 대한 개념 규정”,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육학회
서유경, “귀신 등장 이야기의 문화적 변화와 문학교육: 〈귀신이 산다〉와 〈시실리 2km〉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19, 한국문학교육

학회
서유경, “향유 문화의 관점에서 본 「옹고집전」의 교육적 의미”,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서정혁, “대학의 교양교육과 글쓰기 교육”, 독서연구 15, 한국독서학회
서주형, “초등학생의 대용 표현 사용 실태와 그 지도 방향”, 초등국어교육 15,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초등국어교육연구소
서혁, “국어과 수업 설계와 교수·학습 모형 적용의 원리”, 국어교육학연구 26, 국어교육학회
서혁, “새로운 국어 교과서 개발의 방향: 중학교 ‘쓰기’영역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3, 한국작문학회
서현석, ““인격적 지식”을 위한 국어 수업의 현상 탐구”, 청람어문교육 33, 청람어문교육학회
서현석, “초등 말하기 수업의 내용과 방법”, 어문학교육 33, 한국어문교육학회
선주원, “‘타자’의 서사적 기능과 서사교육의 내용”, 국어교육학연구 26, 국어교육학회
선주원, “비평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소설 교육: 교육대학생의 비평적 에세이 쓰기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한국문학연구학회
선주원, “여가적 읽기를 위한 어린이 문학교육 내용 연구: 문학 생활화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3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선주원, “작중인물의 정체성을 활용한 비판적 문식성 교육 내용 연구: 청소년 소설에 형상화된 정체성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34, 청람어문교육학회
선주원, “패러디를 활용한 어린이 문학 교육”, 초등국어과교육 18 , 광주교대 초등국어교육학회
성숙자, “비판적 책읽기 지도 방안”, 우리말연구 18, 우리말학회

손경미, “비문법적인 문장 분석을 통한 올바른 문장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 어문학교육 33, 한국어문교육학회
송문석, “독서교육평가의 과제”, 백록어문 22, 백록어문학회
송현정, “국어과 교육내용 적정성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육학회
신명선, “개화기 국어 생활 연구: 독립신문 광고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신명선, “통합적 문법 교육에 관한 담론 분석”,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신선경, “의과대학생을 위한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작문연구 2, 한국작문학회
신수자, “국어과 설화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11, 국어교과교육학회
신승용, “『문법』 교과서 ‘어휘’ 대단원의 비판적 검토”, 어문학 93, 한국어문학회
신승용, “『문법』敎科書 內容 記述上의 몇 問題와 改善 方向”, 어문연구 1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신원기, “설화의 교재화 양상에 대한 고찰: 교육과정의 ‘내용’영역과 고등학교『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1, 한국문학교육학회
신원기, “설화의 문학교육적 가치에 관한 고찰”,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신지영, “국어 음운론 지식의 교과서 수용 실태와 문제점: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신지현·최영환, “교과 문식성을 통한 국어과와 타 교과의 관계”, 한국초등국어교육 31,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신헌재, “문학 교육과정 내용 선정을 위한 대안적 연구 방향”, 문학

교육학 19, 한국문학교육학회
심보경, “대학생의 글쓰기 실태조사와 효율적인 지도방안 연구”, 국어교육연구 39, 국어교육학회
심영택, “교사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에 관한 교육적 의미 연구”, 논문집 11, 청주교대 교육대학원
심치열, “‘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고전소설 교육의 현황과 문제: 〈박씨전〉을 중심으로”, 국어 교육과 ‘국어’ 교과서, 돈암어문학회
안숙현,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토의 중심의 글쓰기 교육”, 새국어교육 73, 한국국어교육학회
양명희, “보어와 학교문법”,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양명희·이영숙·정희창, “초등학교용 쓰기 교재 개발 방안 연구”, 작문연구 2, 한국작문학회
양승만, “문화 생산을 위한 독해 지도 방법 연구”, 초등국어교육 15,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초등국어교육연구소
양왕용, “문학 교수-학습 방법과 문학이론의 상관성: 초·중학교 제7차 ‘교육과정, 국어교과서, 교사용 지도서’를 중심으로”, 국어교과교육연구 11, 국어교과교육학회
양태식, “국어 지식의 성격과 지도 과제”, 초등국어교육 15,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초등국어교육연구소
양태식, “초등 학교에서의 맞춤법의 지도”, 한국어교육 24, 한국어문교육학회
엄해영·김지은㉠, “읽기 지도를 위한 협동적 접근의 재고찰”, 한국어교육 24, 한국어문교육학회
엄훈, “고전 논변 텍스트를 통한 문화 읽기”,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엄훈, “읽기 부진 개선을 위한 보충학습반 운영의 경험”, 교육인류학연구 9-1, 한국교육인류학회

엄훈, “적용적 개선을 통한 초등학생용 비형식적 읽기 검사 개발”, 논문집 11, 청주교대 교육대학원
염은열, “기행가사의 ‘공간’ 체험이 지닌 교육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1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염은열, “쓰기 교과서의 “활동” 구성에 대한 연구”, 청람어문교육 33, 청람어문교육학회
염창권, “시적 발상과 창작 지도 원리”, 초등국어과교육 18 , 광주교대 초등국어교육학회
오윤선, “理工系 大學生을 對象으로 한 글쓰기 敎授法의 方向”, 어문연구 1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오정훈, “토박이말 지도 방안”, 배달말교육 27, 배달말교육학회
왕문용, “국정 문법 교과서의 피동법 기술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우한용, “〈文學創作敎育論〉 강의 개설을 위한 구상”, 국어교육연구 17,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우한용, “국어교육학 정립의 도정과 전망”, 선청어문 34, 서울대 국어교육과
우한용, “문학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탐색: 심화선택과목 〈문학〉의 경우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0, 한국문학교육학회
유경·정은희, “초등학교 3·4학년 아동의 접속부사 사용 특성”, 언어치료연구 15-2, 한국언어치료학회
유동엽, “판별함수를 활용한 화법능력의 평가에 관한 연구: 자기소개대화를 매개로”, 국어교육학연구 25, 국어교육학회
유동엽, “화법교육 연구방법의 내용분석”,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유영희, “국어 교과서 현대시 제재와 해석의 다양성”, 국어 교육과 ‘국어’ 교과서, 돈암어문학회

유영희, “학습자의 현대시 감상 경향에 관한 연구”, 청람어문교육 33, 청람어문교육학회
유철상, “영향 개념의 문학교육적 함의와 그 적용 가능성”, 문학교육학 19, 한국문학교육학회
유혜령, “언어 구조의 다차원성과 학교문법의 연결어미 교육 내용”,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윤국한, “발음 학습의 개념에 대하여”, 한국어문교육 15, 한국교원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윤금선, “해방 이후 독서 대중화 운동”, 국어교육연구 17,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윤금선, “희곡교육・교육연극의 연구 동향”,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윤영옥, “『소라단 가는 길』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교육적 가치”, 한국근대문학연구 14, 한국근대문학회
윤영옥, “여성 패러디 소설과 문학 교육: 〈나무꾼과 선녀〉 패러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7, 한국언어문학회
윤준채,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 대화, 구성 공간, 그리고 탐구”,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육학회
윤준채, “읽기: 그 개념에 대한 은유적 이해”, 청람어문교육 34, 청람어문교육학회
윤희원, “전환기의 국어 문제에 관한 사례 연구: 프랑스와 불가리아의 언어정책과 국어교육”, 국어교육연구 17,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이강엽·김상한, “설화 제재를 통한 듣기・말하기 지도의 한 방안”, 한국초등국어교육 32,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이경애·이채연, “인터넷 활용 국어 재량활동 교육과정 개발 시론”, 교육과학연구 11, 신라대 교육과학연구소

이경연, “고등학교 입말 문학 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배달말교육 27, 배달말교육학회
이경화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단원 구성과 전개 방식 탐색”, 국어교육학연구 27, 국어교육학회
이경화, “균형적 기초문식성 교육 내용 연구”,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이관규, “문법 연구와 문법 교육의 상관관계: 문법 교육의 내용 선정 원리와 관련하여”,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이관규, “세계의 자국어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 내용 영역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72, 한국국어교육학회
이남호, “중등교사 임용시험 국어 문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이도영, “말하기 교육 내용 체계화 방안 연구”,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이도영, “말하기 교육 목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국어교육학연구 25, 국어교육학회
이도영, “말하기·듣기 교수 방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6, 국어교육학회
이동배, “Analysis of North Korean Language Textbooks: Altered Jucheism Ideology”, 국어교육학연구 27, 국어교육학회
이동석, “효과적인 사이시옷 표기 교육”, 새국어교육 72, 한국국어교육학회
이문규, “소통 능력 신장에 중점을 둔 말하기 교육 내용 선정의 방향”,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이병규, “문법 영역의 내용 선정 방법 연구”, 문법교육 4, 한국문법교육학회
이병민, “논술고사의 성격 및 타당성 고찰”,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

육학회
이병승, “초등학생 쓰기 능력 신장을 위한 쓰기 평가 연구”, 한국어교육 24, 한국어문교육학회
이상일, “북한 교과서의 고전문학 작품 선정 원칙과 수록 체제”, 고전문학과 교육 1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이상태, “말소리의 정책과 교육”, 어문학 94, 한국어문학회
이상태, “사고력 함양의 모국어 교육”, 국어교육연구 39, 국어교육학회
이석규, “국어과 수업 분석의 방법 연구”, 어문학교육 32, 한국어문교육학회
이선웅, “第7次 敎育課程의 文法 敎科書와 敎師用 指導書 검토: ‘單語’와 ‘文章’ 單元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이성연·정옥란, “북한 고등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어휘 연구”, 새국어교육 74, 한국국어교육학회
이성영, “국어 교과서를 구성하는 텍스트들의 유형”, 한국초등국어교육 32,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이성영, “읽기 교육의 마당 넓히기: 내용교과에서의 읽기 지도”, 독서연구 15, 한국독서학회
이성영, “제7차 초등학교 ‘쓰기’교과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작문연구 3, 한국작문학회
이성영, “KWL 모형의 국어교육적 가치”, 국어교육학연구 27, 국어교육학회
이성은·권성숙, “아동의 문학평가능력 향상을 위한 동화비평문 쓰기 프로그램 개발”, 한국초등국어교육 31,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이세은, “초등학교 시조 창작 지도 방법 연구”, 초등국어과교육 18 , 광주교대 초등국어교육학회
이수진, “초등 수준별 국어교과서의 개선 방안 연구”, 새국어교육

72, 한국국어교육학회
이수희, “독자의 목적에 따른 요약하기 체계화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3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이숙영, “국어 지식 영역의 검토 및 지도 방안: 초등학교 중학년을 중심으로”, 초등국어교육 15,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초등국어교육연구소
이순영, “독서 동기와 몰입 독서의 영향에 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26, 국어교육학회
이순영, “독서 동기와 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독서연구 16, 한국독서학회
이순영, “몰입 독서의 개념에 관한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이승구, “교과서 표기·표현 감수제 도입에 부쳐”, 교과서연구 48,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아경, “바꿔 쓰기를 활용한 동화 감상 교육 방법 연구”, 초등국어과교육 18 , 광주교대 초등국어교육학회
이연승, “장르 해체 현상을 활용한 시교육 방법 연구: 오규원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16, 한국시학회
이영이, “초등학생 말하기의 대화 분석론적 연구”, 어문학교육 32, 한국어문교육학회
이영호, “碑誌類 樣式을 활용한 傳記 쓰기 敎育 연구”, 어문연구 1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이은희·이현주, “한국어의 서술절 설정 연구: 학교 문법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25, 한성대 한성어문학회
이재기, “맥락 중심 문식성 교육 방법론”, 청람어문교육 34, 청람어문교육학회
이재기, “批判的 主體 형성을 위한 文識性 교육 원리 및 모형 探究”,

어문연구 1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이재기,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의 독자”, 독서연구 16, 한국독서학회
이재기, “쓰기 교육에서 학생 필자의 자리”, 청람어문교육 33, 청람어문교육학회
이재승, “국어 표현 교육의 방향: 과정 중심 글쓰기 교육을 중심으로”, 어문학교육 33, 한국어문교육학회
이재승, “통합적 국어교육의 개념과 성격”, 한국초등국어교육 31,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이재승·신헌재·임천택·전제응, “초등학생용 쓰기 동기 검사 도구 개발과 활용 방안”, 청람어문교육 34, 청람어문교육학회
이정기, “방언 학습을 위한 재량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3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이정숙㉠, “쓰기 교수행위의 예술적 의미”, 어문학교육 33, 한국어문교육학회
이정환, “가상공간과 시 교육”, 청람어문교육 33, 청람어문교육학회
이정환, “시조의 교육적 적용 방안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31,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이종국, “국어 교과서에서의 이념 지향과 출판 정책”, 국어 교육과 ‘국어’ 교과서, 돈암어문학회
이창근,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어 지식 영역 지도 내용 변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72, 한국국어교육학회
이창덕·박창균, “말하기·듣기 敎科書 單元 構成 方案 연구: 談話類型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3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이형래, “읽기 쓰기 통합 교수 학습 실행 연구: 초등학교 5학년 『말하기 · 듣기 · 쓰기』,『읽기』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31,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이황직, “사회과학 글쓰기의 논리와 과제”, 작문연구 2, 한국작문학회
이희녕, “메타플랜(Meta-plan)을 활용한 토의·토론 학습 모형 연구”, 어문학교육 32, 한국어문교육학회
임경순,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철학적 기반 탐색: 국어교육의 개념과 관련하여”, 국어교육학연구 25, 국어교육학회
임경순, “듣기·말하기 單元 開發의 方向과 構成 試論”, 한국어문학연구 24, 한국외대 한국어문학연구회
임경순, “총체적 언어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과 문학교육의 중요성”, 문학교육학 19, 한국문학교육학회
임규홍, ““담화문법 교육”에 대하여”, 문법교육 4, 한국문법교육학회
임성규, “가난 체험을 통한 현실주의 동화 읽기의 방법 탐구: 김중미의 『괭이부리말 아이들』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임성규, “과정 중심 쓰기 수업의 비판적 검토”, 한국초등국어교육 31,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임성규, “초등학교 글쓰기 수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작문연구 3, 한국작문학회
임성규, “표현 어휘의 교육 방법 연구”, 초등국어과교육 18, 광주교대 초등국어교육학회
임정연, “국어과 교수·학습 모형 개발을 통한 상호작용성 증진 연구”, 어문학교육 33, 한국어문교육학회
임지룡, “의미교육의 학습 내용에 대하여: 제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임천택, “국어과 쓰기 평가 문항 작성의 실태와 개선 방안”, 어문학교육 33, 한국어문교육학회
임칠성, “국어과 도입 수업의 교육공학적 접근”, 국어교과교육연구

11, 국어교과교육학회
임칠성, “중등 국어과 교과서 내용 개발 전략 소고”, 국어문학 41, 국어문학회
임칠성, “통합 논술 첨삭 지도 방법 고찰”, 새국어교육 74, 한국국어교육학회
임효례, “한·중 국어교과서 영역별 교육 내용 비교 연구”, 배달말교육 27, 배달말교육학회
임효례, “한·중 중학교 국어교과서 바탕글 비교 연구”, 배달말 38, 배달말학회
장경희·권우진·김순자·김정선·김태경·이필영·전은진, “말하기 능력 평가에 관한 요구 조사 연구”, 한국언어문화 3, 한국언어문화학회
장영희, “침묵의 유형과 교육적 의의”, 화법연구 9, 한국화법학회
장윤희, “문법 내용의 국어 교과서 구현 방안 연구”,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전용호, “고종・순종시대 국어교과서의 서사유형 연구”, 어문논집 53, 민족어문학회
전원범,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시 자료의 분석 연구”, 초등국어과교육 18 , 광주교대 초등국어교육학회
전은주, “국어과 협동 학습에 관한 인식 조사”, 새국어교육 73, 한국국어교육학회
전은주, “화법교육 변천사”,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정길남, “개화기 교과서의 종성표기와 어간 어미 분리표기에 관하여”, 국어교육연구 39, 국어교육학회
정미숙, “쓰기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수학습방안: 10학년 국어교과를 중심으로”, 국어교과교육연구 11, 국어교과교육학회
정상섭, “초등학생 일상대화의 문제점 고찰”, 청람어문교육 33, 청람어문교육학회

정소영, “전래동화를 활용한 국어과 교육의 창의성 신장 방안: 초등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31,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정연희, “서술자, 시점을 통한 소설 감상 교육의 필요성과 방법”, 어문논집 53, 민족어문학회
정우기, “초등학교 학생들의 시텍스트 수용 양상 연구: 초등학교 6학년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31,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정재찬, “국어 수업 비평론”, 국어교육학연구 25, 국어교육학회
정재찬, “소통과 연대를 위한 국어교육”,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정재찬, “현대시 교육의 방향”, 문학교육학 19, 한국문학교육학회
정재형, “논술 학습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어문학교육 33, 한국어문교육학회
정정순, “초등학교 쓰기 교육에서의 동시 창작 교육의 방향”, 어문학교육 32, 한국어문교육학회
정주리, “문법교과서의 내용 개발을 위한 연구: 중학교 〈생활 국어〉 “음운과 음절” 단원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72, 한국국어교육학회
정주리, “중학교 〈생활국어〉에 나타난 문법영역 구성분석”,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정현선, “미디어 소통의 관점에서 본 인터넷 공론장의 언어문화”,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정현선, “어린이 대상 영상 창작 교육의 국어 교육적 함의”, 한국초등국어교육 3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정현선·이미숙, “초등학교 저학년 문학 수업에 대한 실행연구: 그림책 수업 담화 분석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1, 한국문학교육학회

정혜승, “교실 소통의 양상과 문제”, 화법연구 9, 한국화법학회
정혜승, “국어과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교육논총 26-1, 경인교대 초등교육연구소
정혜승, “읽기 태도 구인과 검사 도구의 요건”, 국어교육학연구 27, 국어교육학회
정혜승, “읽기 태도의 개념과 성격”, 독서연구 16, 한국독서학회
정혜승, “좋은 國語 敎科書의 요건과 團員 構成의 방향”, 어문연구 1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조미숙, “반공주의와 국어교과서: 1차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교과서의 선택과 배제 양상”, 새국어교육 74, 한국국어교육학회
조상우, “대중 문화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 방안: 〈싸이월드〉(cyworld)와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27, 우리어문학회
조윤형, “국어과 교육과정 해석의 상황과 양상 연구: 구전설화 제재 활용 단원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0, 한국문학교육학회
조재윤, “국어과 말하기·듣기 평가 실태 조사 연구”, 화법연구 9, 한국화법학회
조재윤, “말하기 평가 방법간 신뢰도 분석 연구: 초등학생의 설득하는 말하기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27, 국어교육학회
조창규, “국어교과서의 관용표현에 대한 연구: 7차 국어교과서 관용표현의 빈도와 교과 내용 분석을 주로 하여”, 배달말 38, 배달말학회
조효정, “논증 구조 익히기를 통한 주장하는 글쓰기 지도 연구”, 어문학교육 32, 한국어문교육학회
조흥욱, “고전문학 교육방법에 대한 소론”, 어문학논총 특별호,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조희정, “고전 리터러시의 ‘시공간적 거리감’ 연구”,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조희정, “심화 과목으로서의 고전 교육과정 개정 방향”, 문학교육학 20, 한국문학교육학회
조희정·서명희, “초등 교과서 수록 고전 제재 변천 연구(1): 건국 과도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 문헌 제재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19, 한국문학교육학회
주강식, “비유적 표현을 통한 시 쓰기 지도 연구”, 어문학교육 33, 한국어문교육학회
주세형, “국어지식 영역에서의 지식의 성격과 내용 체계화 방법론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5, 국어교육학회
주세형, “국어지식 영역의 규범성 패러다임: 창의성과 균형 잡기”,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주세형, “역대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매체 식별 교육 내용의 변천 양상과 국어교육사적 함의”, 국어국문학 143, 국어국문학회
주세형, “역대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문법 교육 내용의 목표 표상성 변천 양상”, 국어교육연구 17,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진선희, “독서 성향면에서 본 어린이 독자”, 독서연구 16, 한국독서학회
진선희, “학습독자에 대한 질적 연구 방법 고찰: 문학 반응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33, 청람어문교육학회
차혜영, “한국 현대소설의 정전화 과정 연구: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와 지배 이데올로기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국어 교육과 ‘국어’ 교과서, 돈암어문학회
차호일, “독서교육의 관점 변화 및 지향점”, 한국민족문화 27,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차호일, “문제해결 중심의 설명문 독해 전략 연구: 고등학교 국어과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72, 한국국어교육학회

천경록, “광주 지역 학습 부진아 교육 실태 조사”, 초등국어과교육 18 , 광주교대 초등국어교육학회

천경록, “독서 능력 표준화 검사 도구의 연구 개발”, 독서연구 15, 한국독서학회

최경봉, “문법 교과서의 내용 체계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어국문학 142, 국어국문학회

최경봉, “표준어 정책과 교육의 현재적 의미”,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최경희, “독서요법을 통한 아동의 인성지도 방안”, 청람어문교육 33, 청람어문교육학회

최경희, “초등학교 쓰기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새국어교육 73, 한국국어교육학회

최명환, “한국의 언어 문화와 글쓰기의 원리”,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최미숙, “국어과 평가의 반성과 탐색”,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육학회

최미숙, “대화 중심의 현대시 교수・학습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26, 국어교육학회

최미숙, “제7차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점검”, 국어교육학연구 27, 국어교육학회

최복자, “토론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11, 국어교과교육학회

최선영, “즉흥극을 활용한 동화지도 연구”, 어문학교육 33, 한국어문교육학회

최소영, “치료적 시문학 교육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시치료의 이해와 임상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0, 한국문학교육학회
최영환, "상생언어 연구의 과제",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최영환, "초등학교 국어교사 양성과정 개선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26, 국어교육학회
최용기, "교과서의 국어 표기 감수 제도 도입과 대책", 교과서연구 48,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최웅환,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시안에서의 매체 교육", 국어교육연구 39, 국어교육학회
최인자, "국어과 교사의 실천적 지식 성찰을 위한 방법론적 탐색: '성찰적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1, 한국문학교육학회
최인자, "상생 화용 교육을 위한 소통의 중층적 기제 연구", 국어국문학 144, 국어국문학회
최인자, "청소년 문학 경험의 질적 이해를 위한 독서 맥락의 탐구", 독서연구 16, 한국독서학회
최지현, "국어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국어교육학연구 26, 국어교육학회
최지현, "문학교사는 존재하는가: 문학교사에 대한 문학교육학 교수, 예비교사, 그리고 국어교사의 이해", 문학교육학 21, 한국문학교육학회
최지현, "중등학교 문학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교육과정용어 선정 및 범주화에 관한 연구(Ⅱ): 미국과 캐나다의 영어과 교육과정과 문학교육과정용어", 문학교육학 20, 한국문학교육학회
최지현·이충우·이정숙㉠, "언어영재성 판별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1): 평가 준거 및 기준 산출을 위한 이론적 검토",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육학회

최혜진, “고전시가교육과 문화콘텐츠”, 고전문학과 교육 1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최호철, “고등학교 국어 문법 교과서 분석 연구: 체재와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최홍원, “‘엇디ᄒᆞ리’ 표현을 통해 본 고전문학교육의 가능성”, 고전문학과 교육 1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최홍원, “놀이로서의 언어 교육 내용 연구: 상거래 담화를 중심으로”, 배달말교육 27, 배달말교육학회
최홍원, “성찰적 사고의 문학교육적 구도: 〈도산십이곡〉과 〈어부사시사〉를 대상으로”, 문학교육학 21, 한국문학교육학회
하성란, “대학국어 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강남대학교 ‘작문과 독서’ 강좌의 현황과 발전 방안”, 강남어문 16, 강남대 국어국문학과
한귀은, ““비유”를 통한 자아 탐색하기, 그 통합적 교육 방안”,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육학회
한귀은, “국어교과서의 영상 제작 활동 도입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27, 국어교육학회
한귀은, “소설과 텔레비전 드라마의 통합적 교육 방안: TV단막극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0, 한국문학교육학회
한귀은, “장소애 · 교육연극을 매개한 서사체 통합교육”, 배달말교육 27, 배달말교육학회
한귀은, “텔레비전 드라마 교육에 대한 장르별 접근: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18종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배달말 38, 배달말학회
한금윤, “대학에서 학제적 독서 교육의 실제와 전망”, 독서연구 15, 한국독서학회
한명숙, “읽기 교육과정과 문학 교육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문학교육학 19, 한국문학교육학회

한명숙, “초등 국어과 교과서 개발과 단원 구성 체재: 초등학생을 위한 다중 개발 체제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34, 청람어문교육학회

한창훈, “시가문학 장르의 교육과정 개정 방안”, 문학교육학 20, 한국문학교육학회

한창훈, “심화 선택 과목 ‘문학’교육의 내재적 가치”, 청람어문교육 34, 청람어문교육학회

허재영, “교육과정기 이전의 작문 교재 변천사”,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허재영, “국어과 교수 학습 이론 변천사”, 어문론총 44, 한국문학언어학회

허재영, “국정 중학교 국어과 교과서에서의 국어 지식 영역 변천”, 국어 교육과 ‘국어’ 교과서, 돈암어문학회

허재영, “독서 교육 연구사: 학교 독서 교육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15, 한국독서학회

허재영, “문법 교육의 내용과 교수-학습 이론 변천사”, 문법교육 4, 한국문법교육학회

허재영, “쓰기 교육과정의 변천과 이론적 배경”,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황정현, “문화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아동문학”, 한국어교육 24, 한국어문교육학회

황정현, “초등 국어과 교과서 구성의 방향과 원리: 창의적 국어사용 능력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34, 청람어문교육학회

황정현, “희곡문학 장르의 교육과정 개정 방안”, 문학교육학 20, 한국문학교육학회

황혜진, “〈학원〉의 심사평에 나타난 학생문예관 연구: 〈학원〉(1954.1-1956.2)의 “학원문예상”과 “학원문단”을 대상으로”, 국어

교육연구 17,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황혜진, “서사 텍스트의 주제 진술 방식 연구”, 독서연구 15, 한국독서학회
황혜진, “잡지 〈少年〉의 독자투고에 대한 어문교육사적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1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기타〉

김두루한, “중등학교의 신문 활용 논술 교육”, 한글새소식 407, 한글학회
김두루한, “훈민정음을 제대로 알자”, 한글새소식 409, 한글학회

한국어 교육

□ 한국어교육학 총론 □

〈단행본〉

국립국어원,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 최종 보고서』, (연구 책임자: 조선경),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 최종 보고서』, (연구 책임자: 조선경), 국립국어원
김충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수방법 연구』, 박이정
우형식 편저, 『(외국어로서의)한국어 교육론』,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황경수, 『한국어교육의 이해』, 청운

〈학위 논문〉

김영, 〈LA지역 한글학교의 한국어 교육 방안〉,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은미, 〈정부 ODA사업을 통한 한국어 국외보급의 효과적인 방안 연구〉, 상명대 교육대학원(석사)
도옥순, 〈태국에서의 한국어 문법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홍혜련, 〈태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초급과정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권현주, “일본 내 한국어 교재의 명칭에 대한 실태 분석”, 한국어교육 17-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권현주, “한국어 교육과 명칭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및 실태 분석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인문과학 38,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김병운, “BK21 동아시아 한국학 사업단 제1차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 한국학의 현황과 과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실태와 과제”, 한국학연구 15,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김상수·송향근, “한국어 교육의 오류분석 연구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31, 이중언어학회

김선정·허용·박동호, “외국학생 한국 언어·문화 연수 활성화 방안 -유학생 유치 문제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2-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김순녀, “제8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한국어교육 방법론의 재검토: 중국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말하기 교육 방법론”, 국어교육연구 18,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김영규, “한국어교육학 연구방법론의 과제와 전망”, 한국어교육 17-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정은, “이주노동자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교육자료 분석”,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김준희, “한국어 교사 양성 제도의 실태와 전망 -국어기본법 시행 이후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김중섭·조현용·이정희, “인터넷을 활용한 한국어 교사 교육 사례 연구”, 우리말연구 18, 우리말학회

김충실, “한민족 디아스포라(Diaspora)의 역사와 문화: 한국어교육

에서 한국 문학교육의 실태와 그 전망", 비교문화연구 18, 부산외대 비교문화연구소
박수연, "한국어 학습 사전의 연구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31, 이중언어학회
박영순, "한국어 교원 자격시험과 검정시험 제도: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교육", 새국어생활 16-2, 국립국어원
박준언, "특수목적외국어교육의 연구주제들",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석주연, "외국인 대학 신입생의 한국어 능력 실태 연구 -어휘, 문법, 쓰기 평가 결과의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11, 가톨릭대 인문과학연구소
송향근·김상수, "한민족 디아스포라(Diaspora)의 역사와 문화: 재중동포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비교문화연구 18, 부산외대 비교문화연구소
안경화, "제8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한국어교육 방법론의 재검토: 한국어 쓰기 교수학습법의 현황과 과제", 국어교육연구 18,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왕한석, "소외 계층의 언어 실태와 언어 정책: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언어 문제와 해결 방안", 새국어생활 16-1, 국립국어원
우영란, "중국의 한국어교육 현황 및 전망 -산동성(山東省)의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73, 한국국어교육학회
윤해연, "BK21 동아시아 한국학 사업단 제1차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 한국학의 현황과 과제: 중국 내 한국어문학 교육현장에서의 느끼는 문제점과 그 해법", 한국학연구 15,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윤희원, "제8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한국어교육 방법론의 재검토: 한국어교수법 연구의 전제와 방법", 국어교육연구 18,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이기종, “한국어 교육기관 운영론”, 한남어문학 30,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이병규, “한국어 교원 자격시험과 검정시험 제도: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제도와 그 운영 방안”, 새국어생활 16-2, 국립국어원
이상규 외, “한국어 교원 자격시험과 검정시험 제도: 좌담: 한국어 교원, 그들은 누구인가?”, 새국어생활 16-2, 국립국어원
이성순, “2006년 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실”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27, 우리어문학회
이은희, “미국 대학 한국어 강좌의 학습자 특성 연구 -워싱턴 대학의 경우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이정희·김중섭, “중국 대학 한국어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례 연구”, 이중언어학 31, 이중언어학회
임진숙, “지방 대학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목적 및 그에 따른 교육 방안 -영남대학교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와 문화 2-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장정렬,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법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법 차이를 중심으로”, 한남어문학 30,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전홍식,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교수 방법론에 관한 실제 조사 연구: 서울 시내 4개 대학의 말하기 교육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6,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조선경, “소외 계층의 언어 실태와 언어 정책: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 문제와 대응 방안”, 새국어생활 16-1, 국립국어원
조일영·윤창욱, “한국어 교육에서 텍스트 자료 수준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어문교육 15, 한국교원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조항록, “한국어 능력 평가 체계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조형일, “외국어로서의 언어 교육: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인문과학연구 11, 가톨릭대 인문과학연구소
채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 인문과학연구 12, 동덕여대 인문과학연구소
최은규, “유형별로 본 한국어 능력 평가의 실제와 과제 -배치 시험과 성취도 시험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7-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최은규, “한국어 교원 자격시험과 검정시험 제도: 한국어 교육과 교사 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새국어생활 16-2, 국립국어원
최정순, “한국어 교원 자격시험과 검정시험 제도: 한국어 교원 양성 제도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16-2, 국립국어원
최정순, “제8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한국어교육 방법론의 재검토: 의사소통적 한국어 구어 능력 개발을 위한 제언”, 국어교육연구 18,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허용·김하수·박동호·이병운·이삼형·최은규·윤유선·박주연, “학술 집담회: 바람직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 방안”, 이중언어학 31, 이중언어학회
황인교, “한국어 교육과정의 현황과 과제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하민탄, “BK21 동아시아 한국학 사업단 제1차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 한국학의 현황과 과제; 베트남에서의 한국학 현황 및 전망”, 한국학연구 15,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우메다히로유키,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몇 가지 문제점”,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禹尙烈, “국제학술대회논문: 세계화 시대의 국어국문학의 현황과 전망; 중국에서의 한국·국어국문학 현황 및 전망”, 어문논집 34, 중

앙어문학회
Nam Victor, “국제학술대회논문: 세계화 시대의 국어국문학의 현황과 전망: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교육”, 어문논집 34, 중앙어문학회
Neer Ja Singh, “인도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육학회
니르자씽, “인도에서 한국어 교육: 인도 학습자 중심으로”,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鄭丞惠, “對馬島에서의 韓語 敎育”, 어문연구 13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언어 내용 교육 □
- 발음 및 억양 -

〈단행본〉

허용·김선정, 『(외국어로서의)한국어 발음 교육론』, 박이정

〈학위 논문〉

김소야, 〈한국어 자음에 대한 중국인의 지각적 범주와 습득 연구: 평음, 경음, 유기음을 중심으로〉, 경북대 대학원(석사)
김은경,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음운 지도 방안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주연,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의문문 억양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유재선,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악센트 실현 양상 연구: 고저

(pitch)를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이미향, 〈발음 교수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음운 연구〉, 경북대 대학원(박사)
이소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 중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부산대 대학원(석사)
주명진,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교수 방안 연구: 발음오류와 변이음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황혜숙, 〈일본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교재 개발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Mozol Tatiana,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한국어 분절 음소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권용해, “어조청각법을 활용한 한국어 발음교정 연구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김소야, “한국어 평음/경음/기음에 대한 중국인의 지각적 범주 연구”,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김수희, “제8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한국어교육 방법론의 재검토: 한글 교육과 기초 발음 교육”, 국어교육연구 18,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김은애,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희선, “한국어 억양 습득과 지도 방법 연구: 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17-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희성·송지연·김기호,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모음 포먼트 연구”, 음성과학 13-3, 한국음성과학회

범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의 “ㄹ” 발음의 길이와 포먼트에 대한 연구”, 말소리 57, 대한음성학회
이미향, “한국어 발음 교수를 위한 한자어 음운현상 고찰”, 어문학 92, 한국어문학회
황현숙, “중국인의 문미 억양 실현 분석과 교육 방안 -반복의문문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73, 한국국어교육학회

□ 언어 내용 교육 □
- 어휘 -

〈학위 논문〉

고광도, 〈한국어의 다의어 교수・학습 방안〉,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곽단양,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완곡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김주희, 〈몽골 전래 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지도 방안: 재한 몽골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대 국제문화대학원(석사)
김지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관용표현 연구〉, 대진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춘호, 〈한국어와 일본어의 색채표현 「녹・청」에 관한 대조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김하나, 〈초급 한국어 학습어휘 선정 연구: 초급 교재와 평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배재대 대학원(석사)
박서향, 〈한국어 교재의 의미 분석을 토대로 한 다의어 교육 연구〉, 연세대 대학원(석사)
박용배,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방법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

으로〉, 인제대 대학원(석사)

손지영, 〈장이론을 활용한 외국어로써의 한국어 어휘교육〉, 상명대 교육대학원(석사)

오지혜, 〈언어 관련 속담을 통한 한국어 교육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임지아, 〈한국어 교육용 어휘에 관한 연구〉, 동아대 대학원(석사)

장수정, 〈국제이주여성을 위한 어휘교재 개발 연구〉, 상명대 교육대학원(석사)

장주화, 〈한·중 이형동의 한자어의 비교 연구〉, 중앙대 대학원(석사)

조선경, 〈한국어 신체 관련 다의어 교육 방법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은호, 〈한국어 외래어 교육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하수정,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신체 관용어 이해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郭爽,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중 동형 한자어의 의미 기술과 지도 방안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도 옥 루이엔,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연어 교수·학습 방안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谷崎美津子, 〈한국어 색채 표현 교육 연구: 한·일 색채 표현 대비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석사)

祝翠瑛, 〈한국어 관용적 비유표현 교육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서울대 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남길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에서의 어휘 기술 방법

론 연구", 한글 271, 한글학회
박현정,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어 교수, 학습 방안 연구", 문창어문논집 43, 문창어문학회
배현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 교수법 연구", 이중언어학 31, 이중언어학회
신명선,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육의 내용 연구",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신성철, "한국어 제1화자와 제2화자가 판정한 한국어 어휘의 수용성",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1, 연세대 한국어학당
안경화, "신문 수업용 어휘 목록의 작성 방향",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양지선, "동남아시아 한국어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 방안", 고황논집 38, 경희대 대학원
이윤진,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조형일, "한국어 어휘의 교육용 시소러스 개발 방안 연구", 선청어문 34, 서울대 국어교육과
진대연, "한국어 쓰기능력 구성요소로서의 어휘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황종,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반의어 교육 연구 -부정접두 한자반의어를 중심으로-", 문창어문논집 43, 문창어문학회
Lee Smith Angela, "어휘적 접근법을 통한 한국어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韓在永, "非漢字文化圈 韓國語 學習者의 漢字敎育을 위한 기초적 연구", 어문연구 13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언어 내용 교육 □
- 문법 -

〈단행본〉

김정선, 『(도표로 이해하는) 한국어 문법』, 신성출판사
백봉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하우
서상규 외, 『(외국인을 위한)한국어 학습 사전』, 신원프라임
이희자·이종희, 『(풍부한 관용구를 수록한)어미·조사 사전: 한국어 학습 학습자용』, 한국문화사
지현숙, 『한국어 구어문법과 평가, 1, 이론편』, 하우
진제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수업 대화 분석』, 커뮤니케이션북스
진제희,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문제 연구: 영어권 학습자의 화용적 실패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북스
宣德五 저·손정일 옮김, 『(중국에서의) 조선어 기초어법』, 서우얼출판사

〈학위 논문〉

강혜옥, 〈한국어 문법 교수를 위한 문법 의식 상승 과제 설계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김순희, 〈한국어 조사 교수법 연구: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숭실대 대학원(석사)
김유선,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대우법 교육방안〉,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정숙, 〈러시아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격조사 교육 방안 연구: 초급 단계 학습자를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현지, 〈한국어 접속문에서의 양보 표현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현진, 〈한국어 과거 시제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 학습자의 '-었-' 사용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호정, 〈한국어 교육 문법의 시간 표현 연구〉, 서울대 대학원(박사)

김화진,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거절 화행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노희진, 〈전화 담화 분석을 통한 맞장구 고찰: 한국어 모어화자와 일본어권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화여대 대학원(석사)

박선용,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 맞장구 어사 기능 분석〉,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지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요청화행 교육 방안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석사)

서광진, 〈한국어 의존용언 연구: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전북대 대학원(석사)

엄진숙, 〈한국어 청자존대 표현 '-요' 연구: 한국어 교육에의 적용〉,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유영홍, 〈한국어 피동 표현의 교재 내용 구성과 지도 방안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이선영, 〈한국어 교육을 위한 [추측] 표현 연구〉, 서울여대 대학원(석사)

이소현, 〈'-이/히' 형 부사어와 '-게' 형 부사어에 대한 한국어 교육학적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영,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보조용언 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이윤영, 〈한국어 문법 교육 방안 연구: 문법 형태 초점을 기반으로

하여〉,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진경,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사용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이하나, 〈영어권 한국어 고급학습자의 칭찬 응답 화행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전지원, 〈한국어 교육을 위한 칭찬 화행 연구: 칭찬 반응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선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담화표지 연구: {글쎄}, {뭐}, {좀}을 중심으로〉, 상명대 교육대학원(석사)
조련희,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조사 학습 순서에 대한 연구: 중국어권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광운대 대학원(석사)
지현숙, 〈한국어 구어 문법 능력의 과제 기반 평가 연구〉, 서울대 대학원(박사)
진정은, 〈한국어의 대립 접속부사 문법 기술 연구: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세원, 〈한국어 교재의 명사 은유 표현 교육에 관한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지영, 〈언어노출환경에 따른 중국인의 한국어 시제 습득 양상 연구: 이주노동자와 기관학습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석사)
하지선, 〈한국어교육을 위한 종결기능 연결어미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함계임, 〈접속부사의 한국어 교육학적 접근: '그러-'형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타카스카요코, 〈한국어 학습자의 전화 대화 종결부 연구: 일본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이화여대 대학원(석사)

후지카와 나오유끼, 〈일본어 「한자어+する」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의 연구와 지도법〉,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Nghiem Thi Thu Huong,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시간 표현 교육 방안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나카가와 마사오미, 〈일본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경어법 교육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나카무라 미카, 〈일본어 격조사 'に'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교육방안: 'に'의 '에' 이외의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모우리 미나, 〈전자 메일 텍스트 구조 연구: 한·일 전자메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郭寧,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의문사 교육방안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譚麗麗, 〈한국어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王思敏,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의존명사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강현화, "제8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한국어교육 방법론의 재검토: 한국어 문법 교수학습 방법의 새로운 방향", 국어교육연구 18,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권순희, "한국어 문법 교육 방법과 수업 활동 유형", 한국초등국어교육 31,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김경령, "A Study of Syntactic Processing in Korean Language Learners",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김은경, “시간의 연결어미 “-아/어서”의 통사론적 특성을 이용한 지도 방안”,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재욱, “한국어 미래범주 종결어미에 관한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24, 한국외대 한국어문학연구회
김재욱, “수업 구성 원리에 따른 한국어 문법 교수 방법”, 언어와 문화 2-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김정남,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에 대한 연구 -시제 및 연결어미 표현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김종국·신동일·박성원, “인터뷰평가의 담화분석 연구 -상호작용 담화모형 관점에서-”, 한국어교육 17-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호정, “한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 문법 지식 내용 연구 -관형 표현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김홍범, “외국인을 위한『한국어문법1』에 대한 몇 가지 문제 -학교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박건숙, “한국어 교재의 문법 교육 연구 -19세기 말의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박문자, “한국어 원어민 화자의 표현 형태 양상 조사 연구”,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서희정, “한국어 교육에서 부사 ‘좀’의 담화 기능”, 고황논집 39, 경희대 대학원
서희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접두파생어에 대한 연구 - 고유어 접두사를 중심으로 -”,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오문경, “의문사를 포함하는 ‘이/그/저/어느’ 체계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24, 한국외대 한국어문학연구회
오선영,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법 사전”에서의 기술 방법론 연구 -한국어 연결어미 “-아서”의 의미 기술을 중심으로-”, 문법교육 4, 한국문법교육학회

윤정화, ""-더-" 의미의 문화적 접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1, 연세대 한국어학당
이다미, "유표성과 L2 수량 분류사 습득", 이중언어학 31, 이중언어학회
이상혁, "파니니(Panini)문법의 원용과 우리말 학습 교재에 대한 시론 -규범생성문법적 시각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25, 한성대 한성어문학회
이소현, "'-이/히'형 부사어와 '-게'형 부사어의 한국어 교육학적 연구", 언어와 문화 2-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이유경, "한국어 높임법 교육의 기초 연구 -델파이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이중언어학 31, 이중언어학회
이주행, "한국어 청자 경어법의 교육 방안에 관한 고찰",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이지영, "담화 원리를 바탕으로 한 제안 기능 교육 내용 구성",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지영,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담화 능력 배양을 위한 담화 정보 활용",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해영, "국어 대우법의 종합적 검토: 한국어 교육에서의 대우 표현 연구", 국어학 47, 국어학회
이해영, "현지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화행 실현에 미치는 영향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이훈, "'-은/-는'의 순차적 교수에 대하여", 어문논집 35, 중앙어문학회
진기호, "어휘 의미를 활용한 유의적 문형 교수 방안 -"-는 것 같다, -나 보다, -는 모양이다"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최재오, "한-영 이중 언어 구사자들의 Code Switching 연구: 보편규

칙 및 언어제약조건의 재조명", 이중언어학 31, 이중언어학회
최해주, "한국어 교육을 위한 보조용언의 의미 범주 설정 및 그 활용 방안", 새국어교육 74, 한국국어교육학회
한송화, "외국어로서 한국어 문법에서의 새로운 문법 체계를 위하여 -형식 문법에서 기능 문법으로-",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함계임, "접속부사의 한국어 교육학적 접근 -'그러-'형의 접속 부사 중 양보의 접속부사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2-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홍윤기, "메타언어(Meta-Language)를 활용한 한국어 문법 교육 방법론 연구",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엥흐졸, "몽골인 韓國語 學習者를 위한 副詞格助詞 敎授-學習 方案 연구", 어문연구 13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Kyung Ryung Kim, "An Analysis on Language Accuracy through Grammatical Judgement Test", 언어학 14-2, 대한언어학회
오고시나오키, "상대방 소유물 사용시의 무언행위에 대해서 -피행위자측의 의식, 한일 청년 조사 결과로부터-", 한국어교육 17-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成知連, "初級 한국어 학습자의 語尾 使用 樣相", 어문연구 1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문학교육, 문화교육 □

- 문학 -

〈단행본〉

신주철, 『(한국어 교육에서)한국문학 교육의 이론과 실제』, 커뮤니

케이션북스

〈학위 논문〉

강혜민, 〈고전소설을 통한 한국어교육: 문화교육을 중심으로〉, 전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성은경, 〈소설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안미영,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수: 이청준의 단편 소설 〈눈길〉을 중심으로〉, 선문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은희, 〈소설을 통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신주철,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의 위계별 교수사례안 -현대시 작품을 활용하여-", 한국어교육 17-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최권진,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국어교육 17-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문학교육, 문화교육 □
- 문화 -

〈단행본〉

국립국어원, 『언어와 문화 교류를 위한 한국어 교육 네트워크』, (연구 책임자: 이준석),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한류 상품의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드라마로 배우는 생생 한국어(영어판)』, (연구 책임자: 서강대학교),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한류 상품의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드라마로 배우는 생생 한국어(일본어판)』, (연구 책임자: 서강대학교),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한류 상품의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드라마로 배우는 생생 한국어(중국어판)』, (연구 책임자: 서강대학교), 국립국어원
박영순,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림출판사
방인태, 『自主的 한국어 교육론: 문화생산의 원리와 방법』, 역락
In Ku Kim·Marshall,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읽기』, 한국문화사

〈학위 논문〉

김정록, 〈한국문화 인지도 및 정의적 태도와 한국어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박현옥, 〈유행어를 통한 한국 사회・문화 교육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전혜경, 〈한국어 문화수업 교수요목 구성 방안 연구: 단기과정을 위한 현장학습을 중심으로〉,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최현정,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문화 내용 분석〉, 순천대 교육대학원(석사)
Tientida Thamcharonkij, 〈한・태 양국의 『삼국지연의』 수용 비교를 통한 한국 문화교육 연구〉, 서울대 대학원(박사)

〈일반 논문〉

강현화, “외국인 학습자의 문화 요구조사 -문화교재 개발을 위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1, 연세대 한국어학당

권오경,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문화교육의 방향”, 어문론총 45, 한국문학언어학회
김영주, “고급 한국어 읽기 수업에서 정보 처리 접근법을 이용한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박석준, “한국어교육에서의 인터넷 문화 콘텐츠 활용 방안”,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백봉자, “문화 교육 자료의 개발 방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1, 연세대 한국어학당
주옥파, “중, 한 문화차이의 번역에 관한 소고”,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지현배, “한국어교원 자격시험의 문화영역 문항 연구”, 문학과 언어 28, 문학과언어학회
황인교,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1, 연세대 한국어학당

□ 한국어 교수 방법 □

〈단행본〉

남성우 외, 『언어교수이론과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사
허용·오문경, 『즐거운 한국어 수업을 위한 교실 활동 100』, 박이정

〈학위 논문〉

고현영, 〈귀국초등학생 한국어교육을 위한 국어 교과서 활용 방안〉,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미경,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읽기 텍스트 구성 연구: 다중 텍스

트(multiple texts) 활용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병선, 〈외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교사와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교사의 심리적 부적응에 관한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영희, 〈한국어 교육에서 영화 활용 수업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현진, 〈독일어권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 모형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박사)
김혜선, 〈총체적 언어 접근을 기반으로 한 한국어 교육방안 연구: 미주지역 교포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문병례, 〈영어권 아동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방안: 동화를 활용한 내용중심 교수법을 중심으로〉, 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송지현,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과제 중심 요구 분석〉, 이화여대 대학원(석사)
신효원, 〈한국어 교실 관찰 도구 K-COLT 개발〉, 이화여대 대학원(석사)
양민애, 〈상경계 전공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경제학 기본 개념 교육에 관한 연구: 속담 활용 모색을 통하여〉,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양현민, 〈한국어교육에서의 과제중심의 말하기 수업 구성 방안〉,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오선경, 〈대학 수학 목적의 한국어 듣기 교육 방안 연구: 강의 담화의 특질과 듣기 전략 적용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성미, 〈신학전공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내용 중심 교육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은영, 〈귀국초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 초급단계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정민, 〈한국어 학습전략 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과제별 언어학습전략을 기반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지영, 〈중급 재미동포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연구: 형태적 정확성 향상을 목적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전지수, 〈드라마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방법 연구〉, 선문대 교육대학원(석사)

진대연,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능력 발달에 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박사)

최명옥, 〈한국어교육에서의 시 텍스트 활용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유리, 〈시사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연구〉, 상명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주희, 〈한국어 고급학습자 교실의 상호작용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한유석, 〈한국어 학습과정을 매개로 한 한류의 재생산 과정: 태국의 한국어 학습을 중심으로〉, 전북대 대학원(석사)

홍순주, 〈시각자료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홍애란, 〈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황현주,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과제 단위 요구 분석: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伊藤貴雄, 〈입문기 한국어 교육방법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Nguyen Thi Huong Sen,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연구: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서울대 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김영만, “다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통합 교육 방안 -고급 수준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김정숙, “고급 단계 한국어 읽기 자료 개발 방안”,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김태자·김혜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읽기 교육의 화용론적 인식 지도”, 인문과학연구 11, 전주대 인문과학종합연구소
김현진, “프로젝트 수업의 구성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문금현,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다의어 학습 방안 -동사 “보다”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박선희, “時事를 활용한 小册子 제작 프로젝트 授業 模型 硏究 : 韓國語 高級班을 대상으로”, 어문연구 12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박선희, “영화를 활용한 한국어 고급반 프로젝트 수업 -공동 영화평 쓰기, 영화 가이드북 제작, 영화 제작 프로젝트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신혜원·김은아·김은영,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의 실제 -「ENJOY 한국어(韓國語)」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미혜, “고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토론 수업 방안”,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임지아, “의사소통적 교수법에 의한 한국어 교육 방법론”, 동남어문논집 22, 동남어문학회
장미라, “한국어 문장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방안 연구”, 국어국문학 142, 국어국문학회
장향실, “중국 대학의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쓰기 교육 연구 -

교수 요목 설계를 위한 교육 내용 선정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최권진, "통역을 위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 연구",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노마히데키·김진아, "NHK(일본방송협회) 텔레비전 교육 방송을 통한 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17-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타마라YU카플란, "제8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한국어교육 방법론의 재검토: 러시아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쓰기 교육 방법론", 국어교육연구 18,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안은희, "다언어 학습 시스템을 통한 웹 기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동경외국어대학『TUFS 언어모듈』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7-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최은규·장은아·남수경·채숙희, "초급 학습자를 위한 웹 기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연구 -"Click Korean"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한국어 교재 및 사전 개발, 교육과정, 평가 □
- 한국어 교재 및 사전 개발 -

〈단행본〉

현윤호,『과제중심 교재 설계와 지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대한나래출판사

〈학위 논문〉

강미영,〈한국어 교육에서의 그림자료 활용 방안 연구: 교재 중심으

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고범수,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 일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구지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부산·경남지역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권용해, 〈초급 한국어 교수법 모델 및 교재 구성에 대한 연구: 프랑스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균관대 대학원(박사)
권종분, 〈비언어적 요소를 고려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상명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명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자습용 문법 학습 교재 모형 개발 연구〉, 선문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순우, 〈의사소통 접근법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교재의 분석: 단원의 구성 중심으로〉, 선문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정헌, 〈한국어 교재 구성에 관한 연구〉, 공주대 대학원(박사)
안재홍, 〈러시아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교재개발 방향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윤지영, 〈한국어 초급 교재의 비교 연구: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배재대 대학원(석사)
윤혜리, 〈학문 목적 한국어 읽기 교재 개발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윤실, 〈한국어 고급 교재의 말하기 과제 분석〉,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은주,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초급 한국어교재 단원 내용 구성 방안: 의사소통 상황을 중심으로〉, 선문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윤경, 〈한국어 초급 교재의 교수 요목 개발 방안〉,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하재선, 〈비즈니스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모형 개발 연구: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상명대 교육대학원(석사)
홍정은, 〈과제 중심 한국어 교재의 과제 분석〉, 고려대 대학원(석사)
芦田麻樹子, 〈일본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대우법 교재 개발 연구〉, 상명대 대학원(석사)
溫薇, 〈한국어 초급 교재의 분석 및 개발 방안 연구: 중국인 학습자 관점으로〉, 한남대 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김선정·강현자, "한국어 관용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및 단원 제시",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김영선, "한국어 교육 발음 교재의 구성 방식과 내용", 우리말연구 18, 우리말학회
김영선, "한국어 교육 교재의 평가 기준 연구",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신현숙,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학습 활동의 현황과 변천 과정 연구",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광재, "중국 내 대학생용 한국문화교재 개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1, 연세대 한국어학당
이해영, "한국어 교재를 위한 어휘 및 문법 학습 활동 유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1, 연세대 한국어학당
이해영·최수진·임명걸·왕청청·필신연·정란, "한국학 전공자를 위한 한국 사회, 문화 교재 개발 방향",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정승혜, "일본에서의 한어(韓語) 교육과 교재에 대한 개관",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정연희·김세랑, "일본대학의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교

재의 만족도와 요구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7-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조선경,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차숙정,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교재 선택과 활용", 새국어교육 74, 한국국어교육학회

□ 한국어 교재 및 사전 개발, 교육과정, 평가 □
- 교육과정 -

〈학위 논문〉

김용임, 〈한국어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성수, 〈외국인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내용 선정을 위한 요구 분석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신문경,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외국인 대학생의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석사)
신영옥, 〈국내 이주노동자 자녀를 위한 초등예비교육과정 연구: 몽골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임승선, 〈이주노동자 대상 취업 전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상명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수현, 〈관광 안내원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연구: 태국과 캄보디아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연주, 〈주한 미군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아사리 텐세이,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고급 교육과정 개발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염창권, "중국 대학의 한국어학과에서, 한족 학생들의 한국어 습득 양상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32,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장미영,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체감형 한국어교육콘텐츠 개발 및 구성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최정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교육과정과 평가", 이중언어학 31, 이중언어학회

허재영, "한국어 교육의 입장에서 본 중국 동북3성의 우리 민족 학교의 〈조선어문〉 교과 연구", 겨레어문학 37, 겨레어문학회

황현주,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과제 단위 요구 분석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1, 연세대 한국어학당

□ 한국어 교재 및 사전 개발, 교육과정, 평가 □
- 교육평가 -

〈단행본〉

강승혜·강명순·이영식·이원경·장은아, 『한국어 평가론』, 태학사

〈학위 논문〉

이자련, 〈한국어 수업에서의 수행평가 방안 연구: 말하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아라, 〈한국어 말하기 수행 평가의 역류효과 비교 연구: 수정적 피드백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한미진, 〈국어과 어휘력 평가 문항 개발 연구: 10학년 지필 검사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니시야마 노조미, 〈한글능력검정시험의 구성과 문항 분석 연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김유정, “한국어능력시험의 난이도 분석 연구 -제6회～제8회 시험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종국·신동일·박성원, “인터뷰평가의 담화분석 연구 -상호작용 담화모형 관점에서-”, 한국어교육 17-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배정옥, “쌍방향 한영 이중언어 몰입 프로그램 학습자들의 미국에서의 모국어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쓰기능력 평가 연구”, 이중언어학 31, 이중언어학회
장은아·양길석, “한국어능력시험의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문항 분석 -한국어능력시험 제7, 8, 9회 3급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조용준·전선경, “한국어능력 평가로서의 빈칸 시험의 개발에 대한 기초적 연구”,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스가이요시노리, ““한국어능력시험”과 일본 “〈한글〉능력검정시험” 초급 문제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한국어 교재 및 사전 개발, 교육과정, 평가 □
- 교육정책 -

〈일반 논문〉

노형남, “이중언어교육정책의 멱함수(冪函數)성향(性向)”,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 대조분석, 오류분석, 중간언어 □

〈학위 논문〉

송춘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분석 및 교육 방법 연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신현정, 〈한국어 학습자들의 ‘-겠-’과 ‘-(으)ㄹ 것이’ 사용에 나타난 중간언어 변이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석사)

이석란, 〈교사의 오류 수정 유형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 반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석사)

이향화, 〈중국인의 한국어 학습상 오류 연구〉, 원광대 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김민애, “한국어 학습자 오류의 분석 방법 고찰”, 한국어교육 17-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영주, “영어권 고급학습자들의 조사 및 동사 어미 사용 -오류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1, 연세대 한국어학당

김정남,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에 대한 연구 -시제 및 연결어

미 표현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나은영,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분석 - 중급 학습자에서 나타나는 문법 오류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72, 한국국어교육학회
박덕유,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상에 대한 비교 연구 -상(相) 대립의 통사론적 표현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심혜령, "한자어 명사의 공기 관계와 중국어와의 비교 -1등급 기초 어휘 중 일부 한자어 명사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양순임, "중국인 학습자언어에 나타나는 한국어 종성에 대한 음향, 청취 음성학적 오류분석",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근용, "개교 60주년 기념 특별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오류 분석", 어문학논총 특별호,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이승연,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오류 표지 방안 재고", 이중언어학 31, 이중언어학회
조인정,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주격과 목적격 조사 대치 오류에 대한 비교언어학적 분석",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지현숙, "한국어 인터뷰 시험 담화에서 나타난 구어 문법적 오류 분석",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차숙정·송향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에서 나타나는 어휘 오류",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홍은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 연구 -대치 오류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1, 이중언어학회
제등명미, "1909년 간(刊) 『한어통(韓語通)』의 일본어와 한국어", 인문학연구 12, 한림대 인문학연구소
梁水香, "韓國語 學習者들의 連語 誤謬 연구", 어문연구 13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기타(학습자요인 및 학습자료 개발) □

〈학위 논문〉

김윤희, 〈학문적 구두발표에서의 메타언어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어 모어화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석사)

김은숙, 〈토의 상황에서 말차례 가지기에 관한 연구: '이주노동자 세상'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은선, 〈한국어 학위논문 서론의 장르 분석적 연구: 한국어 모어화자와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정임, 〈TV 프로그램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뉴스와 토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지순, 〈학술 논문 텍스트의 표지 분석: 국어학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안한나, 〈재미교포(Korean-American) 한국어 학습자의 정체성 지각에 관한 연구: 한국어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엽지연, 〈한국어 학습자의 좌절감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김기석, "제8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한국어교육 방법론의 재검토: 중국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번역 교육 방법론", 국어교육연구 18,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김영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내용영역 잡기에 관한 연구",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박은선, “한국어 학위논문 서론의 장르분석적 연구 -한국어 모어화자와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손희연, “한국어 수업 상황의 코드 스위칭 -프랑스의 한국어 수업에서 관찰되는 유형과 기능-”, 이중언어학 31, 이중언어학회
염창권, “중국 대학의 한국어학과에서, 한족 학생들의 한국어 습득 양상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 교재의 동원 및 활용 양상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74, 한국국어교육학회
진대연·김민애·이수미·홍은실,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텍스트에 대한 대조 수사학적 연구”,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교재 및 산문집 □
- 일반 목적 -

경남대학교 출판부, 『한국어: 세계의 한국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 경남대학교 출판부
경남대학교 출판부, 『한국어: 세계의 한국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2』, 경남대학교 출판부
국립국어원·한국어세계화재단(김유정 외), 『(초급) 한국어 쓰기』, 한림출판사
金慶淑, 『(일본인을 위한) 여보세요 한국어, 1』, 남두도서
金慶淑, 『(일본인을 위한) 여보세요 한국어, 2』, 남두도서
김숙자·김규진 저, 『오세암: 영화로 배우는 한국어』, 한국학술정보
김정선, 『(외국인을 위한) 기초 한국어 끝말잇기 쓰기』, 서우얼출판사
김준선, 『한국어 작문: 외국인의 한글공부를 위한』, 학문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재편찬위원회, 『(한달완성) 한국어 중급 말하기』,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재편찬위원회, 『(한달완성) 한국어 중급 쓰기』, 연세대학교 출판부
김충실·이길연·양동훈, 『관용어로 배우는 한국어』, 박이정
도원숙·Nghiem Thi Thu Huong, 『Easy Korean grammar: for foreigners』, LanguagePLUS
장미영·데니스 사뻐브스키, 『(러시아어 화자를 위한)실용 한국어 회화』, 한국문화사
한국어 연구팀, 『Korean wordbook for beginner』, 한국어
한서대학교 어학연수원, 『한국어, 1』, 한서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말이 트이는) 한국어: student book, 5』,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말이 트이는) 한국어: workbook, 5』,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한서대학교 어학연수원, 『한국어, 1』, 한서대학교 출판부
최권진 엮음, 『(속담으로 배우는)한국어, 1』, 한국문화사
한국어 연구팀, 『Korean wordbook for beginner』, 한국어
국립국어원, 『바른소리(일본어판)』, (연구 책임자: 최혜원), 국립국어원

□ 교재 및 산문집 □
- 학문 목적 -

김중섭, 『(외국인 학부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말하기』, 유씨엘아이엔씨
이채연·김라연·신윤경·김미숙·조병영, 『(유학생을 위한) 톡톡튀는

한국어, 5』, 박이정
이채연·김라연·신윤경·김미숙·조병영, 『(유학생을 위한) 톡톡튀는 한국어, 6』, 박이정
조현용, 『(외국인 학부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읽기』, 유씨엘아이엔씨

□ 교재 및 산문집 □
- 이주여성을 위한 -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한국어세계화재단,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 (연구 책임자: 조선경), 국립국어원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한국어세계화재단,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 (연구 책임자: 조선경), 국립국어원

□ 교재 및 산문집 □
- 산문집 -

구은희, 『한국어 사세요!: 미국에서 들려주는 생생한 한국어 교실 이야기: 구은희 산문집』, 고요아침

음성학 · 음운론

〈단행본〉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지역어 조사 질문지, 5』, 태학사
김선철, 『중앙어의 음운론적 변이 양상』, 경진문화사
김차균, 『중부 동해안 방언의 성조비교』, 글누림
김현, 『활용의 형태음운론적 변화』, 태학사
柳時郁, 『朝鮮文典』, 역락
유필재, 『서울방언의 음운론』, 月印
이복영, 『大阜島 地域語의 通時音韻論』, 한국학술정보
이상억, 『서울말 진경 구어 연구: 구어/문어 목록들 간의 비교, 음변화 규칙 및 '가지구, 말이야' 등의 분석』, 박이정
이상억, 『한국어 체언의 음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鄭仁浩, 『平北方言과 全南方言의 音韻論的 對比 硏究』, 태학사
최남희·최중호·이근영·송창선·박동근·허원욱·허재영·권재일·윤혜영·이석규·이수련·정동환·방운규·김준희·김용경·이만식·최용기·서은아, 『우리말 연구의 이론과 실제』, 경진문화사
최윤현 외, 『우리말 음운 연구의 실제』, 경진문화사
최재희, 『한국어 교육 문법론』, 태학사
태영M&B 편, 『한글 바르게 알고 쓰자, 1』, 태영M&B
태영M&B 편, 『한글 바르게 알고 쓰자, 2』, 태영M&B
한성우, 『평안북도 의주방언의 음운론』, 月印
허용·김선정, 『(외국어로서의)한국어 발음 교육론』, 박이정
KBS 한국어연구회, 『바른말 고운말, 2』, 한국방송출판

〈학위 논문〉

강준상, 〈초등학교 발음 교육 내용 연구〉, 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고광옥, 〈사이시옷 교육방법론〉, 세종대 교육대학원(석사)
고여운, 〈방송언어의 음운현상 고찰〉, 충남대 대학원(석사)
고정현, 〈한일 웹 게시판언어 비교연구〉,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곽숙영, 〈한국어의 어휘 대조 초점과 음소 대조 초점의 실현 양상〉, 고려대 대학원(석사)
곽진희, 〈현대국어의 탈락현상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김귀복, 〈조정래 소설 「아리랑」에 나타난 전북방언의 계량언어학적 연구: 음운 현상을 중심으로〉, 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성희, 〈세계의 자국어 교육과정 비교 연구: 한국,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세진, 〈경남 서남부 방언의 성조 연구〉, 충남대 대학원(박사)
김연화,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의 국어교육 연계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옥영, 〈강릉지역어의 음운탈락현상 연구: 최적성이론을 중심으로〉, 서강대 대학원(박사)
김용식, 〈국어 매체 언어의 음성 연기 연구〉, 경희대 대학원(박사)
김은경,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음운 지도 방안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정현, 〈『교린수지』의 표기와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주연,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의문문 억양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지윤, 〈한국어의 러시아어 표기에 관한 연구: 지명을 중심으로〉, 단국대 대학원(석사)

김현숙, 〈표준 발음법의 비판적 검토〉,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노창화, 〈한국어 어간말 자음군 단순화 연구: 'ㄺ'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류준, 〈충남 연기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문덕찬, 〈제주 지명어의 형태 · 음운론적 연구〉, 제주대 대학원(박사)
박근배, 〈창원지역어와 고성지역어의 대비 연구〉, 경남대 대학원(석사)
박미경, 〈박경리 소설「토지」에 나타난 서부 경남 방언의 계량언어학적 연구: 음운현상을 중심으로〉, 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선근, 〈경북 김천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박선영, 〈서울 지역어의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 모음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석사)
박선우, 〈국어의 유추적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박사)
박성미, 〈국어 불규칙 활용의 종합적 논의: 학교문법의 관점에서〉, 경남대 대학원(석사)
박영환, 〈통신언어의 음운론적 고찰〉, 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백은아, 〈/ㄹ/과 관련된 전주방언의 음운현상과 연결제약〉, 전북대 대학원(석사)
백혜준, 〈한 · 일 외래어의 표기체계에 대한 음운론적 비교고찰: 영어 차용어를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석사)
변선영, 〈진주 지역의 지명 연구: 형태 · 음운을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변용우, 〈국어 음운현상에 관여하는 형태 보존의 원리에 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박사)
석미향, 〈『초발심자경문언해』의 음운과 한글구결 연구: 송광사판 서

봉사판의 비교를 통하여〉, 울산대 교육대학원(석사)
소신애, 〈공시적 음운 변이와 통시적 음운 변화의 상관성: 함북 육진 방언을 대상으로〉, 서강대 대학원(박사)
손웅일, 〈정선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강원대 대학원(석사)
송호기, 〈전북 금마 지역 지명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엄수진, 〈국어 모음체계 변천사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엄춘영, 〈연변지역어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여은지, 〈병자일기의 표기와 음운 변화 연구〉, 전북대 대학원(석사)
오재혁, 〈체언말 자음의 교체 현상에 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석사)
윤미영, 〈용언 어간말 'ㅎ'의 표기에 대한 통시적 고찰〉, 성균관대 교육대학원(석사)
윤혜원, 〈단양 남부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이경희, 〈〈부모은중경언해〉 이본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이미향, 〈발음 교수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음운 연구〉, 경북대 대학원(박사)
이상녀, 〈강원도 영동 방언의 음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강원대 대학원(박사)
이은영, 〈≪법집별행록절요언해≫ 연구〉,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이태희, 〈국어 음절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박사)
장기순, 〈현대국어 '사이시옷' 교수-학습 방안〉, 단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장혜진, 〈대구 지역어의 세대 간 단모음 실현 양상 비교 연구〉, 고려대 대학원(석사)
정미라, 〈중학교의 바람직한 음운 교육 방법론 연구〉, 경남대 교육대

학원(석사)

정연아, 〈중의적인 관계관형절 구성의 운율 연구〉, 연세대 대학원(석사)

조가, 〈한 · 중 음운체계의 대조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조경하, 〈국어의 후두 자질과 음운 현상〉, 이화여대 대학원(박사)

조상진, 〈인터넷 통신 언어의 연구〉, 상지대 교육대학원(석사)

조현아, 〈광고언어의 국어 교육적 활용 방안〉,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주명진,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교수 방안 연구: 발음오류와 변이음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최남순, 〈나로도 방언 어류 명칭어 연구〉, 순천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성규, 〈구역 ≪신약젼셔≫의 국어학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최영란, 〈순천지역의 농기구 어휘 연구〉, 순천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창원, 〈용인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고려대 대학원(석사)

태려령, 〈『표준어 규정』에 반영된 음운현상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하세경, 〈현대국어 사잇소리 현상의 형태론과 음운론〉, 서울대 대학원(박사)

학미, 〈한국어와 중국어의 단모음 비교연구: 실험음성학적으로〉, 이화여대 대학원(석사)

한수정, 〈우리말 /ㅎ/의 음운현상과 제약〉, 부산대 대학원(석사)

황현숙, 〈중국인의 한국어 의문문 억양 실현 연구〉, 충남대 대학원(박사)

Mozol Tatiana,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한국어 분절 음소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강경심, “A Psycholinguistic Study of Korean Vowels: a Markedness Hierarchy in Speech Production”, 언어 31-4, 한국언어학회

강경심, “Are the Korean affricates alveolars or palato-alveolars?”,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12-3, 한국음운론학회

강옥미, “한국어의 /nl/과 /Ln/의 변동에 대한 대응이론 분석”,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강현석·이장희, “천안·아산지역어와 대구지역어에 나타나는 w탈락 현상의 비교연구”, 사회언어학 14-2, 한국사회언어학회

강흥구, “울진 방언 가사문학 작품의 성조 연구”,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고영림, “현대제주방언 단모음의 음향음성학적 특성 연구”, 한국언어문화 30, 한국언어문화학회

권경근, “국어의 음운론적 유형에 대한 연구”, 우리말글 37, 우리말글학회

권용해, “어조청각법을 활용한 한국어 발음교정 연구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김경란, “Suffix-centered allomorphy in Korean”,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12-2, 한국음운론학회

김경아, “‘햇빛’과 ‘햇볕’에 대한 단상”, 태릉어문연구 14,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김경아, “순경음의 변화에 대한 재론”, 인문논총 15, 서울여대 인문과학연구소

김경아, “음운과정의 자연성”, 태릉어문연구 13,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김기호·박윤진·전윤실, “영어권 화자의 국어 폐쇄음 발화와 지각”, 음성과학 13-4, 한국음성과학회
김남미, “/X병-/계 어간의 재구조화와 음운 과정”, 국어학 48, 국어학회
김노주, “A phonological weight effect on prosodic phrasing in Seoul Korean”, 음성 · 음운 · 형태론 연구 12-1, 한국음운론학회
김무림, “한국 한자음의 근대성(1) -반영 양상의 종합-”,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김미령, “An optimality-theoretic analysis of voicing-tone interactions in English and Korean”, 음성 · 음운 · 형태론 연구 12-3, 한국음운론학회
김봉국, “경기도 방언의 음운론적 특징”, 어문연구 51, 어문연구학회
김상수·송향근, “한국어 발음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김상태, “음운적 단어 설정에 대한 연구 -띄어쓰기 오류 분석을 통하여-”,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김선철, “국어대사전의 새로운 발음정보 처리 방법에 대하여”, 언어학 46, 한국언어학회
김세진, “창원 방언과 남해 방언의 성조 체계 비교”, 한글 274, 한글학회
김세환, “『정선 일어통편』에 보이는 어미 “-아/어(X)”의 교체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49, 한민족어문학회
김영선, “개화기 국어의 “이(j)” 동화 현상과 모음 체계”,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김영선, “한국어 교육 발음 교재의 구성 방식과 내용”, 우리말연구 18, 우리말학회
김영은·최성일·박상희, “단어 단위 접근법을 이용한 음운장애 아동

과 정상 아동의 음운 분석", 음성과학 13-4, 한국음성과학회
김원보, "제주방언화자의 세대별(20대, 50대, 70대) 단모음의 음향분석과 모음체계", 언어과학연구 39, 언어과학회
김유경·김문정·안종복·석동일, "청각장애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과 단어확인 능력의 상관연구", 음성과학 13-3, 한국음성과학회
김은애,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재봉, "말토막 경계와 연음의 발음", 초등국어과교육 18, 광주교대 초등국어교육학회
김정우, "지배음운론의 설명력 -"르"-불규칙 활용의 기술과 관련하여-", 우리말연구 19, 우리말학회
김정태, "충남방언 활용에서의 음성모음화", 어문연구 51, 어문연구학회
김종규, "운율적 단위와 단모음화 현상",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김종규, "음운현상의 수의성과 음장", 어문학 92, 한국어문학회
김종훈, "제주방언 단모음과 현대국어 단모음의 음향 분석 비교", 언어연구 21-3, 한국현대언어학회
김주필, "18세기 왕실 문헌의 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 정신문화연구 29-1,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주필, "개교 60주년 기념 특별호: ≪됴야긔문(朝野記聞)≫의 자음 관련 음운현상과 그 통시적 특성", 어문학논총 특별호,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김주필, "자석류(字釋類) 문헌의 원순모음화와 구개음화", 어문학논총 25,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김충명·김효선·남기춘, "모국어와 외국어 단어 산출에서의 의미정보 처리과정", 말소리 57, 대한음성학회
김태경·장경희·이필영, "한국어 발화 속도의 연령별 증가에 관한 연

구", 음성과학 13-3, 한국음성과학회
金玄, "中世國語 1音節 用言語幹의 音韻構造", 어문연구 13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김현기·최영숙·김덕수, "한국어 방언 음성의 실험적 연구", 음성과학 13-3, 한국음성과학회
김희선, "한국어 억양 습득과 지도 방법 연구: 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17-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희성·송지연·김기호,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모음 포먼트 연구", 음성과학 13-3, 한국음성과학회
김희성·송지연·김기호, "초점 발화시 한국인 화자와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모음 포먼트 실현", 음성 · 음운 · 형태론 연구 12-3, 한국음운론학회
박민영·고도흥·이윤경, "한국어-영어 이중언어사용아동의 음운인식 능력", 음성과학 13-2, 한국음성과학회
박선우, "접두파생어의 음절화에 대하여",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박선우, "한국어 /nl/의 비음화에 대한 유추적 분석", 언어연구 23-2, 경희대 언어연구소
박선우, "한국어 체언말 마찰음화의 유추적 분석", 음성 · 음운 · 형태론 연구 12-1, 한국음운론학회
박숙희, "구조·생성음운론적 성조 기술 방법", 국어교육연구 39, 국어교육학회
박숙희, "안동·성주·경주 방언의 성조 비교", 한글 272, 한글학회
박종희, "경구개 변이음의 발생과 파찰음화", 한글 272, 한글학회
박철주, "PC 통신언어 명사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裵株彩, "표준발음법의 理想", 어문연구 1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백두현, "『속사씨남정기』의 서지, 국어학적 연구", 구결연구 17, 구결

학회
범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의 “ㄹ” 발음의 길이와 포먼트에 대한 연구”, 말소리 57, 대한음성학회
서미선, “Motivation for phonological modifications of stop plus sonorant sequences”,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12-1, 한국음운론학회
서정민, “전전이음 [j]와 [w]에 관한 유형론적 분석”, 언어 31-3, 한국언어학회
서정민·조학행, “국어의 경음화현상과 불투명성: OT-CC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9, 한국언어문학회
석동일, “단어단위 접근법에 의한 3~5세 유아의 음운특성 분석”, 언어치료연구 15-1, 한국언어치료학회
성희제, “대전 서남부 지명어의 음운과 형태 연구”, 어문연구 52, 어문연구학회
소강춘, “2006년 봄 중점학술발표 대회: 문학과 방언; 방언 음성 자료의 전산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42, 국어국문학회
소신애, “수의적 교체를 통한 점진적 음운 변화 -함북 육진 방언의 진행 중인 변화를 중심으로”, 국어학 48, 국어학회
소신애, “음운론적 변이의 유형과 요인 - 함북 육진 방언을 중심으로 -”, 어문연구 12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손형숙, “Morphological basis of sonorant assimilation in Korean”,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12-2, 한국음운론학회
신수진·신지철·윤미선·김덕용, “말속도가 인공와우 청각장애인의 문장지각에 미치는 영향”, 음성과학 13-2, 한국음성과학회
신승용, “수의적 음운 현상의 종류와 그 특성”, 국어국문학 142, 국어국문학회
신영주·서유경·안성우, “아동의 언어능력 수준에 따른 음운인식 특

성 비교 연구", 언어치료연구 15-4, 한국언어치료학회
신지영, "국어 음운론 지식의 교과서 수용 실태와 문제점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신지영, "표준 발음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안미애, "대구 지역 방언에 나타나는 접속구의 경계 성조", 음성과학 13-4, 한국음성과학회
안주호, "근대국어 시기의 진언표기 연구", 한국언어문학 59, 한국언어문학회
양순임, "중국인 학습자언어에 나타나는 한국어 종성에 대한 음향, 청취 음성학적 오류분석",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오미라, "ㄴ-삽입 환경의 재검토", 언어학 14-3, 대한언어학회
오미라, "Output-based Variants in Korean Inflectional Morphology", 언어 31-1, 한국언어학회
오세준, "중국 상고음 학설로 본 고대국어 표기 "시(尸)"의 음가", 새국어교육 72, 한국국어교육학회
오승신, "음성학과 음성정보처리: 대화형 음성인터페이스 시스템을 위한 국어 문말 경계억양의 분류", 인문논총 56,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오종갑, "'ㅜ/ㅗ+ㅓ/ㅏ'의 음운론적 변화와 영남방언의 위상", 어문학 92, 한국어문학회
위진·손희하, "전남 방언 "실겅"과 "살강"에 대한 음운론적 분석", 한국언어문학 57, 한국언어문학회
윤영도, "Dual Status of On-glides in Korean Syllables", 언어학 14-1, 대한언어학회
윤영도, "The Underlying Representation of Stem-final Segments in Korean P-irregular Predicates", 언어 31-4, 한국언어학회

윤영해, “러시아어 화자들의 중간언어 음운 연구”, 언어와 문화 2-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윤지혜·신지철·김덕용·서미경·김향희, “우반구 손상 환자의 한글 실서증 특징”, 음성과학 13-3, 한국음성과학회
이경자, “우리말 연구 -『돌출(突出)』 개념 낱말 중심-”, 인문학연구 33-1,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이동석, “신문 방송 언어의 실태와 언어 규범”,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이동석, “효과적인 사이시옷 표기 교육”, 새국어교육 72, 한국국어교육학회
이문규, “국어 성조 체계의 성조형 대응 양상”, 어문학 93, 한국어문학회
이미향, “영어계 외래어 수용으로 본 한국어 음절구조 고찰 -한, 일 영어계 외래어 대조를 통해-”, 언어과학연구 36, 언어과학회
이미향, “한국어 발음 교수를 위한 한자어 음운현상 고찰”, 어문학 92, 한국어문학회
이민경, “Asymmetry in Korean Umlaut: Variation vs. Optionality”, 현대문법연구 43, 현대문법학회
이민경, “Gyeongsang Korean /n/-insertion revisited”,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12-3, 한국음운론학회
이봉형, “Comparing English and Korean Consonantal Deletions: A Perceptual Perspective”, 언어연구 21-2, 한국현대언어학회
이상직, “구성원소 이론과 국어의 자음표시”, 언어학 46, 한국언어학회
이상태, “말소리의 정책과 교육”, 어문학 94, 한국어문학회
이성하, “Formal Variation and Colloquiality in Korean: Implications on the Grammaticalization Theory”, 현대문법연구

45, 현대문법학회
이세창, “설정성 자음의 비음화와 설측음화에 관한 연구”, 음성 · 음운 · 형태론 연구 12-3, 한국음운론학회
이용성·이민경, “n-Insertion as y-Devocalization in Korean”, 언어 31-3, 한국언어학회
이은선·석동일, “읽기과제를 통한 학령기전 아동과 학령기 아동의 연음규칙 인식에 대한 비교 연구”, 언어치료연구 15-1, 한국언어치료학회
이장희, “고구려어의 어말모음 교체에 대하여”, 언어과학연구 39, 언어과학회
이주희, “Typology of interdental fricatives with reference to loanword adaptation”, 음성 · 음운 · 형태론 연구 12-1, 한국음운론학회
이진호, “국어 음운론 연구의 성과와 전망”, 배달말 39, 배달말학회
李珍昊, “國語 音韻論의 中間 層位”, 어문연구 1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이진호, “우리말 접사의 음운론적 고찰”, 우리말연구 19, 우리말학회
이진호, “음운 규칙의 공시성을 바라보는 시각”, 국어학 47, 국어학회
이찬주, “국어 자음동화에서의 제약”, 문창어문논집 43, 문창어문학회
이태희, “중세국어 음절말 중화에 대한 분석적 연구”, 언어연구 23-1, 경희대 언어연구소
이희두, “움라우트 불투명성의 통시적 고찰”, 언어학 14-3, 대한언어학회
임규홍, “한국어 첫소리 [ㅁ]과 [ㅂ] 낱말의 의미특성”, 우리말글 37, 우리말글학회

임보선, “어간말 자음군의 변화 요인에 대하여”, 반교어문연구 21, 반교어문학회
임종아·황민아, “경계선지능 언어발달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문법성 판단 및 오류수정”, 음성과학 13-2, 한국음성과학회
임지원·성철재, “한국어 방송 광고 헤드카피에 대한 운율 분석”, 언어학 46, 한국언어학회
장혜진·신지영, “대구 방언 단모음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한 음향 음성학적 연구”, 말소리 57, 대한음성학회
전선아, “문장처리에서 억양이 하는 역할”, 인문학연구 33-1,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전종호·이혜민, “한국어 부분중첩에서의 가변적 접사”,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12-1, 한국음운론학회
전철웅, “대호 이응조 교수 정년 기념호: 충북방언의 어휘음운론 서설(5)”, 인문학지 33,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정경일, “교정전운옥편 속음의 유형별 고찰”, 우리어문연구 27, 우리어문학회
정영호, “ㅎ말음의 변화와 어간 재구조화”, 한민족어문학 49, 한민족어문학회
정영희, “Loanword phonology and learnability: A case from North Kyungsang Korean”,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12-3, 한국음운론학회
정인호, “제2음절 이하의 “ㅇ” 변화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 101, 진단학회
정진완, “An aspect of dialectal variations in Korean phonology: a constraint-based analysis”,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12-2, 한국음운론학회
조성미·정옥란, “섹시한 음성의 음향학적 특징 연구”, 말소리 57, 대

한음성학회
조오현, “ㄷ구개음화 발생의 역사적 전개 과정”, 동남어문논집 22, 동남어문학회
최미현, “이중 한자음에 나타나는 입성운미 /-t/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최상홍, “국어 단모음 /에/와 /애/의 세대와 성별 차이에 대한 음성학적 연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21, 반교어문학회
최순애·성철재, “한국어 비음의 음향학적 구분을 위한 장구간 스펙트럼(LTAS) 분석”, 말소리 60, 대한음성학회
최원평, “한, 중 의성어의 형태적 음운적 특징”, 한국언어문화 31, 한국언어문화학회
최중호, “≪계림유사≫의 유기음에 대해서”, 우리말연구 18, 우리말학회
최중호, “고구려말의 모음 /어/에 대해”, 동남어문논집 21, 동남어문학회
최중호, “고려시대 자음체계 연구”, 새얼어문논집 18, 새얼어문학회
하세경, “사잇소리와 합성명사의 내부구조”, 음성 · 음운 · 형태론 연구 12-1, 한국음운론학회
한성우, “국어 단어의 음소 분포”, 어문학 91, 한국어문학회
韓成愚, “國語 音素 分布의 通時的 變化”, 어문연구 1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한은주, “Vowel coalescence and faithfulness”, 음성 · 음운 · 형태론 연구 12-3, 한국음운론학회
한정임, “Language-Specific Patterns of V-to-V Carryover Coarticulation: Acoustics and Perceptual Compensation”, 언어 31-3, 한국언어학회

한정임, “On the development of anticipatory coarticulation in Korean/English interlanguage”,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12-1, 한국음운론학회

한지연·이옥분, “연속구어 내 발성 종결-개시의 음향학적 특징”, 음성과학 13-2, 한국음성과학회

허용, “모음교체 현상의 보편성 연구 -영어, 아랍어, 한국어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홍미주, “일상 발음과 언어규범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사회언어학 14-1, 한국사회언어학회

홍순현, “/n/-insertion in native Korean and Sino-Korean revisited”,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12-2, 한국음운론학회

황보영식, “Three-syllable domains in some tone languages”,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12-3, 한국음운론학회

황현숙, “중국인의 문미 억양 실현 분석과 교육 방안 -반복의문문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73, 한국국어교육학회

Chang Kook Suh·Seok Mun Pak, “A Contrastive Analysis of [h]-deletion: English vs. Korean”, 언어연구 21-1, 한국현대언어학회

Geraldine Vercher·In Young Kim·Hi Yon Yoo, “Whispering French and Korean: A Comparative Study”, 언어연구 23-2, 경희대 언어연구소

Gyung Ran Kim, “Opacity in Optimality Theory with Candidate Chains”, 현대문법연구 46, 현대문법학회

Hee Heon Park, “The Analysis on Korean Sonorantization in Government Phonology”, 언어학 14-1, 대한언어학회

Hyun Kyung Hwang, “Intonation Patterns of Wh-interrogatives in South Kyungsang Korean and Fukuoka Japanese”, 언어학 45, 한

국언어학회

Hyung Soo Kim, “Underlying Bases for Reduplicated and Sound Symbolic Words in Korean: The so-called smphatic suffixation revisited”, 언어 31-2, 한국언어학회

Hyunsook Kang, “An Acoustic Study of the Perceptual Significance of F2 Transition of /w/ in English and Korean”, 음성과학 13-4, 한국음성과학회

Jung Min Jo·Seok Keun Kang·Tae Jin Yoon, “A Rendezvous of Focus and Topic in Korean: Morpho-syntactic, Semantic, and Acoustic Evidence”, 언어학 14-2, 대한언어학회

Kwang Sup Kim, “Focal Ellipsis and Echo Questions”, 현대문법연구 46, 현대문법학회

Michael Kenstowicz·Chiyoun Park, “Laryngeal Features and Tone in Kyungsang Korean: a Phonetic Study”, 음성 · 음운 · 형태론 연구 12-2, 한국음운론학회

Sahyang Kim, “The Role of Prosodic Boundary Cues in Word Segmentation in Korean”, 음성과학 13-1, 한국음성과학회

Sun Hee Kim·Je Hun Jeon·Min Soo Na·Min Hwa Chung, “Irregular Pronunciation Detection for Korean Point-of-Interest Data Using Prosodic Word”, 말소리 57, 대한음성학회

Tae-Hwan Choi·Nam-Sil Lim·Jeong-Im Han, “Effects of Word Frequency on a Lenition Process: Evidence from Stop Voicing and /h/ Reduction in Korean”, 음성과학 13-3, 한국음성과학회

Young Hee Chung, “Emergence of Universal Grammar in Loanword Phonology of North Kyungsang Korean”, 언어학 44, 한국언어학회

〈기타〉

김지형, “장단음 구별은 필요한가?”, 쉼표, 마침표. 6, 국립국어원
김창진, “장단음 구별은 필요한가?”, 쉼표, 마침표. 6, 국립국어원
이기만, “떴다, ㅅ”, 한글새소식 404, 한글학회
정재도, “‘ㄹ’의 신비”, 한글새소식 403, 한글학회
천소영, “된소리 발음과 극단적 표현”, 새국어생활 16-4, 국립국어원

형태론

〈단행본〉

고창운, 『국어 형태론의 기초』, 푸른사상사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지역어 조사 질문지, 5』, 태학사
권재일,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김규철 외, 『어문학 연구의 넓이와 깊이』, 역락
김기종·리영순, 『조선어문법론』, 한국문화사
김성란, 『근대국어의 종결어미 연구: 노걸대류 언해본을 중심으로』, 역락
김의수, 『한국어의 격과 의미역: 명사구의 문법기능 획득론』, 태학사
김진호, 『재미있는 한국어 이야기』, 박이정
김충실, 『중한문법대조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김태엽, 『국어학개요』, 대구대학교 출판부
김현, 『활용의 형태음운론적 변화』, 태학사
김홍석, 『형태소와 차자표기』, 역락
남기심 외, 『왜 다시 품사론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柳時郁, 『朝鮮文典』, 역락
박철주, 『「대명률직해」의 국어학적 연구』, 일지사
백문식, 『우리말 부사 사전』, 박이정
서정수, 『국어문법』, 한세본
송성헌, 『한국 언어와 문학』, 올린책상
시정곤, 『현대국어 형태론의 탐구』, 月印
오충연, 『상과 통사구조』, 태학사

이상억, 『한국어 체언의 음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석주·이주행, 『한국어학 개론』, 보고사
이선영, 『국어 어간복합어 연구』, 태학사
최남희·최중호·이근영·송창선·박동근·허원욱·허재영·권재일·윤혜영·이석규·이수련·정동환·방운규·김준희·김용경·이만식·최용기·서은아, 『우리말 연구의 이론과 실제』, 경진문화사
최재희, 『한국어 교육 문법론』, 태학사
태학사 편집위원회, 『國語學論叢: 李秉根先生退任紀念』, 태학사
한길, 『현대 우리말의 형태론』, 역락
허동진 저 ·연변노교수협회 편찬, 『한국어 어미의 뜻과 쓰임』, 한국학술정보
허동진 저 ·연변노교수협회 편찬, 『한국어 조사의 뜻과 쓰임』, 한국학술정보
홍종선 외, 『후기 근대국어 형태의 연구』, 역락
Yong-Kun Ko 외 편, 『Whither morphology in the new millenium? / 21세기, 형태론 어디로 가는가: 형태론의 과제와 전망』, Pajijong Press

〈학위 논문〉

강주혜, 〈한・일 의태부사의 대조 연구: 「이/히」와 「と」・「に」를 중심으로〉, 단국대 대학원(석사)
고대영, 〈현대국어의 후치사에 대한 연구: '없이, 밖에, 말고'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석사)
곽인실, 〈한・일 수량사의 비수량적 용법〉,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나영, 〈국어 의존명사의 통합 양상 분석〉,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

원(석사)
김민호, 〈불규칙 활용에 대한 고찰과 지도방안〉, 전북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선영, 〈특수조사 '-은/-는' 연구〉, 인천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성남, 〈국어 인칭대명사의 역사적 연구〉, 동의대 대학원(석사)
김예브게니아, 〈한·러 대명사 대조 연구: 인칭대명사를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석사)
김은명, 〈토씨의 분류 체계 변천에 관한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지은, 〈한국어 형태소 '-었-' 연구〉, 부산대 대학원(석사)
김현석, 〈특수조사의 의미 분석 -'는, 도, 만'을 중심으로-〉, 서남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효진, 〈한국어 조사 '만'과 '밖에'의 분포와 의미〉, 서울대 대학원(석사)
段芳玲, 〈한국어와 중국어 파생접사의 대조연구: 명사 파생의 의미 범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석사)
도브라노바 밀레나, 〈한국어와 불가리아어 격 체계 비교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류정아, 〈영어 외래어의 형태·의미론적 특성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석사)
문갑순, 〈제주 방언 부사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석사)
문덕찬, 〈제주 지명어의 형태·음운론적 연구〉, 제주대 대학원(박사)
미에미에머, 〈한국어 보조용언 '보다'와 미얀마어 보조용언 'kkyi'의 대조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박근배, 〈창원지역어와 고성지역어의 대비 연구〉, 경남대 대학원(석사)

박미영, 〈개화기 신문에 나타난 조사의 연구: 〈뎨국신문〉과 〈독닙신문〉을 대상으로〉, 울산대 교육대학원(석사)
박부자, 〈한국어 선어말어미 통합순서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박사)
박선영, 〈현대 국어의 시제형태소 '-었-, -는-, -겠-, -더-'에 관한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성미, 〈국어 불규칙 활용의 종합적 논의: 학교문법의 관점에서〉, 경남대 대학원(석사)
박옥출, 〈어미의 통합 범위에 대한 국어학사적 연구〉, 경남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용찬, 〈15세기 국어 연결어미와 보조사의 통합형 연구〉, 서울대 대학원(박사)
박현아, 〈한국어 서술성 명사의 실현 양상 연구〉, 고려대 대학원(석사)
方香玉, 〈「어제내훈」의 어휘론과 형태론〉, 조선대 대학원(석사)
배선미, 〈Grammaire coreenne에 대한 연구〉, 순천대 교육대학원(석사)
변선영, 〈진주 지역의 지명 연구: 형태·음운을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서광진, 〈한국어 의존용언 연구: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전북대 대학원(석사)
성근춘, 〈한·중 접미파생어 대조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송이규, 〈존대법 '-삽-'의 변화에 대한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송호기, 〈전북 금마 지역 지명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안수정, 〈수 분류사의 유형적 특성 연구: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석사)

엄춘영, 〈연변지역어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왕유, 〈한국어 보유 보조동사 연구〉, 인제대 대학원(석사)

이경희, 〈〈부모은중경언해〉 이본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이금희, 〈인용문 형식에서 문법화된 어미·조사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박사)

이상금, 〈중세국어의 다소 표현 형용사에 대한 문법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이지연, 〈한국어 보조사에 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석사)

이해진, 〈학교문법에서의 보어의 범위 연구〉, 서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이현희, 〈국어 접사 범주에 관한 연구: 접사와 인접 범주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박사)

장인옥, 〈의존명사의 형태 의미론적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성미, 〈'-하다' 형용사의 형태 구조와 논항 구조 연구〉, 강원대 대학원(박사)

정혜선, 〈19세기 국어의 '원인' 통합형 접속어미 연구〉, 서강대 대학원(석사)

정희영,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근대국어 시제 연구: 춘향전을 중심으로〉, 영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조민진, 〈'-겟-' 의 문법화 과정 연구〉, 서강대 대학원(석사)

조위영, 〈한국어의 능격성 제약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진정은, 〈한국어의 대립 접속부사 문법 기술 연구: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성규, 〈구역 《신약젼셔》의 국어학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최영란, 〈순천지역의 농기구 어휘 연구〉, 순천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은숙, 〈4-6세 아동의 용언 활용 발달〉, 단국대 대학원(석사)
토야라차, 〈현대 한·몽 격조사 비교 연구〉, 공주대 대학원(석사)
하세경, 〈현대국어 사잇소리 현상의 형태론과 음운론〉, 서울대 대학원(박사)
하정수, 〈부사파생어의 저지현상 연구〉, 동국대 대학원(석사)
하지선, 〈한국어교육을 위한 종결기능 연결어미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한명주, 〈현대국어 형식명사 구성의 양태성 연구〉, 서강대 대학원(석사)
홍세아, 〈개화기 신문에 나타난 어미의 연구: 〈독닙신문〉과 〈뎨국신문〉을 대상으로〉, 울산대 교육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강명순, “남북한 언어의 사·피동사 비교 연구”, 어문연구 51, 어문연구학회
강옥미, “한국어의 /nl/과 /Ln/의 변동에 대한 대응이론 분석”,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고광모, ““-게 ᄒᆞ-”로부터 발달한 종결어미들”, 언어학 46, 한국언어학회
고은숙, “근대국어 연결어미의 기능 연구 -역학서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27, 우리어문학회
고창수, ““이다” 구문의 자질 연산”, 한성어문학 25, 한성대 한성어문학회

권순구, “보조용언 ‘버리다’의 양태 의미”, 어문연구 51, 어문연구학회
김건희, “형용사문의 주어와 의미역 설정에 관하여”, 언어학 44, 한국언어학회
김건희, “형용사의 부사적 쓰임에 대하여 -‘-이’와 ‘-게’ 결합형을 중심으로-”, 형태론 8-2, 박이정
김경란, “Suffix-centered allomorphy in Korean”,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12-2, 한국음운론학회
김기성, “현대 몽골어와 한국어의 연결어미 대조 연구 - 현대 몽골어의 접속연결어미를 중심으로-”, 몽골학 20, 한국몽골학회
김상태, “음운적 단어 설정에 대한 연구 - 띄어쓰기 오류 분석을 통하여 -”,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김선영, “형용사 범주 설정에 대한 재고찰”, 돈암어문학 19, 돈암어문학회
김선웅, “A C-stranding Analysis of Null Complementizers”, 현대문법연구 45, 현대문법학회
김세환, “『정선 일어통편』에 보이는 어미 “-아/어(X)”의 교체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49, 한민족어문학회
김수태, “물음법 씨끝의 체계”, 한글 274, 한글학회
김양진, “타동사 ‘*식다’를 찾아서”, 어문연구 1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김유범, “우리말 접사의 국어사적 고찰 -시대별 개관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19, 우리말학회
김유범, “형용사 “지다”의 형성과 역문법화”, 우리말연구 18, 우리말학회
김정대, “어미의 지배 범주에 대한 주시경(1910)의 인식”, 우리말글 37, 우리말글학회

김정우, “라디오 광고언어에서 2인칭 대명사의 사용 양상”, 우리어문연구 27, 우리어문학회
김천학, “국어의 동작상과 동작류”,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김태엽, “2006년 봄 중점학술발표 대회: 문학과 방언: 현진건 소설의 방언 연구”, 국어국문학 142, 국어국문학회
김태엽, “김동리 소설에 나타나는 경북 방언”, 우리말글 38, 우리말글학회
김태엽, “이병각 작품에 나타난 경북 방언”, 어문연구 51, 어문연구학회
김현주, “후기 중세국어 {-숩-}의 기능 -‘존대되는 존재’의 파악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김호정, “한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 문법 지식 내용 연구 -관형 표현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나은미, “접미사 “-음, -기”의 범주와 의미에 대한 연구”, 한성어문학 25, 한성대 한성어문학회
남경완·최정혜, “중의 어절의 문법 범주별 유형 연구”, 민족문화연구 4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남지순, “한국어 명사구성비자립어(NXF) 전자사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논의”,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남지순, “한국어 의존명사 전자사전 어휘부 구성을 위한 연구”, 언어학 44, 한국언어학회
노명희, “국어 한자어와 고유어의 동의중복 현상”, 국어학 48, 국어학회
목정수, “한국어 문법 체계에서의 ‘이다’의 정체성”, 어문연구 1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睦正洙, “韓國語 문법 체계에서의 ‘이다’의 正體性”, 어문연구 1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박동근, “내적변화에 의한 파생과 유표성 -흉내말의 홀소리 교체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박만규, “합성명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멜축 형태론의 관점에서”, 인문논총 55,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박석문, “부사 형성 접미사 “-시”에 대하여”, 반교어문연구 20, 반교어문학회
박선우, “접두파생어의 음절화에 대하여”,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박종덕, “으뜸풀이씨 ‘있다’의 씨갈”, 한글 274, 한글학회
박진호, “자연언어처리와 국어 연구”, 국어국문학 143, 국어국문학회
박철우, ““이다” 구문의 통사구조와 {이}의 문법적 지위”,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박철주, “『대명률직해』와 현대국어 간의 조사 ‘과(果)’의 쓰임 차이에 대한 연구”, 반교어문연구 21, 반교어문학회
박철주, “『대명률직해』의 부정사에 대한 연구”, 우리말연구 18, 우리말학회
박철주, “『육조법보단경 언해(상・중・하)』에서의 ‘을/를’ 표지・무표지 양상에 대한 연구”, 배달말 38, 배달말학회
박철주, “먹을거리 합성어의 내면 의미에 대한 연구”, 우리말글 36, 우리말글학회
박흥길, “-ㅂ다” 풀이씨 연구”, 새얼어문논집 18, 새얼어문학회
배소영, “한국어 발달특성과 학령전기 문법형태소”,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배영환, ““끊-(斷)”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새국어교육 72, 한국국어교육학회
백낙천, “‘-든지’, ‘-은지’, ‘-을지’의 형태론적 구성과 의미”, 새국어교육 72, 한국국어교육학회
백낙천, “국어 조사의 범주와 의미”, 한국언어문화 30, 한국언어문화

학회
서민정, “이름법토 ‘-음’, ‘-기’의 제약에 기초한 자질 분석”, 한글 271, 한글학회
서민정, “통어적 기능을 고려한 명사토의 형태론적 구조 분석과 분류”, 우리말글 38, 우리말글학회
서태룡, “국어 조사와 어미의 관련성”, 국어학 47, 국어학회
서희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접두파생어에 대한 연구 - 고유어 접두사를 중심으로 -”,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성희제, “대전 서남부 지명어의 음운과 형태 연구”, 어문연구 52, 어문연구학회
손형숙, “Morphological basis of sonorant assimilation in Korean”,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12-2, 한국음운론학회
송창선, “현대국어 선어말어미 “-더-”의 기능 연구 - “-던”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언어과학연구 39, 언어과학회
송철의, “국어 형태론 연구의 문제점”, 배달말 39, 배달말학회
시정곤, “국어 형태론에서의 ‘생산성’ 문제에 대한 연구”, 형태론 8-2, 박이정
시정곤, “사이버 언어의 조어법 연구”,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시정곤, “우리말 접사의 통사론적 고찰”, 우리말연구 19, 우리말학회
안주호, “현대국어 연결어미 “-면서”에 관한 고찰”, 현대문법연구 45, 현대문법학회
안주호, “현대국어 연결어미 {-니까}의 문법적 특성과 형성과정”, 언어과학연구 38, 언어과학회
안주호, “현대국어의 의존명사 목록에 대하여”, 어문학 93, 한국어문학회
안주호, “현대국어의 의존명사 목록에 대하여”, 어문학 93, 한국어문학회

안희돈·조성은, “Unpronounced Case Markers and Apparent Subject-Object Asymmetry”, 현대문법연구 43, 현대문법학회
안희제, “본용언 형용사 “하다”의 선행성분에 대하여”, 국어학 48, 국어학회
양영희, “15세기 2인칭 대명사 ‘너’와 ‘그듸’의 기능 비교”, 우리말글 36, 우리말글학회
양영희, “15세기 호칭어 구축을 위한 시론”, 한국언어문학 57, 한국언어문학회
양영희, “16세기 2인칭대명사 체계”, 국어국문학 142, 국어국문학회
양영희, “인칭대명사의 기능 변화 유형과 원인”, 우리말글 38, 우리말글학회
양영희, “중세 국어 ‘재귀대명사’ 설정에 대한 재고”, 한글 273, 한글학회
양영희, “중세국어 3인칭 대명사의 부류와 기능”, 한국언어문학 59, 한국언어문학회
양영희, “중세국어 시기 설정에 대한 단상 -존대법과 인칭대명사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양정호, “‘늣씨’ 개념의 재고찰”, 어문연구 51, 어문연구학회
오미라, “ㄴ-삽입 환경의 재검토”, 언어학 14-3, 대한언어학회
오미라, “Output-based Variants in Korean Inflectional Morphology”, 언어 31-1, 한국언어학회
우순조, “한국어 조사 기술과 관련된 쟁점과 대안 -표지 이론적 관점에서-”, 우리말연구 18, 우리말학회
우순조, “활용 개념과 소위 ‘이다’와 관련된 오해들: 표지이론적 관점에서”, 언어학 44, 한국언어학회
우창현, “보조용언의 문법상적 기능에 대하여”,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유승섭, “국어의 동사적 기능형태소의 통사적 기제와 통합관계”, 한국언어문학 59, 한국언어문학회
유하라, “조사의 배열 양상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형태론 8-2, 박이정
유현경, “형용사에 결합된 어미 ‘-게’ 연구”, 한글 273, 한글학회
윤은경, “한국어 종결어미 양태 표현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24, 한국외대 한국어문학연구회
이광호, “파생접미사의 생산성과 파생어 집합의 빈도특성”, 어문연구 1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李光鎬, “派生接尾辭의 생산성과 派生語 집합의 빈도특성”, 어문연구 1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이규호, “복합조사 ‘이라고’의 생성과 분화”, 국어학 47, 국어학회
이규호, “접속조사의 분류와 목록”, 우리말글 37, 우리말글학회
이금희, “인용문 형식의 문법화 -문법화 과정과 문법화 정도에 대하여”, 국어학 48, 국어학회
이민경, “Uniformity Analysis of Korean Verbal Conjugative Suffixes and Their Historical Changes: Focus on Inflectional Affixation”, 언어 31-1, 한국언어학회
이병기, ““-겠-”의 문법화와 확정성”, 진단학보 102, 진단학회
이병기, “‘-겠-’과 ‘-었-’의 통합에 대하여”, 국어학 47, 국어학회
이상욱, “주어적 속격에 대한 재론”, 형태론 8-1, 박이정
이선영, “한국어의 ‘NP1+엣+NP2’ 구성과 ‘NP1+ㅅ+NP2’ 구성”, 형태론 8-2, 박이정
이성규, “몽골어와 한국어의 수사체계 비교연구”, 몽골학 21, 한국몽골학회
이성하, “Formal Variation and Colloquiality in Korean: Implications on the Grammaticalization Theory”, 현대문법연구

45, 현대문법학회
이양혜, “우리말 접사의 형태론적 고찰”, 우리말연구 19, 우리말학회
이은섭, “KS규격으로 완성된 ‘우리말 표준 색이름 체계’에 대한 일 고찰”, 정신문화연구 29-1,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정택, “우리말 체언의 품사 설정과 하위분류”,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이정택, “주시경, 최현배, 정열모의 조사 체계 비교”, 태릉어문연구 14,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이정훈, “‘V-어V’ 합성동사 형성 규칙과 범주통용”, 어문학 91, 한국어문학회
이정훈, “어미의 형태분석에 대하여 -이형태 규칙과 통사구조 형성을 중심으로-”, 형태론 8-1, 박이정
이정훈, “‘V-어V’ 합성동사 형성 규칙과 범주통용”, 어문학 91, 한국어문학회
이진호, “우리말 접사의 음운론적 고찰”, 우리말연구 19, 우리말학회
이현희, “범주 구성 요소의 전형성 정도 연구 -접두사 범주를 대상으로-”, 형태론 8-1, 박이정
임동훈, ““만큼, 처럼, 보다”가 격조사인가”, 국어학 48, 국어학회
장숙영, “『노걸대, 박통사』류에 나타난 국어의 이음씨끝 변화 연구”,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장숙영, “노걸대, 박통사류에 나타난 국어의 이음씨끝의 소멸”, 겨레어문학 36, 겨레어문학회
장영준, “Case Licensing in Secondary Predication”, 언어연구 21-2, 한국현대언어학회
장요한, “어미 “-과-”의 의미 기능에 대한 고찰”, 한민족어문학 49, 한민족어문학회
장윤희, “고대국어의 파생 접미사 연구”, 국어학 47, 국어학회

전영철,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의 표지 ‘는’”, 한글 274, 한글학회
정성미, “‘實體性 名詞+하-’의 構成에 관한 硏究”, 강원인문논총 15,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정언학, “통합형 어미 “-습니다”류의 통시적 형성과 형태 분석”,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육학회
정영호, “ㅎ말음의 변화와 어간 재구조화”, 한민족어문학 49, 한민족어문학회
정용길, “On the Categorial Status of-Ko”, 생성문법연구 16-3, 한국생성문법학회
정주리, “‘-음’, ‘-기’의 의미와 제약”,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정희창, “준말의 단어 형성 문제”, 반교어문연구 21, 반교어문학회
조경숙, “유형론에서 본 영어와 한국어의 상”, 언어학 46, 한국언어학회
조경순, “현대 국어 상호동사 구문 연구”, 한국언어문학 57, 한국언어문학회
조규태, “중세 국어의 선어말 어미 “-으니-”에 대하여”, 배달말 39, 배달말학회
조규태, “한국어 수사의 어원과 어형 변화에 대하여”, 어문학 94, 한국어문학회
조세연, “A Study on Case Stacking and Case Alternations in Korean: A Constraint-Based Approach”, 현대문법연구 43, 현대문법학회
조일규, “현대국어의 하임 풀이씨 뒷가지와 그 파생 양상”,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趙宰亨, “處所副詞格助詞의 用法 考察”, 어문연구 1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조재형, “처소부사격조사의 용법 고찰 -조선 초기까지의 차자표기에

한하여-", 어문연구 1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채완, "국어의 격과 조사", 우리말글 37, 우리말글학회
채현식, "합성명사에서의 의미 전이와 관습화", 한국언어문학 58, 한국언어문학회
최규수, "형태론의 체계와 문법 용어 사용의 문제 -국어학사의 관점에서-", 우리말연구 18, 우리말학회
최웅환, "『朝鮮語發音及文法』의 '문법'편과 『(中等敎科)朝鮮語文典』", 문학과 언어 28, 문학과언어학회
최원평, "한, 중 의성어의 형태적 음운적 특징", 한국언어문화 31, 한국언어문화학회
최인철, "The Korean Light Verb Construction: Conspiracy Between Mixed Categories and Argument Transfer", 현대문법연구 45, 현대문법학회
최형용, "다시 '지붕'의 '-웅'에 대하여", 형태론 8-1, 박이정
최형용, "합성어 형성과 어순", 국어국문학 143, 국어국문학회
하길종, "중·근세 국어의 첩어 연구", 우리어문연구 26, 우리어문학회
하세경, "사잇소리와 합성명사의 내부구조",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12-1, 한국음운론학회
하치근, ""지" 짜임월의 문법화 과정 연구", 우리말연구 18, 우리말학회
하치근, "국어 조어론 연구의 어제, 오늘", 우리말연구 19, 우리말학회
한길, "우리말의 융합 형태소와 형태소 중복 현상", 강원인문논총 15,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한영목, "국어 문법론 연구의 어제와 오늘", 어문연구 50, 어문연구학회

홍사만, “국어 의존명사 {것}의 사적 연구”, 어문론총 44, 한국문학언어학회
홍용철, “한국어의 명사 확장범주”, 언어 31-4, 한국언어학회
홍윤기, “합성동사 구성의 한계성 실현 양상”, 형태론 8-1, 박이정
황병순, “‘-었-’ 삭제와 생략에 대한 연구”, 어문학 94, 한국어문학회
황선엽, “고대국어의 처격 조사”,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황선엽, “고대국어의 처격조사”,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황화상, ““-이”형 부사어의 문법 범주”,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황화상, “우리말 접사의 의미론적 고찰 -단어 구조와 관련하여-”, 우리말연구 19, 우리말학회
황화상, “조사 ‘에서’의 문법 범주”, 배달말 39, 배달말학회
Byung Sun Yaang, “The Study of Subject Honorific Marker -(u)si- in RRG”, 언어학 14-3, 대한언어학회
Hee Don Ahn·Sung Eun Cho, “Layered Nominal Structures: Implications for Caseless Nominals”, 언어 31-2, 한국언어학회
Hyung Soo Kim, “Underlying Bases for Reduplicated and Sound Symbolic Words in Korean: The so-called smphatic suffixation revisited”, 언어 31-2, 한국언어학회
Jeong Suk Kim, “An Inter-typological and Intra-typological Analysis of Metaphorical Motion”, 현대문법연구 46, 현대문법학회
Jung Soo Mok, “A Continuity of Adjectives in Korean -from a prototypical perspective-”, 언어학 45, 한국언어학회
Kwang Ho Lee, “A Minimalist Account of Multiple Case Marking in Korean”, 언어 31-2, 한국언어학회
Sung Hun Kim, “On INT-Motivated Movements”, 언어연구 21-1, 한국현대언어학회

〈기타〉

노명희, “신어: 최근 신어의 조어적 특징”, 새국어생활 16-4, 국립국어원

통사론

〈단행본〉

고창운, 『국어통사론 입문』, 경진문화사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지역어 조사 질문지, 5』, 태학사
권재일,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김규철 외, 『어문학 연구의 넓이와 깊이』, 역락
김기종·리영순, 『조선어문법론』, 한국문화사
김성란, 『근대국어의 종결어미 연구: 노걸대류 언해본을 중심으로』, 역락
김영희, 『한국어 셈숱화 구문의 통사론』, 한국학술정보
김의수, 『한국어의 격과 의미역: 명사구의 문법기능 획득론』, 태학사
김진호, 『재미있는 한국어 이야기』, 박이정
김충실, 『중한문법대조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김태엽, 『국어학개요』, 대구대학교 출판부
柳時郁, 『朝鮮文典』, 역락
박덕유,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상에 대한 비교 연구: 相 대립의 통사론적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박재연,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박철주, 『「대명률직해」의 국어학적 연구』, 일지사
서정수, 『국어문법』, 한세본
시정곤, 『현대국어 통사론의 탐구』, 月印
양정석, 『한국어 통사구조론』, 한국문화사
오충연, 『상과 통사구조』, 태학사

정언학, 『상 이론과 보조 용언의 역사적 연구』, 태학사
최남희·최중호·이근영·송창선·박동근·허원욱·허재영·권재일·윤혜영·이석규·이수련·정동환·방운규·김준희·김용경·이만식·최용기·서은아, 『우리말 연구의 이론과 실제』, 경진문화사
최재희, 『한국어 교육 문법론』, 태학사
태학사 편집위원회, 『國語學論叢: 李秉根先生退任紀念』, 태학사
허동진 저·연변노교수협회 편찬, 『한국어 어미의 뜻과 쓰임』, 한국학술정보
허동진 저·연변노교수협회 편찬, 『한국어 조사의 뜻과 쓰임』, 한국학술정보
홍병호, 『상황과 표현: 'Style'과 'Politeness'상의 영어와 한국어 비교』, 강남대학교출판부
홍종선 외, 『후기 근대국어 통사의 연구』, 역락

〈학위 논문〉

고대영, 〈현대국어의 후치사에 대한 연구: '없이, 밖에, 말고'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석사)
고정현, 〈한일 웹 게시판언어 비교연구〉,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나영, 〈국어 의존명사의 통합 양상 분석〉,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남정, 〈호칭어와 청자 대우 등급의 사용양상에 대한 연구: 충북 제천 명도리를 대상으로〉, 세명대 대학원(석사)
김미령, 〈국어의 격표지 교체와 의미역 연구: {처격/대격 표지} 교체 동사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박사)
김선영, 〈특수조사 '-은/-는' 연구〉, 인천대 교육대학원(석사)
끄라포바 마리아, 〈한국어 부사의 수식 위치에 관한 연구: 통사・의

미를 중심으로〉, 우석대 대학원(석사)

도브라노바 밀레나, 〈한국어와 불가리아어 격 체계 비교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목지선, 〈서부경남 방언의 의문문에 대한 연구: 소설 《백정》을 중심으로〉, 경상대 대학원(석사)

미에미에머, 〈한국어 보조용언 '보다'와 미얀마어 보조용언 'kkyi'의 대조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박근배, 〈창원지역어와 고성지역어의 대비 연구〉, 경남대 대학원(석사)

박미연, 〈한·일 양언어의 수동 표현 대조 연구〉, 경상대 교육대학원(석사)

박부자, 〈한국어 선어말어미 통합순서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박사)

박선영, 〈현대 국어의 시제형태소 '-었-, -는-, -겠-, -더-'에 관한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용찬, 〈15세기 국어 연결어미와 보조사의 통합형 연구〉, 서울대 대학원(박사)

박현아, 〈한국어 서술성 명사의 실현 양상 연구〉, 고려대 대학원(석사)

배선미, 〈Grammaire coreenne에 대한 연구〉, 순천대 교육대학원(석사)

서광진, 〈한국어 의존용언 연구: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전북대 대학원(석사)

신서인, 〈구문 분석 말뭉치를 이용한 한국어 문형 연구〉, 서울대 대학원(박사)

안수정, 〈수 분류사의 유형적 특성 연구: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석사)

안예리, 〈최근세국어 타동구문 연구: 신소설 자료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석사)
엄춘영, 〈연변지역어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엄홍준, 〈목적어에 관한 연구: 최소주의 이론에 바탕하여〉, 중앙대 대학원(박사)
오민석, 〈한국어 보조동사 '지다'의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오자키 다쓰지, 〈접속조사 て와 한국어 연결어미 대조 연구〉, 연세대 대학원(석사)
오정은, 〈명사의 문장 연결 기능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석사)
왕유, 〈한국어 보유 보조동사 연구〉, 인제대 대학원(석사)
유하라, 〈현대국어 조사의 배열 양상〉, 성균관대 대학원(박사)
은상현, 〈강원 지역어의 사동·피동 연구〉, 상지대 교육대학원(석사)
이경희, 〈〈부모은중경언해〉 이본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이금희, 〈인용문 형식에서 문법화된 어미·조사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박사)
이병기, 〈한국어 미래성 표현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박사)
이상금, 〈중세국어의 다소 표현 형용사에 대한 문법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이설, 〈한국어와 중국어 접속문의 표현 방식에 대한 대조 연구〉, 연세대 대학원(석사)
이지연, 〈한국어 보조사에 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석사)
이해진, 〈학교문법에서의 보어의 범위 연구〉, 서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이현희, 〈국어 접사 범주에 관한 연구: 접사와 인접 범주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박사)

이회환, 〈국어 추측법 연구〉, 경상대 대학원(석사)
임근석, 〈한국어 연어 연구〉, 서울대 대학원(박사)
장경현, 〈국어 문장 종결부의 문체 특성 연구〉, 서울대 대학원(박사)
장인옥, 〈의존명사의 형태 의미론적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전세영, 〈국어 대우법 체계의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성미, 〈'-하다' 형용사의 형태 구조와 논항 구조 연구〉, 강원대 대학원(박사)
정수현, 〈『노걸대』에 나타난 명사구 내포문의 변화〉, 건국대 대학원(석사)
정용구, 〈현대 국어 상 해석 연구: 상황상과 관점상을 중심으로〉, 서강대 대학원(박사)
정유남, 〈현대 국어 추측의 양태 의미 연구〉, 고려대 대학원(석사)
정혜선, 〈19세기 국어의 '원인' 통합형 접속어미 연구〉, 서강대 대학원(석사)
정희영,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근대국어 시제 연구: 춘향전을 중심으로〉, 영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조민진, 〈'-겟-' 의 문법화 과정 연구〉, 서강대 대학원(석사)
조위영, 〈한국어의 능격성 제약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조현아, 〈광고언어의 국어 교육적 활용 방안〉,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주빈, 〈한국어와 중국어의 수량사 구성 비교 연구〉, 광운대 대학원(석사)
지현숙, 〈한국어 구어 문법 능력의 과제 기반 평가 연구〉, 서울대 대학원(박사)
진정은, 〈한국어의 대립 접속부사 문법 기술 연구: '그러나, 그렇지

만,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성규, 〈구역 ≪신약젼셔≫의 국어학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최은숙, 〈4-6세 아동의 용언 활용 발달〉, 단국대 대학원(석사)
최은진,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높임법 연구: 제7차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인천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정혜, 〈국어 명사구 구성 요소의 의미 관계 연구: 'N의 N' 구조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박사)
한명주, 〈현대국어 형식명사 구성의 양태성 연구〉, 서강대 대학원(석사)
할리오나, 〈한국어 구어체의 여격조사 "한테, 더러, 보고"의 통사적 특성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석사)
황은혜, 〈국어의 통사적 중의성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후지카와 나오유끼, 〈일본어 「한자어+する」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의 연구와 지도법〉,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강소영, "우측 어순 변동 구문의 실현양상과 의미기능 연구", 한국어의미학 20, 한국어의미학회
강정희, "제주방언의 인식양태 표현 -형용사 구문의 부사어 "잘도"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9, 한국언어문학회
강창석, "대호 이융조 교수 정년 기념호: 국어 문법의 특징과 연구 방법론 1 -조사 "이"의 기능을 중심으로-", 인문학지 33,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고광모, ""-게 ᄒᆞ-"로부터 발달한 종결어미들", 언어학 46, 한국언어

학회
고영근, “동작상에 대한 이해”,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고영근, “절대문은 세울 수 있는가”, 형태론 8-1, 박이정
고은숙, “2006년 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근대국어 연결어미의 기능 연구 -역학서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27, 우리어문학회
고창수, ““이다” 구문의 자질 연산”, 한성어문학 25, 한성대 한성어문학회
권순구, “보조용언 ‘버리다’의 양태 의미”, 어문연구 51, 어문연구학회
김건희, “형용사문의 주어와 의미역 설정에 관하여”, 언어학 44, 한국언어학회
김경령, “A Study of Syntactic Processing in Korean Language Learners”,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김경열, “비교구문의 범위와 특성에 대하여”, 개신어문연구 24, 개신어문학회
김기선, “현대 몽골어와 한국어의 사동과 피동구문 대조 연구”, 몽골학 20, 한국몽골학회
김기성, “현대 몽골어와 한국어의 연결어미 대조 연구 -현대 몽골어의 접속연결어미를 중심으로-”, 몽골학 20, 한국몽골학회
김기혁, “국어 지정문과 존재문의 상관성”, 한글 271, 한글학회
김동석·김용하·이재철, “자연 언어의 비정규적 주어에 대한 통합적 연구 (1) -한국어와 일본어의 비정규적 주어를 중심으로-”, 현대문법연구 45, 현대문법학회
김미자, “한국어 “것”에 대한 검토”, 언어연구 23-1, 경희대 언어연구소
김서형, “중세 국어 “으란” 연구”,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김선웅, “A C-stranding Analysis of Null Complementizers”, 현대문법연구 45, 현대문법학회
김성주, “석독구결(釋讀口訣)의 피동 표현”,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김수태, “물음법 씨끝의 체계”, 한글 274, 한글학회
김영화, “Q-particles vs. Ⅰ-particles”, 생성문법연구 16-3, 한국생성문법학회
김용범, “On Saliency in Multiple Nominative Constructions”, 언어연구 21-3, 한국현대언어학회
김윤신, “사동·피동 동형동사의 논항교체 양상과 의미해석”, 한국어의미학 21, 한국어의미학회
김은경, “시간의 연결어미 “-아/어서”의 통사론적 특성을 이용한 지도 방안”,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은일·정연창, “주어 생략과 모호성 조건”, 언어과학연구 37, 언어과학회
김일곤, “Agentivity and Case Markings on the Causative Pivot in Korean Analytic Causative Constructions”, 담화와 인지 13-1, 담화인지언어학회
김정남,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에 대한 연구 -시제 및 연결어미 표현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김정대, “어미의 지배 범위에 대한 주시경(1910)의 인식”, 우리말글 37, 우리말글학회
김정석, “On the Size of Ellipsis in Korean Focus Constructions”, 인문연구 50,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김종복·양재형, “Developing a Korean Resource Grammar and Implementing It into the Linguistic Knowledge Building System”, 언어과학연구 37, 언어과학회
김지홍, “국어 통사, 의미론에서의 “방법론” 검토”, 배달말 39, 배달

말학회
김진해, “사건의미론 관점에서 본 상징부사의 서술성 해석”, 담화와 인지 13-3, 담화인지언어학회
김천학, “국어의 동작상과 동작류”,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김태엽, “국어 대우법 체계에 낮춤 등급을 설정할 수 없는 이유”, 한국언어문학 59, 한국언어문학회
김학선,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명령, 원망법 어미 대조 연구”, 몽골학 20, 한국몽골학회
김학연, “Scrambling as A′-movement”, 언어과학연구 38, 언어과학회
김현주, “후기 중세국어 {-숩-}의 기능 -“존대되는 존재”의 파악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김형정, “‘와’ 보충어의 분포 및 특성”, 한글 274, 한글학회
김호정, “한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 문법 지식 내용 연구 -관형 표현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나은미, “2006년 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텍스트의 내용과 접속의 표지의 상관관계 연구 -소설『익명의 섬』을 대상으로-”, 우리어문연구 27, 우리어문학회
나은미, “접미사 “-음, -기”의 범주와 의미에 대한 연구”, 한성어문학 25, 한성대 한성어문학회
南京完·劉惠援, “동사-형용사 重義 語節의 重義性 解消 연구”, 어문연구 1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남경완·최정혜, “중의 어절의 문법 범주별 유형 연구”, 민족문화연구 4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남길임, ““아니다”의 패턴 연구 -말뭉치의 문맥색인(concordance)을 활용하여-”, 어문론총 44, 한국문학언어학회
류병래, “LKB를 이용한 제약기반 한국어 단편문법의 구축과 전산적

검증 -경동사구문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3-2,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睦正洙, "韓國語 문법 체계에서의 '이다'의 正體性", 어문연구 1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문순덕, "제주방언 '불다'의 문법화 과정", 영주어문 12, 영주어문학회
박근영, "{네}의 재고찰", 한국어문학연구 23, 한국외대 한국어문학연구회
박덕유, "한국어와 몽골어의 동사상에 대한 비교 연구 -상(相) 대립의 통사론적 표현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박덕유, "行爲動詞와 完成動詞 부류에 나타난 相的 특성", 한국학연구 15,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朴仙玉, "補助動詞 '버리다'와 '치우다'가 쓰인 구문에 대한 統辭論的·意味論的 연구", 어문연구 1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박유현, "현대 국어 조사 "-가"의 구어에서의 비실현 양상 연구", 어문론총 45, 한국문학언어학회
박인심, "Case Agreement in Copular Constructions", 생성문법연구 16-1, 한국생성문법학회
박정섭, "속격 표지 '의'의 수의성에 대하여", 생성문법연구 16-1, 한국생성문법학회
박정운, "한국어 조건문의 인식태도", 담화와 인지 13-2, 담화인지언어학회
박종덕, "으뜸풀이씨 '있다'의 씨갈", 한글 274, 한글학회
박진호, "자연언어처리와 국어 연구", 국어국문학 143, 국어국문학회
박진호, "중세국어에서 형용사와 결합하는 "-어 잇-"의 상적 의미",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박철우, ""이다" 구문의 통사구조와 {이}의 문법적 지위",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박철주, “『대명률직해』 구문의 형식에 대한 연구”, 한글 271, 한글학회
박철주, “『대명률직해』와 현대국어 간의 조사 “과(果)”의 쓰임 차이에 대한 연구”, 반교어문연구 21, 반교어문학회
박철주, “『대명률직해』의 부정사에 대한 연구 -“부득(不得)”과 “안서(安徐)”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18, 우리말학회
박철주, “『육조법보단경(六祖法寶壇經) 언해(諺解)(상, 중, 하)』에서의 “을/를” 표지, 무표지 양상에 대한 연구”, 배달말 38, 배달말학회
박효명, “논항구조의 합과 결속”, 언어학 14-1, 대한언어학회
박흥길, ““-ㅂ다” 풀이씨 연구”, 새얼어문논집 18, 새얼어문학회
박희문, “한국어 이중주어구문의 제약기반적 분석”, 언어연구 21-1, 한국현대언어학회
배소영, “한국어 발달특성과 학령전기 문법형태소”,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백낙천, “국어 조사의 범주와 의미”, 한국언어문화 30, 한국언어문화학회
서민정, “이름법토 ‘-음’, ‘-기’의 제약에 기초한 자질 분석”, 한글 271, 한글학회
서정민·조학행, “현재완료와 중의성”, 언어연구 21-2, 한국현대언어학회
서태용, “국어 조사와 어미의 관련성”, 국어학 47, 국어학회
서형국, “국어 연결어미의 통합 관계”, 민족문화연구 4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석주연, ““-도록”의 의미와 문법에 대한 통시적 고찰”, 한국어의미학 19, 한국어의미학회

성환갑·엄홍준, “動詞性 名詞構文에 관한 연구”, 어문연구 12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손광락, “Eoseo-Construction in Korean”, 언어과학연구 37, 언어과학회
孫惠波, “韓國語 機能動詞 ‘하다’와 中國語 機能動詞 ‘作’의 比較研究”, 숭실어문 22, 숭실어문학회
송창선, “현대국어 선어말어미 “-더-”의 기능 연구 -“-던”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39, 언어과학회
송홍규, “연속동사 구문과 단형부정의 구조 분석”,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시정곤, “우리말 접사의 통사론적 고찰”, 우리말연구 19, 우리말학회
신효필, “유형화된 자질구조(Typed Feature Structure)와 LKB(Linguistic Knowledge Building)를 기초로 한 한국어 단층 분석”, 언어학 44, 한국언어학회
심창용, “Accusative Case in Passives”, 생성문법연구 16-3, 한국생성문법학회
안귀남, “국어 대우법의 종합적 검토: 방언에서의 청자존대법 연구”, 국어학 47, 국어학회
안주호, “인용동사의 문법적 고찰”, 우리말글 37, 우리말글학회
안주호, “현대국어 ‘싶다’ 구문의 문법적 특징과 형성과정”, 한국어의미학 20, 한국어의미학회
안주호, “현대국어 연결어미 “-면서”에 관한 고찰”, 현대문법연구 45, 현대문법학회
안주호, “현대국어 연결어미 {-니까}의 문법적 특성과 형성과정”, 언어과학연구 38, 언어과학회
안주호, “현대국어의 의존명사 목록에 대하여”, 어문학 93, 한국어문학회

안희돈·조성은, “On Form-function Mismatch Puzzles in Fragments: An Ellipsis Approach”, 담화와 인지 13-1, 담화인지언어학회
안희돈·조성은, “Unpronounced Case Markers and Apparent Subject-Object Asymmetry”, 현대문법연구 43, 현대문법학회
안희돈·조성은, “Wh-Topics and Unpronounced Cases on Wh-phrases”, 생성문법연구 16-1, 한국생성문법학회
안희제, “본용언 형용사 “하다”의 선행성분에 대하여”, 국어학 48, 국어학회
양영희, “15세기 2인칭 대명사 ‘너’와 ‘그듸’의 기능 비교”, 우리말글 36, 우리말글학회
양영희, “중세국어 3인칭 대명사의 부류와 기능”, 한국언어문학 59, 한국언어문학회
양영희, “중세국어 시기 설정에 대한 단상 -존대법과 인칭대명사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오문경, “의문사를 포함하는 ‘이/그/저/어느’ 체계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24, 한국외대 한국어문학연구회
오선영, “한·일어 인과관계 접속표현의 대조연구 -한국어 ‘-아서’와 일본어 ‘-て’, ‘-ので’ ‘-から’를 중심으로-”, 한일언어문화연구 10, 한·일언어문화연구소
오충연, “국어 상 연구의 최근 동향 -통사론과 결부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우순조, “한국어 조사 기술과 관련된 쟁점과 대안 -표지 이론적 관점에서-”, 우리말연구 18, 우리말학회
우순조, “활용 개념과 소위 “이다”와 관련된 오해들: 표지이론적 관점에서”, 언어학 44, 한국언어학회
우창현, “보조용언의 문법상적 기능에 대하여”, 한국어학 33, 한국어

학회
위혜경, “Definiteness of Wh-Phrases Extractable from Weak Islands”, 언어 31-3, 한국언어학회
유승섭, “국어의 동사적 기능형태소의 통사적 기제와 통합관계”, 한국언어문학 59, 한국언어문학회
유현경, “형용사에 결합된 어미 ‘-게’ 연구”, 한글 273, 한글학회
윤용선, “국어 대우법의 종합적 검토: 국어 대우법의 통시적 이해”, 국어학 47, 국어학회
윤은경, “한국어 양태 표현 연구 -종결어미 ‘-(으)ㄹ래, -(으)ㄹ게’를 대상으로”, 언어와 문화 2-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윤은경, “한국어 종결어미 양태 표현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24, 한국외대 한국어문학연구회
이건수·박갑용, “상태성 “하다” 구문에 대한 소고”, 언어과학연구 39, 언어과학회
이규호, “복합조사 “이라고”의 생성과 분화”, 국어학 47, 국어학회
이근용, “조사 “에게, 한테, 더러, 보고”의 통사적 특성”, 어문학논총 25,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이금희, ““-느라고, -느라면, -느라니까”의 통사, 의미적 특징”, 반교어문연구 21, 반교어문학회
이금희, “인용문 형식의 문법화 -문법화 과정과 문법화 정도에 대하여”, 국어학 48, 국어학회
이병기, ““-겠-”과 “-었-”의 통합에 대하여”, 국어학 47, 국어학회
이선웅, “술어명사구와 동사구의 동질성과 이질성”, 우리말글 38, 우리말글학회
이성하, “Stratified Complex Postpositional System in Korean: A Contact Linguistics Perspective”, 담화와 인지 13-2, 담화인지언어학회

이숙, ""다가"의 용법에 대하여",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이숙, "개교 60주년 기념 특별호: 국어의 어휘사동문", 어문학논총 특별호,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이원경, "감정동사의 분류와 특성분석", 담화와 인지 13-1, 담화인지언어학회
이윤하, "부사형(副詞形) 어미(語尾) "-게" 구성(構成)의 통사(統辭), 의미(意味) 기능(機能)에 대하여",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육학회
이은섭, ""굴다" 구문의 유형과 통사 구조", 국어학 48, 국어학회
이은섭, "'-게 굴다' 構文의 與格 成分과 對格 成分에 대한 고찰", 어문연구 12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이은희·이현주, "한국어의 서술절 설정 연구: 학교 문법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25, 한성대 한성어문학회
이재성, "과거 사건의 구조와 과거 사건 인식 방식", 한글 271, 한글학회
이재철, "Islands and Phases", 생성문법연구 16-1, 한국생성문법학회
이재철, "Wh-Islands and Additional Wh-Effects", 현대문법연구 43, 현대문법학회
이정복, "국어 대우법의 종합적 검토: 국어 경어법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국어학 47, 국어학회
이정택, "이른바 중주어문에 관하여 -서술절 설정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34, 청람어문교육학회
이정택, "피동문의 능동주 표지 선택 원리 再考", 태릉어문연구 13,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이정훈, "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그리고'에 대한 고찰", 우리말글 36, 우리말글학회

이정훈, “파생접사 ‘-답-’의 통사적 파생”, 생성문법연구 16-3, 한국생성문법학회
이정훈, “‘V-어V’ 합성동사 형성 규칙과 범주통용”, 어문학 91, 한국어문학회
이종근, “한국어 동사와 대격에 관한 연구”, 언어학 14-1, 대한언어학회
李知英, “中世國語 ‘아직, 안즉, 안즉, 안직’의 意味와 통사적 특징”, 어문연구 1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이필영, “서술부 양태 표현의 부정 양상 -보조용언적 구성을 중심으로”, 국어학 48, 국어학회
이한정, “Effects of Focus and Markedness Hierarchies on Object Case Ellipsis in Korean”, 담화와 인지 13-2, 담화인지언어학회
이해영, “국어 대우법의 종합적 검토: 한국어 교육에서의 대우 표현 연구”, 국어학 47, 국어학회
이현우, “A Comparative Study of Reciprocals in English and Korean: Their Distribution and Interpretation”, 생성문법연구 16-1, 한국생성문법학회
이혜란, “A Study on Scrambling in Korean”, 생성문법연구 16-3, 한국생성문법학회
이호승, “격조사 없는 명사구의 격 문제에 대하여”, 어문학 93, 한국어문학회
이호승, “국어주제어와 담화 주제”, 개신어문연구 24, 개신어문학회
이홍식, “교착소의 의미 분석에 대하여”, 언어과학연구 39, 언어과학회
임동훈, “국어 대우법의 종합적 검토: 현대국어 경어법의 체계”, 국어학 47, 국어학회
임창국, “한국어 이차술어 구문의 통사”, 언어 31-1, 한국언어학회

임창국, “한국어 장소교체 구문에서의 대상논항의 통사적 특성과 통사구조”, 어학연구 42-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林采勳, “動作類의 相的 特性, 그 本有性과 依存性”, 어문연구 1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임채훈, “완성성과 상의 구조적 실현”,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장경현, “인터넷 블로그에 나타나는 종결 어미 “-지(요)”의 용법과 의미”, 한국어의미학 19, 한국어의미학회
장미라, “한국어 보조 용언의 상적, 양태적 의미 기능과 통사적 특징 -“놓다, 두다, 버리다, 내다, 말다, 치우다”를 중심으로-”, 배달말 38, 배달말학회
장영준, “Case Licensing in Secondary Predication”, 언어연구 21-2, 한국현대언어학회
장요한, “어미 “-과-”의 의미 기능에 대한 고찰”, 한민족어문학 49, 한민족어문학회
전영철,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의 표지 ‘는’”, 한글 274, 한글학회
전정례, “20세기 언어 연구에서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육학회
정성미, “‘實體性 名詞+하-’의 構成에 관한 硏究”, 강원인문논총 15,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정용길, “‘-고’의 범주에 관하여”, 인문논총 15, 서울여대 인문과학연구소
정용길, “On the Categorial Status of-Ko”, 생성문법연구 16-3, 한국생성문법학회
정주리, ““-음”, “-기”의 의미와 제약”,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정주리, ““-주다” 형식의 구문과 의미”, 한국어의미학 19, 한국어의미학회
제영, “한국어 피동문의 유형과 의미”, 문창어문논집 43, 문창어문학

회
조경숙, “유형론에서 본 영어와 한국어의 상”, 언어학 46, 한국언어학회
조경순, “현대 국어 상호동사 구문 연구”, 한국언어문학 57, 한국언어문학회
조규태, “중세 국어의 선어말 어미 “-으니-”에 대하여”, 배달말 39, 배달말학회
조남호, “국어 대우법의 종합적 검토: 국어 대우법의 어휘론적 이해”, 국어학 47, 국어학회
조세연, “A Study on Case Stacking and Case Alternations in Korean: A Constraint-Based Approach”, 현대문법연구 43, 현대문법학회
조일규, “현대국어의 하임 풀이씨 뒷가지와 그 파생 양상”,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趙宰亨, “處所副詞格助詞의 用法 考察”, 어문연구 1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채완, “국어의 격과 조사”, 우리말글 37, 우리말글학회
채희락, “융합 현상과 ‘(-고) 하-’의 관련성: [대]형 표현의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 10-1, 한국언어정보학회
채희락, “Gerund Phrases as NPs with N Heads: No Empty or Mixed Categories”, 현대문법연구 43, 현대문법학회
최기용, “장형 부정 구문의 격 교체”, 언어 31-3, 한국언어학회
최기용, “한국어의 “명사+조사”구성의 구조”, 생성문법연구 16-3, 한국생성문법학회
최동권, “국어, 몽골어, 만주어 인용문 비교연구”, 알타이학보 16, 한국알타이학회
최인철, “The Korean Light Verb Construction: Conspiracy

Between Mixed Categories and Argument Transfer", 현대문법연구 45, 현대문법학회
최형강, ""명사+부리다" 연어 구성에서의 의미 전이",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최형강, "피동문의 조건과 '받다, 당하다, 되다' 구문의 재고", 어문학 92, 한국어문학회
최형용, "합성어 형성과 어순", 국어국문학 143, 국어국문학회
타이라카오리, "구어체 "-거든"에 관한 일고찰 -시나리오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하치근, ""지" 짜임월의 문법화 과정 연구", 우리말연구 18, 우리말학회
한영목, "국어 문법론 연구의 어제와 오늘", 어문연구 50, 어문연구학회
허철구, "접속과 부가", 시학과 언어학 12, 시학과 언어학회
홍사만, "국어 의존명사 {것}의 사적 연구", 어문론총 44, 한국문학언어학회
홍용철, "한국어의 명사 확장범주", 언어 31-4, 한국언어학회
황병순, "'-었-' 삭제와 생략에 대한 연구", 어문학 94, 한국어문학회
황용주, "연어 구성 변화에 대한 국어정보학적 연구 -신소설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8, 한국언어문학회
황화상, ""-이"형 부사어의 문법 범주",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황화상, "조사 "에서"의 문법 범주", 배달말 39, 배달말학회
Byung Sun Yaang, "The Study of Subject Honorific Marker -(u)si- in RRG", 언어학 14-3, 대한언어학회
Che Gyong Im, "Raising to Object under Multiple Spheres Hypothesis", 언어학 14-1, 대한언어학회
Chung Hoon Lee, "Syntagmatic Relations in Corpus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Focusing on Korean Particles", 현대문법연구 44, 현대문법학회

Daeho Chung, "Polarity Licensing by Inherently Negative Predicates: A Unified Approach", 생성문법연구 16-2, 한국생성문법학회

Dong Whee Yang, "The Phasal Movement Hypothesis and Syntactic Freezing", 생성문법연구 16-4, 한국생성문법학회

Francis Bond, "Classifying Correspondence in Japanese and Korean", 언어연구 23-2, 경희대 언어연구소

Ha Kyeon Kim, "EF-feature and Wh-Scrambling", 현대문법연구 44, 현대문법학회

Hee Don Ahn·Sun Geun Cho, "On Binding Asymmetries in Fragments", 언어학 44, 한국언어학회

Hee Don Ahn·Sung Eun Cho, "Layered Nominal Structures: Implications for Caseless Nominals", 언어 31-2, 한국언어학회

Hye Ran Lee, "Long-Distance Reflexives in Korean: Syntactic vs. Nonsyntactic Accounts", 언어학 14-4, 대한언어학회

Hyunoo Lee, "The Syntax and Semantics of Yekan and Its Cousins", 언어와 정보 10-2, 한국언어정보학회

Jeong Me Yoon, "Selective Island Effects in Korean Wh-Constructions: A Diachronic Approach", 언어 31-2, 한국언어학회

Jeong Seok Kim, "Against a Multiple Dominance Analysis of Right Node Sharing Constructions in Korean and Japanese", 현대문법연구 46, 현대문법학회

Ji Ni Noh, "The emergence of intersubjectivity in Korean conversations -A study on the general noun construction,

-n-ke-ya", 선청어문 34, 서울대 국어교육과

Jong Bok Kim, "Syntax and Semantics of Numeral Classifier Constructions in Korean", 현대문법연구 44, 현대문법학회

Ju-Eun Lee, "A Critical Review of Analyses of Indirect Passives", 생성문법연구 16-2, 한국생성문법학회

Jung Min Jo·Seok Keun Kang·Tae Jin Yoon, "A Rendezvous of Focus and Topic in Korean: Morpho-syntactic, Semantic, and Acoustic Evidence", 언어학 14-2, 대한언어학회

Jung Soo Mok, "A Continuity of Adjectives in Korean -from a prototypical perspective-", 언어학 45, 한국언어학회

Kab Yong Park·Keon Soo Lee, "Deriving Two Types of Korean Negation", 언어학 14-4, 대한언어학회

Keun Won Sohn, "On Scope Freezing and Counter Scope Freezing Effects", 언어연구 21-1, 한국현대언어학회

Kwang Ho Lee, "A Minimalist Account of Multiple Case Marking in Korean", 언어 31-2, 한국언어학회

Kwang Sup Kim, "Focal Ellipsis and Echo Questions", 현대문법연구 46, 현대문법학회

Kwangho Lee, "On the Derivation of the Two Specs of T in Icelandic MSCs", 생성문법연구 16-2, 한국생성문법학회

Kwnag-sup Kim, "On the Clause-Boundedness of QR", 생성문법연구 16-4, 한국생성문법학회

Mi-Jeung Jo, "The Structure of Nominal Modifiers in Korean", 생성문법연구 16-4, 한국생성문법학회

Sae Youn Cho, "Defaults, Tense, and Non-Tensed Verbal Coordination", 언어학 14-3, 대한언어학회

Sei-Rang Oh, "On the Semantics of Distance-Distributivity

Markers", 생성문법연구 16-2, 한국생성문법학회
Seong Yong Lee, "Local Scrambling, Specificity and EPP-feature-driven Movement", 현대문법연구 46, 현대문법학회
Seungju Yeo, "On the Causee Argument in Japanese and Korean Analytic Causative Construction", 생성문법연구 16-2, 한국생성문법학회
Seungju Yeo, "Some Notes on Resultatives in Korean", 생성문법연구 16-4, 한국생성문법학회
Sung Hun Kim, "On INT-Motivated Movements", 언어연구 21-1, 한국현대언어학회
Yong Suk Kim, "A Probe-Goal Approach to the EPP-Effect of Wh-Interrogatives in English and Korean", 현대문법연구 46, 현대문법학회
Yong-Ha Kim, "A Case for Ellipsis in Korean: The Non-Movement Multiple Object Construction", 생성문법연구 16-4, 한국생성문법학회
Young Jun Jang, "Secondary Predicates, Complex Predicates, and Serial Verb Constructions in Natural Language", 현대문법연구 44, 현대문법학회
Young Sik Choi, "Asymmetry of Locality and Intervention: What Really Matters", 언어학 14-1, 대한언어학회

〈기타〉

권재일, "어순", 새국어생활 16-1, 국립국어원
김문오, "문장 성분의 호응", 쉼표, 마침표. 6, 국립국어원
김문오, "의미의 명료성", 쉼표, 마침표. 7, 국립국어원

김문오, “접속의 형평성”, 쉼표, 마침표. 5, 국립국어원
김문오, “지나치게 긴 문장 피하기”, 쉼표, 마침표. 8, 국립국어원
우형식, “국어 분류사의 의미와 용법”, 새국어생활 16-3, 국립국어원

어휘론 · 의미론

〈단행본〉

고창운, 『신문 문장 이해』, 박이정
관정이종환교육재단 편, 『남북 통일말사전』, 두산동아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지역어 조사 질문지, 1』, 태학사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지역어 조사 질문지, 2』, 태학사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지역어 조사 질문지, 3』, 태학사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지역어 조사 질문지, 4』, 태학사
국립국어원·MBC, 『보도 가치를 높이는 TV 뉴스 문장 쓰기』, 시대의창
권오운, 『작가들이 결딴낸 우리말: 우리말 분류 소사전』, 문학수첩
金公七, 『韓日共通語彙硏究』, 한국문화사
김규철 외, 『어문학 연구의 넓이와 깊이』, 역락
김다은, 『발칙한 신조어와 문화 현상』, 작가
김대행 외, 『하이퍼텍스트의 언어문화 이해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미령, 『의사소통 속의 대응 발화』, 세종출판사
김수업, 『말꽃 타령: 김수업의 우리말 사랑 이야기』, 지식산업사
김윤옥,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어휘획득 전략: 학습전략 교육과정, 지식획득』, 교육과학사
김응모, 『한국어 농업어휘 낱말밭, 1: 겸업, 경작, 논밭, 담배, 인삼, 방적농업』, 박이정
김응모, 『한국어 농업어휘 낱말밭, 2: 농작물, 거름, 농지, 땅임자』,

박이정
김응모, 『한국어 농업어휘 낱말밭, 3: 농민, 농기구, 병충해, 농업정책』, 박이정
김응모, 『한국어 농업어휘 낱말밭, 4: 목축업, 양잠업, 양봉업』, 박이정
김응모, 『한국어 농업어휘 낱말밭, 5: 삼림업, 과수업』, 박이정
김의수, 『한국어의 격과 의미역: 명사구의 문법기능 획득론』, 태학사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진 외, 『우리말글쓰기 연관어대사전, 상: 자음편』, 황토출판사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진 외, 『우리말글쓰기 연관어대사전, 하: 모음편』, 황토출판사
김준영, 『입에 익은 우리 익은말: 글쓰기에 좋은 말글 사전』, 학고재
김진호, 『재미있는 한국어 이야기』, 박이정
김태엽, 『국어학개요』, 대구대학교 출판부
김한배, 『우리말을 좀먹는 우리말 속의 일본말: 일본어 오·남용사전』, 동언미디어
남성우, 『16세기 국어의 동의어 연구』, 박이정
박영준 외, 『광고언어론: 언어학의 눈으로 본 광고』, 커뮤니케이션북스
배성훈, 『현대국어의 내용 이해: 〈길〉 명칭을 중심으로』, 푸른사상사
백문식, 『우리말 부사 사전』, 박이정
백문식,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 한국어 어원 사전』, 삼광출판사
백봉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개정판)』, 하우출판사
상생화용연구소(김국태 외), 『내 말에 상처받았니?』,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상규·백봉자·강현화·김홍범·남길임·유현경·정희정·한송화, 『(외국

인을 위한)한국어 학습 사전』, 신원프라임
유은종 저·연변노교수협회 편찬, 『조선어의미론 연구』, 한국학술정보
이경자, 『우리말 신체어 형성, 2』, 충남대학교 출판부
이브 스윗처 저·김주식·나익주·박정운 역, 『어원론에서 화용론까지: 의미 구조의 은유적·문화적 양상』, 박이정
이상억, 『서울말 진경 구어 연구: 구어/문어 목록들 간의 비교, 음변화 규칙 및 '가지구, 말이야' 등의 분석』, 박이정
이석주·이주행, 『한국어학 개론』, 보고사
이수련, 『한국어 소유 표현 연구』, 박이정
이은규, 『고대 한국어 차자표기 용자 사전』, 제이앤씨
이희자·이종희, 『(풍부한 관용구를 수록한)어미·조사 사전: 한국어 학습 학습자용』, 한국문화사
임지룡, 『말하는 몸: 감정 표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정언학, 『상 이론과 보조 용언의 역사적 연구』, 태학사
정연일, 『통번역사의 한국어』, 이지북스
丁泰鎭·金炳濟 저·정태진선생기념사업회 엮음, 『朝鮮 古語 方言 辭典』, 민지사
지현숙, 『한국어 구어문법과 평가, 1, 이론편』, 하우
진제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수업 대화 분석』, 커뮤니케이션북스
진제희,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문제 연구: 영어권 학습자의 화용적 실패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북스
최남희·최중호·이근영·송창선·박동근·허원욱·허재영·권재일·윤혜영·이석규·이수련·정동환·방운규·김준희·김용경·이만식·최용기·서은아, 『우리말 연구의 이론과 실제』, 경진문화사
최재희, 『한국어 교육 문법론』, 태학사
최창렬, 『어원산책』, 한국학술정보

태학사 편집위원회, 『國語學論叢: 李秉根先生退任紀念』, 태학사
한국색채연구소 편, 『우리말 색이름 사전』, 칼라뱅크커뮤니케이션
한국어내용학회 편, 『한국인과 한국어문학』, 푸른사상사
홍병호, 『상황과 표현: 'Style'과 'Politeness'상의 영어와 한국어 비교』, 강남대학교출판부
Kang Hyoun-hwa 저·Peter Schroepfer·Piao Wenzi·Ogoshi Naoki 역, 『Korean picture dictionary』, Darakwon

〈학위 논문〉

강상일, 〈유머재의 시대적 수용 양상 연구: 언어 사회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건국대 교육대학원(석사)
강아름, 〈한국어 물질 명사의 의미 분석〉, 고려대 대학원(석사)
강인선, 〈동시확장활동 프로그램 적용이 어휘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 교육대학원(석사)
강혜숙, 〈경남 하동군 북천면 땅이름 연구〉, 진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경종호, 〈백석 시에 나타난 토속어 연구〉, 전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고광도, 〈한국어의 다의어 교수·학습 방안〉,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高野麻衣, 〈현대 한일 친족어의 대조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고정현, 〈한일 웹 게시판언어 비교연구〉,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고혜원, 〈중등학생 어휘 지도 방안 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석사)
곽숙영, 〈한국어의 어휘 대조 초점과 음소 대조 초점의 실현 양상〉, 고려대 대학원(석사)

권영근, 〈한국어와 영어에 나타난 문화모형 비교: 속담을 중심으로〉, 금오공과대 교육대학원(석사)

권은영, 〈광고 은유에 대한 의미론적 연구: 미백 화장품 광고에 나타난 '희다'의 의미 중심으로〉, 숭실대 대학원(석사)

권익호, 〈한일 양국 신체어휘관련 관용어의 비교・대조연구〉, 충남대 대학원(박사)

권태진, 〈영풍군 지명의 의미론적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권혜선, 〈우리말 거절 표현의 공손성 연구〉, 강릉대 교육대학원(석사)

길본일, 〈시간표현의 인지언어학적 연구〉, 부산대 대학원(박사)

김경하, 〈7차 중학교『국어』의 어휘 연구〉, 울산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대희, 〈한・일 신조어의 비교연구〉, 한남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미라, 〈한일 양 언어의 완곡표현 대조・비교〉, 경상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미림,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화법교육 연구〉, 선문대 대학원(석사)

김미숙, 〈한・일 양언어의 식감각 표현연구: 상징어 표현을 중심으로〉, 중앙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민영, 〈우리말 신체어의 의미 확장을 통한 어휘 지도 방안 연구〉, 전북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선옥, 〈문말생략표현에 관한 한・일 대조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김선희, 〈거절표현에 대한 한・일 대조연구: 유도발화의 관점에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김수경, 〈텍스트 의미 구조 표지 연구: 초등학교 교과서와 초등학생 작문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석사)

김용식, 〈국어 매체 언어의 음성 연기 연구〉, 경희대 대학원(박사)

김윤희, 〈학문적 구두발표에서의 메타언어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어 모어화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석사)
김은숙, 〈토의 상황에서 말차례 가지기에 관한 연구: '이주노동자 세상'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은정, 〈의생활 어휘의 지역방언 연구〉, 단국대 대학원(석사)
김정하,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중·고등학생 은어의 비교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종호, 〈영주 지역 지명어 연구〉, 안동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지영, 〈한·일 신체어휘의 관용구에 관한 고찰: '가슴'·「胸」과 '배'·「腹」을 중심으로〉, 경상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지현, 〈현대국어 다의성 연구: 우리말 동사를 중심으로〉, 인천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지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관용표현 연구〉, 대진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춘호, 〈한국어와 일본어의 색채표현 「녹·청」에 관한 대조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김현지, 〈한국어 접속문에서의 양보 표현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혜원, 〈중·한 관용표현 대조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박사)
김호정, 〈한국어 교육 문법의 시간 표현 연구〉, 서울대 대학원(박사)
김화진,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거절 화행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끄라포바 마리아, 〈한국어 부사의 수식 위치에 관한 연구: 통사·의미를 중심으로〉, 우석대 대학원(석사)
노희진, 〈전화 담화 분석을 통한 맞장구 고찰: 한국어 모어화자와 일본어권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화여대 대학원(석

사)

譚麗麗, 〈한국어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도브라노바 밀레나, 〈한국어와 불가리아어 격 체계 비교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류정아, 〈영어 외래어의 형태・의미론적 특성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석사)

모우리 미나, 〈전자 메일 텍스트 구조 연구: 한・일 전자메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문규원, 〈TV 뉴스의 담화분석: 의도성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석사)

문덕찬, 〈제주 지명어의 형태・음운론적 연구〉, 제주대 대학원(박사)

박경, 〈한・일・중 친족 호칭 비교 고찰〉, 경상대 대학원(석사)

박경옥, 〈담화분석을 통한 칭찬화행 연구: 한국어 회화교재와 T.V 드라마 대본을 중심으로〉,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박근배, 〈창원지역어와 고성지역어의 대비 연구〉, 경남대 대학원(석사)

박서향, 〈한국어 교재의 의미 분석을 토대로 한 다의어 교육 연구〉, 연세대 대학원(석사)

박선용,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 맞장구 어사 기능 분석〉,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선주, 〈영동군 자연마을 이름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재현, 〈설득 담화의 내용 조직 교육 연구〉, 서울대 대학원(박사)

박정은, 〈한・일 양국어의 추량표현에 관한 대조 연구: 드라마 "겨울연가"를 대상으로〉, 단국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주화,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어휘 분석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

박지순, 〈학술 논문 텍스트의 표지 분석: 국어학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方香玉, 〈「어제내훈」의 어휘론과 형태론〉, 조선대 대학원(석사)

변선영, 〈진주 지역의 지명 연구: 형태·음운을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서광진, 〈한국어 의존용언 연구: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전북대 대학원(석사)

서정애, 〈일반 작문과 컴퓨터 작문 텍스트의 비교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송신지,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어휘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석사)

송정인, 〈천안지역 간판어의 어종별 고찰-1995년과 2005년의 간판어를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송호기, 〈전북 금마 지역 지명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신혜경, 〈구약성서 『룻기』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결속 구조와 결속성을 중심으로〉, 전남대 대학원(석사)

오순례, 〈청주시 지명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오유경, 〈한일양언어의 행위요구표현연구〉, 경상대 교육대학원(석사)

王麗芳, 〈기쁨과 슬픔의 표현 양상 한·중 대조 연구〉, 부산대 대학원(석사)

王寶霞, 〈여성에 관한 한·중 속담의 비교 연구〉, 경원대 대학원(석사)

위옥선, 〈『한·일 양국의 음상징어 비교』: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단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유경, 〈한국어 의문문의 의미론적 연구〉, 군산대 대학원(석사)

유현대, 〈한국어와 영어의 은유표현 비교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유효려, 〈한국어와 중국어의 지시어 비교 연구〉, 목포대 대학원(석사)
윤기한, 〈현대국어 색채어의 의미 확장 고찰〉, 전남대 대학원(석사)
윤보은, 〈국어 높임표현 사용요인과 그 적용양상에 관한 연구: 학교 언어공동체를 중심으로〉, 국민대 교육대학원(석사)
이경화, 〈≪금강경삼가해언해≫ 연구: 국어 표기법과 어휘를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이경희, 〈〈부모은중경언해〉 이본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이규환, 〈현대국어의 〈돌〉 명칭에 대한 연구〉, 고려대 인문정보대학원(석사)
이기연, 〈어휘 교육 내용 설계를 위한 낯선 어휘의 의미 처리 양상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이리나, 〈현대 국어의 새말 형성에 대한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이상연, 〈한 · 일 양국의 외래어 비교 분석: 조선일보 한국어판 · 일본어판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석사)
이숙의, 〈한국어 동사 의미망 구축 연구〉, 충남대 대학원(박사)
이순애, 〈한국어 교재의 식생활 어휘 연구〉, 가톨릭대 대학원(석사)
이엘레나,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은유 표현 비교 연구: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정치 은유 표현〉, 경희대 대학원(석사)
이영주, 〈유의어 지도 방법 연구: 중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유미, 〈국어 담화상의 중의 현상 연구〉, 중앙대 대학원(박사)
이은영, 〈《법집별행록절요언해》 연구〉,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주경, 〈인터넷 통신 대화자명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지혜, 〈심리형용사 유의어의 의미 변별과 사전 기술 연구: 연어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석사)
이진병, 〈국어 장형 사동문의 의미 연구: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힘 관계를 중심으로〉, 전북대 대학원(석사)
이철웅, 〈충주시 간판어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이하나, 〈영어권 한국어 고급학습자의 칭찬 응답 화행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이혜영, 〈한·일 양언어의 젠더표현의 대조연구〉, 상명대 대학원(박사)
이회환, 〈국어 추측법 연구〉, 경상대 대학원(석사)
임지아, 〈한국어 교육용 어휘에 관한 연구〉, 동아대 대학원(석사)
장미희, 〈놀이 담화의 교육적 효용에 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장수정, 〈국제이주여성을 위한 어휘교재 개발 연구〉, 상명대 교육대학원(석사)
장인옥, 〈의존명사의 형태 의미론적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장주화, 〈한·중 이형동의 한자어의 비교 연구〉, 중앙대 대학원(석사)
장혜주, 〈현대 국어 신어 연구〉, 안동대 교육대학원(석사)
전락, 〈한국어와 중국어의 외국어 수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석사)
전은진, 〈이동 전화를 통한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박사)
전지원, 〈한국어 교육을 위한 칭찬 화행 연구: 칭찬 반응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선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담화표지 연구: {글쎄}, {뭐},

{좀}을 중심으로〉, 상명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유남, 〈현대 국어 추측의 양태 의미 연구〉, 고려대 대학원(석사)
정지영, 〈의미 관계를 이용한 어휘력 확대 방안: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정태경, 〈현대국어 〈음식물〉 명칭의 분절구조 연구: 〈식사 음식〉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박사)
조상진, 〈인터넷 통신 언어의 연구〉, 상지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선경, 〈한국어 신체 관련 다의어 교육 방법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은아, 〈'EBS 수능특강 언어영역' 동영상 강의의 교수발화 분석〉,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은호, 〈한국어 외래어 교육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은희, 〈이메일 제목에 나타난 언어 양상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석사)
조현아, 〈광고언어의 국어 교육적 활용 방안〉,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주빈, 〈한국어와 중국어의 수량사 구성 비교 연구〉, 광운대 대학원(석사)
진정은, 〈한국어의 대립 접속부사 문법 기술 연구: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진정희, 〈중 · 고등학생의 어휘학습전략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차윤정, 〈텔레비전 출연자의 말과 자막의 대응 양상〉, 대구대 교육대학원(석사)
최남순, 〈나로도 방언 어류 명칭어 연구〉, 순천대 교육대학원(석사)
최미향, 〈고양시 간판어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성규, 〈구역 ≪신약젼셔≫의 국어학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최세원, 〈한국어 교재의 명사 은유 표현 교육에 관한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영란, 〈순천지역의 농기구 어휘 연구〉, 순천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윤선, 〈곤충 이름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정혜, 〈국어 명사구 구성 요소의 의미 관계 연구: 'N의 N' 구조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박사)

최지현, 〈담화표지 '막'의 기능 연구〉, 목포대 교육대학원(석사)

타카스카요코, 〈한국어 학습자의 전화 대화 종결부 연구: 일본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이화여대 대학원(석사)

하지선, 〈한국어교육을 위한 종결기능 연결어미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하진희, 〈우리말 관용표현의 관용성 척도 설정 연구〉, 동아대 대학원(석사)

홍수진, 〈독일광고와 한국광고에 사용된 어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인쇄광고의 헤드라인과 슬로건에 사용된 어휘의 품사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대학원(석사)

홍승혜, 〈한·일 양국 속담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에 관한 고찰: 일본어의 명사적표현과 한국어의 동사적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황림화, 〈한국어와 조선어 속담의 비교 연구〉, 인하대 대학원(석사)

황미연, 〈한국어와 중국어의 관용표현 대조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황선영, 〈현대 국어 어휘의 텍스트 유형별 사용 양상과 특징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석사)

황은혜, 〈국어의 통사적 중의성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John Mark D. Minguillan, 〈한국과 영 · 미 문화권 동물 속담의 문화 언어학적 비교〉, 전남대 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강소영, "구어 담화에 나타난 수정 양상 연구 -수업내용을 화제로 한 대학 강사들의 대화 중심으로-",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강소영, "우측 어순 변동 구문의 실현양상과 의미기능 연구", 한국어의미학 20, 한국어의미학회

강연임, "광고 문구에 나타난 '화용적 대립어' 연구", 한국어의미학 20, 한국어의미학회

강우순, "온라인 채팅에 나타난 구어적 특성과 차이점", 언어연구 23-1, 경희대 언어연구소

강정희, "제주방언의 인식양태 표현 -형용사 구문의 부사어 "잘도"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9, 한국언어문학회

강지혜, "자막 번역과 언어 사용의 경제성", 텍스트언어학 2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강희숙, "소설『태백산맥』의 화용론 -담화 표지 "와, 웨, 잉"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7, 한국언어문학회

고창운, "변이의미의 생성과 한국인", 우리말글 36, 우리말글학회

고창운, "우리말 맛 그림씨의 어휘장 연구 -"달다"류와 "시다"류 어휘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6, 한국언어문학회

구현정·이성하, "Cognitive-Semantic Network: the Case of Korean Instrumental", 언어과학연구 38, 언어과학회

권순구, "보조용언 '버리다'의 양태 의미", 어문연구 51, 어문연구학회

권정현, "의미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 한성어문학 25, 한성대

한성어문학회
吉本一, “시간의 자원화 양상”, 담화와 인지 13-3, 담화인지언어학회
吉本一, “은유 연구의 회고와 전망: 시선의 은유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연구”, 한국어의미학 20, 한국어의미학회
김갑년, “코제리우(E. Coseriu) 텍스트개념의 응용 가능성”, 텍스트언어학 2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김건희, “형용사문의 주어와 의미역 설정에 관하여”, 언어학 44, 한국언어학회
김경아, “‘햇빛’과 ‘햇볕’에 대한 단상”, 태릉어문연구 14,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김경열, “비교구문의 범위와 특성에 대하여”, 개신어문연구 24, 개신어문학회
김기택, “시어의 어원분석 시론”, 고황논집 38, 경희대 대학원
김기혁, “국어 지정문과 존재문의 상관성”, 한글 271, 한글학회
김동성·최재웅, “저빈도어를 고려한 개념학습 기반 의미 중의성 해소”, 언어와 정보 10-1, 한국언어정보학회
김명희, “국어 의문사 “무슨”의 담화표지 기능”, 담화와 인지 13-2, 담화인지언어학회
김문기, “우리말 매인풀이씨의 은유적 의미 확장 연구를 위한 유형 설정”, 문창어문논집 43, 문창어문학회
김문기, “은유 연구의 회고와 전망: 같은꼴 매인풀이씨의 은유적 의미 확장”, 한국어의미학 20, 한국어의미학회
김미경, “한국 아동의 정보교환 능력 발달 양상”, 담화와 인지 13-2, 담화인지언어학회
김미령, “반응요구 화행의 유형 설정”, 한민족어문학 49, 한민족어문학회
김미숙, “Korean Children’s Acquisition of Novel Compound

Nouns", 담화와 인지 13-2, 담화인지언어학회
김미자, "한국어 "것"에 대한 검토", 언어연구 23-1, 경희대 언어연구소
김병균, "全北 鎭安地方의 風水地名 硏究(1)", 어문논집 35, 중앙어문학회
김상태, "대학생들의 어휘 사용 연구 -청주대 박물관 답사기를 통하여", 새국어교육 73, 한국국어교육학회
김상태, "음운적 단어 설정에 대한 연구 -띄어쓰기 오류 분석을 통하여-",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김선정·강현자, "한국어 관용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및 단원 제시",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김소영, "건의문 쓰기의 지도 방안 연구", 우리말연구 19, 우리말학회
김소영, "연설의 담화 유형적 특성과 평가의 방향", 화법연구 9, 한국화법학회
김순자, "제주의 떡 이름", 영주어문 12, 영주어문학회
김영순·김정은, "신체 특성과 신체 접촉의 기호화용론적 구조 -봉산탈춤의 노장과장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29, 한국언어문화학회
김영순·오영훈, "급진적 구성주의의 이해 모델에 관한 인지적 해석", 언어과학연구 36, 언어과학회
김영순·이미정, "여성잡지 텍스트에 나타난 여성 몸의 기술 양상과 구조적 메커니즘", 텍스트언어학 2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김영일, "동물 명칭 관련 지명의 새로운 인식", 어문학 92, 한국어문학회
김영철, "국어 담화표지 "어"의 고찰", 국어문학 41, 국어문학회
김용범, "On Saliency in Multiple Nominative Constructions", 언어

연구 21-3, 한국현대언어학회
김윤신, “사동·피동 동형동사의 논항교체 양상과 의미해석”, 한국어의미학 21, 한국어의미학회
김윤신, “한국어 동사의 사건구조와 어휘상(語彙相)”,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김윤옥, “상호주관적 화법의 특성 연구”, 청람어문교육 34, 청람어문교육학회
김일곤, “Agentivity and Case Markings on the Causative Pivot in Korean Analytic Causative Constructions”, 담화와 인지 13-1, 담화인지언어학회
김정선·장경희, “일상 대화에 나타난 진술의 평균 확장 발화 수”, 텍스트언어학 2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김정우, “2006년 동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인쇄광고언어의 텍스트성 구현 양상 -표제부와 부제부 간의 응집성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26, 우리어문학회
김정우, “라디오 광고언어에서 2인칭 대명사의 사용 양상”, 우리어문연구 27, 우리어문학회
김정우, “초기 라디오 광고언어에서 대명사 “여러분”의 사용양상 -1959~1964년의 라디오 광고언어를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25, 한성대 한성어문학회
김정태, ““마을”(동(洞), 촌(村))을 지시하는 전래지명어의 한자어화에 대하여 -천안 지역의 지명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3-3,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김종국·신동일·박성원, “인터뷰평가의 담화분석 연구 -상호작용 담화모형 관점에서-”, 한국어교육 17-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종영, “정치연설 텍스트에 나타난 민족공동체 담론 분석 -국가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2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김지홍, “국어 통사, 의미론에서의 “방법론” 검토”, 배달말 39, 배달말학회
김진해, “사건의미론 관점에서 본 상징부사의 서술성 해석”, 담화와 인지 13-3, 담화인지언어학회
김진해, “코퍼스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의미의 본질”, 한국어의미학 21, 한국어의미학회
김천학, “국어의 동작상과 동작류”,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김태엽, “2006년 봄 중점학술발표 대회: 문학과 방언: 현진건 소설의 방언 연구”, 국어국문학 142, 국어국문학회
김태엽, “국어 대우법 체계에 낮춤 등급을 설정할 수 없는 이유”, 한국언어문학 59, 한국언어문학회
김태엽, “이병각 작품에 나타난 경북 방언”, 어문연구 51, 어문연구학회
김태자·김혜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읽기 교육의 화용론적 인식 지도”, 인문과학연구 11, 전주대 인문과학종합연구소
김한샘, “말뭉치에 기반한 공간 명사의 의미 변화 연구”, 반교어문연구 21, 반교어문학회
김해연, “문어담화 의문문의 대화분석적 접근 -[토지]에 나타난 의문문의 분석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2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김해연·유경애·Roland Sussex, “A Cross-Cultural Study of E-mail Discourse between Koreans and Australians”, 담화와 인지 13-2, 담화인지언어학회
김혜경·윤애선, “동사 어휘의미망의 반자동 구축을 위한 사전정의문의 중심어 추출”, 언어와 정보 10-1, 한국언어정보학회
김혜숙, “총장 연설 화법의 텍스트담화적 전략”, 사회언어학 14-2, 한국사회언어학회
김호정, “담화 차원의 문법 교육 내용 연구”, 텍스트언어학 21, 한국

텍스트언어학회
김호정, “한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 문법 지식 내용 연구 -관용 표현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김흥수, “개교 60주년 기념 특별호: 신동엽 시의 상호텍스트성”, 어문학논총 특별호,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김희경, “관용어구의 대조언어학적 연구”,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김희경, “속담을 통한 언어와 문화의 이해”, 한국어문학연구 24, 한국외대 한국어문학연구회
나은미, “2006년 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텍스트의 내용과 접속의 표지의 상관관계 연구 -소설『익명의 섬』을 대상으로-”, 우리어문연구 27, 우리어문학회
나은미, “어휘부의 존재 방식과 단어 형성”, 한국어의 미학 20, 한국어의미학회
나은미, “접미사 “-음, -기”의 범주와 의미에 대한 연구”, 한성어문학 25, 한성대 한성어문학회
나익주, “은유 연구의 회고와 전망: ‘정’과 ‘한’의 은유적 개념화”, 한국어의미학 20, 한국어의미학회
남경란, “『사서언해』의 국어학적 고찰 -『논어언해』의 어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34,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남경완·최정혜, “중의 어절의 문법 범주별 유형 연구”, 민족문화연구 4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남길임, ““아니다”의 패턴 연구 -말뭉치의 문맥색인(concordance)을 활용하여-”, 어문론총 44, 한국문학언어학회
남길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에서의 어휘 기술 방법론 연구”, 한글 271, 한글학회
남길임, “텍스트 장르에 따른 문장 확대 양상 연구 -학술개론서와

학술강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2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남지순, "한국어 명사구성비자립어(NXF) 전자사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논의",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남지순, "한국어 의존명사 전자사전 어휘부 구성을 위한 연구", 언어학 44, 한국언어학회
노명희, "국어 한자어와 고유어의 동의중복 현상", 국어학 48, 국어학회
노은희, "일상 대화에 나타난 발화의 "예고 표현"에 관한 연구 -드라마 자료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2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마쯔자키마히루, "실제적인 대화 자료 작성에 관한 연구 -대화분석으로 본 청취교재-",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문금현, "한국어 명사 '눈'의 교육 방안", 한국어의미학 21, 한국어의미학회
문금현,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다의어 학습 방안 -동사 "보다"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문순덕, "제주방언 '불다'의 문법화 과정", 영주어문 12, 영주어문학회
민현식, "국어교육에서의 지도력(리더십) 교육 시론", 화법연구 9, 한국화법학회
박건숙, "자연언어처리를 위한 구문, 의미 정보 구축 -날씨어휘장의 {비}를 대상으로-", 한국어의미학 19, 한국어의미학회
박근영, "{네}의 재고찰", 한국어문학연구 23, 한국외대 한국어문학연구회
박근영, "'이', '그', '저(더)'의 의미 기능 변화", 언어와 문화 2-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박기선, "개화기 한자 어휘의 변천에 관한 小考 -'텬로력뎡'의 異本

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2-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박기선, "한국어 대화에서 나타나는 응답의 유형 분석", 한국어문학연구 23, 한국외대 한국어문학연구회
박문자, "한국어 원어민 화자의 표현 형태 양상 조사 연구",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朴仙玉, "補助動詞 '버리다'와 '치우다'가 쓰인 구문에 대한 統辭論的·意味論的 연구", 어문연구 1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박선옥, "인터넷 토론글 사례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인터넷 토론 의사소통 방식에 관한 연구", 화법연구 9, 한국화법학회
박성철, ""패틱 커뮤니온"의 전통적 개념규정과 그 소통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텍스트언어학 2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박수연, "한국어 학습 사전의 연구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31, 이중언어학회
박숙영, "의지 표현들의 의지 정도성 비교 -'-겠어요', '-(으)ㄹ거예요', '-(으)ㄹ래요', '-(으)ㄹ게요'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2-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박영순, "은유 연구의 회고와 전망: 은유 연구의 성과와 방법론", 한국어의미학 20, 한국어의미학회
박영준·이동혁, "텔레비전 뉴스꼭지의 연결구조",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박용식, "땅이름 "덤"의 분포와 의미", 국어학 48, 국어학회
박용익, "의사-환자 대화의 제도적 특징과 유형학", 텍스트언어학 2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박유현, "현대 국어 조사 "-가"의 구어에서의 비실현 양상 연구", 어문론총 45, 한국문학언어학회
박재양, "추녀와 처마의 어원", 인문과학 38,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박재현, “설득 화법 교육을 위한 텍스트 연결 표현의 의미기능 연구”, 텍스트언어학 2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박정운, “한국어 조건문의 인식태도”, 담화와 인지 13-2, 담화인지언어학회
박정진, “수업 담화에서의 질문활동 구조”,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박종갑, “언어와 사고의 상관 관계 연구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다의어 비교를 통해-”, 우리말연구 19, 우리말학회
박지현, “한국어와 영어 차용어의 동의어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23, 한국외대 한국어문학연구회
박진호, “자연언어처리와 국어 연구”, 국어국문학 143, 국어국문학회
박찬식, “유해류 역학서 “인품(人品)”부 어휘의 고찰”, 겨레어문학 36, 겨레어문학회
박찬식, “유해류 역학서의 “궁실”(宮室)부 어휘의 고찰”,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박철우, ““이다” 구문의 통사구조와 {이}의 문법적 지위”,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박철주, “『대명률직해』와 현대국어의 구문상 표현차이 연구”, 한국어의미학 21, 한국어의미학회
박철주, “먹을거리 합성어의 내면 의미에 대한 연구”, 우리말글 36, 우리말글학회
박철주, “신조 감탄사 및 의성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육학회
박철주, “함축구문 형성규칙에 대한 연구 -주제구문에 의하여-”, 텍스트언어학 2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박형익, “「언문 주히 보통문ᄌᆞ집(諺文 註解 普通文字集)」의 사전학적 분석”,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박희문, “한국어 이중주어구문의 제약기반적 분석”, 언어연구 21-1,

한국현대언어학회
방경원,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 분석을 위한 텍스트종류 서술모델 -전문언어 텍스트종류 연구”, 텍스트언어학 2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방향옥, “『어제내훈』의 어휘 연구”, 새국어교육 74, 한국국어교육학회
배도용, “우리말 ‘코’의 의미 확장과 개념망”, 비교문화연구 18, 부산외대 비교문화연구소
배현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 교수법 연구”, 이중언어학 31, 이중언어학회
백낙천, “국어 조사의 범주와 의미”, 한국언어문화 30, 한국언어문화학회
백승국, “광고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전략 -국순당 광고의 기호학적 분석-”, 텍스트언어학 2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범금희, “대구 토박이말의 {어 가지고} 관련 어형별 실현양상”, 한민족어문학 49, 한민족어문학회
서덕현, “화법 교육의 문제: 수업 현장의 교사 화계에 대한 연구”, 화법연구 9, 한국화법학회
서은아, “일제 시대 광고 언어의 특징 연구”,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서정민·조학행, “현재완료와 중의성”, 언어연구 21-2, 한국현대언어학회
서희정, “한국어 교육에서 부사 ‘좀’의 담화 기능”, 고황논집 39, 경희대 대학원
석주연, ““-도록”의 의미와 문법에 대한 통시적 고찰”, 한국어의미학 19, 한국어의미학회
성귀복, “한국어/영어 이중언어화자의 이메일에 나타난 언어전환의

형식과 기능",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성희제, "대전 서남부 지명어의 음운과 형태 연구", 어문연구 52, 어문연구학회
손남익, "국어 반의어의 존재 양상 -"무-" 접두어를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19, 한국어의미학회
손범규, "남북한 월드컵 중계방송 언어 비교 연구 -2002년과 2006년 월드컵 중계방송을 중심으로-", 화법연구 9, 한국화법학회
손은남·강수균, "청년기와 노년기의 이야기 담화 능력 특성 연구", 언어치료연구 15-1, 한국언어치료학회
손현정, ""동안" 부사어의 의미 기능 연구", 언어학 14-3, 대한언어학회
송도규, "한국어 부정표현의 형식화와 온톨로지 변환", 한국어의미학 19, 한국어의미학회
송도규, "한국어 양화표현의 형식화와 온톨로지 변환", 언어과학 13-1, 언어과학회
송민, "2005-1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정례학술대회: 우리말의 발자취: 단어의 의미와 어원", 어문학논총 25,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송부선, "은유 연구의 회고와 전망: 영어와 한국어에서의 '화'와 '행복' 은유", 한국어의미학 20, 한국어의미학회
송지혜, "'덥-'의 의미 변화 연구", 어문학 94, 한국어문학회
시정곤, "사이버 언어의 조어법 연구",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신명선, "국어 학술텍스트에 드러난 헤지(Hedge) 표현에 대한 연구", 배달말 38, 배달말학회
신명선,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육의 내용 연구",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신선경, "은유 연구의 회고와 전망: 설득의 수단으로서의 은유", 한국어의미학 20, 한국어의미학회

신선경, “자연과학적 글쓰기의 수사적 전통과 방향(Ⅰ) -1900년대 학회지에 실린 과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2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신언호, “한국어 현재 시제의 다의적 현상에 대한 고찰”, 한국어의미학 21, 한국어의미학회
신중진, ““고드름”의 방언(方言) 분화(分化)와 어원(語源)”, 국어학 48, 국어학회
신중진, “국어국문학과 지역의 문제: 한국 근대 초기의 ‘洋’ 관련 서구 문명 어휘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44, 국어국문학회
신지연, ““우리에게 담화(discourse)란 무엇인가”: 국어 텍스트의 거시구조 접속”, 시학과 언어학 11, 시학과 언어학회
申智姸, “論證텍스트의 段落間 의미구조”, 텍스트언어학 2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신희삼, “한용운 시의 언어적 분석 연구”, 한국어의미학 20, 한국어의미학회
심재기, “2005-1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정례학술대회: 우리말의 발자취: 국어어휘의 출생과 성장”, 어문학논총 25,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심혜령, “한자어 명사의 공기 관계와 중국어와의 비교 -1등급 기초 어휘 중 일부 한자어 명사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안경화, “신문 수업용 어휘 목록의 작성 방향”,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안인숙, “象徵語의 通時的 硏究”, 어문논집 34, 중앙어문학회
안주호, “인용동사의 문법적 고찰”, 우리말글 37, 우리말글학회
안주호, “현대국어 ‘싶다’ 구문의 문법적 특징과 형성과정”, 한국어의미학 20, 한국어의미학회

안희돈·조성은, “On Form-function Mismatch Puzzles in Fragments: An Ellipsis Approach”, 담화와 인지 13-1, 담화인지언어학회
안희돈·조성은, “Wh-Topics and Unpronounced Cases on Wh-phrases”, 생성문법연구 16-1, 한국생성문법학회
양명희, “비지시 대용어의 대용성”, 한국어의미학 19, 한국어의미학회
양명희, “텔레비전 뉴스 기사의 특징과 텍스트성 -메인 뉴스를 대상으로-”, 텍스트언어학 2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양영희, “15세기 호칭어 체계 구축을 위한 시론”, 한국언어문학 57, 한국언어문학회
양태영, “[젊음]에 대한 개념적 은유”, 담화와 인지 13-1, 담화인지언어학회
양태영·이정화, “시사만화의 개념적 환유, 은유 분석”, 언어과학연구 38, 언어과학회
양태종, “기호통사론 기반의 무늬모형 -플렛의 무늬모형이 나오기까지-”, 텍스트언어학 2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엄용남, “음성상징어의 어휘적 구조와 특징”, 인문과학연구 11, 가톨릭대 인문과학연구소
오명기,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Compliment Behavior between Koreans and Americans”, 현대문법연구 43, 현대문법학회
오문경, “한·일 指示詞의 대조 분석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23, 한국외대 한국어문학연구회
오장근, “문화콘텐츠 분석을 위한 인문학적 분석 도구 -텍스트-기호학에 기반한 문화연구를 위하여-”, 언어과학연구 38, 언어과학회
오장근, “여가문화 분석을 위한 텍스트-기호학 기반의 비교 문화론

적 연구 -여가콘텐츠를 이용한 국내 3개 카드사 광고의 문화브랜딩 전략 분석-", 텍스트언어학 2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오창명, "추자면(楸子面)과 지명", 영주어문 12, 영주어문학회
위혜경, "Definiteness of Wh-Phrases Extractable from Weak Islands", 언어 31-3, 한국언어학회
유동엽, "판별함수를 활용한 화법능력의 평가에 관한 연구 -자기소개대화를 매개로-", 국어교육학연구 25, 국어교육학회
유동엽, "화법교육 연구방법의 내용분석",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유혜원·남경완·홍종선, "한국어의 형태론적 중의 어절 사전 구축과 표제어 선정",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윤석민, "2006년 봄 중점학술발표 대회: 문학과 방언: 소설과 방언 그리고 텍스트언어학", 국어국문학 142, 국어국문학회
윤은경, "한국어 양태 표현 연구 -종결어미 '-(으)ㄹ래, -(으)ㄹ게'를 대상으로", 언어와 문화 2-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윤은경, "한국어 종결어미 양태 표현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24, 한국외대 한국어문학연구회
이경자, "우리말 연구 -『돌출(突出)』 개념 낱말 중심-", 인문학연구 33-1,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이광호, "'낯'과 '얼굴'의 의미 고찰", 어문학 93, 한국어문학회
이금희, ""-느라고, -느라면, -느라니까"의 통사, 의미적 특징", 반교어문연구 21, 반교어문학회
이기갑, "국어 담화의 연결 표지 - 완형 표현의 반복", 담화와 인지 13-2, 담화인지언어학회
이다미, "유표성과 L2 수량 분류사 습득", 이중언어학 31, 이중언어학회
이덕희, "물명어휘집의 의미적 체계", 우리말연구 19, 우리말학회

이덕희, “물보와 청관물명고의 사전적 특성 -사전의 체제와 정의항의 유형”, 새국어교육 73, 한국국어교육학회
이동석, “우리말 관련 신문 연재 기사의 오류에 대하여”, 우리어문연구 26, 우리어문학회
이동석, “중세국어 “짛다”의 의미 및 변화 연구”,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이동혁, “‘셀프+N’의 의미 합성”, 한국어의미학 20, 한국어의미학회
이동혁, “한영 기계번역 시스템의 다의 정보 처리에 대하여”, 한글 274, 한글학회
이동혁·오장근, “다국어 어휘의미망에 한국어 관용표현을 연결하는 방법”, 언어과학연구 36, 언어과학회
이병기, ““-겟-”의 문법화와 확정성”, 진단학보 102, 진단학회
이상혁, “재일교포 이중언어 사용자 및 일본인들의 우리말 명칭 인식 태도에 대한 고찰 -한국어와 조선어 명칭의 인식 태도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27, 우리어문학회
이상희, “청각장애아동의 어휘발달에 관한 연구의 동향”,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17, 순천향대 인문과학연구소
이선영, “후기 중세국어 색채어의 어휘적 특징과 의미”, 국어학 47, 국어학회
이성만, “「날씨예보」의 텍스트유형학적 연구”, 텍스트언어학 2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이성만, “미디어 텍스트의 상호텍스트적 특성 연구”, 언어과학연구 37, 언어과학회
이성범, “대격 조사 생략의 화용적 분석”, 담화와 인지 13-3, 담화인지언어학회
이성연·정옥란, “북한 고등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어휘 연구”, 새국어교육 74, 한국국어교육학회

이성하, “A Cognitive Comparative Analysis of Spatial Concepts in English and Korean”, 담화와 인지 13-1, 담화인지언어학회
이성하, “Body, Cognition and Language”, 언어과학연구 36, 언어과학회
이성하, “Formal Variation and Colloquiality in Korean: Implications on the Grammaticalization Theory”, 현대문법연구 45, 현대문법학회
이성하, “Stratified Complex Postpositional System in Korean: A Contact Linguistics Perspective”, 담화와 인지 13-2, 담화인지언어학회
이수련, “은유와 환유의 상호 작용성 연구”, 한글 271, 한글학회
이수련, “은유와 환유의 인지언어학적 관련성 연구”, 새얼어문논집 18, 새얼어문학회
이숙, ““다가”의 용법에 대하여”,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이영옥, “한국어와 영어간 발화행위 표현방식의 차이”, 담화와 인지 13-3, 담화인지언어학회
이영이, “초등학생 말하기의 대화 분석론적 연구”, 어문학교육 32, 한국어문교육학회
이영헌, “부사어와 기능적 핵어”, 언어학 14-3, 대한언어학회
이원경, “감정동사의 분류와 특성분석”, 담화와 인지 13-1, 담화인지언어학회
이원표, “북한 신문 사설의 비평적 담화분석: ‘주체사상’ 이념의 표현방법을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13-3, 담화인지언어학회
이원표, “청문회 신문 상황에서의 행위성 표현: 동사 선택, 의미적 역할, 타동성의 담화, 화용적 측면”, 담화와 인지 13-1, 담화인지언어학회
이유미, “은유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어 은유의 근원영역 특징”,

한국어의미학 20, 한국어의미학회
이윤진,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윤하, “부사형(副詞形) 어미(語尾) “-게” 구성(構成)의 통사(統辭), 의미(意味) 기능(機能)에 대하여”,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육학회
이은섭, “KS규격으로 완성된 ‘우리말 표준 색이름 체계’에 대한 일고찰”, 정신문화연구 29-1,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재원, “한국상업광고사 -언어기능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2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이정복, ““힘”과 “거리” 요인에 따른 탈춤 대사의 경어법 연구”, 우리말연구 18, 우리말학회
이정애, “한국어의 메타언어적 의미분석을 위한 소론 -동사 ”깨다, 부수다, 쪼개다, 나누다”를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13-1, 담화인지언어학회
이정찬, “신문 기사문 형식의 발전과정 연구”, 선청어문 34, 서울대 국어교육과
이정택, “필수성과 수의성의 본질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이정화·Kaori Kabata, “A Comparative Cognitive-Semantic Analysis of Spatial Postpositions in Korean and Japanese”, 담화와 인지 13-2, 담화인지언어학회
이정훈, “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그리고’에 대한 고찰”, 우리말글 36, 우리말글학회
이종열, “유아용 동화책에 나타난 은유표현의 특성 연구”, 문학과 언어 28, 문학과언어학회
이종열, “유아의 은유 이해도 측정을 위한 은유 목록화 연구 -동화

책에 나타난 은유표현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44, 한국문학언어학회
이종열, "은유 연구의 회고와 전망: 신체적 경험에 의한 '마음'의 개념화 양상", 한국어의미학 20, 한국어의미학회
이종열·배기조, "은유 이해 능력의 습득과 발달 양상", 담화와 인지 13-3, 담화인지언어학회
이준희, "영아의 어휘 사용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 겨레어문학 37, 겨레어문학회
李知英, "中世國語 '아직, 안즉, 안즉, 안직'의 意味와 통사적 특징", 어문연구 1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이지영,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담화 능력 배양을 위한 담화 정보 활용", 한국어교육 17-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찬규·조재형, "'-겠-'의 原形 意味 考察", 어문논집 35, 중앙어문학회
이창덕, "한국 가족의 의사소통 문제와 개선 방안", 화법연구 9, 한국화법학회
이한정, "Effects of Focus and Markedness Hierarchies on Object Case Ellipsis in Korean", 담화와 인지 13-2, 담화인지언어학회
이해영, "현지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화행 실현에 미치는 영향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이혜란, "A Study on Scrambling in Korean", 생성문법연구 16-3, 한국생성문법학회
이호승, "국어주제어와 담화 주제", 개신어문연구 24, 개신어문학회
이홍식, "교착소의 의미 분석에 대하여", 언어과학연구 39, 언어과학회
이희두, "움라우트 불투명성의 통시적 고찰", 언어학 14-3, 대한언어학회

임규홍, “한국어 첫소리 [ㅁ]과 [ㅂ] 낱말의 의미특성”, 우리말글 37, 우리말글학회
임은하, “‘-므로’의 의미”, 태릉어문연구 14,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임지룡, “감정의 인지작용 양상”, 국어교육연구 39, 국어교육학회
임지룡, “은유 연구의 회고와 전망: 개념적 은유에 대하여”, 한국어의미학 20, 한국어의미학회
임지룡, “의미교육의 학습 내용에 대하여 -제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임지룡,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의미의 본질”, 한국어의미학 21, 한국어의미학회
임지룡, “환유 표현의 의미특성”, 인문논총 55,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임지원, “광고어에 나타난 환유의 유형과 작용 원리”, 인문학연구 33-1,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임채훈, “문장 의미와 사건”, 한국어의미학 21, 한국어의미학회
임혜원, “국어 사물 개념의 은유적 확장 연구 -대화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국어의미학 19, 한국어의미학회
장경현, “인터넷 블로그에 나타나는 종결 어미 ”-지(요)의 용법과 의미”, 한국어의미학 19, 한국어의미학회
장미라, “한국어 보조 용언의 상적, 양태적 의미 기능과 통사적 특징 -“놓다, 두다, 버리다, 내다, 말다, 치우다”를 중심으로-”, 배달말 38, 배달말학회
장영길, “『언해납약증치방(諺解臘藥症治方)』의 희귀어휘 연구”, 반교어문연구 21, 반교어문학회
장영희, “비언어적 행위 표현에 대한 연구”, 국어문학 41, 국어문학회
장영희, “화법 교육의 문제: 침묵의 유형과 교육적 의의”, 화법연구

9, 한국화법학회
장지은, “신문광고에 사용된 외래어 -어휘와 표기를 중심으로-”, 강남어문 16, 강남대 국어국문학과
전성용, “한국어와 일본어의 可能表現의 比較硏究”, 인문과학논집 34,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전영옥, “구어의 단위 연구”,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전은진, “이동 전화를 통한 대화와 메시지 연구”, 우리말글 38, 우리말글학회
전정례, “20세기 언어 연구에서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육학회
전정미, “거절 화행의 실현 양상”,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전정미, “사과행위의 표현 양상”, 담화와 인지 13-3, 담화인지언어학회
전혜영, “언어 사용자의 성별과 발화 특성”,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정민영, “仁谷里의 지명”, 언어학 10, 중원언어학회
정병철, “지각동사 ‘보다’의 의미망”, 문학과 언어 28, 문학과언어학회
정상섭, “공감적 의사소통의 본질 고찰”, 새국어교육 72, 한국국어교육학회
정상섭, “초등학생 일상대화의 문제점 고찰”, 청람어문교육 33, 청람어문교육학회
정선주, “한국어 감탄 표현의 유형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23, 한국외대 한국어문학연구회
정성미, “‘實體性 名詞+하-’의 構成에 관한 硏究”, 강원인문논총 15,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정여훈, “신문 제목의 유형 및 그 실현 양상”, 사회언어학 14-1, 한국

사회언어학회
정윤희, “TV 공익광고에 나타난 언어적 특성”, 새얼어문논집 18, 새얼어문학회
정종수, “이름의 유사성으로 생성된 별명에 관한 연구”, 언어연구 21-2, 한국현대언어학회
정주리, ““-음”, “-기”의 의미와 제약”,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정주리, ““-주다” 형식의 구문과 의미”, 한국어의미학 19, 한국어의미학회
정진원, “춘원 이광수의 소설 〈사랑〉의 불교적 상호텍스트성 -불교시 〈인과〉, 〈애인〉, 〈법화경〉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2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정현선, “한국어교육학회 제260회 학술대회 특집: 국어 생활과 국어문화: 미디어 소통의 관점에서 본 인터넷 공론장의 언어문화”,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정혜승, “화법 교육의 문제: 교실 소통의 양상과 문제”, 화법연구 9, 한국화법학회
정호완, “지명소 ‘고마’의 의미와 분포”, 우리말글 36, 우리말글학회
정희창, “준말의 단어 형성 문제”, 반교어문연구 21, 반교어문학회
조경순, “현대 국어 상호동사 구문 연구”, 한국언어문학 57, 한국언어문학회
조규태, “용비어천가 주해 속의 우리말 어휘에 대하여”, 어문학 92, 한국어문학회
조규태, “중세 국어의 선어말 어미 “-으니-”에 대하여”, 배달말 39, 배달말학회
조규태, “한국어 수사의 어원과 어형 변화에 대하여”, 어문학 94, 한국어문학회
조남호, “국어 대우법의 종합적 검토: 국어 대우법의 어휘론적 이

해", 국어학 47, 국어학회
조원형, "신문 기사 중간제목의 유형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겨레〉 2006년 2월 치 기사를 대상으로-", 텍스트언어학 2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조은경·서상규·서정연, "지시 해석을 위한 "그것"의 쓰임에 관한 연구", 언어 31-1, 한국언어학회
조은경·이민행, "지시 해석을 위한 "것"의 식별과 쓰임에 관한 연구",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조재윤, "화법 교육의 문제: 국어과 말하기, 듣기 평가 실태 조사 연구", 화법연구 9, 한국화법학회
조창규, "국어교과서의 관용표현에 대한 연구 -7차 국어교과서 관용표현의 빈도와 교과 내용 분석을 주로 하여-", 배달말 38, 배달말학회
조태린, ""국어"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학 48, 국어학회
조항범, ""밤고개" 관련 지명의 형성과 변형", 한국언어문학 59, 한국언어문학회
조항범, ""앚" 계열 어휘의 형성(形成)과 의미(意味)", 한국어의미학 19, 한국어의미학회
조항범, ""앚-[小]" 계열 어휘의 어원(語源)과 의미", 국어학 47, 국어학회
조항범, "開化期를 前後한 시기에 생성된 관용 표현",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조항범, "地名의 同義 重複 현상에 대하여", 한국어의미학 21, 한국어의미학회
조형일, "한국어 어휘의 교육용 시소러스 개발 방안 연구", 선청어문 34, 서울대 국어교육과

주경미, “신소설에 나타난 신체어 관련 관용 표현 연구 -“손, 눈, 입, 코, 귀”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8, 한국언어문학회
주경희, “속담 비유성의 의미, 화용론적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5, 국어교육학회
진대연, “한국어 쓰기능력 구성요소로서의 어휘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진정근, “대화관련 실용서에 대한 기초 연구 -언어학적 시각에서-”, 텍스트언어학 2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진정란, “‘때문’ 구성 이유 표현의 담화 문법”, 언어와 문화 2-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채완, “은유 연구의 회고와 전망: 바둑 용어의 은유”, 한국어의미학 20, 한국어의미학회
채현식, “은유표현의 해석과 유추 -심리과정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채현식, “합성명사에서의 의미 전이와 관습화”, 한국언어문학 58, 한국언어문학회
최동권, “국어, 몽골어, 만주어 인용문 비교연구”, 알타이학보 16, 한국알타이학회
최운호·강범모·차재은, “은유 연구의 회고와 전망: 코퍼스를 이용한 은유 표현의 추출과 어휘데이터베이스의 확장 연구”, 한국어의미학 20, 한국어의미학회
최원평, “한 · 중 의성어의 형태적 음운적 특징”, 한국언어문화 31, 한국언어문화학회
최인자, “상생 화용 교육을 위한 소통의 중층적 기제 연구”, 국어국문학 144, 국어국문학회
최전승, “국어 지역 방언에서 일어난 의미 변화의 일반적 발달 경향과 환유(metonymy)와의 상관성 -전라방언에서 “도르다/두르다”

형의 의미 전이 (기〉도)의 경우를 중심으로-", 배달말 39, 배달말학회
최형강, ""명사+부리다" 연어 구성에서의 의미 전이",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최호섭·임지희·옥철영·김정우, "대규모 우리말 어휘지능망 구축 방법", 한글 273, 한글학회
최호철, "북한의 국어 의미 연구 60년", 한글 273, 한글학회
최호철, "전통 및 구조 언어학에서 본 의미의 본질", 한국어의미학 21, 한국어의미학회
최홍열, "훈몽자회 「질병」부 자훈의 고찰 -"내과"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최홍원, "놀이로서의 언어 교육 내용 연구 -상거래 담화를 중심으로-", 배달말교육 27, 배달말교육학회
타이라카오리, "구어체 "-거든"에 관한 일고찰 -시나리오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탐바라 쿠니히로, "한국어 '먹다'와 일본어 '食べる'의 意味 比較에 관한 小考", 한국어문학연구 24, 한국외대 한국어문학연구회
하길종, "중, 근세 국어의 첩어 연구", 우리어문연구 26, 우리어문학회
學術調査報告, "南濟州郡 南元邑 新興里 現地學術調査報告 -조사경위·마을개황·방언·민요·설화·신앙-", 백록어문 22, 백록어문학회
한성일, "유머 텍스트의 응결성과 응집성", 겨레어문학 37, 겨레어문학회
한스 슈바르츠 저·박성철 역, "낱말밭: 용어, 개념, 비유들 -전망", 한글 273, 한글학회
한영균, "한국어 어휘 교육·학습 자료 개발을 위한 계량적 분석의 한 방향", 어문학 94, 한국어문학회

허용, “모음교체 현상의 보편성 연구 -영어, 아랍어, 한국어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0, 이중언어학회

홍사만, “『倭語類解』의 어휘 분석(2) -치음 아래 /j/ 유지 표기-”, 한일언어문화연구 10, 한·일언어문화연구소

황병순, “‘-었-’ 삭제와 생략에 대한 연구”, 어문학 94, 한국어문학회

황용주, “연어 구성 변화에 대한 국어정보학적 연구 -신소설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8, 한국언어문학회

황화상, “우리말 접사의 의미론적 고찰 -단어 구조와 관련하여-”, 우리말연구 19, 우리말학회

Choong Yon Park, “Discourse in Ceysa: From a worship to a commemorative ceremony”, 언어 31-2, 한국언어학회

Chung Hoon Lee, “Syntagmatic Relations in Corpus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Focusing on Korean Particles”, 현대문법연구 44, 현대문법학회

Ha Kyeon Kim, “EF-feature and Wh-Scrambling”, 현대문법연구 44, 현대문법학회

Hyunoo Lee, “The Syntax and Semantics of Yekan and Its Cousins”, 언어와 정보 10-2, 한국언어정보학회

Jeong Me Yoon, “Selective Island Effects in Korean Wh-Constructions: A Diachronic Approach”, 언어 31-2, 한국언어학회

Jeong Suk Kim, “An Inter-typological and Intra-typological Analysis of Metaphorical Motion”, 현대문법연구 46, 현대문법학회

Ji Ni Noh, “The emergence of intersubjectivity in Korean conversations -A study on the general noun construction, -n-ke-ya”, 선청어문 34, 서울대 국어교육과

Jong Bok Kim, “Minimal Recursion Semantics: An Application into Korean”, 언어학 14-2, 대한언어학회

Jong Bok Kim, “Syntax and Semantics of Numeral Classifier Constructions in Korean”, 현대문법연구 44, 현대문법학회

Jung Min Jo·Seok Keun Kang·Tae Jin Yoon, “A Rendezvous of Focus and Topic in Korean: Morpho-syntactic, Semantic, and Acoustic Evidence”, 언어학 14-2, 대한언어학회

Keun Won Sohn, “On Scope Freezing and Counter Scope Freezing Effects”, 언어연구 21-1, 한국현대언어학회

Kwang Sup Kim, “Focal Ellipsis and Echo Questions”, 현대문법연구 46, 현대문법학회

Park Yun-joo, “Korean Children’s Identity Construction while Living in Two Languages”, 사회언어학 14-2, 한국사회언어학회

Sei Rang Oh, “Distributivity and Pluractionality”, 언어 31-2, 한국언어학회

Sei-Rang Oh, “On the Semantics of Distance-Distributivity Markers”, 생성문법연구 16-2, 한국생성문법학회

Seok Hee Song, “A correspondence of the N-V collocations between German and Korean”, 언어학 44, 한국언어학회

Seungju Yeo, “On the Causee Argument in Japanese and Korean Analytic Causative Construction”, 생성문법연구 16-2, 한국생성문법학회

Young Jun Jang, “Secondary Predicates, Complex Predicates, and Serial Verb Constructions in Natural Language”, 현대문법연구 44, 현대문법학회

〈기타〉

강영봉, “제주어 이야기”, 새국어생활 16-2, 국립국어원
강인숙, “옛말의 아름다움과 사투리”, 새국어생활 16-4, 국립국어원
김문오, “어휘 선택의 적절성”, 쉼표, 마침표. 9, 국립국어원
김영일, “어형 ‘쇠[金, 鐵]’와 ‘새[鳥]’의 고형(古刑)”, 새국어생활 16-2, 국립국어원
김정대, “경남 방언의 멋과 맛”, 새국어생활 16-1, 국립국어원
김진해, “신어: 신어와 언어 ‘밖’”, 새국어생활 16-4, 국립국어원
김한샘, “10년 전 신어의 현재 모습”, 쉼표, 마침표. 7, 국립국어원
김한샘, “새로운 말 만들기”, 쉼표, 마침표. 8, 국립국어원
김한샘, “신어로 엿보는 신세대들의 삶”, 쉼표, 마침표. 6, 국립국어원
김한샘, “인터넷상의 신어”, 쉼표, 마침표. 9, 국립국어원
김한샘, “제대로 우는 암탉 ‘줌마렐라’”, 쉼표, 마침표. 5, 국립국어원
김희진, “고뇌 끝에 빛 본 제목들(2)”, 쉼표, 마침표. 13, 국립국어원
김희진, “고뇌 끝에 피어난 제목(1) -수상작을 중심으로-”, 쉼표, 마침표. 12, 국립국어원
김희진, “고뇌 끝에 피어난 제목(3) -수사법에서 본 제목(1)”, 쉼표, 마침표. 14, 국립국어원
김희진, “고뇌 끝에 피어난 제목(4) - 수사법에서 본 제목(2)”, 쉼표, 마침표. 15, 국립국어원
김희진, “제목에는 ‘울림’이 있어야”, 쉼표, 마침표. 10, 국립국어원
김희진, “제목은 고뇌 끝에 피어난다”, 쉼표, 마침표. 11, 국립국어원
노명희, “신어: 최근 신어의 조어적 특징”, 새국어생활 16-4, 국립국어원
송민, “신어: 20세기 초기의 신어”, 새국어생활 16-4, 국립국어원

안상순, "'얼짱'은 사전에 오를 수 있다", 쉼표, 마침표. 5, 국립국어원
우형식, "국어 분류사의 의미와 용법", 새국어생활 16-3, 국립국어원
이기문, "'불고기' 이야기", 새국어생활 16-4, 국립국어원
이기황, "신어: 신어의 정착과 낱말 용법의 변화", 새국어생활 16-4, 국립국어원
이득춘, "한국어 한자어의 기준에 대한 관견", 새국어생활 16-1, 국립국어원
이성근, "'살사리꽃' 이름을 찾아", 한글새소식 412, 한글학회
이재호, "영한사전과 번역", 새국어생활 16-1, 국립국어원
이해영, "구어의 특징과 구조", 새국어생활 16-2, 국립국어원
정재도, "'고집'은 우리말, '固執'은 안 쓰여", 한글새소식 407, 한글학회
정재도, "'便紙·片紙'는 '편지'가 아니다", 한글새소식 411, 한글학회
정재도, "고정하십시오", 한글새소식 412, 한글학회
조남호, "'얼짱'은 사전에 오를 수 없다", 쉼표, 마침표. 5, 국립국어원
조재수, "문학과 사전", 한글새소식 408, 한글학회
조항범, "잘못 알고 있는 어원 몇 가지(5)", 새국어생활 16-1, 국립국어원
조항범, "잘못 알고 있는 어원 몇 가지(6)", 새국어생활 16-2, 국립국어원
조항범, "잘못 알고 있는 어원 몇 가지(7)", 새국어생활 16-3, 국립국어원
지춘수, "『우리말 큰사전』을 뒤적이면서", 한글새소식 406, 한글학회
채완, "의성어와 의태어의 차이", 새국어생활 16-4, 국립국어원
한영목, "충남의 언어 이야기", 새국어생활 16-3, 국립국어원
홍윤표, "'가물치'와 '붕어'의 어원", 쉼표, 마침표. 12, 국립국어원
홍윤표, "'가이없다'와 '가없다'와 '가엾다'의 어원", 쉼표, 마침표. 11,

국립국어원

홍윤표, "'곤두박질'의 어원", 쉼표, 마침표. 10, 국립국어원

홍윤표, "'귀이개'의 어원", 쉼표, 마침표. 5, 국립국어원

홍윤표, "'만나다'의 어원", 쉼표, 마침표. 15, 국립국어원

홍윤표, "'부지깽이'의 어원", 쉼표, 마침표. 13, 국립국어원

홍윤표, "'사나이'의 어원", 쉼표, 마침표. 8, 국립국어원

홍윤표, "'숫되다'의 어원", 쉼표, 마침표. 6, 국립국어원

홍윤표, "'지아비'와 '지어미'의 어원", 쉼표, 마침표. 9, 국립국어원

홍윤표, "'진달래'의 어원", 쉼표, 마침표. 7, 국립국어원

홍윤표, "'함께'의 어원", 쉼표, 마침표. 14, 국립국어원

국어(학)사 · 계통론

〈단행본〉

국립국어원, 李衡祥의 『字學提綱』 譯註, (연구 책임자: 김언종), 국립국어원
김규철 외, 『어문학 연구의 넓이와 깊이』, 역락
김무림, 『홍무정운역훈』, 신구문화사
김미경,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한글: 세계 최고의 문화 상품 한글에 대한 모든 것』, 지우출판사
김성란, 『근대국어의 종결어미 연구: 노걸대류 언해본을 중심으로』, 역락
김성주·박상준·박준석, 『금강경언해』, 신구문화사
김주필 외, 『역주 어제(언해): 역주 어제조훈(언해)』, 역락
김주필 외, 『역주 어제경세문답(언해)』, 역락
김진호, 『재미있는 한국어 이야기』, 박이정
김태엽, 『국어학개요』, 대구대학교 출판부
김해정, 『사서언해의 비교연구』, 보고사
김홍석, 『형태소와 차자표기』, 역락
남성우, 『16세기 국어의 동의어 연구』, 박이정
리득춘, 『조선어언어력사연구』, 역락
리득춘·리승자·김광수, 『조선어발달사』, 역락
朴盛鍾, 『朝鮮初基 古文書 吏讀文 譯註』,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철주, 『「대명률직해」의 국어학적 연구』, 일지사
윤석민·권면주·유승섭, 『(쉽게 읽는)禪家龜鑑諺解, 下』, 박이정

윤석민·권면주·유승섭, 『(쉽게 읽는)중각두시언해』, 박이정
윤용선, 『국어사 연습』, 명지대학교 출판부
이동화, 『훈민정음과 중세국어』, 문창사
이복영, 『大阜島 地域語의 通時音韻論』, 한국학술정보
이상억, 『한국어 체언의 음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석주·이주행, 『한국어학 개론』, 보고사
이승재 외, 『國寶 二百四號 周本 華嚴經 卷第三十六: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태학사
이은규, 『고대 한국어 차자표기 용자 사전』, 제이앤씨
임용기·홍윤표 편,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정광, 『역주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 신구문화사
정광, 『훈민정음의 사람들』, 제이앤씨
정광 外, 『역학서와 국어사 연구: 솔미 정광 선생 정년퇴임 기념논총』, 태학사
정언학, 『상 이론과 보조 용언의 역사적 연구』, 태학사
丁泰鎭·金炳濟 저·정태진선생기념사업회 엮음, 『朝鮮 古語 方言 辭典』, 민지사
조항범 외, 『역주 어제자성편(언해)』, 역락
최남희 외, 『國語史와 漢字音』, 박이정
태학사 편집위원회, 『國語學論叢: 李秉根先生退任紀念』, 태학사
홍종선 외, 『후기 근대국어 통사의 연구』, 역락
홍종선 외, 『후기 근대국어 형태의 연구』, 역락
황경수·강규선, 『훈민정음 연구』, 청운
황문환 외, 『역주 어제경세문답속록(언해)』, 역락
C.I. 벡위드 저·鄭光 역, 『고구려어: 일본을 대륙과 연결시켜 주는 언어』, 고구려연구재단

〈학위 논문〉

가르드잡 바야르마, 〈『몽어유해』「어록해」의 역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석사)

김성남, 〈국어 인칭대명사의 역사적 연구〉, 동의대 대학원(석사)

김승우, 〈〈월인천강지곡〉의 주제와 형상화 방식〉, 고려대 대학원(석사)

김은명, 〈토씨의 분류 체계 변천에 관한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정현, 〈『교린수지』의 표기와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지오, 〈〈법화경〉 권3 음독구결 연구〉, 동국대 대학원(석사)

김홍렬, 〈훈민정음의 역학적 해석〉,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꼬미싸로바 빅토리야, 〈러시아 학자의 알타이어 연구〉, 고려대 대학원(석사)

박미영, 〈개화기 신문에 나타난 조사의 연구: 〈뎨국신문〉과 〈독닙신문〉을 대상으로〉, 울산대 교육대학원(석사)

박미영, 〈국어 지식 영역에서 국어사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국어의 변화를 고려한 훈민정음 교수·학습 원리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석사)

박부자, 〈한국어 선어말어미 통합순서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박사)

박옥출, 〈어미의 통합 범위에 대한 국어학사적 연구〉, 경남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용찬, 〈15세기 국어 연결어미와 보조사의 통합형 연구〉, 서울대 대학원(박사)

박정윤, 〈『소학언해』 한자어 연구〉, 울산대 교육대학원(석사)

方香玉, 〈「어제내훈」의 어휘론과 형태론〉, 조선대 대학원(석사)
백미령,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의 계통 기술에 대하여〉, 순천대 교육대학원(석사)
석미향, 〈『초발심자경문언해』의 음운과 한글구결 연구: 송광사판 서봉사판의 비교를 통하여〉, 울산대 교육대학원(석사)
손영희, 〈『규합총서』의 표기법 연구〉, 안동대 교육대학원(석사)
송신지,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어휘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석사)
송이규, 〈존대법 '-삽-'의 변화에 대한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안예리, 〈최근세국어 타동구문 연구: 신소설 자료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석사)
엄수진, 〈국어 모음체계 변천사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여은지, 〈병자일기의 표기와 음운 변화 연구〉, 전북대 대학원(석사)
윤미영, 〈용언 어간말 'ㅎ'의 표기에 대한 통시적 고찰〉, 성균관대 교육대학원(석사)
이경화, 〈≪금강경삼가해언해≫ 연구: 국어 표기법과 어휘를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이경희, 〈〈부모은중경언해〉 이본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이병기, 〈한국어 미래성 표현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박사)
이상금, 〈중세국어의 다소 표현 형용사에 대한 문법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이은영, 〈≪법집별행록절요언해≫ 연구〉,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전호연, 〈오서 현토 연구〉, 전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수현, 〈『노걸대』에 나타난 명사구 내포문의 변화〉, 건국대 대학원(석사)

정혜선, 〈19세기 국어의 '원인' 통합형 접속어미 연구〉, 서강대 대학원(석사)
정희영,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근대국어 시제 연구: 춘향전을 중심으로〉, 영남대 교육대학원(석사)
齊藤明美, 〈명치시기 일본의 한어 학습서 연구: 『교린수지』의 영향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박사)
조민진, 〈'-겟-' 의 문법화 과정 연구〉, 서강대 대학원(석사)
조신옥, 〈박통사 비교연구: 중국어원문과 한국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대학원(석사)
주영선, 〈『제정집』 해제 및 번역〉, 부산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성규, 〈구역 ≪신약젼셔≫의 국어학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허경무, 〈조선 시대 한글 서체의 연구〉, 부산대 대학원(박사)
홍세아, 〈개화기 신문에 나타난 어미의 연구: 〈독닙신문〉과 〈뎨국신문〉을 대상으로〉, 울산대 교육대학원(석사)
홍수아, 〈『交隣須知』の明治刊本における 韓國語の表記法に關する硏究〉, 한림대 국제학대학원(석사)
홍수정, 〈조선 중기 한글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고은숙, "2006년 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근대국어 연결어미의 기능 연구 -역학서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27, 우리어문학회
고정의, "『고봉화상선요(高峰和尙禪要)』의 구결 연구",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권인한, “무령왕릉(武寧王陵) 출토 명문들에 대한 어학적 고찰”,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김경아, “순경음의 변화에 대한 재론”, 인문논총 15, 서울여대 인문과학연구소
김남경, “구급방류 구문 연구 -중세 구문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33,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김남돈, “신소설 말뭉치와 깜짝새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최근세국어 문법의 연구 방안”, 국어국문학 143, 국어국문학회
김덕신,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 보급을 위한 조선어학회의 활동”, 어문학 91, 한국어문학회
김동소, “한국어 변천사 연구의 문제점 -시대 구분 문제와 비음소적 과잉 문자 아래아(“ㆍ”) 문제에 한정하여-”, 배달말 39, 배달말학회
김무림, “한국 한자음의 근대성(1) -반영 양상의 종합-”,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김무식, “동래정씨 소장 “편지급지문집(便紙及祭文集)”의 자료적 성격과 특징”, 어문론총 45, 한국문학언어학회
김서형, “중세 국어 “으란” 연구”,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김석득, “근·현대의 국어(학) 정신사”, 한글 272, 한글학회
김석배, “〈陋巷詞〉의 文獻學的 考察”, 문학과 언어 28, 문학과언어학회
김석연, “훈민정음이 곧 누리글이다”, 한글 272, 한글학회
김선영,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12) -권8. 16:18~18:04 부분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김성주, “석독구결(釋讀口訣)의 피동 표현”,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김세환, “『정선 일어통편』에 보이는 어미 “-아/어(X)”의 교체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49, 한민족어문학회

김슬옹, "『訓民正音』(해례본)의 간행 책으로서의 담론과 교육 전략", 한국어문학연구 4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김슬옹, "훈민정음 해례본의 "우리나라와 말글" 명칭 번역 담론 - 표준 공역을 제안하며", 언어과학연구 39, 언어과학회
김슬옹, "'훈민정음'의 명칭 맥락과 의미", 한글 272, 한글학회
金亮鎭, "他動詞 '*식다'를 찾아서", 어문연구 1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김연주, "영건의궤(營建儀軌)류 차자표기 용자의 특성 연구", 어문학 93, 한국어문학회
김영선, "개화기 국어의 "이(j)" 동화 현상과 모음 체계",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김유범, "우리말 접사의 국어사적 고찰 -시대별 개관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19, 우리말학회
김유범, "중세국어 문법 교육과 언해본『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새얼어문논집 18, 새얼어문학회
김유범, "형용사 "지다"의 형성과 역문법화", 우리말연구 18, 우리말학회
김정대, "어미의 지배 범위에 대한 주시경(1910)의 인식", 우리말글 37, 우리말글학회
김정우, "초기 라디오 광고언어에서 대명사 "여러분"의 사용양상 -1959~1964년의 라디오 광고언어를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25, 한성대 한성어문학회
김주원, "조선왕조실록의 번역에 나타난 오류 -야인(여진족)에 관한 기록을 중심으로-", 알타이학보 16, 한국알타이학회
김주필, "18세기 왕실 문헌의 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 정신문화연구 29-1,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주필, "개교 60주년 기념 특별호: ≪됴야긔문(朝野記問)≫의 자음

관련 음운현상과 그 통시적 특성", 어문학논총 특별호,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김주필, "자석류(字釋類) 문헌의 원순모음화와 구개음화", 어문학논총 25,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김태엽, "김동리 소설에 나타나는 경북 방언", 우리말글 38, 우리말글학회
김태엽, "이병각 작품에 나타난 경북 방언", 어문연구 51, 어문연구학회
金玄, "中世國語 1音節 用言語幹의 音韻構造", 어문연구 13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김현주, "후기 중세국어 {-숩-}의 기능 -"존대되는 존재"의 파악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남경란,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의 구결 연구",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남경란, "『사서언해』의 국어학적 고찰 -『논어언해』의 어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34,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남기심, "국어학 연구의 문제점", 배달말 39, 배달말학회
남풍현, "상고시대(上古時代)에 있어서 차자표기법(借字表記法)의 발달",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리의도, "한글날의 발전사", 한글 273, 한글학회
문혜윤, "문예독본류와 한글 문체의 형성", 어문논집 54, 민족어문학회
박기선, "개화기 한자 어휘의 변천에 관한 小考 -'텬로력뎡'의 異本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2-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박석문, "부사 형성 접미사 "-시"에 대하여", 반교어문연구 20, 반교어문학회
박종덕, "『훈민정음 해례본』의 유출 과정 연구 -학계에서 바라본

"발견"에 대한 반론의 입장에서-",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박진호, "중세국어에서 형용사와 결합하는 "-어 잇-"의 상적 의미",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박진호, "진본(晉本) ≪화엄경(華嚴經)≫ 권제(卷第)20의 점토(點吐) 해독",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박찬식, "유해류 역학서 "인품(人品)"부 어휘의 고찰", 겨레어문학 36, 겨레어문학회
박찬식, "유해류 역학서의 "궁실"(宮室)부 어휘의 고찰",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박철주, "「대명률직해」에 쓰인 이두 "급(及)"의 의미", 언어과학연구 38, 언어과학회
박철주, "『대명률직해』구문의 형식에 대한 연구", 한글 271, 한글학회
박철주, "『대명률직해』와 현대국어 간의 조사 "과(果)"의 쓰임 차이에 대한 연구", 반교어문연구 21, 반교어문학회
박철주, "『대명률직해』와 현대국어의 구문상 표현차이 연구", 한국어의미학 21, 한국어의미학회
박철주, "『대명률직해』의 구문과 현대국어의 구문 간 표현 차이에 대한 연구", 한글 273, 한글학회
박철주, "『대명률직해』의 부정사에 대한 연구 -"부득(不得)"과 "안서(安徐)"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18, 우리말학회
박철주, "『육조법보단경(六祖法寶壇經) 언해(諺解)(상, 중, 하)』에서의 "을/를" 표지, 무표지 양상에 대한 연구", 배달말 38, 배달말학회
박형익, "「언문 주히 보통문ᄌᆞ집(諺文 註解 普通文字集)」의 사전학적 분석",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박흥길, ""-ㅂ다" 풀이씨 연구", 새얼어문논집 18, 새얼어문학회

방향옥, “『어제내훈』의 어휘 연구”, 새국어교육 74, 한국국어교육학회
배대온, “고대국어 연구 방법에 대하여”, 배달말 39, 배달말학회
백낙천, “조선 후기 한글 간찰의 형식과 내용”,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백두현, “『속사씨남정기』의 서지, 국어학적 연구”,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백두현, “국어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하여”, 국어학 47, 국어학회
백두현,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 -한글 음식조리서와 여성 교육서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45, 한국문학언어학회
서보월, “「온주법」의 표기법 연구”, 어문론총 45, 한국문학언어학회
서은아, “일제 시대 광고 언어의 특징 연구”,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석주연, ““-도록”의 의미와 문법에 대한 통시적 고찰”, 한국어의미학 19, 한국어의미학회
宋曄輝, “『越南亡國史』의 飜譯 過程에 나타난 諸問題”, 어문연구 1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신명선, “한국어교육학회 제260회 학술대회 특집: 국어 생활과 국어 문화: 개화기 국어 생활 연구 -독립신문의 광고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신중진, “국어국문학과 지역의 문제: 한국 근대 초기의 ‘洋’ 관련 서구 문명 어휘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44, 국어국문학회
안명철, “훈민정음 제자 원리와 육서(六書)”, 우리말글 38, 우리말글학회
안인숙, “象徵語의 通時的 硏究”, 어문논집 34, 중앙어문학회
안주호, “근대국어 시기의 진언표기 연구”, 한국언어문학 59, 한국언

어문학회
안주호, “인용동사의 문법적 고찰”, 우리말글 37, 우리말글학회
양영희, “15세기 2인칭 대명사 ‘너’와 ‘그듸’의 기능 비교”, 우리말글 36, 우리말글학회
양영희, “15세기 호칭어 체계 구축을 위한 시론”, 한국언어문학 57, 한국언어문학회
양영희, “16세기 2인칭대명사 체계”, 국어국문학 142, 국어국문학회
양영희, “인칭대명사의 기능 변화 유형과 원인”, 우리말글 38, 우리말글학회
양영희, “중세 국어 ‘재귀대명사’ 설정에 대한 재고”, 한글 273, 한글학회
양영희, “중세국어 3인칭 대명사의 부류와 기능”, 한국언어문학 59, 한국언어문학회
양영희, “중세국어 시기 설정에 대한 단상 -존대법과 인칭대명사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양영희, “중세국어 호칭어와 종결어미의 호응에 대한 재고”, 사회언어학 14-2, 한국사회언어학회
여찬영, “「중용언해(中庸諺解)」의 번역언어학적 분석”, 언어과학연구 38, 언어과학회
여찬영, “『대학율곡선생언해(大學栗谷先生諺解)』의 번역언어학적 연구”, 어문론총 45, 한국문학언어학회
여찬영, “『中庸栗谷先生諺解』의 번역전략 연구”, 우리말글 38, 우리말글학회
오미녕, “일본 경도국립박물관 소장(所藏) 『세설신서(世說新書)』와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 소장(所藏) 『세설신어(世說新語)』의 비교 연구”,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오창명, “『火器都監儀軌(1615)』의 차자 표기 연구”, 영주어문 11, 영

주어문학회
柳穆相, “국제학술대회논문: 세계화 시대의 국어국문학의 현황과 전망; 우리 語文學 硏究의 오늘과 내일”, 어문논집 34, 중앙어문학회
윤용선, “『소학언해』의 구결체계에 대한 검토”, 진단학보 102, 진단학회
윤용선, “국어대우법의 통시적 이해”, 국어학 47, 국어학회
이경자, “우리말 연구 -『돌출(突出)』 개념 낱말 중심-”, 인문학연구 33-1,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이규호, “복합조사 ‘이라고’의 생성과 분화”, 국어학 47, 국어학회
이덕희, “물명어휘집의 의미적 체계”, 우리말연구 19, 우리말학회
이덕희, “물보와 청관물명고의 사전적 특성 - 사전의 체제와 정의항의 유형”, 새국어교육 73, 한국국어교육학회
이동석, “중세국어 “짛다”의 의미 및 변화 연구”,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이병기,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13) -권8. 18:05-19:23 부분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이시즈카 하루미치, “서평: 李丞宰 外『角筆口訣 寫眞 資料 2: 國寶 204號 周本『華嚴經』卷第36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李丞宰 外『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2- 周本『華嚴經』卷第36』”, 인문논총 56,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이용, “광개토대왕비문(廣開土大王碑文)의 이독적(吏讀的) 요소”,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이장희, “고구려어의 어말모음 교체에 대하여”, 언어과학연구 39, 언어과학회
이정택, “주시경, 최현배, 정열모의 조사 체계 비교”, 태릉어문연구 14,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李知英, “中世國語 ‘아직, 안즉, 안즉, 안직’의 意味와 통사적 특징”,

어문연구 1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이태희, “중세국어 음절말 중화에 대한 분석적 연구”, 언어연구 23-1, 경희대 언어연구소
李浩權, “諺解와 諺解書의 史的 考察”, 논문집 4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희두, “움라우트 불투명성의 통시적 고찰”, 언어학 14-3, 대한언어학회
임보선, “어간말 자음군의 변화 요인에 대하여”, 반교어문연구 21, 반교어문학회
장경준,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에서 ‘故’자에 현토된 구결점의 해석”, 태릉어문연구 14,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장경준, “석독구결의 구결자 “火”과 “ᄭᅩ”에 대하여”, 국어학 47, 국어학회
장경준, “점토 체계의 특징이 부호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 -성암본『유가사지론』권5. 8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장숙영, “『노걸대, 박통사』류에 나타난 국어의 이음씨끝 변화 연구”,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장숙영, “노걸대, 박통사류에 나타난 국어의 이음씨끝의 소멸”, 겨레어문학 36, 겨레어문학회
장영길, “『언해납약증치방(諺解臘藥症治方)』의 희귀어휘 연구”, 반교어문연구 21, 반교어문학회
장요한, “어미 “-과-”의 의미 기능에 대한 고찰”, 한민족어문학 49, 한민족어문학회
장윤희, “고대국어의 파생 접미사 연구”, 국어학 47, 국어학회
전정례, “20세기 언어 연구에서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육학회
전정례, “언어는 왜, 어떻게 변화하는가”,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정경일, “교정전운옥편 속음의 유형별 고찰”, 우리어문연구 27, 우리어문학회
정광, “이문(吏文)과 한이문(漢吏文)”,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정길남, “개화기 교과서의 종성표기와 어간 어미 분리표기에 관하여”, 국어교육연구 39, 국어교육학회
鄭承喆, “純國文 『이태리건국삼걸전』(1908)에 대하여”, 어문연구 1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정언학, “통합형 어미 “-습니다”류의 통시적 형성과 형태 분석”,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육학회
정인호, “제2음절 이하의 “ㅇ” 변화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 101, 진단학회
정재영, “불갑사(佛甲寺) 소장의 화암사판(花岩寺版) 『부모은중경』에 대하여 -이 자료에 기입되어 있는 구결과 언해문을 중심으로-”, 영남학 9,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정재영, “한국의 구결(口訣)”,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정진원,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14) -유가08 19:23-21:15(끝) 부분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제등명미, “1909년 간(刊) 『한어통(韓語通)』의 일본어와 한국어”, 인문학연구 12, 한림대 인문학연구소
조규태, “용비어천가 주해 속의 우리말 어휘에 대하여”, 어문학 92, 한국어문학회
조규태, “중세 국어의 선어말 어미 “-으니-”에 대하여”, 배달말 39, 배달말학회
조규태, “한국어 수사의 어원과 어형 변화에 대하여”, 어문학 94, 한국어문학회
조오현, “ㄷ구개음화 발생의 역사적 전개 과정”, 동남어문논집 22, 동남어문학회

趙宰亨, “處所副詞格助詞의 用法 考察”, 어문연구 1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조항범, “開化期를 前後한 시기에 생성된 관용 표현”,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주경미, “신소설에 나타난 신체어 관련 관용 표현 연구 -“손, 눈, 입, 코, 귀”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8, 한국언어문학회
최규수, “형태론의 체계와 문법 용어 사용의 문제 -국어학사의 관점에서-”, 우리말연구 18, 우리말학회
최명환, “한국어교육학회 제260회 학술대회 특집: 국어 생활과 국어 문화: 한국의 언어문화와 글쓰기의 원리”,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최미현, “『전운옥편(全韻玉篇)』에 반영된 지섭(止攝)의 양상에 대하여”, 새얼어문논집 18, 새얼어문학회
최미현, “『훈몽자회(訓蒙字會)』의 복수 한자음 유형에 대하여”, 우리말연구 19, 우리말학회
최미현, “이중 한자음에 나타나는 입성운미 /-t/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최성덕, “국어 사동 범주의 연구사”, 태릉어문연구 14,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최웅환, “『朝鮮語發音及文法』의 ‘문법’ 편과 『(中等教科)朝鮮語文典』”, 문학과 언어 28, 문학과언어학회
최중호, “≪계림유사≫의 유기음에 대해서”, 우리말연구 18, 우리말학회
최중호, “고구려말의 모음 /어/에 대해”, 동남어문논집 21, 동남어문학회
최중호, “고려시대 자음체계 연구”, 새얼어문논집 18, 새얼어문학회
최호철, “북한의 국어 의미 연구 60년”, 한글 273, 한글학회

최홍열, “훈몽자회 「질병」부 자훈의 고찰 -“내과”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하길종, “중, 근세 국어의 첩어 연구”, 우리어문연구 26, 우리어문학회
하치근, “국어 조어론 연구의 어제, 오늘”, 우리말연구 19, 우리말학회
韓成愚, “國語 音素 分布의 通時的 變化”, 어문연구 1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한영목, “국어 문법론 연구의 어제와 오늘”, 어문연구 50, 어문연구학회
허재영, “근대계몽기 여성의 문자 생활”, 사회언어학 14-1, 한국사회언어학회
허재영, “조선 시대 여자 교육서와 문자 생활”, 한글 272, 한글학회
호광수, “상해판 〈독립신문〉 국문시의 문체와 표기법의 양상”, 한국언어문학 56, 한국언어문학회
홍사만, “『倭語類解』의 어휘 분석(2) -치음 아래 /j/ 유지 표기-”, 한일언어문화연구 10, 한·일언어문화연구소
홍사만, “국어 의존명사 {것}의 사적 연구”, 어문론총 44, 한국문학언어학회
홍윤표, “한글 고문서의 연구 현황과 과제”, 영남학 10,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황경수, “훈민정음 제자해(制字解)와 초성(初聲)의 역학사상”, 새국어교육 72, 한국국어교육학회
황선엽,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11) -권8. 15:04~16:17 부분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황선엽, “고대국어의 처격 조사”,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황선엽, “원왕생가(願往生歌)의 해독에 대하여”, 구결연구 17, 구결

학회
황선엽, “월봉산취월정언셔상ᄉᆞ가”, 돈암어문학 19, 돈암어문학회
황용주, “연어 구성 변화에 대한 국어정보학적 연구 -신소설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8, 한국언어문학회
Christopher I. Beckwith, “Methodological Observations on Some Recent Studies of the Early Ethnolinguistic History of Korea and Vicinity”, 알타이학보 16, 한국알타이학회
Jeong Me Yoon, “Selective Island Effects in Korean Wh-Constructions: A Diachronic Approach”, 언어 31-2, 한국언어학회

〈기타〉

김계곤, “한글은 가장 이상적인 낱소리글자”, 한글새소식 408, 한글학회
김두루한, “훈민정음을 제대로 알자”, 나라사랑 111, 외솔회
김두루한, “훈민정음을 제대로 알자”, 한글새소식 409, 한글학회
김주원, “국경일로 다시 태어난 한글날: 훈민정음 해례본의 겉과 속”, 새국어생활 16-3, 국립국어원
김진규, “참 놀라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나라사랑 111, 외솔회
리의도, “한글날의 유래와 발자취”, 나라사랑 111, 외솔회
성낙수,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에 대하여”, 나라사랑 111, 외솔회
이병운, “국경일로 다시 태어난 한글날: 한글과 정보화”, 새국어생활 16-3, 국립국어원
천갑녕, “훈민정음, 글자의 제작 과정”, 한글새소식 411, 한글학회
허재영, “계몽 운동과 문자 보급 자료 소개 (2) -일제 강점기 농민 단체의 계몽 운동-”, 한글새소식 409, 한글학회

허재영, “계몽 운동과 문자 보급 자료 소개 (3)”, 한글새소식 412, 한글학회
허재영, “계몽 운동과 문자 보급 자료 소개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 권일』에 대하여-”, 한글새소식 408, 한글학회
홍현보, “‘신미대사 한글 창제설’에 관하여”, 한글새소식 411, 한글학회
홍현보, “2000년 전 우리말”, 한글새소식 408, 한글학회

문자 · 표기

〈단행본〉

고제윤, 『새한글』, 새한글
고창운, 『한글 맞춤법 해설과 이해』, 경진문화사
국립국어원, 『디지털 한글박물관 구축 사업』, 국립국어원
김광희, 『어문 규범과 언어생활』, 학문사
김미경,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한글: 세계 최고의 문화 상품 한글에 대한 모든 것』, 지우출판사
김진호, 『재미있는 한국어 이야기』, 박이정
김홍석, 『형태소와 차자표기』, 역락
동아대학교 출판부 편, 『한글맞춤법: 글쓰기 부록』, 동아대학교 출판부
박철주, 『「대명률직해」의 국어학적 연구』, 일지사
시정곤, 『응용국어학의 탐구』, 月印
이동화, 『훈민정음과 중세국어』, 문창사
이석주·이주행, 『한국어학 개론』, 보고사
이은규, 『고대 한국어 차자표기 용자 사전』, 제이앤씨
이종운 편, 『국어의 맞춤법 표기』, 세창미디어
정광, 『훈민정음의 사람들』, 제이앤씨
최재희, 『한국어 교육 문법론』, 태학사
태영M&B 편, 『한글 바르게 알고 쓰자, 1』, 태영M&B
태영M&B 편, 『한글 바르게 알고 쓰자, 2』, 태영M&B
황경수·강규선, 『훈민정음 연구』, 청운

〈학위 논문〉

고정현, 〈한일 웹 게시판언어 비교연구〉,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정현, 〈『교린수지』의 표기와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지연, 〈신문에서의 띄어쓰기 실태 분석 고찰〉, 충남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지오, 〈〈법화경〉 권3 음독구결 연구〉, 동국대 대학원(석사)
김지윤, 〈한국어의 러시아어 표기에 관한 연구: 지명을 중심으로〉, 단국대 대학원(석사)
김철순, 〈한글 맞춤법 · 표준어의 사용 방안 연구: 서울 지역 20대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홍렬, 〈훈민정음의 역학적 해석〉,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박미자, 〈초등학생의 맞춤법 오류실태분석과 지도방안〉, 세명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지언, 〈중학생의 띄어쓰기 사용 실태 연구: 3학년 학생의 글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백혜준, 〈한 · 일 외래어의 표기체계에 대한 음운론적 비교고찰: 영어 차용어를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석사)
석미향, 〈『초발심자경문언해』의 음운과 한글구결 연구: 송광사판 서봉사판의 비교를 통하여〉, 울산대 교육대학원(석사)
손영희, 〈『규합총서』의 표기법 연구〉, 안동대 교육대학원(석사)
여은지, 〈병자일기의 표기와 음운 변화 연구〉, 전북대 대학원(석사)
윤미영, 〈용언 어간말 'ㅎ'의 표기에 대한 통시적 고찰〉, 성균관대 교육대학원(석사)
이경화, 〈≪금강경삼가해언해≫ 연구: 국어 표기법과 어휘를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이경희, 〈〈부모은중경언해〉 이본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유신, 〈강남과 강북 학생들의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사용실태 비교 연구: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은영, 〈≪법집별행록절요언해≫ 연구〉,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은주, 〈남·북한 맞춤법 비교 연구: 통일방안 모색을 위하여〉, 공주대 대학원(석사)

전호연, 〈오서 현토 연구〉, 전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성규, 〈구역 ≪신약젼셔≫의 국어학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홍수아, 〈『交隣須知』の明治刊本における 韓國語の表記法に關する硏究〉, 한림대 국제학대학원(석사)

홍수정, 〈조선 중기 한글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석사)

황성현, 〈중학생의 작문에 나타난 한글 맞춤법 오류 분석 및 지도 방안 연구: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글을 중심으로〉,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황재성, 〈외래어 표기법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고정의, "『고봉화상선요(高峰和尙禪要)』의 구결 연구",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권인한, "무령왕릉(武寧王陵) 출토 명문들에 대한 어학적 고찰",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김무식, "동래정씨 소장 "편지급지문집(便紙及祭文集)"의 자료적 성

격과 특징”, 어문론총 45, 한국문학언어학회
김상태, “국어의 띄어쓰기 오류 분석”, 인문과학논집 34,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김상태, “음운적 단어 설정에 대한 연구 -띄어쓰기 오류 분석을 통하여-”, 한국어학 32, 한국어학회
김석연, “훈민정음이 곧 누리글이다”, 한글 272, 한글학회
김선영,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12) -권8. 16:18~18:04 부분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김성주, “석독구결(釋讀口訣)의 피동 표현”,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김슬옹, “훈민정음 해례본의 “우리나라와 말글” 명칭 번역 담론 - 표준 공역을 제안하며”, 언어과학연구 39, 언어과학회
김슬옹, “‘훈민정음’의 명칭 맥락과 의미”, 한글 272, 한글학회
김연주, “영건의궤(營建儀軌)류 차자표기 용자의 특성 연구”, 어문학 93, 한국어문학회
김홍석, “현행 정서법에 어긋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새국어교육 72, 한국국어교육학회
남경란,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의 구결 연구”,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남풍현, “상고시대(上古時代)에 있어서 차자표기법(借字表記法)의 발달”,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박동근, “남북한 맞춤법 통일 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겨레어문학 37, 겨레어문학회
朴錠奎, “국어 띄어쓰기 規定의 改善案 연구”, 어문연구 1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박진호, “진본(晉本) ≪화엄경(華嚴經)≫ 권제(卷第) 20의 점토(點吐) 해독”,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박철주, “「대명률직해」에 쓰인 이두 “급(及)”의 의미”, 언어과학연

구 38, 언어과학회
박형우, “국어교육에서의 한글 교육”, 청람어문교육 34, 청람어문교육학회
백두현, “『속사씨남정기』의 서지, 국어학적 연구”,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백두현,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 -한글 음식조리서와 여성 교육서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45, 한국문학언어학회
서보월, “「온주법」의 표기법 연구”, 어문론총 45, 한국문학언어학회
안명철, “훈민정음 제자 원리와 육서(六書)”, 우리말글 38, 우리말글학회
안주호, “근대국어 시기의 진언표기 연구”, 한국언어문학 59, 한국언어문학회
양병선, “한글이름 로마자 표기에 관한 제언”, 현대문법연구 43, 현대문법학회
연규동, ““짜장면”을 위한 변명 -외래어 표기법을 다시 읽는다-”,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오창명, “『火器都監儀軌(1615)』의 차자 표기 연구”, 영주어문 11, 영주어문학회
윤용선, “『소학언해』의 구결체계에 대한 검토”, 진단학보 102, 진단학회
이동석, “『동아일보 스타일북』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민족문화연구 4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이동석, “뉴스 자막 언어의 오류 실태 연구”, 어문논집 54, 민족어문학회
이동석, “신문 방송 언어의 실태와 언어 규범”,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이병기,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13) -권8. 18:05

~19:23 부분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이승후, "문장 부호 사용 실태의 조사 분석", 새국어교육 74, 한국국어교육학회
이용, "광개토대왕비문(廣開土大王碑文)의 이독적(吏讀的) 요소",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이장희, "고구려어의 어말모음 교체에 대하여", 언어과학연구 39, 언어과학회
장경준,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에서 '故'자에 현토된 구결점의 해석", 태릉어문연구 14,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장경준, "석독구결의 구결자 "火"과 "ㅗㄴ"에 대하여", 국어학 47, 국어학회
장경준, "점토 체계의 특징이 부호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 -성암본『유가사지론』권5. 8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정경일, "지명과 도로명의 로마자표기에 관한 제언",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정광, "이문(吏文)과 한이문(漢吏文)",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정길남, "개화기 교과서의 종성표기와 어간 어미 분리표기에 관하여", 국어교육연구 39, 국어교육학회
정재영, "불갑사(佛甲寺) 소장의 화암사판(花岩寺版)『부모은중경』에 대하여 -이 자료에 기입되어 있는 구결과 언해문을 중심으로-", 영남학 9,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정재영, "한국의 구결(口訣)",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정진원,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14) -유가08 19:23~21:15(끝) 부분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최명환, "한국어교육학회 제260회 학술대회 특집: 국어 생활과 국어문화: 한국의 언어문화와 글쓰기의 원리",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호광수, “상해판 〈독립신문〉 국문시의 문체와 표기법의 양상”, 한국언어문학 56, 한국언어문학회
황경수, “훈민정음 제자해(制字解)와 초성(初聲)의 역학사상”, 새국어교육 72, 한국국어교육학회
황선엽,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11) -권8. 15:04~16:17 부분을 중심으로 -”,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황선엽, “고대국어의 처격 조사”,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황선엽, “원왕생가(願往生歌)의 해독에 대하여”,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기타〉

김계곤, “한글은 가장 이상적인 낱소리글자”, 한글새소식 408, 한글학회
김두루한, “훈민정음을 제대로 알자”, 나라사랑 111, 외솔회
김두루한, “훈민정음을 제대로 알자”, 한글새소식 409, 한글학회
김주원, “국경일로 다시 태어난 한글날: 훈민정음 해례본의 겉과 속”, 새국어생활 16-3, 국립국어원
김진규, “참 놀라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나라사랑 111, 외솔회
리의도, “한글날의 유래와 발자취”, 나라사랑 111, 외솔회
성낙수,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에 대하여”, 나라사랑 111, 외솔회
신승일, “홍익 한글과 한류”, 한글새소식 408, 한글학회
이병운, “국경일로 다시 태어난 한글날: 한글과 정보화”, 새국어생활 16-3, 국립국어원
임지룡, “국경일로 다시 태어난 한글날: 한글날의 참된 의미를 찾아서”, 새국어생활 16-3, 국립국어원
천갑녕, “훈민정음, 글자의 제작 과정”, 한글새소식 411, 한글학회

홍현보, "'신미대사 한글 창제설'에 관하여", 한글새소식 411, 한글학회
홍현보, "2000년 전 우리말", 한글새소식 408, 한글학회

사회언어학

〈단행본〉

고창운, 『신문 문장 이해』, 박이정
국립국어원, 『공공기관 누리집의 언어 사용 실태』, (연구 책임자: 조태린),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방송 언어 경어법 개선을 위한 연구(SBS 공동)』, (연구 책임자: 정희창),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방송 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교수법과 교재 개발』, (연구 책임자: 정희창),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방송 언어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 책임자: 한글문화연대),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새터민 언어실태 조사 연구』, (연구 책임자: 문금현),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신문 언어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 책임자: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연령별·계층별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연구, 1』, (연구 책임자: 김덕호),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외래어 및 외국어 인지도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양명희),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지역어 조사 질문지』, 태학사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지역어 조사 질문지, 1』, 태학사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지역어 조사 질문지, 2』, 태학사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지역어 조사 질문지, 3』, 태학사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지역어 조사 질문지, 4』, 태학사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지역어 조사 질문지, 5』, 태학사
국립국어원 편, 『말하기 능력 측정도구 개발, 1』, 국립국어원
김다은, 『발칙한 신조어와 문화 현상』, 작가
김응모, 『하늘이 맡겨준 지게꾼의 사명: 김응모 교수 회고록: 국어학 연구에 바친 나의 반세기』, 박이정
김진호, 『재미있는 한국어 이야기』, 박이정
문창덕 저·연변동서방문화연구회 편찬, 『현대조선어연구: 격의 수효와 격형태를 한정함에 있어서 나서는 문제에 대하여』, 한국학술정보
민형배 외, 『재외한인의 언론수용구조와 한국어 매체의 내용: 미국 LA와 중국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북코리아
백두현,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맹근다: 경상도 사투리의 말맛』, 커뮤니케이션북스
신혜경, 『한국인과 일본인의 언어행동과 문화의 차이』, 보고사
우리말겨루기작가진, 『(KBS 1TV) 우리말 겨루기』, 넥서스
이상규·김덕호·강병주 편저, 『언어지도의 미래』, 한국문화사
이석주·이주행, 『한국어학 개론』, 보고사
이익섭, 『방언학』, 민음사
이정복·양명희·박호관, 『인터넷 통신 언어와 청소년 언어문화』, 한국문화사
정길남, 『국어 표현 연구』, 한국문화사
정연일, 『통번역사의 한국어』, 이지북스
태학사 편집위원회, 『國語學論叢: 李秉根先生退任紀念』, 태학사
한류전략연구소 편, 『아름다운 우리한글』, 어문학사
KBS 상상플러스제작팀, 『(KBS 2TV) 상상플러스: 세대공감 OLD & NEW』, 동아일보사

KBS 우리말 겨루기 작가진, 『(KBS 한국방송) 우리말 겨루기: 기출 문제은행』, 넥서스

〈학위 논문〉

강상일, 〈유머재의 시대적 수용 양상 연구: 언어 사회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건국대 교육대학원(석사)
강혜숙, 〈경남 하동군 북천면 땅이름 연구〉, 진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고정현, 〈한일 웹 게시판언어 비교연구〉,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곽은하, 〈독일과 한국의 청소년언어 특성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박사)
권성란, 〈매체 언어의 국어과 수용 방향 고찰: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권오성, 〈잘못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한 고찰: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서원대 교육대학원(석사)
권은숙, 〈한일 언어행동의 대조사회언어학적 연구〉, 중앙대 대학원(박사)
권은영, 〈광고 은유에 대한 의미론적 연구: 미백 화장품 광고에 나타난 '희다'의 의미 중심으로〉, 숭실대 대학원(석사)
김대희, 〈한·일 신조어의 비교연구〉, 한남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옥희, 〈초등학생의 은어와 비속어에 대한 지도방안 연구: 편지글을 중심으로〉, 신라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정하,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중·고등학생 은어의 비교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종호, 〈영주 지역 지명어 연구〉, 안동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지연, 〈신문에서의 띄어쓰기 실태 분석 고찰〉,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

김현실, 〈방송 광고 언어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현영, 〈중·고등학생들의 높임법 사용 실태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문덕찬, 〈제주 지명어의 형태·음운론적 연구〉, 제주대 대학원(박사)

박근배, 〈창원지역어와 고성지역어의 대비 연구〉, 경남대 대학원(석사)

박선주, 〈영동군 자연마을 이름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영환, 〈통신언어의 음운론적 고찰〉, 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은주, 〈방송언어의 높임법 오용실태에 대한 연구〉, 신라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인환, 〈초등학생의 통신언어 실태 분석 및 지도 방안 연구: 울산지역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울산대 교육대학원(석사)

변선영, 〈진주 지역의 지명 연구: 형태·음운을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송호기, 〈전북 금마 지역 지명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여준기, 〈한일양국의 외래어 사용에 관한 연구: 양국 신문을 중심으로〉, 경상대 교육대학원(석사)

오새내, 〈현대 국어의 형태음운론적 변이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고려대 대학원(박사)

유혜진, 〈청소년의 미니홈피 글쓰기에 관한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윤보은, 〈국어 높임표현 사용요인과 그 적용양상에 관한 연구: 학교 언어공동체를 중심으로〉, 국민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상녀, 〈강원도 영동 방언의 음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강원

대 대학원(박사)
이윤경, 〈통신 언어의 특징과 실천적 교육 방안〉, 경성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윤희, 〈간판 언어 분석을 통한 국어사용 실태 조사: 전주시내 간판을 중심으로〉, 전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은영, 〈통신 언어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주경, 〈인터넷 통신 대화자명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지혜, 〈인터넷 담화의 구비문학적 특성과 통합적 국어교육으로서의 가능성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철웅, 〈충주시 간판어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이혜영, 〈한·일 양언어의 젠더표현의 대조연구〉, 상명대 대학원(박사)
장혜진, 〈대구 지역어의 세대 간 단모음 실현 양상 비교 연구〉, 고려대 대학원(석사)
조상진, 〈인터넷 통신 언어의 연구〉, 상지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은희, 〈이메일 제목에 나타난 언어 양상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은희, 〈중학생의 문장 실태와 교육 방안〉, 창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조향선, 〈인터넷 언어가 청소년 국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차윤정, 〈텔레비전 출연자의 말과 자막의 대응 양상〉, 대구대 교육대학원(석사)
최경희, 〈조선족의 친족 호칭어·지칭어 연구: 연변 훈춘 지역을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석사)
최미향, 〈고양시 간판어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영란, 〈순천지역의 농기구 어휘 연구〉, 순천대 교육대학원(석사)
최혜정, 〈아파트 이름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한영옥, 〈한·일 호칭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중앙대 대학원(박사)
한영지, 〈중학생의 채팅 언어 연구: 대화방과 메신저의 차이를 중심으로〉, 경남대 교육대학원(석사)
홍수진, 〈독일광고와 한국광고에 사용된 어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인쇄광고의 헤드라인과 슬로건에 사용된 어휘의 품사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대학원(석사)
홍승혜, 〈한·일 양국 속담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에 관한 고찰: 일본어의 명사적 표현과 한국어의 동사적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홍지은, 〈PC 통신 언어의 사용 실태와 교과 지도 방안: 중학생을 대상으로〉, 단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강우순, "온라인 채팅에 나타난 구어적 특성과 차이점", 언어연구 23-1, 경희대 언어연구소
강지혜, "자막 번역과 언어 사용의 경제성", 텍스트언어학 2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강현석·이장희, "천안·아산지역어와 대구지역어에 나타나는 w탈락 현상의 비교연구", 사회언어학 14-2, 한국사회언어학회
강희숙, "전남방언 택호의 변이와 변화", 사회언어학 14-2, 한국사회언어학회
구현정·정수희·김해수, "텔레비전 어린이 만화에 나타난 국어사용의

문제점", 사회언어학 14-2, 한국사회언어학회
권재선, "韓·日 '親族語' 비교연구", 한일언어문화연구 10, 한·일언어문화연구소
김기선, "한국과 몽골의 금기 비교 연구", 몽골학 21, 한국몽골학회
김명운, "어휘사용의 성적변이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방법 시론", 사회언어학 14-2, 한국사회언어학회
김상태, "대학생들의 어휘 사용 연구 -청주대 박물관 답사기를 통하여", 새국어교육 73, 한국국어교육학회
김정우, "초기 라디오 광고언어에서 대명사 "여러분"의 사용양상 -1959~1964년의 라디오 광고언어를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25, 한성대 한성어문학회
김정우, "통신 이름에 나타난 정체성 표현의 양상", 사회언어학 14-1, 한국사회언어학회
김호정, "근현대 민족어문교육 기초 연구(2) 전국학술대회: 국어 사용 실태 연구의 내용과 방법론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연구 17,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김희숙, "21세기와 한국의 사회언어학",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박선옥, "인터넷 토론글 사례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인터넷 토론 의사소통 방식에 관한 연구", 화법연구 9, 한국화법학회
박은정, "대구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의 언어사용에 나타난 통신언어", 언어와 문화 2-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박철주, "PC 통신언어 명사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박혜경·권순희, "TV시사토론(時事討論)프로그램 참여자의 연령별 경어법 사용 양상", 국어교육학연구 25, 국어교육학회
박호관·이정복, "고등학생들의 비규범적 통신 언어 사용과 국어 교육의 과제", 어문연구 50, 어문연구학회

박휴용, "'세계화시대의 영어학습' 열기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사회언어학 14-2, 한국사회언어학회
변정민, "언어활동의 사회문화적 고찰 -간판 언어와 광고 언어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72, 한국국어교육학회
서은아, "일제 시대 광고 언어의 특징 연구",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손범규, "남북한 월드컵 중계방송 언어 비교 연구 -2002년과 2006년 월드컵 중계방송을 중심으로-", 화법연구 9, 한국화법학회
시정곤, "사이버 언어의 조어법 연구",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양영희, "중세국어 호칭어와 종결어미의 호응에 대한 재고", 사회언어학 14-2, 한국사회언어학회
오고시나오키, "상대방 소유물 사용 시의 무언행위에 대해서 -피행위자측의 의식, 한일 청년 조사 결과로부터-", 한국어교육 17-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오장근, "여가문화 분석을 위한 텍스트 - 기호학 기반의 비교 문화론적 연구 -여가콘텐츠를 이용한 국내 3개 카드사 광고의 문화브랜딩 전략 분석-", 텍스트언어학 2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오현아, "정체성의 또 다른 표현: 전자우편 아이디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선청어문 34, 서울대 국어교육과
이동석, "뉴스 자막 언어의 오류 실태 연구", 어문논집 54, 민족어문학회
이동석, "신문 방송 언어의 실태와 언어 규범", 한국어학 33, 한국어학회
이승후, "문장 부호 사용 실태의 조사 분석", 새국어교육 74, 한국국어교육학회
이재원, "한국상업광고사 -언어기능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2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이정복, ""힘"과 "거리" 요인에 따른 탈춤 대사의 경어법 연구", 우리말연구 18, 우리말학회
이정복, "국어 대우법의 종합적 검토: 국어 경어법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국어학 47, 국어학회
이정복, "인터넷 통신 언어 자료에 나타난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의 방언 사용 실태", 우리말글 38, 우리말글학회
이정복, "청소년들의 경어법 사용 실태 분석 -대구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이주행, "남한과 북한의 언어 문화에 관한 고찰", 국어교육 121, 한국어교육학회
이태영, "2006년 봄 중점학술발표 대회: 문학과 방언; 윤흥길의 〈소라단 가는 길〉에 나타난 일상어의 특징", 국어국문학 142, 국어국문학회
임영철, "이민 커뮤니티의 언어의식", 사회언어학 14-1, 한국사회언어학회
임지원·성철재, "한국어 방송 광고 헤드카피에 대한 운율 분석", 언어학 46, 한국언어학회
장경현, "인터넷 블로그에 나타나는 종결 어미 "-지(요)의 용법과 의미"", 한국어의미학 19, 한국어의미학회
장혜진·신지영, "대구 방언 단모음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한 음향 음성학적 연구", 말소리 57, 대한음성학회
전병철, "채팅 언어에서 보이는 방언 의식 연구", 언어학 10, 중원언어학회
전지현·성지현, "조직구성원의 논쟁성, 논쟁 유연성, 언어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 사회언어학 14-2, 한국사회언어학회
전혜영, "언어 사용자의 성별과 발화 특성",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정여훈, “신문 제목의 유형 및 그 실현 양상”, 사회언어학 14-1, 한국사회언어학회

정현선, “한국어교육학회 제260회 학술대회 특집: 국어 생활과 국어문화: 미디어 소통의 관점에서 본 인터넷 공론장의 언어문화”,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정호완, “지명소 ‘고마’의 의미와 분포”, 우리말글 36, 우리말글학회

조태린, “사회언어학의 지위와 의미에 대한 입장들”, 사회언어학 14-1, 한국사회언어학회

진제희, “기능단계별로 나타난 의료면담의 제도 대화적 특징 연구”, 사회언어학 14-1, 한국사회언어학회

학회자료, “강원도 평창군 방언 조사”, 한성어문학 25, 한성대 한성어문학회

학회자료, “강원도 평창군 춘계 학술답사”, 한성어문학 25, 한성대 한성어문학회

허재영, “근대계몽기 여성의 문자 생활”, 사회언어학 14-1, 한국사회언어학회

홍미주, “일상 발음과 언어규범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사회언어학 14-1, 한국사회언어학회

홍윤표, “디지털 시대의 국어학”, 국어국문학 143, 국어국문학회

Jin-sook Choi, “Who Accentuates an Inter-group Dialect in an Inter-dialectal Place?”, 사회언어학 14-1, 한국사회언어학회

Kyong-ae Yu, “Impact of Culture in Communication: Different Verbal Styles and Miscommunications”, 사회언어학 14-1, 한국사회언어학회

Kyung-hee Suh·Kyu-hyun Kim, “An Analysis of TV Homeshopping Commercial”, 사회언어학 14-2, 한국사회언어학회

Park Yun-joo, “Korean Children’s Identity Construction while

Living in Two Languages", 사회언어학 14-2, 한국사회언어학회

〈기타〉

김근태, "새로운 한글날에 바란다: 새로운 한글날에 바란다", 새국어생활 16-3, 국립국어원
김봉국, "강원도 말을 찾아서", 새국어생활 16-4, 국립국어원
김영명, "새로운 한글날에 바란다: 한글날 국경일 제정에 즈음하여 몇 가지를 생각하다", 새국어생활 16-3, 국립국어원
김진해, "'선생님'과 '교수님' 사이", 쉼표, 마침표. 7, 국립국어원
김진해, "넘치는 친절, 해석된 장면 - 자막", 쉼표, 마침표. 5, 국립국어원
김진해, "밀어내는 언어, 끌어당기는 언어 - 안내문", 쉼표, 마침표. 8, 국립국어원
김진해, "한자의 귀환", 쉼표, 마침표. 6, 국립국어원
김창종, "방송 드라마의 유행어 퍼뜨리기에 대하여", 한글새소식 405, 한글학회
김한빛나리, "유행 따라 버릇에 젖은 말글", 한글새소식 408, 한글학회
노회찬, "새로운 한글날에 바란다: 말과 글은 생물이다", 새국어생활 16-3, 국립국어원
문제안, "신문·방송이 꼭 해야 할 두 가지 일", 한글새소식 404, 한글학회
박향순, "언어 식민지", 한글새소식 408, 한글학회
배한성, "새로운 한글날에 바란다: 한글날, 우리말을 되돌아보며", 새국어생활 16-3, 국립국어원
신기남, "새로운 한글날에 바란다: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말은 온누리에서 '한글'뿐입니다", 새국어생활 16-3, 국립국어원
신승일, "홍익 한글과 한류", 한글새소식 408, 한글학회
이계진, "새로운 한글날에 바란다: 새로운 한글날에 바란다", 새국어생활 16-3, 국립국어원
이규택, "새로운 한글날에 바란다: 새로운 한글날에 바란다", 새국어생활 16-3, 국립국어원
이대로, "국경일로 다시 태어난 한글날: 한글날 국경일 제정 과정과 의미", 새국어생활 16-3, 국립국어원
임지룡, "국경일로 다시 태어난 한글날: 한글날의 참된 의미를 찾아서", 새국어생활 16-3, 국립국어원
정재환, "새로운 한글날에 바란다: 대통령님도 한글날만큼은 하루 쉬셔야죠!", 새국어생활 16-3, 국립국어원
정현기, "영어 이념과 한글 말하기와 글쓰기에 대한 단상", 새국어생활 16-3, 국립국어원
정호원, "중국에 부는 한글 바람 (1)", 한글새소식 407, 한글학회
정호원, "중국에 부는 한글 바람 (2)", 한글새소식 408, 한글학회
정호원, "중국에 부는 한글 바람 (3)", 한글새소식 409, 한글학회
정호원, "중국에 부는 한글 바람 (4)", 한글새소식 412, 한글학회
최상일, "농요에 들어 있는 우리말", 새국어생활 16-3, 국립국어원
한상우, "새로운 한글날에 바란다: 쉬운 한글로 친근한 법령을 만들자", 새국어생활 16-3, 국립국어원

방언

〈단행본〉

국립국어원, 『강원 지역어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김봉국),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경기 지역어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최명옥),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경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김정대),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경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김무식),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이기갑),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전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소강춘),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강영봉),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충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한영목),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박경래), 국립국어원
김선철, 『중앙어의 음운론적 변이 양상』, 경진문화사
김차균, 『중부 동해안 방언의 성조비교』, 글누림
유필재, 『서울방언의 음운론』, 月印

이복영, 『大阜島 地域語의 通時音韻論』, 한국학술정보
鄭仁浩, 『平北方言과 全南方言의 音韻論的 對比 硏究』, 태학사
丁泰鎭·金炳濟 저·정태진선생기념사업회 엮음, 『朝鮮 古語 方言 辭典』, 민지사
한성우, 『평안북도 의주방언의 음운론』, 月印

〈학위 논문〉

김귀복, 〈조정래 소설 「아리랑」에 나타난 전북방언의 계량언어학적 연구: 음운 현상을 중심으로〉, 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세진, 〈경남 서남부 방언의 성조 연구〉, 충남대 대학원(박사)
김옥영, 〈강릉지역어의 음운탈락현상 연구: 최적성이론을 중심으로〉, 서강대 대학원(박사)
김은정, 〈의생활 어휘의 지역방언 연구〉, 단국대 대학원(석사)
류준, 〈충남 연기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목지선, 〈서부경남 방언의 의문문에 대한 연구: 소설 ≪백정≫을 중심으로〉, 경상대 대학원(석사)
문갑순, 〈제주 방언 부사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석사)
박미경, 〈박경리 소설 「토지」에 나타난 서부 경남 방언의 계량언어학적 연구: 음운 현상을 중심으로〉, 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선근, 〈경북 김천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박선영, 〈서울 지역어의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 모음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석사)
백은아, 〈/ㄹ/과 관련된 전주방언의 음운현상과 연결제약〉, 전북대 대학원(석사)
소신애, 〈공시적 음운 변이와 통시적 음운 변화의 상관성: 함북 육진 방언을 대상으로〉, 서강대 대학원(박사)

손웅일, 〈정선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강원대 대학원(석사)
엄춘영, 〈연변지역어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윤혜원, 〈단양 남부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은상현, 〈강원 지역어의 사동·피동 연구〉, 상지대 교육대학원(석사)
진선주, 〈방언 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경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최희선, 〈방언 교육의 이해와 실제〉, 전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강정희, "제주방언의 인식양태 표현 -형용사 구문의 부사어 "잘도"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9, 한국언어문학회
강흥구, "울진 방언 가사문학 작품의 성조 연구",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고영림, "현대제주방언 단모음의 음향음성학적 특성 연구", 한국언어문화 30, 한국언어문화학회
김봉국, "경기도 방언의 음운론적 특징", 어문연구 51, 어문연구학회
김세진, "창원 방언과 남해 방언의 성조 체계 비교", 한글 274, 한글학회
김정태, "충남방언 활용에서의 음성모음화", 어문연구 51, 어문연구학회
김종훈, "제주방언 단모음과 현대국어 단모음의 음향 분석 비교", 언어연구 21-3, 한국현대언어학회
김태엽, "2006년 봄 중점학술발표 대회: 문학과 방언: 현진건 소설의 방언 연구", 국어국문학 142, 국어국문학회

김태엽, “김동리 소설에 나타나는 경북 방언”, 우리말글 38, 우리말글학회
김태엽, “이병각 작품에 나타난 경북 방언”, 어문연구 51, 어문연구학회
김현기·최영숙·김덕수, “한국어 방언 음성의 실험적 연구”, 음성과학 13-3, 한국음성과학회
문순덕, “제주방언 ‘불다’의 문법화 과정”, 영주어문 12, 영주어문학회
박숙희, “안동·성주·경주 방언의 성조 비교”, 한글 272, 한글학회
범금희, “대구 토박이말의 {어 가지고} 관련 어형별 실현양상”, 한민족어문학 49, 한민족어문학회
서정민, “전전이음 [j]와 [w]에 관한 유형론적 분석”, 언어 31-3, 한국언어학회
소강춘, “2006년 봄 중점학술발표 대회: 문학과 방언: 방언 음성 자료의 전산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42, 국어국문학회
소신애, “음운론적 변이의 유형과 요인 －함북 육진 방언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2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안귀남, “국어 대우법의 종합적 검토: 방언에서의 청자존대법 연구”, 국어학 47, 국어학회
안미애, “대구 지역 방언에 나타나는 접속구의 경계 성조”, 음성과학 13-4, 한국음성과학회
오종갑, “‘ㅜ/ㅗ+ㅓ/ㅏ’의 음운론적 변화와 영남방언의 위상”, 어문학 92, 한국어문학회
위진·손희하, “전남 방언 “실겅”과 “살강”에 대한 음운론적 분석”, 한국언어문학 57, 한국언어문학회
윤석민, “2006년 봄 중점학술발표 대회: 문학과 방언: 소설과 방언 그리고 텍스트언어학”, 국어국문학 142, 국어국문학회

이민경, “Asymmetry in Korean Umlaut: Variation vs. Optionality”, 현대문법연구 43, 현대문법학회

이민경, “Gyeongsang Korean /n/-insertion revisited”,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12-3, 한국음운론학회

전철웅, “대호 이융조 교수 정년 기념호: 충북방언의 어휘음운론 서설(5)”, 인문학지 33,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정진완, “An aspect of dialectal variations in Korean phonology: a constraint-based analysis”,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12-2, 한국음운론학회

최전승, “국어 지역 방언에서 일어난 의미 변화의 일반적 발달 경향과 환유(metonymy)와의 상관성 -전라방언에서 “도르다/두르다” 형의 의미 전이(기>도)의 경우를 중심으로-”, 배달말 39, 배달말학회

學術調査報告, “南濟州郡 南元邑 新興里 現地學術調査報告 -조사경위·마을개황·방언·민요·설화·신앙-”, 백록어문 22, 백록어문학회

Hyun Kyung Hwang, “Intonation Patterns of Wh-interrogatives in South Kyungsang Korean and Fukuoka Japanese”, 언어학 45, 한국언어학회

Michael Kenstowicz·Chiyoun Park, “Laryngeal Features and Tone in Kyungsang Korean: a Phonetic Study”,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12-2, 한국음운론학회

Young Hee Chung, “Emergence of Universal Grammar in Loanword Phonology of North Kyungsang Korean”, 언어학 44, 한국언어학회

〈기타〉

강영봉, “제주어 이야기”, 새국어생활 16-2, 국립국어원
강인숙, “옛말의 아름다움과 사투리”, 새국어생활 16-4, 국립국어원
김봉국, “강원도 말을 찾아서”, 새국어생활 16-4, 국립국어원
김정대, “경남 방언의 멋과 맛”, 새국어생활 16-1, 국립국어원
한영목, “충남의 언어 이야기”, 새국어생활 16-3, 국립국어원

사전학

〈단행본〉

관정이종환교육재단 편, 『남북 통일말사전』, 두산동아
권오운, 『작가들이 결딴낸 우리말: 우리말 분류 소사전』, 문학수첩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진 외, 『우리말글쓰기 연관어대사전, 상: 자음편』, 황토출판사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진 외, 『우리말글쓰기 연관어대사전, 하: 모음편』, 황토출판사
김준영, 『입에 익은 우리 익은말: 글쓰기에 좋은 말글 사전』, 학고재
백문식, 『우리말 부사 사전』, 박이정
백문식,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 한국어 어원 사전』, 삼광출판사
백봉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개정판)』, 하우출판사
서상규·백봉자·강현화·김홍범·남길임·유현경·정희정·한송화, 『(외국인을 위한)한국어 학습 사전』, 신원프라임
이은규, 『고대 한국어 차자표기 용자 사전』, 제이앤씨
이희자·이종희, 『(풍부한 관용구를 수록한)어미·조사 사전: 한국어 학습 학습자용』, 한국문화사
한국색채연구소 편, 『우리말 색이름 사전』, 칼라뱅크커뮤니케이션
Kang Hyoun-hwa 저·Peter Schroepfer·Piao Wenzi·Ogoshi Naoki 역, 『Korean picture dictionary』, Darakwon

〈학위 논문〉

안의정, 〈국어사전에서의 구어 어휘 선정과 기술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박사)
이지혜, 〈심리형용사 유의어의 의미 변별과 사전 기술 연구: 연어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강소영, “문화지형어 사전의 편찬 가능성 검토”, 텍스트언어학 2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곽충구, “초기 露韓辭典의 편찬 經緯 및 체제와 구조”, 한국사전학 7, 한국사전학회
김선철, “국어대사전의 새로운 발음정보 처리 방법에 대하여”, 언어학 46, 한국언어학회
김양진, “국어 중사전의 전문어 표제어 선정에 대하여 -역사 전문어를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7, 한국사전학회
김혜경·윤애선, “동사 어휘의미망의 반자동 구축을 위한 사전정의문의 중심어 추출”, 언어와 정보 10-1, 한국언어정보학회
남길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에서의 어휘 기술 방법론 연구”, 한글 271, 한글학회
남지순, “한국어 명사구성비자립어(NXF) 전자사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논의”,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남지순, “한국어 의존명사 전자사전 어휘부 구성을 위한 연구”, 언어학 44, 한국언어학회
박건숙, “자연언어처리를 위한 구문, 의미 정보 구축 -날씨어휘장의 {비}를 대상으로-”, 한국어의미학 19, 한국어의미학회

박수연, “한국어 학습 사전의 연구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31, 이중언어학회
송길룡, “독립신문 어휘색인 작업과정에 이용된 형태주석 편집도구의 활용 전망”, 한국사전학 7, 한국사전학회
유제선, “한국 대학생의 영어사전 사용실태에 대한 연구”, 한국사전학 142, 한국사전학회
유혜원·남경완·홍종선, “한국어의 형태론적 중의 어절 사전 구축과 표제어 선정”,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이동혁, “한영 기계번역 시스템의 다의 정보 처리에 대하여”, 한글 274, 한글학회
이동혁·오장근, “다국어 어휘의미망에 한국어 관용표현을 연결하는 방법”, 언어과학연구 36, 언어과학회
이영경, “중세국어 심리 형용사의 사전 기술에 대하여 -문형정보를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7, 한국사전학회
이용훈·이종혁, “국내외 전자사전 개발의 현황과 전망”, 한국사전학 8, 한국사전학회
이전경·하귀녀·박진호·황선엽, “구결사전 편찬에 대하여”, 한국사전학 7, 한국사전학회
전영옥, “구어 어휘의 사전 기술 방법”, 한국사전학 8, 한국사전학회
정철,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사전의 조건”, 한국사전학 8, 한국사전학회
조재수, “〈윤동주 시어 사전〉 이렇게 편찬하였다”, 한국사전학 7, 한국사전학회
조형일, “한국어 어휘의 교육용 시소러스 개발 방안 연구”, 선청어문 34, 서울대 국어교육과
韓榮均, “『표준국어대사전』의 用例에 대한 辭典學的 檢討”, 어문연구 1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한영균, “≪표준국어대사전≫의 용례(用例)에 대한 사전학적(辭典學的) 검토(檢討) -용언(用言)의 경우”, 국어학 48, 국어학회
황은하, “한·중 사전 비교 연구”, 한국사전학 7, 한국사전학회

〈기타〉

이재호, “영한사전과 번역”, 새국어생활 16-1, 국립국어원
조재수, “문학과 사전”, 한글새소식 408, 한글학회
지춘수, “『우리말 큰사전』을 뒤적이면서”, 한글새소식 406, 한글학회

국어정보학

〈단행본〉

시정곤, 『응용국어학의 탐구』, 月印
황화상, 『한국어와 정보: 한국어 정보 처리와 자연언어 처리의 이해』, 박이정

〈학위 논문〉

김귀복, 〈조정래 소설 「아리랑」에 나타난 전북방언의 계량언어학적 연구: 음운 현상을 중심으로〉, 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박미경, 〈박경리 소설 「토지」에 나타난 서부 경남 방언의 계량언어학적 연구: 음운 현상을 중심으로〉, 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신서인, 〈구문 분석 말뭉치를 이용한 한국어 문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
안의정, 〈국어사전에서의 구어 어휘 선정과 기술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박사)
이숙의, 〈한국어 동사 의미망 구축 연구〉, 충남대 대학원(박사)

〈일반 논문〉

강미영·정성원·권혁철, "어절 내의 형태소 범주 패턴에 기반한 통계적 자동 띄어쓰기 시스템", 정보과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응용 33-11, 한국정보과학회

권정현, “의미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 한성어문학 25, 한성대 한성어문학회
김남돈, “신소설 말뭉치와 깜짝새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최근세국어 문법의 연구 방안”, 국어국문학 143, 국어국문학회
金南敦, “學習者 말뭉치에 기반한 國語知識의 計量的 硏究 方案”, 어문연구 1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김동성·최재웅, “저빈도어를 고려한 개념학습 기반 의미 중의성 해소”, 언어와 정보 10-1, 한국언어정보학회
김재훈·박은진, “PPEditor: 한국어 의존구조 부착을 위한 반자동 말뭉치 구축 도구”, 정보처리학회논문지 B 13-1, 한국정보처리학회
김정민·신효필·김형주, “분산 토픽맵의 다중 전략 매핑 기법”, 정보과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응용 33-1, 한국정보과학회
김종복·임경원·이주원, “전산학적 응용을 위한 한국어 용언 위계 구축”, 한국사전학 8, 한국사전학회
김진해, “코퍼스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의미의 본질”, 한국어의미학 21, 한국어의미학회
김한샘, “말뭉치에 기반한 공간 명사의 의미 변화 연구”, 반교어문연구 21, 반교어문학회
南京完·劉惠援, “동사-형용사 重義 語節의 重義性 解消 연구”, 어문연구 1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남길임, ““아니다”의 패턴 연구 -말뭉치의 문맥색인(concordance)을 활용하여-”, 어문론총 44, 한국문학언어학회
남길임, “말뭉치 기반 국어 분열문 연구”, 형태론 8-2, 형태론연구회
남길임, “텍스트 장르에 따른 문장 확대 양상 연구 -학술개론서와 학술강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2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박진호, “자연언어처리와 국어 연구”, 국어국문학 143, 국어국문학회

소강춘, “2006년 봄 중점학술발표 대회: 문학과 방언: 방언 음성 자료의 전산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42, 국어국문학회
송길룡, “독립신문 어휘색인 작업과정에 이용된 형태주석 편집도구의 활용 전망”, 한국사전학 7, 한국사전학회
송도규, “한국어 부정표현의 형식화와 온톨로지 변환”, 한국어의미학 19, 한국어의미학회
송도규, “한국어 양화표현의 형식화와 온톨로지 변환”, 언어과학 13-1, 언어과학회
오종훈·최기선, “기계학습에 기반한 생의학분야 전문용어의 자동 인식”, 정보과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응용 33-8, 한국정보과학회
윤규철, “음성학과 음성정보처리: 한국어 토비 표기를 위한 프랏 스크립트 툴”, 인문논총 56,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이동혁, “한영 기계번역 시스템의 다의 정보 처리에 대하여”, 한글 274, 한글학회
이승연,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오류 표지 방안 재고”, 이중언어학 13, 이중언어학회
이용훈·이종혁, “국내외 전자사전 개발의 현황과 전망”, 한국사전학 8, 한국사전학회
이재성·김미숙·오영순·이영성, “MeSH 시소러스를 이용한 한영 교차언어 키워드 자동 부여”, 정보처리학회논문지 B 13-2, 한국정보처리학회
이태영, “국어국문학의 정보화 수용에 대한 논의의 반성과 전망”, 어문연구 52, 어문연구학회
이현아, ““단어-의미 의미-단어” 관계에 기반한 번역어 선택”, 정보처리학회논문지 B 13-1, 한국정보처리학회
조은경·서상규·서정연, “지시 해석을 위한 “그것”의 쓰임에 관한 연

구", 언어 31-1, 한국언어학회
조은경·이민행, "지시 해석을 위한 "것"의 식별과 쓰임에 관한 연구",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최선화·박혁로, "기계가독형사전에서 상위어 판별을 위한 규칙 학습", 정보처리학회논문지 B 13-2, 한국정보처리학회
최운호·강범모·차재은, "은유 연구의 회고와 전망: 코퍼스를 이용한 은유 표현의 추출과 어휘데이터베이스의 확장 연구", 한국어의미학 20, 한국어의미학회
최지원·장은영·이희진·박종철, "자연언어 문장의 자동 변환을 위한 수화 표현의 언어학적 특성 분석", 언어와 정보 10-1, 한국언어정보학회
최호섭·임지희·옥철영·김정우, "대규모 우리말 어휘지능망 구축 방법", 한글 273, 한글학회
한영균, "한국어 어휘 교육·학습 자료 개발을 위한 계량적 분석의 한 방향", 어문학 94, 한국어문학회

〈기타〉

리수락, "특집: 남북 IT교류: 전문용어 표준화의 원칙과 평가기준", 정보처리학회지 13-5, 한국정보처리학회
변정용, "특집: 남북 IT교류: 한글·조선글 문자부호표준 개선방안", 정보처리학회지 13-5, 한국정보처리학회
정희성, "특집: 남북 IT교류: 남북 국어정보기술 표준안개발의 과제", 정보처리학회지 13-5, 한국정보처리학회
최기선·변정용·신효식·옥철영, "특집: 남북 IT교류: 남북 정보 기술 용어 표준", 정보처리학회지 13-5, 한국정보처리학회

2. 정기 간행물 목록

가라문화	경남대 가라문화연구소
강남어문	강남대 어문학부
강릉어문학	강릉대 국어국문학과
강원문화연구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강원민속학	강원도 민속학회
강원인문논총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개신어문연구	충북대 개신어문학회
건국어문학	건국대 국어국문학연구회
건양논총	건양대
겨레어문학	겨레어문학회
경기교육논총	경기대 교육대학원
경기어문학	경기대 국어국문학회
경남문화연구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소
경남어문	경남대 경남어문학회
경남어문논집	경남대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경대문학	경기대
경산문화연구	경산대 경산문화연구소
경산어문학	경산대
경상어문	경상어문학회
경원논문	경원대
경원어문논집	경원대 국어국문학과
경희어문학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계룡어문학	공주교대 국어교육연구회
계명어문학	계명어문학회

계명연구논총	계명문화대학
고대문화	고려대 고대문화편집위원회
고문서연구	한국고문서학회
고서연구	한국고서연구회
고인쇄문화	청주고인쇄박물관
고황논집	경희대 대학원
공주교대논총	공주교대
공주사대논총	공주사대
과학논총	서울여대 대학원
관대논문집	관동대 인문과학·사회과학편
관동민속학	관동대 강릉무형문화연구소
관동어문학	관동어문학회
관동향토문화연구	춘천교대 관동향토문화연구소
관악어문연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광주초등국어교육연구	광주초등국어교육학회
교사교육논총	강원대
교수논문집	상지대
교수논총	한국교원대
교원교육	한국교원대 교육연구원
교육개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연구논총	충북대 교육개발연구소
교육경남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연구	한국교육과정학회
교육과학연구	신라대 교육과학연구소
교육과학연구	이화여대 교육과학연구소
교육논총	국민대 교육연구소
교육논총	동국대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서원대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인천교대 초등교육연구소
교육논총	전북대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전주대 교육연구소
교육논총	중앙대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한양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
교육대학원 논문집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마당21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문제연구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교육문제연구	동국대 교육연구원
교육발전	서원대 교육연구소
교육발전논총	충남대 교육발전연구소
교육사회학연구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연구	덕성여대 고등교육연구소
교육연구	부산대 교육연구소
교육연구	성신여대
교육연구	춘천교대 초등교육연구소
교육연구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교육연구논총	홍익대 교육연구소
교육연구정보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이론과 실천	경남대 교육문제연구소
교육한글	한글학회
구결연구	구결학회
국문학	고려대
국문학	공주사대

국문학논집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연구	국문학회
국문학연구	효성여대 국어국문학과
국민어문연구	국민대 국어국문학연구회
국어과교육	부산교대 국어교육연구회
국어과교육	부산대
국어과교육연구	전국 교육대학 국어과 교수 연구 협의회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논총	연세대 교육대학원
국어교육논총	제주대 교육대학원
국어교육논총	조선대 교육대학원
국어교육론지	대구교대
국어교육연구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연구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연구	원광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	조선대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연구	춘천교대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연구	한국사회사업대
국어교육학연구	국어교육학회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	동아대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논문집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논문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연구	군산대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연구	영남대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연구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국어문학	국어문학회
국어학	국어학회
국제고려학	국제고려학회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국제고려학회논문집	국제고려학회
국제문화연구	청주대 국제협력연구소
국제어문	국제어문학회
국제언어문학	국제언어문학회
국학논총	경산대 국학연구원
규장각	서울대 규장각
기전문화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나라사랑	외솔회
나랏말씀	고려대 한국동양어문학부
남도문화연구	순천대
논문요지집	동국대
논문집	가톨릭 상지대학 사회개발 · 산업기술연구소
논문집	가톨릭대
논문집	강남대
논문집	강릉교대
논문집	건국대 교육연구소
논문집	건국대 교육학부
논문집	건국대 대학원
논문집	경기대
논문집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집	경북대
논문집	경북전문대
논문집	경산대 국학연구소
논문집	경산대학교
논문집	경산대학교
논문집	경일대학교
논문집	경찰대
논문집	경희대 교육발전연구원
논문집	경희대 대학원
논문집	고신대
논문집	공군사관학교
논문집	공주대
논문집	공주대학교
논문집	공주대학교 영상보건대학
논문집	관동대
논문집	광양대학
논문집	광운대
논문집	광주경상대
논문집	광주교대
논문집	광주보건대학
논문집	교육행정연수원
논문집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논문집	군산대
논문집	군장대학
논문집	극동정보대학
논문집	금오공과대
논문집	김천대학

논문집	김포대학
논문집	단국대
논문집	대구교대
논문집	대구보건대학
논문집	대림대학
논문집	대신대
논문집	대전대
논문집	대전보건대학
논문집	동강대학
논문집	동국대 경주대학
논문집	동남보건대학
논문집	동래여자전문대
논문집	동서울대학
논문집	동신대
논문집	동양공업전문대
논문집	동의과학대학
논문집	동의여전
논문집	마산대학
논문집	명지대
논문집	명지전문대학
논문집	목원대
논문집	배제대
논문집	부경대
논문집	부산교대
논문집	부산정보대학
논문집	삼육대학
논문집	상명여대

논문집	서강대
논문집	서남대
논문집	서라벌대학
논문집	서울대
논문집	서울대 교육대학원
논문집	서울보건대학
논문집	서원대
논문집	서해대학
논문집	선린대학
논문집	성균관대
논문집	성심외국어대학
논문집	수원가톨릭대
논문집	수원대
논문집	수원여대
논문집	순천제일대학
논문집	순천제일대학 지역문화연구소
논문집	순천청암대학
논문집	순천향대
논문집	숭실대
논문집	숭실대 대학원
논문집	신구대학
논문집	신흥대학
논문집	안양대
논문집	여수대학교
논문집	영남대
논문집	영남이공대학
논문집	영진전문대

논문집	용인대
논문집	원광대
논문집	원광대 대학원
논문집	유한대학
논문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육군사관학교
논문집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논문집	인덕대학
논문집	인산전문대
논문집	인천대
논문집	인천전문대
논문집	인하공업전문대
논문집	인하대
논문집	적십자간호대학 건강과재해연구소
논문집	전남대
논문집	전남도립 남도대학
논문집	전주공업대학
논문집	전주교대
논문집	전주기전대학 산학연구소
논문집	제주교대
논문집	제주산업정보대학
논문집	조선대
논문집	중부대학
논문집	진주교대
논문집	진주보건대학
논문집	진주산업대
논문집	창원기능대

논문집	청주교대
논문집	청주대
논문집	청주대 대학원
논문집	총신대 대학원
논문집	충남대
논문집	충남대 대학원
논문집	충북대
논문집	충주대학교
논문집	충청대학
논문집	충청전문대
논문집	한경대학교
논문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집	한국방송통신대
논문집	한국외국어대
논문집	한국철도대학
논문집	한국체육대
논문집	한국한문학회
논문집	한국해양대
논문집	한나전문대
논문집	한남대
논문집	한성대
논문집	한양대
논문집	한양대 대학원
논문집	한양여전
논문집	해군사관학교
논문집	혜전대학
논문집	혜천대학

논문집	호서대
논문집	홍익대
다뭇	경남대 인문학부
담화와 인지	담화·인지언어학회
대구대학교 학술논문집	대구대학교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대신문화	대신문화편집위원회
대전어문학	대전대 국어국문학회
대학원 논문집	경상대학교 대학원
대학원논문집	동아대 대학원
대학원논문집	원광대 대학원
대학원논문집	전주대 대학원
대학원논문집	한남대 대학원
대학원논총	경남대 대학원
대학원학술논문집	건국대 대학원
덕성어문학	덕성여대 국어국문학과
덕성여대논문집	덕성여대
도서문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도솔어문	단국대 어문학부 한국어문학 전공
독서연구	한국독서학회
돈암어문학	돈암어문학회
동경어문논집	동국대
동국논집	동국대
동국어문논집	동국대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동남어문논집	동남어문학회
동국어문학	동국대 국어교육과
동대논문집	동국대

동덕어문논집	동덕여대
동방학지	연세대 국학연구원
동북아연구	홍익대 동북아연구소
동서문화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동서문화교류연구	한국돈황학회
동서문화연구	한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동서문화연구	홍익대 인문과학연구소
동서연구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동아교육논총	동아대 교육대학원
동아논총	동아대
동아문화	서울대 인문대학 동아문화연구소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열화당
동아어문논집	동아어문학회
동아연구	서강대 동아연구소
동양대학교 논문집	동양대
동양문화연구	대전대 동양문화연구소
동양학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동양학간보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동원논집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
동의	동의과학대학
동의논집	동의대
말과 글	충북대 국어국문학과
말과글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말글	어문연구회
말소리	대한음성학회
매지논총	연세대 매지학술연구소
모악어문학	전주대 국어국문학회

목원어문학	목원대 국어교육과
목포대학교논문집	목포대
몽골학	한국몽골학회
문법교육	한국문법교육학회
문법연구	문법연구회
문창어문논집	문창어문학회
문학과 교육	문학과 교육연구회
문학과 언어	문학과언어학회
문학한글	한글학회
문헌과 해석	문헌과해석사
민속학연구	안동대
민족과 문화	한양대 민족학연구소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화	민족문화추진회
민족문화	한성대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논총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논총	인천시립대
반교어문연구	반교어문학회
방송언어순화자료집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회
방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배달말	배달말학회
배달말가르침	경상대 국어교육과
배달말교육	배달말교육학회
백록논총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과학연구소
백록어문	백록어문학회
백양인문논집	신라대 인문과학연구소

백제문화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부산외대논총	부산외대
부산한글	한글학회 부산지회
북악논총	국민대 대학원
비교문화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비교문화연구	부산외대 비교문화연구소
비교문화연구	한양대
비교한국학	국제비교한국학회
사대논문집	부산대
사대논총	서울대 사범대
사라어문	제주교대 국어교육학과
사림어문연구	창원대 사림어문학회
사전편찬학연구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사회언어학	한국사회언어학회
상명대인문과학연구	상명대 인문과학연구소
상주문화연구	상주대 상주문화연구소
새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학회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원
새국어소식	국립국어원
새얼어문논집	새얼어문학회
생성문법연구	한국생성문법학회
서강어문	서강어문학회
서강인문논총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서경대학교 논문집	서경대
서울산업대학교 논문집	서울산업대
서울학연구	서울시립대 부설 서울학연구소
서지학연구	서지학회

석당논총	동아대 석당전통문화연구원
선문논총	선문대
선주논총	금오공과대학 선주문화연구소
선청어문	서울대 국어교육과
성곡논총	성곡학술문화재단
성균어문연구	성균관대 성균어문학회
성신어문학	성신여대
성신연구논문집	성신여대
성신한문학	성신한문학회
성심어문논집	가톨릭대 성심어문학회
세명논총	세명대
세종어문연구	세종어문학회
세종학연구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솔뫼어문논총	안동대 어학원
솔뫼어문학	안동대
수련어문논집	수련어문학회
숙명어문논집	숙명여대 숙명어문학회
순천대학교 자연과학논문집	순천대학교 자연과학논문집편집위원회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순천향대 인문과학연구소
순천향대학논문집	순천향대
순천향어문논집	순천향어문학연구회
숭실어문	숭실어문학회
숭의논총	숭의여자대학
시학과 언어학	시학과 언어학회
신라대학교 논문집	신라대
신라문화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아세아문화연구	한국 경원대 아시아문화연구소 ·

	중국 중앙민족대학 한국문화연구소
아세아연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학보	아세아학술연구회
아시아문화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안동대학교 논문집	안동대
안동문화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안동문화	안동문화원
안동어문학	안동어문학회
알타이어연구소논문집	경희 알타이어 연구소
알타이학보	한국알타이학회
애산학보	애산학회
어문교육	부경대학교 어학연구소
어문교육	어문교육연구회
어문논집	경남대 국어교육학회
어문논집	계명대 국어국문학회
어문논집	민족어문학회
어문논집	중앙어문학회
어문논총	경희대
어문논총	전남대
어문논총	전북대
어문논총	청주대학교 동서어문학회
어문론총	한국문학언어학회
어문생활	한국어문회
어문연구	경북대 어학연구소
어문연구	어문연구소
어문연구	어문연구학회
어문연구	일조각

어문연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어문연구	한국해양대학교 평생교육원 어학교육부
어문학	어문학회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어문학교육	부산교육학회
어문학교육	한국어문교육학회
어문학논집	전남대
어문학논총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어문학논총	숙명여대 어문학연구소
어문학논총	조선대 국어국문학연구회
어문학보	강원대 국어교육과
어문학연구	상명대 어문학연구소
어문학연구	전북대 어문학연구회
어문회보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어원연구	한국어원학회
어학교육	전남대 언어교육원
어학논지	창원대 어학연구소
어학연구	강원대 어학연구원
어학연구	군산대학교 어학연구소
어학연구	서울대 언어교육원
어학연구	순천대학교 어학원
어학연구	전주대 어학연구소
언론연구논집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언어	한국언어학회
언어과학	한국언어과학회
언어과학연구	언어과학회
언어교육	서울대 어학연구소

언어연구	경희대학교 언어연구소
언어연구	대구언어학회
언어연구	부산교대
언어연구	부산대 언어연구교육원
언어연구	서울대 대학원 언어학과 언어연구회
언어연구	성신여대 어학연구소
언어연구	한국현대언어학회
언어와 문화	목포대 어학연구소
언어와 문화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언어와 문화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언어와 언어교육	동아대 언어교육원
언어와 언어학	한국외대 외국어종합연구센터 언어연구소
언어와 정보	한국언어정보학회
언어와 정보 사회	서강대 언어정보연구소
언어정보와 사전편찬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언어청각장애연구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언어치료연구	한국언어치료학회
언어학	대한언어학회
언어학	중원언어학회
언어학	한국언어학회
언어학논집	언어정보연구원
언어학연구	서울대 대학원 언어학과
연구논문집	성신여대
연구논문집	안양대학교
연구논문집	울산과학대학
연구논문집	창원전문대
연구논문집	한민대학교

연구논집	동국대 대학원
연구논집	이화여대 대학원
연세교육과학	연세대 교육대학원
연세교육연구	연세대 교육연구소
연세어문학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영남국어교육	영남대 국어교육과
영남문화연구	영남대 영남문화연구소
영남학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영산논총	영산대
영주어문	영주어문학회
예산농업전문대학 논문집	예산농업전문대
오산대학 논문집	오산대학
외국어교육	한국교원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부
외국어교육연구	서울대 교육종합연구원 외국어교육연구소
외국어교육연구	한국외대 외국어교육연구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외국어연구	성심외국어대학 외국어교육연구소
외대논총	부산외대
외대논총	부산외대
외대어문논집	부산외대 어문학연구소
외대어문논총	경희대학교 부설 비교문화연구소
용봉논총	전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용연어문논집	경성대
용운언어	대전대
우금티문학	공주대 국어교육과
우리 말·우리 얼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우리 말과 삶을 가꾸는 글쓰기	한국글쓰기연구회

우리말·글	대진대 국어학연구회
우리말교육	부산교대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우리말내용연구	우리말내용연구회
우리말연구	우리말학회
우리어문연구	우리어문학회
우산어문학	상지대 국어국문학과
우석어문	우석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우암논총	청주대 대학원
우암어문논집	우암어문학회
울산어문논집	울산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부
웅진어문학	웅진어문학회
원격교육논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원우논집	숭실대 대학원 학생회
원주학연구	연세대 매지학술연구소
육사논문집	육군사관학교
음성과학	한국음성과학회
음성 · 음운 · 형태론 연구	한국음운론학회
응용언어학	한국응용언어학회
이문논총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이화어문논집	이화어문학회
인문과학	경북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대신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목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서울시립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홍익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논문집	대전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논문집	숭실대
인문과학논문집	한남대
인문과학논집	강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논집	서울대
인문과학논집	청주대 한국문화연구소
인문과학논총	건국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논총	경성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가톨릭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예술문화연구소
인문과학연구	동덕여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서경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서원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서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안양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전주대 인문과학종합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조선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논총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건양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경기대 인문예술총괄학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경원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배재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부산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논총	서울여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아주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울산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전주우석대
인문논총	창원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호서대
인문대논집	고려대 인문대학 인문대논집편찬위원회
인문대논집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인문비평	전국 인문학연구소협의회
인문사회과학논총	서울여대 부설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논총	인제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공주대학교 부설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한서대 인문사회과학연구원
인문사회과학연구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학연구	동신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언어	국제언어인문학회
인문연구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인하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논총	경북대
인문학연구	경상대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	경희대 인문학연구원
인문학연구	관동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	상지대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	숭실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	제주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	조선대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	중앙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	한림대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	한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지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인제논총	인제대
인천국어교육	인천시 중등학교 국어한문교육연구회
인천문학	인천어문학회
인천어문연구	인천어문학회
인천어문학	인천대 국어국문학과
인하어문연구	인하대 인하어문연구회
인하인문	인하대
자하어문논집	상명어문학회
장안논총	장안대학
전농어문연구	서울시립대 국어국문학과
전라문화논총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전문용어연구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전북대논문집	전북대
정신문화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제주도연구	제주학회
조선어연구회	조선어연구
중국어문논총	중국어문연구회
중국조선어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중국조선어문	동북3성조선어문사업협의소조 기관지

중원어문학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지명학	한국지명학회
진단학보	진단학회
진주문화	진주교대 진주문화권연구소
청람어문교육	청람어문교육학회
청송문학	관동대 국어교육학과
청파문학	숙명여대 국어국문학과
초등교육연구	강원초등국어교육학회
초등교육연구	광주교대 초등교육연구원
초등교육연구	부산교대 초등교육연구소
초등교육연구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초등교육연구	전주교대 초등교육연구원
초등교육연구	제주교대 초등교육연구원
초등교육연구	진주교대 초등교육연구원
초등교육연구	청주교대 초등교육연구소
초등교육연구	한국초등교육연구원
초등교육연구	한국초등교육학회
초등교육연구논총	대구교대 초등교육연구원
초등국어과교육	광주교대 초등국어교육학회
초등국어교육연구	대구경북 초등국어교육학회
총신대논총	총신대
취경	경원대
탐라문화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태동고전연구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태릉어문연구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텍스트언어학	한국텍스트언어학회
통일논총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

통일연구	서경대 통일문제연구소
통일연구	연세대 통일연구원
퇴계학보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퇴계학연구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학술논문집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학술논총	원주대학
한겨레어문연구	한겨레어문학회
한국교육문제연구소논문집	중앙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
한국문학연구	경기대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학연구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한국문화연구	경희대 민속학연구소
한국문화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구원논총	인제대
한국문화인류학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민족문화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방언학	경북대 한국방언학회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교육	한국국어과교육개발연구회
한국어교육	한국어문교육학회
한국어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어문교육	한국교원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한국어문학연구	이화여대 한국어문학회
한국어문학연구	한국어문학연구학회
한국어문학연구	한국외국어대 한국어문학연구회
한국어의미학	한국어의미학회
한국어정보학	국어정보학회

한국어학	한국어학회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한국언어문화	한국언어문화학회
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한국초등교육	서울교대
한국초등교육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초등국어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한국학논집	강남대 부설 한국학연구소
한국학논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한국학논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한국학논총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한국학보	일지사
한국학연구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단국대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숙명여대 한국학연구센터
한국학연구	연변과학기술대학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한글	한글학회
한글+한자문화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한글경북	한글학회 대구지회
한글문화	한글문화보급회
한글문화	한글학회 전북지회
한글사랑	한글사
한글새소식	한글학회
한남어문학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한림어문학	한림대 국어국문학과
한말연구	한말연구학회

한민족어문학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문화연구	한민족문화학회
한밭한글	한글학회 대전지회
한불연구	연세대 한불문화연구소
한성어문학	한성대 한성어문학회
한신논문집	한신대
한신인문학연구	한신대학교 학술원 인문학연구소
한어문교육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한일언어문화연구	한일언어문화연구소
한자한문교육	한국한자교육연구회
한중인문학연구	한중인문학회
한힌샘 주시경 연구	한글학회
함께 여는 국어교육	전국국어교사모임
해양문화연구	부경대 해양문화연구소
향란어문	성신여대 국어국문학회
현대문법연구	현대문법학회
협성논총	협성대
형태론	편집진
호남문화연구	호남문화연구소
호서문화논총	서원대 호서문화연구소
홍대논총	홍익대
화법연구	한국화법학회
화용론논집	언어정보연구원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효림	대구효성가톨릭대
효성어문학	효성어문학회
KBS 한국어 연구논문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회

Ⅳ. 색인(논저자명)

(ㄱ)

가경신 293
강경심 46
강범모 178, 187
강병주 275
강서구청 442
강소영 140, 201
강수희 284
강승혜 371
강신항 209
강연임 165
강영봉 241
강옥미 49
강준만 302
강창석 146
강현석 56, 268
강현자 369
강현화 94, 194, 195, 300, 358, 363
강희숙 268
고경태 65
고광도 356
고광모 87
고대영 83
고도흥 59
고선아 317
고영근 64, 135, 209, 239
고영림 45
고은숙 87, 219
고정의 229
고정현 256
고창수 96
고창운 68, 256, 284
곽단양 354
곽은하 265
곽재용 328
곽진희 43
곽충구 202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237
교육방송(EBS) 424
교육인적자원부 424
구본관 64
구현정 263
국립국어원 39, 154, 155, 158, 160, 161, 240, 241, 242, 243, 243, 244, 245, 252, 255, 261, 262, 299, 346, 362
국립민속박물관 424
국어과교수학습연구소 294
권경근 49
권성란 323
권순구 99

권순긍 318
권순희 317, 338, 339
권연희 330
권오경 363
권오운 196
권용해 59, 353, 354, 367
권우진 242, 285
권은숙 265
권인한 229
권재일 65, 107, 147, 237
권혁준 319
권현주 348
기명숙 298
김건희 103, 129
김경아 49, 53
김경열 120
김경하 335, 336
김광필 337
김국태 290
김귀복 188
김규철 72, 107
김근호 321
김기종 68
김기혁 121
김기호 46, 59, 353, 354
김길자 337
김나영 100
김남돈 188, 308
김남미 53
김다은 274
김대조 298
김대행 316, 323, 325
김대희 266, 323
김덕남 341
김덕수 46
김덕신 234
김덕호 262, 275
김도남 287, 288, 294, 295, 327
김동석 130
김동소 210, 212
김동희 337
김두루 298
김란기 255
김명운 269
김명희 172
김무림 52
김무식 226, 241
김문기 178
김문웅 210
김미경 365
김미령 109, 176
김미숙 191
김미형 132

김미혜 312, 313
김민수 209
김민애 377
김병균 162
김병운 348
김병제 196
김봉국 55, 240
김봉순 288
김상수 308, 348
김상욱 310, 318, 321, 329
김상태 232
김상한 284
김새롬 332
김서형 65
김석득 207
김석배 226, 227
김석향 253, 254
김선겸 323
김선민 326, 327
김선배 319, 330, 331
김선영 84, 120, 229
김선정 298, 301, 349, 369
김선철 38, 198
김성규 241
김성남 99
김성란 218
김성주 219, 228
김성진㉠ 313
김성진㉡ 318
김세랑 368
김세진 41
김세환 53
김소야 353
김소영 286, 298
김수경 301
김수업 329
김수연 291
김수태 87, 115
김순녀 348
김순자 242, 285
김슬옹 231
김승국 253, 254
김승환 292, 293
김양진 74, 140, 197, 212, 220
김양희 313, 314
김연주 224
김연희㉠ 339
김영 349
김영만 324, 364
김영미 378
김영배 208
김영선 53, 369
김영욱 64, 228, 230

김영인 284
김영주 363, 376, 377
김옥영 40, 41
김옥희 306
김용석 303
김용임 371
김용하 130
김원보 45
김유범 70, 105, 213, 220, 227, 306, 308
김유정 211, 372
김윤신 132, 136, 169
김윤옥 283, 286, 307
김은경 294, 353, 359
김은성 304
김은아 366
김은애 58, 351
김은영 366
김은일 130
김응모 158
김의수 110
김인환 316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진 195, 196
김일환 212
김재봉 302
김재욱 358, 359
김정남 360, 377
김정대 93, 96, 107, 233, 241
김정란 283
김정선 175, 242, 285
김정숙 365
김정우 49, 163, 258, 312, 313, 316, 317
김정자 295, 297
김정태 55
김정현 367
김종국 361, 373
김종규 48
김종백 297
김종복 190
김종영 177
김종윤 341
김종택 210
김종훈 45
김주연 350, 354
김주원 231
김주필 51
김주환 329
김주희 356
김준영 195
김준희 346, 347
김중섭 346, 347, 348
김중신 311

김지윤 44, 245
김지은 90
김지혜 356
김지홍 147
김진규 308
김진영 317
김진해 169, 180, 187
김차균 210, 38
김차진 339
김창섭 97, 107
김창원 319, 326, 327, 339
김천학 136
김철순 246
김춘호 356, 357
김충근 336
김충실 346
김태경 242, 285
김태숙 316
김태엽 133
김태자 365
김태훈 65
김평 244
김하나 357
김하수 254, 346
김한샘 161, 166, 187
김해수 263
김해정 223
김현 52
김현권 202
김현기 46
김현실 257
김현영 262
김현주 92, 212, 215
김형복 304
김형정 121
김혜경 189, 200
김혜미 300
김혜숙 365
김혜영 340
김혜원 170
김혜정㉠ 289, 333
김혜정㉡ 284
김혜정㉢ 284
김호정 263, 304, 360
김홍범 194
김홍석 246
김화진 360
김효진 84
김희선 58, 350, 354
김희성 59, 353, 354
김희숙 270
김희자 338
꼬미싸로바 빅토리야 212

(ㄴ)

나근화 324
나은미 89
나은영 374, 377
나익주 178
남가영 308
남경란 228
남경미 291
남경완 119, 200
남경환 190
남기심 94
남길임 94, 121, 122, 185, 186, 195, 198, 357
남민우 312, 313, 315, 316
남북단일어문규범작성위원회 415, 417
남북공동편찬사업회 413, 415
남북공동편찬위원회 396, 413, 415
남성우 165, 210, 364
남수경 366
남연숙 338
남의경 323
남지순 190, 200
남풍현 209, 230
노마 히데키 64
노명완 293
노명희 161, 164
노철 319
노형남 373
니시야마 노조미 373

(ㄷ)

단일어문규범작성위원회 413, 415
대구신암초등학교 298
도 옥 루이엔 356, 357
도수희 210
도애경 302
도옥순 349
독서지도연구모임 292, 293
돈암어문학회 329
동아닷컴 243
동아일보 243

(ㄹ)

로스 킹 64
류미영 301
류병래 147
류성기 283

류수열 310, 312, 321
류시욱 39
류정아 101
리득춘 211
리수락 194
리영순 68

(ㅁ)

목경균 336
목정수 95, 122
문경은 291
문규원 173
문금현 261, 305
문순덕 55
문영숙 286
문영진 313
문혜영 326
문혜윤 225
민병곤 282
민지현 336
민현미 298
민현식 302, 303, 340, 341

(ㅂ)

박갑용 125
박건숙 163, 189
박경래 241
박경애 336
박광숙 324
박권수 301
박근영 175
박기원 324
박대용 292
박대응 298
박덕유 137, 305, 374
박동근 66, 72, 239
박동호 346
박미경 188
박미영 85, 211
박미정 298
박민영 59
박병철 227
박보연 120
박부자 89
박서향 356
박석문 75, 213
박선영 90, 323
박선옥 123
박선우 40, 50
박성수 370
박성원 361, 373
박성철 174

박세영 340
박세욱 298
박수연 203
박수자 288, 338
박숙영 172
박숙현 324
박숙희 56
박영목 289, 334
박영민 288, 289, 295, 296, 297, 299, 300, 301, 302, 334, 335
박영순 178, 346, 363
박영준 177
박용식 162
박용익 173
박용찬 86, 218, 243
박유현 111
박윤우 316, 317
박윤진 46
박융배 354, 356
박은배 238
박은선 378
박인기 326, 327, 337, 340
박인환 306
박인희 298
박재현 177, 282, 286, 304
박정섭 111
박정은 337
박정진 293, 331, 332
박종덕 96, 231
박종철 192
박종희 50
박주연 347
박주화 336
박주희 324
박중휘 252
박지언 309
박지용 82, 129
박진남 291
박진완 211
박진용 290
박진호 141, 193, 201, 217, 228, 229
박찬식 158
박창균 283, 284, 293
박철우 96, 123
박철주 77, 81, 104, 175, 223, 224
박태호 292
박혁로 192, 200
박현아 123, 99
박현정 298, 354, 355, 357
박형우 108, 304, 309
박혜련 284

박혜레나 337
박혜영 294
박호관 256, 258, 308
박휴용 272
박희문 141
방인태 326, 328, 329
방향옥 104
배기조 178
배대온 212
배선미 104
배성우 212
배소영 308
배수찬 300
배정옥 373
배주채 57
배현숙 357
백낙천 82, 224
백두현 212, 226, 227, 232
백문식 196
백봉자 194, 195, 358
백승국 177
백은아 43
백해경 292
백혜준 44, 266
범류 353
변용우 42
변정용 194

(ㅅ)

사이토 아케미 212
서강대학교 362
서광진 98
서덕현 331, 332
서명옥㉠ 317
서명희 314, 319, 320
서민정 85, 115
서보월 225
서상규 175, 187, 194, 358
서수현 296
서심미 32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96, 323, 342
서유경 321
서윤정 306
서은아 259
서정연 175, 187, 301
서정혁 302
서주형 306
서태룡 94, 107, 112
서혁 299, 331
서현석 283, 328
서형국 116
석주연 168, 213
선주원 302, 313, 314, 315,

317, 318
성지현 271
성찬호 291
성철재 46, 47
성희제 55
소강춘 56, 57, 188, 241
소성룡 323
소신애 41, 54, 55
손경미 305
손남익 164
손병출 238, 326, 326
손지영 357
손희연 378
송강숙 301
송기중 210
송길룡 188, 200
송도규 189
송문석 293
송민 161, 208
송부선 178
송신지 159
송원용 140
송이규 92
송지연 59, 353, 354
송창선 73, 91
송철의 66, 68
송춘애 375
송향근 308, 348, 375, 377
송현정 305, 325, 326
스가이 요시노리 373
시각장애인연합회 252
시정곤 64, 67, 69, 72, 193, 275
신동일 361, 373
신명선 309, 341, 356
신문경 370
신미영 301
신서인 141, 185
신선경 178, 301, 302
신성철 357
신승용 48, 307
신승일 255
신영옥 370
신원기 319, 320, 321
신주철 362
신중진 159
신지영 45, 46, 57, 248, 307
신지현 326, 327
신헌재 299, 310, 316
신현정 377
신혜경 264
신혜원 366
신효식 194
신효필 148

심보경 302
심영택 332
심은숙 301
심재기 210
심지연 244
심치열 329
심혜령 374

(ㅇ)

아사리 텐세이 371
아이토 64
아침독서운동추진본부 292
아침독서추진본부 292
안경화 357
안명철 230
안미애 45, 46
안미영 251
안병희 208
안숙현 298
안은희 366
안의정 197
안재원 202
안주호 87, 101, 116, 117, 120, 219, 225, 308
안희제 124
애치슨 64
양길석 372
양명희 175, 177, 256, 262, 299, 308
양병선 248
양서영 292
양순임 58, 375, 377
양영희 102, 220, 276
양오진 211
양정석 142
양정호 65
양지선 356, 357
양태식 305
양현민 364
엄수진 43
엄홍준 131
엄훈 290, 293, 294
여준기 266
여찬영 222
연규동 249
연재훈 64
염은열 299, 321
염창권 316, 370
염혜정 300
염혜진 284
오문경 364
오민석 124
오새내 267

오선경 364
오선영 358
오승신 94
오영순 191
오윤선 302
오장근 163
오재혁 43
오정은 145
오정훈 305
오종훈 191
오지혜 357
오찬세 301
오충연 137
오현아 260
옥철영 163, 194
왕문용 307
왕청청 368
왕한석 254
우메다히로유키 348
우순조 80, 96
우영란 348
우은실 297
우재숙 199
우창현 98
우한용 296, 311, 315
우형식 94, 346
원지희 291
유경 308
유동엽 285, 286, 287
유승섭 93
유승애 301
유영희 320, 329
유은종 180
유재선 353
유철상 315
유필재 37
유하라 81
유현경 89, 94, 195
유혜령 308
유혜원 119, 190, 200
유희숙 338
윤국한 304
윤금선 322, 341
윤다운 283
윤미진 43
윤애선 189, 200
윤여탁 342
윤영해 59
윤용선 108, 215, 221
윤유선 346
윤은경 137
윤인진 254
윤종열 108
윤준채 288, 325, 326

윤해연 348
윤혜리 365
윤희원 339
이강명 298
이강엽 284
이건수 125
이경미 323
이경은 286
이경자 164
이경화 327, 334, 335
이관규 303, 326
이광호 71, 165
이규호 84, 214
이근용 112, 377
이금희 85, 117, 217
이기갑 172, 241
이기문 208
이기연 304
이기호 284
이남호 341
이노국 292, 293
이대균 316
이도영 281, 282, 283
이돈주 210
이동배 333
이동석 57, 167, 260, 305
이동혁 163, 177, 192
이리나 161
이문규 56, 282
이미숙 321, 322
이미향 42, 59, 352, 353
이미혜 366
이민행 175, 187
이병규 94, 303, 304, 346
이병근선생퇴임기념 107
이병기 91, 108, 118, 168, 215, 229
이병민 299
이병승 299
이병운 346
이복영 37
이삼형 346
이상규 275, 346
이상금 98
이상녀 41, 267
이상억 38
이상욱 81
이상일 334
이상직 49
이상태 57, 251, 326, 339
이상혁 212
이상화 332
이석규 331
이석란 377

이선영 163
이선웅 101, 107, 143, 307
이선희 94
이성건 301
이성만 177
이성연 334
이성영 288, 299, 330, 330, 334
이소연 352, 353
이수련 179
이수진 334
이수희 288
이숙 125, 133
이숙경 65
이숙영 306
이숙의 163
이순영 289
이승구 335
이승연 188, 211, 377
이승재 64, 228
이승철 337
이승후 249
이승희 107
이아경 317
이양혜 69
이연승 316
이영경 199
이영성 191
이영숙 299
이영식 292
이영의 340
이영준 298
이영호 318
이용 229
이용훈 199
이원경 163
이유미 173, 178
이유신 309
이윤경 59, 257, 306
이윤영 358
이윤진 357
이윤하 107, 126
이윤희 257
이은경 298
이은규 196
이은선 57
이은섭 108, 126, 126
이은영 257
이은주 238, 332, 368
이은희 143, 308, 349
이익섭 209
이임순 323
이자련 373
이장희 52, 56, 268

이재기 300, 327, 328, 330
이재성 138, 191
이재승 295, 299, 300, 325
이재철 130
이전경 201, 228
이정기 305
이정복 256, 259, 264, 271, 308
이정숙㉠ 297, 338, 338
이정애 180
이정택 95, 120, 133, 143, 149, 233
이정환 312
이정훈 79, 93, 145, 149
이정희 346, 347, 348
이종국 329
이종근 113
이종열 178
이종운 245
이종혁 199
이종희 94, 195
이주원 190
이주행 239, 359
이준석 212
이지선 305
이지연 83
이지영 361, 365
이지혜 323
이진호 48, 49, 69
이찬규 180
이창근 309
이창덕 174, 284
이창호 212
이충우 305, 338, 338
이카라시 고이치 64
이태영 193
이필영 84, 108, 138, 242, 285
이하나 360
이해영 368
이향화 374
이현아 192
이현주 143, 308
이현희 64, 65, 70
이혜영 174, 265
이호권 221
이호승 113, 131
이홍식 118, 168
이화수 331
이황직 301
이희넝 284
이희자 94, 195, 199, 358
이희진 192
일본 국립국어연구소 441
임경섭 190

임경순 310, 325
임규홍 304
임근석 127
임동훈 73, 83, 107, 114, 134
임명걸 368
임성규 295, 297, 305, 317
임승선 370
임영규 292
임영철 273
임용기 207
임정연 330
임지룡 178, 179, 180, 304
임지아 357
임지원 47
임지희 163
임창국 114, 127
임채훈 139, 169, 180
임천택 299, 300
임칠성 298, 331, 334
임홍빈 108, 95
임효례 333

(ㅈ)

장경준 229
장경희 175, 242, 285
장미라 98
장미영 370
장미희 331
장소원 64
장수정 356
장숙영 88, 218
장영길 158
장요한 217, 92
장윤희 75, 78, 108, 213, 307
장은아 366, 372
장은영 192
장인옥 100
장정렬 348
장주화 354, 355, 357
장향실 211, 365
장혜진 42, 44, 45, 46, 267
전광현 210
전국국어교사모임 329
전상범 68
전선경 373
전영옥 197
전영철 132
전용호 341
전원범 319, 320
전윤실 46
전은주 286, 330
전은진 174, 242, 285
전정미 175

전제응 299
전지현 271
전철웅 55
전혜영 174, 269
정경일 51, 250
정경재 212
정광 208, 211, 212, 230
정길남 232, 342
정다와 284
정란 368
정미라 306
정미숙 305
정상섭 282, 283, 286
정선임 332
정성미 97
정수희 263
정승철 226, 227
정승혜 211
정언학 86, 214, 216
정여훈 260
정연창 130
정연희 317, 368
정영주 298
정영희 286
정옥란 334
정용길 119
정우기 320
정은희 308
정인호 37, 54
정재영 226, 230, 230
정재찬 312, 326, 327, 331
정재형 297
정정순 312, 313
정종수 178
정주리 88, 128, 168, 307, 308
정진원 229
정진화 308
정철 199
정태경 163
정태진 196
정현선 321, 322, 323, 324
정혜선 88
정혜승 288, 293, 331, 332, 334, 342
정호완 162
정희모 298
정희성 194
정희영 91
정희정 94, 195
정희창 79, 243, 299
제등명미 374
조가 44
조경순 128
조경하 41

조국선 306
조규태 92, 158, 161, 217
조남호 159
조동성 244
조미숙 342
조민정 94
조상우 298
조상진 258
조선경 254, 255, 356
조수현 370
조아라 373
조용준 373
조은경 175, 187, 187
조은호 357
조은희 305
조인정 376, 377
조일규 75
조일제 292
조재수 201
조재윤 285
조재형 214
조창규 307
조태린 261, 271
조항범 159, 160, 161, 162, 170
조현용 346, 347
조형일 186, 357
조희정 311, 314, 319, 320
주강식 316
주명진 353
주세형 303, 305, 309
(주)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443
주중연 291
(주)지어소프트 442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241
지춘수 209
지현배 363
지현숙 377
진기호 360
진대연 357, 365
진명숙 292
진선희 291, 316, 320, 322
진제희 272
진혜림 286

(ㅊ)

차숙정 375, 377
차재윤 178
차재은 187
차혜영 329
차호일 294
채숙희 366

채완 79, 178, 346
채현식 67, 77, 178
천경록 291, 292, 293, 338
최경봉 250, 304, 307
최경희 275, 290, 299
최권진 362, 367
최규수 302, 64
최기선 191, 194
최기용 134, 144
최남희 107
최동주 64
최명옥 67, 240
최명환 299, 300, 300
최미숙 316, 317, 333, 336
최복자 284
최상홍 45
최선영 318
최선화 192, 200
최성덕 233
최소영 317
최수진 368
최숙기 334, 335
최순애 46
최승숙 298
최연주 370
최영숙 46
최영환 326, 327, 328, 340
최용기 250, 335
최운호 178, 187
최웅환 233
최원평 51
최윤현 39
최은규 346, 348, 366
최인자 320, 321, 322, 328
최정순 346, 369
최정진 128
최정혜 170, 212
최주원 285
최중호 51
최지원 192
최지현 311, 316, 321, 322, 338, 340
최창렬 161
최창원 44
최해주 360
최향순 284
최형강 107, 129, 135, 169
최형용 74, 77, 149
최혜원 245
최혜정 276
최혜진 314
최호섭 163
최호철 180, 307
최홍열 158

최홍원 321

(ㅌ)

탯말 두레 384

(ㅍ)

플랑크와 카박 64
필신연 368

(ㅎ)

하귀녀 201
하길종 79, 166
하대현 291
하민탄 349
하세경 40, 75
하수정 356
하정수 74
하진희 170
하치근 66, 104, 234
학미 42, 44
한건우 298
한국독서학회 294
한국색채연구소 196
한국시각장애재활교육학회 252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94
한국어의미학회 155
한국작문학회 301
한국점자연구회 252
한귀은 317, 318, 319, 320, 324, 335
한글학회 154, 160
한금윤 294
한기현 291
한길 68
한말연구학회 39
한명숙 310, 334, 335
한명주 100
한성우 37, 50, 54
한성일 177
한송화 94, 195, 358
한수정 43
한영균 186, 202
한영목 234, 241
한영옥 265
한영환 324
한재영 103, 107
한정희 298
한창훈 311, 312
함희진 65

허동진 68
허병두 292, 293
허용 49, 50, 346, 349, 364
허원욱 108
허재영 102, 232, 233, 276, 294, 300, 309, 329, 330, 336, 342, 370
허철구 146
현빈 308
형태론 편집위원회 64
호광수 232
홍미주 51, 273
홍사만 220
홍세아 93
홍애란 365
홍용철 144
홍윤기 78, 358, 359
홍윤표 160, 207, 208, 226
홍은진 375, 377
홍정은 306
홍종선 64, 65, 190, 200, 210
홍지은 306
홍진희 336
홍현정 290
홍혜련 349
황경수 231, 346
황문환 74, 107
황병순 140
황선엽 201, 214, 226, 229, 230
황수경 290
황용주 171
황원희 291
황은하 203
황인교 363
황재성 246
황정현 311, 314, 334, 335
황종 354, 357
황현숙 42, 351, 354
황현주 370
황혜숙 354, 369
황혜진 321, 341
황화상 70, 73, 80, 115, 160, 193
후지모토 유키오 208
히로 다카시 212

Jin-sook Choi 270
John Mar D. Minguillan 171
Kyong-ae Yu 269
Kyu-hyun Kim 272
Kyung-hee Suh 272

Lee Smith Angela 357
Mozol Tatiana 44, 353, 354
Nam Victor 349
Neer Ja Singh 349
SBS 362
Yun-joo Park 274

谷崎美津子 356, 357
郭爽 354, 357
金公七 160
金鎭海 240
吉本一 178, 179
譚麗麗 175
朴錠奎 247
裵株彩 247
申智妍 177
梁水香 377
禹尙烈 348
鄭丞惠 349
齊藤明美 224, 225
崔尙鎭 240
祝翠瑛 354, 356
韓在永 357

담당 연구원: 이승재(학예연구관)
정상은(분석 요원)

국어 연감 2007

2007년 12월 30일 인쇄
2007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이 상 규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827
전화: (02)2669 - 9601
전송: (02)2669 - 9727

제자(題字): 송은 심우식(서예가)
비매품

절취선

책받음표

책이름: 국어 연감 2007
부 수: 부

위와 같이 받았음.

2008. . .

받은이:
주소:
소속:
직위 직급:

※ 보낼 곳
157-857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827
국립국어원 국어 연감 담당자